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95-10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구 외교사료해제집)

1992(Ⅰ)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본 책자는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책자의 성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책자의 제목을 「외교사료해제집」에서 「외교문서요약집」으로 변경하였다.

2. 본 책자는 2023년에 공개된 1992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문서철별 내용을 요약·기술하고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요약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요약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요약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 단, 요약문에서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언급 시에는 당시 자료 제목을 그대로 표기

5. 본 책자는 목차, 본문, 부록(1992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도

0001 1992년도 주요 외교업무계획 보고 ····· 32
0002 재외공관 공용차량 관리 규정 ····· 33
000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34
0004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안 검토 ····· 35
0005 한국인권 문제 관련 구주의회 동향 ····· 36
0006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전2권 (V.1 1-4월) ····· 37
0007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전2권 (V.2 5-12월) ····· 38
0008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임명장 수여식 ····· 39
0009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 건의 ····· 40
0010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 41
0011 대사파견 - 중국 ····· 42
0012 대사파견 - 덴마크 ····· 43
0013 대사파견 - 엘살바도르 ····· 44
0014 대사파견 - 피지 ····· 45
0015 대사파견 - 가봉 ····· 46
0016 대사파견 - 가나 ····· 47
0017 대사파견 - 이란 ····· 48
0018 대사파견 - 자메이카, 1991 ····· 49
0019 대사파견 - 자메이카, 1992 ····· 50
0020 대사파견 - 케냐 ····· 51
0021 대사파견 - 쿠웨이트 ····· 52
0022 대사파견 - 말레이시아 ····· 53
0023 대사파견 - 나이지리아 ····· 54
0024 대사파견 - 네덜란드 ····· 55
0025 대사파견 - 뉴질랜드 ····· 56
0026 대사파견 - 오만 ····· 57
0027 대사파견 - 파키스탄 ····· 58
0028 대사파견 - 폴란드 ····· 59
0029 대사파견 - 파라과이 ····· 60
0030 대사파견 - 파푸아뉴기니 ····· 61
0031 대사파견 - 페루 ····· 62
0032 대사파견 - 카타르 ····· 63
0033 대사파견 - 러시아 ····· 64
0034 대사파견 - 스웨덴 ····· 65
0035 대사파견 - 소말리아 ····· 66
0036 대사파견 - 태국 ····· 67
0037 대사파견 - 튀니지 ····· 68
0038 대사파견 - 트리니다드토바고 ····· 69
0039 대사파견 - 터키 ····· 70
0040 대사파견 - UNESCO 대표부 ····· 71
0041 대사파견 - 우간다 ····· 72
0042 대사파견 - 유엔 ····· 73
0043 대사파견 - 잠비아 ····· 74
0044 대사파견 - 자이르 ····· 75
0045 대사부임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부 ····· 76
0046 대사부임 - 앙골라 ····· 77

0047 대사부임 - 불가리아 ····· 78
0048 대사부임 - 볼리비아 ····· 79
0049 대사부임 - 콜롬비아 ····· 80
0050 대사부임 - 코스타리카 ····· 81
0051 대사부임 - 중국 ····· 82
0052 대사부임 - 체코슬로바키아 ····· 83
0053 대사부임 - 에티오피아 ····· 84
0054 대사부임 - 가이아나 ····· 85
0055 대사부임 - 교황청 ····· 86
0056 대사부임 - 아이티 ····· 87
0057 대사부임 - 인도 ····· 88
0058 대사부임 - 이란 ····· 89
0059 대사부임 - 이스라엘 ····· 90
0060 대사부임 - 코트디부아르 ····· 91
0061 대사부임 - 자메이카 ····· 92
0062 대사부임 - 요르단 ····· 93
0063 대사부임 - 쿠웨이트 ····· 94
0064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 95
0065 대사부임 - 몰타 ····· 96
0066 대사부임 - 필리핀 ····· 97
0067 대사부임 - 파푸아뉴기니 ····· 98
0068 대사부임 - 페루 ····· 99
0069 대사부임 - 러시아 ····· 100
0070 대사부임 - 세네갈 ····· 101
0071 대사부임 - 우간다 ····· 102
0072 영사위임장 발급 ····· 103
0073 최정환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 접수 ····· 104
0074 김희용 주한 불가리아 명예영사 접수 ····· 105
0075 박재익 주한 에스토니아 명예영사 접수 ····· 106
0076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영사 접수 ····· 107
0077 주한 자메이카 명예영사 접수 ····· 108
0078 김홍근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 접수 ····· 109
0079 이종록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 접수 ····· 110
0080 정범식 주한 루마니아 명예영사 접수 ····· 111
0081 중남미지역 명예영사 접수 ····· 112
0082 Jacob Helo, Miguel 주Santiago(칠레) 명예총영사 임명, 1992.2.18. ····· 114
0083 주Nouadiv(모리타니) 명예영사 임명 ····· 115
0084 Seeyave, Antoine A.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해임 검토 ····· 116
0085 구주지역 명예영사 임명 ····· 117
0086 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 118
0087 노태우 대통령 주최 주한 외교단 초청 만찬, 1992.2.7. ····· 119
0088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전2권 (V.1 1991.7-9월) ····· 120
0089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전2권 (V.2 1991.10월-92) ····· 121
0090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 123
0091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변 건물 신축 문제 ····· 124
009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직원주택 신축 ····· 125
0093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 부지 취득세 부과 문제 ····· 126
0094 주한 폴란드대사관 공관부지 취득 문제 ····· 127

0095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매입 지원 문제 ····· 128
0096 주한 태국대사관 무관용 주택 매입 ····· 129
0097 주한 터키대사관 관저매입 문제 ····· 130
0098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1 1986-87) ····· 131
0099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2 1988) ····· 132
0100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3 1989-90) ····· 133
0101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4 1991-92) ····· 134
0102 주한공관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 135
0103 주한 서울독일학교의 법적지위 검토 ····· 136
0104 이라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 ····· 137
0105 미국의 대요르단 추가지원 요청 ····· 138
0106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1 보고 및 면담 자료) ····· 139
0107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회의) ····· 140
0108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3 근로자 수송대책) ····· 141
0109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4 안전장화 수출문제) ····· 142
0110 유엔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및 우리의 대응 ····· 143
0111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 정부조사단 중동 및 터키 순방, 1990.10.27.-11.8. : 기본문서) ····· 144
0112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2 정부조사단 중동 및 터키 순방, 1990.10.27.-11.8. : 자료) ····· 145
0113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3 이집트 I : 1990.8-91.6월) ····· 146
0114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4 이집트 II : 1991.7-9월) ····· 147
0115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5 이집트 III : 1991.10-92.9월) ····· 148
0116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6 요르단 I : 1990.9-91.3월) ····· 149
0117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7 요르단 II : 1991.4-12월) ····· 150
0118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8 요르단 III : 1992) ····· 151
0119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9 터키, 1990-91) ····· 152
0120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0 모로코, 1990-91) ····· 153
0121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1 쿠웨이트, 1991) ····· 154
0122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2 기타) ····· 155
0123 한·캐나다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2.7.2. ····· 156
0124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제4차. sydney(호주), 1992.10.11.-13. ····· 157
0125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92.4.30.-5.1. 전2권 (V.1 기본문서) ····· 158
0126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92.4.30.-5.1. 전2권 (V.2 자료) ····· 159
0127 미국 주요인사와의 서한 ····· 160
0128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계 ····· 161
0129 한·알제리 관계 ····· 162
0130 한·앙골라 관계 ····· 163
0131 한·알바니아 관계 ····· 164
0132 한·아르헨티나 관계 ····· 165
0133 한·호주 정무일반 ····· 166
0134 한·오스트리아 관계 ····· 167
0135 한·방글라데시 정무일반 ····· 168
0136 한·벨기에 정무일반 ····· 169
0137 한·부탄 정무일반 ····· 170
0138 한·불가리아 관계 ····· 171
0139 한·미얀마 정무일반 ····· 172
0140 한·브라질 관계 ····· 173
0141 한·볼리비아 정무일반 ····· 174
0142 한·베냉 관계 ····· 175

0143 칠레 테무코 기독병원 건립 문제 ····· 176
0144 한·칠레 관계 ····· 177
0145 한·콜롬비아 관계 ····· 178
0146 한국 종교계의 중국 내 선교활동 문제 ····· 179
0147 중국의 한국 언론인 취재 입국 허가 ····· 180
0148 한·중국 정무일반 ····· 181
0149 한·카보베르데 관계 ····· 182
0150 한·체코슬로바키아 정무일반 ····· 183
0151 한·지부티 관계 ····· 185
0152 한·도미니카공화국 관계 ····· 186
0153 한·에콰도르 관계 ····· 187
0154 한·발트3국 관계 ····· 188
0155 한·엘살바도르 정무일반 ····· 189
0156 한·에티오피아 관계 ····· 190
0157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 191
0158 한·프랑스 정무일반 ····· 192
0159 한·감비아 관계 ····· 193
0160 한·가나 관계 ····· 194
0161 한·과테말라 관계 ····· 195
0162 한·헝가리 정무일반 ····· 196
0163 한·홍콩 관계 ····· 197
0164 한·교황청 정무일반 ····· 198
0165 한·인도 관계 ····· 199
0166 한·아일랜드 관계 ····· 200
0167 한·이란 정무일반 ····· 201
0168 한·이스라엘 관계 ····· 202
0169 한·이탈리아 정무일반 ····· 203
0170 한·일본 정무일반 ····· 204
0171 한·요르단 정무일반 ····· 205
0172 한·케냐 정무일반 ····· 206
0173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 207
0174 한·카자흐스탄 관계 ····· 208
0175 한·레바논 관계 ····· 209
0176 한·말레이시아 관계 ····· 210
0177 한·몽골 정무일반 ····· 211
0178 한·말리 관계 ····· 212
0179 한·멕시코 정무일반 ····· 213
0180 한·모잠비크 관계 ····· 214
0181 한·나우루 관계 ····· 215
0182 한·네팔 관계 ····· 216
0183 한·네덜란드 관계 ····· 217
0184 한·뉴질랜드 정무일반 ····· 218
0185 한·오만 정무일반 ····· 219
0186 한·파키스탄 관계 ····· 220
0187 한·폴란드 관계 ····· 221
0188 한·파라과이 관계 ····· 222
0189 한·필리핀 정무일반 ····· 223
0190 한·페루 관계 ····· 224

0191 한·러시아 정무일반 ····· 226
0192 한·루마니아 정무일반 ····· 227
0193 한·사우디아라비아 관계 ····· 228
0194 한·세네갈 관계 ····· 229
0195 한·수단 정무일반 ····· 230
0196 한·슬로베니아 관계 ····· 231
0197 한·스와질랜드 관계 ····· 232
0198 한·스위스 정무일반 ····· 233
0199 한·태국 정무일반 ····· 234
0200 한·튀니지 관계 ····· 235
0201 한·통가 정무일반 ····· 236
0202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정무일반 ····· 237
0203 한·터키 정무일반 ····· 238
0204 한·우크라이나 관계 ····· 239
0205 한·우간다 정무일반 ····· 240
0206 한·영국 관계 ····· 241
0207 한·미국 정무일반 ····· 242
0208 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전2권 (V.1 8-10월) ····· 243
0209 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전2권 (V.2 11월) ····· 244
0210 한·우루과이 관계 ····· 245
0211 한·베트남 정무일반 ····· 246
0212 한·베네수엘라 관계 ····· 247
0213 한·유고슬라비아 관계 ····· 248
0214 한·예멘 정무일반 ····· 249
0215 한·잠비아 관계 ····· 250
0216 한·자이르 관계 ····· 251
0217 한·아프가니스탄 관계개선 ····· 252
0218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1 1981 I : 경제사절단 방문·방한) ····· 253
0219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2 1981 II : 기타 관계개선 추진) ····· 254
0220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3 1982-84) ····· 255
0221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4 1985) ····· 256
0222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5 1986) ····· 257
0223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6 1987-89) ····· 258
0224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7 1990) ····· 259
0225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8 1991-92) ····· 260
0226 한·캄보디아 관계개선 ····· 261
0227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5 공동성명) ····· 262
0228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7 각국반응 I) ····· 263
0229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8 각국반응 II) ····· 264
0230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9 각국반응 III) ····· 265
0231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20 후속조치) ····· 266
0232 국교수립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1992.11.18. ····· 267
0233 국교수립 -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및 조지아 ····· 268
0234 한·러시아(구소련) 관계 변화에 대한 일본 반응 ····· 269
0235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1 1974-81) ····· 270
0236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2 1982-85) ····· 271
0237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3 1986-87) ····· 272
0238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4 1988-89) ····· 273

0239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5 1990) ····· 274
0240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6 1991) ····· 275
0241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7 1992) ····· 276
0242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1 1990) ····· 277
0243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2 1991.1-9월) ····· 279
0244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5 1992.10-12월) ····· 280
0245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6 이상옥 외무장관 방문자료) ····· 281
0246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내 재외공관 설치 검토 ····· 282
0247 재외공관 폐쇄 - 아이티, 1992.1.31. ····· 283
0248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문제. 전3권 (V.1 1-8월) ····· 284
0249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문제. 전3권 (V.2 9-12월) ····· 285
0250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문제. 전3권 (V.3 기타) ····· 286
0251 주리비아대사관의 몰타 겸임 조정 건의 ····· 287
0252 재외공관 폐쇄 - 모리셔스, 1992.1.31. ····· 288
0253 재외공관 폐쇄 - 말라위, 1992.3.31. ····· 289
0254 니카라과 겸임공관 변경 ····· 290
0255 재외공관 설치 - 블라디보스톡(러시아)총영사관, 1992.10.5. 전2권 (V.1 1991-92.7월) ····· 291
0256 재외공관 설치 - 블라디보스톡(러시아)총영사관, 1992.10.5. 전2권 (V.2 1992.8-12월) ····· 292
0257 재외공관 폐쇄 - 시에라리온, 1992.3.5. ····· 293
0258 재외공관 폐쇄 - 소말리아, 1992.3.31. ····· 294
0259 재외공관 설치 - 탄자니아, 1992.10.21. ····· 295
0260 재외공관 설치 - 베트남, 1992.12.22. ····· 296
0261 아프리카지역 공관 폐쇄 검토 ····· 297
0262 자이르 주재 공관원 및 동포 철수 ····· 298
0263 주한공관 설치 - 알제리, 1992.10.8. ····· 299
0264 주한공관 설치 - 중국, 1992.8.27. ····· 300
0265 주한공관 설치 - 쿠웨이트, 1992.10.5. ····· 301
0266 주한공관 설치 - 카타르, 1992.2.20. ····· 302
0267 주한공관 설치 - 베트남 ····· 303
0268 ASEAN 정상회담, 제4차. Singapore, 1992.1.27.-28. ····· 304
0269 ASEAN 외무장관회담, 제25차. Manila(필리핀), 1992.7.21.-22. ····· 305
0270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1 사전준비 I : 2-6월) ····· 306
0271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2 사전준비 II : 7.1.-22.) ··· 307
0272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3 결과 후속조치) ····· 308
0273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4 개별 외무장관회담 I : 기본문서) ····· 309
0274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5 개별 외무장관회담 II : 자료) ····· 310
0275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6 6+1 회의) ····· 311
0276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7 자료) ····· 312
0277 SPF(남태평양포럼) 정상회담, 제23차. Honiara(솔로몬제도), 1992.7.8.-9. ····· 313
0278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32차. Suva(피지), 1992.10.27.-29. ····· 314
0279 ASEAN 합작사업(AIJV) ····· 315
0280 한·ASEAN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JMC), 제3-5차. Jakarta(인도네시아) ····· 316
0281 한·ASEAN 협력사업 : 아세안산업 투자수요조사 ····· 317
0282 한·ASEAN 협력사업 : 과학기술 협력사업 ····· 318
0283 한·ASEAN 협력사업 : 관광 분야 ····· 319
0284 한·ASEAN 협력사업 : 컴퓨터사업 ····· 320

0285 한·ASEAN 협력사업 : 보험 및 관세 분야 ····· 321
0286 한·ASEAN 협력사업 : 귀금속시장 세미나 ····· 322
0287 한·ASEAN 협력사업 계획 검토. 전2권 (V.1 1-4월) ····· 323
0288 한·ASEAN 협력사업 계획 검토. 전2권 (V.2 5-12월) ····· 324
0289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FFTC(식량비료기술센터) 회의 ····· 325
0290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영화제. 제15-20차 ····· 326
0291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임명 ····· 327
0292 리오그룹 회의 ····· 328
0293 중미 정상회의. 제12-13차 ····· 329
0294 OAS(미주기구) 총회, 제22차. Nassau(바하마), 1992.5.18.-23. ····· 330
0295 OAS(미주기주)/IICA(미주농업협력기구) 집행위원회, 제12차. San Jose(코스타리카), 1992.6.22.-25. ····· 331
0296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 332
0297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 333
0298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및 동향 ····· 334
0299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독립승인, 1992.4.15. ····· 335
0300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전3권 (V.1 한국의 승인조치) ····· 336
0301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전3권 (V.2 우크라이나 독립 움직임) ····· 337
0302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전3권 (V.3 각국의 승인 현황) ····· 338
0303 체코 및 슬로바키아 승인 ····· 339
0304 일본 및 각국 정부의 전쟁피해 보상 사례 ····· 340
0305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향 ····· 341
0306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 342
0307 주한 미국문화원(서울) 방화사건 및 피해 보상문제 ····· 343
030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총리회담.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12. ····· 344
0309 한·EC(구주공동체) Troika 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5. ····· 345
0310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 북경, 1992.4.14. ····· 346
0311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New York, 1992.9.23. ····· 347
0312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6차. 동경, 1991.4.24.-26. 전3권 (V.1 사전준비) ····· 348
0313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6차. 동경, 1991.4.24.-26. 전3권 (V.2 결과) ····· 349
031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6차. 동경, 1991.4.24.-26. 전3권 (V.3 자료) ····· 350
0315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 회담.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1.7.24. ···· 351
0316 제4차 APEC 각료회의 참석 계기 일본 주요인사 회담. Bangkok, 1992.9.9.-10. ····· 352
0317 독립국가연합(CIS) 원조 국제회의 참석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동경, 1992.10.30. ····· 353
0318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New York, 1992.9.21. ····· 354
0319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4차. Canberra, 1992.2.17.-18. ····· 355
0320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2.6.17. ····· 356
0321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4차. Paris, 1992.5.26. ····· 357
0322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7차. 서울, 1992.5.1. ····· 358
0323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9차. 동경, 1992.3.26. ····· 359
0324 한·일본 중동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2.7.24. ····· 360
0325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제3차. Wellington, 1992.2.13. ····· 361
0326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제1차. Warsaw, 1992.12.3. ····· 362
0327 한·태국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92.12.11. ····· 363
0328 민주회복국가 회의 ····· 364
0329 APPLF(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회의, 제1차. Kona(Hawaii), 1992.4.23.-25. 전2권 (V.1 기본문서) ····· 365
0330 APPLF(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회의, 제1차. Kona(Hawaii), 1992.4.23.-25. 전2권 (V.2 각국 대표단) ··· 366
0331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 기본계획 I(1월)) ····· 367
0332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2 기본계획 II(2-3월)) ····· 368

0333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3 행사준비 I(1월-2.11.)) ····· 369
0334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4 행사준비 II(2.12.-25.)) ····· 370
0335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5 행사준비 III(2.26.-3월)) ····· 371
0336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6 장관 개별면담 및 말씀자료) ····· 372
0337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7 전체회의 I) ····· 373
0338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8 전체회의 II) ····· 374
0339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9 지역별회의 : 아주 I) ····· 375
0340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0 지역별회의 : 아주 II) ····· 376
0341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1 지역별회의 : 미주 I) ····· 377
0342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2 지역별회의 : 미주 II) ····· 378
0343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3 지역별회의 : 구주 I) ····· 379
0344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4 지역별회의 : 구주 II) ····· 380
0345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5 지역별회의 : 아중동 I) ····· 381
0346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6 지역별회의 : 아중동 II) ····· 382
0347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7 결과보고 및 토의록) ····· 383
0348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8 공관 건의사항 및 조치 I(2.20.-3.5.)) ····· 385
0349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9 공관 건의사항 및 조치 II(3.6.-31.)) ····· 386
0350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20 공관 건의사항 및 조치 III(4-5월)) ····· 387
0351 관내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1992년도 - 캐나다. Vancouver, 1992.5.7.-8. ····· 388
0352 공관장회의, 1992년도 - EC(구주공동체)지역. London, 1992.9.4.-5. ····· 389
0353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독일. Bonn, 1992.11.19.-21. ····· 390
0354 총영사회의, 1992년도 - 일본. 오사카, 1992.3.26.-27. ····· 391
0355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Atlanta, 1992.3.21.-22. 전3권 (V.1 기본문서) ····· 392
0356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Atlanta, 1992.3.21.-22. 전3권 (V.2 자료 I) ····· 393
0357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Atlanta, 1992.3.21.-22. 전3권 (V.3 자료 II) ····· 394
0358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제2차. Washington D.C., 1992.11.20.-23. ····· 395
0359 중동구지역 공관장 협의회, 제1차. Prague, 1992.11.30. 전2권 (V.1 기본문서) ····· 396
0360 중동구지역 공관장 협의회, 제1차. Prague, 1992.11.30. 전2권 (V.2 자료) ····· 397
0361 MERCOSUR(남미공동시장) 지역 공관장 협의회. Brasilia, 1992.10.8.-9. ····· 398
0362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서울, 1992.10.12. ····· 399
0363 한·미국 간 러시아 전문가 회의, 제8차. 서울, 1992.6.1.-2. ····· 400
0364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 제4차. 북경, 1992.8.19.-23. ····· 401
0365 한·중국 학술회의, 제1차. 서울, 1992.11.11.-12. ····· 402
0366 한·미국·일본 3자 관계 세미나. 부산, 1992.10.22.-23. ····· 403
0367 한·미국 언론학회 학술회의. Montreal, 1992.8.5.-8. ····· 404
0368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주관 학술회의. Washington D.C. ····· 405
0369 미국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 406
0370 Asia Society 한반도 세미나 ····· 407
0371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 제2-4차 ····· 409
0372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0회. 동경, 1992.10.1.-3. ····· 410
0373 한·일본 협력위원회 ····· 411
0374 1992년도 외빈 방한 접수계획 및 현황 ····· 412
0375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1992.9.27.-30. 전6권 (V.2 계기별 말씀자료) ····· 413
0376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1992.9.27.-30. 전6권 (V.5 해외 언론반응) ····· 414
0377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1992.9.27.-30. 전6권 (V.6 감사서한) ····· 415
0378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1 선발대) ····· 416
0379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2 일정 I : 8월-9.24.) ····· 417
038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3 일정 II : 9.25.-10월) ····· 418

0381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4 상하이 일정) ····· 419
0382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5 수행원) ····· 420
0383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6 특별기/경호/통신) ····· 421
0384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7 숙소/인력지원) ····· 422
0385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8 의전용품/선물) ····· 423
0386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9 예산 I) ····· 424
0387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10 예산 II) ····· 425
0388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1 사전준비) ····· 426
0389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2 정상회담) ····· 427
0390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3 자료 I) ····· 428
0391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4 자료 II) ····· 429
0392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1 일정 및 준비) ····· 430
0393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2 수행 및 경호) ····· 431
0394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3 참고자료) ····· 432
0395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4 예산) ····· 433
0396 노태우 대통령 스페인, 태국 및 싱가포르 방문계획 ····· 434
0397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1 기본문서) ····· 435
039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2 주요 일정 I) ····· 436
039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3 주요 일정 II) ····· 437
040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4 자료) ····· 438
0401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 준비현황) ····· 439
040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2 선발대) ····· 440
0403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3 일정 I : 유엔) ····· 441
0404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4 일정 II : 미국) ····· 442
0405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5 연회) ····· 443
0406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6 수행원/공보협조) ····· 444
0407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7 경호/숙소) ····· 445
040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8 차량/인력지원) ····· 446
040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9 항공기/출입국) ····· 447
041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0 의전용품 및 선물) ····· 448
0411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1 소요예산) ····· 449
041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2 경비 집행) ····· 450
0413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1 사전준비) ····· 451
0414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2 영접계획) ····· 452
0415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3 오·만찬 및 연설문) ····· 453
0416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4 결과 및 후속조치) ····· 454
0417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5 자료 I(회담자료/말씀자료)) ····· 455
0418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6 자료 II(참고자료)) ····· 456
0419 Franco, Itamar 브라질 부통령 방한초청 계획 ····· 457
0420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1 사전준비 I (1990.11-92.4월)) ····· 458
0421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2 사전준비 II (1992.5월)) ····· 459
0422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3 의전 : 영접준비) ····· 460
0423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4 청와대 만찬 및 결과보고) ····· 461
0424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5 자료) ····· 462
0425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1 사전준비) ····· 463
0426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2 의전 I : 3월-4.10.) ····· 464
0427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3 의전 II : 4.11.-27.) ····· 465
0428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4 경제협력 세미나) ····· 466

0429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5 결과 및 후속조치) ····· 467
0430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6 회담자료/말씀자료) ····· 468
0431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7 참고자료) ····· 469
0432 Bongo, El 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계획 ····· 470
0433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1 사전준비 I : 1991.9-92.7월) ····· 471
0434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2 사전준비 II : 1992.8월) ····· 472
0435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3 영접계획) ····· 473
0436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4 청와대 만찬) ····· 474
0437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5 결과 및 후속조치) ····· 475
0438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6 자료) ····· 476
0439 Gonchigdorj, Radnaasumbereliin 몽골 국회의장 겸 부통령 방한, 1992.2.9.-13. ····· 477
0440 Macapagal, Diosdado 전 필리핀 대통령 방한 ····· 478
0441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계획 ····· 479
0442 Gorbachov, M. 전 소련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전2권 (V.1 1991-92.6월) ····· 480
0443 Gorbachov, M. 전 소련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전2권 (V.2 1992.7-12월) ····· 481
0444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 사전준비 I(1990-92.8월)) ····· 482
0445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2 사전준비 II(1992.9-11월)) ····· 483
0446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3 사전준비 III(경제)) ····· 484
0447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4 결과 및 후속조치) ····· 485
0448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5 공동성명) ····· 487
0449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6 의전 I : 일정/선발대) ····· 488
0450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7 의전 II : 의전행사) ····· 489
0451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8 의전 III : 관계기관 협조) ····· 490
0452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9 홍보 및 언론보도) ····· 491
0453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0 경제인 세미나) ····· 492
0454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1 자료 I) ····· 493
0455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2 자료 II) ····· 494
0456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3 자료 III) ····· 495
0457 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 방한, 1992.5.19.-24. 전2권 (V.1 기본문서) ····· 496
0458 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 방한, 1992.5.19.-24. 전2권 (V.2 의전) ····· 497
0459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1 사전교섭) ····· 498
0460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2 선발대 방한) ····· 499
0461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3 일정 및 의전) ····· 500
0462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4 오·만찬) ····· 501
0463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5 기관방문 및 자료) ····· 502
0464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1 기본문서 I : 1990.10-91.10월) ····· 503
0465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2 기본문서 II : 1991.11월-12.22.) ····· 504
0466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3 기본문서 III : 1991.12.23.-92.1월) ····· 505
0467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4 영접계획/의전행사) ····· 506
0468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5 결과/언론보도) ····· 507
0469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6 자료 I : 정상회담 자료) ····· 508
0470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7 자료 II : 통상현안 대책자료) ····· 509
0471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1 기본문서) ····· 510
0472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2 관계와 협력원칙 선언) ····· 511
0473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3 의전 I) ····· 512
0474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4 의전 II) ····· 513
0475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5 자료) ····· 514
0476 Perez, Carlos Andres 베네수엘라 대통령 방한 계획 ····· 515

0477 정원식 국무총리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방문, 1992.6.7.-22. ····· 516
0478 Kostikov, Nikolai 벨라루스 부총리 방한, 1992.3.25.-27. ····· 517
0479 Hun Sen 캄보디아 수상 방한계획 ····· 518
0480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수상 방한, 1992.1.16.-18. 전6권 (V.3 의전 I : 영접준비) ····· 519
0481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수상 방한, 1992.1.16.-18. 전6권 (V.4 의전 II : 오·만찬) ····· 520
0482 Shokhin, Alexandr 러시아 부총리 방한, 1992.5.5.-7. ····· 521
0483 Thatcher, Margaret 전 영국 수상 방한, 1992.9.2.-5. ····· 522
0484 이상옥 외무장관 오스트리아 방문, 1992.11.12.-14. 전2권 (V.1 기본문서) ····· 523
0485 이상옥 외무장관 오스트리아 방문, 1992.11.12.-14. 전2권 (V.2 자료) ····· 524
0486 노창희 외무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방문, 1992.12.4.-13. ····· 525
0487 이상옥 외무장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계기 일본 방문계획 ····· 526
0488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1 사전준비) ····· 527
0489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2 결과 및 언론보도) ····· 528
0490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3 자료 I) ····· 529
0491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4 자료 II) ····· 530
0492 이상옥 외무장관 몽골 방문, 1992.4.17.-19. 전3권 (V.1 사전계획) ····· 531
0493 이상옥 외무장관 몽골 방문, 1992.4.17.-19. 전3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 532
0494 이상옥 외무장관 몽골 방문, 1992.4.17.-19. 전3권 (V.3 자료) ····· 534
0495 이상옥 외무장관 유엔 방문, 1992.2.13. ····· 535
0496 Pedro de Castro dos santos VAN-DUNEM 앙골라 외무장관 방한, 1992.3.27.-31. 전2권 (V.1 사전 준비) ··· 536
0497 Pedro de Castro dos santos VAN-DUNEM 앙골라 외무장관 방한, 1992.3.27.-31. 전2권 (V.2 결과 및 자료)537
0498 Di Tella, Guid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91.12.11.-14. 전3권 (V.1 기본문서) ····· 538
0499 Di Tella, Guid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91.12.11.-14. 전3권 (V.2 의전) ····· 539
0500 Di Tella, Guid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91.12.11.-14. 전3권 (V.3 자료) ····· 540
0501 Evans, Gareth 호주 외무무역장관 방한, 1992.11.5.-6. ····· 541
0502 Cyprien MBONIMPA 브룬디 외무장관 방한, 1992.2.25.-28. 전2권 (V.1 기본문서) ····· 542
0503 Cyprien MBONIMPA 브룬디 외무장관 방한, 1992.2.25.-28. 전2권 (V.2 자료) ····· 543
0504 Dobrev, Valentin 불가리아 외무차관 방한, 1992.6.29.-7.1. ····· 544
0505 Theodore HOLO 베냉 외무장관 방한, 1991.12.19.-22. 전2권 (V.1 사전준비) ····· 545
0506 Theodore HOLO 베냉 외무장관 방한, 1991.12.19.-2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 546
0507 Separovic, Zvonimir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방한, 1992.3.25.-27. ····· 547
0508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6.-29. 전3권 (V.1 기본문서) ····· 548
0509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6.-29. 전3권 (V.2 의전) ····· 549
0510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6.-29. 전3권 (V.3 자료) ····· 550
0511 Vayrynen, Paavo Matti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 1992.10.24.-26. 전3권 (V.1 기본문서) ····· 551
0512 Vayrynen, Paavo Matti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 1992.10.24.-26. 전3권 (V.2 의전) ····· 552
0513 Vayrynen, Paavo Matti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 1992.10.24.-26. 전3권 (V.3 자료) ····· 553
0514 Bongo, Pascaline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92.8.3.-7. 전3권 (V.1 기본문서) ····· 554
0515 Bongo, Pascaline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92.8.3.-7. 전3권 (V.2 영접계획) ····· 555
0516 Bongo, Pascaline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92.8.3.-7. 전3권 (V.3 자료) ····· 556
0517 Solanki, Madhavsinh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92.3.15.-18. 전2권 (V.1 기본문서) ····· 557
0518 Solanki, Madhavsinh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92.3.15.-18. 전2권 (V.2 자료) ····· 558
0519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 559
0520 Yurkans, Yanis 라트비아 외무장관 방한, 1991.12.13.-15. ····· 560
0521 Barros Valero, Javier 멕시코 외무차관 방한, 1992.10.28.-30. ····· 561
0522 Olu ADENIJ 나이지리아 외무차관 방한, 1992.5.19.-21. ····· 562
0523 Shah, Narendra Bikram 네팔 외무차관 방한계획 ····· 563
0524 Frutos Vaesken, Alexis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4.9.-12. 전2권 (V.1 기본문서) ····· 564

0525 Frutos Vaesken, Alexis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4.9.-12. 전2권 (V.2 회담 및 행사자료) ····· 565
0526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 566
0527 Dusava, Gabriel J.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 방한, 1992.11.27.-28. ····· 567
0528 Kozyrev, Andrei V.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1992.3.17.-19. 전2권 (V.1 기본문서) ····· 568
0529 Kozyrev, Andrei V.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1992.3.17.-19. 전2권 (V.2 자료) ····· 570
0530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 571
0531 Fernandez Ordonez, D. Francisco 스페인 외무장관 방한계획. 전2권 (V.1 기본문서) ····· 572
0532 Fernandez Ordonez, D. Francisco 스페인 외무장관 방한계획. 전2권 (V.2 자료) ····· 573
0533 Shubhas Chandra, Mungra 수리남 외무장관 방한, 1992.5.11.-13. ····· 574
0534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2.-25. 전2권 (V.1 사전준비) ····· 575
0535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2.-25.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 576
0536 Shultz, George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 577
0537 Kanter, Arnold 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2.5.13.-15. ····· 578
0538 Gros Espiell, Hector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1.12.-15. 전2권 (V.1 기본문서) ····· 579
0539 Gros Espiell, Hector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1.12.-15. 전2권 (V.2 자료) ····· 580
0540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 방한, 1992.5.7.-11. 전2권 (V.1 사전준비) ····· 581
0541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 방한, 1992.5.7.-11.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 582
0542 민관식 특사(전 국회의장서리) 중화민국(대만) 방문, 1992.2.20.-23. ····· 583
0543 쟝이엔스(蔣彦士) 중화민국(대만) 특사 방한, 1992.5.6.-9. 전3권 (V.2 언론보도) ····· 584
0544 민주당 사절단 대만 방문, 1992.8.26.-30. ····· 585
0545 김종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총재 코스타리카 방문, 1992.7.11.-14. ····· 586
0546 박준규 국회의장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1992.11.13.-16. ····· 587
0547 정주영 국민당 대표 멕시코 및 미국 방문, 1992.8.24.-9.1. ····· 588
0548 김대중 민주당 대표 러시아 방문, 1992.9.6.-10. ····· 589
0549 국회의원 미국 방문 ····· 590
0550 박준규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1992.12.21.-30. ····· 591
0551 호주 의회사절단 방한, 1992.6.10.-17. ····· 592
0552 독일 국회의원 방한 ····· 593
0553 Sajjad, Wasim 파키스탄 상원의장 방한, 1992.10.29.-11.3. ····· 594
0554 필리핀 국회의원 방한 ····· 595
0555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 방한 ····· 596
0556 미국 한국계 주·시의원 방한 ····· 597
0557 미국 의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 방한 ····· 598
0558 미국 의회 의원 방한 ····· 599
0559 예멘 의회사절단 방한, 1992.9.19.-26. ····· 600
0560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 601
0561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 602
0562 한·헝가리 간 의회 인사교류 및 친선협회 결성 검토 ····· 603
0563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20차. 동경, 1992.9.3. ····· 604
0564 한·일본 의원연맹 활동강화 및 합동간사회의 ····· 605
0565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 606
0566 한·미국 과학기술통상 관련 의원협의회 결성 추진 ····· 607
0567 한·이란 노동부장관 교류 ····· 609
0568 정세조사단 캄보디아 방문, 1992.2.24.-27. ····· 610
0569 이시영 외무부대사 중국, 중화민국(대만) 및 홍콩 순방, 1992.2.14.-27. ····· 611
0570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순방, 1992.4.11.-24. 전2권 (V.1 기본문서) ····· 612
0571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순방, 1992.4.11.-24. 전2권 (V.2 자료) ····· 613
0572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독일 방문, 1992.9.14.-25. ····· 614

0573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독일 및 예멘 순방, 1992.8.24.-9.3. ····· 615
0574 주요인사 필리핀 방문 ····· 616
0575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미국 방문 ····· 617
0576 통일고문회의 고문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호주 순방, 1992.11.5.-15. ····· 618
0577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중동 순방, 1992.5.31.-6.12. ····· 619
0578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관할지역 순방, 1992.11.10.-24. ····· 620
0579 Amir Khosru Mahmud CHOWDHURY 주치타공 방글라데시 명예영사 방한 ····· 621
0580 Moudila, Nicodime 콩고공화국 외무부 의전장 방한, 1992.1.9.-16. ····· 622
0581 중화민국(대만) 주요인사 방한 ····· 623
0582 Evans, Paul M.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극동문제 연구소장 방한, 1992.4.21.-27. ····· 624
0583 Jurisic, Milivoj 크로아티아 Zagreb시 부시장 방한, 1992.6.26.-7.4. ····· 625
0584 독일 주요인사 방한 ····· 626
0585 Moshe YEGAR 이스라엘 외무부 아주·태평양·아프리카국장 방한, 1991.10.3.-6. ····· 627
0586 일본 주요인사 방한 ····· 628
0587 Lkhagvasuren, S. 몽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한, 1992.12.2.-6. ····· 629
0588 멕시코 주요인사 방한 ····· 630
0589 Logunov, Anatoliy A. 모스크바대학 총장 방한, 1991.12.25.-92.1.3. ····· 631
0590 러시아 주요인사 방한 ····· 632
0591 Tinca, Gheorghe 루마니아 외무차관보 방한, 1992.6.22.-25. ····· 633
0592 See Chak Mun 싱가포르 외무차관보 방한, 1992.10.23.-27. ····· 634
0593 Mayer, Anna 주Montreux(스위스) 명예총영사 방한, 1992.4.29.-5.5. ····· 635
0594 CHAMLONG Srimuang 태국 Bangkok 시장 방한 ····· 636
0595 영국 주요인사 방한 ····· 637
0596 Walker, Richard L.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 638
0597 AFC(미국자유연맹) 대표단 방한 ····· 640
0598 Allen, Richard V.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 641
0599 Bradley, Tom 미국 Los Angeles 시장 방한 ····· 643
0600 Solomon, Richard H.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 644
0601 미국 주요인사 방한 ····· 645
0602 베트남 주요인사 방한 ····· 646
0603 예멘 주요인사 방한 ····· 647
0604 김만제 특사(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Duran Ballen, S.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2.8.9.-12. ····· 648
0605 라원찬 특사(주케냐대사) 모리셔스 선포 경축행사 참석, 1992.3.12.-14. ····· 649
0606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 Ramos, Fidel V.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2.6.29.-7.2. ····· 650
0607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Brandt, Willy 전 독일 수상 장례식 참석, 1992.10.17. ····· 651
0608 북한·호주 관계 ····· 652
0609 북한·벨기에 관계 ····· 653
0610 북한·칠레 관계 ····· 654
0611 북한·콜롬비아 관계 ····· 655
0612 북한·캐나다 관계 ····· 656
0613 북한·중국 관계 ····· 657
0614 북한·체코슬로바키아 관계 ····· 658
0615 북한·덴마크 관계 ····· 659
0616 북한·에콰도르 관계 ····· 660
0617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 661
0618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 662
0619 북한·프랑스 관계 ····· 663
0620 북한·독일 관계 ····· 664

0621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 665
0622 북한·이란 관계 ····· 666
0623 북한·쿠웨이트 관계 ····· 667
0624 북한·모로코 관계 ····· 668
0625 북한·모리타니 관계 ····· 669
0626 북한·멕시코 관계 ····· 670
0627 북한·나미비아 관계 ····· 671
0628 북한·네덜란드 관계 ····· 672
0629 북한·뉴질랜드 관계 ····· 673
0630 북한·오만 관계 ····· 674
0631 북한·파키스탄 관계 ····· 675
0632 북한·폴란드 관계 ····· 676
0633 북한·필리핀 관계 ····· 677
0634 북한·페루 관계 ····· 678
0635 북한·러시아 관계. 전2권 (V.1 1-4월) ····· 679
0636 북한·러시아 관계. 전2권 (V.2 5-12월) ····· 680
0637 북한·루마니아 관계 ····· 681
0638 북한·세네갈 관계 ····· 682
0639 북한·우간다 관계 ····· 683
0640 미국·북한 고위급 접촉. New York, 1992.1.22. 전2권 (V.1 1991.10월-92.1.15.) ····· 684
0641 미국·북한 고위급 접촉. New York, 1992.1.22. 전2권 (V.2 1992.1.16.-31.) ····· 685
0642 미국·북한 외교관(참사관급) 접촉, 제19-29차. 북경. 전2권 (V.1 제19-24차) ····· 686
0643 미국·북한 외교관(참사관급) 접촉, 제19-29차. 북경. 전2권 (V.2 제25-29차) ····· 687
0644 북한·미국 관계. 전2권 (V.1 1-6월) ····· 688
0645 북한·미국 관계. 전2권 (V.2 7-12월) ····· 689
0646 미국·북한 경제교류 ····· 690
0647 미국·북한 학술·문화 교류 ····· 691
0648 북한·동남아 관계 ····· 692
0649 북한·서남아 관계 ····· 693
0650 북한·중동 관계 ····· 694
0651 북한·중미 관계 ····· 696
0652 북한·남미 관계 ····· 698
0653 북한·신유고연방 관계 ····· 699
0654 북한 인사교류 현황 ····· 700
0655 북한 기독교도연맹 대표단 미국 방문, 1992.6.27.-7.17. ····· 701
0656 김흥림 북한 외교부 구주국장 구주 순방, 1992.5.25.-6.9. ····· 702
0657 북한 인사 중남미 순방 ····· 703
0658 Solarz, Stephen 미국 하원의원 북한 방문, 1991.12.17.-19. ····· 704
0659 Graham, Billy 미국 목사 북한 방문, 1992.3.31.-4.4. ····· 705
0660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 관련 동향 ····· 706
0661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 생일 관련 동향 ····· 707
0662 북한 공관장회의 관련 각국 북한대사 동향 ····· 708
0663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개선 시도 및 관련 대책 ····· 709
0664 북한의 대아프리카지역 외교망 정비 ····· 710
0665 북한 인권문제 ····· 711
0666 러시아 내 북한인 인권문제 ····· 712
0667 김정일 북한 후계자 권력승계 관련 동향 ····· 713
0668 김일성 북한 주석 신년사 ····· 714

0669 북한 동향. 전2권 (V.1 1-10월) ····· 715
0670 북한 동향. 전2권 (V.2 11-12월) ····· 716
0671 북한의 법령 ····· 717
0672 북한의 대외교역 동향 ····· 718
0673 통일관계 장관회의 ····· 719
0674 통일촉진외교 추진 대책 ····· 720
0675 7·7 선언 4주년 계기 정원식 국무총리의 대북한 제의 ····· 721
0676 남북한 관계 ····· 722
0677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 723
0678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1 1991.12월-92.1.22.) ····· 724
0679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2 1992.1.23.-30.) ····· 725
0680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3 1992.2-7월) ····· 726
0681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4 1992.8-11월) ····· 727
0682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 728
0683 남북대화 중단. 전2권 (V.1 9-10월) ····· 729
0684 남북대화 중단. 전2권 (V.2 11-12월) ····· 731
0685 남북한 정상회담 의전 분야 검토 ····· 732
0686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원 명단 통보 ····· 733
0687 문선명 통일교 교주 및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 북한 방문, 1991.11.30.-12.7. ····· 734
0688 김달현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 방한, 1992.7.19.-25. ····· 735
0689 남북한 경제 교류 ····· 736
0690 남북한 여성 세미나 ····· 737
0691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군축회의(CD) 문서 공동 배포 ····· 738
069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 전3권 (V.3 주요국 반응) ····· 739
0693 한반도 군축 세미나 ····· 740
0694 미국 Asia Society 한반도 연구조사단 ····· 741
0695 북한의 무기 밀매 동향 및 대외군사협력 ····· 742
0696 북한 핵문제. 전13권 (V.1 1월) ····· 743
0697 북한 핵문제. 전13권 (V.2 2-3월) ····· 744
0698 북한 핵문제. 전13권 (V.3 4-5월) ····· 745
0699 북한 핵문제. 전13권 (V.4 한·미국·일본 실무회의. 서울, 5.30.) ····· 746
0700 북한 핵문제. 전13권 (V.5 6월) ····· 747
0701 북한 핵문제. 전13권 (V.6 Wolfowitz 미국 국방차관 방한, 6.25.-26.) ····· 748
0702 북한 핵문제. 전13권 (V.7 7월(I)) ····· 749
0703 북한 핵문제. 전13권 (V.8 7월(II)) ····· 750
0704 북한 핵문제. 전13권 (V.9 8월) ····· 751
0705 북한 핵문제. 전13권 (V.10 9월) ····· 752
0706 북한 핵문제. 전13권 (V.11 10월) ····· 753
0707 북한 핵문제. 전13권 (V.12 11월) ····· 754
0708 북한 핵문제. 전13권 (V.13 12월) ····· 755
0709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 1991.1-2월) ····· 756
0710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2 1991.3-5월) ····· 757
0711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3 1991.6월) ····· 758
0712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4 IAEA 6월 이사회 관련 지지 요청) ····· 759
0713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5 1991.7월) ····· 760
0714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6 1991.8-9월) ····· 761
0715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7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0월) ····· 762
0716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8 체결 촉구 교섭, 1991.10월) ····· 763

0717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9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1월) ····· 764
0718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0 1991.11월) ····· 765
0719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1 1991.12월) ····· 766
0720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2 1992.1월) ····· 767
0721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3 1992.2월) ····· 768
0722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4 IAEA 2월 이사회 관련 협조 요청) ····· 769
0723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5 1992.3-4월) ····· 770
0724 북한 핵문제 :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 771
0725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1 1-4월) ····· 772
0726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2 5월) ····· 773
0727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3 Blix 사무총장 북한 방문, 5.11.-16. : 기본문서) ····· 774
0728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4 Blix 사무총장 북한 방문, 5.11.-16. : 보고서) ····· 775
0729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5 6-8월) ····· 776
0730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6 9-12월) ····· 777
0731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포럼 제안 ····· 778
0732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1 일본) ····· 779
0733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2 러시아) ····· 780
0734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3 중국) ····· 781
0135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4 우방국) ····· 782
0736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1 1-2월) ····· 783
0737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2 3-4월) ····· 784
0738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3 5-12월) ····· 785
0739 한반도 영공개방제도 적용 검토 ····· 786
0740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국적취득 문제 ····· 787
074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1 기본지침 개정, 1992.6.1.(국무총리훈령 제260호)) ··· 788
074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2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1) ····· 789
074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3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2) ····· 790
0744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4 기본지침 개정, 1992.12.10.(국무총리훈령 제269호)) ····· 791
0745 비동맹 15개 개도국 정상회담(G-15). 제2-3차 ····· 792
0746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제10차. Bali(인도네시아), 1992.5.12.-15. 전3권 (V.1 1-4월) ····· 793
0747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제10차. Bali(인도네시아), 1992.5.12.-15. 전3권 (V.2 5-6월) ····· 794
0748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제10차. Bali(인도네시아), 1992.5.12.-15. 전3권 (V.3 회의문서) ····· 795
0749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1 기본대책 Ⅰ : 2-7월) ····· 796
0750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2 기본대책 Ⅱ : 8월) ····· 797
0751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3 회의결과) ····· 798
0752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4 지지교섭 Ⅰ : 중동아프리카) ····· 799
0753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5 지지교섭 Ⅱ : 아주 등) ····· 800
0754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6 최종문서) ····· 801
0755 비동맹 아프리카 기금위원회, 제10차. Cairo(이집트), 1992.5.3.-7. ····· 802
0756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 ····· 803
0757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 804
0758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문제. 전2권 (V.1 1월-6.9.) ····· 805
0759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문제. 전2권 (V.2 6.10.-9월) ····· 806
0760 미국의 국방정책. 전3권 (V.1 1-3월) ····· 807
0761 미국의 국방정책. 전3권 (V.2 4-5월) ····· 808
0762 미국의 국방정책. 전3권 (V.3 6-12월) ····· 809

0763 한·몽골 군사·안보협력 ····· 810
0764 중국의 군사·안보동향 ····· 811
0765 한·미국 LORAN-C 운영 협의 ····· 812
0766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4차. Washington D.C., 1992.10.7.-8. 전2권 (V.2 공동성명) ····· 813
0767 필리핀 주둔 미국 특수작전부대 한국 이전 ····· 814
0768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2권 (V.1 1-3월) ····· 815
0769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2권 (V.2 4-11월) ····· 816
0770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 817
0771 한·미국 안보협력 일반 ····· 818
077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819
0773 WEU(서유럽연합) ····· 820
0774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전2권 (V.1 1-3월) ····· 821
0775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전2권 (V.2 4-12월) ····· 822
0776 일본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참여 ····· 823
0777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 전2권 (V.1 1-5월) ····· 824
0778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 전2권 (V.2 6-12월) ····· 825
0779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설립 ····· 826
0780 SOFA(주둔군지위협정) 관련 계약 분쟁 ····· 827
0781 싱가포르 주둔 미군기지 설치 문제 ····· 828
0782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 829
078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70차, 1991.12.11. ····· 830
0784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71차, 1992.6.26. ····· 831
0785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금 문제 ····· 832
0786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 833
0787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전3권 (V.1 1989-90) ····· 834
0788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전3권 (V.2 1991) ····· 835
0789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전3권 (V.3 1992) ····· 836
0790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 837
0791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전2권 (V.2 보고서 및 자료) ····· 838
0792 한국전 참전 미군에 대한 수장 재교부 및 기념사업 ····· 839
0793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 840
0794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 전2권 (V.1 3-9월) ····· 841
0795 한·러시아 군사 관계 인사교류 ····· 842
0796 한·루마니아 군사협력 ····· 843
0797 최세창 국방장관 캐나다 방문, 1992.10.3.-6. ····· 844
0798 Miller, Geoff 호주 정보평가처장 방한, 1992.9.8.-12. ····· 845
0799 PEHIN Sulaiman 브루나이 군참모총장 방한, 1992.2.27.-3.2. ····· 846
0800 Ileto, Rafael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 방한, 1992.5.25.-28. ····· 847
0801 YEO Ning Hong 싱가포르 국방장관 방한, 1992.11.15.-17. ····· 848
0802 Lilley, James R. 미국 국방부차관보 방한, 1992.3.4.-6. ····· 849
0803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 850
0804 각국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및 동향 ····· 851
0805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 평가회의. Vienna(오스트리아), 1992.9.29.-10.1. ····· 852
0806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 853
0807 유럽 재래무기 감축 협상(CFE) 동향 ····· 854
0808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1차. Geneva, 1992.3.30.-4.10. ····· 855
0809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2차. Geneva, 1992.11.23.-12.4. ····· 856
0810 한국 건설업체의 이란 Ghazvin 프로젝트 참여 문제 ····· 857

0811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1 3-4월) ····· 858
0812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2 5-9월) ····· 859
0813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전2권 (V.1 1-4월) ····· 860
0814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전2권 (V.2 5-12월) ····· 861
0815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V.1 1991-92.4월) ····· 862
0816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V.2 1992.5-6월) ····· 863
0817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V.3 회의자료) ····· 864
0818 독일산 잠수함 수입 ····· 865
0819 한·네덜란드 방위산업협력 ····· 866
0820 동구권 국가 방위산업 기술 도입 문제 검토 ····· 867
0821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총회, 제34차. 서울, 1992.9.9.-12. 전2권 (V.1 5-8월) ····· 868
0822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총회, 제34차. 서울, 1992.9.9.-12. 전2권 (V.2 9-12월) ····· 869
0823 북태평양 안보 워크숍, 제1차. Ottawa(캐나다), 1992.5.22.-23. ····· 870
0824 화학산업과 군축에 관한 심포지움. Basel(스위스), 1992.1.24.-27. ····· 871
0825 국제 비핵자치단체회의, 제6회. 요코하마(일본), 1992.11.4.-8. ····· 872
0826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 시즈오카(일본), 1992.11.27.-29. ····· 873
0827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0차. 서울, 1992.11.19.-20. ····· 874
082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 직원 진출. 전2권 (V.1 1984-89) ····· 875
082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 직원 진출. 전2권 (V.2 1990-92) ····· 876
0830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한국 직원 파견 ····· 877
0831 ILO(국제노동기구) 파견 공무원 ····· 878
0832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사무차장 선출 ····· 879
0833 각국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요청 ····· 880
0834 한국의 유엔 정규 및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납부 ····· 881
0835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92.11.4. ····· 882
0836 유엔 기능 및 역할 강화 문제 ····· 883
0837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전2권 (V.1 4-9월) ····· 884
0838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전2권 (V.2 10-12월) ····· 886
0839 한·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제기구국장회의 ····· 887
0840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New York ····· 888
0841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일정) ····· 889
084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의전 및 행정) ····· 890
0843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홍보) ····· 891
0844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4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기조연설문 작성) ····· 893
0845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5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말씀자료) ····· 894
0846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6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활동보고) ····· 896
0847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7 장관 일정) ····· 897
0848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8 장관 면담자료) ····· 898
0849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9 기본대책 및 의제별 입장) ····· 899
0850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0 대표단) ····· 900
0851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1 절차 문제 :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등) ····· 901
085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2 유엔사무총장 연례보고서) ····· 902
0853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3 각국 기조연설) ····· 903
0854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5 본회의 I : 의제별 토의보고, 1992-93) ····· 904
0855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6 본회의 II : 대쿠바 금수, 중동 문제) ····· 905

0856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7 본회의 III : IAEA 보고서) ····· 906
0857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8 제1위원회 I : 회의일정, 일반토의) ····· 907
0858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9 제1위원회 II : 대책자료) ····· 908
0859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0 제1위원회 III : CWC) ····· 909
0860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1 제1위원회 IV : 군비투명성) ····· 910
0861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2 제1위원회 V : 의제별 토의보고) ····· 911
086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3 제1위원회 VI : 속개회의, 1992-93) ····· 912
0863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4 특별정치위원회) ····· 913
0864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5 제2위원회 I, 1992.2월-10.15.) ····· 914
0865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6 제2위원회 II, 1992.10.16.-11.15.) ····· 915
0866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7 제2위원회 III, 1992.11.16.-93.2월) ····· 916
0867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8 제3위원회 I, 1992.6-10월) ····· 917
0868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9 제3위원회 II, 1992.11월) ····· 918
0869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0 제3위원회 III, 1992.12-93.1월) ····· 919
0870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1 제4위원회) ····· 920
0871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2 제5위원회) ····· 921
087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3 제6위원회) ····· 922
0873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4 결과보고) ····· 923
0874 한국의 유엔 공보위원회 위원국 진출 ····· 924
087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제1차. New York, 1992.1.31. ····· 925
0876 1993-94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제47차 총회) ····· 926
0877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 ····· 927
0878 앙골라 사태/유엔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동향 ····· 928
0879 캄보디아 사태/유엔논의 동향 ····· 929
0880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1 1991.3-7월) ····· 930
0881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2 1991.8-9월) ····· 931
0882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3 1991.10-12월) ····· 932
0883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4 1992.1-6월) ····· 933
0884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5 1992.7-12월) ····· 934
0885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6 각국 동향) ····· 935
0886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라크 제재 조치 ····· 936
0887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 전2권 (V.1 1-3월) ····· 937
0888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 전2권 (V.2 4-12월) ····· 938
0889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의 화학무기폐기작업단 참여 요청. 전2권 (V.1 4월-6.9.) ····· 939
0890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의 화학무기폐기작업단 참여 요청. 전2권 (V.2 6.10.-12월) ····· 940
0891 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전2권 (V.1 1991.11-92.3월) ····· 941
0892 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전2권 (V.2 1992.4-12월) ····· 942
0893 소말리아사태/유엔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동향 ····· 943
0894 유엔안전보장이사회/중동문제 토의 ····· 944
0895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1 1-2월) ····· 945
0896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2 3-6월) ····· 946
0897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3 7-9월) ····· 947
0898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4 10-12월) ····· 948
089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유고연방 제재 관련 각국 동향 ····· 949
090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유고연방 제재 관련 조치 ····· 950
0901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전2권 (V.1 1991-92.7.13.) ····· 951
0902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전2권 (V.2 1992.7.14.-12월) ····· 952
0903 UNTAC(유엔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 설치 동향 ····· 953

0904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전2권 (V.1 1-6월) ····· 954
0905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전2권 (V.2 7-12월) ····· 956
0906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8차. New York ····· 957
0907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제16차 유엔지명전문가회의. New York, 1992.8.24.-9.4. 전2권 (V.1 사전준비) ···· 958
0908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제16차 유엔지명전문가회의. New York, 1992.8.24.-9.4. 전2권 (V.2 회의결과) ···· 959
0909 유엔직원 연금기금의 한국 내 증권투자 문제 ····· 960
0910 유엔 엘살바도르 감시단(ONUSAL) 동향 ····· 961
0911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세미나 ····· 962
0912 유엔 및 비동맹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 ····· 963
0913 Pace, John 유엔 인권사무국 선임담당관 방한, 1992.9.28.-10.2. ····· 964
0914 Perkins, Edward J.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 1992.8.2.-3. ····· 965
0915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 966
0916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유엔총회 제출 문제 ····· 967
0917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 ····· 968
091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입후보. 전2권 (V.1 1987-90) ····· 969
091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입후보. 전2권 (V.2 1991-92) ····· 970
092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회의구조개편 고위관리회의. Bangkok(태국), 1992.1.13.-17. ····· 971
092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1 1991) ····· 973
092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2 1992.1월-3.20.) ····· 974
092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3 1992.3.21.-4.10.) ····· 975
092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4 1992.4.11.-5월) ····· 976
092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4차. Pattaya(태국), 1992.2.18.-27. ····· 977
092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교통·체신 각료회의. Bangkok, 1992.6.1.-5. 전2권 (V.1 기본문서) ····· 978
092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교통·체신 각료회의. Bangkok, 1992.6.1.-5.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자료) 979
092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태지역 공업기술 각료회의. Teheran(이란), 1992.6.23.-29. 전2권 (V.1 1991-92.4월) ····· 980
092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태지역 공업기술 각료회의. Teheran(이란), 1992.6.23.-29. 전2권 (V.2 1992.5-7월) ····· 981
093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 인구회의, 제4차. Bali(인도네시아), 1992.8.19.-27. ····· 982
093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양환경 Working Group 회의. 광저우(중국), 1992.9.28.-10.3. ····· 983
093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계위원회, 제8차. Bangkok, 1992.11.16.-20. ····· 984
093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정치지도자 회의. 서울, 1992.11.18.-20. ····· 985
093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5차. 주해(중국), 1992.12.8.-14. ··· 986
093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63-169차. Bangkok. 전2권 (V.1 제163-166차) ····· 987
093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63-169차. Bangkok. 전2권 (V.2 제167-169차) ····· 988
093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5차. Bangkok, 1992.7.16.-17. 전2권 (V.1 사전준비) ····· 989
093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5차. Bangkok, 1992.7.16.-1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990
093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Bangkok, 1992.10.19.-11.2. ····· 991
094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그룹회의, 제1차. New Delhi(인도), 1992.11.24.-27. 전2권 (V.1 기본문서) ····· 992
094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그룹회의, 제1차. New Delhi(인도), 1992.11.24.-27. 전2권 (V.2 참고자료) ····· 993
094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횡단철도 계획 ····· 994

094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세미나 ····· 995
094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GPRT(잡곡류연구개발센터) 관리이사회, 제8-10차. Bogor(인도네시아) ····· 996
094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메콩위원회 원조공여국 회의.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2.12.17.-18. ··· 997
094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1 사전준비) ····· 998
094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2 대표단 및 77그룹 입장 토의) ····· 999
094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3 의제 및 결과보고) ····· 1000
094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4 연설문 및 자료) ····· 1001
095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TFF(지역간무역금융기구) 설립 검토 ····· 1002
095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8차. Geneva ····· 1003
095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9차(1부). Geneva, 1992.9.28.-10.14. ····· 1004
095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산하 특별실무위원회 ····· 1005
095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1차. Geneva, 1992.11.23.-27. ····· 1006
095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19차. Geneva, 1992.5.18.-26. ····· 1007
095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PBC(기획예산위원회) 회의, 제7-8차. Vienna ····· 1008
095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 1009
095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9차. Vienna, 1992.5.18.-22. ····· 1010
0959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10차. Vienna, 1992.11.2.-6. ····· 1011
0960 Obminski, E. E.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CT(공업진흥,자문,기술부) 담당 사무차장 방한, 1992.12.10.-12. ···· 1012
096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대북한 사업. 전2권 (V.1 1-4월) ····· 1013
0962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대북한 사업. 전2권 (V.2 5-12월) ····· 1014
0963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전2권 (V.1 1989-90.7월) ····· 1015
096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전2권 (V.2 1990.9월-92) ····· 1016
0965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대Vladivostok 자유경제지역(GVFEZ) 설립 문제 ····· 1017
096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산하 연구소 가입 검토 ····· 1018
096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장 교체 ····· 1019
096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 활동 ····· 1020
0969 UNDP(유엔개발계획) 제5차 국가계획(Country Programme) ····· 1021
0970 한국의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1993-95 임기) 피선 ····· 1022
0971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9차. Geneva, 1992.5.4.-27. ····· 1023
0972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1차. Vladivostok(소련), 1991.10.28.-31. ····· 1024
0973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 1025
0974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법 정부 전문가회의 ····· 1026
0975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2.10.26.-30. 전2권 (V.1 기본문서) ····· 1027
0976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2.10.26.-30. 전2권 (V.2 자료) ····· 1028
0977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회의 ····· 1029
0978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New York, 1990.9.29.-30. 전3권 (V.1 기본문서 I) ····· 1030
0979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New York, 1990.9.29.-30. 전3권 (V.2 기본문서 II) ····· 1031
0980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New York, 1990.9.29.-30.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032
0981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 1033
0982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92.6.15.-26. ····· 1034
0983 UNICEF(유엔아동기금)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동아시아지역 자문회의, 제2차. 북경, 1992.8.4.-8. ····· 1035
0984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일반 ····· 1036
0985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 1037

0986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8차. Nairobi(케냐), 1992.6.23.-26. ····· 1038
0987 WFP(세계식량계획)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 1039
098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1 기본문서) ····· 1040
098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2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및 지지교섭 기본대책) ····· 1041
099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3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 : ICAO 상주대표부 및 미주지역) ····· 1042
099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I : 아주지역) ····· 1043
099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II : 구주지역) ····· 1044
099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V : 중동·아프리카지역) ····· 1045
099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7 회의문서) ····· 1046
099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일반 ····· 1047
0996 IMO(국제해사기구)/GMDSS(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회의 ····· 1048
0997 IMO(국제해사기구) 방화 소위원회, 제35-37차. London ····· 1049
0998 IMO(국제해사기구)/런던덤핑협약 당사국 회의, 제14-15차. London ····· 1050
0999 IMO(국제해사기구) 유류오염 피해보상기금 설치협약 관련 회의 참석 ····· 1051
1000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6-67차. London ····· 1052
1001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68-69차. London ····· 1053
1002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 1054
1003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6차. London, 1992.2.3.-7. ····· 1055
1004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32-33차. London ····· 1056
1005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60-61차. London ····· 1057
1006 IMO(국제해사기구) 세계해사대학 ····· 1058
1007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1 1991.5-9월) ····· 1059
1008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2 1991.10-11월) ····· 1060
1009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3 1991.12-92.1월) ····· 1061
1010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4 1992.2월) ····· 1062
1011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5 1992.3-8월) ····· 1063
1012 정근모 박사(전 과학기술처장관)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입후보 문제 ····· 1064
1013 IAEA(국제원자력기구) 행정예산위원회. Vienna, 1992.5.5.-8. ····· 1065
1014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6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9.21.-25. 전3권 (V.1 사전준비 I : 6-8월) ····· 1066
101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6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9.21.-25. 전3권 (V.2 사전준비 II : 9월) ····· 1068
1016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6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9.21.-25. 전3권 (V.3 회의결과) ····· 1069
1017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V.2 결과보고) ····· 1070
1018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V.3 회의자료) ····· 1071
1019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9.16.-17. 전2권 (V.1 사전준비) ····· 1072
1020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9.16.-17. 전2권 (V.2 회의결과) ····· 1073
1021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12.3.-4. 전2권 (V.1 10-11월) ····· 1074
1022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12.3.-4. 전2권 (V.2 12월) ····· 1075
1023 IAEA(국제원자력기구)/RCA(지역협력협정) 실무자 회의, 제14차. 동경, 1992.3.24.-27. ····· 1076
1024 북한의 대IAEA(국제원자력기구) 활동 ····· 1077
1025 IAEA(국제원자력기구)/RCA(지역협력협정) 연장 ····· 1078
1026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이라크 핵시설 사찰 관련 협조 요청 ····· 1079
1027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 1080
1028 주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대표부 활동 ····· 1081

102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Forum of Reflection 위원 선정 ····· 1082
1030 미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복귀 문제 ····· 1083
103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WDCD(세계문화발전10개년) 정부간 위원회 회의. Paris ····· 1084
103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3차. Paris, 1992.2.17.-24. ····· 1085
1033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9차. Paris, 1992.5.18.-27. ····· 1087
103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40차. Paris, 1992.10.12.-29. ····· 1088
103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ICAS(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 준비회의. Paris, 1992.7.1. ····· 1089
103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WHC(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제16차. Santa Fe(미국), 1992.7.6.-10. ····· 1090
103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10차. Canberra(호주), 1992.11.30.-12.4. ····· 1091
103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IP(정부간정보학위원회) 회의, 제4차. Paris, 1992.12.1.-4. ····· 1092
1039 Mayor, Federico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북한 방문, 1992.4.21.-23. ····· 1093
104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BE(국제교육국) 회의, 제43차. Geneva, 1992.9.14.-19. ····· 1094
104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T(특허협력조약) 총회, 제11-20차. Geneva ····· 1095
104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8-10차. Geneva ····· 1096
104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1-4차. Geneva ····· 1097
104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적용 실무회의, 제1-5차. Geneva ····· 1098
1045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법 통일화 전문가회의. Geneva ····· 1099
1046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의정서 전문가회의. Geneva ····· 1100
1047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산업디자인(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회의. Geneva ··· 1101
104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운영기구회의, 제23차. Geneva, 1992.9.21.-29. ····· 1102
1049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총회, 제26차. Geneva, 1992.10.29. ····· 1103
105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산업재산권에 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5차. Geneva, 1992.11.9.-13. ····· 1104
105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IPI(산업재산권정보상설위원회) 관련회의. Geneva ····· 1105
1052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준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Bangkok(태국), 1992.1.27.-31. ····· 1106
105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21차. New Delhi(인도), 1992.2.10.-14. ····· 1107
1054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스위스), 1992.8.18.-24. ····· 1108
1055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해어업 전문가회의. Rome, 1992.9.7.-15. ····· 1109
105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102차. Rome, 1992.11.9.-20. ····· 1110
1057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Rome, 1992.12.5.-11. ····· 1111
1058 한국의 1992년도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전2권 (V.1 사업계획안) ····· 1112
1059 한국의 1992년도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전2권 (V.2 훈련사업 실시) ···· 1113
1060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AARI(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연구기관협회) 가입 검토 ····· 1114
106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잉여농산물 처리 ····· 1115
1062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5차. Rome, 1992.1.21.-23. ····· 1116
1063 WHO(세계보건기구) AIDS 관련 국제회의 ····· 1117
1064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5차. Geneva(스위스), 1992.5.4.-15. ····· 1118
1065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43차. Hong Kong, 1992.9.7.-11. ····· 1119
1066 한상태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방한 ····· 1121
1067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 1123
1068 우주통신에 관한 유엔 워크샵. 서울, 1992.11.24.-27. ····· 1124
1069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의 제의정서 비준통보 ····· 1125
1070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및 우정최고책임자 특별회의 ····· 1126
1071 이스라엘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위반 여부 조사단 참여 문제 ····· 1127
1072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V.1 1990-91) ····· 1128

1073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V.2 1992) ····· 1129
107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제47차. Geneva(스위스), 1992.6.29.-7.10. ····· 1130
1075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추가전권위원회. Geneva(스위스), 1992.12.6.-23. 전2권 (V.1 기본문서) ····· 1131
1076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추가전권위원회. Geneva(스위스), 1992.12.6.-23. 전2권 (V.2 각국의 ITU 통신개발국장 선출 지지 요청) ····· 1133
1077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SPA(특별직무수당) 지급 문제 ····· 1134
1078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V.1 사전준비) ····· 1135
1079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V.2 회의결과 I : 4월) ····· 1136
1080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V.3 회의결과 II : 5-12월) ····· 1137
1081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 1138
1082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 Kathmandu(네팔), 1992.1.27.-29. ····· 1139
1083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 히로시마(일본), 1992.6.15.-18. ····· 1140
1084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축 및 안전에 관한 유엔회의. 상하이, 1992.8.17.-19. ····· 1141
1085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92.9.14.-21. ····· 1142
1086 유엔 인권위원회, 제48차. Geneva, 1992.1.27.-3.6. 전2권 (V.1 1월-2.24.) ····· 1143
1087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Geneva, 1992.8.13.-14. ····· 1144
108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1 1991.1-6월) ····· 1145
108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2 1991.7-12월) ····· 1146
1090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3 1992.1월-6.17.) ··· 1147
109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4 1992.6.18.-7.9.) ·· 1148
109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5 1992.7.10.-10월) 1149
1093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당사국 회의, 제14차. New York, 1992.1.15. ····· 1150
1094 각국의 인권보장기구 현황 조사 ····· 1151
1095 인권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 1152
1096 유엔의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 전2권 (V.1 CERF(중앙긴급운용기금) 설치, 1991-92) ····· 1153
1097 유엔의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 전2권 (V.2 기타 긴급구호 활동, 1992) ····· 1154
1098 유엔 남부아프리카 한발 긴급사태에 관한 기여금 서약회의. Geneva, 1992.6.1.-2. ····· 1155
1099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후속위원회, 제2차. San Salvador(엘살바도르), 1992.4.7.-8. ····· 1156
1100 장애인에 대한 국제협력 ····· 1157
110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 제6차. New York, 1992.2.4. ····· 1158
1102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 제35차. Vienna, 1992.4.6.-15. ····· 1159
1103 마약 관련 국제회의 ····· 1160
1104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8차. 동경, 1992.2.28. ····· 1161
1105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HONLEA), 제17차. Bangkok, 1992.11.23.-27. ····· 1162
1106 한국의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위원국 피선 ····· 1163
1107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1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4.21.-30. ····· 1164
110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1차. Nairobi(케냐), 1990.8.6.-31. ····· 1165
110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2차. Geneva, 1991.3.18.-4.5. ····· 1166
1110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3차. Geneva, 1991.8.12.-9.4. 전2권 (V.1 사전준비) ····· 1167
111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3차. Geneva, 1991.8.12.-9.4. 전2권 (V.2 결과보고) ····· 1168
1112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1 사전준비) ····· 1169
111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2 의제검토 I) ··· 1170
1114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3 의제검토 II) ·· 1171
111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4 의제검토 III) · 1172
1116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5 회의보고 I) ··· 1173
111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6 회의보고 II) ·· 1174
111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7 회의보고 III) · 1175

111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8 회의보고 IV) · 1176
1120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9 회의보고 V) ·· 1177
112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10 결과보고) ···· 1178
1122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 회의 준비 I : 1991.6-92.3월) 1179
112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 회의 준비 II : 1992.4-6월) ···· 1180
1124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3 대표단) ····· 1181
112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4 대책 I : 제4차 PREPCOM 회의문서 검토) ····· 1182
1126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5 대책 II : 관계부처 회의) ····· 1183
112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6 대책 III : 국무회의 보고) ····· 1184
112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7 대책 IV : 당정회의 보고) ····· 1185
112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8 대책 V : 기타) ····· 1186
1130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9 행사준비 I : 총괄) ····· 1187
113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0 행사준비 II : 총리 일정) ···· 1188
1132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1 행사준비 III) ····· 1189
113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2 행사준비 IV) ····· 1190
1134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3 홍보, 해설, 보도자료) ····· 1191
113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4 UNCED 한국위원회(NGO)) 1192
1136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5 부의장국 선출) ····· 1193
113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6 회의보고) ····· 1194
113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7 결과보고) ····· 1195
113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8 자료) ····· 1196
1140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9 각국 대표단 및 동향 I) ····· 1197
114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0 각국 대표단 및 동향 II) ····· 1198
1142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1 각국 대표단 및 동향 III) ····· 1199
114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2 부대행사 I) ····· 1200
1144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3 부대행사 II) ····· 1201
114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현인회의 ····· 1202

1992년도

92-0001

1992년도 주요 외교업무계획 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2-1 / 1 / 1-143

1992년 중 주요 외교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임.

1. 1992년도 주요 정책과제별 합동보고 방안(1991.12.17., 청와대 수석회의 결정)

- 통일기반 조성
  - 통일원(부총리): 남북 간 실질적 교류 추진
  - 외무부: 새로운 국제환경하의 통일 촉진과 경제외교 강화
  - 국방부: 통일시대 대비 국방태세 정비

2. 1992년도 주요 외교업무계획 보고(1992.1.20., 외무부)

- 제6공화국 4년간의 외교 치적
- 1992년도 외교 기조와 주요 외교시책
  - 대(對)우방 관계의 발전적 강화
  - 북방외교의 마무리와 내실화
  - 통일촉진 외교 전개
  - 경제통상 외교 강화
  - 유엔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3. 1992년도 외무부 주요 외교업무계획 보고 시 대통령 지시 요지(1992.1.20.)

- 이제 남북관계의 기본 틀은 '기본합의서'로서 일단 마련됨. 기본적 문제가 합의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미시적인 관심과 계획을 갖고 대북관계를 추진해야 함.
- 우방 국가와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합의서 성립에 따른 남북대화 및 교류의 본격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
- 한국 경제의 대외경쟁력 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무역장벽 해소와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

재외공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2-1 / 2 / 1-162

1. 재외공관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침(1980.1.25.)

- 공관장 차량 및 행정차량의 구입 및 교체 시기, 차량 종류 등 규정
- 재외공관 국산차 구입 현황(1982.10월)
  - 국산차 포니 보유 공관: 7개 공관
  - 행정차량 교체 시 점진적으로 국산차량으로 교체 예정

2. 재외공관 차량관리규정 개정(1983.3.10. 전문 개정)

- 용도 구분: 공관장차량, 행정차량, 특수차량
- 사적 목적에의 사용 금지: 공적 목적에만 사용
- 원칙적으로 국산차량 구입

3. 재외공관 차량관리규정 개정(1992.1.9.)

- 1983년 전문 개정 후, 공관용 차량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개정
  - 용도별 차종의 개정(기존 차종의 생산 중단 등 반영)
  - 차량 교체기준 개정(현실에 맞게 수정)

92-000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 / 3 / 1-99

1.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조회(1992.3.25.)

- 건설부에서 전면개정 입법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전장실에 요청
  - 공공업무시설의 정의 규정 및 공공업무시설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내용 검토

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조치(1992.4.6.)

- 의전장실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으로 이견 없음을 기획관리실에 통보
- 외국공관 건축물을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한국(건설부)은 외국공관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애매모호하며 현재까지 준공공업무시설로 임의 분류해 오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명백하게 그 용도를 분류한 것이므로 이제까지 관행에 합치되는 입법조치임.
  - 외국공관 건축물이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같은 공공업무시설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과는 달리, 건물 건축 시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 제도와 같음.
- 공공업무시설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 외국공관 건축물이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일부 건축제한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이미 대사관 신축 부지를 마련 중인 주한 이라크대사관 구기동 외교단지(일반 거주지역) 및 주한 미국대사관(구) 경기여고 부지(학교시설지역에서 해제)에 이들 공관을 신축하는 데 문제점은 없음.
- 경과 조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이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따름.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안 검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 / 4 / 1-68

1992년 중 정부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환경처는 1991.12.31.자로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1992년 하반기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작업을 추진함.**
   - 동 시행령안 제6조 의하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의 시설물과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

2. **외무부는 1992.7.8. 상호주의 적용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 상기 제6조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의 시설물과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외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서 당해 국가가 우리 정부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2-0005

한국인권 문제 관련 구주의회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1 / 5 / 1-102

1992년 중 한국인권 문제 관련 유럽의회 주요 동향임.

1.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 한국인권 청문회(1992.2.13., 프랑스 Strasbourg)

- 추진 경위
  - 1992.1월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이 베를린 소재 민협, 쾰른 소재 민가협 등 유럽 내 한국인권 단체의 요청으로 한국인권 관계 청문회 개최를 추진
- 발표 내용
  - 한국의 보안법 제정 경위 및 남용 사례 발표, 한국 내 정치범 현황, 한국의 인권 상황
  - 한국 내 인권 및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한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EC(구주공동체)의 여론 등
- 청문회 결과
  - 청문회에 참석한 Beazley 유럽의회 의원은 청문회가 참석자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2. 유럽의회 한국인권 결의안 추진

- 경위
  - 상기 청문회를 주관한 바 있는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은 1992.4월 한국인권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채택 추진
- 결의안 요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으로 보안법의 존재 이유 상실
  - 비전향 장기수, 방북 인사 및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고문과 사형제도 폐지 촉구
  - 점증하는 한·EC 관계에 비추어 EC가 한국의 인권 상황 및 민주적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통상 압력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 결의안 본회의 상정 좌절
  - 한국인권 관계 결의안은 사전심사에서 채택되지 못해 본회의 상정 좌절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1 / 6 / 1-235

미국 국무부는 1992.1.30. 1991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함.

1.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1987년 시작된 민주화 과정은 1991년 중 지방자치제 선거가 30년 만에 실시되는 등 계속 진전되고 있음.
- 냉전 종식과 역사적 남북합의서 채택 등에도 불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급속한 인권개선의 지연 명분이 되고 있음.
- 야당 정치인, 과격 학생 및 노동운동가 등에 대한 사찰 및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범에 대한 정의는 어려우나 수백 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포용력 있는 개방된 사회가 되었으나,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에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음.
  -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인권 문제로 등장
  - 과격 학생시위로 인한 사망 및 경찰 부상 등도 상존

2.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와 당의 권리에 종속됨.
  - 일상적 통치권을 물려받은 김정일은 최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김일성과 더불어 개인 숭배의 대상
- 모든 주요 경제활동은 국가의 지시에 따르며, 소련과의 통상 및 원조 중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
  - 식량 공급을 줄이는 등 국민의 내핍을 더욱 강요
-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유린하고 있음.
  - 다만,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는 점차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지난 수년간 약 2천 명의 재외한국인이 북한 방문
- 북한의 형법은 무자비하며 독자적인 언론이나 결사는 불허됨.

92-0007

한국 인권 관련 미국 동향.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1 / 7 / 1-183

1. lietta 의원 등 미 상·하원 의원 25명은 김근태의 석방을 촉구하는 1992.5.6.자 서한을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송부해 옴.

-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온 것을 지지함.
  - 노 대통령 임기 내에 민주화 과정의 완성 및 김근태를 포함,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함.
- 김근태 석방 시기 관련, 최근 주미국대사관으로부터 김근태가 5월에 석방될 것이라고 통보받은 후 석방 시기가 8월로 변경되었다는 재통보를 받은 바 있음.
  - 김근태가 최초 언급된 대로 5월에 석방될 수 있도록 촉구함.

2. 1992.5.18. 외무부는 상기 서한에 대한 주미국대사 명의 서한을 관련 의원에게 발송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김근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임.
- 김근태의 만기 석방일은 1992.8.12.인바 5월이 만기라고 알려진 것은 행정 착오에 의한 것이며,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출소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음.
- 한국 정부는 지난 제6공화국 출범 이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각종 인권 침해 법률의 개폐 등 민주화 추진과 함께 인권 신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옴.
- 정치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 폭력시위, 방화 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반민주 폭력혁명을 선동한 반국가 사범들로서 정치범은 없음.

3. 1992.12.3.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김근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 여부를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함.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근태 입건
  - 11.14. 전민련 집회 시 특정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혐의
- 검찰은 김근태가 방미 후 귀국하면 상기 혐의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 예정
- 검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동건 진행상황을 파악,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및 임명장 수여식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 / 9 / 1-104

1. 신임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1.1.11.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
- 수여 대상자: 윤억섭 주핀란드대사, 문창화 주칠레대사, 허승 주세네갈대사 등 10명

2. 신임장 및 임명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2.3.3. 청와대 본관 접견실
- 수여 대상자: 유종하 주유엔대사, 최웅 주폴란드대사, 나중배 주사우디대사 등 14명

3. 신임장 및 임명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1.3.11.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
- 수여 대상자: 현홍주 주미국대사, 이홍구 주영국대사, 김성진 주싱가포르대사, 오재희 주일본대사, 노창희 주유엔대사 등 11명

4. 신임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2.3.13. 청와대 본관 접견실
- 수여 대상자: 이상열 주이란대사, 이상구 주말레이시아대사 등 6명

5. 신임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2.6.15. 청와대 본관 접견실
- 수여 대상자: 윤태현 주베네수엘라대사, 경창헌 주파라과이대사

6. 신임장 및 임명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2.9.9. 청와대 본관 접견실
- 수여 대상자: 노재원 주중국대사, 박노수 주베트남대사

7. 신임장 수여식 안내자료(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2.10.23. 청와대 본관 접견실
- 수여 대상자: 장승옥 주오만대사, 홍장희 주엘살바도르대사

92-0009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 건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 / 10 / 1-160

1992년 중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 건의 관련 내용임.

1.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발급(1992.2.12.자)

- 최웅 주폴란드대사
- 홍순영 주러시아대사
- 강대완 주스위스대사
-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 이기주 주이탈리아대사
- 이승환 주그리스대사
- 최봉름 주튀니지대사
- 조기성 주페루대사
- 문동석 주튀르키예대사
- 이영민 주우간다대사
- 신효헌 주가나대사

2.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발급(1992.3.3.자)

- 이상구 주말레이시아대사
- 김정훈 주파키스탄대사
- 송영식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 이상열 주이란대사
- 김이명 주벨기에대사
- 최낙천 주가봉대사

3.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발급(1992.8.17.자)

-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
- 한탁채 주태국대사
- 이정수 주코스타리카대사
- 최남준 주카타르대사
- 이종무 주쿠웨이트대사
- 김용규 주자메이카대사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11 / 1-105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92.7.22. 이정수 주코스타리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9.29.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니카라과 정부는 1992.10.9. 이정수 주니카라과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12.4. Violetta B. Dechamorro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3. 니카라과 출장보고서

- 이정수 대사의 겸임국 니카라과 신임장 제정 관련 보고서 제출

92-0011

대사파견 - 중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북아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12 / 1-66

1. 한국 정부는 1992.8.27. 노재원 주북경대표부대표를 주중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중국 정부는 1992.9.1. 노재원 주중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92.9.7. 노재원 주중국대사를 인사 발령함.

4. 노재원 대사는 1992.9.15.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노 대사는 초대 주중국대사로 임명되어 영광이며, 한·중국 양국 산업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 양 주석은 한·중국 수교로 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의 상호협력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는바,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대사파견 - 덴마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22-1 / 13 / 1-49

1. 외무부는 1991.1.9. 김세택 주싱가포르대사를 주덴마크대사로 내정함.

2. 덴마크 정부는 1991.2.1. 김세택 주싱가포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세택 대사는 1991.3.22. Margrete 2세 싱가포르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김세택 대사는 1992.2.19. 겸임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란스베르기스 최고회의 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13

대사파견 - 엘살바도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 / 14 / 1-43

1. 외무부는 1992.7.13. 홍장희 주스페인공사를 주엘살바도르대사로 내정함.

2. 엘살바도르 정부는 1992.8.26. 홍장희 주엘살바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Cristiani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피지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남아과
MF번호	2022-1 / 15 / 1-150

1. 한국 정부는 1989.12.22. 백영기 이사관을 주피지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피지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피지 정부는 1990.2.12. 백영기 주피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백영기 대사는 1990.4.10. Penaia Ganilau 피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백 대사는 지난 수년간 양국 간의 우의가 두터워졌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양국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 Ganilau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및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한국이 피지에 공여한 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업체의 피지 진출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4. 백영기 대사는 겸임국에 대한 신임장을 아래와 같이 제정함.

- 1990.7.25. 솔로몬제도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8.20. 바누아투(구 뉴헤브리데스)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8.28. 통가왕국 Taufa'Ahau Tupou 4세에게 신임장 제정
- 9.11. 투발루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10.8. 나우루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2.6. 키리바시(구 길버트제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992.2.12. 마셜제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4.7. 미크로네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92-0015

대사파견 - 가봉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16 / 1-83

1. 외무부는 1991.12.27. 최낙천 외교협회 사무총장을 주가봉대사로 내정함.

2. 가봉 정부는 1991.2.27. 최낙천 주가봉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최낙천 대사는 1992.4.30. Bongo 가봉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최낙천 대사는 1992.9.29. 겸임국 상투메프린시페 Miguel Anjos Trovoad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가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17 / 1-30

1. 외무부는 1991.12.27. 신효헌 주인도네시아 공사를 주가나대사로 내정함.

2. 가나 정부는 1992.1.16. 신효헌 주가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신효헌 대사는 1992.4.9. Alhaji Mahama Iddrisu 가나 국가원수대리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17

대사파견 - 이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 / 18 / 1-24

1. 외무부는 1991.12.27. 이상열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이란대사로 내정함.

2. 이란 정부는 1992.3.1. 이상열 주이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상열 대사는 1992.4.29. Rafsanjani 이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자메이카, 1991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1 / 19 / 1-51

1. 외무부는 1990.10.22. 김석현 주애틀란타총영사를 주자메이카대사로 내정함.

2. 자메이카 정부는 1990.11.12. 김석현 주자메이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석현 대사는 1991.1.22. F. Glasspole 자메이카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19

대사파견 - 자메이카, 199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0 / 1-52

1. 외무부는 1992.7.13.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을 주자메이카대사로 내정함.

2. 자메이카 정부는 1992.8.6. 김용규 주자메이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용규 대사는 1992.9.29. Cooke 자메이카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케냐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1 / 1-50

1. 외무부는 1991.1.9. 라원찬 외무부 구주국장을 주케냐대사로 내정함.

2. 케냐 정부는 1991.2.28. 라원찬 주케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라원찬 대사는 1991.5.16. Moi 케냐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라원찬 대사는 1992.12.2. 겸임국 모리셔스 Uteem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21

대사파견 - 쿠웨이트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2 / 1-53

1. 외무부는 1992.7.13.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주쿠웨이트대사로 내정함.

2. 쿠웨이트 정부는 1992.8.19. 이종무 주쿠웨이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종무 대사는 1992.9.29. 쿠웨이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총무과(인사) / 동남아과
MF번호	2022-1 / 23 / 1-54

1. 외무부는 1992.1.14. 이상구 외무부 본부대사를 주말레이시아대사로 내정함.

2.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2.3.2. 이상구 주말레이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상구 대사는 1992.5.28.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23

대사파견 - 나이지리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 / 24 / 1-87

1. 외무부는 1990.10.22. 조명행 주앵커리지총영사를 주나이지리아대사로 내정함.

2. 나이지리아 정부는 1990.12.19. 조명행 주나이지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조명행 대사는 1991.2.15. Babangida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조명행 대사는 1992.12.16. 겸임국 시에라리온 Strasser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네덜란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정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5 / 1-22

1. 외무부는 1992.7.13. 임인조 전 육사교장을 주네덜란드대사로 내정함.

2. 네덜란드 정부는 1992.8.3.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임인조 대사는 1992.11.4. Beatrix 네덜란드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25

대사파견 - 뉴질랜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 동남아과
MF번호	2022-1 / 26 / 1-58

1. 외무부는 1991.6.3. 윤영엽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주뉴질랜드대사로 내정함.

2. 뉴질랜드 정부는 1991.6.14. 윤영엽 주뉴질랜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윤영엽 대사는 1991.9.6. Catherine Tizard 뉴질랜드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겸임국 신임장 제정

- 서사모아
  - 1991.8.27. 아그레망 접수
  - 1992.5.27. 신임장 제정
- 통가
  - 1992.1.29. 아그레망 접수
  - 1992.5.25.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오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7 / 1-64

1. 외무부는 1992.7.13. 장승옥 안기부 차장보 겸 국제1국장을 주오만대사로 내정함.

2. 오만 정부는 1992.9.8. 장승옥 주오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장승옥 대사는 1992.11.15. 카부스 오만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27

대사파견 - 파키스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8 / 1-32

1. 외무부는 1991.12.27. 주파키스탄대사관에 신임 김정훈 주파키스탄대사 내정을 통보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2. 파키스탄 정부는 1992.2.3. 김정훈 주파키스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정훈 대사는 1992.4.15. Ghulam Ishaq Khan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폴란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29 / 1-206

1. 외무부는 1991.12.27. 최웅 외교안보연구위원을 주폴란드대사로 내정함.

2. 폴란드 정부는 1992.1.22. 최웅 주폴란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최웅 대사는 1992.5.13.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29

대사파견 - 파라과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1 / 30 / 1-18

1. 외무부는 1992.4.8. 경창헌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을 주파라과이대사로 내정함.

2. 파라과이 정부는 1992.4.21. 경창헌 주파라과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92.5.23. 경창헌 주파라과이대사를 인사 발령함.

4. 경창헌 대사는 1992.6.20. 부인과 함께 현지 부임함.

5. 경창헌 대사는 1992.7.2.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파푸아뉴기니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1 / 1-84

1. 한국 정부는 1991.6.4. 이석곤 주소말리아대사를 주파푸아뉴기니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91.7.8. 이석곤 주소말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이석곤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91.9.3. Eri 파푸아뉴기니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Eri 총독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치하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확정에 대해 축하한다고 함.
- 이 대사는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4. 겸임국에 대한 신임장 제정

- 나우루
  - 1991.12.2. 아그레망 요청
  - 1991.12.21. 아그레망 부여
  - 1992.9.29. B. Dowiyogo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Dowiyogo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답사를 통해 1993년 대전 Expo 참가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 한국이 인광석을 수입해 주기를 희망함.
- 솔로몬제도
  - 1991.12.2. 아그레망 요청
  - 1992.2.12 아그레망 부여
  - 1992.9.3. G. Lepping 총독에게 신임장 제정
- 바누아투
  - 1991.12.2.아그레망 요청
  - 1992.2.5. 아그레망 부여
  - 1992.6.8. Timakata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Timakata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해 주기를 희망함.

92-0031

대사파견 - 페루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2 / 1-22

1. 외무부는 1991.12.29. 조기성 외무부 문화협력국장을 주페루대사로 내정함.

2. 페루 정부는 1992.1.16. 조기성 주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조기성 대사는 1992.4.14. Fujimori 페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카타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3 / 1-34

1. 외무부는 1992.7.13. 주카타르대사관에 최남준 연구관을 주카타르대사로 내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카타르 정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하도록 지시함.

2. 한국 정부는 1992.7.15. 최남준 주카타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카타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카타르 정부는 1992.7.30. 최남준 주카타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최남준 대사는 1992.10.25. 카타르 국왕대리인 Hamad 왕세자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Hamad 왕세자는 한·카타르 간 우호 및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최 대사는 카타르 국왕 및 왕세자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말씀을 전달함.

92-0033

대사파견 - 러시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2 / 4 / 1-102

1. 한국 정부는 1992.1.14. 홍순영 신임 주러시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러시아연방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러시아연방 정부는 1992.1.30. 홍순영 주러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홍순영 대사는 1992.2.26. 쿠나제 러시아연방 외무장관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홍순영 대사는 1992.3.2. 루츠코이 러시아연방 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2.7. 발효된 대통령령에 의해 향후 각국 대사의 신임장은 부통령에게 제정하도록 변경

5. 외무부는 1992.7.31. 주러시아대사를 구소련 내 9개국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겸임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주러시아대사에게 지시함.
   - 우즈베키스탄: 8.17. 아그레망 부여
   - 카자흐스탄: 8.19. 아그레망 부여
   - 아르메니아: 8.20. 아그레망 부여
   - 투르크메니스탄: 8.27. 아그레망 부여
   - 벨라루스: 8.31. 아그레망 부여, 12.22. 슈스케비치 벨라루스 최고회의 의장에게 신임장 제정
   - 키르기스스탄: 9.1. 아그레망 부여
   - 몰도바: 9.23. 아그레망 부여
   - 아제르바이잔: 12.3. 아그레망 부여
   - 타지키스탄: 국내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어 아그레망 부여 지연

6. 외무부는 1992.10.31.자로 홍순영 주러시아대사를 주몰도바공화국, 주벨라루스공화국, 주아르메니아공화국,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주카자흐스탄공화국, 주키르기스스탄공화국 및 주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대사에 겸임 발령함.

대사파견 - 스웨덴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5 / 1-77

1. 한국 정부는 1989.12.19. 최동진 신임 주스웨덴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스웨덴 정부는 1990.1.25. 최동진 주스웨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최동진 대사는 1990.4.18. Lena Hjelm-Wallen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장관(외무장관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4.26. Carl 16세 Gustaf 스웨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한국 정부는 1991.11.23. 최동진 주스웨덴대사를 주라트비아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라트비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라트비아 정부는 1991.12.3. 최동진 주라트비아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최동진 대사는 1992.2.17. Anatolijs Gorbunovs 라트비아 최고회의 의장 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35

대사파견 - 소말리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6 / 1-19

1. 외무부는 1990.10.22. 주소말리아대사관에 이석곤 연구관을 주소말리아대사로 내정하였음을 통보함.

2. 주소말리아대사는 1990.10.27. Sufi 소말리아 외무부 의전장을 면담, 이석곤 주소말리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이 조속히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함.

3. 소말리아 정부는 1990.11.24. 이석곤 주소말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1990.12월 소말리아 반정부군이 수도를 진격하자 Barre 소말리아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 축출되고 내전이 발생하였으며 1991.1월 주소말리아대사관원들은 케냐로 긴급 대피함.

5. 외무부는 1992.7.28. 소말리아 신정부 수립 후 아그레망 신청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함.

92-0036

대사파견 - 태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 / 7 / 1-83

1. 외무부는 1992.6.26. 주태국대사에게 한탁채 연구위원을 주태국대사에 내정하였다고 통보하고, 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2. 주태국대사는 1992.7.1. Fridi 태국 외무성 의전장대리를 방문하여 한탁채 주태국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신청하였다고 보고함.

3. 태국 정부는 1992.8.6. 한탁채 주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외무부는 1992.8.17. 한탁채 주태국 특명전권대사를 인사 발령함.

5. 한탁채 대사는 1992.9.2. 태국 외무성 의전장대리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을 제출함.

6. 한탁채 대사는 1992.9.29. Bhumibol 태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태국 국왕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더 긴밀히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태국이 수해 등으로 어려울 때 한국 정부가 여러 면에서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92-0037

대사파견 - 튀니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8 / 1-18

1. 외무부는 1991.12.27. 주튀니지대사관에 최봉름 주이라크대사를 주튀니지대사로 내정하였다고 통보하고, 튀니지 정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2. 한국 정부는 1991.12.30. 최봉름 주튀니지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튀니지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튀니지 정부는 1992.1.23. 최봉름 주튀니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최봉름 대사(10대)는 1992.4.16. Ben Ali 튀니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최 대사는 한국의 국내정세 및 남북대화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튀니지 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함.

대사파견 - 트리니다드토바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9 / 1-185

1.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대한 대사 파견

- 1991.12.27. 송영식 대사를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로 내정
- 1992.2.18. 송영식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접수
- 1992.4.22. Noor Hassnali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겸임국에 대한 신임장 제정(1992년도)

- 앤티가바부다: 1.16. 아그레망 접수, 6.25. 신임장 제정
- 세인트키츠네비스: 1.16. 아그레망 접수, 6.29. 신임장 제정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21. 아그레망 접수, 6.18. 신임장 제정
- 그레나다: 1.28. 아그레망 접수, 6.2. 신임장 제정
- 세인트루시아: 2.4. 아그레망 접수, 6.16. 신임장 제정
- 바베이도스: 2.26. 아그레망 접수, 7.17. 신임장 제정
- 도미니카연방: 2.26. 아그레망 접수, 7.17. 신임장 제정

3. 관련 자료

- 부임자료, 면담자료, 각국에 대한 신임장(사본) 등

92-0039

대사파견 - 터키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구주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 / 10 / 1-18

1. 한국 정부는 1991.12.27. 문동석 신임 주튀르키예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튀르키예 정부는 1992.1.29. 문동석 주튀르키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문동석 대사는 1992.4.2. Hikmet Cetin 튀르키예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문동석 대사는 1992.4.10. Turgut Ozal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Ozal 대통령은 1986년 방한 시 한국민의 근면성과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 튀르키예도 한국을 모델로 하여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UNESCO 대표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2 / 11 / 1-58

1. 한국 정부는 1991.12.27. 박상식 주보스톤총영사를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로 내정하고 유네스코 측에 대한 사전통보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주유네스코대사에게 지시함.

2. 주유네스코대표부는 1991.12.31. 박상식 대사의 주유네스코대사 지명 사실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

3. 외무부는 1992.2.12.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를 인사 발령함.

4. 박상식 대사는 1992.3.27. Federico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41

대사파견 - 우간다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11 / 1-58

1. 외무부는 1991.12.27. 주우간다대사관에 이영민 연구관을 주우간다대대사로 내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우간다 정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2. 주우간다대사관은 1991.12.31. 이영민 주우간다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우간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우간다 정부는 1992.1.24. 이영민 주우간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이영민 대사는 1992.5.23.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Museveni 대통령은 우간다가 풍부한 지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업체의 투자를 희망한바, 이 대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대사파견 - 유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13 / 1-12

● 외무부는 1992.2.27. 유종하 주유엔대사를 인사 발령함.
- tros-Ghali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유종하 대사는 유엔 정회원국으로서 유엔의 목적과 이상 실현을 위한 제반활동에 한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할 것임을 언급함.
- 동 사무총장은 한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희망함.

92-0043

대사파견 - 잠비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2 / 14 / 1-73



1. 외무부는 1991.1.9. 주케냐대사관에 성필주 구주국 심의관을 주잠비아 초대대사로 내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잠비아 정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2. 잠비아 정부는 1991.3.5. 성필주 주잠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성필주 대사는 1991.4.3. Kenneth D. Kaunda 잠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Kaunda 대통령은 주잠비아 한국공관 창설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국의 높은 기술 및 자본과 잠비아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면 양국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성 대사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잠비아 정부의 지지를 희망함.

4. 겸임국(말라위) 신임장 제정

- 1992.8.11. 성필주 주말라위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 10.22. 아그레망 부여
- 12.16. Kamuzu Banda 말라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Banda 대통령은 한발(가뭄)에 당면한 말라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한국의 한발구호 원조에 사의를 표함.

대사파견 - 자이르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총무과(인사)
MF번호	2022-2 / 15 / 1-82

1. 외무부는 1990.10.22. 홍승호 주나고야총영사를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로 내정함.

2. 한국 정부는 1990.10.26. 홍승호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11.26. 아그레망 부여

3. 홍승호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91.3.6. 모부투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모부투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부상하는 모범국이라고 하고 홍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홍 대사는 1982년 모부투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무상원조를 해오고 있다고 함.

4. 겸임국(르완다, 콩고, 부룬디)에 대한 신임장 제정

- 1991.5.14. 콩고 정부는 홍승호 주콩고 겸임대사에게 아그레망 부여
  - 12.19. Denis Sassou-Nguesso 콩고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991.5.30. 르완다 정부는 홍승호 주르완다 겸임대사에게 아그레망 부여
  - 1992.2.8. Habyarimana Juvenal 르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992.2.1. 부룬디 정부는 홍승호 주부룬디 겸임대사에게 아그레망 부여
  - 4.14. Pierre Buyoya 부룬디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92-0045

대사부임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2 / 16 / 1-28

1. James P. Grant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1992.2.4.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Eduard Spescha 신임 주한 유니세프 사무소장의 임명사실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3.6. 주한 유니세프 사무소장의 임명에 동의함을 주유엔대사를 통해 유니세프 사무국에 통보함.

3. Eduard Spescha 사무소장은 1992.7.1. 노창희 외무부차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앙골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2 / 17 / 1-87

1. 앙골라 정부는 1992.4.15. 주나미비아대사관을 통해 Armando Mateus Cadete 주인도 앙골라 대사를 초대 주한 겸임대사로 내정하였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1.6. 한·앙골라 간 외교관계 수립

2. 한국 정부는 1992.4.29. Cadete 주한 앙골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adete 대사는 1992.12.1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노태우 대통령은 Cadete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앙골라 민주화와 평화정착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Cadete 대사는 초대 주한대사로서 한·앙골라 간 교류 증진 및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92-0047

대사부임 - 불가리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2-2 / 18 / 1-57

1. 불가리아 정부는 1992.5.12. Boyko Christov Mir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대리를 초대 주한 불가리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Mirtchev 대사는 1992.12.1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볼리비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 / 19 / 1-76

1. 1991.11월 Jorge Federico Cespedes Toro 주한 볼리비아대사 이임
   - 11.13. 이임 인사차 국무총리 예방

2. 주볼리비아대사는 1991.11.15. 주한 볼리비아대사로 Fernando Messmer Trigo 볼리비아 외무성 정무차관이 내정되었다고 보고함.
   - 외무성 내 최고 직업 관료인 Messmer 정무차관이 주한 볼리비아대사로 결정된 것은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히 강화되었음을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

3. 한국 정부는 1991.12.12. Messmer Trigo 주한 볼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Messmer Trigo 대사는 1992.1.13. 부임함.
   - 부인은 건강 문제로 인해 4개월 후 서울 합류 예정

5. Messmer Trigo 대사는 1992.1.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49

대사부임 - 콜롬비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 / 20 / 1-96

1. 콜롬비아 정부는 1991.11월 Miguel Duran Ordonez를 주한 콜롬비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Duran Ordonez는 정계 출신 인사로 주OAS(미주기구), 이집트 및 이스라엘대사를 역임한 후 현재 주온두라스 콜롬비아대사로 재직 중에 있음.

2. 한국 정부는 1991.12.2. Duran Ordonez 신임 주한 콜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한국 정부는 청와대 일정상 명년 1월 초순까지는 신임장 제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동 대사에게 통보하도록 주콜롬비아대사관에 지시함.

3. Duran Ordonez 대사는 1992.1.22. 부임하여 1.27.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4. Duran Ordonez 대사는 1992.1.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서울시장,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예방 신청

대사부임 - 코스타리카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MF번호 2022-2 / 21 / 1-307

1. 제3대 Javier Sancho Bonilla 대사

- 1988.4월 신임장 제정
- 1990.5.8. 임기 종료
- 이임 일정
  - 4.16. 외무부장·차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명의 선물 증정
  - 4.17. 외무부차관 주최 이임 오찬
  - 4.27. 대통령 내외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 국회의장, 대법원장, 서울특별시장 등 주요인사 면담 주선

2. 제4대 Rafael Angel Gonzalez 대사

- 1990.6.25. 아그레망 부여
- 1990.11.29. 신임장 제정
- 1991.12.27.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송별 오찬
- 1991.12.31. 이한

3. 제5대 Jorge Edgardo Villafranca Nunez 대사

- 1992.4.29. 아그레망 부여
- 1992.9.15. 신임장 제정
- 1993.3.20. 이한

92-0051

대사부임 - 중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북아2과
MF번호	2022-2 / 22 / 1-96

1. 중국 정부는 1992.9.7. 쟝 팅 옌(Zhang Ting Yan)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초대 주한 중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9.8. 쟝 팅 옌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쟝 팅 옌 대사는 1992.9.1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체코슬로바키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2-2 / 23 / 1-98

1.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1992.3.13. Stefan Moravek 초대 주한 체코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3.23. Moravek 주한 체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oravek 대사는 1992.4.16. 노창희 외무부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Moravek 대사는 1992.4.2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53

대사부임 - 에티오피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 / 24 / 1-45

1.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2.1월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Desta Erifo Anore를 초대 주한 에티오피아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1.28. Erifo 주한 에티오피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Erifo 대사는 1992.6.29. 가족 4명을 동반하여 부임함.

4. Erifo 대사는 1992.7.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가이아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MF번호	2022-2 / 25 / 1-142

1. Peter Winston Denny 주한 가이아나대사 아그레망 신청

- 1991.5.31. 가이아나 정부는 Peter. W. Denny 주중국대사를 초대 주한대사(겸임)로 임명하고, 주베네수엘라 가이아나대사관을 통해 아그레망 신청
- 한국 정부, 1991.6.26. 아그레망 부여
- 가이아나 정부, Denny 대사 임명 취소

2. Ronald Mortimer Austin 주한 가이아나대사 아그레망 신청

- 1991.7.10. 가이아나 정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를 통해 Austin 주한대사(겸임)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
- 한국 정부, 1991.8.8. 아그레망 부여
- 가이아나 정부, Austin 대사 임명 취소

3. Samuel Rudolph Insanally 주한 가이아나대사 부임

- 1991.9.13. 가이아나 정부는 Insanally 주유엔대사를 주한대사(겸임)로 임명하고, 주베네수엘라 대사를 통해 아그레망 신청
- 한국 정부, 1991.10.11. 아그레망 부여
- 1992.4.23. Insanally 초대 주한 가이아나대사, 신임장 제정
  - 신임장 제정 및 주요인사 면담을 위해 1992.4.19.~25. 방한
  - 외무부차관, 산림청장, 국회부의장 등 예방

92-0055

대사부임 - 교황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 / 26 / 1-69

1. 교황청은 1991.11.9. 지오바니 불라이티스 신임 주한 교황청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1.11.19. 지오바니 불라이티스 주한 교황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지오바니 불라이티스 대사는 1992.3.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아이티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MF번호	2022-2 / 27 / 1-85

1. 아이티 정부는 1991.4월 Sonny Seraphin 주뉴욕총영사관 부영사를 신임 주한 아이티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외무부는 Seraphin 부영사의 직급으로 보아 아그레망 요청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인을 주한 아이티대사로 내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하도록 주아이티대사에게 지시함.
   - 주아이티대사대리는 동 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91.2월 집권한 주재국 신정부는 구정권 시 부조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중에 있는바, 재외공관의 경우에도 아이티 교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로 공관장 이하 공관원 전원을 교체하고 있음.
     - Seraphin은 지난 2월 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주한대사로 내정된 것은 Preval 총리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함.
   - 외무부는 Seraphin이 대만(구 중화민국) 상주대사로 한국과 일본을 겸임할 예정이므로 대만 부임 여부를 확인한 후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함.

3. 한국 정부는 1991.6.4. Seraphin 주한 아이티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아이티는 1991.9.30. 쿠데타로 Aristide 아이티 대통령 정부가 축출되고 Nerette 임시 대통령이 취임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함.
   - Aristide 망명 대통령과 Nerette 임시정부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신임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태가 타결될 때까지 신임장 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함.

5. 아이티 임시정부는 1992.5월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Bordes를 한·중국·일본 3국 대사대리로 임명함을 통보해 옴.

92-0057

대사부임 - 인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남아과
MF번호	2022-2 / 28 / 1-125

1. 인도 정부는 1992.4.23. 부페트레이 오자(Bhupatray OZA) 신임 주한 인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5.19. 부페트레이 오자 주한 인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부페트레이 오자 대사는 1992.9.1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이란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동1과
MF번호	2022-2 / 29 / 1-46

1. 이란 정부는 1991.7.26. Zabihola Nofarsti 이란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 자문관을 주한 이란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1.9.3. Nofarsti 주한 이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Nofarsti 대사는 1992.1.8.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Nofarsti 대사는 1992.1.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59

대사부임 - 이스라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동2과
MF번호	2022-2 / 30 / 1-84

1. 이스라엘 정부는 1992.8.11. Asher Naim 주에티오피아 이스라엘대사를 신임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8.28. Naim 주한 이스라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Naim 대사는 1992.10.6.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Naim 대사는 1992.11.2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코트디부아르

생산연도	1983-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2 / 31 / 1-164

1. 1983.7.11. Pierre Nelson Coffi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도쿄 상주)에 대한 수교훈장 흥인장 수여식이 청와대에서 거행됨.
   - 1970.6월 부임 이래 13년간 주한대사로 재직한 친한 인사로서 포니 승용차의 코트디부아르 진출에 기여함.

2.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1991.8.1. Moise Koumoe Koffi를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91.9.3. Koffi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Koffi 대사는 1992.5.23.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5.2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61

대사부임 - 자메이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미과
MF번호	2022-3 / 1 / 1-51

1. 자메이카 정부는 1992.6.22. 주유엔 자메이카대표부를 통해 Derrick Roy St. Clair Heaven 주일 자메이카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7.16. Clair Heaven 주한 자메이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lair Heaven 대사가 1992.12.7. 부임함.
   - 외무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KOICA 부총재, 코트라 사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예방

4. Clair Heaven 대사는 1992.12.1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요르단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동1과
MF번호	2022-3 / 2 / 1-143

1. 제5대 Khaled Falah Al-Madadha 주한 요르단대사

- 1985.11.28. 아그레망 부여
- 1986.5.7. 신임장 제정

2. 제6대 Farouk Qasrawi 주한 요르단대사

- 1991.5.29. 아그레망 부여
- 1992.3.27. 신임장 제정

92-0063

대사부임 - 쿠웨이트

생산연도	1984-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중동1과
MF번호	2022-3 / 3 / 1-96

1. Ahmad Geith Abdullah 주한 쿠웨이트대사(도쿄 상주)는 1984.9.21.~27. 방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외무부 장·차관을 이임 예방함.
   - 동 대사를 위해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을 개최하였으며, 대통령 접견 시 수교훈장 흥인장을 전수함.

2. 쿠웨이트 정부는 1992.7.18. Eissa Abdulrahmana Al-Eissa 주말레이시아 쿠웨이트대사를 초대 주한 쿠웨이트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92.7.31. Al-Eissa 주한 쿠웨이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Al-Eissa 대사는 1992.11.17.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5. Al-Eissa 대사는 1992.11.2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남아과
MF번호	2022-3 / 4 / 1-90

1.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2.3.20. Fadzillah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4.9. Fadzillah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Fadzillah 대사는 1992.6.4. 서울에 부임함.

4. Fadzillah 대사는 1992.7.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65

대사부임 - 몰타

생산연도	1988-1991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3 / 5 / 1-106

1.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몰타 겸임)는 1988.7.27. Tabone 몰타 외무장관 면담 시 Victor Gauci 주호주 몰타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수교함.

2. Gauci 주한 몰타대사는 1989.1.9. 신동원 외무부차관(장관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Gauci 대사는 1989.3.1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Gauci 대사는 일본 왕세자 책봉식 참석 계기 1991.2.26.~27. 방한,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구주국장을 면담함.

대사부임 - 필리핀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 / 6 / 1-328

1. 제7대 Tomas R. Padilla 주한 필리핀대사

- 1986.5.29. Tomas R. Padilla 대사, 아그레망 요청
- 6.23. 아그레망 부여
- 8.18. 부임
- 9.2.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제8대 Raul Rabe 주한 필리핀대사

- 1992.3.2. Raul Rabe 대사, 아그레망 요청
- 3.16. 아그레망 부여
- 4.15. 부임
- 4.2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92-0067

대사부임 - 파푸아뉴기니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서남아과
MF번호	2022-3 / 7 / 1-76

1.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92.3.11. Luci Bogari 신임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4.20. Luci Bogari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Luci Bogari 대사는 1992.4.21. 부임함.

4. Luci Bogari 대사는 1992.4.22.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면담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4.2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페루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남미과
MF번호	2022-3 / 8 / 1-113

1. 페루 정부는 1991.9.19. Alfredo Pella Caceda 주한 페루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1.10.11. Alfredo Pella Caceda 주한 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Pella 대사는 1992.3.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외무부차관 면담(2.20.)
   - 신임장 제정 후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한 예방 신청

92-0069

대사부임 - 러시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동구1과
MF번호	2022-3 / 9 / 1-142

1. 러시아 정부는 1992.2.20. Alexander Nikolaevich Panov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3.16. Panov 주한 러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Panov 대사는 1992.6.22.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Panov 대사는 1992.7.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세네갈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3 / 10 / 1-102

1. 세네갈 정부는 1992.3.26. Aladji Amadou Thiam 주일본 세네갈대사를 신임 주한 세네갈대사(도쿄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4.29. Thiam 주한 세네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Thiam 대사는 1992.11.24.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Thiam 대사는 1992.11.2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92-0071

대사부임 - 우간다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3 / 11 / 1-302

1. Obitre Gama 주한 우간다대사(일본 상주)
   - 1987.1월 아그레망 부여
   - 미부임
     - 주일본 우간다공관 잠정 폐쇄

2. Chebrot Stephen Chemoiko 주한 우간다대사(인도 상주)
   - 1987.9월 아그레망 부여
   - 미부임
     - 우간다 지방행정부장관으로 임명

3. James Juuko 주한 우간다대사(인도 상주)
   - 1988.10.7. 아그레망 부여
   - 1990.3.27. 신임장 제정

4. Oboth Andre Pal Okumu 주한 우간다대사(인도 상주)
   - 1991.12.5. 아그레망 부여
   - 1992.7.7. 신임장 제정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 / 12 / 1-116

1992년 중 영사위임장 발급 관련 내용임.

1. 1991.12.17.자로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관할하는 안도라공국이 주스페인대사관(외교 관할) 및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영사 관할) 관할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조갑동 주바르셀로나총영사에게 안도라공국에 관한 영사위임장이 발급됨.

2. 영사위임장 발급(1992.3월)
   - 이경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
   - 유성걸 주볼리비아대사관 영사
   - 임규화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부영사
   - 김주현 주콜롬비아대사관 영사
   - 박노식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
   - 조성래 주페루대사관 부영사
   - 정제서 주칠레대사관 부영사
   - 박남선 주자메이카대사관 부영사
   - 서익휘 주파라과이대사관 부영사
   - 김윤현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부영사
   - 이찬수 주파나마대사관 부영사
   - 김재선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부영사
   - 전인석 주과테말라대사관 부영사

3. 영사위임장 발급(1992.6월)
   - 유종현 주요코하마총영사

4. 영사위임장 발급(1992.7월)
   - 박태희 주토론토총영사 및 김정순 주상파울루총영사

5. 영사위임장 발급(1992.8월)
   - 나의균 주젯다총영사
   - 권영민 주애틀랜타총영사
   - 장세돈 주라스팔마스총영사
   - 이병태 주호놀룰루총영사

92-0073

최정환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3 / 13 / 1-30

1.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 임명 동의(1991.12.2., 동남아과)

- 주한 호주대사관은 부산 주재 호주 명예영사관 개설 및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여 왔는바, 동 명예영사관 개설 및 명예영사 임명이 한·호주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임명 동의를 건의함.
  - 명예영사 관할구역: 부산직할시 및 반경 120km 이내 지역, 대구직할시, 경주시
  - 명예영사 임명 후보자: 최정환 우성식품(주) 대표이사
- 1991.12.4. 동의 통보

2.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1992.1.9.)

- 공관명: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관
- 직위: 명예영사
- 성명: 최정환
- 임명 동의: 1991.12.4.

3.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 임명 동의(1992.2.5., 서남아과)

- 주한 호주대사관은 주부산 호주 명예영사관 소속 명예부영사의 임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여 왔는바, 주부산 명예영사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임명 동의를 건의함.
- 명예부영사 후보자: 최용석 우성식품(주) 부사장(12월 임명)

김희용 주한 불가리아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3 / 14 / 1-18

1. 주한 불가리아 명예영사 임명 동의(1992.11.11., 동구2과)

- 불가리아 정부는 1992.9.2. 김희용 동양물산 사장의 초대 주한 불가리아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여 온바, 한·불가리아 양국 간 친선 우호관계 증진차원에서 주한 불가리아 명예영사 임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 명예영사에 대한 임명 동의 및 인가장 발급을 건의함.

2. 인가장 발급

- 1992.11.30.자로 김희용 주한 불가리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92-0075

박재익 주한 에스토니아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2022-3 / 15 / 1-28

1. 주한 에스토니아 명예영사 임명 동의(1992.10.15., 서구2과)

-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주한 명예영사로 박재익 조양상선(주) 사장을 임명하였음을 통보하여 왔는바, 한·에스토니아 양국 간 친선우호관계 증진차원에서 주한 에스토니아 명예영사의 임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을 건의함.

2. 인가장 발급

- 1992.10.17.자로 박재익 주한 에스토니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3 / 16 / 1-38

1. 1992.4.1. 에티오피아 정부는 신세길 삼성물산 사장을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5.28.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동의함을 통보함.

2. 1992.7.9. 에티오피아 정부는 신세길 사장을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영사로 임명, 정부는 7.27. 동인에게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92-0077

주한 자메이카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 / 17 / 1-96

1. 자메이카 정부는 1987.2월 이종욱 삼익건설 회장을 주한 자메이카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자메이카 정부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며 임명 동의를 요청해옴.
   - 한국 정부는 명예총영사 임명이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메이카 측의 입장과 희망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이종욱 회장의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함.

2. 한국 정부는 1987.2.18. 이종욱에 대한 주한 자메이카 명예총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3. 자메이카 정부는 1987.11.11. 곽영직 수원대학 국제학장을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옴.

4. 한국 정부는 1988.2.23. 곽영직에 대한 주한 자메이카 명예총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김홍근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3 / 18 / 1-35

1.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 임명 동의(1992.7.6., 서구2과)

- 리투아니아 정부는 1992.6.4. 초대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에 김홍근 홍중물산 회장을 임명하였음을 통보하여 왔는바, 한·리투아니아 양국 간 친선우호관계 증진차원에서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 임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을 건의함.

2. 인가장 발급

- 1992.6.30.자로 김홍근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3.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 개설

- 주한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이 발트 3국 중 처음으로 1992.7.15. 개관함.

92-0079

이종록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3 / 19 / 1-76

1. 1991.12월 방한한 유르킨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시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 추천을 의뢰함.
   - 외무부는 이종록 삼익주택 회장을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 후보자로 추천함.

2. 라트비아 정부는 1992.6.9. 이종록 삼익주택 회장을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92.7.31. 이상록 삼익주택 회장에 대한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 9.1.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관 개설, 입국사증 발급 등 영사업무 개시

정범식 주한 루마니아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3 / 20 / 1-18

1. 루마니아 정부는 1992.11.24.자 공한으로 정범식 자유건설주식회사 사장의 주한 명예총영사 임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2.12.7. 정범식 자유건설주식회사 사장에게 주한 루마니아 명예총영사 (관할구역: 부산) 인가장을 발급함.

92-0081

중남미지역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2-3 / 21 / 1-214

1987~92년 중 중남미지역의 명예영사 접수 관련 내용임.

1. 벨리즈(1987년도)
   - 서민석
     - 10.6. 명예총영사 인가장 발급
   - 서준석
     - 10월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2. 멕시코(1988~92년도)
   - 구두회
     - 1989.6월 한국 측,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

3. 온두라스(1988~92년도)
   - 지광열
     - 1988.5.1. 명예총영사로 승격, 1992.11.4. 해임
   - 강의구
     - 1992.1.9. 주부산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4. 그레나다(1990년도)
   - 이충구
     - 11.29. 명예영사 임명장 발급

5. 세인트루시아(1991~92년도)
   - 차일주
     - 3.21.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6. 칠레(1992년도)
   - 전덕호
     - 8.14. 주부산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7. 과테말라(1992년도)

- 차일석
  - 10.1.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8. 바베이도스(1992년도)

- 손홍원
  - 10월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

92-0082

Jacob Helo, Miguel 주Santiago(칠레) 명예총영사 임명, 1992.2.1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 / 22 / 1-34

1. 주칠레대사는 1992.1.10. 외무부에 산티아고 주재 명예총영사 임명을 건의함.
   - 주재국 유수 실업가이며 현 정권하에서 약 8년간 해외공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저명 외교관인 Helo는 향후 한·칠레 우호협력 관계의 긴밀화는 물론 최근 주재국 내에서 크게 손상된 한국 이미지 회복에 자신이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주산티아고 명예총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당관은 1989.12.31. Kovacs 전임 명예영사 해임 이후 적절한 인물이 없어 신규 명예영사 임명 건의에 신중을 기하여 왔는바, Helo가 주재국 재계 최정상급 인사들과 견줄만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계, 언론계, 문화계 및 군부 등 각계 실력자들과 폭넓은 친분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당관의 외교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이며, 특히 동인이 최근 한국동포 체류권 문제로 손상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어 명예총영사로 적절한 인물로 사료되어 적극 추천함.

2. 외무부는 1992.2.18. Miguel Jacob Helo를 주산티아고 명예총영사로 발령함.

3. 칠레 정부는 1992.6.5.자 공한을 통해 주재국 정부가 Helo를 주산티아고 명예총영사로 임명하는 데 동의함을 통보해 옴.

4. 주칠레대사관은 1992.8.1. 칠레 정부의 Helo에 대한 한국 명예영사 임명 동의 부여(6.5.)에 따라 동인은 한국을 위한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 그간 현지 정착 교민에 대한 주재국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주재국 정계, 실업계 및 군부인사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현지 교민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측면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함.

5. 주칠레대사관은 1992.10.9. Helo 명예총영사에게 동인의 업무에 필요한 집기 및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효과적인 영사활동을 당부함.

주Nouadiv(모리타니) 명예영사 임명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3 / 23 / 1-104

1986~92년 중 주누아디부(모리타니) 명예영사 임명 관련 내용임.

1. Maurice Benza 초대 명예영사 임명

- 주모리타니대사는 한국 수산 진출 분야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정통하며, 주재국 정부 요로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Maurice Benza를 모리타니 항구도시인 누아디부의 명예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
- 후속조치
  - 1989.12.22. 외무부는 동인을 명예영사로 발령 조치
  - 모리타니 외무성은 1990.6.19. 동인에 대한 인가장을 주모리타니대사관에 송부
  - 8.16.자로 동 명예영사관 개설

2. Cherif Hamahoullah 명예영사 임명

- 주모리타니대사대리는 Maurice Benza 초대 명예영사가 의원면직함에 따라 모리타니 수산업계 최고 실력자인 Cherif Hamahoullah를 주누아디부 명예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건의
- 외무부는 1992.12.9. 동인에 대한 위임장 발급

92-0084

Seeyave, Antoine A.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해임 검토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3 / 24 / 1-43

1. **주모리셔스대사관은 1987.5.12. Antoine Seeyave 주모리셔스 명예영사의 임기 만료(3.23.)에 따라 동인에 대한 명예영사직 만기 통고를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1988.8월 Seeyave 명예영사에 대한 임기 만료에 따른 해임 조치를 검토하였으나 현행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 조치가 불가능하며, 동 규정 제8조(해임)에 의거 공관장이 교체 또는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무부에 건의함으로 개별적으로 처리 가능함을 통보함.

2. **주모리셔스대사관은 1991.11.22. 모리셔스 외무성의 상주공관 설치국에 대한 명예영사 임명 불인정 입장에 따라 외무부의 재검토를 요청함(Seeyave 명예영사 DP 명단에서 일방적 삭제).**

3. **모리셔스 외무성은 1992.8.27. Seeyave 명예영사의 영사활동 재개 허가 서한을 발송하여 주모리셔스 명예영사는 존치됨.**

구주지역 명예영사 임명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서구2과
MF번호 2022-4 / 1 / 1-157

1. 주오르후스 명예영사(덴마크)

- 1987.3.14. Joern Jensen 명예영사 임명
  - 6.12. 주오르후스 명예영사관 개관
- 1988.3.18. 주오르후스 명예영사, 외무부 구주국장 예방 및 오찬
- 1992.5.26. Joern Jensen 명예영사 재임명

2. 주몰타 명예총영사

- 1990.4.10. John E. Sullivan 명예영사 임명
- 1992.1.1. Camel E. Sullivan 명예총영사 해임
  - John E. Sullivan 명예총영사 임명

3. 주레이캬비크 명예영사(아이슬란드)

- 1991.10.1. Borcur Arnason 명예영사 임명

4. 주로테르담 명예총영사(네덜란드)

- 1992.2.18. Rodolf P. A. Hoorweg 명예총영사 임명

92-0086

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22-4 / 2 / 1-37

1992년 중 재외공관 무관부 개설 및 겸임국 조정 검토 관련 내용임.

1. 주루마니아대사관 상주 무관부 개설

- 1992.5.7. 주루마니아대사관은 김병갑 대령의 주재 무관 아그레망을 루마니아 정부에 요청함.
- 6.3. 루마니아 정부는 김병갑 대령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 10.1.자로 루마니아에 상주 무관부를 개설함.
  - 한상기 주이탈리아 국방무관의 루마니아 겸임 해제

2.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무관부 개설(폴란드 상주)에 대한 외무부 의견(1992.6월)

- 주체코 무관부 개설은 체코 당국의 승인 필요 없이 통고만으로 가능하며, 국방부의 무관부 개설 계획에는 이의 없음.
- 다만, 아래 사유로 주폴란드대사관 무관보다는 주독일대사관 무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코와 폴란드 간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가 사실상 없고 체코의 폴란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1968년 폴란드를 포함한 바르샤바조약기구 5개국이 체코를 침공한 사실 등도 있어 주폴란드 무관이 체코 무관을 겸임할 경우 체코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임.
  - 안보 문제에 있어서 체코의 최우선 관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NATO 안보체제로 편입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주요 NATO 회원국과 양자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 중인바, NATO 국가 중에서 독일이 체코의 관심 수용에 가장 적극적임.
  - 체코와 독일은 양국 합참장교단 간 정기적 회합, 독일 사관학교에 체코 장교요원 60명 파견 및 교육, 군 고위인사의 빈번한 교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체제에 의한 군사 분야 관찰단 파견 등을 긴밀히 협력 중임.
  - 체코는 군사 편제와 무기체제를 나토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바, 미국과 독일을 최우선 협력대상으로 하고 있음.

3. 겸임국 조정 검토(1992.8월)

- 국방부는 주사우디 무관부의 겸임국으로 현행 요르단 외 쿠웨이트, 예멘 및 아랍에미리트를 추가로 검토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중동국가들의 성향, 군수 협력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노태우 대통령 주최 주한 외교단 초청 만찬, 1992.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3 / 1-70

1992년 중 노태우 대통령 주최 주한 외교단 초청 만찬 관련 내용임.

1. 일시: 1992.2.7. 18:30

2. 장소: 청와대 영빈관(케이터링: 신라호텔)

3. 복장: 블랙타이 또는 고유의상(국내 주요인사 부인 복장: 한복)

4. 초청 범위(부부 동반): 110(205)명
- 외교단: 83(155)
  - 대사: 63(123)
  - 대사대리: 13(19)
  - 총영사: 1(2)
  - 국제기구 대표: 6(11)
- 행정부 각료: 9(18)
  - 부총리, 외무부장관, 문화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 서울시장
- 청와대: 9(16)
  -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공보수석, 의전수석,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 외무부: 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기획관리실장, 외교정책기획실장, 제1차관보, 제2차관보, 의전장
- 국회: 박정수 외무·통일위원장
- 기타: 윤석헌 외교협회장

5. 진행 순서
- 참석자 입장
- 대통령 내외분 도착
- 대통령 만찬사, 외교단장 답사, 만찬 개시
- 만찬 종료
- 대통령 내외분 퇴장

92-0088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전2권 (V.1 1991.7-9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6 / 1-198

1991.7~9월 중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의 예금자산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1. 중동계 다국적 은행 BCCI 서울지점 자산동결

- 조치내용: 1991.7.6.자 자산동결(예금지급도 포함)
- 배경
  - 1991.7.5. 6개국에서 영업정지, 자산동결
  - 룩셈부르크, 영랑은행 측에서 협조 요청
  - BCCI 본점에서 동결방침 통보
  - 1991.7.6.자 BCCI 서울 지점장의 동결 보고

2. BCCI 은행 서울지점 자산동결에 따른 대외교단 대책(1991.7.11., 외무부)

- 주한 외교단 관련 현황
  - 약 30개 공관의 공·사용 자금 약 600만 달러(484개 계좌) 상당이 인출정지 상태
  - 관련 공관들은 정상적 공관운영과 일상생활을 위하여 예금 인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
- 처리 전망
  - 런던소재 본점에 대한 청산절차가 곧 개시될 예정으로 서울지점도 청산절차 적용이 불가피
  - 재무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예수금(277억 원)에 비하여 자산(672억 원) 규모가 크므로 예금주에 대한 변제에는 큰 문제없음(다만 예금 자산이 50억 원 미만에 불과하므로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대책
  - 외교공관 및 외교관 개인계좌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강구

3. BCCI 서울지점 설립인가 취소

- 1991.7.30. 케이만군도가 BCCI Overseas의 본점에 대하여 은행업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한국도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8.1. 서울지점의 지점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고, 법원의 청산명령이 내려지는 대로 청산이 개시될 전망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 예금자산 처리 문제. 전2권 (V.2 1991.10월-9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7 / 1-233

1991.10월~92년 중 BCCI 은행 서울지점 청산 관련 주한 외교단의 예금자산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1. 중동계 다국적 은행인 BCCI 서울지점 청산과 관련한 주한 외교단 요청사항

- 청산절차 장기화에 불만: 1991.7.6. 동결 이후, 채권신고 공고(10.2.)까지만 약 3개월 소요
- 청산의 장기화 전망에 대비한 구제조치 요청: 우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예금의 일정비율을 변제, 긴급한 공관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2. 주한 외교단의 BCCI 청산 관련 요구 검토(1991.12.26., 국제협약과)

- 국제법적 검토: 외교단에 대한 우선변제 근거 박약
- 국내법적 검토: 현 청산단계에서 우선변제 불가능
- 대처방향: 문제의 장기화에 대비, 대내외적으로 상이한 대처 필요
  - 대내적으로 관계부처에 대하여는 국내법상 한계는 있으나, 심각한 외교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정책적 배려 요청
  - 대외적으로 외교단에 대하여는 외교단의 요구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박약하고, 사법부가 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되, 주재국으로서 최대한 협조 천명
- 관련 조치: 서울 민사지법,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 등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

3. BCCI 서울지점의 예금지급 방침

- BCCI 서울지법 청산인단 대표(이돈희 변호사)는 동 지점 청산과 관련, 1992.1.22. 외무부에 예금지급 방침을 아래와 같이 최종결정하였다고 알려옴.
  - 1억 원 미만 예금주는 예금액 전액지급
  - 1억 원 이상 예금주는 1억 원과, 잔여액 반을 합한 금액 지급
  - 동 예금지급은 1992.2.10.부터 개시

4. BCCI 서울지점 청산 관련 예금지급 동향

- BCCI 서울지법 청산인단 대표(이돈희 변호사)는 1992.2.10. 주한 외교단 예금주에 대한 1차 청산 후 연내 완전청산을 목표로 노력하여 왔으나, 사우디 은행으로부터 채권(약 300만 달러)을 회수하지 못하여 주한공관 및 공관원(6개 공관 및 3개 개인구좌)에 대한 추가 청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



● 외무부는 주한 외교단 예금주 전체에 대한 연내 청산이 어렵다면 소액 예금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내 완전청산 하도록 강력 요청한바, 청산인 측은 주한 멕시코대사관 예금 잔액(10,396.43달러) 및 Cortese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문정관의 예금 잔액(1,910.84달러)을 12.21.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함.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8 / 1-106

1. 1992.4월 중국, 캐나다, 튀르키예, 러시아, 카타르 등 주한 외국공관들은 외교행낭 수발 시 X-ray 통과 문제, 탁송화물 개봉 문제 등에 대한 항의를 외무부에 제기함.

2. 1992.4.29. 외무부는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검토를 위해 각국별 외교행낭 및 외교화물 반출입 시 X-ray 투시 운영 현황을 파악·보고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 X-ray 불투시 방침 국가
  -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호주 등
- X-ray 투시 예외적 실시 국가
  - 경찰 실시: 이탈리아
  - 항공사 실시: 독일, 핀란드, 태국
  - 은밀 실시 추정: 영국, 캐나다, 프랑스

3. 1992.11.11. 주한 외국공관 외교행낭 및 화물 반출입 문제 토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개선 지침을 마련함.

- 참석부처
  - 외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관세청, 경찰청, 김포세관, 서울세관
- 개선안 주요 내용(지침)
  - 외교 및 영사행낭(포장물에 외교행낭 및 외교가방 표시된 것에 한정)에 대한 경찰 및 세관 당국의 X-ray 투시 및 문형 탐지 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행낭의 개봉 및 유치 금지(중대한 오용 의심이 있을 경우 외무부와 사전협의)
  - 국제기구행낭은 외교행낭에 준하여 취급
  - 주한 외국공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의 공용화물로 확인된 경우 세관 및 경찰 당국에 의한 개봉 금지
  - 국내 법령상 반입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X-ray 투시가 가능하나 개봉 시 공관 직원 입회하 실시

92-0091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변 건물 신축 문제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9 / 1-355

1. 주한 프랑스대사관 인접부지 건물 신축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9.3월 ㈜해동화재해상보험이 동 대사관 인접부지에 17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 건물이 신축될 경우 대사관 및 관저의 보안과 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외교공관에 전달해 옴.
- 외무부는 서울시에 대하여 ㈜해동과 동 대사관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바, 서울시는 외무부의 요청 및 자체 내규에 의거하여 ㈜해동 측이 1989.11월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합의 성립 시까지 보류하기로 함.

2. 주한 프랑스대사관 직원주택 취득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대사관과 인접하여 사옥을 신축하고 있는 ㈜해동화재로부터 건축 중 야기되는 소음, 불편 등에 대한 보상으로 이태원동 소재 청화아파트 35평 규모 1채(시가: 2억 2천만 원)를 증여받기로 1990.12.17. ㈜해동 측과 약정하고, 1992.5.12. 대사관이 증여받을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토지 허가를 신청해 옴.
-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토지취득 절차에 대한 문제와 조세관계 검토 결과
  -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해동 측으로부터 문제의 주택을 증여받는 것은 외무부의 중재에 의한 것인바, 취득 자체는 허가하되 모든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 세금을 납입하도록 함.

3. ㈜해동화재 사옥 신축 관련 주한 프랑스대사관과의 분쟁(1992.10.6., 주한 프랑스대사의 외무부 의전장 면담 시 제기)

- ㈜해동화재는 도시재개발계획에 의거 1990년 사옥 신축 허가를 받아 지하굴토 공사 진행중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을 이유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
- 쌍방 교섭 결과 아파트 1채 보상금조 지불 및 합의로 공사 재개
- 동 지하굴토 공사 시 상기 합의는 다이너마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 착수 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 암반층으로 인하여 폭약 사용 없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
-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은 상기 공사 시 폭약 사용은 명백한 합의 위반인 점을 들어 공사 중지 민원을 외무부에 제기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직원주택 신축

생산연도 1975-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12 / 1-88

1975~92년 중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직원주택 신축 관련 내용임.

1. 대사관 부지(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

- 내무부는 1975.4.3. 외무부에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 관련 의견문의
- 외무부는 상호주의 조건의 적용상 이의 없으며 공공 목적상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함이 당연하다고 회신

2. 대사관 공관건물 건축 허가

- 외무부는 서울시에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요청하여 왔다고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
- 서울시는 외무부에 1976.8.25.자로 건축 허가가 처리되었음을 통보

3. 무관 주거용 택지 및 가옥 취득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1.1.16.자 공한으로 무관 주거용 택지 및 가옥 취득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88.7.20.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니 직원이 주택용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7.23.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사용권에 불과하고 동 사용권은 공관에서 사용하는 한 기한 제한이 없으며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7.30. 동 사실을 내무부에 전달함.

4. 직원 아파트 증축 관련 건축 부가세 면제 협조 요청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92.7.30.자 공한으로 대사관 직원아파트 시공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건축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동건 관련 서울시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바, 서울시는 10.21. 대사관 부지 내 대사관 직원주택 건립 시 비엔나협약 제34조에 의거 외교관 주택의 경우 제세 및 부과금이 면제되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제6조의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함.

92-0093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 부지 취득세 부과 문제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13 / 1-194

1. 뉴질랜드 정부는 1986.9월 GST(상품용역세)를 신설, 10.1.부터 뉴질랜드 주재 외국공관에게 GST를 부과함.
   -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8.8월 관저 신축부지 구입시 GST(52,000달러 상당) 지불

2. 1989.6월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1987.3월 취득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에 대한 취득세(43,000달러 상당) 부과를 결정하고 1990.3월 고지서를 발송함.

3. 1992.7.26. 한·뉴질랜드 외무장관회담시 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 부지 구입시 지불한 GST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제의를 수락하고, 8.18. 환불액 송금을 완료함.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11.10.자로 철회함.

4.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및 동 시행령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 당국이 국내 관련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함.

5. 과세요청대상
   - 대사관 사무실
   - 대사관 사무실 주차장 사용료
   - 대사관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관련 요금
   - 대사관 및 대사관저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사용료
   - 대사관 및 대사관저의 전기요금

주한 폴란드대사관 공관부지 취득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2-4 / 14 / 1-80

1. 주한 폴란드대사관 공관부지 취득 문제

- 주한 폴란드대사관 청사용 건물 물색
  - 1991.1.11. 종로구 가회동 소재 공관부지 토지거래계약 신고서를 종로구청에 제출
  - 1.29. 종로구청은 동 토지계약 중지를 권고하는 공문 발송
- 종로구 부암동 소재 공관부지 취득 문제
  - 주한 폴란드대사관은 7월 부암동 소재 공관부지에 6층 건물 신축 추진
  - 청와대 인근지역으로 보안상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명되어 공관부지 취득 무산
- 동빙고동 주한 폴란드대사관 신축 검토
  - 10월 동빙고동 소재 공관부지에 대사관 신축 가능 여부를 용산구청에 문의

2. 주한 폴란드대사관 이전

- 주한 폴란드대사관은 1992.7.20.부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공관으로 대사관 이전 예정 통보

92-0095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매입 지원 문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 동구2과
MF번호	2022-4 / 15 / 1-46

1.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확보 문제

- 1991.3월 주한 루마니아대사관은 부카레스트 주재 한국대사관의 청사 및 관저 임차비가 루마니아 수상의 직접 관여로 인해 감액 조정된 만큼, 한국 측도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물색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 주루마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의 월 임차비로 루마니아 측은 당초 25,000달러를 제시하였으나 교섭 결과 12,425달러로 조정됨.
- 루마니아 측은 한국이 지불할 월 임차비가 12,425달러로 이는 서울에서 대사관 청사임차도 어렵다면서 상호 임차건물 교환 또는 청사 구입 시 정부차원의 차관 제공 또는 일반은행의 대부를 요청
- 한국 측 입장
  - 상호 임차건물 교환방식은 양국 간 시장제도상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현실과 종전의 관례가 없는 만큼 곤란
  - 은행차관 제공도 한국의 국제금융시장 및 자금 여건상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
- 대책
  - 루마니아 측에 대해 청사 임차방안을 검토하도록 적극 권유
  - 루마니아 측의 청사매입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곤란한 입장

2. 한·루마니아 청사부지 교환 문제

- 1992.4.2. Dianu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참사관은 외무부 특전담당관을 방문, 한·루마니아 간 공관부지 상호교환 및 청사매입을 위한 은행융자 주선 가능성을 문의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아래와 같이 설명
  - 현재 공관부지의 상호교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무부 소유의 부지가 전혀 없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환용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한바, 공관부지 상호교환을 하지 않을 방침임.
  - 은행융자는 담보 등 상업성에 따라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주한 태국대사관 무관용 주택 매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16 / 1-30

1991~92년 중 주한 태국대사관 무관용 주택 매입 관련 내용임.

1. 외국인토지권리 취득 허가 신청

- 내무부는 1991.12.12. 외무부에 주한 태국대사관이 무관 관사 취득 목적으로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의견 회신을 요청함.

2. 공관 검토 지시

- 외무부는 1991.12.18. 주태국대사에게 별도의 부동산 매입 시 주재국 측이 동일한 호혜 및 면세혜택을 부여하는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태국대사는 주재국은 외국공관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고함.

3. 외무부의 의견 통보

- 외무부는 1992.1.1. 내무부에 주한 태국대사관이 무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반대의견 없음을 통보함.

92-0097

주한 터키대사관 관저매입 문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17 / 1-29

1990~92년 중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관저매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관저 개요

- 위치 및 규모: 서울시 성북동 소재, 대지 250평, 건평 167평
- 소유주: 대한주택공사
- 임차료: 월 3,473,000원(1년 임차료 선불)
- 임차 기간: 1975.4.29.~92.5월
- 주요 계약내용
  - 매 1년씩 임차 연장, 상호 60일 전 통고로 계약 종결 가능

2. 문제 경위

- 대한주택공사 측은 재정 악화로 투자자본 회수와 관리경비 경감을 위해 1991.4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관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측에 이를 통보
- 동 관저 매각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주한 튀르키예대사관은 동 관저를 주공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튀르키예 측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신관저 물색을 위해 임차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공 측이 이를 수락하여 1992.5월까지 임차 기간 연장
- 동 관저는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어 1992.6.22. 제2차 경쟁입찰 예정
- 주한 튀르키예대사관은 1992.5.15. 대사관저를 용산구 동빙고동으로 이전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1 1986-87)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18 / 1-214

1986~87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4.1월 주한 미국대사관과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경기여고와 미국대사관이 소유한 미국문화원 및 여타 미국 재산을 상호 교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협상을 개시

2. 협상 내용

● 기합의 사항
- 경기여고와 미국문화원을 감정원 평가액에 의거 교환함(1985.4월).
- 경기여고: 약 140억 원, 미국문화원: 약 85억 원

● 미국 측은 부족분 충당을 위해 안국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EC Ⅱ)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아래 원칙에 따라 추가로 제공함.
- EC Ⅱ 부지: 감정원 평가액 적용(약 31억 원)
- 건물: 신축비용 적용

3. 잔여 논점

● EC Ⅱ 건물 신축비용 산정 문제
- 서울시 측: 약 7.8억 원
- 미국 측: 약 12.9억 원

● 미국문화원 계속 임차에 따른 임차료 문제(미국 측은 문화원 건물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 후 동 건물 임차사용 희망)
- 서울시 측: 국내 법규에 의거, 정부 소유 건물의 연 임차료는 건물가의 10%
- 미국 측: 10% 이하 희망

4. 현재 협상 상태

● 서울시는 1985.11월 상기 2개 잔여 논점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제시하고, 미국 측 입장 요청
- 상금 미국 측 반응은 없음.

● 미국 측은 본 건 타결 시까지 미 국무부 발주 공사(공관 신축 등)에 한국업체 참여 배제

● 외무부는 서울시와 미국대사관 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조정 역할 수행

92-0099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2 1988)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19 / 1-112

1988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과 미국 입장의 대립

- 한국 측(건설부) 입장
  - 국내 관계법에 의거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설계 및 시공은 한국 건축가 및 건설업자가 해야 함.
- 미국 측 입장
  - 미 국내법에 의하면 재외공관 공사 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 미국업자가(단독 또는 비 미국업자와의 합작) 주계약자가 되어야 함.
  - 단독설계 및 시공불가 시 합작가능 여부 타진

2. 과거 사례

- 주미국대사관저 신축
  -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한국 및 현지 설계회사와의 공동 수의계약
  - 용역 계약금액 비율: 한국 측 33%, 미국 측 67%
  - 시공업체: 미국 Skinker & Garrett 건설회사

3. 관계부처 회의(1988.4.30.)

- 미국업체 참여에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명분으로 한국의 대미 건설시장 진출에 유사한 제한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에 한해 현행법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업체 참여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미국업체가 국내 건설업체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 한해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
- 설계
  - 미국 측이 대사관 건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국내 설계사에 제공하여 국내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미국 측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한국 측 설계사가 수정 및 제출하는 방안
- 시공
  - 미국 측이 기존면허를 취득한 국내 건설업체와 합작투자를 통해 참여 또는 미국 측이 기존 합작 투자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방안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3 1989-90)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 / 20 / 1-152

1989~90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0.7.3. 고건 서울시장은 Ivan Selin 미 국무부 운영담당 차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재산교환계약서 및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교섭을 종결시킴.

- 재산교환계약서
  - 서울시 소유 경기여고 부지와 미국 소유 주한 미국문화원 및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의 일부를 교환
  - 미국 측은 재산교환서 부족분 차액을 서울시에 현금으로 지불
-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
  - 미국 측은 상기 계약에 따라 서울시 소유가 된 미국문화원 건물을 신청사 완공 시까지 서울시로부터 임차 사용
- 교섭 경위
  - 1986.10월 서울시는 양해사항이 실정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 양측 간 협의 중단
  - 1990.1.6. 서울시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10월 양해사항을 수용하는 선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문제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1990.1.29. 주한 미국대사관은 재산교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승인을 추진하던 중 미 법무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서울시에 수정안 제시: 계약서는 서명 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 주장
  - 1990.6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측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칙적으로 실무합의(1월)에 이른 계약서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서울시와 최종계약서에 합의: 원칙적으로 1986.10월 양해각서 내용 수준

2. 향후 전망

- 재산교환계약서 및 미국문화원 임대차계약서는 시행 절차를 밟아 1991.1.1.자 발효 예정
- 주한 미국대사관은 경기여고 부지에 신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이주 예정
  - 약 5년 소요 예상

92-0101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전4권 (V.4 1991-92)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5 / 1 / 1-117

1991~92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관련 내용임.

1. 서울시의 미국문화원 도서관 이전 요청

- 배경 및 현황
  - 1990.7월 고건 서울시장과 Ivan Selin 미 국무부 행정담당 차관 간에 계약서가 체결됨으로써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장기간의 한·미 간 교섭이 종결됨.
  - 미국 정부는 재산교환일(1991.1.15.)로부터 5년 이내 주한 미국대사관 신청사를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 신청사가 완공되지 못할 경우 및 미국 정부가 연장 요청할 경우 양측은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 임대차계약의 연장에 관해 협의할 수 있음.
  - 미국 측은 상기 계약서에 따라 1991.1.15.부터 미국문화원 건물을 주한 미국대사관 신청사 완공 시까지 서울시로부터 임차 사용
- 서울시 요청사항
  - 미국문화원 잔여시설(2층 도서관)을 여타 장소로 이전하는 데 외무부의 협조 요청
- 평가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기간을 1991.1.1.부터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도서관 시설 이전 요청은 동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규정한 동 계약서 제17조 (1)항에 따라 미국 측의 양해를 종용할 수는 있음.
- 해결방안
  - 미국 측에 대해 현 도서관 시설이 그 위치상 서울시 시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여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해 나가도록 양해 촉구: 이 경우 한국 측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점은 없음.
  - 미국 측은 최초 임대 기간(1991.1.1.~12.31.) 동안 미국문화원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1991.9월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 시 2층 도서관만 사용하기로 합의를 변경하고 나머지 공보·문화기능은 용산 미8군 내 대사관 직원숙소로 옮겨간 전례가 있는 바 이를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
  - 외무부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담당관을 초치하여 이전을 요청하는 방안 및 재산계약서 체결 당사자인 서울시에서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 방안 중 택일

2. 한국 내 미국 정부 재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수록됨.

주한공관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5 / 2 / 1-113

1985~92년 중 주한공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해결사항 관련 내용임.

1. 1985·1988·1989년 요청사항

- 주한 이란대사관 상수도 수압 부족 문제
- 주한 프랑스대사관 건축물 준공검사
- 주한 오만대사관저 진입로 문제
- 주한 프랑스대사관 대로변 안내판 설치 허가 문제 등

2. 1990·1991·1992년 요청사항

-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 소유 토지 점유 및 옥상건축물 관련 한국인과의 문제
- 주한 영국대사관의 부산국제학교 설립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
- 주한 콜롬비아대사관 보안등 설치 문제
- 프랑스문화원의 작품 전시를 위한 건물 화포장식 허가 문제 등

92-0103

주한 서울독일학교의 법적지위 검토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2-5 / 3 / 1-84

1987~92년 중 주한 서울독일학교의 법적지위 검토 관련 내용임.

1. **1987.3.26.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독일 문화협정에 의거 서울독일학교 교장에 대한 면세를 외무부에 요청함.**
   - 면제부여 요청 사항: 보수에 대한 조세, 가구 및 자동차 포함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등

2. **1987.6.22. 외무부는 서울독일학교가 양국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한·독일 문화협정에 규정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학교 교장은 면제 향유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보함.**
   - 외무부는 서울독일학교의 주요 설립 목적이 한국 체류 독일 자녀에 대한 교육임을 들어 문화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설명

이라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중동1과
MF번호 2022-5 / 5 / 1-161

1992년 중 이라크의 유엔안보리 결의 불이행 관련 미국의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연혁

- 1992.7.23. 주한 미국대사관,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 불이행 관련 Non-paper 수교
- 7.28. 주한 미국대사관, 공개성명 발표 요청 Non-paper 수교
- 8.3.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
- 8.28. 주한 미국대사관, 부시 미 대통령의 대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선포에 대한 공개 지지 요청 non-paper 수교
- 10.6. 주한 미국대사관, 이라크의 해외 자산 압류 결의 관련 Non-paper 수교

2. 미국 측의 요청 내용

-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불이행 현황
  - 이라크 농무부 청사 사찰 거부 등 UNSCOM(유엔특별위원회) 활동 방해(제687호 및 제707호)
  -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구입을 위한 부분적 석유 판매 거부(제706호 및 제717호)
  - 자국민에 대한 유혈 진압 계속(제688호)
-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 이라크 측의 UNSCOM 사찰 방해 및 여타 안보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공개적 비난 입장 표명
  - 고위인사 상호 교류 자제
  - 주이라크대사관 격상 또는 증원 자제

3. 한국 측 반응(1992.7.30. 외무부장관의 주유엔 미국대사 면담 시 입장 표명)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이라크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라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대이라크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원유 등 자원을 보유한 이라크가 한국에게는 중요한 건설 및 상품 시장이 될 것이며, 다수 한국 건설업체가 상당액의 대이라크 미수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고자 함.

92-0105

미국의 대요르단 추가지원 요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5 / 6 / 1-26

1991~92년 중 미국의 대요르단 추가지원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Hendrikso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91.12.5.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1992년도 요르단 재정적자가 4억 5천만 달러 내지 약 5억 달러로 예상되며, 3억 달러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걸프전 지원비 중 미배정분 3천만 달러의 대요르단 지원을 요청함.

2. Fariz 요르단 기획부장관은 1991.12.12. 주요르단대사 면담 시 3천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92.1.23. 미국과 요르단 정부의 요청을 감안하여 걸프 주변국 지원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6천만 달러 중 1천만 달러를 요르단에 지원하기로 함.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1 보고 및 면담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 / 7 / 1-263

1. 팬암기 폭파사건

- 1988.12.21. 런던발 미국행 팬암 103호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함.
  - 탑승자 259명 전원 및 지상 민간인 11명 등 총 270명 사망
- 1991.11.14. 영국 및 미국 당국은 리비아 요원 2명을 동 사건 피의자로 기소함.
  - 미국 측은 리비아 최고위층의 승인하에 리비아 정보부가 자행한 국가테러로 간주
  - 영국은 동 피의자 인도를 리비아 측에 공식 요청
- 11.27.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은 리비아에 피의자 인도, 희생자 배상, 테러행위 완전 폐기를 촉구함.

2. 팬암기 사건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 1991.12.5. 영국은 피의자를 미국·영국 측에 인도하도록 한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 EC(구주공동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미국 및 영국의 범인 인도 지지 입장 발표
- 12.7. 리비아는 동 사건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에 관한 입장을 한국 정부가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함.
  - 아랍연맹, 이집트 등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리비아 입장 지지
- 12.26.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한국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
  - 한국 기업의 대리비아 대규모 건설공사(약 40억 달러) 등 경제적 특수 관계 감안

3. 팬암기 사건 관련 대리비아 제재

-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2.18., 3.11.)
  - 민항기 운항 정지 시 근로자 수송 방안, 공관 축소, 제재조치 대책반 운영 등 협의
- 4.1. 대리비아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748호를 채택함(4.15. 발효).
  - 항공기 취항 금지, 군수품 금수 및 리비아 외교관 감축 등
- 한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사항
  - KAL의 트리폴리 취항 금지, 무기 및 군수품 수출 금지, 테러와 관련된 리비아인 입국 금지 등

92-0107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 / 8 / 1-210

1. 팬암기 폭파사건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12.26.)

- 팬암기 사건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
  - 미국 및 영국은 리비아가 피의자 2명을 인도하도록 리비아에 영향력 행사 요청
  - 리비아는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자국 입장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줄 것 요청
- 회의 결과
  - 양측의 입장은 이해하나 한국 입장의 공개적인 발표가 어려운 데 대한 이해를 구함.

2. 대리비아 제재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 1992.2.18. 회의
  - 민항기 운항 금지 시 근로자 수송방안, 리비아 주재 공관 및 리비아 공관 축소방안 등 논의
- 1992.3.11. 회의
  - 리비아 제재 시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현지 대책반 운영
  - 인력 수송, 교통수단, 식품 및 장비부품 확보, 임시 긴급피난처 교섭 확보 등

3. 유엔 대리비아 제재조치 상정 관련 조치사항

-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3.16.)
  - 민항기의 리비아 운항 금지, 대리비아 무기 군사지원 금지, 대리비아 외교공관 감축 제재 예상
  - 유엔안보리의 리비아 제재조치 상정에 따른 부처별 대책 논의
- 리비아 사태 대책 본부 설치(1992.3.19.)
  - 대리비아 제재조치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수송대책 수립 등
- 유엔안보리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4.15. 발효)에 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4.1.)
  - 한국 근로자 철수나 공사 중단 고려 단계는 아님.
  - 민항기 취항 금지 이후에는 튀니지 제르바 공항을 이용하여 근로자 수송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3 근로자 수송대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 / 9 / 1-279

1. 주리비아대사관의 근로자 수송대책 건의

- 1992.2.13. 주리비아대사관은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로 민항기 운항이 금지될 경우 대책 건의
  - 리비아 소재 한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5천여 명 및 제3국 근로자 1만여 명 수송 대책
  - 튀니지의 제르바 공항을 대체 공항으로 이용, 정기 운항 및 근로자 운송 추진
- 3.10. 주한 미국대사관,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내용 사전 통보 및 한국 근로자 조기 철수 권고
- 3.14. 외무부, 주튀니지 및 카이로대사관에 한국 근로자 수송 문제 등에 대한 교섭 지시

2. 리비아 사태 대책본부회의(1992.4.1.)

-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발효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 결정
  - 리비아 내 건설공사는 계속 수행
  - 튀니지의 제르바 공항을 이용하여 근로자 안전 수송
  -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동요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시행

3. 대리비아 제재와 근로자 수송

- 1992.4.14. 리비아 정부의 24시간 외부세계와 완전 차단조치 시행으로 KAL 801편의 출국 불가
  - 유엔안보리와 긴급 교섭하여 유엔 측은 4.15. KAL기의 트리폴리 특별 취항 허용
- 4.15. 이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로 리비아 취업 근로자는 튀니지 경유 KAL 이용
  - 튀니지 정부는 4.28.부터 매 격주 한국 항공기의 제르바 공항 이·착륙 허용

92-0109

대리비아 제재 : 대책 및 조치. 전4권 (V.4 안전장화 수출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 국제연합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 / 10 / 1-117

1. 한국산 안전장화의 대리비아 수출 문제

- 1992.4.21. 미국 측은 한국회사 기풍이 리비아에 수출한 안전장화가 안보리 결의 제748호가 규정한 군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출 중지를 요청함.
- 4.23. 외무부는 수출회사 기풍으로부터 안전장화가 군화가 아닌 산업용인 것을 확인함.
  - 한국 측의 확인 내용을 미국에 알리고, 군용이 아닌 이상 수출 중지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
- 4.23. 미국 측은 안전장화가 군용품은 아니나 리비아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위해 수출 유보를 요청함.
  - 4.25. 한국 측은 영세기업의 비군수용 수출 중지를 강요할 수 없음을 미국 측에 설명
- 5.13.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몰타(하역지)가 보고한 안전장화의 수출 건에 대해 심의함.

2. 한국 기업의 대리비아 군용품(군모) 수출 문제

- 1992.8.16.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몰타 세관은 부산에서 선적되어 리비아가 최종 목적지인 컨테이너를 조사, 군모 선적 확인
  - 몰타 측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한국 측에 재발 방지 요청
- 8.31. 외무부는 동 군모가 한국의 모자 생산기업인 양캡에서 홍콩 소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수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함.

유엔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및 우리의 대응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5 / 11 / 1-58

1. 한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치

- 1978년 이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이유로 반아파르트헤이트 조치 시행
- 1989.5월 한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치를 유엔사무국에 통보
  - 남아공과의 외교 및 영사관계 불수립, 스포츠 및 문화 교류 금지
  - 각종 반아파르트헤이트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남아공 제재 결의 지지
  - 매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계기 성명 발표
  - 1978년 코트라 및 민간 상사의 남아공 철수 이래 지상사 설치 금지 등

2. 대남아공 인적 교류 제재 완화(1991.11.9.)

- 1989.9월 출범한 드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정부의 인종차별 종식 개혁조치를 높게 평가
- 1991.11.9.자로 대남아공 인적 교류 제재 완화 조치
  - 관광·상용·문화·학술·스포츠 분야의 인적 교류 허용
  - 관광·상용·통과 목적 남아공 국민의 15일 이내 무사증 입국 허용

3.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1992.1.10.)

- 1978년 이래 남아공에 대해 시행해오던 경제제재 조치를 1992.1.10.자로 해제
  - 코트라 사무소 및 기업의 남아공 지사, 현지 법인 설치 허용
  -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투자 등 금융지원 허용
  - 통상사절단 교환 허용, 항공기 취항 허용 등
- 유엔 결의에 따른 무기금수, 핵무기제조 및 개발협력 금지, 석유 금수 조치는 지속

92-0111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 정부조사단 중동 및 터키 순방, 1990.10.27.-11.8. :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 / 14 / 1-197

1990.10.27.~11.8. 정부조사단의 중동 및 튀르키예 순방 결과임.

1. 경위

- 1990.9.24 정부는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다국적군 경비 분담과 피해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함.
- 1990.10.25. 정부는 8.2. 발발한 걸프만 사태 관련 주변 피해국에 대한 지원 문제 협의와 이집트 및 시리아와의 수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사단을 1990.10.27.~11.8. 중동에 파견하기로 함.

2. 정부조사단

- 유종하 외무부차관(단장),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관계자 등 9명

3. 주요 일정

- 이집트(10.28.~31.):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면담, 외무부와 실무회의
- 요르단(10.31.~11.2.): 하산 왕세자 및 경제기획장관 면담, 외무부와 실무회의
- 시리아(11.2.~5.): 외무담당 국무장관 및 국방부장관 면담
- 튀르키예(11.5.~7.): 외무부와 실무회의

4. 주요 성과

- 걸프만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전선국가 지원 의지를 전달함.
  - 지원계획: 이집트 3천만 달러, 요르단 15백만 달러, 시리아 1천만 달러, 튀르키예 2천만 달러
- 걸프지역 평화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의지를 과시하고 독자적인 중동 외교를 추진함.
- 이집트 측은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6개월 이내 수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이집트, 시리아와의 수교 분위기를 조성함.
- 쌍무적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함.
  - 요르단, 튀르키예는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등 적극적인 우호 증진을 표명함.
  - 이집트는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안전협정 가입 촉구를 지지함.

5. 후속조치

- 정부는 구체적 지원 품목을 확정하고 이집트, 시리아와의 조속한 시일 내 수교를 추진하기로 함.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2 정부조사단 중동 및 터키 순방, 1990.10.27.-11.8. : 자료)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 / 15 / 1-187

정부조사단의 중동 및 튀르키예 순방(1990.10.27.~11.8.) 준비를 위한 외무부 작성자료임.

1. 페르시아만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및 아국의 지원계획

- 페르시아만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략
- 아국의 지원계획, 대미 주요 협의사항

2.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정부조사단장의 방문 참고자료

- 국가별 지원내용
  - 지원 내역, 지원 대상 국가, 지원 가능 품목
- 페르시아만 사태 지원 집행계획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 대미 주요 협의사항
  - 현금지원, 운송지원, 군수물자 지원, 군 의료단 파견, 쌀 지원 등

3. 걸프만 사태 관련국 지원 정부조사단 순방 참고자료

- 일반사항, 면담 시 말씀자료, 걸프만 사태 현황
- 주변국 지원계획, 재정지원 공여국그룹 조정회의
- 각국별 참고사항(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튀르키예)

92-0113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3 이집트 I : 1990.8-91.6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1 / 1-241

1990.8~91.6월 중 걸프사태 관련 이집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한국 정부는 1990.9.24. 걸프사태 관련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다국적군 경비 분담과 피해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정을 발표함.
   - 정부의 총지원: 2억 2천만 달러

2. 한국 정부는 1990.10.8. 주변 피해국 및 다국적군 지원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이집트를 지원하기로 함.
   - 주변 피해국 경제지원: 4천만 달러(1990년 3천만 달러, 1991년 1천만 달러)
     - EDCF(대외경협지원기금) 2천만 달러, 구호생필품 9백만 달러, 잉여 쌀 지원 1백만 달러
   - 다국적군 지원
     - 6백만 달러(방독면 및 일반 군수물자)

3. 이집트 경제협력성은 1991.4.4.자 공한을 통해 한국의 3천만 달러 지원을 수용하고 아래 지원을 요청함.
   - 8백만 달러 민수물자 지원(의료기기 6백만 달러 등)
   - 15백만 달러 EDCF: 폴리에스터 직물공장 건설

4. 이집트 군수사절단은 1991.5.30.~6.8. 정부가 공여하기로 한 7백만 달러의 군수물자 선정을 위해 방한하여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420대(12인승 320대, 25인승 100대) 및 부품 지원을 요청함.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4 이집트 II : 1991.7-9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2 / 1-150

1991.7~9월 중 걸프사태 관련 이집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걸프사태 관련 대이집트 지원 차량 430대 및 부품 중 1차분 364대를 1991.9.1. 선적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91.9.10. 걸프사태 관련 한국의 대이집트 경협 약속분의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15백만 달러
- 주재국 공업성은 동 차관을 폴리에스터 직물공장 건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제1단계 공사(약 8백만 달러)을 위한 국제입찰(선경 입찰)을 지난 8월 말 실시, 개찰 결과 선경이 제시한 금액이 일본상사 가격보다 약 20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물기계의 기술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일본기계보다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
- 선경 측은 현재 발주 당국자와 가격 인하 및 기계의 기술 문제 극복 등을 협의 중임.

● 민수물자: 8백만 달러
- 주재국 국제협력부는 상기 8백만 달러를 아래 내역에 따라 사용할 것을 제의, 동시에 주카이로 총영사와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간에 민수물자지원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제의해 옴.
  - 소방차, 순찰차 및 앰뷸런스: 3백만 달러
  - 의료기기: 2백만 달러
  - 직업훈련기기: 2백만 달러
  - 기술학교 전문직업훈련기기: 1백만 달러

92-0115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5 이집트 III : 1991.10-92.9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3 / 1-154

1991.10~92.9월 중 걸프사태 관련 이집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정부는 걸프사태 관련 주변 피해국 지원방안으로 이집트에 7백만 달러의 군수물자, 8백만 달러의 민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91.10.10. M. Macramalla 이집트 국제협력성 장관과 한국 정부의 민수물자 8백만 달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직업훈련 장비 2백만 달러, 의료용품 2백만 달러
   - 소방차 및 경찰차량 3백만 달러, 기술고등학교 장비 1백만 달러

3. 외무부는 1991.10.18. 상기 훈련 장비 및 의료기기의 이집트 지원을 위한 장관의 재가를 득함.

4. 외무부는 1991.11.1. 상기 순찰자 및 소방차의 이집트 지원을 위한 장관의 재가를 득함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6 요르단 I : 1990.9-91.3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4 / 1-150

1990.9~91.3월 중 걸프사태 관련 요르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한국 정부는 걸프만 사태 관련 주변 피해국 지원 문제 협의를 위해 정부조사단(단장: 유종하 외무부차관)을 1990.10.31.~11.2. 요르단에 파견함.

- 정부조사단은 하산 왕세자 예방, 경제기획부장관 면담, 외무부와 실무회의를 갖고 걸프만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요르단에 15백만 달러(생필품 5백만 달러 무상 지원, EDCF (대외경협기금) 1천만 달러) 지원 의사를 표명함.
- 요르단 측은 EDCF 사업으로 암만시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을 제시하였고 생필품 5백만 달러에 대해 설탕, 미니버스 등 물자 지원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요르단에 아래와 같이 생필품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제1차 지원(1991.1.28.)
  - 설탕 및 콤비버스 등 1,987,749달러의 물품
- 제2차 지원(3.20.)
  - 앰뷸런스, 지프 등 752,719달러의 물품

92-0117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7 요르단 II : 1991.4-12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5 / 1-260

1991.4~12월 중 걸프사태 관련 요르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 한국 정부는 요르단에 아래와 같이 생필품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제3차 지원(8.5.): 비료 포장백 등 1,360,000달러의 물품
  - 제4차 지원(10.14.): 지프차 등 349,088달러의 물품
  - 제5차 지원(12.10.): 물탱크 로리(Water Tank Lorry) 등 212,167달러의 물품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8 요르단 III : 1992)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6 / 1-98

1992년 중 걸프사태 관련 요르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한국 정부는 요르단에 아래와 같이 생필품 5백만 달러의 물품으로 설탕 및 콤비버스, 앰뷸런스, 지프, 비료 포장백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고려무역(주), 대우자동차 등 한국기업과 계약을 통해 1992년 요르단으로 선적하도록 함.
   - 트럭(한국에서 선적일: 1992.4.6.)
   - 대우 버스(한국에서 선적일: 1992.4~6월 중)
   - 비료 포장백(한국에서 선적일: 1992.5.30.)

2. 주요르단대사는 1992.6.30. 요르단 정부에 15대 픽업(pick-up) 차량을 전달함.

92-0119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9 터키, 1990-91)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7 / 1-196

1990~91년 중 걸프사태 관련 튀르키예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정부조사단(단장: 유종하 외무부차관)이 걸프 사태 관련 주변 피해국 지원 문제 협의를 위해 1990.11.5.~7.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생필품 5백만 달러 무상 지원 등 2천만 달러의 지원 의사를 표명함.

- 튀르키예 정부는 매트, 미니버스, 발전기, 트럭 등 물자 지원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생필품 5백만 달러를 튀르키예 정부에 지원함.

- 제2차 지원(1991.1.10.)
  - 미니버스 등 922.095달러의 물품(1991.1월 중 선적)
- 제3차 지원(1.21.)
  - 트럭, 혈액 냉장고, 발전기 등 3,967,399달러의 물품(1991년 중 선적)

92-0120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0 모로코, 1990-91)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8 / 1-99

1990~91년 중 걸프사태 관련 모로코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한국 정부는 걸프 사태 관련 주변 피해국 지원방침에 따라 1990.10.27. 모로코에 2백만 달러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12.12. 모로코 정부는 방독면 및 정화통 150개, 침투성 보호의 150개, 군화 2,000벌 등의 지원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1.1.10. 모로코가 요청한 군수물품은 대우(주)와 수술기구 세트는 고려무역(주)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중 물품을 선적하기로 함.
   - 방독면, 전투화 등 방산품: 1,441,208달러
   - 수술기구 세트: 549,645달러

92-0121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1 쿠웨이트, 1991)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9 / 1-94

1991년 중 걸프사태 관련 쿠웨이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Slok 쿠웨이트군 군사 고문단장은 1991.2.20.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무관에게 사우디에 배치된 쿠웨이트 병사를 위한 전투복 2만 착 지원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91.2.28. 전투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재원은 걸프사태 지원금 예비비에서 56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함.

3. 쿠웨이트 외무차관은 1991.3.24. 치료용 액체산소 실린더 2천 개의 지원을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1991.4.1. 고려무역(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군복, 모자, 액체산소 실린더 등 550,245달러의 물품을 선적하기로 함.

5. 주쿠웨이트대사는 1991.5.23. 쿠웨이트 보사부장관에게 산소 실린더를 전달함.

걸프사태 : 주변국 지원. 전12권 (V.12 기타)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10 / 1-168

1990~92년 중 걸프사태 관련 예멘, 세네갈, 파키스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임.

1. 한국 정부는 1991.5.2. 걸프사태 관련 경제적 피해가 심한 예멘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현금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2. 한국 정부는 1991.11.18. 아프리카 참전국 중 최대 규모인 500명의 군대를 파병한 세네갈에 대해 걸프사태 지원금으로 미니버스 등 30만 달러 국산 기자재를 지원하기로 함.
   - 1992.5.14. 주세네갈대사는 앰뷸런스 10대, 미니버스 3대를 세네갈 정부에 전달함.

3. 1991.1~2월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만 국가들은 걸프전쟁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3.14. 동 3국에 대해 각 10만 달러의 유흡착제를 지원하기로 함.

92-0123

한·캐나다 정책기획협의회, 제1차. 서울, 1992.7.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11 / 1-113

제1차 한·캐나다 정책기획협의회가 1992.7.2.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이승곤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외정실 제1·2 정책심의관, 정책총괄과장
- 캐나다 측: Ann Leahy 외무부 정책기획국장, Stephens 주한 캐나다대사관 참사관

2. 주요 토의 내용

- 한반도 정세, 아·태지역 안보 대화
- 미국의 외교정책,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중국 정세
- 아·태지역 경제협력 동향

3. 첨부자료

- 제1차 한·캐나다 정책기획협의회 자료(1992.7.2., 외교정책기획실)
- Topics for Korea-Canada policy planning talks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 제4차. sydney(호주), 1992.10.11.-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2-6 / 12 / 1-176

제4차 한·미·일·캐나다·호주 외무부 고위정책담당자가 참석하는 5자 정책기획협의회가 1992.10.11.~13.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승곤 외교정책기획실장
- 미국 측: John Stremlau 정책기획실 부실장
- 일본 측: 스즈키 카츠나리 정보조사국장
- 캐나다 측: Anne Leahy 정책기획국장
- 호주 측: Ric Smith 차관보

2. 의제

- 탈냉전시대 개관 및 아·태지역 정치·안보 문제
  - 냉전 후기 아·태지역 안보환경, 한반도 정세 및 북한 핵개발 문제, 경제 지역주의 등 중점 논의
  - 인권, 환경, 마약, 원조연계, 문화적 상대주의 등도 주요 의제로 토의 예정
- 한·미 사전협의에서는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북한 핵개발 문제 논의 예정

3. 주요 협의 결과

- 아·태 지역 내 안보협의체 구성 필요성 인정
- 안보협의체 관련 각종 구상 협의
- 기타 협의체 활용방안 논의
- 최근 중국의 군비증강 및 북한 핵문제, 미사일 수출에 우려 표명

92-0125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92.4.30.-5.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동북아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13 / 1-72

제2차 한·미·일 3자 정책기획협의회가 1992.4.30.~5.1.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승곤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미국 측: Stremlau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
- 일본 측: 스즈키 가츠나리 외무성 정보조사국장

2. 회의 결과

- 러시아 및 중국: 러시아 및 중국이 공히 당분간 국내 문제에 몰두해야 할 형편이므로 아·태지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미·일 간에 중국·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다소의 견해차 노정
- 미국 대통령 선거: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의 국제관이 기본적으로 진보적 국제주의이며 양인이 대외정책에 관한 공통점이 많으므로, 금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립주의로의 회귀 등 미국 대외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92-0126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92.4.30.-5.1.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동북아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6 / 14 / 1-100

1992.4.30.~5.1.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일 3자 정책기획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이승곤 외교정책기획실장 미국 방문 자료(1992.4.28.~5.4.)

- 참석회의
  - 제2차 한·미 정책기획협의회(4.29. 오전)
  - 제1차 한·일 정책기획협의회(4.29. 오후)
  - 제2차 한·미·일 3자 정책기획협의회(4.30.~5.1.)
- 일정 및 대표단
- 회의자료
  - 정세자료
  - 토픽별 자료: 한·미·일 정책기회협의회, 한·미 정책기획협의회, 한·일 정책기획협의회
  - 기타 참고자료

2. 회의별 자료 목록

-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 역내 대량 파괴무기 확산 문제(북한 핵문제 포함), 한반도 문제 관련 제3국의 역할, 대CIS(독립국가연합) 지원, 집단 개입, 소련연방 해체 이후 북태평양 안보 문제, 아·태지역 협력과 Trans-Pacific relations의 장래
- 한·미 정책기획협의회
  - 한반도 문제, 구소련 지원 전략, 한·미 관계
- 한·일 정책기획협의회
  -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미·중국·러시아의 역할, 북한 문제,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 아·태지역 협력과 Trans-Pacific relations의 장래, 캄보디아 지원 등 인도차이나 문제

92-0127

미국 주요인사와의 서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6 / 15 / 1-174

1991~92년 중 노태우 대통령,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미국 주요인사와의 서한 교환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 부시 미 대통령 공식 방한 관련 노태우 대통령 앞 감사서한(1992.3.3.)
- 스탠포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노태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참석 초청에 대한 답신(4.21.)
- L.A. 사태 관련 부시 대통령 앞 노태우 대통령 명의 메시지(4.30.)
- 노태우 대통령 명의 부시 대통령 생일축하 서한(6.5.) 및 부시 대통령 답신(6.17.)
-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의 이순신 장군 시비 건립 관련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6.18.) 및 노 대통령 답신(7.14.)
- 슐츠 전 국무장관 앞 노태우 대통령 명의 친서(7.10.)
- 커티스 마크 L.A. 세계문제협회 회장 앞 노태우 대통령 명의 친서(7.23.)
- 로버트 마이어스 카네기 국제문제연구소 회장 앞 노태우 대통령 명의 친서(11.2.)

2. 이상옥 외무부장관

- 존 브라이언 시카고 외교협회 회장 앞 이상옥 장관 명의 답신(1991.12.20.)
- 리차드 워커 전 주한 미국대사 은퇴 계기 이상옥 장관 명의 서한(3.7.)
- 마이너 미 중서부위원회 회장 앞 이상옥 장관 명의 답신(3.7.)
- Cucullu 한국협회 사무총장 명의 이상옥 장관 초청 서한(3.23.) 및 이상옥 장관 답신(4.7.)
- 아브라모비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 앞 이상옥 장관 서한(8.7.)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6 / 16 / 1-50

1992년 중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국 해군함정 수출

- 1992.3.16.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참사관이 ㈜대우 지사장을 대동하여 주재국 해군 부사령관을 면담한바, 동인은 해군 측의 검토가 완료되어 해군 측의 specification을 확정, 구매처인 주재국 국방부 군수국으로 구매 의뢰하였음을 밝히고, 8척의 군함을 구입할 것이며 구입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설명함.
- 3.28.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주재국 해군당국이 현재 보유한 15년 이상 된 노후 함정을 교체하기 위해 후리킷트함 레벨의 해군함정 8척(추정시가 약 2억×8척)의 발주단계에 있다고 보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주재국 당국이 한국의 발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국 제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감안, 관련 업체로 하여금 동건 발주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2. 아랍에미리트 영공 통과 절차

- 주미국대사관은 1992.3.30. 주미국 아랍에미리트대사관이 공한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 항공기는 통상적인 경우 15일 이전에(긴급 사태의 경우 72시간 전) 외교채널을 통해 영공 통과 또는 착륙허가를 신청해야 함을 통보하여왔다고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보고함.

3. 아랍에미리트 영자일간지 기자 방한 추진

- 1992.4.9.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한국 관광자원을 주재국에 소개,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재국 유력 영자일간지 Khaleej Times의 경제부 수석기자 Richard Eugene Moore의 방한을 추진하여 왔다고 하면서, 대한관광공사 측이 동 언론인의 방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대사관에 알려왔으니 동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대한관광공사 측에 추천하여 달라고 건의함.
  - 방한 희망 시기: 4월 하순~5월경

92-0129

한·알제리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6 / 17 / 1-109

1992년 중 한·알제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알제리 상무부장관 방한 추진

- 1992.5.18. 외무부는 주알제리대사의 보고에 의거, 한·알제리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를 위해 Foudil Bey 알제리 상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상공부에 의뢰
- 6.27. 상공부, 양국 간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고 방한을 적극 희망하는 기업체도 없는 실정이어서 동 장관의 방한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외무부에 회신
- 7.6. 외무부, (주)대우의 경비 부담 조건으로 동 장관의 방한을 재추진하였으나, 7.19. 알제리 정부 개각으로 동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방한 추진 보류

2. 외무부장관, Ahmed Boutache 주한 알제리대리대사 면담(1992.10.19.)

- 주한 알제리 상주공관 개설 환영 및 양국 간 실무 협력관계 확대 희망 표명

3.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Boutache 주한 알제리대리대사 면담(1992.12.10.)

- 한·알제리 양국관계 현안 협의 및 알제리 정세 동향 파악

4. 주한 알제리대리대사, 동력자원부장관 예방(1992.12.15.)

- 알제리 측: 알제리 에너지부장관 방한 및 알제리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희망
- 한국 측: 삼성 및 경인에너지가 참여하고 있는 알제리 내 석유개발사업(Issaoune 육상 광구)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배려 요망

한·앙골라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6 / 18 / 1-94

1992년 중 한·앙골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3.27. 반두냉 앙골라 외무장관 방한 시 양국 실무자 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함.

2.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의 겸임국 앙골라 출장(1992.5.27.~31.)
- 앙골라 외무장관 예방 및 Almeida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대우자동차 및 팩스 등 국산 기자재 기증
- J.J. Fernandes 앙골라 산업성장관 예방
  - 상공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1993년 대전박람회에 앙골라의 참석을 요청한바, Fernandes 장관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함.

3. Fernandes 장관 방한(1992.6.8.~13.)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및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방문
- 대전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
  - 대전엑스포 조직위원장은 1993년 대전박람회에 앙골라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Fernandes 장관은 본국에 참가를 건의하겠다고 함.

92-0131

한·알바니아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7 / 1 / 1-93

1. 한·알바니아 경제협력

- 1991.12.19.~21. 신임장 제정차 알바니아를 방문한 주유고대사는 대알바니아 경협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대알바니아 경제통상 및 자원협력조사단을 1992년 상반기 중 파견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관계 협정 체결 대표단 파견
- 1992년도 대알바니아 기자재 공여
  - 승용차 및 미니버스, 팩스, 타자기, 복사기 등

2. 알바니아 대통령 사임 및 신임 대통령 선출

- 1992.4.3. Ramiz Alia 알바니아 대통령 사임 의사 표명
  - 알바니아 총선(1992.3.22.) 결과 민주세력이 신의회의 2/3 이상 의석 차지
  - 이에 따라 전 공산당 출신 알리아 대통령이 사임 발표
- 4.9. Sali Berisha 민주당 당수가 의회에서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 민주당은 총선에서 140석 중 92석을 획득
- 4.10. 노태우 대통령 명의 신임 대통령에 대한 축전 발송

3. 알바니아 주요인사 방한 초청

- 초청인사
  - Kujtim Xhani 외무부 의전장
  - 알바니아 일간지(Zeri I Popullit) Lulzim Cota 기자
- 방한 기간: 1992.11.15.~20.

한·아르헨티나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7 / 2 / 1-83

1992년 중 한·아르헨티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통령 답서 전달

- 1991.12월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디 멜라 외무장관을 통해 12.5.자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전달함.
- 1992.1.2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Ossorio 주재국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노태우 대통령의 답서를 공한과 함께 전달함.
  - Ossorio 국장은 동 답서를 공식 경로를 통해 메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

2. 대통령 감사전문 송부

- 1992.8.15. 메넴 대통령은 한인 동포 및 아르헨티나 시민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회 아르헨티나 대통령배 한인 체육대회를 참관, 격려연설을 통해 한인 동포의 사기를 진작함.
  - 8.18.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대통령 명의 감사전문 송부 건의
- 8.21. 외무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노태우 대통령 명의 메넴 대통령 앞 감사전문을 타전하고 전달을 지시함.

3. 아르헨티나 국방장관 초청 검토

- 1992.12.2. 국방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무관이 한·아르헨티나 우호 증진 및 군사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곤잘레스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의 공식방문 초청을 건의하여 왔다고 하면서 외무부의 견해 통보를 요청함.
  - 방한 초청 일시: 1993.4~5월
  - 초청 대상: 장관 내외 및 수행원 3-4명
  - 참고: 곤잘레스 장관은 양국의 방산협력을 위해 1991.11월경 공식 방한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국방부는 시기 부적절을 이유로 1993년도로 연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12.26. 외무부는 상기 장관의 방한 초청에 이견 없음을 국방부에 통보함.

92-0133

한·호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7 / 3 / 1-68

1992년 중 한·호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Kelly 호주 예술·체육·환경장관 방한(1992.4.29.~5.2.)

● 주요 일정 및 활동

- 국무총리·환경처장관 예방, 권인혁 환경담당대사 면담
- 권인혁 대사 면담(5.1.) 내용
  - Kelly 장관은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와 기후협약협상에서 한국과의 공동협력이 방한 목적임을 언급하고, 기후협약협상과 UNCED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문의
  - 권 대사는 한국 산업구조상 CO2 배출 증가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설명

2. 핵 공급 관련 호주 정부의 협조 요청

● 1992.12.3. 호주 정부는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아래 내용의 협조 요청사항을 통보함.

-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등 일부 핵 공급 국가들은 핵 비보유국에 핵 공급 시 전면 핵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핵 비확산체제의 효율성 저해
- 상기 핵 공급국들이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급 시 필히 전면 핵안전조치를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데 한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
- 제4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제1차 NPT 준비위원회회의에서도 핵 비보유국들의 특별한 역할 기대

● 대응 방향

- NPT의 유용성이 이미 범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요체가 핵 안전조치임을 감안할 때, 또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 미해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함.

3. Keating 호주 수상,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전 발송(1992.12.19.)

● 축전 내용

- 한·호주 관계의 증진에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빠른 시일 내 호주 방문 희망 의사 표명

한·오스트리아 관계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7 / 4 / 1-126

1989~92년 중 한·오스트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Kreisky 오스트리아 전 수상 사망 및 조문사절 파견

- 1990.7.29. 오스트리아 외상 및 수상을 지낸 Bruno Kreisky 전 수상 사망
- 8.1. 노태우 대통령 명의 조전 발송
- 8.7. 거행된 장례식에 평민당은 조문특사로 이희호 여사 파견

2. Vranitzky 오스트리아 수상의 사회당 총선 승리 및 연정 구성

- 1990.10.7. 실시된 총선에서 Vranitzky 수상의 사회당이 제1당 확보(183석 중 81석 확보)
- 12.17.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과 연정 협상 종결로 Vranitzky 수상은 4년간 대연정 출범
- 12.21.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전을 Vranitzky 수상에게 발송

3.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해외 주민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영사보호조치

- 1991.11.12.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시 오스트리아 정부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해외 주민에 대해 영사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임을 통보
  - 한국 내에 양 공화국 거주민이 거의 없으므로 영사보호조치 사례가 발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제8조를 준용 시, 제3자를 위한 영사보호에는 한국(접수국)의 동의 필요
  - 유고 사태가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당분간 한국의 명시적 의사 표시 불필요

4.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 1992.5.24. 실시 대통령 선거(결선투표)에서 Thomas Klestil 국민당 후보가 당선
  - 7.8.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취임
- 5.25. 노태우 대통령 명의 신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전 발송

92-0135

한·방글라데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7 / 5 / 1-90

1991~92년 중 한·방글라데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 아주국장, Masud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면담(1991.12.11.)

- Masud 대사는 한국 외무부장관의 가까운 시일 내 방글라데시 방문을 희망하고,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 내년 초 한국 외무부장관 명의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함.
- 아주국장은 현재로 보아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글라데시 방문보다는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의 방한이 좀더 feasible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2. 아주국장, Masud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면담(1992.5.4.)

- Masud 대사는 1992.11.18.~20.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회의(주제: 여성의 정치 참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에 지아 수상이 초청받았는바, 동 수상이 학술회의 참석 목적만으로 방한하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한국 정부가 공식 방한 초청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옴.
- 아주국장은 금년 중 외빈 방한일정 및 국내 정치 일정상 접수가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함.

3. Chowdhury 방글라데시 공군참모총장 방한

- Chowdhury 총장은 공군참모총장과의 면담 시 양국 공군 간의 상호 교류와 공군참모총장의 방글라데시 방문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4. 1993년 방글라데시 대한국 관계 전망(1992.12.15.)

- 표면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유지할 것임.
- 정치·외교·경제·통상 등 제분야에서 실리를 추구, 친한 정책을 강화할 것임.
- 북한의 적극적인 제세로 대북 고위인사 교류는 계속될 것임.

한·벨기에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7 / 6 / 1-103

1991~92년 중 한·벨기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국제기구 입후보 교섭

- 1991.11.13. 한국, 벨기에 측에 IDB(공업개발이사회) 입후보 상호 지지 통보 및 PBC(기획예산위원회) 입후보 지지 요청
  - 벨기에, 한국의 IDB 및 PBC 입후보 지지 요청 수락
- 1992.3.12. 벨기에 외무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Part II 입후보 관련 양국 간 상호 지지 제의
- 3.19. 벨기에 외무부, 한국의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 서한 접수
- 10.19. 벨기에 측, 한국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입후보와 벨기에의 ACABQ(운영·재무질의 권고위원회) 입후보를 상호 지지 확인

2. 북한·벨기에 관계

- 1991.4.16. 주벨기에공사, IPU(국제의원연맹) 평양 총회에 참석하는 Palmer 벨기에 국제기독민주당 연합 사무차장에게 최근 남북한 관계 등 설명
- 5.31.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주유엔 벨기에대사 면담
  - 북한의 유엔가입 문제 논의
- 10.16. 주벨기에대사, 벨기에 외무부 유엔국장에게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촉구 발언 요청

3. 과기처장관 벨기에 방문

- 1992.9.23. 과기처장관, Dehousse 벨기에 과학정책장관 면담
  -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특히 항공우주 분야 협력 논의

92-0137

한·부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7 / 7 / 1-83

1. 김태지 주인도대사의 겸임국 부탄 출장(1991.7.9.~11.)

- 출장 목적
  - 이임인사
  - 태권도 지원용품 전달
  - 명예총영사 활동 상황 점검
  - 부탄 정세 파악
- 주요 일정
  - 국왕 예방
  - C. Dorji 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방문
  - Rixin 외무차관 면담: 한국 측은 비동맹이 실질적인 문제인 남북문제 등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
  - Om Pradhan 상무장관 면담: 한국 측은 부탄 기술연수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한·부탄 관계에 관한 건의
  - 부탄이 친한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에는 한국 측이 적은 규모이지만 꾸준히 원조를 제공해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

2. 이정빈 주인도대사의 겸임국 부탄 출장(1991.10.24.~29.)

- 신임장 제정
- 외상 등 정부각료 및 각계 주요인사에 대한 신임 예방
-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 협의
- 겸임국 정세 파악
- 한국 명예총영사 업무 지도

한·불가리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7 / 8 / 1-88

1992년 중 한·불가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2.18. 주불가리아대사관은 불가리아 측이 제안한 정보교환협력협정 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해 옴.
   - 안기부 측은 협정 체결 기관으로 내무부 또는 경찰청이 적합하다는 의견 제시

2. Andreev 불가리아 대통령 안보군사담당 특보 방한 초청
   - 1992.5월 한국국제관계연구소는 제21차 국제학술대회(1992.6.18.~21., 서울) 토론자로 Dr. Stoyan Andreev 불가리아 대통령 안보군사담당 특보를 방한 초청하였으나, 6.2. 동 특보는 세미나 참석이 불가하다고 주불가리아대사관에 통보함.

3. 보이코 미르체프 주한 초대 불가리아대사 부임(1992.12월)

4. 주한 불가리아대사관은 1992.12.24. Ganev 불가리아 외무장관(유엔총회 의장)의 방한(1993.3~4월 예정)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항공협정 등이 가서명되도록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 개시를 제의해 옴.

92-0139

한·미얀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7 / 9 / 1-136

1. 1992.4.28. 미얀마 정치일정 발표에 대한 외무부 대변인 논평

- 미얀마 정부가 금번 단행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회의 소집 일정 발표 및 일부 정치범 석방은 미얀마의 정치발전과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환영함.
-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하여 정치적 이유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미얀마 정부의 공약대로 민주화 조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얀마가 현재 추진 중인 시장경제정책과 대외개방에 발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함.

2. SLORC(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의장(국가원수) 교체

- 1992.4.23. 소몽 SLORC 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부의장 겸 국방장관인 탄쉐 장군이 의장직을 승계
  - 소몽 의장은 1988.9월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최근까지 군사정부를 주도해왔으나 최근 지병인 당뇨병 악화 등으로 조기 퇴진설이 유포된 바 있음.
- 탄쉐 의장이 수상 및 국방장관직 겸임

3. 1992.4.24. SLORC는 향후 정치일정 발표

- 2개월 내에 정당 및 정계 지도자 등과 국민회의 개최 준비 협의
- 6개월 내에 국민회의 개최 및 신헌법 제정 요강 마련

4. 정치범 석방 및 아웅산 수지 여사 연금 완화

- 우누 전 미얀마 수상 등의 가족연금 해제 및 야당 주요인사 다수 석방 실시
  - 1992.4.24. 국가안보에 위해 되지 않는 정치범 석방 천명
- 현재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족 면회 허용 발표

한·브라질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7 / 10 / 1-223

1992년 중 한·브라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Carrion Junior 브라질 하원의원 방한(1992.7.12.~13.)

- 방한 경위
  - 대만(구 중화민국),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순방 계기
- 방한 목적
  - 한·브라질 경제·무역관계 증진방안 협의
- 주요 일정
  -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오찬, 코트라 본부장 면담

2. 브라질 외무장관에 대한 축전 발송

- 브라질 의회의 Collor 브라질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1992.10.2. Itamar Franco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여 신내각을 구성하였으며, 10.5. Fernando Cardoso 외무장관이 취임
- 10.8. 외무부는 주브라질대사관에 Fernando Cardoso 신임 외무장관에 대한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축전을 타전하고 전달을 지시함.

3.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회의원 회의(1992.11.23.~28., 브라질리아)

- 참석자: 50개국 150여 명 의원
  - 한국: 박정훈, 최운지 의원
- 브라질리아 문안 채택
  - 생물다양성협약 등 리오 환경회의 시 채택된 협약에 미가입한 국가에 대한 서명 촉구
  - 1995년도까지 선진국들의 지원 공약을 더욱 강화하여 리오선언을 지구선언문으로 대체 등

92-0141

한·볼리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7 / 11 / 1-47

1992년 중 한·볼리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노태우 대통령 앞 연하카드 송부

- 1992.1.8. 주볼리비아대사관은 Jaime Paz Zamora 볼리비아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연하카드를 외무부에 송부함.

2. 신임 외무장관 앞 축전 송부

- 1992.3.20. 외무부는 Ronald Macran 신임 볼리비아 외무장관 앞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축전을 타전하고 전달을 지시함.

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부의장국 입후보 지지 요청

- 1992.5.27. 주볼리비아대사는 Bernardo Inch 외무성 다자통합담당차관을 면담, UNCED 부의장국 입후보 지지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지지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한·베냉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7 / 12 / 1-105

1992년 중 한·베냉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베냉 원조 공여국회의(1992.4.2.~3., 제네바)
   -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하에 독일, 미국, 프랑스, 한국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베냉 측은 자국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함.

2. 한·베냉 외무장관회담(1992.6.1.)
   - 한국 측은 총 30만 달러의 한국산 기자재를 베냉 측에 무상공여하기로 약속함.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92.12.14. 겸임국인 베냉을 방문하여 Holo 외무부장관, Ahoyo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운기 30대 등 무상원조 기증식을 개최함.

92-0143

칠레 테무코 기독병원 건립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2-7 / 14 / 1-126

1991~92년 중 칠레 테무코 기독병원 건립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병원 설립 개요

- 건립 주체: 상도교회 선교부 내 칠레 테무코 기독병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병원)
- 추진 경위
  - 1991.1.25. 칠레 아라우카니아 주정부와 병원설립협정 체결
  - 1991.9.25. 칠레 정부, 재단법인 테무코 기독병원 정관 승인
  - 1991.11.16. 병원 기공식 거행
- 병원 규모
  - 대지: 3,500㎡(칠레 정부 기증)(건평: 3,200㎡)
  - 병실: 98개
  - 투자 금액: 200만 달러

2. 칠레 정부는 한국 정부에 기독병원 건립을 위한 비용 송금 협조를 여러차례 요청

- 1992.1.10. 아라우카니아 주지사,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병원 건립비용 송금 협조 요청
- 3.28. Silva Cimma 외무장관, 주칠레대사 앞 공한으로 병원 건립비용 송금 협조 요청
- 7.21. Jorge Jimenez 보건부장관, 국무총리 앞 공한으로 병원 건립비용 송금 협조 요청

3. 조치사항

- 1992.3.3. 외무부, 재무부에 테무코 기독병원 설립을 위한 송금 협조 요청
  - 재무부는 동 사항이 한국은행 소관사항임을 들어 한국은행에 협조 요청
  - 한국은행은 종교단체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추천서 제출 요청
- 5.25. 외무부, 문화부에 테무코 기독병원 건립비 환전을 위한 협조 요청
  - 6.5. 문화부는 외환 송금 추천사항이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불가하다고 회신

4. 대책

- 외환 송금 허가는 한국은행 측의 결정에 맡김.
- 칠레 측에는 문화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계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소관 사항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 박병원 위원장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양국 정부간 현안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 당부

한·칠레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7 / 15 / 1-149

1992년 중 한·칠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Pizarro 칠레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1992.3.5.~7.)
   - 외무부차관 예방, 국회사무총장 예방 및 오찬

2. 김수환 추기경 칠레 방문(1992.3.28.~4.2.)
   - Aylwin 칠레 대통령 예방, Oviedo 대주교(칠레 교회 최고 지도자) 방문, 한인 가톨릭연합회 주최 환영 리셉션

3. 유엔 ECLAC(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경제협의회) 총회(1992.4.8.~15., 칠레 산티아고)
   - 참석자
     - 34개 회원국 대표, 3개 준회원국 대표, 21개 비회원국 옵서버
     - 9개 유엔 직속기구 대표, 6개 유엔 전문기구 대표
     - 9개 정부간 기구 대표, 26개 비정부간 기구 옵서버, 8개 기타 비정부간 기구 옵서버
     - 한국 측: 정진호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옵서버 대표)

4. Maximilano 칠레 농업차관 방한(1992.10.1.~3.)
   - 방한 목적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차기 사무총장 진출에 대한 지지 요청 등
   - 주요 일정
     - 윤옥영 수산청장·김한곤 농수산차관·노창희 외무부차관 면담
   - 외무차관 면담 시(10.2.) 주요 협의 내용
     - 칠레산 과실류의 교역 확대, FAO 차기 사무총장의 칠레 입후보 지지 요청

92-0145

한·콜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7 / 16 / 1-184

1992년 중 한·콜롬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계기 한·콜롬비아 외무장관회담(1992.2.12.)

- 주요 협의 내용
  - 노태우 대통령 콜롬비아 방문 초청
  - 대콜롬비아 무상원조 공여계획 전달
  - 콜롬비아 전자통신연구소 기자재 지원(15만 달러 상당), 6명의 잠업 연수생 초청 및 1명의 전문가 파견
  - 한·콜롬비아 공동위원회 연내 개최 및 자원협력위원회의 공동위 포함 개최 합의
  - 콜롬비아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2. 제19차 보고타 국제박람회 참가(1992.7.15.~26.)

- 보고타 무역관 주관으로 한국관 설치
- 컴퓨터, 오디오, 카메라, TV, 승용차 등 출품(삼성, 금성, 현대, 대우 등 참가)
- 한국의 보고타 국제박람회 참가와 연계, 콜롬비아의 대전엑스포 참가 적극 교섭

3. 한국 민간경제사절단 콜롬비아 방문(1992.9.24.~27.)

- 사절단(단장)
  - 박성규 대우통신 사장
- 제3차 한·콜롬비아 민간경협위원회 합동회의(9.25.)
  - 경제사절단 상호 교환, 양국 간 투자 촉진 및 무역 증대 논의

한국 종교계의 중국 내 선교활동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7 / 17 / 1-183

1. 기독교계의 대중국 활동 관련 계도 요청

- 1991.3.22. 외무부는 문화부, 공보처 등에 중국 당국이 기독교계의 중국 내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계도 요청
  - 최소한 중국의 내정 간섭(체제비판 등)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함.
  - 중국 내에서(특히 동북 3성) 조선족 접촉 시 대외적 과시 및 대북한 비방 자제

2. 1991.7.29. 주북경대표부, '아국 종교계의 대조선족 선교의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 송부

- 중국 정부 내에 한국 정부가 대조선족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시각 존재, 향후 한·중 관계 저해 요인 가능성 우려

3. 대중국 선교활동 자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1.8.16.)

- 외무부, 문화부, 공보처, 교육부, 관세청 등 관계자 참석
- 회의 결과
  - 한국 입장의 대중국 설명
  - 종교계 인사의 선교 목적 중국 방문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종교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

92-0147

중국의 한국 언론인 취재 입국 허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7 / 20 / 1-47

1. 중국, 한국 기자 불법취재 방지 요청

- 1992.2.17. 장정연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주북경대표부 직원과의 오찬 시 1991.12월 말 한국 기자 1명이 동북 3성 지방 및 백두산 등지를 불법취재(인터뷰 및 사진촬영) 도중 현지 경찰에 구류되어 석방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당초 목적 외의 불법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함.
- 주북경대표부는 동일 각 언론기관에 적절한 주의 환기 및 취재를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입국하도록 건의한바, 2.19. 외무부는 동 건의를 공보처에 전달함.

2.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취재 비자 획득 문제

- 1992.2.25. 주홍콩총영사관은 3월 전인대 취재 관련, 홍콩 주재 11개사 한국 특파원 13명이 신화사 홍콩분사 외사부에 방중 취재를 위한 취재비자 발급 문제를 교섭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 2.26. 외무부는 주북경대표부에 전인대 취재를 위한 홍콩 주재 특파원 방중과 관련, 홍콩 현지에서 비자 획득이 가능하도록 교섭을 지시함.
- 3.3. 주북경대표부 서기관의 Chen Liang 중국 외교부 신문국 부과장 접촉 및 주북경대표부 참사관의 장정연 부국장 접촉 시 홍콩 특파원단 취재 허가 관련 협조를 요청함.
- 3.17. Chen 부과장은 주북경대표부 서기관을 초치, 전인대 회의 기간 중 주홍콩특파원단의 취재 신청과 관련, 한국 기자들의 중국 입국 취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 옴.

3. 중국의 외국 기자 관리조례 송부

- 1992.3.17. 주북경대표부는 중국의 '외국 기자 및 북경 상주 외국 특파원에 대한 관리조례'를 외무부에 송부함.

한·중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7 / 21 / 1-119

1992년 중 한·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손자회관 건립 경비 지원

- 1992.2.11. Zhao Zhimin 중국군사과학학회 국제교류처 부처장(중국 손자병법연구회 부비서장 겸임)은 주북경대표부를 방문, 군사전략 연구 및 학술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손자회관 건립 추진 관련 소요경비 일부를 민간 형식으로 지원 요청
- 3.9. 외무부는 국방부에 상기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바, 국방부는 한·중국 군사교류 측면을 고려하여 경비 지원 결정

2. 주한 중국대표부 침입 사건

- 사건 개요
  - 1992.7.9. 배가의 주한 중국대표부 부대표, 7.8. 주한 중국대표부에 누군가가 자물쇠를 파괴하고 침입했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조치사항
  - 아주국장, 배가의 부대표에게 현장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당국에 침입 사실 신고 요망
  - 아주국장, 경찰청 외사1과 및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 제공 요청
  - 남대문경찰서 경찰 12명이 현장 출동, 초동수사 실시

3. 장정연 주한 중국대사, 외무부차관 면담(1992.10.7.)

- 장 대사는 한·중국 수교과정에서 공동성명에 가서명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고 언급
- 외무부차관은 한·중국 수교회담은 양측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언급

92-0149

한·카보베르데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7 / 22 / 1-25

1991~92년 중 한·카보베르데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1.21. Manuel da Luz 카보베르데 전 외무장관은 이상옥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장관직 퇴임 이후 경제계 활동을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기업 협력 등을 위한 한국의 실업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 1992.11.14. 주세네갈대사는 겸임국인 카보베르데의 자유무역단지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검토를 위해 관민합동 경제조사단의 카보베르데 파견을 건의함.

한·체코슬로바키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7 / 23 / 1-67

1992년 중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Soukup 체코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1992.1.29.~31.)

- 방한 목적
  - 주한공관 현황 파악 및 주요 현안 의견 교환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의전장 예방, 구주국장 면담 및 만찬
- 면담 요지
  - 하벨 체코 대통령 방한: 아주 순방의 일환으로 1992.4월 하반기 중 방문 예정이며, 방한 시 경제 관계 각료를 대동하고 경제심포지엄을 개최, 체코 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의견 교환 희망
  - 주한 체코대사 부임: 후보자 선정 후 각 공화국(체코, 슬로바키아)의 동의를 구하는 중이며, 하벨 대통령 방한 이전 부임 추진 중
  - 주한공관 청사 확보를 위한 한국 측 협조와 조언 요청
  - 협정 체결 문제: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서명 추진 희망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 체결 측면 지원 요청

2. 체코 외무부 행정차관 방한(1992.2.20.~21.)

- 방한 목적
  - 주한 체코대사관 건물 매입계약 체결
- 주요 일정
  - 외무부 구주국장 주최 오찬 및 의전장 면담

3. 박준규 국회의장 체코 방문(1992.11.13.~16.)

- 방문 목적
  - 두브체크 전 체코연방 의회 의장 장례식 참석
- 주요 일정 및 활동
  - 장례식 참석 후 슬로바키아공화국 의회 의장·경제부장관·외무부 국무장관 면담
    - 1993년 상반기 중 Knazko 슬로바키아 외무장관 방한 희망
    - 한·슬로바키아 간 합작사업(삼성전자-Calex사 간 냉장고 합작)의 성공적 추진 및 여타 경협에 대한 지원 요청



4. 참고자료

- 외무부차관, “수쿱” 체크·슬로바크 외무부 아주국장 접견자료(1992.1.30., 구주국)
- Soukup 체크·슬로바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요록(외무부차관, 의전장, 구주국장)(1992.1.30.)
- 1992년 공관장회의 자료(전체 회의: 정무 및 경제)/(지역별 회의)(1992.3월, 주체코대사관)

한·지부티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8 / 1 / 1-51

1991~92년 중 한·지부티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한 지부티명예영사 임명

- 지부티 측이 희망한 장영수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주한 지부티명예영사 임명 동의 공한을 주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지부티 정부의 영사임명장 접수 후 영사인가장을 본인에게 전달할 예정임.

2. 주지부티 겸임 대사 변경 문제

- 1991.9월 공식 방한한 지부티 외무장관은 교통편·지리적 이점 및 지부티·예멘 관계 등을 고려, 주지부티 겸임 대사를 주프랑스대사에서 주예멘대사로 변경 요청
- 1992.4월 지부티 겸임 공관을 주예멘대사관 겸임으로 변경하기로 원칙적 재가를 득함.
- 7월 재외공관 직제 관련 법령 개정(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예정

3. 기술학교 건립 지원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 요청

- 1991.9월 한·지부티 외무장관회담 시 지부티는 시멘트 공장과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EDCF 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1992.6월 방한한 Farah 주한 지부티대사(도쿄 상주)는 중동아국장 면담 시 상기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기술학교 건립 지원을 요청함.
- 6.29.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동 사업은 700여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 EDCF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지원이 불가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92-0152

한·도미니카공화국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8 / 2 / 1-68

1992년 중 한·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기아자동차 대리점 계약

- 주도미니카대사관은 1992.3.26.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수입회사인 Viamar사 사장이 3.25. 당관을 방문하여 동 사가 당지에서 법률상 기아자동차 수입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측에서 현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자신들의 기아자동차(캐피털, 프라이드) 구입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고 당관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상기 관련 외무부는 4.20. 기아자동차사에 의하면 Viamar사와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Idelca사만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적법한 대리점이라는 것이 기아 측의 입장임을 주도미니카대사관에 통보함.

2. 국회의장 축하 서한

- 박준규 국회의장은 1992.8.31. 도미니카공화국 신임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축하 서한을 주도미니카대사관을 통해 송부함.

3. Taveras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의 1992.9.24.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한반도 관계 내용

- 이산가족 결합을 위한 남북한 간의 대화 진행에 만족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 생산 목적의 연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사용할 재원을 동 사업에 소모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함.

한·에콰도르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8 / 3 / 1-115

1991~92년 중 한·에콰도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년 대에콰도르 무상원조 배정액 결정(1991.3.30.)
   - 전년 대비 6만 달러 증액, 총 23만 달러 배정 결정
   - 에콰도르 정부, 무상지원 품목으로 한국산 개인용 컴퓨터 희망

2. Salazar 에콰도르 기업감독청장(차관급) 방한(1992.5.7.~11.)
   - 주요 면담인사
     - 수출입은행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감독원 원장
   - 주요 협의 내용
     - 한·에콰도르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92-0154

한·발트3국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8 / 4 / 1-82

1992년 중 한·발트3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리투아니아 경제장관 방한 추진

- 1992.6월 주덴마크대사관, Aleskaitis 국제경제장관 방한 초청 건의
  - 7.11. 한봉수 상공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 발송
  - 7.22. 리투아니아 측, 동 장관 연내 방문 곤란 입장 전달
- Simennas 경제장관 방한 초청 추진
  - 1992.9.12.~16.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 사정상 접수가 어려워 방한 무산

2. 대리투아니아 무상원조

- 1992.3.30. 주덴마크대사관, 1992년도 대리투아니아 무상원조 10만 달러 상당 제공 건의
- 9월 대리투아니아 무상원조 5만 달러 상당 기자재 공여 결정

3. 주스웨덴대사 겸임국 라트비아 출장(1992.11.16.~20.)

- 출장 목적
  - 라트비아 국경일 참석
- 주요 활동
  - Georg Andrejevs 외무장관 면담
  - 독립기념일 경축행사 및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4. 라트비아 외무장관 취임

- 1992.11.10. Georg Andrejevs 외무장관 취임
- 11.13.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한·엘살바도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8 / 5 / 1-134

1992년 중 한·엘살바도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엘살바도르 내전 종식 평화합의문 서명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하메시지 송부(1992.1.16.)

- 주요 내용
  - 평화합의문 서명 축하 및 엘살바도르 재건과 양국 협력관계 증진 희망 표명
- 2.20. 크리스티아니 엘살바도르 대통령 명의 답신 수령

2. 1992년 대엘살바도르 무상원조 결정

- 1992.4.14.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 무상원조 품목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요청
- 6.4. 1992년 대엘살바도르 무상원조를 전년 대비 5만 달러 증액, 총 15만 달러 배정 결정
  -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이 제출한 지원 요청 품목 중 긴급의약품 지원 결정

3. 평화합의서 이행과정 종료 기념행사 초청

- 1992.11.27. 엘살바도르 정부, 평화합의서 이행과정 종료 기념행사(12.15.)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 앞 초청장 송부
- 12.8. 노 대통령 명의 답신을 통해 상기 행사에 참석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엘살바도르 정부의 평화건설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

92-0156

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8 / 6 / 1-67

1992년 중 한·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2.28. 주에티오피아대사는 Israel 에티오피아 대외경제협력차관과 1992년도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2. Bekele 에티오피아 공업부장관이 1992.4.22.~25.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6차 국제중소기업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994년 제7차 국제중소기업회의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하기로 함.

3. 1992.5.8.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1992년 광역지방선거 실시 비용(1,200만 달러)의 지원을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요청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지원을 한국 정부에 건의한바, 5.22. 정부는 예산 사정상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함.

4. 1992.9.29. Desta Erifo Anore 주한 에티오피아대사는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 시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초청에 대해 11.26. 방한 예정이라고 통보함.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8 / 7 / 1-60

1992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년도 한·EC 정무협력 강화방안

- 4월 중 EC 의장국 포르투갈과 차관보급 실무회담 추진
  - 하반기 의장 수임국인 영국과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하반기 중 EC와 외무장관 간 Troika(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형식의 회담 추진 검토
- 한·구주의회 친선협회 사절단의 1992년 중 구주의회 방문 추진

2. 한·EC 정무협의체 실무회의 등 개최 추진

- 한·EC 정무협의체 실무회의(1992.4.24., 리스본), 제1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4.27., 바르샤바) 제8차 한·영국 정책협의회(4.29.~30., 런던)
- 한국 측 외교일정상 상기 회의 일정 연기

3. EPC(구주정치협력회의) 아주국장 회의(1992.4.10., 브뤼셀)

- 북한 문제 관련 3개 사항 논의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 북한 인권 문제, 북한 무기 판매 문제
  -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 환영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속한 사찰 촉구 등

4. 경제기획원장관 EC 방문(1992.5.30.~6.2.)

- Andrissen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6.1.)
  - EC 측은 위스키 주세율 문제, 한국 측은 EC의 한국 제품에 대한 빈번한 반덤핑 제소 문제 등 제기
- De Clercq 구주의회 대외경제관계 위원장 면담(6.1.)
  - 구주의회가 GSP(일반특혜관세)에서 한국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대한국 GSP 공여 지속 필요성 설명

92-0158

한·프랑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8 / 8 / 1-172

1990~92년 중 한·프랑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국 관계 토론회 개최

- 1990.2.1. 주프랑스대사, 태평양문제연구소 주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연설
  - '1989년의 한국과 1990년의 전망' 제목으로 민주화, 남북한 관계, 북방외교 경제 전망 등 설명

2. 프랑스 외무성 한국담당관 방한

- 1990.4.30. 외무부 구주국 과장·P. Boissy 외무성 한국담당관 면담
- 5.11. 외무부 구주국 과장·P. Meunier 외무성 북동아과장 면담

3. 주프랑스대사 이임 계기 주요인사 면담

- 1990.10.9. F. Scheer 외무차관 면담
- 6.11. E. Cresson 구주담당상 면담, B. Dufourcq 외무성 정무총국장 면담
  - 한·소련 정상회담, 한국의 유엔 가입, 구주질서 재편, CSCE(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등 논의
- 6.21. Chevenement 국방상 및 Avice 아주담당상 면담

4. 신임 주프랑스대사 주요인사 면담

- 1990.10.9. F. Scheer 외무차관 및 P. Petit 수상 외교특보 면담
- 10.16. Bianco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한·프랑스 관계, 남북한 관계)
- 10.18. Chevenement 국방상 면담
- 10.31. B. Dufourcq 외무성 정무총국장 면담(한국의 유엔 가입, 프랑스 고위인사 방한 등)

5. 프랑스 국방상 방한 추진

- 1991.7.30. 주프랑스대사의 P. Joxe 국방상 면담 시 1991년 10월 극동 순방 계기 방한 희망
  - 이상훈 국방장관의 공식초청으로 방한일정을 조정하였으나 미실현

6. Beregovoy 프랑스 수상 취임(1992.4.2.)

- 1992.4.3. 정원식 국무총리 명의 축전 발송

한·감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8 / 9 / 1-71

1991~92년 중 한·감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무상원조

- 주세네갈 감비아대사관은 1991.2.26.자 구상서를 통해 사무용 컴퓨터 무상지원을 요청함.
- 한국이 기증한 감비아 국회 통역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감비아 측은 간편한 시설 설치를 요청
- 주세네갈대사관 서기관이 감비아 출장 중 확인한바, 감비아 거주 목사가 초청한 한인이 수리하여 정상 가동

2. Jawara 세네갈 대통령 당선 및 총선거 승리

- 1992.4.2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Jawara 대통령이 60% 득표에 성공하여 재차 당선(5선)
- 집권당인 PPP(국민진보당)가 총 36석 중 29석을 차지, 안정 의석 확보
- 노태우 대통령의 Jawara 대통령 앞 축전 발송
  - 주세네갈대사관, 감비아대사관을 통해 축전 전달

3. 감비아 외무장관 방한 초청

- Mboob 감비아 고등판무관은 1991.8.10. 주세네갈대사에게 Omar Sey 감비아 외무장관이 1991.9.20.~25. 방한 희망함을 전화로 통보
- 외무부는 주세네갈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유엔출장으로 인해 동 희망기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10월 셋째주(10.14.~19.) 중 3박 4일 정도로 조정 제의를 지시
- 감비아 측은 Sey 장관이 짐바브웨에서 개최되는 영국 연방회의(1991.10.9.~24.) 참가로 인해 한국에서 제의한 기간에는 방한이 불가하다고 통보

92-0160

한·가나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8 / 10 / 1-130

1991~92년 중 한·가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무상원조

- 주가나대사는 1991.4.10. 미니버스 BESTA 1대를 주재국 태권도협회에 기증함.
- 동 기증식 식전 행사로 태권도 시범경기가 진행되었는바, 동 행사에는 태권도협회장인 Ababio 가나 보건부차관, 청년체육부장관대리, 문교부 체육국장, 미국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함.

2. 외지 트롤어선 가나 진출 금지 요청

- 가나 한인회 및 어업협회는 주가나대사관에 라스팔마스 소재 John Day Maritime(JDM) 회사가 추진 중인 2,000톤급 대형 트롤어선 CESPED호 등의 가나 수역 진출을 저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가나의 트롤어선 어장은 60마일 내외로 협소하며 한국인 선박 18척, 현지인 선박 6척 등 24척과 현지인 카누어선 2,000여 척이 조업하고 있으나, 수출용 어종의 어획고는 종래의 30% 수준에 불과함.
  - 협소한 어장으로 현지 카누어선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대형 트롤어선에 의한 소형어선 또는 어장의 피해가 다발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
-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은 재스페인 한인어업협회 및 JDM사와 협의한바, JDM사의 CESPED호는 나미비아 조업계획으로 선박 국적 취득 및 선원 충원을 위해 가나를 경유할 뿐 조업계획이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3. 가나 국가개발위원회 인사 방한(1992.11.8.~14.)

- 방한 인사: Ferdinand D. Tay 경제정책국장, Kweku D.A. Appiah 사회정책국장
- 방한 목적: 경제개발의 모델로서의 한국의 발전과정 조사, 한국 경제개발 관련 기관의 운영실태 및 활동상 조사
- 주요 일정: 경제기획원(대외조정실), 재무부(세제심의관실), 내무부(지방행정국), KDI, KOICA, 대우 방문

4. 대우 도로공사 현장 난동사건

- 사건 발생: 1992.11.13. 오전 6시 30분경 가나인 근로자 40여 명이 ASSIN FOSO 현장 본부에 난입,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장 사무실, 발전실, 중기 사물실을 파괴하고 기물을 약탈함.
- 난동 원인: 작업완료로 인한 근로자 41명의 해고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불만
- 사건 피해: 한국인 근로자 6명 경미한 부상, 현지 노조위원장 및 사무장이 집단 구타당하고, 덤프트럭 1대 전소 등 약 10만 달러 피해 발생

한·과테말라 관계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8 / 11 / 1-153

1985~92년 중 한·과테말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벨리즈 국교수립에 따른 한·과테말라 간의 관계 전망 통보(1985.2.13., 외무부)

- 한·벨리즈 간 외교관계 수립 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존의 한·과테말라 간의 우호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벨리즈·과테말라 간 국경분쟁이 최근 소강상태에 있음.
  - 벨리즈 전 정부가 이미 20여 개국과 수교를 하였으며 1984.12월 취임한 Esquivel 신정부는 Price 전 정부와는 달리 대외개방정책을 기조로 함에 따라 수교 국가 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임.

2.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 명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주한 과테말라대사는 1988.10월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지지 표명 및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기원하는 내용의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의 1989.4.25.자 친서를 Note Verbal로 전달해 옴.

3. 우양건설의 자유무역공단 건설 허가 신청(1990.10.26.)

- 사업 개요
  - 총면적: 139,431m^2, 위치: 수도 과테말라시 북서쪽 49.5km 지점, 투자규모: 약 740만 달러, 입주예정 공장 수: 33개
- 과테말라 정부는 1990.11.22.자로 공단 건설을 허가함.

4. 한국 전용공단 진출업체 규제 일부 해제(1991.2월)

- 한국 전용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진출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
- 공단 입주업체는 원칙적으로 비봉제산업으로 제한(전기, 전자, 기계, 완구, 가방, 봉제 부자재, 종이상자, 포장용 비닐, 의약품 등)
- 입주 희망업체가 부족할 경우 공단 운영을 위해 봉제 분야도 허용하되, 여자 정장, 드레스, 니트 셔츠, 셔츠, 바지 업종은 기진출업체와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

92-0162

한·헝가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8 / 12 / 1-125

1992년 중 한·헝가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차관, 주한 헝가리대사 면담(1992.4.16.)

- 한·헝가리 주요 현안사항 협의
  - 정무관계: Antall 헝가리 총리 방한,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 경협자금 이행 문제
  - 경제·통상 문제: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헝가리산 육류 수입 제한 조치, 경제관계위원회 개최, 대전엑스포 참가

2. 외무부 구주국장, 주한 헝가리대사 면담(1992.8.21.)

- 한·헝가리 주요 현안사항 협의
  - 정무관계: Antall 총리 방한,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헝가리 국회 외무위원회 의원 방한
  - 경제관계: 경협자금 이행 문제,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대전엑스포 참가

3. Gabor Rozik 헝가리 국회의원 방한(1992.8.30.~9.15.)

- 방한 목적
  - 한국교도소선교회 주관 세계교도소선교대회 참석 및 기독교 집회 참석

4. 외무부 구주국장, 헝가리 외무부 아주국장대리 면담(1992.12.2.)

- 외무부 구주국장은 프라하 개최 중동구지역 공관장 협의회 참석 및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참석차 동유럽을 방문한 기회에 Nemeth 헝가리 외무부 아주국장대리와 면담
  - 최근 남북한 관계, 양국관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 교환, 면담 요록(첨부)

5. 외무부 구주국장, 헝가리 외무부 정무총국장 주최 오찬 면담(1992.12.2.)

- 구주국장, 헝가리 방문 기회에 Tomaj 외무부 정무총국장 주최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발칸 등 중·동유럽 정세, 남북대화 동향 등에 관해 의견 교환

6. 참고자료

- 한·헝가리 관계 개선 관련 합의의사록 원본(영문) 및 한글 번역본
- 외무차관, 주한 헝가리대사 면담자료 및 면담요록(1992.4.16., 구주국)
- 구주국장, 주한 헝가리대사 면담자료 및 면담요록(1992.8.21., 동구2과)
- 제1차관보, 헝가리 국회의원(Gabor Rozik) 면담 참고자료(1992.9.8., 동구2과)

한·홍콩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홍보과
MF번호 2022-8 / 13 / 1-77

1992년 중 한·홍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홍콩 중문대학 개최 세미나

- 1992.6월 주홍콩총영사관은 중문대학 측이 아래 세미나 개최 계획임을 알려오면서 참석할 학자의 추천을 의뢰한바, 관심 있는 학자 2명을 선정해 줄 것 요청
  - 일시: 1992.9.10.~11.
  - 주제: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nd Asian-Pacific Development
  - 참석자: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구 중화민국) 학자
- 7.24. 외무부, 주홍콩총영사관에 양정철 경희대 교수,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참가 통보

2. 서울방송 홍콩지국 설치

- 1992.7.4. 공보처, 외무부에 ㈜서울방송 홍콩지국 설치에 관한 의견 문의
- 7.9. 외무부는 주홍콩총영사관에 의견 회신을 지시한바, 주홍콩총영사관은 이의 없음을 회신
- 7.15. 외무부, 공보처에 ㈜서울방송 홍콩지국 설치에 이의 없음을 통보

3. 홍콩 입법위원 방한(1992.10.4.~6.)

- 1992.9.30. Andrew Wong 홍콩 행정위원 겸 입법위원은 주홍콩총영사를 면담을 요청, 서울 개최 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회의(중앙공무원 교육원 주관)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친선협회 구성 문제 협의를 위해 국회 방문 희망
- 10.2. 외무부, 주홍콩총영사관에 Wong 위원의 국회 방문일정 통보
  - 국회 참관 및 의회제도 브리핑 청취
  - 박주천 의원 예방 및 오찬

92-0164

한·교황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8 / 14 / 1-105

1991~92년 중 한·교황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교황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 1991.11.1. 주한 교황청대사관, 무사증 입국 허용 요청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교황청 발급 여권소지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요청
- 12.11. 한국 측 사증면제협정 문안 제시

2. Bulaitis 주한 교황청대사 부임 및 외무장관 예방

- 1992.3.26. Bulaitis 주한 교황청대사 신임장 제정
- 3.23. 이상옥 외무부장관 예방

3. 빌리 그레함 목사 북한 방문(1992.3.31.~4.4.)

- 목적: 평화와 복음 전파 등 순수 종교 활동
- 주요 활동
  - 봉수교회, 장충교회에서 설교 및 김일성대학 강연, 김일성과 오찬
- 참고자료
  - 빌리 그레함 목사 연설문

4. 김수환 추기경 유럽 순방(1992.4.24.~5.13.)

- 4.27.~30. 세계추기경회의(바티칸) 참석
- 4.30.~5.12. 부다페스트, 프라하, 함부르크, 바르샤바, 모스크바 방문

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8 / 15 / 1-65

1992년 중 한·인도 간의 관계 동향임.

1. 대통령 인도 방문 문제 검토(1992.1월)

● 경위
- 1992.1월 인도 외무성, 라오 수상의 방한 관심 언급 및 이에 앞서 한국 대통령 인도 방문 실현 요청
  · 인도 측, 1983.10월 랑군 사건 이래 대통령 인도 방문에 대한 기대 지속
  · 1988.10월 벤카타라만 인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앞 초청장 송부
  · 인도 대통령,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 방문 희망 표명
- 한국 측 그간 인도 내 여건이 좋지 않아 적극적 검토 자제
  · 정국 불안정: 2차례에 걸쳐 단명한 정부 출현
  · 치안 불안: 1991.5월 간디 전 수상 폭사 등

● 관계기관 의견
- 안기부 및 청와대: 부정적(방문 위험부담이 큰 반면 방문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검토 결과
- 아래 사항에 비추어 대통령 인도 방문 추진은 부적절
  · 인도 치안 불안 상존
  · 금년도 한국 국내 정치일정: 2대 선거 실시 등
- 한·인도 정상 교류를 위해 라오 인도 수상의 방한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2. 인도 국방대학원생 연수단 방한(1992.9.6.~12.)

●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및 외교 분야에 관한 지식 함양

3. 인도 육참총장 방한(1992.11.7.~8.)

● 군인사 교류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활성화

● 주요 일정
-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 예방
- 육군 본부, 공군 본부 및 특전사 방문
- 구미·창원 공단, 판문점, 제3땅굴 및 국립박물관 시찰
- 육참총장 및 주한 인도대사 주최 만찬

92-0166

한·아일랜드 관계

생산연도	1983-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8 / 16 / 1-100

1983~92년 중 한·아일랜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아일랜드 간 외교관계 수립 및 공관 설치

- 1983.10월 한·아일랜드 간 외교관계 수립
- 1984.4월 C.V. Whelan 초대 주한 아일랜드대사(도쿄 상주) 부임, 강영훈 주영국대사가 초대 아일랜드 겸임대사로 아일랜드 정부에 신임장을 제정함.
- 1985.11월 아일랜드 정부는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을 주한 아일랜드 명예영사로 임명함.
- 1987.7월 정부는 주아일랜드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9월 이기주 초대 상주 주아일랜드대사가 부임함.
- 1987.9월 Ryan 초대 상주 주한 아일랜드대사가 부임함.

2. 한·아일랜드 정부간 인사교류

- 1989년 이중과세방지협약 회의 한국대표단, 아일랜드 방문
- 1983년 Bruton 아일랜드 산업에너지부장관 방한
- 1988년 Reynolds 아일랜드 상공부장 방한
- 1990년 강영훈 국무총리, 아일랜드 방문

3. 한·아일랜드 교역 규모

- 1983년도: 22백만 달러, 1986년도: 38백만 달러, 1989년도: 107백만 달러

4. 한국기업의 아일랜드 진출

- 1989.12월 한국 새한미디어는 비디오테이프 생산공장을 아일랜드 Sligo에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함(약 75백만 달러).

한·이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8 / 17 / 1-99

1992.7.21.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와 주한 이란대사 면담자료 내용임.

1. 외무부 제1차관보 이란 방문(1992.6.2.~3.) 후속조치

-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문제
  -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가까운 시일 내 방한 희망(한국 측은 8월 말 또는 10월 초 제의 중)
- 양국 간 의원 교류(한·이란 의원친선협회 구성)
  - 최근 양국 국회의 개원에 따라 의원친선협회 구성 필요성 합의
  - 최근 한국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바, 이란 측 의원친선협회 조속 구성 요청
- 양국 간 외무차관급 정책협의회 정례화 요망(이란 측)
  - 이란은 차관보 상호 방문을 정책협의회로 간주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봄.

2. 제5차 한·이란 공동위원회 개최 문제

- 1992.7월 또는 8월 중 개최 합의
  - 이란 측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이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임을 들어 한국도 부총리급 수석대표 참석을 희망한바, 동자부장관 참석 예정임을 설명
  - 최근 동자부 측 요청에 따라 8월 말~9월 초 개최를 이란 측에 제의 중인바, 현재 이란 측의 회보 없음.

3.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 이란 측은 통신, 석유화학, 중공업, 경공업, 조선, 도로 건설, 발전사업 및 지하철 건설에의 한국 기업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 지원 희망
- 이란 원유 도입 증대 희망
  - 동건은 제5차 한·이란 공동위원회 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

92-0168

한·이스라엘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8 / 18 / 1-89

1991~92년 중 한·이스라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스라엘 점령지 내 유태인 정착촌 건설 수주 문제(1991.5.25., 외무부)

- 한국 건설업체 참여 가능성 문의
  - 최근 건설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1991.9월 발주 예정인 소련계 유태인 정착촌 건설공사에 대한 한국 건설업체(범양건영)의 수주 활동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문의해 옴.
- 검토 및 조치
  -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한국의 유엔 가입 후 아랍에 대한 자극이 가장 적은 조치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
  - 또한 점령지 내 유태인 정착촌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아랍국가들이 평화 수립 노력과 반대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다수 서방국 정부 및 언론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 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건설부에 회신함.

2. 이스라엘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1992.6.24., 외무부)

- 1992.6.23. 총선 결과
  - 이츠하크 라빈이 이끄는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전체 의석 120석 가운데 45석을 확보함으로써 32석 확보에 그친 이츠하크 샤미르 총리의 집권 리쿠드당에 승리를 거둠.
  - 노동당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중동평화 문제에 대해 일부 양보(영토와 평화 교환 수용) 및 신축성 있는 대팔레스타인 정책(제한적 자치 허용)을 주장하여 중동평화 달성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
  - 집권 리쿠르당은 정착촌 건설 강행으로 대미관계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10%가 넘는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실정을 거듭함.
- 향후 전망
  - 노동당은 현재 10%를 넘는 실업 문제 해결, 교육·주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샤미르 정권의 대아랍 강경 외교노선을 대폭 수정하여 중동평화회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한·이탈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8 / 19 / 1-33

1992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탈리아의 군수품 구매 요청

- 이탈리아 외무부 경제담당 차관보(1992.4.23.) 및 Aloisi 경제부총국장(5.19.) 등은 주이탈리아대사 면담시 이탈리아 군용 수송기 및 헬기에 대한 판매 문제를 거론함.

2. 신임 외무부장관 축전 송부

- 1992.8.1. 이탈리아 정부는 Emilio Colombo 전 총리(기민당)를 신임 외무부장관으로 임명
  - 동인은 1948년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농림·대외무역·공업 및 무역·국고·재무부장관 등 각료직 22회 역임
- 8.3.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송부

92-0170

한·일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8 / 20 / 1-192

1992년 중 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2년도 한·일본 간 주요 회의(정무관계) 잠정 추진 일정

- 외무장관회담
  - 제7차 정기 외무장관회담: 7월 이후, 서울
  - 주요 계기별 외무장관회담: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담(7월 말~8월 초, 마닐라), 제4차 APEC (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9월, 방콕), 제47차 유엔총회(9월, 뉴욕)
- 제16차 정기 각료회담: 8월 이후, 도쿄
- 제9차 고위정책협의회(제1차관보): 3월 하순, 도쿄 등

2.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뮌헨 서방선진국 정상회담 참가를 계기로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를 송부함. (1992.8월)

- 금번 정상회담 의의는 냉전종식 후 과거의 적대국과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 북방영토 관련, 법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원칙 확인
-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서방의 인식 확보
-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의장설명에 북한 핵문제가 언급된 점 상기
- 국제평화협력법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
-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 없음.

한·요르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8 / 21 / 1-97

1990~92년 중 한·요르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요르단대사 신임장 사본 제출

- 이한춘 신임 주요르단대사는 1991.9.1. Ensour 요르단 외상을 예방하여 전임 대사의 소환장과 본인의 신임장 사본을 전달함.
- 외상 발언 요지
  - 이 대사의 부임 계기로 기존의 돈독한 양국관계가 보다 증진되기를 희망
  - 제2차 세계대전 후 유태인,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 및 관계의 심각성에 대한 배경 설명
  - 걸프사태 관련 주재국이 취한 중립적인 입장
  - 걸프사태로 인한 해외 거주 자국 인구 15%의 귀국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
  - 중동 peace process를 환영하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음을 설명

2. 한국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문제

- 1991.10.19. 이한춘 주요르단대사는 Bilbeisi 요르단 외무차관 면담 시 IMO에서의 한국 지지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기꺼이 지지하겠다고 함.
  - Talhouni 국제기구 국장대리는 동 외무차관의 지지가 있었으므로 늦어도 2, 3일 내 지지 훈령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함.

3. 한·요르단 과학기술 협력

- 1992.1.25. Toukan Higher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HCST) 사무총장은 주요르단 대사를 초치, 아래 사항을 언급함.
  - 양국 간 과학·기술 등 협력 강화방안 모색
  - 한국의 축적된 경험 습득 모색
  - 한국의 과학자 등을 요르단에 초청, 의견 교환 및 주재국 관계자의 방한 추진

92-0172

한·케냐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8 / 22 / 1-87

1990~92년 중 한·케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Kiplagat 케냐 외무부 사무차관 부인 방한(1991.8.5.~16.)

- 방한 경위
  - 제17차 세계 잼버리대회에 UNEP(유엔환경기구) 대표 자격으로 방한
- 주요 일정
  - 잼버리대회 참가, 외무부 제1차관보 부인 주최 오찬, 주한 케냐 명예영사 주최 만찬
  - 국립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민속촌·창덕궁 등 관광

2. 케냐 주지사 일행 방한(1991.11.1.~7.)

- 방한 경위
  - UNDP(유엔개발계획) 후원 Study Tour 계획의 일환
- 방한단
  - 주지사 2명, 수행원 2명
- 방한 목적
  - 지역개발계획, 농업 및 농업 관련 분야 개발사업 시찰
- 주요 일정
  - 농협중앙회,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내 농공단지, 새마을 중앙연수원 방문

3. 제20차 전문직업여성 국제연맹총회(1991.11.3.~8., 케냐 나이로비)

- 참가자
  - 홍연숙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한양대 영문과 교수) 등 각계 여성지도자 11명
- 주요 일정
  - 총회 참가, 암보셀리·마운트케냐·마사이마라 관광

4. 케냐에 대한 한국산 화살 수출 문제

- 1992.4.15. 주케냐대사관은 최근 케냐 내 종족 분규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한국산 화살이 수입, 사용되었다는 보도 내용을 보고함.
  - 최근 케냐 내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화살의 수출이 정치 문제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산 화살이 케냐에 수출 또는 반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4.30. 외무부는 한국 화살을 케냐에 직접 수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케냐 정당, 당국 및 언론에 설명하여 한국산 화살로 인해 더 이상 케냐에서 문제시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케냐대사관에 지시함.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8 / 23 / 1-77

1992년 중 한·쿠웨이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쿠웨이트 방문(1992.6.6.~8.)

- 주요 일정
  - 외무차관대리·국무총리대리(부총리 겸 외무장관)·기획부차관·석유부장관 면담
  - 외무차관대리 주최 오찬, 현대건설 도로공사 현장 방문 등
- 방문 성과 평가
  - 금번 제1차관보의 방문은 1991.5월 강영훈 특사 방문 후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첫 방문으로 양국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함.
  - 쿠웨이트 정부는 정무차관보 방문을 환영하고 중요성을 부여하여 통상적으로 장관급(각료) 방문인사에 대한 의전 대우에 준하는 특별한 대우를 제공함.

2. 쿠웨이트 국회 개원(1992.10.20.)

- 사바 쿠웨이트 국왕 및 사드 왕세자 겸 국무총리 참석하에 제7대 쿠웨이트 국회가 개원됨.
- 주요인사 발언 요지
  - 국왕은 쿠웨이트의 최우선 과제는 안보임을 강조하고,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GCC(걸프협력회의) 등 우방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
  - 왕세자 겸 국무총리는 새 내각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점령기간 중 반이라크 성향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92-0174

한·카자흐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8 / 24 / 1-182

1991~92년 중 한·카자흐스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카자흐스탄 정상 간 친서 교환

- 1991.10.8.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주소련대사에게 전달
  - 한·카자흐스탄 간 최초의 TV 생산 합작기업 '털보네 알마아타'의 첫 제품 생산 계기
- 11.19.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카자흐 백혈병센터' 건립 추진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
  - 12.26. 노태우 대통령 명의 답신 서한 전달

2. 교육원 설치 및 교육훈련생 방한

- 1991.10월 카자흐 알마아타 교육원 설치(문교부 직원 1명 상주)
- 12월 교육훈련생 방한

3.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선

- 1991.12.1. 실시된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나자르바예프 당선(98.76% 지지)
- 12.5.자 노태우 대통령 명의 당선 축하 축전 발송

4.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대한 원조공여국 회의 참가 문제

- 1992.7월 세계은행은 9월 개최 예정인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시 카자흐스탄 등 3개국 원조공여국 회의에 한국 참가 문제 협의 희망
  - 8.18. 외무부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잠재력, 한국 교포의 다수 거주 등을 감안하여 원조공여국 회의 참가 바람직 의견 표명

한·레바논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9 / 1 / 1-77

1992년 중 한·레바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균 주레바논대사대리 레바논 출장(1992.10.4.~7.) 보고

- 주요 면담자
  - Hassan 외무부 정무국장(차관대리), Kandar 의전장, Siam 국제기구국장 및 Dib 경제국장대리
  - 나쓰미 일본대사대리(시리아 상주), Battle 미국 공사
- 최근 레바논 정세
  - 금년 8월 총선에서는 친시리아계 인사가 다수 진출한바, 10.16. 국회 개원 및 신내각 구성으로 정치적 안정 추구 예상
  - 그러나 일부 기독교도 등의 선거 결과 불복, 시리아군 및 이스라엘군 주둔, 남부지역 내 민병대간 전투 계속 등 불안 요인 상존
  - 17년간 내전으로 황폐화된 경제가 최근의 국제적 경기 침체로 계속 악화
- 주요 공관 복귀 현황 및 한국 공관원 복귀 대책
  - 최근 38개국 대사 상주(13개국이 대사대리 상주 중이나, 북한 등은 곧 대사 부임 예정)
  - 현재 고용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및 바레인 7개국임.
  - 한국 공관원 복귀 관련, 일본 등의 공관원 복귀 움직임을 보아가며 1993년 하반기 또는 1994년 상반기 중 복귀를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2. 레바논인 연금 문제

- 1992.10.15. Geara 주요르단 레바논대사대리는 주레바논대사관을 방문, 레바논인 2명이 한국에서 외화 불법소지 혐의로 소지 외화 압류와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대기 중이라고 하면서, 동 사건은 한국법 무지에 따른 실수이므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옴.
  - 주레바논대사는 동인들의 신분과 지참 외화 내역이 확인되면 양국 간 우호관계와 동인들의 사정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절히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92-0176

한·말레이시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9 / 2 / 1-74

1992년 중 한·말레이시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제6차 아·태 라운드테이블 워크숍(1992.6.23., 쿠알라룸푸르)

- 한국 측 참석자인 전인용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남북대화의 현황 및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북한 측 참석자인 조명황은 기제출한 페이퍼를 낭독하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대신함.
-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과 관련한 특별사찰을 수용해야만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대서방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북한 측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이미 수용했으며 남북 핵사찰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함.

2. 이상구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신임 인사차 1992.6.22. Ellyas 쿠알라룸푸르 시장, 6.23. Syed Hamid 수상실 장관 겸 법무부장관을 각각 예방함.

3. 이상구 대사는 1992.6.25.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을 신임 인사차 예방함.

- 마하티르 수상은 Look East Policy 시행 이래 많은 학생과 기술자를 한국에 보내 한국인의 근면성과 절제심을 배우도록 해왔다고 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정책에 협조해 준 데 감사하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한·몽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9 / 3 / 1-69

1. 몽골 국회의원 선거(1992.6.28.)

- 주요 결과
  - 총 76석 중 현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이 70석 확보
  - 잔여 6석 중 야당의 각 당수가 4석 당선(민주당, 국가발전당, 신진보연합, 사회민주당)
- 총선 결과와 관련하여 발표한 인민혁명당의 기존정책 방향
  - 시장경제, 민주화 및 인권존중 등 신헌법의 기존원칙 존중 및 이행
  - 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책임감 고취 및 근면 촉구
  - 외국인 투자보호, 사회 안정, 국민생산 확대 강화
- 여당의 압승 요인
  - 현 여당의 정책이 몽골인의 사고에 부합
  - 선거운동에서 정부의 각 조직 및 기구 이용
  - 야당의 난립과 단합 결여 및 재정적 어려움
  - 경제적 난관과 일반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치 지도체제 희망

2. 외무부는 1992.7.22. Puntsagiin Jasrai 몽골 신임 수상에 대한 정원식 국무총리 명의의 축전을 전달함.

- Natsagiin Bagabandi 신임 국회의장에 대한 박준규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 전달(7.24.)
- 재임명된 Gombosuren 외무장관에 대한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 발송(8.6.)

3. 한·몽골 간 주요 현안

- 대통령 몽골 방문 초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조치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 무상원조 제공

92-0178

한·말리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9 / 4 / 1-57

1991~92년 중 한·말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외원조

- 주세네갈대사는 1991.7.5. 주재국을 방문 중인 Ndya Issa 말리 청년체육장관을 면담한바, 동인은 청소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운동기구 및 장비, 운동복, 운동화 등의 지원을 요청함.
- 주세네갈대사는 10.25. 말리(겸임)에 대한 신임장 제정 후 수송공공사업장관, 국방치안장관, 체육장관, 외무차관 등을 예방한바, 동인들은 한국의 원조를 요청함.
  - Cisse 외무차관은 한국 최초로 말리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리 외무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리에 대한 원조를 요청

2. 말리 대통령 당선자 앞 축전

- 1992.4.26. 실시된 말리 대통령 선거에서 Konare 전임 청년체육장관이 당선됨.
-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Konare 신임 대통령 당선자 앞 축전 발송
  - 외무부는 주세네갈대사에게 축전 전달을 지시한바, 주세네갈 말리대사관을 통해 동 축전을 전달

3. 말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지원 요청 서한

- 김운용 IOC 부위원장 앞 서한(1992.2.21.자)을 통해 방한을 희망한 바 있는 Lamine Keita 말리 IOC 위원은 6.30.자 서한을 통해 경제문제 협의를 위한 김운용 부위원장의 말리 방문 또는 동국 고위사절단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여 옴.
- 외무부는 외무부장관 명의 김운용 IOC 위원 앞 서한을 통해 현 국내 일정상 대통령 특사파견 및 말리 사절단 방한 초청이 곤란함을 설명하고, 현 세네갈대사의 말리 신임장 제정 출장 시 말리 측에 동 사항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한·멕시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9 / 5 / 1-85

1991~92년 중 한·멕시코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한·멕시코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책(1992.3.31., 주멕시코대사관)

- 멕시코 측 불만사항
  - 멕시코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원 미흡
  - 무역역조가 심각하나 한국 측의 성의 있는 개선 노력 미진
  - 외화 미신고 멕시코인에 대한 가혹한 벌금 부과
  - 한국업체의 멕시코업체에 대한 전시관 시설공사 대금 미지불
  - BCCI에 예치된 주한 멕시코대사관 운영비 미해결
- 문제점
  - 상기 불만사항이 1992.3.20.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의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개설 동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멕시코 측 불만사항 해결시 북한 상주공관 설치 지연 가능성 잔존
  - 멕시코 측 제기 불만사항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현지에서 적절히 대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책 및 건의
  - 멕시코의 불만사항 신속해결 성의 표시
  - 멕시코의 APEC 가입에 적극 협력 등

2. 외무부 미주국장, 주한 멕시코대사 면담(1992.6.15.)

-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개설 문제
  - 멕시코 측은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동 공관 개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사실상의 개설 연기).
- Salinas 멕시코 대통령 방한 문제
  - 주한 멕시코대사는 본국으로부터 훈령은 없으나, 멕시코 측 사정(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지방선거, 외빈접수 및 해외방문)과 한국 측 접수가능 시기(11월 중순 이후)를 감안할 때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3.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벨리즈 출장(1992.12.3.~6.)

- 주멕시코대사는 12.4. Minita Gordon 벨리즈 총독, Said Musa 외무장관, Diana Locke 외무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이임 인사와 함께 아래사항을 협의함.
  - 양국 간 현안사항(대전엑스포 참가 지원사항 등), 한반도 정세, 특히 남북한 관계와 북한의 핵사찰 문제 등 설명 및 협의

92-0180

한·모잠비크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9 / 6 / 1-182

1990~92년 중 한·모잠비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모잠비크 관계 개선 추진

- 1988.10월 민간 수산협력단의 모잠비크 파견을 시작으로 주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대사 및 주나미비아대사의 모잠비크 방문을 통해 모잠비크의 정세 파악, 경협 및 관계 개선 추진
- 1992.2월 모잠비크 업무를 주나미비아대사관에서 주잠비아대사관으로 이관하고, 양국 주유엔대표부를 창구로 수교 교섭 추진

2. 모잠비크 내전 종식

- 평화협상 전개 및 평화협정 서명
  - 1977년부터 16년간 지속되어 오던 모잠비크 내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탈리아의 중재로 1990년 이후 로마에서 전개
  - 1992.8.4.~7. Joaquim Chissano 모잠비크 대통령과 Afonso Dhlakama RENAMO(민족저항운동) 지도자 간 직접 협상에서 휴전 합의를 위한 공동성명서 서명
  - 10.4. Chissano 대통령과 Dhlakama RENAMO 지도자는 짐바브웨 대통령, 보츠와나 대통령과 이탈리아,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중재자 입회하에 평화협정 서명
- 평화협정 주요 내용
  - 모잠비크 의회가 동 협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휴전 발효
  - 1993.10월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 실시
  - 정부군과 RENAMO군 해체 후 통합군 창설

3. 모잠비크 원조공여회의 참가 문제

- 1992.11.30. Volpicelli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 이탈리아 정부 주관의 모잠비크 원조공여회의(1992.12.15.~16., 로마)에 한국 측의 참가 요청
- 12.14. 외무부 검토 결과, 이탈리아 측에 불참 통보
  - 모잠비크와의 관계 개선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며, 동국과의 실질 경제 관계도 미미
  - 개도국 원조공여회의에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 고려 등

4. 참고자료

-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 모잠비크 출장자료(1991.7.23.~28., 주나미비아대사관)
- 모잠비크 일반평화협정
- 1992.7.16.자 모잠비크 정부와 RENAMO 간의 인도적 원조 지도원리에 관한 선언
- 1992.8.7.자 공동선언(Chissano 대통령 및 Dhlakama RENAMO 지도자 간 서명)

한·나우루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9 / 7 / 1-37

1990~92년 중 한·나우루 간의 관계 동향임.

1. Dowiyogo 나우루 대통령 방한(1990.12.12.~13.)
   - 인광석 연 2만 톤 장기공급계약 체결

2. Hammer Deroburt 나우루 초대 대통령 서거(1992.7.15.)
   - 외무부장관 명의의 조전 발송

3. 총선에서 Dowiyogo 대통령 재선(1992.11.14.)

92-0182

한·네팔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9 / 8 / 1-121

1992년 중 한·네팔 간의 관계 동향임.

1. 1992.7.15. Asha Ram Sakya 룸비니개발신탁 사무총장은 주네팔대사 앞 서한을 통해 룸비니지역 개발사업에 조계종 등 한국 불교계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옴.

- 네팔 측은 본 건 관련 1989.7월 룸비니 개발위원회 대표단의 방한 시 조계종 총무원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함.
- 룸비니개발사업 및 지원 요청 관련 문화부는 동 건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통보하여 불교계에서 검토하도록 처리했다고 외무부에 알려옴.

2. KBS는 네팔 현지 취재에 관해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옴.

- 프로그램명
  - KBS 제1라디오 '세계를 달리다' 네팔편
- 취재자
  - 박종성 KBS 라디오 제작1국 제1라디오 PD
- 취재 기간
  - 1992.9.23.~10.10.
- 네팔정부 정책 담당자(국장급) 인터뷰 주선
  - 인터뷰 희망부서: 관광,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농업, 의료정책
  - '다사인' 축제 시작 전인 9월 말 이전 인터뷰 요망
- 구르카 용병훈련소 취재 협조

한·네덜란드 관계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9 / 9 / 1-71

1989~92년 중 한·네덜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조순 부총리 네덜란드 방문(1989.2.1.~4.)

- Lubbers 수상 예방
- De Korte 부수상 겸 경제부장관과 회담
  - EC(구주공동체) 시장 통합 대책, 양국 간 경제현안 협의

2. 김대중 평민당 총재 네덜란드 방문(1989.2.8.~12.)

- 네덜란드 기민당 초청
- Lubbers 수상, Van den Broek 외무장관과 면담
  -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네덜란드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에 네덜란드의 협력을 요청함.

3. J.H. Maij-Weggen 네덜란드 교통·공공사업부장관 방한(1992.2.23.~26.)

- 교통부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
- 양국 교통장관회담 시 Maij-Weggen 장관은 양국 간 운항 횟수를 주3회 증편하고 한국 신공항 건설 및 인천항 등 항만시설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바, 한국 측은 운항증편 문제는 1992.3월 양국 항공회담 시 협의 예정이라고 하고 네덜란드 측도 상기 항만시설 사업에 참여 기회가 있다고 설명함.

92-0184

한·뉴질랜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9 / 10 / 1-72

1. Don McKinnon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1992.6.2. 외무부장관에게 아래 내용의 서한을 보내옴.

- 한·뉴질랜드 항공회담
  - 7.6. 시작되는 주에 항공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 언급
  - 양국 간 항공협정 조기체결 희망
  - 항공협정 체결 관련 지원 요청
- 외무부장관의 뉴질랜드 방문
  - 빠른 시일 내 외무부장관 방문 실현 희망
- 한국 측 답신 요지
  - 항공협정 체결 기대 표명
  - 뉴질랜드 방문 초청에 감사하며 추후 편리한 시기에 방문 희망

2. 한·뉴질랜드 항공협정 체결에 관한 한국 입장

- 금번 회담에서는 협정 본문만 합의
- 노선구조, 취항횟수 등 부속서는 양국 항공사 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 시 항공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확정

3. 한·뉴질랜드 인적 교류

- 1991년 중 한국인 뉴질랜드 방문자 숫자는 7,873명에 달함.
- 1992년 중 동 숫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오만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9 / 11 / 1-164

1991~92년 중 한·오만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한 오만대사 면담

- 외무부장관 예방(1991.4.18.)
  - Hussein Ali Abdullatif 주한 오만대사 면담자료(1991.4.18., 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1992.1.23.)
  - 한·오만 주요 현안 협의
  - Hussein Ali Abdullatif 주한 오만대사 접견자료(1992.1.23., 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1992.8.28.)
  - 주한 오만대사, 오만·북한 수교(1992.5.26.)와 관련, 본국 훈령에 따라 오만 입장 설명
  - 중동아국장, 오만이 북한과 수교 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사실 지적

2. 오만 군사사절단 방한 문제

- 1991.7.26. 주한 오만대사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오만 국방부가 아래 목적으로 군사사절단의 방한 접수를 요청하였다고 통보
  - 연금제도, 전몰장병 유가족 및 상이용사 처우 방식 습득
  - 주택조합 등 군인에게 주어지는 제반 혜택, 군인 상점 운영시설 현황
  - 기타 국방부에서 연금 수혜자, 전몰장병 유가족 및 상이용사에게 베푸는 혜택
- 9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오만 군사사절단의 방한 일정(1992.10.14.~17.)을 잠정 확정하였으나, 오만 측이 사절단 도착 예정일 하루 전에 본국 사정을 이유로 방한을 연기한다고 통보

3. 오만 노동사회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방한 문제

- 1992.5.3. 오만 외무부는 주오만대사관을 통해 Ahmed bin Mohammed bin Salim Al Issa'ee 신임 노동사회부장관의 1992.10월 상순경 방한 희망 의사 통보
  - 9.3. 외무부는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상기 장관의 방한 초청이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하도록 주오만대사관에 지시
- 10.13. 주한 오만대사관은 Maqbool Bin Ali Sultan 오만 상공부장관의 1993년 말 방한 희망 의사 통보
  - 10.15. 외무부는 상공부와 합의하여 1993년 중 방한 초청계획임을 통보

92-0186

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9 / 12 / 1-50

1991~92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파키스탄대사는 1990.11월 취임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신임 수상을 방한 초청해줄 것을 건의해옴.

- 샤리프 수상의 친한 성향 제고
  - 동 수상은 현재 41세로서 장기간 파키스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동 수상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파키스탄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 전 부토 수상 시절에는 다소 친북 성향을 보임.
  - 현 집권당(이슬람 민주동맹)은 지아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한·파키스탄 간의 양국관계 긴밀화에 유리
- 파키스탄·북한 간 군사 분야 협력 가능성 배제
  - 특히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가짐.
-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관련 파키스탄의 측면 지원 확보

2. Gohar Ayub Khan 하원의장 방한 연기

- 1991.3.18.~24. 방한으로 일정 주선
- 3.16. 파키스탄 하원 사무처 및 외무성은 방한 연기를 통보해옴.
  - 방한기간이 회교 금식기간과 중복
  - 파키스탄 대통령이 3.23. 국경일 행사에 하원의장의 참석을 지시

3. 파키스탄 홍수 피해 지원

- 1992.9월 홍수로 인해 파키스탄은 1,700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이재민 13만 명 및 수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바, 한국 측에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옴.
- 한국 측은 3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파키스탄 측에 통보함.

한·폴란드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9 / 13 / 1-77

1992년 중 한·폴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폴란드 주요 인사교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1992.2.25. 크라코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의 구주국장 면담 시 언급 내용
  - 양국 국가원수(노태우 대통령, 바웬사 대통령) 상호 방문 희망
  - 폴란드 신임 하원의장 9~11월경 방한 희망
  - 한·폴란드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폴란드에서 개최 희망

2. 신임 주폴란드대사의 주요인사 면담

- 1992.4.29. Skubiszewski 외상 예방(신임장 및 소환장 사본 전달) 시 외상 언급사항
  -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폴란드 방문, 문화협정 조속 서명, 사증면제협정 및 경제과학기술협정 추진
- 5.13.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5.26. Kurczewski 하원 부의장, 5.27. Baranowski 상원 경제위원장 예방
- 6.4. Wyganowski 바르샤바시장 예방

3. 폴란드 신임 총리 임명

- 1992.7.10. Suchocka 여사, 폴란드 의회에서 인준을 얻어 신임 총리로 임명
- 7.11. 정원식 국무총리 명의 축전 발송

92-0188

한·파라과이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9 / 14 / 1-220

1992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년 대파라과이 무상원조 기증식 개최(1992.2.27., 파라과이 외무부)

- 파라과이 대통령실 및 외무부 CENSO용 컴퓨터 기증
- 1992.1.8.자 Vaesken 파라과이 외무장관 명의 감사서한 접수

2. Vaesken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1992.4.9.~11.)

-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서훈, 노태우 대통령 파라과이 방문 초청장 전달
- 주요 협의 내용
  - 한·파라과이 기술협력 및 대우 등 한국 기업의 파라과이 진출 문제 협의

3. 파라과이 아순시온 폭우 이재민 지원 수재의연금 10,000달러 전달(1992.6.3.)

- 7.10. Vargas 내무장관 명의 감사서한 수령

4. 수출 진흥 분야 전문가 파라과이 파견(1992.11.1.~27.)

- 파견 전문가
  - 기현서 대한무역진흥공사 과장
- 주요 활동
  - Pro-Paraguay 업무용 매뉴얼 및 상무관용 매뉴얼 작성
  - 파라과이 해외 주재 상무관을 위한 무역진흥세미나 주관
  - 파라과이 외교관학교 무역진흥 업무 및 상무관 업무 강의

한·필리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2-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9 / 15 / 1-313

1982~92년 중 한·필리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아키노 필리핀 상원의원 피살사건에 대한 보도

- 1983.8.29. 카스트로 필리핀 외무차관은 주필리핀대사관에 아키노 상원의원 피살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비우호적이라고 항의한바, 8.31. 정부는 문공부로 하여금 국내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파견된 한국 특파원을 철수시킴.

2. 1986.2월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을 축출하고 출범한 아키노 정부는 정국 안정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집중함.

- 1985년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1987년 5.7%, 1988년 6.7% 경제 성장을 시현하는 등 점차 회복 추세임.
- 아키노 정부는 빈곤 타파를 위한 고용 창출 및 외채(1988년 현재 외채 총액: 279억 달러) 절감을 위해 5개년 경제개발계획(1987~92)을 수립하고 해외원조 지원 및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함.

3. 필리핀 군부 쿠데타에 대한 보도

- 1989.12.1. 발생한 필리핀 군부 쿠데타에 대해 정부는 무력에 의한 민주정부 전복 시도를 반대하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수립된 아키노 정부를 전복하려는 필리핀 사태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함.

4. 필리핀 근로자 철수 지원 요청

- 1990.9.4. 망그라푸스 필리핀 외무장관은 한국 등 필리핀 주재 아시아지역 대사를 초치,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이라크 및 쿠웨이트 체류 1만 명의 필리핀 근로자 철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바, 9.24. 정부는 각국의 난민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IOM(국제이민기구)에 50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함.

5. 필리핀·북한 수교 문제

- 1991.6.18. 망그라푸스 장관은 북한의 필리핀 내 NPA(신인민군) 지원 중단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 이행 여부를 관찰하면서 필리핀과 북한의 수교 문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92-0190

한·페루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9 / 16 / 1-44

1992년 중 한·페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 미주국장은 1992.4.15. 페루 외무부를 방문, Bresani 페루 아주국장과 아래와 같이 면담함.

- 한·페루 공동위 개최
  - 페루 측: 9~10월경 양국 공동위 개최를 위해 수산부 등 경제 관련 부서와 의제 등을 마련 중임을 설명
  - 한국 측: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주변국 공동위와 연계하여 9~10월경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귀국 후 관계부서와 협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함.
- 투자보장협정
  - 한국 측은 한국 측 협정(안)에 대한 페루 측 입장을 문의한바, 페루 측은 내주 중 자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대전박람회
  - 페루 정부의 대전박람회 참가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조속한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동 국장은 자국의 예산 사정상 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협력을 받아 참가를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 주재국 정부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국 측의 가능한 지원을 요청함.
- Fujimori 페루 대통령 방한
  - 한국 측은 Fujimori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문의한바, 페루 측은 최근 페루 사태로 대통령의 독일 및 칠레 방문 등을 연기하였다고 하면서 국내정세가 안정된 후 내년 중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 어업협정 체결 문제 협의 등
  - 한국 측은 당지 진출 한국 수산업체의 조업 확보를 위해 한·페루 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바, 이에 대해 동 국장은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경제협력
  - 한국 측은 한국의 대페루 무상원조, 기술협력이 향후로도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설명하고 페루 측이 희망하는 분야를 제시해 주도록 제의한 데 대해, 동 국장은 양잠, 수산 분야의 지원을 요청함.
-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국 측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국 측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페루 측의 검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바, 페루 측은 한국기업인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바로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말함.



2. Juan P. Castro 페루 El Comercio지 정치부장 방한(1992.10.13.~18.)

-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및 미주국장 면담, 해외공보관장 주최 오찬,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장 면담
- 성남 새마을연수원, 새마을 시범마을(경기도 이천군), 한·페루 어업주식회사 방문
- KDI 양수길 산업무역 연구부장 면담, 판문점 방문, 페루대사 주최 만찬
- 대전엑스포 현장 취재 등

92-0191

한·러시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9 / 17 / 1-299

1992년 중 한·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스탄케비치 모스크바 부시장 겸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방한(1992.3.27.~4.3.)

- 3.28. 외무부차관 면담

2. Vitaly Ignatenko 타스통신 사장 방한(1992.4.12.~20.)

- 4.13. 공보처 장관 예방, 김운용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주최 오찬, 삼성전자 시찰
- 4.14. 연합통신 사장 주최 오찬, 김학준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면담,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주최 만찬
- 4.15.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최 오찬, 외교안보연구원 초청 강연
- 4.16.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주최 조찬, 공보처장관 주최 오찬, 신세길 삼성물산 사장 주최 만찬

3. 아르카지 볼스키 러시아 산업·기업가연맹 의장 방한(1992.5.17.~23.)

- 협의 사항
  - 러시아 응용 가능 기술의 한국 이전 및 산업화 활용 추진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와 동 연맹 간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설립
  - 산업기술 이전, 기업화 및 합작투자 등 협의

한·루마니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9 / 18 / 1-111

1992년 중 한·루마니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Babiuc 루마니아 내무장관 방한(1992.8.20.~27.)

- Summit Council for World Peace 주최 심포지엄 참석
- 8.25. 내무부장관 면담 및 오찬
  - 양국 내무행정 분야 협력, 루마니아의 한국 경찰장비 구입 등 협의

2. 루마니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1992.9.27.)

- 대통령 선거 결과
  - 10.11.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 Iliescu 현 대통령 당선
  - 10.14. 노태우 대통령 명의 당선 축전 발송
- 국회의원 선거: 상원 143석, 하원 328석 선출
- 수상 지명
  - 11.19. 니콜라이 바카로이우 수상이 국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
  - 11.20. 현승종 국무총리 명의 축전 발송

92-0193

한·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9 / 19 / 1-98

1989년~92년 중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정보·통계기술 지원

- 1989.12.4.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아래 사항을 요청해 옴.
  - 사우디 외무부는 우방 국가와의 공동위원회를 통한 경제활동 지원 및 공산품 개발, 수출 증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자 정보·통계자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 동 센터 요원들에 대한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인바,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2.6. 외무부는 상공부 및 과기처에 한·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기술협력 차원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동 분야의 한국 기술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메카 하지 순례단 참사 사건 관련 위문 전문 발송

- Naif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장관은 1990.7.2. 발생한 Mina 소재 Moaisem 터널 내 사고로 하지 순례자 1,42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7.3. 공식 발표함.
- 상기 메카 하지 순례단 참사 사건 관련, 7.7. Fah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앞으로 대통령 명의 위로 전문을 발송함.

한·세네갈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2-9 / 20 / 1-89

1992년 중 한·세네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세네갈 어업협력

- 1992.1월 국내 거광수산(주)은 세네갈 Touba Peche사 소유 트롤어선 2척을 5년간 용선하여 세네갈 수역에서 조업하는 조건으로 용선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산청에 용선 허가를 신청
  - 외국 국적선에 대한 입어조건이 까다로운 세네갈 어장 진출을 위해서는 세네갈 내 합작회사 설립 또는 세네갈 국적선 용선방식이 가능
  - 동 용선계약을 통해 한국업체의 세네갈 어장 진출이 증가할 경우 세네갈 선원 고용 증대 등 세네갈에 긍정적 효과 예상

2. 대세네갈 무상원조

- 국산 차량 15대 기증식(1992.1.21., Dakar항)
  - 주세네갈대사의 기증사(첨부), Djibo Ka 세네갈 외무부장관의 답사순으로 진행
  - 기증식에는 Diallo 관방장, Turpin 외무부 아주국장, Ly 물자국장 등 외무부, 재무부 간부와 방송·신문기자 등 참석
- 앰뷸런스 10대 및 미니버스 3대 기증식(5.15.)
  - 주세네갈대사의 기증사, Ka 세네갈 외무부장관의 답사순으로 진행
  - 기증식에는 Bao 외무부 물자행정국장, Thiam 외무부 아주과장, Sylla 보사부 관방장, 내무부, 문교부 대표와 신문·방송기자 등 참석

3. 세네갈 수출공단청장 방한

- Mamadou Niang 세네갈 수출공단청장이 한국업체 미성상사(세네갈에 가발업 진출)의 초청으로 1992.8.10.부터 약 10일간 방한 예정
  - 현재 세네갈 수출공단 내에는 2개의 한국 가발업체가 진출,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영업실적을 기록
  - 세네갈 정부의 조세정책 변경(국내 판매 상품에 대한 고율의 부가세 부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 예상
- 동 청장의 방한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업체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전망

92-0195

한·수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9 / 21 / 1-42

1992년 중 한·수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항구도시 간 자매결연 제의

- 1992.5.18. 주수단대사는 수단 동부주인 Port Sudan을 방문한바, 동 항구 관할 주지사가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중에 수단 측이 Port Sudan 개발계획과 관련, 경험 전수 등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항구와의 자매결연을 제의하였다고 하면서, Port Sudan과 한국 마산항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건의해 옴.

2. 수단, 국제공원부지 한국 측에 할당

- 1992.10.7. 수단 CIPF(국제민간친선평의회)는 동 단체가 조성 중인 수단 국제공원부지 중 1필지(약 1,250평)를 한·수단 친선협회 측에 기증하는 명목으로 한국 측에 할당함.
  - 동 공원은 수단 대통령의 후원하에 총 규모 2만 5천 평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방국(친선협회)에 부지를 할당하여 각국의 지리·역사·문화를 표상하는 조형물 또는 상품 전시 활동 등을 1993.6월까지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10.9. 주수단대사관은 CIPF의 취지에 적극 호응, 팔각정 등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 또는 상품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소요경비 등은 추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3. 1992.10.27. 주수단대사는 Ali Sahloul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 Ali 외무장관은 한국 측의 VIP 승용차 10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TDX 차관 신청 건, ㈜대우의 섬유공장, 호텔 등 인수 건의 진척에 대해 문의함.
- 주수단대사는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해 수석자문관이 파견되어 내년 초 착공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훈련과정, 훈련기관, 장비명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전화교환시설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7백만 달러 신청 건의 처리절차 및 ㈜대우의 신규 합작투자 사업에 대한 최종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함.

한·슬로베니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9 / 22 / 1-59

1992년 중 한·슬로베니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슬로베니아 외무장관 방한 희망

- 1992.1.23. Rupel 슬로베니아 외무장관은 극동 방문(1992.2.18.~25.) 중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방한 희망 의사를 외무부에 송부
- 1.29. 외무부는 슬로베니아 외무장관의 방한 접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유고대사관에 통보
  - 유고 문제는 당사자 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 슬로베니아 국가 승인 문제는 유엔의 중재 노력 진전사항을 관망하며 결정
  - 독립 승인 및 수교 전 외무장관 방한 접수는 부적절

2. 슬로베니아 과학기술사절단 방한(1992.6.1.~3.)

- 방한 경위
  - 1992.2월 슬로베니아 측은 과학기술사절단의 방한 협조를 요청한바, 한국은 4.15.자로 슬로베니아공화국을 승인하여 동 사절단의 방한 접수
- 사절단(단장)
  - P. Tancig 슬로베니아 과학기술장관
- 방한 목적
  - 과학기술협력, 양국 학계 및 연구소 간 협력 가능성 발굴

3. 주유고대사와 Rupel 슬로베니아 외무장관 간 면담(1992.5.27.)

- Rupel 장관은 한국 정부의 슬로베니아 국가 승인 및 유엔가입 지원에 사의 표명
  - 외무부장관의 슬로베니아 방문 초청 및 가을경 방한 의사 표시
  -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관계 수립 희망

4. 슬로베니아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문제

- 1992.7.14. 슬로베니아 측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슬로베니아의 GATT 가입 관련 협조 요청
- 7.21. 한국 정부의 슬로베니아 GATT 가입 관련 입장 통보
  - 슬로베니아 측은 GATT 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 표명

92-0197

한·스와질랜드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9 / 23 / 1-73

1992년 중 한·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에스와티니 한발 피해 지원

- 1992.4.14. 에스와티니 정부는 최근 동남부 아프리카 일대에 계속된 한발로 주식인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생산에 막대한 차질(옥수수의 경우 연간 172,000톤 소요, 금년 예상 수확량 및 재고 52,500톤 감안할 때 119,500톤 부족 예상)을 야기함에 따라 주에스와티니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원조를 요청해 옴.
- 5.26. 한국 정부는 상기 한발 피해 관련 10,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통보함.

2. Dlamini 에스와티니 외무차관 방한(1992.9.7.~16.)

- 방한 목적
  - 비동맹 정상회의(1992.9.1.~7., 자카르타) 참석 후 주한 에스와티니 공관 시찰
- 주요 협의 내용
  - 한국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위한 에스와티니 측의 지원을 요청한바, Dlamini 차관은 이미 주유엔 에스와티니대표부에 한국 지지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금번 방한 후 동인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한국 지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

한·스위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10 / 1 / 1-72

1991~92년 중 한·스위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12.11. 정부는 주스위스대사관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Felber 신임 스위스 대통령 취임 축전을 송부함.

2. 1992.6.2. 주스위스대사는 Nebiker 스위스 하원의장 및 Meier 상원의장을 예방함.

- Nebiker 하원의장은 한국의 의회 및 선거제도에 대해 질문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희망함.
- Meier 상원의장은 1991년 평양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 경험을 언급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문의함.
  - 주스위스대사는 남북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한 화해와 관계 증진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핵문제 관련 남북 상호사찰 필요성 등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평화애호국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함을 강조함.

3. 1992.12.11. 정부는 주스위스대사관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Ogi 신임 스위스 대통령 취임 축전을 송부함.

92-0199

한·태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0 / 2 / 1-13

1. 1990.2월 주태국대사는 Pracha 태국 외무성 정무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한국 측 체재비 부담
- 외교 일정상 금년 상반기 중에는 1990.3.22.~24. 방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Pracha 정무국장은 한국 측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자신이 3월 중 두 차례 시티 외무장관을 수행하게 되어 3월 방한은 어렵게 되었으며 5~6월 중 방한을 검토해보겠다고 알려옴.

2. 1992.12.14. 주태국대사는 Chuan Leekpai 태국 수상을 면담함.

-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하장을 직접 수교함.
- Leekpai 수상은 한국의 민주발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태국 간 관계가 더욱 발전 및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자신이 10년 전 상무장관으로서 방한했음을 상기하면서 양국 간 무역량의 급증 추세에 비추어 양국 통상장관회담의 조속 개최 필요성을 강조함.

한·튀니지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10 / 3 / 1-167

1991~92년 중 한·튀니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튀니지 경제협의회 개최 제의

- Khelil 주한 튀니지대사는 1992.5.13. 외무부 중동아국장을 방문, 한·튀니지 양국 간 국장급이 참여하는 정기 연례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 개최 목적
  - 양국 간 상호 관심사 및 특히 양국 지역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 정치, 경제 및 문화 분야의 양국 간의 협력 진전사항 검토

2. 민간 경제사절단 방문(1992.5.16.~19.)

- 단장: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튀니지 일간지 LA PRESSE는 1992.5.20. 한국업계 대표들이 Bizerte 자유무역공단의 시설 및 섬유산업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함.

3. 튀니지 상공인 대표단 방한(1992.11.14.~18.)

- 튀니지 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1992.9.15.자 주튀니지대사 앞 공한을 통해 튀니지 상공인 대표단이 아주 5개국 순방 계기 방한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유관업체와의 접촉 주선을 요청
- 외무부는 상공부에 튀니지 상공인들의 종사 업종 및 접촉 희망 분야를 전달하면서 유관업체 면담 주선을 요청

92-0201

한·통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0 / 4 / 1-88



1. 1988.5월 통가 정부는 프랑스 BRS 선박 브로커를 통해 대우조선에게 4만 5천 톤급 화물선 2척 수주를 제의해옴.

- 제의 조건
  - 100% 파이낸싱을 통한 선박 수주
- 대우 측 입장
  - 통상 한국수출입은행 파이낸싱을 통해 선박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으로 선박 수주
  - 수주 계약 시 선박대금의 20% 선지급 필요
- 대우조선 측은 통가의 제의 조건 등을 고려, 현실적 여건상 계약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

2. 김현진 주피지대사의 통가 방문(1988.5.25.~27.)

- Tupouto 외무장관 면담(5.25.)
  - 통가 측은 한국 정부의 의전차량 기증에 감사 표시
  - 한국 측은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입후보 관련 한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 요청
- 국왕 Tupou 4세 면담(5.26.)
  - 한국 측은 88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등 설명
  - 통가 측은 National Shippin Line 설립 및 참치 가공공장 건설 운영계획과 관련 한국 측의 제휴 또는 협력을 희망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10 / 5 / 1-41

1986~92년 중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정무 관계 동향임.

1. 트리니다드토바고 신임차관 면담

-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7.6.11. 5월 중순 취임한 Wilfred Naimooi 신임 차관을 예방하고 취임 축하, 양국 간 현안 및 협력관계 상세 설명, 여러 국제기구 특히 비동맹 및 유엔에서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의 트리니다드토바고 상주공관 설치 기도에 대해 언급함.
  -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북한 상주공관을 허용함은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그들의 국제사회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트리니다드토바고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바, 이에 동 차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대답함.

2.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의 출장(1992.5.8.~10.)

- Lennon Denoon 토바고 의회 의장, Andrew Phillips 상공회의소 의장을 포함한 주요인사를 예방
  - 한·토바고 간의 정치, 경제, 관광 등 제 분야에서의 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92-0203

한·터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10 / 6 / 1-21

1. 주튀르키예대사의 이임 및 부임 관련 주요인사 예방

- 1992.2.20. Hikmet Ietin 튀르키예 외무장관 내외 주최 주튀르키예대사 내외를 위한 오찬 참석
- 2.21. 주튀르키예대사, 이임인사차 Ozal 대통령 예방
- 2.24. 주튀르키예대사, 이임인사차 Sanberk 외무차관 면담
- 4.2. 신임 주튀르키예대사, 튀르키예 외무장관 예방

2. 한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교섭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1992.6월)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1992.8월)

한·우크라이나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10 / 7 / 1-117

1991~92년 중 한·우크라이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민주평통 대표 간 방문 초청

- 1991.10.9. K. Masik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현경대 민주평통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초청
- 11.14.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와 직선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대표단의 방문 추진 입장에 따라 동 대표단 방문을 보류하도록 함.

2. 우크라이나 한국상품전시회(1991.11.18.~19., 키예프 레닌문화센터 전시장)

- 참가자
  - 한국 측: 국내 중소기업 164개사, 참가 기업 사장단 25명
- 전시 물품
  - 직물, 의류, 신발, 가방, 체육용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한국 상품 단독 전시
- 기타 행사(11.18.~21.)
  - 동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물 소개 사진·포스터 등 홍보물 전시 및 영화 상영

3.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설치

- 1992.3.25.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는 주러시아대사관에 서울사무소 설치 희망 서한 전달
- 8.3. 한국 측은 서울사무소 설치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
  - 북방사회주의 국가의 주한상주사무소 개설 신청은 코트라를 경유

4.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국 방문 희망

- 1992.9.7.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Kravchuk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2. 주간 중국 방문 후 한국 방문에 대한 의견 문의
- 9.10. 한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일정 및 기확정 외빈 방한일정상 외국 정상 추가접수 불가능 입장을 우크라이나 외무성에 전달

92-0205

한·우간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0 / 8 / 1-98

1992년 중 한·우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우간다 외무장관 서한 송부

- 1992.1.20. Paul Ssemogerere 우간다 외무장관은 이상옥 외무부장관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송부해 옴.
  - 뒤늦게 이상옥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희망함.
  - 1990.10월 전임 장관과의 회담에 따른 한국 정부 및 일반 기업의 대우간다 지원 및 투자가 현재 결실을 맺고 있음.
  - 현재 우간다는 제반 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의 차량 지원(11대 중 4대 접수)은 큰 도움이 됨.
  -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비생화학무기 정책선언(1991.11.8.)이 담고 있는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 및 노력을 높이 평가함.
  -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상호 이해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북한이 보다 전향적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적이어야 함. 최초의 남북한 유엔 가입은 상호 신뢰 구축에 필요한 분위기를 제공함.

2. 교민 총격 사망

- 1992.7.21. 우간다 거주 교민이 08:05 출근 시 괴한(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함.
- 9.7. 우간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주우간다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간다 경찰당국이 9.4. 교민 살해범 2명을 체포하였다고 알려 옴.
  - 동 비서관은 우선 범인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동 범인들의 인적사항, 범행 동기 및 범인의 배후에 대해서는 사건의 완결 단계에서 추후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함.

3. 교민 살해사건 중간 수사보고서 송부

- 1992.10.30. 우간다 외무부는 주우간다대사관에 우간다 경찰 범죄수사국의 중간 수사보고서를 통보해 옴.

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10 / 9 / 1-179

1991~92년 중 한·영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영국 한국학협회(BAKS) 연차회의가 1991.3.26.~28.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한국학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국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2. 1992.2.28.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허드 영국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해 UNC(주한유엔사)로부터 영국 연락장교단(24명)을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국 측은 북한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허드 장관 명의의 회신은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임.

3. 1992.4.11. 정부는 4.9. 영국 총선 결과 수상으로 재선된 메이저 수상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전을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영국 정부에 전달함.

4. 이홍구 주영국대사는 Peter Brooke 주영국 북아일랜드장관 초청으로 1992.4.8.~11. 북아일랜드를 방문하여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원(IDB) 시찰, 1992년도 영국정치학회 총회 참석 및 대우전자 공장을 시찰함.

5. 외무부 서구 1과장은 1992.7.13. Hugh Davies 영국 외무부 극동과장을 면담, 한·영국 양국 간 정무관계 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의회 개최 합의
     - 영국 측: 7월 말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아세안 확대외상회담 시 EC Troika와 한국 외무장관 간 정무회담을 가능하면 7.25. 개최를 희망
     - 한국 측: 한·EC 정치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 제안에 동의함.
   - 남북한 상호 핵사찰
     - 한국 측: 영국이 국제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특히 뮌헨 G7 정상회담 시 남북한 상호 핵사찰 실시 문제가 의장성명에 포함되도록 협조해 준 데 사의 표명
     - 영국 측: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영국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 한·영국 미래를 위한 포럼 구성문제
     - 영국 측은 한·영국 미래를 위한 포럼이 조속히 구성되어 한·영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92-0207

한·미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10 / 10 / 1-296

1992년 중 한·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국 의회 내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 촉진 Task Force 결성(1992.2.4.)

- 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명의 주도로 미국 거주 한인사회 이산가족 재회 지원 특별반 결성

2.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방한, 미주국장 면담(1992.5.20.)

- 퀘일 미 부통령 일본 방문 결과 설명

3.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 북한 인권 문제 세미나(1992.5.20.)

- '조지 오웰의 악몽: 북한의 인권' 제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세미나 개최

4. 로버트 슈터 미국 CRS(의회조사국) 연구원, 한·미 관계 현황 의회 보고자료 제출(1992.6.9.)

- 북한 핵문제 등 한·미 관계 현황을 조명하고 미국의 대한국 정책 방안 제시

5.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제6공화국 치적 평가(1992.9.15.)

- 제6공화국 정부는 6·29 선언 이후 민주화의 위대한 성공을 이룩함.
- 한국은 한·러시아 수교에 이어 한·중국 수교를 통해 북방정책을 완결함.

6. 미국 하원 의원단 방한(1992.11.24.~30.)

- 방한단: Pat Schroeder 하원 군사위원회 군사시설소위 위원장 등 7명
- 주요 일정: 주한미군 시찰 등 군사·안보관계 시설 방문

7.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및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 간 축전 교환

-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전 송부(1992.12.21.)
-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 축전에 대한 답전 송부(12.23.)

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전2권 (V.1 8-10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10 / 11 / 1-154

1992.8~10월 중 미국 대통령 선거 동향에 따른 한·미 관계 전망 관련 내용임.

1. 미 대통령 선거(1992.11.3. 실시) 전망(1992.10.6., 외무부)

●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부시 대통령에게 10~15% 차이로 우세, 당선 유력

2. 클린턴 후보 당선 시 대(對)한정책 전망 및 대책(1992.10.26., 외무부)

● 대한정책 변화 전망
-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분명한 인지 등 중도·국제주의 표방, 대한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경제 실리 강조, 인권·환경 등 이상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 감안 시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예상
- 통일 문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 유지, 미·북한 대화 노력 강화 가능성 존재
- 안보 문제에 있어 현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 방위 분담의 추가 증액 요구 예상
-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강력한 입장 및 산업정책 도입 주장 등 양국 통상 현안에 있어 기존 입장 강화 가능성

● 국내 대책
- 한·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없음을 강조, 클린턴의 대한국 방위공약 자체는 확고함을 부각
- 다만, 안보·통상면에서 추가 부담 요인이 있다는 분석 내용을 전파, 국민들의 의식 이완 방지
- 미 대선 직후, 클린턴 진영 접촉 적극 추진 등 정부가 책임 있게 미국 내 변화에 대처한다는 인식 제고

● 의사소통 채널 대책
- 정부 차원에서 클린턴 진영과의 직접 의사소통 채널 구축
- 민주당 의원 및 유력인사와의 광범위한 접촉·교류 지원
- 민주당 성향의 언론·학술기관과의 민간교류 촉진

● 정책 분야 대책
- 통일 및 대북한 문제에 있어 일관되고 목표가 분명한 정책 추진 자세 견지

● 경제·통상 문제 대책
- 한·미 간 현안 문제 및 기약속한 사항 조속 해결, 미 조야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에 현실적 대처
- 클린턴 진영의 공공투자 증대계획 및 예상되는 경기 진작을 수출 증대, 대미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

92-0209

미국 대통령 선거 대책 및 한·미국 관계 전망. 전2권 (V.2 1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10 / 12 / 1-167

1992.11.6. 외무부가 작성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및 한·미 관계 전망 보고서 내용임.

1. 선거 결과

- 클린턴 후보, 압도적 다수의 선거인단 확보
- 득표 현황
  - 클린턴 후보: 32개주 370명
  - 부시 후보: 18개주 168명

2. 클린턴 승리 요인

- 냉전 종식으로 일반적 관심이 국내·경제 문제에 집중되고, 변화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 작용

3. 한·미 관계 전망

-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대(對)한정책 기조 유지 전망에 따라 양국 협력관계 기본은 불변 예상
  - 주한미군 계속 주둔 지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지역적 역할 인식
- 북한 핵문제,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 등에 있어 한국 측 지지 입장 견지
- 경제력 회복 우선 목표에 따라 실리 확보에 정책 집중 전망
  -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 예상
  - 경제 분야에서는 통상·투자 문제에 있어 시장 개방, 자유화 등 점진적 협조 요청 가능성
- 경제 실리 우선, 인권·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추진 예상

4. 한국 정부 대책

- 대통령 명의 클린턴 당선자 앞 축하 메시지 발송(1992.11.4.)
- 외무부, 클린턴 당선에 즈음한 공식 논평 발표(11.4.)
- 클린턴 진영 정권 인수반과의 접촉 강화
- 한·미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한·미 관계 발전방안 강구

한·우루과이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10 / 13 / 1-94

1992년 중 한·우루과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전임 한·우루과이 친선협회장 표창

- 1992.1.21. 주우루과이대사관은 Diether Herter 전 한·우루과이 친선협회장에 대한 표창 건의
  - 건의 사유: 1981.5.16.~91.9월 동 협회장 역임, 한국 문화 및 태권도 보급 등에 기여 지대
- 1992.2.14. 외무부는 전 협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재가를 득함.

2. 북한의 대우루과이 관계 개선 추진

- Gros 우루과이 외상은 1992.1.29. 주유엔 북한대사가 주유엔 우루과이대사를 예방하여 우루과이·북한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했다고 1.31. 주우루과이대사에게 언급
- Gros 외상은 북한 측 제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루과이·북한 간의 외교관계 수립 시기가 적절치 못하므로 향후 검토할 문제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임.

3. 컴퓨터 기자재 지원

- 외무부는 우루과이 외상 방한(1992.1.12.~15.) 시 컴퓨터 지원을 합의
- 외무부는 3.4. KOICA에 컴퓨터 2대와 추가 기자재(10만 달러 규모) 지원을 요청
- 우루과이 대통령실 직속기관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11.27. 컴퓨터 기자재 기증식을 거행
  - Gros 외상은 감사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

92-0211

한·베트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0 / 14 / 1-101

1989~92년 중 한·베트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Dang Van Than 베트남 우전총국장 방한(1992.2.25.~3.3.)

- 주요 일정
  - 체신부장관, 한국통신 사장 면담
- 주요 협의 내용
  - 한·베트남 통신협력 증진방안
  - 체신부장관은 한·베트남이 수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통신은 훈련용 TDX 1대(약 80만 달러)를 베트남 측에 무상 공여하기로 함.

2. 한·베트남 수교 추진

- 정부는 베트남이 1986년 Doi Moi(쇄신) 정책 추진을 계기로 경제를 개방하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베트남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91년부터 베트남과 수교를 추진함.
  - 1991.9.23.~27. 외무부 아주국장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관계 정상화 준비를 위한 접촉 시작
  - 12월 제1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파견
  - 1992.1월 제2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파견
    진념 동자부장관 베트남 방문, 자원 및 경제협력 추진 양해각서 서명
  - 1992.3월 제3차 수교교섭 정부대표단 베트남 방문, 양국 간 연락대표부 개설 합의

3. 한·베트남 수교에 대한 미국 반응

- 1992.11.9. 주미국대사는 클라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베트남 수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바, 동 차관보는 미국 내 일부 비판 여론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권유함.

4. 한·베트남 수교 합의문 서명(1992.12.22., 베트남 하노이)

- 이상옥 외무부장관·Cam 베트남 외무부장관, 양국 수교 합의문서에 서명

한·베네수엘라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10 / 15 / 1-121

1992년 중 한·베네수엘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베네수엘라 신임 외무장관 취임

- F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92.2.4. 군사정변 이후 2.25. 4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고 3.3. 제2차 개각에서 야당인사(COPEI당)인 Humberto Calderon Berti 외무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을 신규로 임명
- 외무부는 3.13.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장관 명의로 신임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앞 축전을 송부하도록 지시

2. 한국 전통무용단 공연

- 전통무용단(30명)은 1992.6.24. 카라카스에 도착, 2일간의 공연을 마치고 6.27. 칠레로 향발
  - ITALO 공연(6.25.): 약 1,100명(교민 100명, 주재국 국민 1,000명) 관람
  - TERESA CARRENA 국립극장 공연(6.26.): 대통령실 공보장관, 전 관방장관, 국방부차관, 상하 의원 다수, 외무성 및 문화성 고위인사, 각국 대사 등 약 400명 참석

3. 국제기구 입후보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상호 지지(금년 베네수엘라의 한국 지지, 내년 한국의 베네수엘라 지지) 표명
- 한국 측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입후보,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법률전문가 재입후보 등 관련 베네수엘라의 협조 요청

92-0213

한·유고슬라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10 / 16 / 1-182

1992년 중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고연방 분리 독립공화국 승인 및 수교 전 관계 유지를 위한 방침(1992.3.6., 외무부)

- 유고 사태 진전 상황
  - 1992.2월 말 현재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공화국은 45개국의 독립 승인을 획득
  - 보스니아 독립 결정(3.2.),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간 신유고연방 구성 합의(2.3.)
- 현안사항 처리 대책
  -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방한 희망: 비공식 방한 전제하에 외무차관 면담
  - 슬로베니아 과학기술사절단 방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비정치적 범위 내에서 활동 허용
  - 분리 독립공화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 비정치적 목적으로 단기 방한의 경우 허용

2. 신유고연방의 창설과 주한 유고대사관의 지위 문제(1992.4.29., 외무부)

- 1992.4.27.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양 국회 합동회의에서 신유고연방 창설선언문 채택
  - 6.30. 총선으로 신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신연방 대통령 선출 예정
- 기존 주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대사관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대사관으로 지위 승계, 베오그라드 주재 모든 대사관은 신연방 주재 대사관으로 인정

3. 유고 사태의 지속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992.3월 독립 선언 이래 보스니아 내 3개 민족 간 내전 상태 지속
- EC(구주공동체), 유엔 등의 압력과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단화된 회교도와 세르비아계 간 갈등 지속
- 서방 측의 제재 강화로 경제난 가중
  - 1991.12월부터 EC·미국 등 경제 제재, 1992.5.30. 안보리 제재 결의, 11.17. 해상봉쇄 결의

4. 주유고대사관 운영 대책 검토(1992.11.25., 외무부 구주국)

- 공관 규모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축소(2~3인 공관)
- 1992.12.20. 유고 선거 기점으로 대사 철수 및 대사대리체제 유지
- 사태 극히 악화 시 공관 일시 철수 검토

한·예멘 정무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0 / 17 / 1-75

1992년 중 한·예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예멘대사, Iryani 예멘 외무장관 면담(1992.2.24.)

- 예멘 외무장관 언급 요지
  - 향후 비동맹기구의 역할이 남북관계 대화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바임.
  -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지지한 예멘 정부의 외교정책 연장선에서 그리고 남북예멘 통일을 이룩한 정부로서 만일 한국이 비동맹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할 용의가 있음.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 한국 정부가 캠페인을 하면 비동맹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예멘 외무장관 방한 초청 건

- 1992.5.20. Iryani 외무장관은 의전장을 통해 주재국의 총선을 앞둔 현 정국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국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에 금년 중 응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예멘대사관에 통보함.

3. 비동맹 대책

- 1992.6.18. Dali 예멘 외무담당 국무장관은 주예멘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비동맹 참여 문제와 관련, 비동맹회의의 성격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의 비동맹 가입 의향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국의 비동맹 가입을 적극 지지할 의사를 표명함.
  -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비동맹 운동의 성격이 종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남남·남북 협력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의 참여는 시의적절하다고 봄.
  - 개인적으로 북한이 남한의 비동맹 참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92-0215

한·잠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0 / 18 / 1-89

1992년 중 한·잠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잠비아 대통령 방한 제의

- 1992.8.27. 주잠비아대사관은 Vern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을 면담하였다고 보고함.
  - 동 면담 시 Vernon Mwaanga 외무장관은 잠비아 정부가 한·잠비아 간 우호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Chiluba 잠비아 대통령의 1993년 중 방한 희망 의사를 표명한바, 동 대통령의 방한 제의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대잠비아 공여국회의 참석

- 1992.12.3. 주잠비아대사는 Chiluba 대통령 주재하에 대통령궁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잠비아 공여국회의에 참석한 바, 동 공여국회의는 12월 중순 파리 공여국회의를 앞두고 MMD 정부 출범 후 2회째 개최되는 회의임.
  - 동 회의에서 Chiluba 대통령은 MMD 정부의 경제 개혁 공약사업 이행과 문제점에 대해 연설하면서 공여국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정부 관계장관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함.
  - 공여국 측 대표(주잠비아 영국대사)는 평가를 겸한 답변에서 잠비아 정부의 한발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공여국들의 관심사항으로 정부인력 정비(삭감) 계획, 관료사회의 부패, 사회사업 분야 진척 부진, 사유화 추진 관련 잠비아 측의 효과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지적함.

한·자이르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10 / 19 / 1-95

1992년 중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Nguz 수상 방한 희망

- 1992.1.9.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의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Nguz 수상의 한국 방문 의사를 표명함.
  - 동 대사는 우호 증진을 위해 동 수상의 방한 접수 건의
- 1.22. 외무부는 콩고민주공화국 정국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 동 수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여행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사관의 견해를 문의함.
  - 1.2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주재국 내 국민회의가 중단되고 군인폭동이 재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여행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

2. 콩고민주공화국 농무부차관 방한(1992.3.12.~17.)

- 방한단(6명)
  - Mbomba Nseu Bekeli 농무부차관, 보좌관, 개인비서, 부인 및 자녀 2명
- 방한 목적
  - Nguz 수상의 국무총리 앞 친서 전달
  - 농수산부 관계관 면담(농·축산물 생산 및 농업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 희망)
- 주요 협의 내용
  - 양국 간 농·수산업 협력 증진 방안 협의

3. 콩고민주공화국 수상 앞 국무총리 친서 송부

- Nguz 수상의 친서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 답서(1992.3.20.자) 송부
  -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가일층 증대될 것을 희망함.
  - 수상의 방한 희망 관련, 내년 이후 상호 적절한 시기에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92-0217

한·아프가니스탄 관계개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0 / 20 / 1-62

1992년 중 한·아프가니스탄 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최근의 아프간 사태 진전에 따른 한국의 대책 방향(1992.4.30., 외무부)

- Mojaddedi 무자헤딘 임시정부 수반의 카불정권 인수에 대한 아래 요지의 성명 발표(외무부 대변인)
  - 아프간 무자헤딘 임시정부의 정권 인수를 환영하며, 아프간 사태가 아프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함.
- 아프간 과도정부의 승인은 아프간 국내의 정세가 안정되고, 동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게 될 때 부여함(우방국 태도 참작).
- 아프가니스탄과의 복교는 동 과도정부가 주도하는 총선에 의한 의회 구성 등 아프간인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합법적 정부 수립 시 추진
- 아울러 동 복교 시 유엔 등의 주도로 국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대아프간 경제원조 및 복구 참여 검토

2. 1992.6.16. 아프간 과도정부 외무부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공한을 주파키스탄 대사관을 경유, 송부해 옴.

- 금번 아프간 측의 외교관계 회복 희망 입장은 한국 정부가 5.27,자 공한을 통해 인도적인 고려에 입각, 1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 제공 의사를 아프간 측에 표명한 데 대한 답신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임.
- 아프간 측은 동 공한에서 한국 정부의 상기 구호물품 제공 의사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간 외교관계 회복을 진지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대아프가니스탄 복교 대책(1992.11.6.,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 종족 간·정파 간 갈등으로 아프간 정세는 상당 기간 호전되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세 안정 여하에도 불구, 제3기 과도정부 출범 성공 시(1992년 말 또는 1993년 초 예상), 주파키스탄 양국 대사관 간 복교 교섭 추진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1 1981 I : 경제사절단 방문·방한)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0 / 21 / 1-255

1981년 중 한·앙골라 경제사절단의 방문·방한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Humaraci 국제무역 중개업자 면담(1981.1.9.)

- 방한 목적
  - 한국 상품(군복 및 군화)의 대앙골라 수출 추진
  - 군복 및 군화 제조공장 합작 모색
- 협의 내용
  - 관계 개선 용의를 앙골라 정부요인에게 전달 요망

2. 대앙골라 민간 경제사절단 파견(1981.5.31.~6.4.)

- 사절단
  - 이기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단장), 고일남 코트라 해외조사부장 등 단원 5명
- 주요 활동
  - 앙골라 대외협력총국장·해운항만청장·외무성 비서실장 접촉: 경제 및 기술협력 제의
  - 국영수입공사 사장, 국영해운공사 사장 접촉: 선박류를 포함한 각종 상품 수출 증대 협의, 신발류, 의류, 플랜트 수출 추진

3. 앙골라 국영수입공사 사절단 방한(1981.9.7.~12.)

- 방한단
  - L.M. Neto 국영수입공사 부사장 외 3명
- 방한 목적
  - 한·앙골라 통상 증진 협의 및 한국 업체 상담
- 주요 활동
  -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및 국제경제국장 접촉
  - 상공부 통상진흥관, 코트라 사장, 코엑스 사장 면담
  - 조광피혁, 효성물산, 국제상사, 코오롱 등 업계 상담

92-0219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2 1981 II : 기타 관계개선 추진)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1 / 1-56

1981년 중 한·앙골라 관계 개선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대앙골라 관계 개선 추진계획

- 우방국의 측면 지원 요청
  - 포르투갈, 브라질
- 제3국 소재 앙골라대사관을 통한 수교 교섭
- 코트라를 통한 직접교역 교섭
- Humbaraci를 통한 앙골라 고위층과의 접촉 시도

2.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 활동

- 1981.2.18. 주유엔대표부 직원의 Hassan 고문(파키스탄인) 접촉,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 협의
- 2.19. 주유엔대표부 직원, Almeida 경제회의담당관 오찬 시, 경제협력관계 수립 제의
- 4.14. 주포르투갈대사, Ruipena 국제회의단장과 오찬 시,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 협조 요청

3. 앙골라 보건상 방한 추진

- 제34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1981.5.4.~7., 제네바)에서 한국대표단(단장: 천명기 보사부 장관)은 앙골라 보건상 방한 초청
  - 앙골라 측, 귀국 후 상부에 보고·검토하겠다고 언급
- 7.23. 주포르투갈대사는 앙골라대사를 방문하여 보건상 방한초청장 전달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3 1982-84)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2 / 1-91

1982~84년 중 한·앙골라 국교수립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SONANGOL 사장단 방한(1984.6.6.~8.)

- 방문단
  - Hermimo Escorcio 사장 외 2명
- 주요 활동
  - 외무부 김해선 아프리카국장 면담(6.7.)
    - 정치적·이념적 문제가 한국의 대앙골라 경제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
    - 한국 경제사절단의 조속한 앙골라 방문을 환영하며, 동 사절단에 정부 관리가 포함되어도 무방
- 방한 성과
  - 한·앙골라 간 직접교역 검토

2. 한·앙골라 관계 개선 추진

- 1984.12.5. 외무부, 주제네바대표부에 앙골라 고위층과 친분관계가 있는 Humbaraci 접촉 시 관민경제사절단의 내년 초 앙골라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
- 12.7. 외무부, 주포르투갈대사관에 앙골라대사관과 접촉하여 관민경제사절단의 내년 초 앙골라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

92-0221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4 1985)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3 / 1-187

1985년 중 한·앙골라 국교수립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대앙골라 관계 개선 대책 보고서(1985.4월, 외무부 아프리카국)

- 경제교류 증진, 고위인사 상호방문 촉진, 통상대표부 설치 제의, 앙골라 한발 피해 원조, 우방국의 측면 지원 교섭, 대앙골라 접촉 채널 확보

2. 대앙골라 시멘트 플랜 연불수출 추진

- 대우(주), 시멘트 합작사업 관련 공장 확장공사(1억 3천만 달러 규모) 추진
  - 연산 60만 톤 규모이나 기술, 경영능력 미비로 현재 10만 톤 생산
  - 동 사업의 financing 관련 대우 측은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자금(3,500만 달러), 수출입은행(5,000만 달러), 제3국 자금(4,500만 달러) 조달 추진
- 1985.4.3. 수출입은행, 외무부에 대앙골라 시멘트 플랜 연불수출 거래에 관한 의견 문의
  - 4.29. 외무부, 수출입은행에 긍정적 검토 회신

3. 한국 경제사절단 앙골라 방문 추진

- 1985.5.3.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에 영국 주재 SONANGOL사 지사장과 접촉, 한국 경제사절단의 앙골라 방문 교섭 지시
- 5.16. 권순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은 SONANGOL사 Pegado 지사장을 방문, 한국 경제사절단의 앙골라 방문 주선 요청
- 10.22. 주프랑스대사관 직원이 Salvaterra 주프랑스 앙골라대사관 1등서기관을 접촉·협의한바, 독립 10주년 행사 및 당 전당대회 일정상 한국사절단의 금년 중 접수는 어려우며, 내년 초 회답 예정이라고 답변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5 1986)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4 / 1-208

1986년 중 앙골라 주요인사들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De Matos 앙골라 재무장관 방한(1986.7.2.~8.)

- 방한단: De Matos 재무장관 겸 중앙은행 총재 외 2명
- 주요 일정
  - 부총리 예방, 상공부장관·재무부장관·외무부장관·한국은행총재·수출입은행총재 면담
  - 대우중공업, 옥포조선 등 시찰
- 방한 성과
  - 동 장관은 한국과의 경협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2. Neto 건설부차관 방한(1986.7.25.~8.4.)

- 방한단: Neto 건설부차관 부부 외 건설부 직원 및 민간업체 대표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건설부차관, 서울시장 및 해외건설협회장 면담
  - 외무부차관 면담(7.31.) 요지
    - 외무부차관: 빠른 시기 내 앙골라와의 관계정상화 희망 표명
    - Neto 건설부차관: 앙골라 정부의 개방정책과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 모든 나라와의 관계 개선 희망 피력

3. Fermandes 공업성차관 방한(1986.9.24.~30.)

- 방한단: Fermandes 공업성 차관 외 3명
- 방한 목적
  - 앙골라 정부물품 구매 관련 상담, 산업 시찰
-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9.25.)
  - 박 차관보 언급 요지: 앙골라는 현재 북한과만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은 앙골라와 수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한국은 앙골라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 수준 및 능력을 감안, 앙골라의 경제 재건에도 도움이 될 것임.

92-0223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6 1987-89)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5 / 1-159

1987~89년 중 한·앙골라 국교수립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앙골라 개최 유엔 나미비아위원회 특별총회(1987.5.18.~22.)

- 대표단(수석대표)
  - 최동진 주케냐대사
- 주요 활동
  - Guerra 앙골라 수산장관, Garcia 앙골라 건설주택장관 등과 면담 및 양국관계 개선 협의

2. Pedro de Castro Van-Dunen 앙골라 에너지 석유장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 신청

- 1988.9.29. 주포르투갈대사관은 주포르투갈 앙골라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공한에 의하면, Pedro de Castro Van-Dunen 앙골라 에너지 석유장관이 유조선 구입을 위해 EDCF 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고
- 10.7. 외무부장관 명의 acknowledge 회신 발송

3. 한·포르투갈 외무장관회담(1989.9.29., 뉴욕)

- 면담 요지
  - 최호중 외무부장관: 한·앙골라 관계 개선을 위한 포르투갈의 참여 요청
  - Pinheiro 포르투갈 외무장관: 앙골라 재건계획을 설명하고 앙골라는 한국, 일본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급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7 1990)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6 / 1-154

1990년 중 한·앙골라 국교수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차관, 앙골라 외무장관 면담(1990.4.24.)

- 노재원 외무부차관은 유엔 경제특별총회 참석 계기에 Pedro Van-Dunen 앙골라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한·앙골라 관계정상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의
- 앙골라 외무장관은 이 문제를 귀국 후 각료회의에 제기하여 협의하겠다고 언급하고, 조만간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언급

2. 1990.5.8. 외무부, 주포르투갈대사관에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 Loy 앙골라 외무장관 앞 방한 초청장 전달 지시

- 5.17. 주철기 주포르투갈대사관 참사관이 Fragata 주포르투갈 앙골라대사관 참사관을 방문하여 초청장 전달

3.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 앙골라 출장(1990.11.2.~8.)

- 주요 접촉인사
  - Loy 외무장관, Primo 외무 협력차관, Almeida 외무부 아주국장 등
- 협의 결과
  - 대앙골라 수교: 사소한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수교는 시간 문제임을 확인
  - 앙골라 외무장관 방한: 내년 초경 아시아 순방 시 한국 방문도 확약
  -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제3차연도분 20만 달러 상당 원조물품 지원: 앙골라 측, 가축용 의료기구 및 약품 희망
  - 한국 경제조사단 방문: 언제든 방문 가능함을 확인

92-0225

국교수립 - 앙골라, 1992.1.6. 전8권 (V.8 1991-92)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1 / 7 / 1-236

1991~92년 중 한·앙골라 국교수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 앙골라 출장(1991.1.25.~2.1.)

- Loy 앙골라 외무장관 예방
  - 동 장관은 양국 간 수교가 꼭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

2. 앙골라 외무차관 면담(1991.7.2.)

-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한 Manuel Domingo Zinga 앙골라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수교 희망의사 표명
  - Manuel Domingo Zinga 차관은 수교 문제를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앙골라 정부 대표단의 방한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

3. 한·앙골라 외무장관회담(1991.9.30., 뉴욕)

- 외무부장관은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앙골라 간 외교수립에 장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교할 것을 제의
  - 앙골라 외무장관은 한·앙골라 간 외교수립을 조속히 추진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가능한 한 금년 중 수교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4. 한·앙골라 외교관계 수립

- 1991.12.24. 앙골라 외무장관과 송학원 주나미비아대사는 양국 정부가 1992.1.6.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수교의정서 및 공동성명문에 서명

한·캄보디아 관계개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1 / 8 / 1-219

1992년 중 한·캄보디아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임.

1. 한·캄보디아 관계 개선 의사 표명

● 1991.10.24. 정부는 캄보디아의 파리평화협정 체결(1991.10.21.) 직후 외무부 환영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SNC(최고민족평의회)를 승인하였으며, 한·캄보디아 SNC 간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함.

2. 정세조사단 캄보디아 방문(1992.2.24.~27.)

● 조사단(단장)
- 정주년 주태국대사

● 주요 일정 및 활동
- Hoh Namhong 외무장관 겸 SNC 위원, 외무부부장관 겸 SNC 사무국 대표, 외무차관, 국회의장 겸 인민당 당수, 상무장관, 산업장관 면담
- Hoh Namhong 외무장관 면담 내용
  · 상기 외무장관은 시아누크 SNC 의장의 친북한 성향으로 한국의 대SNC 외교관계 설정에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절실히 원한다고 언급한바, 한국 측은 외교관계 수립 없이는 통상경제협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동인의 노력을 당부함.

3. 캄보디아 정부사무소 설치 문제

● 1992.3.26.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 시 캄보디아 정부사무소 설치는 베트남 연락사무소 설치 교섭 후 시간을 두면서 검토하기로 함.

4. 정부대표단, 캄보디아 재건 국제회의 참가(1992.6.20.~.22., 도쿄)

● 참가 목적
- 한·캄보디아 간 조기 관계정상화 여건 조성

● 주요 협의 내용
- 1992년 중 10만 달러의 기자재 공여 용의 표명

92-0227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5 공동성명)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3 / 3 / 1-142

1992.8.24. 한·중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한 공동성명 및 이에 대한 설명자료 내용임.

1. 공동성명

- 한국과 중국은 1992.8.24.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결정
- 유엔헌장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 공존에 입각한 항구적 선린우호협력 관계 발전 합의
- 한국은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
- 양국 간 수교가 한반도의 정세 완화와 안정,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2. 설명자료

- 한·중 수교에 대한 설명자료(보도 참고자료)(1992.8.24., 외무부)
- 한·중 관계 현황(1992.8월, 외무부)
- 한·중 수교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예상 질문 및 답변 요지)(1992.8.24., 외무부)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7 각국반응 I)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3 / 5 / 1-199

1. 일본

● 미야자와 총리(1992.8.24.)
- 한·중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고 들었는바, 환영하는 바임.
- 금후 한·중 양국 간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함. 또한 이를 계기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일층 확고해지기를 기대함.
- 한·중 양국은 일본에게 모두 중요한 우호국인바, 이를 계기로 양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임.

2. 러시아

● 솔로비요츠 러시아 외무성 아·태 총국장(1992.8.24.)
- 한·중 수교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동 수교를 환영하는 러시아 외무성의 성명 발표를 검토하겠음.

3. 스페인

● El Pais지 보도(1992.8.23.)
- 동 수교로 인해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한·중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관계 수립의 전기가 됨.
-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구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였으나, 한·중 간의 교역 증가(올해 100억 달러 상회 및 한국의 대중국 투자 급격 증가 예상) 및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역할 등을 고려,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됨.
- 대만 정부는 자신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제적 정의를 내팽개쳤다고 비난함.

4. 인도

● Mehrotra 아시아담당 외무차관(1992.8.24.)
- 한·중 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며, 이는 모든 국가 간 관계정상화라는 목표를 추구하여 온 인도의 대외정책 및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임.

92-0229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8 각국반응 II)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3 / 6 / 1-185

1. 뉴질랜드

- Mckinnon 외상(1992.8.25.)
  -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공식 승인은 positive한 조치이며, 양국 수교는 양국 간의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밀접한 관계로 미루어 충분히 예상되어 옴.
  -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협력하리라고 보며,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대중국 투자 및 기술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 Gulf News지 사설(1992.8.24.)
  - 한·중 수교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동아시아의 2강국(중국과 한국)의 정치현실을 인정하는 것임.
  -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에서 벗어나 개방을 더욱 촉진시킬 것임.
  - 대만(구 중화민국)은 본토에 대한 주권 주장을 포기하고 독립공화국을 선포하여야 할 것임.

3. 유고슬라비아

- Politika지 기사(1992.8.24.)
  - 한·중 수교는 동북아지역에서 냉전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세력구도를 바꾸어 놓고 있음.
  - '하나의 중국, 두 개의 한국' 정책의 공식화는 한국과 중국에게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나, 북한과 대만에게는 커다란 마이너스가 됨.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을 지지해 준 우방을 잃었고, 대만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외교적 기반을 잃음.

4. 브라질

- Correio Brazilense지 기사(1992.8.22.)
  - 한·중 관계정상화는 역내 냉전 종식을 꾀하고, 소련 공산주의 몰락 이후 고립되어 있는 평양 당국에 개방 압력을 가함으로써 극동지역 정치구도의 안정적 재균형에 기여할 것임.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19 각국반응 III)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3 / 7 / 1-128

1. 헝가리

- Juhasz 외무부 아주국장(1992.8.27.)
  - 한·중 수교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지역에 현존하던 냉전체제를 종식, 새로운 아시아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한국의 북방외교는 지난 1989.2월 헝가리와의 수교로 첫 성공을 거둔 후, 1990년 소련과의 수교에 이어 중국과의 수교를 실현하였는바, 이는 한국 외교의 승리로 평가됨.

2. 나미비아

- New Era지(1992.8.27.~9.2.)
  - 한·중 수교 관련, 한국은 북한과의 복잡한 통일 포커게임에서 장애를 제거함. 그러나 하나의 한국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마지막 남은 냉전지역의 제거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음.

3. 아일랜드

- Whelan 외교부 경제담당 참사관(1992.9.2.)
  - 한국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인 중국과 수교한 것은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이며, 한·중 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 증대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임.

4. 나이지리아

- Daily Times지(1992.9.8.)
  - 한·중 수교는 동북아지역의 긴장, 불신, 경쟁으로부터 정치이념을 떠난 협조와 평화공존 시대를 개막하는 선린우호의 정신으로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시장 진출과 투자가 예상되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선진기술 이전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92-0231

국교수립 - 중국, 1992.8.24. 전20권 (V.20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3 / 8 / 1-261

1. 홍보 초점 및 방향

- 홍보 초점
  - 한·중 수교는 북방정책의 최종 안성이자 외교정책의 일대 승리
  - 동북아 평화정책 구조의 초석 마련
  -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동북아 경제권, 광대한 상품시장 및 자원조달 시장 확보 등)
  - 중국과의 호혜평등의 새로운 시대 개막
  -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홍보 추진 방향
  - 한·중 수교가 갖는 의미가 수교과정에서 제기된 지엽적인 문제와 근거 없는 보도에 의해 희석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국내 홍보와 병행하여 해외공보관을 활용한 해외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

2.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 간의 상호대표부 설치 협정 및 양해각서 처리 문제

- 코트라와 중국국제상회는 1990.10.20. 상호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 주재 각 기관 대표부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포괄적 기능을 가지고 특권·면제 등을 향유하여 옴.
- 1992.8.24. 한·중 수교 이후 대사관이 설치되어 상기 협정 및 양해각서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 부분 조항이 적절성을 상실하게 됨.
- 이에 11.4. 외무부는 코트라에 상기 협정 및 양해각서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참고자료

- 한·중 수교에 관한 설명자료(1992.8.29.)
- 한·중 수교 관련 대대만 통보(설명자료)(1992.8.31., 외무부)

국교수립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1992.11.18.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13 / 9 / 1-249

1992.11.18.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관련 내용임.

1. 한·크로아티아 수교 경위

- 크로아티아 측은 1991.6월 독립 이래 한국 측에 대통령(1992.4월), 총리(1991.10월), 외무부장관(1991.8월/12월, 1992.6월) 명의의 승인·수교 요청 서한 송부
  - Separovic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은 1992.3월 비공식 방한,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승인·수교 요청
- 1992.4.15. 한국 정부, 크로아티아공화국 승인
- 한·크로아티아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서명(1992.11.18., 부다페스트)
  - 박영우 주헝가리대사와 Aleksandar Sol 주헝가리 크로아티아대사 간에 서명
  - 한·크로아티아 수교 공동성명(첨부)

2. 한·슬로베니아 수교 경위

- 슬로베니아 측은 1991.6월 독립 이래 한국 측에 외무장관 명의 승인·수교 요청 서한을 3회(1991.6월, 12월, 1992.2월) 발송해 온 데 이어 1992.5월 주유고대사의 동국 방문 시 수교협정문안 제시
  - 9.23. 이상옥 외무부장관,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 시 동석한 Rupel 슬로베니아 외무장관의 수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
- 1992.4.15. 한국 정부, 슬로베니아공화국 승인
- 한·슬로베니아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서명(1992.11.18., 류블라냐)
  -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와 Dmitrij Rupel 슬로베니아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
  - 한·슬로베니아 수교 공동성명(첨부)

92-0233

국교수립 -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및 조지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13 / 10 / 1-268

1992년 중 한국과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및 조지아(구 그루지야) 간의 외교관계 수립 관련 문서임.

1. 기본문서

- CIS(독립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의 수교 및 4개 상주공관 설치(안)
  - 수교 대상 국가(10개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 상주공관: 3개 상주대사관(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총영사관(블라디보스톡)
- 외교관계 수립 과정 및 발표문
  - 한·카자흐스탄 등 CIS 회원국과의 수교 과정 및 수교 발표문
  - 조지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과정 및 수교 발표문
- 참고자료: 고치리제 그루지야 부총리 면담자료(1992.12.17., 외무부 구주국)

2. 수교 의정서 및 외교 공한

- 수교 의정서 서명 일자 및 서명자
  - 한·카자흐스탄(1992.1.28.), 공로명 주러시아대사/Saudabaev 주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전권대표
  - 한·우즈베키스탄(1992.1.29.), 공로명 주러시아대사/Saidov 주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 전권대표
  - 한·몰도바(1992.1.31.), 공로명 주러시아대사/Ion Chebuk 주모스크바 몰도바 전권대표
  - 한·키르기스스탄(1992.1.31.), 공로명 주러시아대사/Nanayev 주모스크바 키르기스스탄 전권대표
  - 한·투르크메니스탄(1992.2.7.), 이원영 주러시아대사대리/Nourklytchev 주모스크바 투르크메니스탄 전권대표
  - 한·아르메니아(1992.2.21.), 이원영 주러시아대사대리/Kirakosian 아르메니아 외무부 제1차관
  - 한·타지키스탄(1992.4.27.), 홍순영 주러시아대사/Karimov 타지키스탄 제1부총리 겸 주러시아 상주대표
  - 한·조지아(1992.12.14.), 홍순영 주러시아대사/Chkheidze 주러시아 조지아대표부 대표
- 외교공한 교환 일자
  - 한·벨라루스(1992.2.10.), 한·우크라이나(1992.2.10.), 한·아제르바이잔(1992.3.23.)

한·러시아(구소련) 관계 변화에 대한 일본 반응

생산연도 1990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13 / 11 / 1-101

1990년 중 한·러시아(구소련) 정상회담 및 한·소련 수교에 대한 일본 반응 관련 내용임

1. 한·러시아 정상회담(1990.6.4.)에 대한 일본 반응

● 사카모토 일본 관방장관(6.5. 일 정부 공식 논평)
-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함.
- 동서대립의 기본 도식 변화 의미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 가속 예상(일·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 대응 방침)
- 한반도 긴장 완화는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2. 한·러시아 수교에 대한 일본 반응

● 1990.10.1. 주일본대사의 구리야마 일본 외무차관 방문 시 동 차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1990.9.30.부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한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크게 환영하며 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함.

92-0235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1 1974-81)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3 / 12 / 1-238

1974~81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1974~78년도

- 1974.4월 탄자니아 경제개발계획장관 앞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초청장 발송
  - 공적 사정으로 이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옴.
- 1976.2월 탄자니아, 한국과 무역단절 조치(탄자니아 중앙은행, 한·탄자니아 무역 결재를 중지하는 내용을 홍콩 주재 각 은행에 통보)
- 1976.4월 탄자니아 Dar es Salaam 대학 정치학 교수, 서울 개최 유네스코 지역사회개발연구 전문가회의 참가
- 1977.1.2. 주스웨덴대사, 주스웨덴 탄자니아대사를 오찬에 초청, 상호 의견교환
- 1978.7월 TIRDO(탄자니아 산업연구개발기구), 한국 KIST에 연구원 파견 및 기술협력 제의 (관계 분야 인사가 먼저 한국을 방문하여 필요 분야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망)
- 1978.10월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주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대사 참석

2. 1979~81년도

- 1979.2.5.~16.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UNCTAD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한국대표단 (단장: 고재필 무임소장관) 참석
- 소노다 일본 외상의 탄자니아 방문(1979.7.26.~28.) 기회를 이용, 일본 측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전달한바, 탄자니아 측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분위기가 미성숙이라는 반응을 보임.
- 영국 측의 측면 지원으로 1980.4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식량원조 제공 용의를 전달하고 직접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탄자니아 측의 구체적 반응 없음.
- 스웨덴 국왕의 탄자니아 방문(1981.2.10.~14.) 계기, 스웨덴 측의 중개 역할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별 성과 없음.
- 니에레레 대통령의 일본 방문(1981.3.17.~22) 계기, 주일본대사로 하여금 탄자니아 측과 접촉하게 하였으나 탄자니아 측에서 접촉 회피
- 1981.4.14. 주인도대사는 주인도 탄자니아대사와 면담, 동 탄자니아대사는 동국 대통령 방인 시 동국 외무장관에게 한국과의 국교수립 의사를 전달한바, 동국 외무장관은 한국과의 수교는 분위기 미성숙으로 현재로서는 고려될 수 없으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함.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2 1982-85)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3 / 13 / 1-119

1982~85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주인도 탄자니아대사를 통한 관계 개선 추진

- 1982.11월 주인도 탄자니아대사는 본국 일시귀국 시 외무장관 면담, 탄자니아의 대한국 수교 문제 거론
- 1983.11월 주인도 탄자니아대사는 본국 일시귀국 시 수상에게 탄자니아산 시멘트 수출제품 포장 관련 한국과의 협력 유용성 설명

2. 이상옥 외무부차관, Rutihinda 탄자니아 재무차관 면담(1985.10.10.)

- Rutihinda 차관의 방한 경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 서울총회 참석차 최초 방문
- 이상옥 차관은 Rutihinda 차관에게 귀국 후 한국의 탄자니아와의 외교수립 희망을 탄자니아 요로에 알려주도록 요청함.
- Rutihinda 차관은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과의 수교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무역 교류, 경협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교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한·탄자니아 수교 희망 문제를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함.

92-0237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3 1986-87)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3 / 14 / 1-179

1986~87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박수길 주모로코대사,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참석차 탄자니아 방문(1986.2.3.~10.)

- Rupia 외무차관 면담
  - 동 차관은 대한국 관계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니에레레 전 대통령의 김일성과의 개인 친분관계, 탄자니아·북한 관계로 인해 당장 대한국 외교관계 설정은 어려우나, 무위니 신임 대통령과 상당수 각료들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감안할 때 경제 등 실질관계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2. J. Mungai 탄자니아 스포츠이사회 의장 방한(1986.4.21.~26.)

-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오찬 및 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
- 한·탄자니아 체육 협력에 관한 합의록 서명(4.26.)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4 1988-89)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4 / 1 / 1-290

1988~89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대탄자니아 관계 개선 추진 관련 탄자니아 측 결정사항(주케냐대사 보고)

- 1989.3.11. 대한국 경제개방 원칙 3개항 결의(4.4.)
  - 대한국 경제개방 조치 결정이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나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대한국 여행제한 철폐
-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지침 불원 시달 예정

2. 대탄자니아 경제사절단 파견 추진 경위

- 탄자니아는 동국 주재 일본대사를 통해 1989.6.29.~7.6. 다레스 살렘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관을 위한 경제사절단의 파견을 희망하여 옴.
- 한국 측은 대탄자니아 관계 개선 차원에서 주케냐대사를 단장으로 한 관민 혼성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입국 비자를 받음(1989.6.14.).
  - 동 사절단(주케냐대사 및 나이로비주재 상사 지사장 등 총 8명)은 1989.6.27.~7.1. 탄자니아를 방문, 박람회 참관 및 양국 경제교류 증진 협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입장 전달 예정
- 1989.6.23. 탄자니아 정부, 주케냐대사 및 대사관원에 대한 박람회 참관 비자발급 철회 통보
- 1989.6.26. 다레스 살렘 박람회 참관단 파견 취소 통보

3. 탄자니아 상의사절단 방한 검토

- 1989.8.31. 탄자니아 상의, 1989년 말 또는 1990년 초 경제사절단 파한 제의(체재비 한국 측 부담 조건)
- 1989.9.7. 대한상의 회신, 탄자니아 상의사절단 방한 환영(체재비 한국 측 부담은 곤란)
- 1989.12월 현재 KOTRA, 탄자니아 상의사절단 방한 체재비 부담 문제 검토 중

92-0239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5 1990)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4 / 2 / 1-216

1990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이동익 주케냐대사,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참석차 탄자니아 방문(1990.2.11.~17.)

- 유엔 ECA(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1990.2.12.~16.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경제복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요청해 옴.
- 이동익 주케냐대사 및 외무부 담당 직원이 한국 대표로 참가
  - 미수교국인 탄자니아 외무부 경제국장 등 접촉, 양국 간 수교 관련 의견교환
  - 탄자니아 외무부 경제국장은 1990년도 한국 통상사절단의 탄자니아 방문은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동 사절단 방문 시 탄자니아 외무장관 및 상무장관과의 면담 주선 용의 표명

2. 탄자니아 상의대표단 방한(1990.5.19.~26.)

- 대표단: W.R. Mwakitwange 상의 의장 등 7명
- 대우·대한상의·현대종합상사 방문, 외무부 중동아국장 주최 만찬, 삼성전자 수원공장·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찰, 삼성물산 방문

3. 주케냐대사, 케냐 주재 탄자니아대사 면담(1990.10.15.)

- 주케냐대사는 탄자니아 외무장관 앞 수교 희망 서한 전달
  - 양국 간 수교 필요성 및 시의성에 관한 주케냐대사 명의 탄자니아 외무장관 앞 서한 전달
- 케냐 주재 탄자니아대사는 탄자니아 외무장관 앞 서한은 시의적절하며 내용도 설득력이 있어 곧 본인의 건의와 함께 동국 외무장관에게 송부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각종 경제 관계 자료를 상호 제공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함.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6 1991)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4 / 3 / 1-189

1991년 중 탄자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주케냐대사,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면담(1991.3.28.)

● 동 외무장관은 수교의 전제로 아래 4가지 유의 사항을 요청함.
- 탄자니아 정부는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한국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
- 탄자니아 정부는 지금까지 탄자니아에 호의를 보여 온 국가와의 관계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기 바람.
- 탄자니아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를 중요시하지만 그보다 인근 여타국가와 달리 독특한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람.
- 탄자니아는 현재 어려운 경제난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제조건이 없는 원조 및 경협을 희망하고 있음.

● 또한 동 장관은 1991.7월에 개최되는 Dar es Salaam 박람회에 한국의 참가를 희망함.

2. Kahama 탄자니아 투자청장 방한(1991.7.1.~7.)

● 외무부차관 예방, 한국국제협력단 부총재 면담 및 오찬, 수출입은행 전무·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면담, 대우자동차·대우조선·대우중공업 방문, 제1차관보 주최 만찬 등

3. 유엔총회 계기 한·탄자니아 간의 외무장관회담(1991.9.30., 뉴욕)

● 이상옥 장관의 수교를 통한 관계 개선 발전 희망 표명에 대한 탄자니아 측 반응
- 1991.7월 방한한 Kahama 탄자니아 투자청장이 대통령과 자신에게 방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한국과의 관계 수립 필요성을 깊이 인식함.
- 탄자니아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감안, 우선 수교의 전 단계로 영사기능을 갖는 통상대표부 설치를 제의(이에 한국 측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외교관계 수립 원칙을 설명하고, 금번 회담과 같은 양국 간의 접촉이 중간단계 없는 조속한 수교 실현의 기초가 되기를 희망)

4. 한·탄자니아 외교관계 수립 관련 탄자니아 외무장관 발언

● 1991.12.3. 케냐를 방문한 탄자니아 외무장관은 지난주 각의에서 한국과의 수교방침이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공식발표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한국 측에 알려옴.

5. Rutihinda 중앙은행 총재 방한(1991.12.11.~14.)

92-0241

국교수립 - 탄자니아, 1992.4.30. 전7권 (V.7 1992)

생산연도	1974-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4 / 4 / 1-59

1992년 중 탄자니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1. 탄자니아와 수교 의정서 서명

● 1992.2.21. 라원찬 주케냐대사와 Mbapila 탄자니아 외무부 사무차관은 탄자니아에서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2.4.30.자 발효에 합의하는 수교 의정서에 서명함.

2. 탄자니아와 외교관계 수립

● 1992.4.30. 한·탄자니아 간 수교 의정서 서명 발효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 수교 의의

- 남부아프리카 사회주의 전선국가 내 및 비동맹 제3세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탄자니아와의 수교는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여타 미수교국 전선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탄자니아는 다이아몬드, 금, 주석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킬리만자로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최근 다당제 민주주의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매우 큼.
- 탄자니아는 그동안 니이레레 전 대통령이 4차례나 방북하는 등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번 수교를 계기로 동국은 물론 여타 미수교 전선국가들도 남북한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1 1990)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4 / 5 / 1-207

1. 대베트남 정책 검토

- 외무부는 1990년 중 한·베트남 간 민간교류 확대 추세 및 인도차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대베트남 정책을 검토함.
  - 1990.1월 대베트남 정책 검토(안)
  - 3월 대베트남 현안 문제 대처방안
  - 5월 대베트남 정책 검토
  - 8월 인도차이나 3국 관련 국제법 문제 검토

2. 한·베트남 공식관계 추진

- 1990.3월 태국 주재 한국 및 베트남대사관 간 접촉 창구를 개설함.
-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입장
  - 베트남: 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에 중점
  - 한국: 북방정책 일환으로 추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미국·아세안 입장 지지, 캄보디아 문제 해결 시까지 공식관계 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제

3. 대베트남 정책 방향(1990.10월, 외무부 아주국)

- 문제 제기
  -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 전망, 우방국들의 대베트남 관계 개선 움직임,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경제 진출 욕구 증대
- 기본 입장
  - 공식관계 수립은 당분간 자제하나, 그가 자제시켰던 일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확대
- 추진 방향
  - 코트라 무역관 설치 추진, 민간경협위원회 설치, 기업의 베트남 지사 설치 허용, 해운직항로 항공노선 개설 추진, 사절단 파견 등 추진

4. 베트남의 수교 제의

- 1990.4월 베트남 측은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대규모 건설 및 투자 진출을 포함한 관계 발전 방안을 제의함.
- 10.10. 주태국 베트남대사관, 수교에 대한 아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함.
  -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교를 포함, 공식관계 수립 제의 시 이를 수락할 것임.
  - 양국 간 관계 수립의 시기 및 방법은 한국의 정책 및 형편을 존중함.



● 11.9. 한국 정부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측에 아래 입장을 전달함.
  - 11월 자카르타회의 및 12월 PICC(파리국제회의)에서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을 기대함.
  - 동 파리회의 결과에 맞추어 베트남과의 수교 협의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정함.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2 1991.1-9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4 / 6 / 1-212

1. 한·베트남 수교 문제

- 1990.10.10. 베트남, 양국 간 수교 문제를 포함한 공식관계 수립 제의
- 이상옥 외무부장관·부환 베트남 외무차관 면담(1991.4.4., 서울) 요지
  - 부환 외무차관: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해 비자 발급 기능을 포함한 통상대표부 교환 설치 제의
  - 이상옥 외무부장관: 중간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직접수교가 바람직하고, 과거 양국 소유재산 처리 등 실무사항 협의를 위한 조용한 접촉 희망
- 한·베트남 관계정상화 필요성 및 추진계획
  - 필요성: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아·태지역 간 협력 증대, 한국 업계의 대베트남 진출 욕구 증대, 우방국의 대베트남 관계 개선 움직임 고조
  - 추진 계획: 캄보디아 문제 해결 진전 및 우방국의 동향을 감안,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단계적 추진

2. 정세조사단 베트남 파견(1991.9.23.~27.)

- 조사단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단장) 등 6인
- 파견 목적
  - 한·베트남 관계정상화에 유리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 본격적 수교 교섭에 대비, 베트남 정세 파악 및 한국의 대베트남 관심 전달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관련 경제현황 조사
- 주요 활동
  - 베트남대표단(외무부 차관보)과 협의, 부환 외무차관 등 면담,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 상공회의소 방문 등
  - 베트남 측은 한국 대표단을 환영하고, 양국관계 개선 추진에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정세조사단의 평가 및 건의사항
  - 베트남은 양국 간 조속한 관계정상화 희망, 경제협력 증진 희망 표명
  - 양국 간 수교 교섭을 위해 1991년 내 연락사무소 설치
  - 1992년 상반기 중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
  - 비정치적 분야 협력 강화(경제 협력, 인도주의적 활동)

92-0244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5 1992.10-12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4 / 9 / 1-188

1. 대베트남 수교 추진계획 보고(1992.11.24., 외무부)

● 수교 추진 경위
- 1992.11월 초 한국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수교 제의(양국 경제관계 확대 및 미국·베트남 관계 진전 고려)
- 1992.11.20. 베트남 측은 금년 내에 수교 희망 표명

● 수교 추진 방향
- 수교일자: 1992.12.22.
- 수교합의문 서명: 외무부장관의 베트남 방문, 베트남 외무장관과 수교 합의 공동성명에 서명
- 대외발표: 1992.12.19. 10:00 발표 제의

● 수교 교섭 시 고려사항
- 수교와 경협자금 제공 불연계 입장 견지
- 양국의 재산권(구 대사관 건물 및 부지) 처리는 국제법과 상호주의에 의거 해결 추진

2. 이상옥 외무부장관 베트남 방문(1992.12.21.~23.) 및 한·베트남 수교

● 주요 일정
- 수교합의문 서명 및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 개최
- 레 둑 아인 대통령 및 보 반 키에트 총리 예방
- 주베트남대사관 현판식 참석

● 방문 결과
- 한·베트남 외교관계 수립(12.22.): 양국 간 수교 공동성명 서명과 동시에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12.22.)
  - 1993년 중 키에트 총리 및 캄 외무장관 방한 초청
  - 호치민시에 한국 총영사관 설치 협의
  - 경제기술협력협정 가서명,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문화협정 조기 체결 및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 베트남 측은 경제협력 제공 및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요청, 한국 측은 빅베어 유전 개발사업 참여 희망 표명
  - 기타 과거사 관련 문제, 재산권 문제 등 협의

92-0245

국교수립 - 베트남, 1992.12.22. 전6권 (V.6 이상옥 외무장관 방문자료)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14 / 10 / 1-153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1992.12.21.~23. 베트남 공식방문 관련 자료임.

1. 외무장관 베트남 공식방문계획(기본자료)(1992.12.21.~23., 아주국)
   - 수행원, 일정(안), 세부 행사계획, 외무장관회담 의제, 언론 관련사항, 준비자료 목록, 선물, 기후 및 복장

2.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12.22., 아주국)
   - 인사말씀, 지역정세, 양국관계, 맺는말씀

3.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 양자관계 요약(1992.12.22., 아주국)
   - 정무 분야, 경제·통상 분야, 재산권 문제

4. Vo Van Kiet 수상 예방자료(1992.12.22., 아주국)
   - 수상 인적사항, 말씀요지

5. Le Duc Anh 대통령 예방자료(1992.12.23., 아주국)
   - 인적사항, 말씀요지

6.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만찬답사(1992.12.21.) 및 만찬사(1992.12.22.)

92-0246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내 재외공관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14 / 12 / 1-117

1992년 중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내 정부의 재외공관 설치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1991.12.21. 소련연방의 해체에 따라 12.23.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각국에 대한 국가승인 조치를 취하기로 함.

- 국가승인 후 양국 수교 시까지 주러시아대사관이 여타 11개 국가를 관할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상주대사관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92.2.22. CIS 국가 중 주요국과의 유대 강화, 한국과의 경제·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1992년 상주공관 개설을 추진하기로 함.

- 우선설치 공관
  -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총영사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그

3. 외무부는 1992.4월 최근 수교한 국가 중 외교적 중요도, 경제적 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992년 중 5개 상주공관 개설을 추진하기로 함.

- 주탄자니아대사관, 주남아공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 주베트남 하노이대표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4. 정부는 1992.11.25. 아래와 같이 공관 개설을 추진하기로 함.

- 1992년 4/4분기: 주우크라이나대사관
- 1993년 1/4분기: 주카자흐스탄대사관
- 1993년 2/4분기: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재외공관 폐쇄 - 아이티, 1992.1.3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14 / 13 / 1-77

주아이티대사관의 1992.1.31. 폐쇄 관련 내용임.

1. 주아이티대사관 철수

- 외무부는 유엔가입 이후 외교망 정비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주아이티대사관은 1992.3월 폐쇄 예정이었나 아이티 사태가 1991.9.30. 군부 쿠데타 이후 악화되어 조기에 해결될 전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및 OAS(미주기구)의 금수결의로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동 계획을 앞당겨 시행함.
- 이에 따라 11월 중 주아이티대사대리를 포함한 공관원을 모두 우선 철수시키고, 1992년 초 적당한 시기에 정식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함.

2. 주아이티대사관 폐쇄 통보

- 1992.1.15. 주아이티대사대리는 Denis Regis 아이티 외무차관을 방문, 아이티 정부에 한국의 상주공관 폐쇄를 알리는 Aide-Memoire를 전달함.

3. 주아이티대사관 폐쇄에 따른 겸임국 조정

- 재외공관 재정비계획에 의거, 주아이티대사관이 1992.1.31. 폐쇄됨에 따라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겸임하게 됨.

92-0248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문제. 전3권 (V.1 1-8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4 / 14 / 1-127

1.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 문제

- 주이라크대사관 현황
  - 1991.1.15. 이라크 외무성에 공관 업무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철수
  - 7.30. 주이라크대사관 외신관을 주요르단대사관에 파견
  - 12.30. 최봉름 주이라크대사의 타 보직 전보로 대사관 운영 및 감독 문제 발생
- 주이라크대사관 복귀 문제
  -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조치가 계속되어 당분간 대사관 복귀는 어려운 상황
  - 주요르단대사관에서 관할 또는 겸임 조치 불가
  - 1992.8월 외교직 직원을 주이라크대사대리로 임명하여 주요르단대사관에 파견

2. 이란 공군의 이라크 공습

- 1992.4.5. 이란 공군기가 이라크 공습
- 7.24. 외무부는 미국 등 다국적군의 이라크 공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공관 고용원 및 한국 상사 주재원들이 대비하도록 주요르단대사관에 지시

92-0249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문제. 전3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5 / 1 / 1-168

1. 주이라크대사관 업무 인수인계

- 1992.8.25.~28. 주이라크대사관 업무 인수인계 완료
  - 김동억 주이라크대사관 참사관 부임 및 주요르단대사관에 파견 근무
- 업무 인수인계서 첨부

2. 주이라크대사관 참사관 바그다드 출장(1992.11.24.~12.2.)

- 출장 목적
  - 대사관 청사 임차 재계약
- 주요 일정
  - 이라크 외무성 의전장·정무부국장·영사교민국장·국제기구부국장 등 면담, 정세 파악

92-0250

주이라크대사관 운영 및 복귀문제. 전3권 (V.3 기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5 / 2 / 1-60

1. 주요 국가의 주이라크 공관 현황(1992.1.15.)

- 공관 계속 유지 국가: 15개국(베트남, 쿠바, 러시아 등)
- 걸프전 후 공관 복귀 국가: 15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 대사가 복귀한 국가: 17개국(중국, 소련, 인도, 인도네시아 등)
-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들을 준수하지 않는 한 공관 미복귀 입장
- 한국의 주이라크대사관 현황
  - 1991.7.30.이래 주이라크대사관 외신관 1명을 주요르단대사관에 파견 중이며, 대사 등 여타 직원은 본부 복귀
- 1992.5.20. 이라크 내 총 37개 공관 상주

2. 이라크 국경일 행사 관련 대책

- 1992.7.17. 이라크 국경일 행사에 대한 각국의 예정 조치
  - 이라크 주재 공관 철수 국가 대부분은 대이라크 제재조치가 계속되는 한 축전 발송 생략 및 자국 내 이라크 공관 주최 리셉션에 불참 예정
  - 이라크에 대사관을 유지 중인 37개국은 축전 발송 등 관례대로 조치 예상
- 한국의 관련 조치
  -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생략, 주한 이라크대사관 주최 리셉션 시 국무위원 참석 생략
  - 외무부장관 명의 축하 화환만 송부

주리비아대사관의 몰타 겸임 조정 건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15 / 3 / 1-26

1. 주리비아대사의 몰타 겸임 조정 건의

- 주리비아대사는 1990.4.15. 현재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몰타공화국을 아래 사유로 리비아에서 겸임하도록 외무부에 조정 건의
  - 몰타에서 휴양하는 한국 근로자에 대한 영사업무 수행 필요
  - 대리비아 정보수집 및 주요인사 접촉 강화
  - 주리비아 공관원에 대한 물자공급 창구
  - 몰타에 대한 건설 진출 가능성
- 주리비아대사는 1992.3.23. 리비아 주재 한국 근로자의 대피 등 비상시에 대비 아래 사유로 몰타 겸임 변경 재건의
  - 리비아·몰타 간 경제적 긴밀 관계 및 지리적 접근성
  - 여타 국가의 몰타 관할 현황
  - 주리비아 일부 공관, 철수 시 비상 주재지로 몰타 선정 등

2. 외무부 검토 결과

- 검토 요인
  - 몰타의 친서방 성향, 이탈리아와의 특수 관계 및 1988.1월 이래 주이탈리아대사관의 겸임 공관으로서 활동성과(유엔가입 지지 확보, 북한 상주대사관 철수, 총리 및 외무부장관 방한 각 1회), 각국의 겸임공관 운영 현황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검토
- 검토 결과
  - 몰타 겸임공관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주리비아대사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92-0252

재외공관 폐쇄 - 모리셔스, 1992.1.31.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5 / 4 / 1-141

1992.1.31. 모리셔스 공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재외공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4개 공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 주말라위대사관
  - 1992.1.10. 통보, 3월 말경 폐쇄
- 주시에라리온대사관
  - 1992.1.10. 통보, 3.15. 폐쇄
- 주모리셔스대사관
  - 1991.12월 초 통보, 1992.1월 말 폐쇄
  - 동국은 1992.3월 영국 여왕 대신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공화국으로 재출범할 예정이므로 그 이전 폐쇄가 바람직
- 주아이티대사관
  - 1991.11월 중 공관 직원과 가족을 일단 철수시킨 후 1992년 초 적당한 시기에 폐쇄
  - 쿠데타(9.30.) 이후 국내 정세가 극히 악화되어 장기화될 전망

2. 주모리셔스대사대리는 1991.12.10. Berenger 모리셔스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공관 폐쇄 결정에 관한 Aid-Memoire를 전달함.

3. 1992.1.31.자로 주모리셔스대사관이 폐쇄되었으며, 관할공관으로는 주케냐대사관이 지정됨.

- 각국 실태조사에 의하면 탄자니아에서 겸임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므로 주케냐대사관을 겸임 대사관으로 지정함.
- 주모리셔스대사관 개설(1985.9월) 이전에도 주케냐대사관에서 겸임한 바 있으며 모리셔스·케냐 간 통신 소통도 원활하고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점도 감안함.

재외공관 폐쇄 - 말라위, 1992.3.3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5 / 5 / 1-50

1992.3.31. 말라위 공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재외공관망 재정비 검토

- 재외공관 수
  - 여타 국가들은 실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바, 한국의 재외공관 수는 세계 9위로 높은 편임.
- 인력 비율의 불균형
  - 외교인력 수에 비해 공관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현상 탈피
  - 향후 미수교국 수교 및 소련, 중국 내 영사관 설치까지 고려할 경우 외교인력의 파격적 증원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재외공관 배치의 문제
  - 주로 남북대결차원에서 세계적 대국들조차 공관을 설치하지 않은 일부지역에까지 공관 설치
  - 외교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전 세계 모든 주요지역에 공관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과감히 포기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분야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2. 말라위 공관 폐쇄

- 외교망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1992.1.10. 말라위 정부에 대사관 폐쇄를 통보하는 Aid-Memoire 전달
  - 3.31. 주말라위대사관 폐쇄
- 관할공관으로 주잠비아대사관 지정

92-0254

니카라과 겸임공관 변경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15 / 6 / 1-30

1992년 중 니카라과 겸임공관 변경 관련 내용임.

1. 니카라과 겸임공관 변경 건의(1992.3.17.)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아래 사유로 주멕시코대사관에서 니카라과를 겸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조정할 것을 건의함.
  - 코스타리카 내 외국공관 다수가 니카라과를 겸임 관할
  - 니카라과는 지리적으로 코스타리카와 접경하고 있고 교통상 편리
  -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양국은 역사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로 현재 중미통합을 적극 추진 중
  - 주멕시코대사관이 니카라과를 겸임하게 된 것은 과거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지역에 한국공관이 없었던 사실에서 연유
  - 우방국의 대북한 수교대책을 위해서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의 니카라과 겸임이 효율적

2. 니카라과 겸임공관 변경 결정(1992.3.30.)

- 니카라과 겸임공관을 주멕시코대사관에서 주코스타리카대사관으로 변경하도록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함.
- 상기 겸임공관 변경에 따른 주코스타리카대사의 겸임국 신임장은 주멕시코대사의 1991년도 대니카라과 무상원조품 전달 및 1992년도 원조품 내역 협의를 위한 니카라과 방문 이후 적절한 시기(6월 이후)에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재외공관 설치 - 블라디보스톡(러시아)총영사관, 1992.10.5. 전2권 (V.1 1991-92.7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총무과
MF번호 2022-15 / 7 / 1-146

1991.6~92.7월 정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설치 추진 현황임.

1. 정부는 1991.10.30. 한국의 유엔가입 후 외교조치계획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의 설치 여부 및 시기를 1992년 상반기 중 검토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92.2.22.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주요국과의 유대 강화, 한국과의 경제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1992년 중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설을 추진하기로 함.

3. 1992.3.18. 및 6.29.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시 양측은 블라디보스톡과 부산에 상호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4. 정부는 1992.4.29. 1992년 중 신설 공관으로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5. 정부는 1992.5.8. 러시아 측에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설치 동의를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하였으며, 7.29. 러시아 측은 동의 회신을 송부함.

92-0256

재외공관 설치 - 블라디보스톡(러시아)총영사관, 1992.10.5. 전2권 (V.2 1992.8-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총무과
MF번호	2022-15 / 8 / 1-155

1992.8~12월 중 정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설치 추진 현황임.

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창설 요원 3명이 1992.8.31. 블라디보스톡에 부임함.
   - 9.9.부터 블라디보스톡 호텔 802호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

2. 한·러시아 간 총영사관 설치 의정서가 1992.10.5. 서명·발효됨.

3. 정부는 1992.10.26. 러시아 측으로부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업무 개시에 관한 동의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동일자부터 영사업무를 수행함.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관할지역
     - 하바롭스크, 아무르, 사할린, 연해주, 브리야트, 이르쿠츠크 등 15개 지역

4. 박명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가 1992.12.1. 부임함

재외공관 폐쇄 - 시에라리온, 1992.3.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15 / 9 / 1-95

정부는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을 1992.3.5. 폐쇄함.

1. 경위

- 1990.5월 제2차 외교망 재정비 계획에 따라 폐쇄 결정
- 1992.1.7. 시에라리온 정부에 대사관 폐쇄 통보(Aid-Memoire 전달)
- 1992.3.5. 대사관 폐쇄
  -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을 겸임 공관으로 지정

2. 외교망 정비 일환으로 4개 공관 폐쇄 결정

- 주아이티대사관
  - 1991.11월 중 공관 직원과 가족을 일단 철수시킨 후 1992년 초 적당한 시기에 폐쇄
  - 지난 9.30. 쿠데타 발생 이후 국내 정세가 극히 악화되어 장기화할 전망
- 주모리셔스대사관
  - 1991.12월 초 통보, 1992.1월 말 폐쇄
  - 동국은 1992.3월 영국 여왕 대신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공화국으로 출범할 계획이므로, 그 이전에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
- 주시에라리온대사관
  - 1992.1.7. 통보, 3.5. 폐쇄
- 주말라위대사관
  - 1992.1.10. 통보, 3월 말 폐쇄

92-0258

재외공관 폐쇄 - 소말리아, 1992.3.3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5 / 10 / 1-186

1991~92년 중 소말리아 내전 사태에 따른 주소말리아대사관 폐쇄 관련 내용임.

1. 소말리아 내전 발생

- 1990.12.30. 소말리아 반정부군이 수도 모가디슈로 진격, 대통령궁 근접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역에서 총격전이 전개되어 1991.1.6. 현재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계속함.
- 소말리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외무부는 1991.1.5. 소말리아 주재 한국 공관원 및 교민들(총 7명)에 대해 인접국으로 긴급 철수하도록 지시
  - 공관원 및 교민들의 긴급대피를 위하여 미국 및 이탈리아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

2. 공관원 및 교민, 케냐로 대피(대사관 임시 폐쇄)(1991.1.13.)

- 1991.1.10. 공관원 및 교민 일행, 소말리아 주재 이탈리아대사관으로 대피
- 1991.1.13. 이탈리아 정부 주선 항공기로 케냐의 몸바사로 철수
- 상기 철수 시 북한 공관원 및 가족 등 13명도 동시에 철수
  - 동시 철수 경위: 북한 공관원, 한국대사관저에서 1박 후 강 대사 일행과 함께 이탈리아대사관으로 대피, 한국 정부는 북한 공관원들도 동시에 철수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정부와 교섭
  - 북한 공관원들은 케냐 도착 후 국제적십자사의 보호에 들어갔으며 도착 후 한국의 여타 협조 제의는 사양하였으나 그간 강 대사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

3. 주소말리아대사관 폐쇄(1992.3.31.)

- 소말리아에 대한 겸임공관으로 주케냐대사관 지정

재외공관 설치 - 탄자니아, 1992.10.2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5 / 11 / 1-56

1992년 중 주탄자니아대사관 개설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92.4.30. 한·탄자니아 간 외교관계 수립
- 1992.6월 브라질 리오 환경회의 시 무위니 탄자니아 대통령은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양국 간의 상주공관 설치 희망을 전달함.
- 1992.7.21. 정부는 1992년 4/4분기 중 주탄자니아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함.
- 1992.10.13. 주탄자니아대사관 창설 요원이 파견됨.
- 1992.10.21. 주탄자니아대사관이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에스살렘에 개설됨.

2. 주탄자니아대사관 개설에 대한 정부 훈령

- 1992.10월 중 대사관을 개설함.
- 개설 요원의 임무는 도착 보고, 임시 사무실 확보, 은행 임시계좌 개설, 대사관용 청사 및 관저 물색 등임.
- 탄자니아 외무부에 대사관 개설을 통보하고 대사관 개설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함.

92-0260

재외공관 설치 - 베트남, 1992.12.2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5 / 12 / 1-110

1. 한·베트남 연락대표부 상호 설치 합의(1992.4.6., 외무부)

- 한·베트남 간 연락대표부 설치 추진
  -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지원 및 베트남 방문 기업인 등 한국 국민들에 대한 보호 장치 시급
  - 베트남 측의 조기 대한 수교 희망 고려
  - 한·베트남 수교 문제 관련, 미·베트남 관계 진전과 계속 보조를 맞추어 주기를 희망하는 미국 측 입장 감안
- 정부대표단 파견(1992.3.30.~4.2., 하노이)
  - 단장: 정주년 주태국대사
  - 베트남 측(Cang 외무차관보)과 연락대표부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내용
  - 명칭: 연락대표부(Liaison Office)
  - 설치 장소: 양국의 수도
  - 설치 시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 기능 및 지위: 외교공관과 동일
  - 대표부 인원: 10명 이내
  - 대표부 책임자: 대사급 외교관
- 대외 발표: 1992.4.20. 양국 수도에서 동시 대외 발표하기로 합의

2. 주베트남 연락대표부 정상업무 개시

- 1992.7.11. 대표부 개설을 위한 선발요원을 하노이에 파견
- 8.17.부터 정상적인 업무 개시

3. 한·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1992.12.21.~23. 베트남을 공식 방문, 한·베트남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 12.22. 양국 간 수교 공동성명과 동시에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 주베트남 연락대표부는 주베트남대사관으로 승격

아프리카지역 공관 폐쇄 검토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5 / 13 / 1-76

1990~92년 중 아프리카지역 공관 폐쇄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목적

- 7·7 선언으로 대립외교 지양에 따라 단순히 대결 차원에서 설치된 공관 폐쇄
- 북방외교 성과 및 국제 화해 분위기에 따른 전방위 입체외교를 위해 범세계적 관점에서 재외공관망 재편성
- 인력 및 재원을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에 따른 공관 신설에 효과적으로 활용

2. 폐쇄 검토 대상 공관(시안)

- 1990년 폐쇄 추진 대상(3개 공관)
  - 르완다, 모리셔스, 아이티
- 1990년 이후 폐쇄 검토 대상
  - 카타르, 말라위, 스와질랜드, 볼리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 1992.10.24. 외무부는 외교망 재정비 계획에 따른 1992년도 상주공관 폐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주모리타니대사관
  - 1992년 말 폐쇄, 주재국 정부에 기통보(10.11.)
  - 폐쇄 후 주모로코대사관이 겸임
-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 1992년 말 폐쇄, 주재지 정부에 11월 말 통보 예정
  - 폐쇄 후 주스페인대사관에서 담당

92-0262

자이르 주재 공관원 및 동포 철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5 / 14 / 1-105

1991~92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주재 공관원 및 동포 철수 관련 내용임.

1. 사태 동향

- 1991.9.23. 콩고민주공화국 군대 폭동 사태 발생
  - 급료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방화 및 약탈
  - 무장 폭동으로 30여 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가옥 포함 수도 킨샤사 시가지가 약탈당함.

2. 교민 안전 및 조치사항

- 1991.9.24. 및 9.25. 외무부,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공관원 및 교민에 대한 신변 안전대책 강구와 함께 유사시 비상철수에 대비하도록 지시
- 9.25. 비상철수 시 벨기에와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공관에 교섭 지시
  - 양국 모두 적극 협조 약속
- 9.26.~29. 교민 대부분 철수
- 10.1. 공관원 가족 및 교민 16명 서울 도착
- 10.28.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공관 비상철수는 내부적으로 준비상태인 바 상황 진전을 보고 공관장 판단하에 시행 예정임을 보고
  - 1992.1.1. 공관장 가족(2명) 철수(귀국)
- 2.19.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공관원 가족 및 교민 신변에 이상이 없고, 교민들은 평상시와 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

주한공관 설치 - 알제리, 1992.10.8.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5 / 15 / 1-71

1. 주한 알제리대사관 개설

- 1990.1.15. 외교관계 수립
  - 3.31. 주알제리대사관(상주) 개설
- 1991.6.18. 주일본 알제리대사관, Zerhouni 주일본 알제리대사를 초대 주한 알제리대사로 임명하고자 함을 통보하면서 아그레망 신청을 통보(구상서)
- 1991.6.26. 외무부, 신임 알제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위한 내부재가 건의

2. 주한 겸임대사 아그레망 보류

- 1991.7.8. Bouakaz 알제리 외무성 의전총국장 및 Debagha 아주총국장, 알제리 정부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계획에 따른 주한 겸임대사 아그레망 보류를 요청
- 외무부, 7.12. 주알제리대사에게 Zerhouni 주일본 알제리대사의 주한 알제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재가 상신 보류를 통보

3. 주한 알제리대사관(상주) 개설

- 1992.8.16. All Abdelaziz 알제리 외무성 행사담당 부국장은 Ahmed Boutache 아주총국 동아시아부국장이 주한 상주공관 개설을 위해 대사대리로 임명되었다는 공한을 전달
- 10.8. Ahmed Boutache 주한 알제리대사대리 부임
- 10.19. 외무부장관, Ahmed Boutache 대사대리 면담

92-0264

주한공관 설치 - 중국, 1992.8.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22-15 / 17 / 1-23

1. 주한 중국대사관 개설 예정 통보

- 1992.8.24. 오전 장정연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주중국대사관 참사관에게 외무장관회담(8.23.) 결과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을 8.27.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신임 주한 중국대사대리가 8.26. 전기침 외교부장의 친서를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외무부장관 예방 주선을 요청함.
-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무부에 8.27.자 공한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을 1992.8.27. 설치할 것임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2. 주한 중국대사관 개관 리셉션 개최

- 배가의 주한 중국대사대리는 1992.8.25. 외무부 의전장을 면담, 동 대사관 개관 기념 리셉션 계획을 설명하고 외무부장관의 참석을 요청함.
- 주한 중국대사관 개관 기념식(9.7.)에 진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부대표 자격으로 참가
  - 그간 주한 외국공관들은 자국 리셉션에 외무부장관의 참석을 수차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한 선례가 없음에도 동 리셉션에 외무부차관이 참석함.
  - 주한 외국공관 국경일 리셉션에 정부대표로서 국무위원이 교대로 참석하는 한국의 사례를 준용, 동력자원부장관이 정부대표 자격으로 참석함.

주한공관 설치 - 쿠웨이트, 1992.10.5.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5 / 20 / 1-43

1. 주한 쿠웨이트 상주대사관 개설 추진 경위

- 쿠웨이트 측은 1985.11월 한·쿠웨이트 외무장관회담에서 주한 상주공관 설치 원칙을 결정하였으나, 인력·예산 문제로 미개설
- 쿠웨이트 측은 1988년 중 인도네시아, 한국 및 나이지리아에 상주공관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1988년 말 인도네시아에만 상주공관 설치
- 1991.10월 쿠웨이트 외무부 의전장은 국왕 지시에 따라 주한 상주공관을 곧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
- 1992.8.6. 쿠웨이트 외무부는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을 희망하는 내용의 외교 공한을 주쿠웨이트 대사관에 송부

2. 주한 쿠웨이트 상주대사 부임

- 1992.4.28. 쿠웨이트 외무부 의전장은 1992년 상반기 중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주말레이시아 쿠웨이트대사를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 내정했다고 주쿠웨이트대사에게 통보
- 쿠웨이트 외무부는 7.18.자 외교 공한을 통해 Eissa Abdulrahmana AL-EISSA 주말레이시아 쿠웨이트대사를 초대 주한 쿠웨이트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
- 10.5. Al-Eissa 대사 부임

92-0266

주한공관 설치 - 카타르, 1992.2.20.

생산연도	1977-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15 / 21 / 1-45

1. 주한 카타르 상주대사관 개설 추진 경위

- 강승구 외무부 중동국장대리의 Al-Ansari 주한 카타르대사(도쿄 상주) 면담 시(1985.12.24.) Al-Ansari 대사는 Khakifa 국왕 방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한 상주공관 개설을 호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
- Mohamed 카타르 문교부장관은 이원경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시(1986.2.6.) 주한 카타르 상주공관 개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상주공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오재희 외무부차관과의 면담 시(1987.4.6.) Al-Ansari 주한 카타르대사(도쿄 상주)는 주한 상주공관 개설에 대한 원칙은 이미 결정되었으나, 외무부 내 인력난과 예산 사정으로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
- 카타르 외무부는 1991.11.5.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에 관한 외교 공한을 주카타르대사관에 송부

2. 주한 카타르 상주대사 부임

- 카타르 외무부는 1991.11.4. 외교 공한을 통해 Nasser bin Hamad Al-Khalifa 신임 주한 상주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신청
- 1992.2.20. Al-Khalifa 대사 부임

주한공관 설치 - 베트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5 / 22 / 1-64

1. 설립 경위

- 1992.4.2. 한·베트남 정부는 국교수립의 준비단계로서 우선 서울과 하노이에 상호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

2. 창설요원 도착

- 1992.10.21. 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창설요원 4명이 서울에 도착

3. 주한 베트남연락대표부대표 도착

- 1992.11.10. Nguyen Phu Binh(구엔 푸 빈) 주한 베트남연락대표부대표 서울 도착

4. 주한 베트남대표부 현판식 거행(1992.11.24.)

92-0268

ASEAN 정상회담, 제4차. Singapore, 1992.1.27.-28.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 / 1-240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이 1992.1.27.~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 모색
- 기존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

2. 주요 협의 분야

- 경제 및 무역협력
  - 아세안 경제협력기초협정 채택: 회원국 간 경협 필요성 및 기본방향 규정
  -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 채택: 향후 15년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0~5%로 인하하며 이를 근간으로 자유무역지대 실현
- 정치 및 안보협력
  - ZOPFAN(동남아평화·자유·중립지대) 실현 추진
  -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지역질서의 기초로 상정
  - 이를 위해 동 조약에 역외국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조약으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한국 등 역외국가의 가입 권유 가능성
- 아세안 조직 강화
  - 사무총장의 장관급 격상 및 정상회담의 매 3년 정례 개최방안 등
-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 협력 강화 대상으로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및 한국을 상정
- 아세안 회원국 확대
  - 인지 3국 및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장기 목표로 설정
- 대화상대국 확대
  -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추가 대화상대국으로 거론되었으나 완전 대화상대국으로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아세안 외상회담에 초청하는 방식을 고려
-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 동 구상을 추인하고 동아시아 국가 참여 권유

3. 한국 측 대비

- 아세안 측으로부터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및 EAEC 참여 권유에 대비하여 한국 입장 정립

ASEAN 외무장관회담, 제25차. Manila(필리핀), 1992.7.21.-2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2 / 1-168

제2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이 1992.7.21.~22. 마닐라에서 개최됨.

1. 국제 및 지역 정세 논의

- 냉전체제 소멸에 따른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의 양 측면에 대한 평가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와 남아프리카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

2. 지역정치안보협력 증진

- ZOPFAN(동남아평화·자유·중립지대) 선언과 SEANWFZ(비핵지대구상)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실무그룹 활동 평가

3. 인도차이나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 베트남과 라오스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및 옵서버 자격 인정

4. 역내 주요 안보 위협 요소 해소를 위한 협력

-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 천명
- 캄보디아평화협정의 충실한 이행 촉구

5. 국제 경제

- 동등한 기회와 개방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 촉구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치적인 노력 촉구
- 개도국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권국·채무국·국제금융기구 간 3자 협력 강화

6.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강화

-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 결의사항에 따른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추진

7. 역외국과의 협조 강화

- 역외 대화상대국과의 기존 협조체제 확대 및 강화
- APEC(아태경제협력체)과의 협조
- EAEC(동아시아경제협의체)의 추진방법에 관한 검토 계속

92-0270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1 사전준비 I : 2-6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3 / 1-167

1992.7.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정부대표 임명 건의(1992.6.23.)

- 1992.7.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참가할 정부대표 임명 건의 재가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장관(내외)
  - 대표: 외무부 8명(허승 제2차관보, 김석우 아주국장 등), 관계부처 3명(강희복 경제기획원 제1협력관 등), 현지 공관 3명(노정기 주필리핀대사 등), 인근 공관 1명(최원선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참사관)

2. 제25차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준비현황(1992.6.30., 아주국)

- 회담일시 및 장소: 1992.7.24.~26. 필리핀 국제회의센터
- 참석자: 아세안 6개국 및 대화상대 7개국 외무장관
- 잠정 일정
  - 7.23. 필리핀 외무장관 주최 비공식 만찬
  - 7.24. 필리핀 대통령 예방, 6+7 회의(공개: 각국 수석대표 개회사), 한·말레이시아 외무장관간 오찬, 6+7 회의(비공개)
  - 7.25. 6+7 회의(비공개), 오찬(자유), 한·아세안 6+1 회의
  - 7.26. 수석대표 공동기자회견
- 잠정 의제
  - 6+7 회의: 정치안보 문제 의견교환(지역안보 추세, 지역 문제), 경제 문제 의견교환(우루과이 라운드, G-7 정상회담, 지역경제 동향 및 발전), 기타 문제 의견교환(환경,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
  - 6+1 회의: Badawi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Statement, 이상옥 외무부장관 Statement, 지역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한·아세안 관계, 기타
- 행정사항
- 준비현황 및 예정사항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2 사전준비 II : 7.1.-2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4 / 1-200

1.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잠정 일정(1992.7.16. 현재)

- 7.22. 마닐라 도착, 대표단 대책회의, 주필리핀대사 주최 만찬
- 7.23. 각국 외무장관 비공식 회합
- 7.24. 필리핀 대통령 예방,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6+7) 전체회의(1), 대화조정국(말레이시아) 주최 한·말레이시아 대표단 양자 오찬,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6+7) 전체회의(2),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6+7) 전체회의(3)
- 7.25.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6+7) 전체회의(4), 한·EC(구주공동체) 개별 외무장관회담, 한·아세안(6+1) 회의, 한·캐나다 개별 외무장관회담, 한·호주 개별외무장관회담, 필리핀 외무장관 내외 주최 만찬
- 7.26.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수석대표)과의 회담, 한·미국 개별 외무장관회담(주선 중), 한·뉴질랜드 개별 외무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 장관 주최 만찬
- 7.27. 대사관 방문, 마닐라 출발

2. 회담 의제

-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6+7) 전체회의
  - 정치안보 문제 의견교환: 지역안보 추세, 지역 문제(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난민)
  - 경제 문제 의견교환: 우루과이라운드, G-7 정상회담, 지역경제 동향 및 발전
  - 기타 문제 의견교환: 환경,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
- 한·아세안(6+1) 회의
  - 지역안보 추세 의견교환: 6+7회의에서 충분히 거론치 못한 사항(한반도 정세, 지역안보 문제 등)
  - 한·아세안 대화 관계: 무역 및 관광 협력, 투자 협력, 새로운 협력 분야
  - 기타 문제

92-0272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3 결과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5 / 1-159

1992.7.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활동 개요

-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참가: 전체회의(6+7) 및 한·아세안 회의(6+1)
-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개별 외무장관회담
- 필리핀 대통령 예방 및 외무장관 면담

2. 회의 결과

- 전체회의
  -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역안정에 긴요한 문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북한에 대해 강제 사찰을 포함한 남북한 상호사찰 이행 촉구, 역내 국가 간 신뢰 증진 차원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대화 필요성 인정
- 한·아세안 회의
  - 한·아세안 관계 진전에 만족 표명(한국의 특별협력기금 연간 1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 증액을 협력 의지로 인식), 양측 간 실질 협력관계 심화방안 협의
- 개별 외무장관회담
  - 미국: 금년 9월 유엔총회 참석 중 한·미 정상회담 계획 협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노력 재확인, 한·미 간 통상현안 해결방안 등 협의
  - 일본: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 대북 수교 보류 등 일본의 가능한 노력 경주 재다짐
  - EC,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북한이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협력 다짐
- 필리핀 대통령 예방 및 외무장관 면담
  -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 대북 불수교 입장 재확인, 양국 간 투자증대 등 실질 협력 증대를 위한 공동노력 합의

3. 주요 성과

-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남북한 간 핵 상호사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

4.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후속조치(1992.7.30.)

- 한·아세안(6+1) 회의 시 아세안 측 제기사항 관련 관계부처(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에 검토 요청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4 개별 외무장관회담 I :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6 / 1-140

1992.7.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계기에 개최된 개별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한·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회담(1992.7.25.)

- Hurd 영국 외무장관, 덴마크 외무담당 국무장관, 포르투갈 외무차관 참석
- 이상옥 장관은 남북대화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핵문제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바, Hurd 외무장관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는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겠다는 EC 입장을 언급 등

2.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1992.7.25.)

- 한·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전반적 관계 증진에 만족을 표하고 캐나다·북한 간의 베이징 접촉 등 남북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에서 그간 한·캐나다 양국 간에 긴밀히 유지되어온 협조 관계에도 만족을 표함.

3. 한·호주 외무장관회담(1992.7.25.)

- 이상옥 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사찰과 호주와 같은 우방의 계속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한바, Evans 외무장관은 최대한의 협조를 다짐.

4. 한·미국 외무장관회담(1992.7.26.)

- 이상옥 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 측 협조뿐 아니라 EC와 일본 및 러시아의 협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역할을 평가
  - Baker 미 국무장관은 미국으로서는 영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 재처리시설 문제의 해결을 중대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
- Baker 국무장관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줄 것을 요망함.
  - 9월 한·미 양국 대통령이 만날 때 진전된 통상 관계가 보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92-0274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5 개별 외무장관회담 II :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7 / 1-121

1992.7.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계기 개별 외무장관회담 관련 자료임.

1. 한·캐나다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7.25.)
   - 인적사항, 인사 말씀, 캐나다. 북한 관계, 한·캐나다 양자협력 강화, 한·캐나다 경제통상 관계, 아·태 협력체제 강화

2. 뉴질랜드 외무장관 면담자료(1992.7.26.)
   - 인적사항, 한국 측 언급사항, 뉴질랜드 측 제기 예상사항, 양국 간 주요 현안, 뉴질랜드 개황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6 6+1 회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8 / 1-83

1992.7.25.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6+1)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석자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장관
- 아세안 측: 말레이시아 외무장관(대화조정국), 필리핀 외무장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태국 외무장관, 싱가포르 외무장관, 브루나이 외무장관

2. 한·아세안(6+1) 회의 시 아세안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1992.8.18., 재무부)

-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대아세안 투자 분야 확대 요청
  - 한국의 대아세안 총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가 63.1%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합작투자사업 참여 검토 요청
  - 업계의 관심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할 것임.
- 아세안산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 아세안 관심 분야인 열대산품의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함.
- 한국의 규제적관세제도 완화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된 후 상호 호혜적인 바탕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한·아세안(6+1) 회의 시 아세안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1992.9.16., 농림수산부)

- 아세안산 과일 및 채소의 수입 증대 요청
  - 태국과 필리핀의 관심대상 과실인 파파야, 망고는 1989년에 기 수입자유화, 다만 아세안 과실류 및 과채류의 대부분은 아세안 국가에 분포하고 있는 귤광대파리와 외파리의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한국 검역관의 아세안 파견 문제
  - 아세안 측에서 국가별로 시기, 방법,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오면 검토하여 한국 측 입장을 통보하여 줄 것임.

92-0276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4.-26. 전7권 (V.7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2-16 / 9 / 1-433

1992.7.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관련 자료임.

1.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관련한 관련 실·국에 의제별 자료 요청 및 회신

- 외교정책기획실, 미주국, 국제기구국, 국제경제국, 통상국

2.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관련 관계부처에 의제별 소관사항 자료 요청 및 회신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농림수산부, 과학기술처, 건설부

3.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자료(6+7 전체회의)(1992.7월)

- 정치·안보 문제 의견교환
  - 지역안보 추세
  - 지역 문제: 캄보디아, 인도지나 난민
- 경제 문제 의견교환
  - 우루과이라운드
  - 선진 7개국 정상회담
  - 지역경제 동향 및 발전
- 기타 문제 의견교환
  - 환경
  - 마약남용 및 불법거래

4.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자료(6+1 회의)(1992.7월)

-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기조연설
- 한국 외무장관 기조연설
-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한·아세안 대화 관계: 통상 및 관광 협력, 투자 협력, 새로운 분야 협력
- 기타

SPF(남태평양포럼) 정상회담, 제23차. Honiara(솔로몬제도), 1992.7.8.-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0 / 1-83

제23차 SPF(남태평양포럼) 정상회담이 1992.7.8.~9.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15개 회원국 중 키리바시(부통령)를 제외한 역내 14개국 정상

2. 회의 결과

- 핵보유국의 역내 핵실험 중단, 일본의 플루토늄 운송계획과 관련한 역내 협의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 대만(구 중화민국)의 대화상대국 가입 결정

3. 대만의 SPF 대화상대국 가입(1992.7.29.)

- 가입 경과
  - 제21차 및 제22차 총회 시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SPF 대화상대국인 중국의 반대로 좌절되어 왔음.
  - 제23차 총회 시 공식대화관계(formal consultative arrangement) 수립 결정(SPF 15개 회원국 중 금년 회의 개최국인 솔로몬제도 등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4개국을 통해 대화상대국 가입 노력 강화)
- 가입 의의
  -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대만의 경제적 위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대만과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임.
- 한국의 대화상대국 가입 검토
  - 가입의 실익보다 가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
  - 가입을 시급히 추진할 사안은 아니나 장기적 측면에서 계속 검토 필요

92-0278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32차. Suva(피지), 1992.10.27.-2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1 / 1-66

정부는 1992.10.27.~29.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제32차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에 주피지 대사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5개국과 22개 역내 도서국 등 27개 회원국
- 캐나다, 독일, 일본, 칠레, 한국, 이스라엘, EC(구주공동체)와 UNDP(유엔개발계획),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기타 학계, 사회단체 등 40여 개 옵서버국

2. 정부 훈령

- SPC 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회원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은 SPC 회원가입에 관한 캔버라협정(역외 국가의 회원가입 불허)이 개정된 후에 가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선에서 low-key로 대응하기 바람.
- 한국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에 관해서는 한국이 쌍무 차원에서 무상원조, 기술협력,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 등을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선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바람.

3. 토의 주제

-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전통문화의 가치 보존 및 증진 문제 등

4. 주요 토의사항

- 1993년 사업계획(22백만 달러)과 예산안 통과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관리 철저와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토의
- SPC 신규 회원가입 문제는 캔버라협정 수정 문제와 가입국 기준 설정 문제를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차기 CRGA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제33차 SPC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
- 제33차 총회는 뉴칼레도니아 누메아로 결정
- 금번 총회에서 칠레와 일본은 연설을 통해 SPC 가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옵서버로 참석한 주피지 일본대사는 SPC 사업 지원금의 일환으로 47,450달러를 기증함.

ASEAN 합작사업(AIJV)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2 / 1-87

1991~92년 중 AIJV(아세안 합작사업) 관련 내용임.

1. AIJV 추진 배경

- 아세안은 회원국 간 경쟁구조가 상호 경제협력증진에 장애가 됨에 따라 무역증진보다 공업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의 필요성이 대두
- 따라서 특정 공업을 특화, 회원국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동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등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회원국 간 교역증진 시도
- 1991.7월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의 아세안·한국(6+1) 회의에서 아세안 측은 AIJV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 참여 요청

2. AIJV 협정

- 1983.11월 아세안상공회의소(ASEAN-CCI) 건의로 아세안 내 공업협력전문위원회인 COIME (공업, 관광, 에너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AIJV협정 채택
- 1987.12월 마닐라 개최 제3차 아세안 정상회담 시 역외국가의 참여가 쉽도록 협정 개정

3. AIJV 내용

- AIJV는 아세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회원국 2개국 이상의 참여로 허용
- 합작기업의 특정상품이 AIJV 품목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해서는 4년간 관세면제 또는 제품생산의 독점권 부여

4. 대처 방향

- 상공부 등 관련부서에 AIJV 프로젝트 내용 전달 및 참가 전망 협의
- 아세안 측은 1991.11월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민간경협위원회 창립총회 후 한국기업계 의견 수렴

92-0280

한·ASEAN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JMC), 제3-5차. Jakarta(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3 / 1-195

1. 제3차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1991.4.11.)

2. 제4차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1991.11.20.)

- 정부대표: 최종화 주인도네시아 참사관, 최원선 주말레이시아 참사관

3. 제5차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1992.11.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정부대표: 이경렬 동남아과 사무관
- 회의 목적: 한·아세안 대화체제 수립 이후 시행하고 있는 한·아세안 협력사업 중 양측이 기합의한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력기금 배정, 기시행사업 결산 및 향후 협력사업의 검토
- 회의 의제
  - 제2차 연도(1992년도) 상반기 이전 시행사업 예산 결산
  - 제2차 연도 하반기 이후 협력사업 자금배정
  - 제3차 연도(1993년도) 이후 협력사업 자금배정
- 회의 결과
  - 일반사항
    - 한·아세안 협력사업 관련 모든 사업의 참가자 항공요금은 Economy Class Full Fare로 하고 한국 방문 시 Per Diem은 200달러, 아세안지역 방문 시 Per Diem은 UNDP(유엔개발계획) 기준을 따르기로 함.
    - 구체사업 시행 시기는 대화조정국인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협의해서 결정
  - 사업별 예산배정
    - Language training phase II: 상기 일반 원칙하에 한국 측 원안대로 승인
    - Sellers-Byers exchange programme: 현지 상담회 알선 및 행사 등 경비승인

한·ASEAN 협력사업 : 아세안산업 투자수요조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4 / 1-56

1991~92년 중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산업 투자수요조사 관련 내용임.

1. 경과

- 1992.1.10.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아세안산업 투자수요조사사업 관련, COIME(공업·관광·에너지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세안 측 코멘트를 반영하여 한국 측에서 최종 proposal을 제시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 조치사항

- 산업연구원은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1992.2.19. 아세안산업 투자수요조사사업 관련, 시행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2.20.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최종 시행안(예산사항 포함)을 전달한 후, 이를 아세안 측에 제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아세안 측 반응

- 아세안 측은 1992.7.16.~18. 아세안 COIME 회의를 개최, 아래 요지의 수정안을 제시해 옴.
  - 한국 측 사업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동 사업에 양측 기업인 참여 희망
  - 한국 측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한·아세안 기금공동관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집행

4. 한국 측 검토 결과

- 외무부는 동 사업 관련 아세안 측이 최종 입장으로 통보한 아세안 COIME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아세안 측에 통보하도록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지시함.

92-0282

한·ASEAN 협력사업 : 과학기술 협력사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5 / 1-111

1991~92년 중 한·아세안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학기술 협력사업 관련 내용임.

1. 한·아세안 해양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워크숍(1992.4.21.~27.)

- 장소: 한국해양연구소, 국립부산수산대학교, 국립수산진흥원
- 참가자: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

2. 목적 및 기대효과

- 해양생물공학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 분야의 정보를 상호교환 및 공동협력 방안 강구
- 해양생물공학을 통한 국익의 증대 및 국제협력 증진 도모

3. 회의 결과

- 각국 대표들은 한국 및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과학연구 및 개발전문가 그룹을 결성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각종 학술정보 교환과 준비를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의
- 동 행사를 한·아세안 정례 행사로 지속 추진하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

한·ASEAN 협력사업 : 관광 분야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6 / 16 / 1-170

1991~92년 중 한·아세안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관광 안내요원 아세안 시찰사업 관련 내용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한국관광 안내요원 아세안 시찰사업(Familiarization Programme)
- 기간: 1992.2.16.~26.

2. 참가자 명단

- 박성배 세방여행사 부장, 신영준 드래곤관광 차장, 조학영 계명여행사 이사, 양동양 아주관광 부장, 이광석 럭키항공 상무, 최재홍 서울항공 상무, 최장열 동부고속 과장, 이현수 동서여행사 기획실장

3. 행사 내용

- 아세안 국가 초청으로 한국의 한국관광 안내요원들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국가를 총 11박 일정으로 방문하여, 각국의 관광 관련 공무원 및 관련 업자들과 교류 협력방안 토의, 호텔시설 등 견학 및 점검

4. 관찰 및 건의사항

- 동 행사 참석자들은 방문한 국가들이 성심성의껏 환대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초청 목적은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다고 설명함.
- 브루나이에서는 관광청 직원 및 호텔, 여행업자들과 연속회의를 가졌는데, 이 협의과정에서 한국 택시의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며, 택시의 고급화와 요금체계의 국제수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함.

92-0284

한·ASEAN 협력사업 : 컴퓨터사업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7 / 1 / 1-144

1992년 중 한·아세안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세안 각국 내 국가 사무국과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는 사업 관련 내용임.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아세안 각국의 국가 사무국과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을 컴퓨터망으로 연결
- 사업 관련 기업: 삼성전자

2. 계약 체결방식

- 삼성 측이 아세안사무총장과 1992.6.20. 기본계약서를 체결함.
- 아세안 각국과의 부속계약서는 대화조정국인 말레이시아가 각 회원국의 서명을 받은 후 삼성 측이 본 계약 서명 시 부속계약서에도 서명함.

3. 사업 비용

- 한국과 아세안은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컴퓨터망의 구입, 유지 및 보증비용을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관련 인력의 훈련비용도 상기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
- 아세안 측은 컴퓨터 설치 시 별도로 스캐너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 한국 측도 이에 동의함.

4. 컴퓨터망 설치

- 아세안 측은 아세안 창립 25주년 기념일인 1992.8.8.까지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태국 측 사정으로 컴퓨터망 설치작업이 지연됨.
- 태국에 반입할 컴퓨터 장비의 면세통관을 위한 한·태국 간의 각서가 11.26.자로 서명됨.

한·ASEAN 협력사업 : 보험 및 관세 분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7 / 2 / 1-307

1992년 중 한·아세안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보험 및 관세 분야 협력사업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부가가치세 교육(1992.4.13.~18.)
   - 사업 시행기관: 국세청

2. 한국의 관세평가 훈련사업(1992.4.13.~26.)
   - 사업 시행기관: 재무부

3. 한국의 보세구역 운영 연수사업(1992.5.11.~24.)
   - 사업 시행기관: 관세청

4. 한국의 보험감독 시찰사업(1992.5.18.~29.)
   - 사업 시행기관: 재무부 및 보험감독원

92-0286

한·ASEAN 협력사업 : 귀금속시장 세미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7 / 3 / 1-147

1992년 중 한·아세안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귀금속시장 세미나 개최 관련 내용임.

1. 사업 배경

- 아세안 사무국은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의 보석생산·수출업자를 위하여 한국의 보석류 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상기 요청을 감안하여 전문가 2명을 아세안 5개국에 파견, 한국의 귀금속·보석 관련 제도 및 거래관행을 소개함.

2. 개최 기간

- 한국 측 전문가: 김현중 상공부 사무관, 한종찬 전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장
- 상기 2인이 1992.4.14.~2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을 방문하여 설명

3. 전문가 설명내용

- 보석류 수입제도 및 조세제도
- 한국 내 보석류 시장규모 및 공급 현황
- 소비자기호 및 거래 관행

4. 종합 평가

- 아세안 5개국의 주최 기관들은 금번 설명회가 구체적이고 진지하였으며 참석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는 유익한 행사였다고 평가

한·ASEAN 협력사업 계획 검토.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7 / 4 / 1-137

1992.1~4월 중 한·아세안 협력사업 계획 검토를 추진함.

1. 외무부의 한·아세안 협력사업 개발

- 중·장기적 차원 협력사업 개발 필요성
  - 한·아세안 간의 협력 분야를 기존의 통상, 투자, 관광 분야에서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 개발로 확대 필요
  - 1992년도 이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연간 200만 달러 규모로 확대
- 1992년 이후 협력사업 개발방향
  -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적극 개발 의뢰
  - 청소년 교류, 교육, 훈련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
- 신규개발추진사업: 한·아세안 회의 개최
  - 한·아세안 간 상기 6개 협력대상 분야별 협력 강화방안 토의 및 토의록 발간

2. 한국 각 부처 및 기관들의 협력사업 제안

- 과학기술협력사업(과학기술처)
  - 원격탐사 자료 처리용 영상처리시스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등
- 청소년교류사업계획(체육청소년부)
  - 청소년 협력활동사업 등
- 협력사업 계획(상공부)
  - 유휴설비 및 기술이전사업
  - 아세안 무역연수생 초청사업 등
- 인니 발리섬 지하수 개발사업(농어촌진흥공사)

92-0288

한·ASEAN 협력사업 계획 검토.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17 / 5 / 1-203

1992.5~12월 중 한·아세안 협력사업 계획 검토를 추진함.

1. 1992년도 이후 한·아세안 협력사업안 선정

- 한국 측은 금년 중 한·아세안 공동위원회를 개최, 1992년도 이후 신규협력사업 선정을 희망하였으나, 아세안 측 사정으로 동 공동위원회 개최를 1993.3월로 연기 합의
  - 단, 신규협력사업은 동 공동위원회의 추인을 전제로 양측이 합의, 사전 시행하기로 합의
- 관계부처 회의 결과
  - 사업안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한·아세안 협력 분야, 아세안 측 희망 분야, 한국의 진출기반 확충 등
  - 선정사업명(9개 사업 선정)
    - 한국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
    - 아세안 무역연수생 초청 훈련사업
    - 대아세안 투자환경조사단 파견사업
    - 제2단계 아세안 투자수요조사사업
    -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 관광분야 전문이력 교환연수사업
    - 대아세안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관리체제 지원사업
    - 농업개발 기술이전사업
    - 청소년 교류사업

2. 타부처 및 기관들의 협력사업 제안

- 아세안 국가들과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관리체제 구축지원을 위한 조사사업안(KIST)
- 한국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경제기획원)
- 인적자원개발교육계획 통보(중앙공무원교육원)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FFTC(식량비료기술센터) 회의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17 / 6 / 1-267

1986~92년 중 개최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FFTC(식량비료기술센터)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51차 집행이사회(1986.2.26., 타이페이)
   - 참석자: 허세린 주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 공사
   - 의제: 제50차 집행이사회 회의록 검토, 사업 보고, 1987년 사업계획 검토, 1985년 회계보고, 임원 선거, 기타, 차기 회의 일자

2. 제52차 집행이사회(1986.9.24., 타이페이)
   - 참석자: 허세린 주대만대사관 공사

3. 제11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추진
   - 농촌진흥청은 대만 소재 ASPAC/FFTC와 공동주관으로 제11차 ASPAC/FFTC 기술자문위원회를 1992.5.18.~25. 개최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알려옴.

92-0290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영화제. 제15-20차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2-17 / 7 / 1-117

1. 제15차 ASPAC 영화제 개최 협조(1986.7.28.)

● 외무부는 ASPAC 사회문화센터가 제15차 ASPAC 영화제가 1987.4.1.~19.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영화 출품을 요청해 왔음을 문화공보부에 알리고 출품작을 선정, 통보해 주기를 요청
- 1987.1.27. 문화공보부, '겨울 나그네' 등 3편의 영화 출품 통보

2. 제16차 ASPAC 영화제 개최 협조(1987.8.18.)

● 외무부는 ASPAC 사회문화센터가 제16차 ASPAC 영화제가 1988년 4월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후원과 영화 출품을 요청해 왔음을 문화공보부에 알리고 적의 조치하여 주기를 요청
- 1988.1.29. 문화공보부, '내시' 등 2편의 영화 출품 통보

3. 제17차 ASPAC 영화제 개최 협조(1988.7.21.)

● 외무부는 ASPAC 사회문화센터가 제17차 ASPAC 영화제가 1989.4.6.~23.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영화 출품을 요청해 왔음을 문화공보부에 알리고 출품작을 선정, 통보해 주기를 요청
- 1988.12,28. 문화공보부, '아다다' 영화 출품 통보

4. 제18차 ASPAC 영화제 개최 협조(1989.9.11.)

● 외무부는 ASPAC 사회문화센터가 제18차 ASPAC 영화제가 1990.4.5.~29.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영화 출품을 요청해 왔음을 문화공보부에 알리고 조치 요청

5. 제19차 ASPAC 영화제 개최 협조(1990.9.29.)

● 1990.11.8. 문화부, '우묵배미의 사랑' 영화 출품 통보

6. 제20차 ASPAC 영화제 개최 협조(1991.9.20.)

● 1992.1.31. 문화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영화 출품 통보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임명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2-17 / 8 / 1-31

1.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제9대 사무총장 임명(1992.5.20.)

- ASPAC 사회문화센터의 91/92 회계연도가 1992.6.30.로 끝나고 정순근 현 사무총장의 재임명 기간(1년)도 동시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장래 문제를 검토한 결과, 센터를 1993.6.30.까지 현상유지하고 1993년 상반기에 지역 정세와 한·중국 관계 진전을 고려하여 존속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결정
- 이에 따라 정순근 총장의 후임으로 금년 6월 말 정년퇴직하는 김흥수 전 주파라과이대사를 ASPAC 사회문화센터 제9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만(구 중화민국) 측의 동의를 요청함.

2.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임명 행정절차 보고(1992.6.9.)

- 김흥수 전 주파라과이대사에 대한 대만 측 임명동의 접수(6.1.)
- ASPAC 사회문화센터에 대한 신임 사무총장 임명 통보(6.4.)
- 신임 사무총장 선서식 거행
  - 7월 초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제1차관보 및 주한 대만대사 참석하에 선서 시행
- 동 센터의 91/92년도 사업결산과 92/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위한 집행위원회는 작년 경우에 따라 회의 소집은 생략하고 공한으로 승인을 요청해오면 검토 및 승인 예정

92-0292

리오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17 / 10 / 1-100

1. 리오그룹 회의 연혁

- Grupo De Contadora(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이 근원
- 1985.8월 Grupo De Contadora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8개국이 됨에 따라 El Grupo De Los Ocho라고 불림.
- 1990.10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El Grupo De Los Ocho 정상회담 시 에콰도르와 칠레가 가입함에 따라 명칭을 Grupo De Rio로 변경함.
- 상기 10개국 외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가 조만간 가입할 예정임.

2. 회의 목적

- 1983.1월 파나마에서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4개국 대표가 모여 중미 평화를 위한 21개항을 선언함.
-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개국 대표들이 모여 경제적, 사회적 결속과 남미대륙의 통합추진을 결의함.
- 21개항 주요 내용
  - 군비축소 협약
  - 외국 군사기지 철수 및 시설 반대
  - 파괴 및 테러행위 금지
  - 통합 추진개발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 외국인 투자 장려 등

3. 최근 동향

- 1991.4.26.~27. 룩셈부르크에서 리오그룹 대표와 EC 대표 간 회의 개최 예정
- 주요 의제
  - 중남미대륙의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 보호주의 및 관세장벽 철폐
  - 마약 문제
  - 남미통합연합을 통한 경제 및 통상 통합
  - 생활환경 보호

중미 정상회의. 제12-13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17 / 11 / 1-127

1. 제12차 중미 정상회의(1992.6.4.~5., 니카라과 마나과)

- 참석자: 중미 6개국 정상, 아르헨티나 대통령, 벨리즈 수상, OAS(미주기구) 사무총장 등
- 주요 의제: 경제통합 추진, 빈곤 타파, 민주주의 수호
- 마나과 선언 채택
  - 중미통합 및 통상·경제기술협력 확대
  - 역내 평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
  -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
- 마나과 의제 합의
  - 중미 의회 구성 조약 개정, 안보위원회에 의한 무기 제한, 군대 감축 및 무기거래 방지, 사법권 및 선거기관 강화, 마약 불법거래 금지
  - 중미 경제통합은행과 역외 회원국 간의 관계 강화
  - 교육, 문화, 전문기술 훈련, 주택개발계획 지지
  - 사증 면제, 여권 공통서식 채택과 이주 수속 간소화

2. 제13차 중미 정상회의(1992.12.9.~11., 파나마)

- 참석자: 중미 6개국 정상, 벨리즈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옵서버 파견
- SICA(중미통합추진체) 설립 합의
  - 중미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1993.1.15. 발족 예정
  - 종전 중미통합 문제에 부정적이던 코스타리카, 파나마 양국의 입장이 찬성으로 선회
- 주요지역 현안문제 공동대응 합의
  -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
  - 쿠데타,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92-0294

OAS(미주기구) 총회, 제22차. Nassau(바하마), 1992.5.18.-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17 / 12 / 1-231

정부는 1992.5.18.~23. 바하마 나소에서 개최된 제22차 OAS(미주기구) 총회에 현홍주 주미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미주기구, 중남미 국가의 현안 및 최근 정세 파악
- 미주기구 및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방안 모색
- 각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의 주요 외교활동에 관한 입장 설명 및 지지 기반 확대

2. 주요 의제

- 포클랜드 군도 문제
- 볼리비아의 해양통로권
- 안보협력 및 전쟁무기, 물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 OAS(미주기구) 역할 강화
- 환경보호 및 개발
- 인권, 민주선거 감시 및 민주주의 발전
- 미주지역의 무기 밀매 현황 및 불법 마약조직과의 연계
- 마약 퇴치

3. 주요 결과

- 특별 외무장관회담
  - 아이티 문제 관련 무역제재 강화 및 극빈층에 대한 원조 확대에 관한 결의 채택
  - 페루 문제 관련 조속한 헌정 복귀 촉구 등 6개항의 결의 채택
- Maynard 바하마 부수상 겸 외무장관을 제22차 총회 의장으로 선출
- 나소 선언 채택
  - 민주 수호, 인권신장, 환경보호,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개항 선언 채택

OAS(미주기주)/IICA(미주농업협력기구) 집행위원회, 제12차. San Jose(코스타리카), 1992.6.22.-2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17 / 13 / 1-73

정부는 1992.6.22.~25.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12차 IICA(미주농업협력기구) 집행위원회에 이상무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중남미지역 농업 동향 파악 및 회원국의 공동관심사 논의
- 1991.11월 로마에서 합의한 IICA와 한국 간 공동 연구사업의 1차 연도 연구 수행을 위해 관계국 방문, 관계자 면담 및 자료수집

2. 주요 의제

- 1991.9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IICA 회원국 농업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의 실천방안 논의 및 이를 위한 1992~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
- 이에 따른 IICA 세부사업 프로그램(농업정책 분석과 기획) 및 프로그램 Ⅳ(마케팅과 농업 관련 산업) 실천계획 검토
- IICA의 내부 규제 개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IICA 사무총장, 부총장, 대외협력국장, 개별사업 담당 국장들과 접촉하여 향후 협력방안 논의
- 의장 및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 주요국 대표와 환담을 통해 협력관계 수립
- 피네이로 IICA 사무총장 면담, 공동 연구사업에 관한 협의

4. 특기 사항

- 피네이로 사무총장 면담 시 한국의 집행위원회 참가에 감사하다는 메시지 접수
- 전반적으로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91/92 회계 결산 및 92/93 예산 등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미국대표단의 이의 제기가 있었음.

92-0296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17 / 14 / 1-210

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1992.6.26.~27., 리스본)

- 주요 합의 내용
  - 구주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문제: 구주통합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 조약의 계속적인 비준 추진 선언
  - EC 예산 문제: 역내 빈·부국 간의 이해대립 및 구주동맹조약 비준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고려, 차기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하기로 결정
  - 회원국 확대 문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소속 4개국(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을 우선가입 교섭대상국으로 설정
  - EC의 배타적 관할사항이 아닌 문제에 있어 EC 집행위원회 개입범위를 가능한 축소한다는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및 EC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강조
- 집행위원장 2년 연임(1994년 말까지) 결정
- 리스본 EC 정상회담에 대한 EC 의장국 발표문(첨부)

2. EC 정상회담(1992.12.11.~12., 에든버러)

- 공동성명 요지
  - 덴마크의 EC 통합 참여를 위한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고,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 등 EFTA 3개국의 EC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EC 통합 권역을 계속 확대하며, EC의 공동 경기부양정책을 도입할 것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개혁정책 지지
- 에든버러 EC 정상회담 합의문서(Conclusion of the Presidency, European Council in Edinburgh, 11~12 December, 1992) 첨부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17 / 15 / 1-133

1991~92년 중 개최된 아프리카지역 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동향임.

1. 제4차 불어권 정상회담(1991.11.19.~21., 파리)

- 불어권 정상회담(Sommet de la francophonie) 창설 배경
  - 셍고르 세네갈 대통령이 1975.8월 불어권 국가들의 결속을 위해 정상회담 개최를 주창, 1980년 외무장관회의에서 불어권 정상회담 조직안 작성
  - 1986년 이후 3차례 정상회담 개최: 제1차(프랑스 베르사이유), 제2차(캐나다 퀘벡), 제3차(세네갈 다카르)
- 47개국에서 국가원수(20명), 총리(12명) 및 외무장관, 문화장관 등 참석
- 정상회담 의제
  - 아프리카 민주화, 인권, 환경, 불어 존속 및 확대, 불어권 기구 조직개편 문제 등
- 주요 결과
  - 아이티 민주화 및 Aristide 대통령 복권 요구, TV5-Europe의 Black Africa 확대 추진
  - 불어권 상임집행이사회가 정상회의 준비와 결정사항 후속사업 담당
  - Chaillot 선언 채택: 각국의 국민이 자국의 민주제도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 민주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는 요지의 일반적 선언문

2. CILSS(사헬지역 한발대책 국가 간 정상회의)(1992.4.10.~11.,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 CILSS 개요: 1970년대 극심한 한발 직후인 1973.9.17. 창설
- 참석국: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 차드, 니제르, 감비아, 모리타니
- 주요 의제: 한발 및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재원 조달 문제, 사무국 직원 감축 문제, 분담금 지불 문제, 식량원조 현장 시행 문제 등

3. 제17차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1992.10.5.~7., 가봉 리브르빌)

- 참석국: 프랑스 및 아프리카 35개국
- 합의사항(공동성명, 첨부)
  -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화 추진 노력 환영 및 자유선거를 위한 타협과 대화 필요성 강조
  - 경제발전 문제, 남아공 민주화 개혁 지지 및 소말리아·모잠비크·앙골라 등 지역분쟁 관련 평화협상 추진 환영 등

92-0298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및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17 / 16 / 1-121

1. 제28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1992.6.29.~7.1., 세네갈 다카르)

- 참석 인사: 국가원수급 29명, 총리급 10명 및 Ghali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대표단
  - 신임 의장: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
- 정상회의 결과 요지(상세, 첨부)
  - 결의안 채택: 남아공 사태, 분쟁 방지 및 해결방안 수립,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설립조약 비준 촉구, 역내 협력 증대방안 관련
  -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설치 논의
- 특기사항
  - 남아공 사태 관련 역내 국가의 지속적 압력행사와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Mandela ANC(아프리카민족회의) 의장은 OAU 회원국에 남아공과 공식 유대를 갖지 말 것을 촉구

2. 아프리카 아동 지원 국제회의(1992.11.25.~27., 세네갈 다카르)

- OAU 사무총장은 1992.8.18. 접수한 주에티오피아대사 앞 서한을 통해 1992.11.25.~27.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아동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한국의 참석 요청
- 외무부는 8.18. 동 회의가 기여금 서약회의는 아니라고 하나 OAU 측이 참가국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동 회의 참가에 따른 실익도 없을 것임을 감안,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임을 OAU 측에 통보하도록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지시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독립승인, 1992.4.1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18 / 1 / 1-335

1.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공화국 독립 선포

- 1991.6.25. 유고연방 내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공화국은 유고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공식 선포
  - 연방 의회는 양 공화국의 독립 선포를 무효 선언
  - 연방 정부는 연방군에 전투 경계 태세 지시

2. 크로아티아공화국 외무장관의 조기 독립승인 요청 서한 접수

- 1991.12.23.자 크로아티아공화국 외무장관의 독립승인 요청 서한을 1992.1.11.자로 접수함.
  - 1992.1.15.자 EC(구주공동체) 승인을 받기 위해 투즈만 크로아티아공화국 대통령은 브랙 EC 각료회의 의장에게 1991.12.23.자로 독립승인 요청
  - 한국 정부에 1992.1.15. 이전 크로아티아공화국 독립승인 희망

3. EC,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슬로베니아공화국 독립승인

- 1992.1.15. EC는 1991.12.23.자로 독립을 신청한 유고연방 내 4개 공화국 중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공화국 독립을 공식 승인함.

4. 한국의 유고연방 분리독립공화국 승인

- 승인 대상 국가: 크로아티아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
- 승인 시기: 1992.4.15.
- 승인 사유: 독립승인의 국제적 확산, 유고연방 해체의 기정사실화,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개시, 통상 등 실질 협력관계 지속 필요
- 외교관계 수립: 유고 정세 안정과 한국과의 관계 발전 정도, 우방국의 정책 등 감안, 추후 외교관계 수립

92-0300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전3권 (V.1 한국의 승인조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2-18 / 2 / 1-287

1. 소련 각 공화국의 한국에 대한 국가승인 요청 또는 공식관계 수립 요청

-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의장, 1991.8.30.자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송부
- 오스모체스쿠 몰도바 외무차관, 8.30.자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 송부
-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9.7.자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송부

2. 1991.10.4. 소련 각 공화국 독립선언 관련 대응방안 보고

- 신연방조약 체결 등 연방·공화국 간 관계 정립 추이와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 예의 주시

3. 1991.12.23. 구소련연방공화국에 대한 국가승인 대통령 재가

- 승인 이유: 11개 공화국 지도자 간의 합의에 따라 소련연방이 소멸되고 이를 구성한 공화국은 각각 독립 국가가 됨.

4. 1991.12.27. 구소련연방을 계승한 러시아연방(The Federation of Russia)의 독립 승인

- 외무부, 러시아연방 승인에 관한 내부재가
- 러시아연방 독립 승인에 관한 외무부 대변인 발표
-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코리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 앞 독립 국가 승인 전문 송부

5. 1991.12.30. 독립국가연합 10개국 승인(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을 각각 독립 국가로 승인)

- 대상 국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 외무부, 구소련연방 10개 공화국 승인에 관한 내부재가
  -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국가승인 전문 송부
  - 외무부 대변인 국가승인 발표

6. 1992.4.6. 그루지야공화국 승인

- 외무부, 그루지야공화국 승인에 관한 내부재가
-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그루지야공화국 승인 전문 송부
- 외무부 대변인 그루지야공화국 승인 발표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전3권 (V.2 우크라이나 독립 움직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2-18 / 3 / 1-171

1. 우크라이나 독립 움직임 및 관련 조치

- 1991.9.8. 유엔총회 기간 중 이상옥 외무부장관, Zlenko 우크라이나 외상과 회담
  - 우크라이나 측 수교 제안: 한·우크라이나 수교 공동성명(안) 및 수교 의정서(안) 수교
- 1991.9.9. 주소련대사관, 우크라이나공화국 외무성이 송부한 크라브츄크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의장의 대통령 앞 서한 및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결의안 보고
- 1991.11.30. 외무부, 우크라이나 독립 추진 대응방안 보고
  - 우크라이나 독립 전망(국민투표를 통한 독립선포 전망 및 독립 추진 관련 조치), 소련연방 정부 및 여타 공화국 입장, 우크라이나 독립 실현 시 문제점, 수교 국가의 입장 및 한국의 대책
- 1991.12.1. 우크라이나 국민투표, 85% 독립 지지
- 1991.12.5. 외무부는 대통령에 당선된 크라브츄크 의장 앞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전 건의, 크라브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2. 우크라이나 독립 관련 각국 반응

- 미국
  - 백악관 대변인, 베이커 장관의 방문 계기로 승인을 구상할 방침이라고 언급
- 영국
  - 우크라이나와 2~3주 내 영사 관계 수립 예정
  - 군축 등 소련연방이 체결한 국제의무 준수, 우크라이나 내 소수민족 보호, 여타 공화국의 평화적 분쟁 해결 준수 등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승인 방침
- 독일
  - 공보처장, EC(구주공동체) 내 테두리 안에서 우크라이나 승인 방침을 밝힘.

92-0302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승인. 전3권 (V.3 각국의 승인 현황)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2-18 / 4 / 1-270

1. EC(구주공동체) 동향

- 1991.12.16. EC 외무장관회의
  - 소련 내 신생독립국에 대한 승인원칙 채택(5개 조건): 유엔헌장 존중, 소수민족 보호, 국경 불가침 존중, 군축, 핵 비확산 등 관련 의무 준수, 국가 승계 및 지역분쟁 등 합의에 의한 해결
- 1991.12.23. EC 외무장관회의
  - 러시아공화국이 소련연방을 승계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
- 1992.1.9. Andriessen EC 집행위원회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기자회견
  - EC 및 회원국은 현재까지 러시아 등 9개 국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언급

2. 미국 동향

- 1991.12월 부시 미국 대통령, 각 공화국 승인 조건 제시
  - 민주주의 원칙 존중, 기존 국경선 존중, 소수민족 권리 등 인권 존중, 군축 협약 등 국제조약 존중
- 1991.12.25. 러시아, 우크라이나 승인

3. 독일 동향

- 1991.12.25. 켄셔 독일 외상 성명 발표
  -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유엔과 안보리에서 구소련의 지위를 모든 권리, 의무와 함께 승계하고자 하는 데 대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지지
  - 독일 정부는 EC 회원국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임 이후 지금까지의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조속히 러시아와의 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 등

4. NATO 동향

- 1991.12월 NATO 외상회의 시 4개 원칙을 수용할 경우 '독립국가연합' 각 가맹국의 독립을 승인하기로 합의
  - 인권 존중, 핵 및 재래식무기감축협정 준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존의 국경선 인정, 시장경제 정책 추진
- 가맹국의 NACC(NATO와 구소련·동구 간 정례협의체) 가입 허용
  - 1992.1.7. NATO 주재 상주대사 회의에서 허용하기로 원칙적 합의

체코 및 슬로바키아 승인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18 / 5 / 1-100

1992년 중 체코 및 슬로바키아 승인에 관한 내용임.

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분리

- 1992.8.26. 체코 및 슬로바키아 양 공화국 정부간 1993.1.1. 연방 해체에 합의
  - 분리 이후 양 공화국 간 협력에 관한 25개 협정 체결
- 10.20. 연방 외무부는 주재 각국 대사들을 초치, 연방 해체 및 양 공화국 분리절차 설명
- 11.25. 연방 의회에서 연방해체법안 통과
- 연방 해체 기본 방향
  - 2개 분리 공화국 모두 현 연방의 공동승계국가로 독립
  - 연방자산, 연방군 병력 및 장비는 인구비에 따라 2:1(체코:슬로바키아)로 분배
  - 분리 후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관세동맹 및 공동시장 유지)
  - 1993.1.1.자로 양 공화국 유엔 가입 신청

2. 체코 및 슬로바키아 국가 승인 및 수교

- 1992.12.18. 체코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로부터 국가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요청 공한 접수
- 12.23. 주체코대사관 공한으로 한국의 국가 승인 및 수교 동의 통보
  -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을 현 체코연방의 공동계승국으로 국가 승인하고 외교관계 수립
  - 현 체코연방 주재 대사관은 주체코공화국대사관 및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으로 인정하고, 현 서울 주재 체코연방대사관은 체코공화국대사관 및 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으로 인정
-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주체코대사관이 겸임 관할
  - 주한 체코연방대사관은 각각 양 공화국 대사관으로 인원 및 청사 분리 독립
- 기존 협정은 양 공화국에 대해 계속 유효
- 체코공화국이 NNSC(중립국감시위원회) 지위 승계

92-0304

일본 및 각국 정부의 전쟁피해 보상 사례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18 / 6 / 1-253

1. 캐나다 및 미국 정부의 일본계 자국민 보상

- 캐나다 정부의 일본계 자국민 보상
  - 1988.9.22. 멀루니 수상, 제2차 세계대전 중 및 직후 일본계 캐나다인에 취한 조치에 공식 사과
  - 피해 일본계 캐나다인에 대해 상징적 보상금 1인당 21,000캐나다달러 지급
- 미국 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보상
  -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 1988.8.10. 시민적 자유에 관한 법 채택, 강제수용자에게 사과하고 2만 달러씩 지급 규정
  - 동법 제정 당시 약 65,000명 생존, 총 12억 5천만 달러 배정

2.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피해국에 대한 독일의 전후 보상

- 국내법적인 보상
  - 연방보충법(1953), 연방보상법(1956), 연방반제법(1957), 연방보상종결법(1965)으로 보상
- 포괄보상협정에 의한 보상
  - 1960.7.15. '독·불 간 나치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 체결
  - 프랑스에 4억 마르크 지불, 청구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완결 규정을 둠.
- 추가 보상
  - 위 조약 발효 후 15년 후 프랑스가 독일에 강제징집자 등에 대해 추가보상 요구
  - 1981.3.13. 독일은 '독·불 이해증진재단에 대한 출연조약'을 체결하고 2억 5천 마르크 출연
- 기타 민간기업 보상
  - 1966~88년 민간기업에서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강제노역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3. 기타 보상사례

- 대만(구 중화민국) 출신 군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1987.9월 보상법안 제정, 1988.5월 조위금 지불실시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향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18 / 8 / 1-27

1. 1990년 참배 현황 및 조치

● 1990.8.15. 일본 종전기념일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 각료 21명 중 18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 수상, 외상, 관방장관은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국민감정을 배려하여 참배하지 않음.

2. 1992년 참배 동향 및 조치

● 미야자와 수상은 종전기념일(1992.8.15.)을 맞이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개인 자격으로 참배 의사를 밝힘.
- 1992.10월로 계획된 일왕의 방중에 대한 일본 내 우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참배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 주일본대사는 8.14.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는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7.30.)이 피고인 국가와 원고인 유족 측 모두 상고기한(8.13.)까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게 되었다고 보고함.
- 1985.8월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관련, 동 신사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전몰자 유족들이 나카소네 수상을 상대로 수상의 공식참배가 헌법의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92-0306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18 / 9 / 1-203

1. 1991년도

- 재한 원폭피해자 구원사업 수행 일본인 표창 수여
  - 1991.3.1. 보건사회부는 외무부에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료장비 및 약품 등을 지원을 해 온 일본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계획을 알려온바, 외무부는 동 표창 수여에 동의함.
- 1990.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 시 일본 정부가 재한 원폭피해자의 치료·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40억 엔 중 17억 엔 수령
  - 1991.7.1. 하토리 주한 일본대사관 2등서기관은 외무부 담당 사무관을 면담,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문제 협의를 위해 외무성 관계관이 외무부와 협의를 희망한다고 알려옴.
  - 7.6. 반쇼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과 가와카미 경제협력국 정책과장 보좌관은 외무부 및 보사부를 방문, 금년 일본 예산에 계상된 재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17억 엔을 가급적 조속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표명함.
  - 7.18. 외무부는 보사부에 동 협의 결과를 전달하고, 8.8. 이를 주일본대사에게도 통보하면서 내년도 일본 정부 예산에 잔여분 23억 엔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하도록 지시함.
  - 11.1. 일본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에 17억 엔을 송금함.

2. 1992년도

- 원폭피해자복지증진대책위원회 활동
  - 대한적십자사, 1992.4.16. 제1차 회의에 이어 9.17. 제2차 원폭피해자복지증진대책위원회 개최
- 모토시마 나가사키 시장 방한(1992.10.19.~23.)
  - 방한 목적: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 파악,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사의,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 회의 참가 요청
- 일본 측 지원 약속 잔여분 전달 관련 협의
  - 12.22.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일본 측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 중 잔여분 23억 엔의 전달과 관련한 협의 제의

주한 미국문화원(서울) 방화사건 및 피해 보상문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2-20 / 4 / 1-136

1. 사건 개요

- 1990.5.9. 민자당 창당대회를 반대하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대, 주한 미국문화원에 화염병 투척
  - 미 문화원 1층 미국 농산물 교역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이 1시간 후 진화

2. 조치 사항

- 1992.5.9. 외무부장관, Gregg 주한 미대사와 통화하고 정부의 유감의 뜻 표명
- 5.9. 주미국대사관에 사건 개요 통보 및 미 국무부에 유감의 뜻 전달 지시
- 5.10. 외무부 대변인 대언론 설명
  - 사건 발생에 유감 표명 및 미 정부에 유감 전달
  - 무분별한 행동으로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고 외교공관의 방화는 대외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임.
  -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어서는 안됨.

3. 1992.5.9. 국무부 정례브리핑 시 바우처 국무부 부대변인 언급 내용

- 학생들은 반정부 구호를 외쳤으며, 미 문화원이 공격대상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미국인 부상자는 없었으며, 건물은 상당히 손상되었음.
- 사건 조사는 한·미 간 공동으로 실시될 것임.

92-030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총리회담.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0 / 5 / 1-5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총리회담이 1992.6.12.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6.5. 멀로니 캐나다 총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UNCED 기간 중 한·캐나다 총리 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송부

2. 주요 논의 사항

-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규제수역 내 한국 어선 조업 문제
- 토론토의 1998 엑스포 유치 관련 한국 지지 요청
- 캐나다의 대전엑스포 참가 문제

한·EC(구주공동체) Troika 외무장관회담. Manila(필리핀), 1992.7.2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20 / 6 / 1-154

1. 한·EC(구주공동체) Troika 외무장관회담(1992.2.17., 리스본) 연기

- 1992년 상반기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제의로 추진되어 왔던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이 네덜란드 외무장관의 남아공 출장 일정 등 EC 측 사정으로 연기됨.

2.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1992.7.25., 마닐라)

- 참석자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장관, 허승 제2차관보, 김석우 아주국장, 오행겸 통상국 심의관
  - EC 측: Hurd 영국 외무장관, Barroso 포르투갈 외무차관, Woehlk 덴마크 외무담당 국무장관, Matutes EC 집행위원
- 회담 내용(요지)
  - Hurd 외무장관은 1992.11월 한·EC 고위협의회 개최 예정으로 동 회담에서는 정치문제 대화를 하고자 함.
  - 남북대화: 덴마크 외무국무장관은 EC로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공개적 또는 막후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언급
  - 러시아와의 관계: 이상옥 장관은 러시아와는 1992년 러시아 외무장관의 서울 방문, 지난달 본인의 러시아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9월 방한 예정 등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시아지역 안보 문제: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위협 등과 관련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데 EC도 한국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이상옥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사항에 관해 주한 공관을 통해 EC 측에 계속 알려 주겠다고 말함.

3. 한·EC 정무협의회 말씀자료 요지

- 인사 말씀, 한·EC 관계(한국 측 리드), 남북대화(한국 측 리드), 대CIS(독립국가연합) 관계(EC 측 리드), 아주지역 안보 정세(한국 측 리드), 맺는 말씀

92-0310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 북경, 1992.4.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0 / 7 / 1-46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이 1992.4.14. 베이징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3.27. 외무부는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제48차 ESCAP 총회(베이징 개최) 참석 계기 양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 1992.4.6. 인도네시아 측,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 개최 동의

2. 개최 제의 목적

- 1992.9월 인도네시아 개최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 관련 한국 입장 전달
- Sudharmono 인도네시아 부통령 방북 관련 협의

3. 주요 의제

-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 관계
-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 최종문서 한국조항 불포함 협조 문제
  - 비동맹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담(1992.5.10.~15., 발리)
  -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1992.9.1.~7., 자카르타)
- 한국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협조
- 한·아세안 관계
- 인도네시아 부통령 방북 문제
  - Sudharmono 부통령, 김일성 주석 생일행사 참석을 위해 1992.4.13.~17. 평양 방문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New York, 1992.9.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0 / 8 / 1-78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1992.9.23. 뉴욕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8.5. 외무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
- 1992.8.19. 인도네시아 측,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개최 동의

2. 주요 의제

- 남남협력에 대한 한국 측 지원 문제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증진
- 인도네시아 원유, 산림자원, 천연가스 개발 협력
-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 결과
-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결과: 한·러시아 및 한·중국 수교 등 39개국과의 관계정상화
- 인도네시아산 항공기(CN-235) 구매 문제

92-0312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6차. 동경, 1991.4.24.-26.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0 / 9 / 1-175

1991.4.24.~26.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사전준비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장관, 오재희 주일본대사, 외무부·청와대·주일본대사관 관계관
- 일본 측: 나카야마 다로 외상, 야나이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 외무성 관계관

2. 회담 의제

-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정세
  - 걸프전 이후의 국제 정세(대소련·중국·미국 관계 포함)
  - 남북한 관계(유엔 가입 문제 포함)
  - 일·북한 관계, 한·미·일 3자 정책협의회, 국제경제 정세
- 양국관계
  - 무역·산업·기술 협력, 인적·문화 교류, 기타
- 금후의 외교 일정

3. 주요 일정

- 4.24. 제1차 외무장관회담, 주일본대사 주최 만찬
- 4.25. 제2·3차 외무장관회담, 가이후 총리 및 자민당 간사장 예방, 주일본 미국대사 접견, 민단 간부와 오찬 및 나카야마 외상 주최 만찬
- 4.26. 오자와 전 자민당 간사장과 조찬, 주일본 한국특파원과 오찬, 자민당 정조회장 면담

4. 참고자료

- 제6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의 기본계획(1991.3.15., 외무부 아주국)
- 제6차 한·일 외무장관회담 행사 진행계획(1991.4.23., 주일본대사관)
- 한·일 외무장관회담 언론브리핑 자료
- 한·일 외무장관회담 대외발표문(안)(1차 회담), (2차 회담)
- 경제 관련 브리핑 자료(1991.4.24., 주일본대사관 경제과)
- 별도 검토자료(목록)
  - 보도자료, 주요행사 참석 범위, 외무부장관 방일의 성격(Theme), 만찬사, 일·북한 수교 교섭 중 기본관계 부분, 외무장관회담 시 제기 검토사항, 체육부장관 방일 일정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6차. 동경, 1991.4.24.-26. 전3권 (V.2 결과)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0 / 10 / 1-131

1991.4.24.~26.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임.

1. 결과 요지

- 소련 대통령 방일·방한 결과 상호 설명
- 유엔 가입 문제
  - 일본 측은 남북한 유엔 가입을 원하나, 북한의 불응 시 한국의 선가입 지지 입장 천명
- 일·북한 수교 교섭
  - 일본 측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에 추호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대처 약속
- 무역 불균형 문제
  - 한국 측은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일본 측은 시장개방, 구조조정 등 시정 노력 언급
- 기타 산업기술협력, 인적·문화교류 증진, APEC(아·태경제협력체)·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경제면 협력 문제 등 협의

2. 기타 외무부장관 일정

- 카이후 수상 예방, 한·일본 외무장관 회담 3회, 나카야마 외상 주최 공식 만찬, 자민당 주요인사 면담
- 카이후 수상 예방 결과(4.25.)
  - 양국 정상의 격의 없는 상호방문 관련, 대통령 말씀 전달
  -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에 사의
  - 북방외교 추진에 있어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방침 표명

92-031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6차. 동경, 1991.4.24.-26.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1-1991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0 / 11 / 1-284

1991.4.24.~26.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관련 자료임.

1. 말씀자료

- 제6차 한·일 외무장관회담 자료(경제 분야)(1991.4.25.~26., 주일본대사관)

2. 참고자료

- 한·일 통상관계 현황(1991.3월, 통상국)
- 외무부 각 실국의 한·일 외무장관회담 자료
  - 외교정책기획실: APEC(아·태경제협력체), 아·태 각료회의
  - 영사교민국: 민단 간부 오찬 시 말씀요지, 재일교포·민단 등 관련 자료
  - 통상국: 통상 분야, 산업기술협력, 우루과이라운드 협력
  - 국제경제국: 과학기술협력
  - 중동아프리카국: 걸프전 후 중동 정세
  - 미주국: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걸프전 이후 국제정세, 유엔 가입 문제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 회담.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1.7.24.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0 / 12 / 1-96

ASEAN-PMC(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계기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1991.7.24.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장관, 홍순영 주말레이시아대사,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김석우 아주국장, 권종락 장관 보좌관 외 2명(통역 및 기록 담당)
- 일본 측: Nakayama Taro 외상, Tanino Sakutaro 외무성 아주국장, Imai Tadashi 외무성 아주국 지역정책과장, Yamanaka Makoto 국제보도과장, Komachi Kyoji 외상 비서관 외 2명 (통역 및 기록 담당)

2. 회담 결과 요지

- 일·북한 관계
  - 한국 측은 일·북한 수교 교섭 본회담을 1991.8.27.~30. 남북 총리회담 이후 개최 요청
  - 일본 측은 핵사찰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주시 및 대북한 교섭에 있어 신중 대응 약속
- 무역 및 산업기술협력
  - 양측은 한·일 간 무역불균형이 확대 균형의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양국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노력하기로 의견 일치
- 재일한국인 문제
  - 일본 측은 1991.1월 양국 정부간 합의 내용의 착실한 이행 상황 설명
  -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의 사회생활상 처우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 일본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 일본 측은 유엔총회 시 일본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 한국 측은 적극 협조 입장 표명

3. 참고자료

- 한·일 외무장관회담 자료: ASEAN 확대 외무장관회담 참석 계기(1991.7.24., 아주국)
- 한·일 외무장관회담 회의록(1991.7.24., 쿠알라룸푸르)

92-0316

제4차 APEC 각료회의 참석 계기 일본 주요인사 회담. Bangkok, 1992.9.9.-1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0 / 13 / 1-70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제4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1992.9.9.~10., 방콕) 참석 계기 일본 주요인사와 개별회담을 진행함.

1. 마츠나가 노부오 전 주미국 일본대사(1992.9.9.)

- 한·중 수교 성공을 축하하며, 한·중 수교로 일본의 대북한 수교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함.
- 일본도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2. 가키자와 코지 정무차관(1992.9.10.)

- 주요 의제
  - 한·중국 수교: 추진 경위, 의의, 추진계획, 대만(구 중화민국)과의 관계
  - 한반도 정세: 한·중국 수교와 북한, 남·북한 관계, 일·북한 관계
  -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일 및 방한
  - 한·일 양국관계: 무역불균형 시정 및 산업·과학기술협력, 위안부 문제

92-0317

독립국가연합(CIS) 원조 국제회의 참석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동경, 1992.10.3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0 / 14 / 1-46

CIS(독립국가연합) 원조 국제회의 참석 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이 1992.10.30. 도쿄에서 개최됨.

● 주요 의제
- CIS 원조 국제회의 개최 결과 평가
- 한·일 관계
  · 서해사업
  · 군대위안부 문제
  ·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
-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문제
  · 노태우 대통령 초청으로 1992.11.18.~20. 공식 방한
- 일왕 방중 결과
  · 1992.10.23.~28. 일왕의 베이징, 상하이, 시안 방문
- 제8차 일·북한 수교회담(1992.11.5.~6. 베이징 개최 예정)
- 한국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지지 협력 문제

92-0318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New York, 1992.9.2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0 / 15 / 1-52

1992.9.21.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결과임.

1. 경위

- 한·노르웨이 양국은 1992.9.18.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9.21.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2. 대표단

- 한국 측: 외무부장관, 주유엔대사 등 5명
- 노르웨이 측: 국무장관 등 4명

3. 주요 협의내용

-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고 및 남·북한 상호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 브룬투란트 노르웨이 수상은 한국의 북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 증대를 위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함.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4차. Canberra, 1992.2.17.-1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1 / 1 / 1-195

제4차 한·호주 정책협의회가 1992.2.17.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 호주 측: Michael Costello 외무부 차관보

2. 회의 결과

- 호주 측 제기사항
  - 북한 핵문제: 북한의 의무 불이행 상황에서 남북대화 진전만 너무 강조하는 것에 우려 표명
  - 아태 안보대화: 양자동맹 보완 필요성이 있으며, 아세안 PMC(확대외상회담)가 적절한 포럼
  - UR(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대한 예외 인정 불가
  - 양자관계: 한국 각료급 인사의 호주 방문 확대 요청 등
- 한국 측 제기사항
  - 북한 핵문제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지속적 협조 요청
  - 한·캄보디아 SNC(국가최고평의회) 관계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
  - 무역역조 시정 및 항공편 증편 요청

3. 주요 조치사항

- 1992년 중 외무부장관을 포함한 각료급 인사의 호주 방문 적극 검토
- 아태지역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에 대한 한국 입장 긍정 검토 등

92-0320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92.6.1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1 / 2 / 1-282

제2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가 1992.6.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만순 외무부차관대리
- 브루나이 측: Lim Jock Seng 외무부 사무차관

2. 주요 일정

-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개최
-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및 산업 시찰 등

3. 주요 결과

- 브루나이의 북한과의 수교 연기 결정 설명(북한 핵문제의 민감성 감안)
- 브루나이항공의 서울취항 희망 표명
- 한국 장기체류 교포 지위 개선 요청
- 브루나이 측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지지 표명
- 제4차 아세안정상회의 결과 설명, 지역안보 문제 등 협의

4. 주요 자료

- 제2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토의요록,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 외무부장관 면담요록, 브루나이 외무부차관 접견자료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4차. Paris, 1992.5.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21 / 3 / 1-194

제4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가 1992.5.26. 파리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창희 외무부차관
- 프랑스 측: Serge Boidevaix 외무차관
- 주요 토의내용
  - 프랑스 측
    - EC(구주공동체) 통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될 경우 1997년 또는 1999년에 EC 단일통화 창출 가능 예상
    - 프랑스 외무부 실무국장이 방북하여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 제안
  - 한국 측
    - 북한의 핵문제 관련 남북한 상호사찰의 필요성 강조 및 이에 대한 프랑스 측의 협조 요청
    - 프랑스 외무부 실무국장의 방북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 합의서의 실천 추이에 따라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2. 노창희 외무부차관의 Dumas 프랑스 외무장관 면담내용(1992.5.26., 파리)

- 프랑스 측
  - 미테랑 대통령의 11월 중 방한계획 시사
  - 양국 간 정치협력 관계는 만족하나 경제협력이 기대에 미흡하다고 하고 특히 경부고속전철사업에 각별한 관심 표명
- 한국 측
  - 프랑스의 한국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향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계속적 지지 요청

92-0322

한·독일 정책협의회, 제7차. 서울, 1992.5.1.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21 / 4 / 1-241

제7차 한·독일 정책협의회가 1992.5.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영민 외무부 구주국장
- 독일 측: Zeller 독일 외무부 아주국장

2. 주요 논의 내용

- 독일·북한 관계: 독일 측은 북한과의 관계 진전 문제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 후 상황에 따라 여타 EC(구주공동체) 국가 및 한국과 협의 후 결정할 것임을 언급한바, 이에 한국 측은 북한이 이산가족 재회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방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독일의 대북한 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시켜 줄 것을 요청함.
- Kohl 수상 방한 문제: Kohl 수상의 1992년 아주 순방 시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독일 측은 독일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동 방한이 쉽지 않을 것이나, 수상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함.
- 한·EC Troika 정무협의회 추진: 1991년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 이후, 한국은 한·EC Troika 외무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한바, 독일 측은 기꺼이 측면 협조할 것임을 언급함.
- 기타 독일 측 요청사항: 한국의 고속전철 수주 관련, 독일 측은 독일의 기술이전 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한국 측의 협조를 당부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9차. 동경, 1992.3.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1 / 5 / 1-165

제9차 한·일 고위정책협의회가 1992.3.26.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 일본 측: 사이토 구니히코 외무성 외무심의관

2. 회의 의제

- 국제 정세 개관
- 동북아 정세: 대미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 대중국 관계
- 한반도 정세: 북한 핵문제, 남북 대화, 일·북한 관계
- 한·일 관계 일반: 국제무대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3. 회의 결과

- 걸프전 종전 이후의 국제정세 및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
-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설명한바, 일본 측은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
- 일본 측은 북한과의 수교 교섭이 북한의 진정한 개방과 남북 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
- 일본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법안과 관련, 한국 측은 일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비군사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4. 참고자료

- 오와다 외무차관 면담자료(1992.3.26., 아주국)
- 제9차 한·일 고위정책협의회 자료(1992.3.26., 아주국)
  - 방일 일정, 대표단 구성, 의제, 회의 자료

92-0324

한·일본 중동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92.7.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21 / 6 / 1-178

제5차 한·일 중동아프리카 정책협의회가 1992.7.24.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연혁

- 원칙 합의: 1983.8월, 도쿄
- 제1차 회의: 1983.11.4., 서울
- 제2차 회의: 1984.12.11., 도쿄
- 제3차 회의: 1988.5.9., 서울
- 제4차 회의: 1989.10.23., 도쿄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상덕 중동아프리카국장
- 일본 측: 오하라 다케시 중근동 아프리카국장

3. 기본 방향

- 중동아프리카 정세 중심 상호 관심사항 및 의견 교환
- 한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중동아프리카 외교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 모색

4. 회의 의제

- 중동 정세 및 대중동 외교정책
  - 걸프전 이후 중동질서 재편
  - 중동평화회담 프로세스의 평가 및 전망, 동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이라크, 리비아 제재문제
- 아프리카 정세 및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 아프리카 민주화 추진
  - 대아프리카 경협정책
  - 남부아프리카의 한발 구호 대책
- 대중동아프리카 외교에서 한·일 간 협력 방안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제3차. Wellington, 1992.2.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1 / 7 / 1-190

제3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가 1992.2.13.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 뉴질랜드 측: Richard Nottage 외무차관

2. 회의 결과

- 뉴질랜드 측 제기사항
  - 아태지역 내 다자간 안보대화 필요성
  - UR(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대한 예외 인정 불가
  - 1993/1994년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 항공회담, 통상장관회담 및 농업실무자회담 개최 희망
- 한국 측 제기사항
  - 북한 핵문제 완전 해결 시까지 계속적인 대북한 압력행사 요청
  - 대전 EXPO 1993 참가 및 무역역조 시정 요청
  - 뉴질랜드 수역 내 한국 어선 조업 관련 선수품 관세 면제 및 선원 취업비자 기간 제한 철폐 등

3. 주요 조치내용

- 1992년 중 외무부장관을 포함한 각료급 인사의 뉴질랜드 방문 적극 검토
- 아태지역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에 대한 한국 입장 긍정 검토 등

4. 정책협의회 자료(첨부)

92-0326

한·폴란드 정책협의회, 제1차. Warsaw, 1992.1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21 / 8 / 1-47

제1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가 1992.12.3.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1.10월 스쿠비세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방한 시 한·폴란드 양국은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성홍 외무부 구주국장
- 폴란드 측: Krystozyk 외무부 아주국장대리

3. 주요 의제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구주 정세, 한·폴란드 양자관계

4. 주요 내용

- 폴란드 측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남북한 휴전협정 중립국 감시단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함.
  - 또한 한·폴란드 양자관계 증진을 위해 양국 대통령의 상호방문, 문화협정 및 비자면제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함.
- 한국 측
  - 최근 남북관계 및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폴란드 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함.

한·태국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92.12.11.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1 / 9 / 1-326

제1차 한·태국 정책협의회가 1992.12.1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 태국 측: Don Pramudwinai 외무부 동아국장

2. 주요 결과

- 태국 측은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
- 한국은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가 블록화 되지 않기를 희망
- 태국 외무장관 및 부장관의 내년도 방한 추진 노력 합의
- 한국 측 무역흑자 시정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 전개 및 내년 중 통상장관회담 추진 합의

3. 회의자료

- 제1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및 정책협의회 토의요록
- 외무장관의 태국대표단 접견자료 및 면담요록

92-0328

민주회복국가 회의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1 / 10 / 1-121

1988~92년 중 민주회복국가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민주회복국가 회의(1988.6.3.~6., 필리핀 마닐라)

- 명칭: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wly Restored Democracies
- 추진 경위
  - 필리핀이 자국의 민주혁명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민주회복국가 간의 결속강화를 위해 Manglapus 외무장관 주도하에 각료급 회의로 추진
- 참석국
  - 포르투갈, 필리핀, 브라질, 스페인,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페루, 그리스 등 13개국
  - 한국은 현지 대사가 옵서버로 참석
- 주요 토의 의제
  - 민주 회복과정에서 각국의 경험, 경제회복 및 외채 문제, 정치발전에 대한 위협 문제 등
  - 민주주의에 관한 마닐라 선언 채택

2. 제2차 민주회복국가 회의 추진 경위

- 제1차 회의에서 제2차 회의를 1989.5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 결정
  - 1988.6월 페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2차 회의 개최 불능 통보
- 1990.7월 필리핀, 한·필리핀 외무장관회담 시 한국의 제2차 회의 정식참가 요청
- 1992.1월 방글라데시, 필리핀 제안으로 제2차 회의 주최 검토
- 1992.3월 필리핀, 한국이 제2차 회의 주최 가능 여부 문의
  - 한국의 정치 외교 일정 등 이유로 주최 곤란함을 통보

APPLF(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회의, 제1차. Kona(Hawaii), 1992.4.23.-2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2과 /
MF번호 2022-21 / 11 / 1-206

제1차 APPLF(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회의가 1992.4.23.~25. 하와이 코나에서 개최됨.

1. 추진 배경

- 1991.5월 박준규 국회의장 영국 방문 시 구주 국회의장 회의 유용성 청취
- 이와 유사한 아태지역 국회의장 및 의회 협의체를 창설하여 상호 이해 및 협력 도모 목적

2. 추진 경위

- 1991.6월 이래 박준규 의장 주도로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을 중심으로 창립 교섭
- 미, 일, 호주, 캐나다, 몽골, 아세안 국가 등은 대체로 APPLF 결성에 찬성

3. 참가국

-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몽골,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태국, 멕시코
  - 러시아, 캐나다는 참석 의사 표명 후 사정상 불참

4. 주요 회의 결과

- APPLF 헌장 채택: 아태지역 국가 국회의장 간의 비공식 회합으로 2년마다 정기회의 개최
- 아태지역 장래, 환경 문제 등 협의
- 제2차 회의는 1993.6월 제주, 제3차 회의는 1994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개최 결정

5. 의의

- 한국 국회 주도로 APPLF 창설

92-0330

APPLF(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회의, 제1차. Kona(Hawaii), 1992.4.23.-25. 전2권 (V.2 각국 대표단)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1과 / 동북아2과 /
MF번호 2022-21 / 12 / 1-231

APPLF(아태지도자협의회) 창설회의 개최 관련 초청 및 각국과의 교섭 내용임.

1. 동남아(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 1992.2월 초 박준규 국회의장 명의 초청장을 동남아 각국 국회의장에게 전달
   -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참석 예정임을 통보
   - 말레이시아는 의회 개원 준비로 불참 통보

2. 멕시코
   - 1992.2.10. Gonzalez 멕시코 상원의장에게 박준규 의장 명의 초청장, 창설 보고서 등을 전달
   - 멕시코 측은 동 회의에 대표단 파견 통보

3. 몽골
   - 몽골은 4인의 대표단 파견

4. 미국, 캐나다
   - 캐나다 상원 및 하원의장, 미국 상원의장(퀘일 부통령) 및 하원의장에게 박준규 의장 명의 초청장 전달
   - 캐나다는 하원 부의장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참 통보

5. 일본
   - 일본 참의원, 중의원 의장에게 박준규 국회의장의 초청장 전달
   - 일본 중의원 의원 참석 통보

6. 중국 및 러시아
   -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및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에게 박준규 의장 명의 초청장 전달
   - 중국은 대표단 파견, 러시아는 사정상 대표단 파견의 어려움을 통보

7. 호주 및 뉴질랜드
   - 호주 및 뉴질랜드는 대표단 파견 결정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 기본계획 I(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1 / 13 / 1-126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기본계획 내용임.

1. 개최 건의 및 재가

- 외무부는 1992.1.13.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재가를 득함.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외무부는 해당 공관장에게 '92 재외공관장회의 개최를 통보함.

- 기간: 1992.3.5.~10.
- 참석 범위: 99개 공관장, 부부 동반
- 회의 기본계획: 전체회의 2회, 지역별회의 2회

3. 부내 및 관계부처 업무 협조 요청

- 부내 업무 협조
  - 미주국: 제1차 전체회의(정무 및 남북한 관계) 조직 및 운영 등
  - 의전실: 연회 준비 및 국립묘지 참배행사 등
  - 구주국: 지역별(구주)회의 조직 및 운영
  - 중동·아프리카국: 지역별(아중동)회의 조직 및 운영
  - 문화협력국: 홍보활동
  - 국제경제국: 경제4단체장 만찬
  - 기획관리실: 전체 종합토의 조직 및 운영
- 관계부처 업무 협조
  - 통일원: 남북한 관계 현황 설명
  - 경제기획원: 한국의 경제정책 설명
  - 경찰청: 숙소 보안 조치

4. 전체회의 의제

- 외무부는 1992.1.29. 재외공관장회의 전체회의 의제 확정을 위한 재가를 득함.

92-0332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2 기본계획 II(2-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1 / 1-187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기본계획 내용임.

1. 공관장회의 참석 공관장 명단

- 각 실·국에 1992년도 공관장회의 참석대상 공관장 명단 송부

2. 공관장회의 운영 및 일정 등 관련 사항 통보

- 외무부는 공관장회의 참석 공관장에게 회의 운영방식, 일정(안), 장관 개별 면담 및 숙소 관련 사항 통보

3. 공관장회의 준비 중간보고

- 재외공관장회의 준비 관련 각 실·국별 소관사항의 추진 현황 및 세부 시행계획 점검
- 1992.2.20.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준비 현황 중간보고(1)
  - 일정, 의제, 그룹 회의, 공관장 일부 서열, 행사별 대표 공관장,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헤드 테이블 참석 공관장

4.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 보고

- 일반사항, 일정, 그룹회의, 토의 의제, 전체회의 의제별 발언공관장, 각종 연설문 작성, 후속조치

5. 공관장회의 안내서 배포

- 공관장회의 관련 부서에 '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안내서 송부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3 행사준비 I(1월-2.1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2 / 1-149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행사준비 내용임.

1. 회의실 및 비품 사용

- 정부청사관리소에 회의실 및 비품 사용 협조 요청
- 회의장 준비계획
- 휴게실 설치계획
- 회의장반 업무분장
- 각종 행사별 회의장반 점검사항

2. 숙소 선정 및 배치

- 숙소 선정 및 배치 문제에 관한 재가
- 숙소 선정자료

3. 항공편 및 호텔 체제 여부

- 항공편, 항공요금 및 행사 기간 중 숙소 체재 여부 등에 관한 공관보고

92-0334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4 행사준비 II(2.12.-2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3 / 1-201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행사준비 내용임.

1.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준비

- 헤드테이블 참석 공관장 자료 작성

2. 재외공관장회의 관련 연회계획

- 대통령 내외분 만찬
- 국무총리 주최 오찬
-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뷔페 리셉션
- 외무부장관 부인 주최 오찬

3. 공관장 입출국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김포 국제공항관리공단 측에 협조 요청
- 공관장 입출국 시 공항 영송 및 입출국 대리수속 등 편의 제공은 해당 지역국별로 실시

4. 외빈차 운영계획

- 92년도 공관장회의 참석 공관장 출입국 편의를 위한 외빈차(임대차) 운행계획

5. 1992 재외공관장회의 연찬회

- 지역별회의
- 역사 강의
- 지역별회의 결과 종합 발표회
- 만찬 및 다과회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5 행사준비 III(2.26.-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4 / 1-168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행사준비 내용임.

1. 공관장회의 행사자료

-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시 대화자료
-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시 칵테일 테이블 석상 대화자료
-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주최 오찬 행사
- 재외공관장 연찬회계획

2. 차량 운행

- 1992년도 공관장회의 입국 시 임대차량 운행계획
- 연찬회 참가를 위한 차량 운행 안내
- 호텔-청사 간 임시차량 운행 안내
- 청와대 만찬 차량 탑승계획
- 공관장 출국 시 차량 운행계획

92-0336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6 장관 개별면담 및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5 / 1-149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외무부장관 개별 면담 및 말씀자료임.

1. 개별 면담

- 일정
  - 장소: 장관실
  - 일시: 1차(1992.3.9.(월) 14:30~16:00), 2차(1992.3.10.(화) 14:30~16:00)
- 희망자
  - 33명
- 말씀자료
  - 동북아2과 작성자료: 주북경대표
  - 구주국 작성자료: 주영국대사
  - 미주국 작성자료: 주미국대사
  - 중동아프리카국 작성자료: 주예멘대사, 주오만대사, 주카타르대사, 주요르단대사, 주쿠웨이트대사, 주카이로총영사, 주나이지리아대사,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카메룬대사, 주나미비아대사, 주케냐대사
  - 구주국 작성자료: 주불가리아대사, 주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대사, 주포르투갈대사, 주EC(구주공동체)대사, 주노르웨이대사, 주스페인대사, 주아일랜드대사

2. 말씀자료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외무장관 개회사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막식 치사(국무총리)
- 재외공관장회의 정무관계 전체회의 토의 말씀자료
- 재외공관장회의 정무관계 전체회의 토의 진행자료
- 재외공관장회의 정무관계 회의 종료시 말씀자료
- 재외공관장회의 경제·통상관계 전체회의 종료시 말씀자료
- 재외공관장 연찬회 말씀자료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외무장관 폐회사

92-0337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7 전체회의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6 / 1-250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전체회의 자료임.

1. 공관장회의 관련 외무부 조치

- '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전체회의 의제 관련 재가
- '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전체회의(정무 및 경제) 의제 공관장에게 통보

2. 공관 제출자료

- 주페루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잠비아대사관, 주케냐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헝가리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네팔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루마니아대사관,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주나미비아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영국대사관

92-0338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8 전체회의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7 / 1-270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전체회의 자료임.

1. 공관장회의 외무부 자료

- 다자외교 강화방안(국제기구국 작성)
- 통일외교 추진대책(외교정책기획실 작성)

2. 공관 제출 및 보고자료

- 자료 제출
  - 주오만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피지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주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일본대사관
- 전보 보고
  - 주아일랜드대사, 주인도대사, 주미국대사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9 지역별회의 : 아주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8 / 1-145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아주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기본계획

- 외무부는 동남아과, 동북아1과에 아주지역 의제가 확정되었음을 알리고 아주지역 참석대상 공관장에게 통보하여 발표자 선정 등 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 요청
- 외무부, 아주지역 해당 공관장에게 아주지역회의 관련 사항 통보 및 지시
  - 일시 및 장소: 1992.3.7.~8., 중앙공무원교육원
  - 제1차 회의(3.7., 오후): 일·북 수교 문제, 일·북 수교 시 재일교민 대책, 아태지역 안보 문제
  - 제2차 회의(3.8., 오후): 대중국 및 인도차이나 3국 관계 개선방안,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1992.9월) 대책
- 외무부(동북아1과),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시 해당 과장 및 담당자 참석 조치 요청
  - 아주지역회의 자료(수록)

2. 아세안 그룹회의

- 외무부, 아세안지역 공관장에게 아세안 그룹회의 개최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준비 지시
- 관련 자료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아세안 그룹회의 토의자료
  - 아세안 그룹회의 결과보고
  - 아세안 그룹회의 토의록
  - 아세안 6개국 대사 접견자료

3. 아주지역 및 아세안그룹 공관장회의 결과 통보

- 아주국(동남아과), 외정실에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및 아세안그룹 공관장회의 시 논의된 '아태지역 안보 문제'에 관한 토의록을 송부하면서 중·장기적인 입장 정립 등 필요한 조치 요청

92-0340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0 지역별회의 : 아주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9 / 1-295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아주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관 제출자료

- 주호주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몽골대사관, 주북경대표부,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피지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인도대사관

2. 공관 전보 보고자료

- 주몽골대사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1 지역별회의 : 미주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10 / 1-244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미주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관장회의 미주지역회의 관련 외무부 조치

- 외무부, 미주지역 해당 공관장에게 미주지역회의 의제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하고 해당 의제에 대한 발표 요지 보고 지시
  - 유엔가입 이후 중남미지역과의 협력관계 강화방안
  - 미주지역 경제통합 동향과 대응방안
  - 북한의 대중남미 국가 관계 개선 움직임과 대책

2. 공관 제출자료

-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도미니카대사관, 주수리남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LA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3. 공관 전보 보고자료

- 주코스타리카대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파나마대사, 주칠레대사

92-0342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2 지역별회의 : 미주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11 / 1-175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미주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관 제출자료

- 주미국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주트리니토바고대사관

2. 공관 전보 보고자료

- 주미국대사, 주베네수엘라대사

92-0343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3 지역별회의 : 구주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12 / 1-140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구주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관장회의 구주지역회의 관련 외무부 조치

- 외무부 아주국, 구주국에 공관장회의 구주지역 관련 필요한 조치 요청
- '92 공관장회의 구주지역회의 개최계획(안)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구주지역회의 사회자료
- 92년도 공관장회의 CIS·중동구 그룹회의 결과보고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발전 전망과 구주 안보

2. 공관 제출자료

- 주노르웨이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주헝가리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핀란드대사관

92-0344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4 지역별회의 : 구주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2 / 13 / 1-157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구주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관 제출자료

- 주포르투갈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덴마크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주스페인대사관

2. 공관 전보 보고자료

- 주프랑스대사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5 지역별회의 : 아중동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3 / 1 / 1-231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아중동지역 지역별 회의 관련 내용임.

1. 아중동지역회의 관련 외무부 조치

- 아주국, 중동아프리카국에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필요한 조치 요청
  - 지역별회의 조직 및 운영, 그룹별 회의, 장관 개별면담 등
- 외무부, 아중동지역 해당 공관장에게 아중동 지역별회의 및 그룹별 토의 개최 관련 계획을 통보하고 의제에 따른 토의에 대비하도록 지시
- 외무부, 주미국대사, 주영국대사, 주프랑스대사, 주유엔대사에게 '중동평화 전망 및 이에 따른 한국의 정책 방향' 주제로 개최되는 중동지역 그룹별회의에 참석 준비 지시

2. 공관 제출자료

- 주잠비아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예멘대사관, 주카타르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나미비아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카이로총영사관

3. 공관 전보 보고자료

- 주잠비아대사, 주요르단대사, 주쿠웨이트대사, 주나이지리아대사, 주모리타니대사대리, 주UAE대사

4. 자료

- 지역별회의 주제별 본부의 입장, 중동평화회의 전망 및 이에 따른 한국의 대처방안

92-0346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6 지역별회의 : 아중동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3 / 2 / 1-353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아중동지역 지역별 회의자료임.

1. 정세 브리핑자료(중동지역)

- 주사우디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카타르대사관, 주UAE대사관, 주바레인대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카이로총영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예멘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수단대사관

2. 정세 브리핑자료(아프리카지역)

- 주나미비아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케냐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주가나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가봉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주잠비아대사관,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7 결과보고 및 토의록)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3 / 3 / 1-236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결과보고 및 토의록 자료임.

1. 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결과 보도자료

2. 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결과보고
   - 중점 토의 내용: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대책, 지역별 외교활동 강화방안, 주요 외교 사안별 대처방안

3. 92 공관장회의 종합토의 결과

4.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제3차 전체회의 토의요록(경제·통상 분야)

5. 연찬회 관련 자료
   - 종합 발표(주유고대사 발표)
   - 종합 발표회: 4개 지역별 내용 요약보고

6. 구주지역회의 관련 자료
   - 구주지역회의 결과 보고
     - 구주정세 전반, EC 통합 대응, CIS 정세발전 대응, CSCE 발전 전망
   - 구주지역회의 회의록: CSCE 발전 전망과 구주 안보
   - 구주지역회의 회의록: 독립국가연합(CIS) 정세발전과 대응방안
   - CIS·중동구 그룹회의 결과보고: CIS·중동구지역 그룹별 회의(북방외교 내실화방안)

7. 아주지역회의 관련 자료
   - 아주지역회의 토의록
   - 아주지역회의 결과보고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기록

8. 중동아지역회의 관련 자료
   - 중동아지역회의 및 그룹별회의 결과 종합
   - 제1차 중동아지역회의 토의 내용
   - 제2차 중동아지역회의 토의 내용
   - 중동아지역회의 종합 발표

9. 정무관계 전체회의 및 종합토론 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 한국의 대책' 관련 공관장 및 장관 발언 내용

10. 종합토의 시 김해선 주아르헨티나대사 발언 및 장관 답변 내용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8 공관 건의사항 및 조치 I(2.20.-3.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3 / 4 / 1-232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별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내용임.

1.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공관 건의사항 조치 관련 협조문 발송

- 1992.2.20. 구주2과, 협조문 발송(서구1과장, 동구1과장, 동구2과장)
- 2.21. 아주국(동남아과), 협조문 발송(미주국, 구주국, 중동아프리카국)
- 2.26. 미주국(남미과), 협조문 발송(국제경제국, 문화협력국, 영사국 등)
- 2.27. 중동아국(중동1과), 협조문 발송(국제경제국, 통상국, 문화협력국, 영사교민국 등)
- 3.2. 아주국(동북아1과), 협조문 발송(국제경제국, 통상국, 문화협력국, 영사교민국)

2. 1992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공관 건의사항 관련 회보

- 1992.2.27. 기획관리실, 구주국에 회보
- 2.28. 문화협력국, 중동아국에 회보
- 2.29. 기획관리실, 구주국, 중동아국에 회보
- 3.2. 총무과, 미주국, 구주국, 중동아국, 영사교민국에 회보
- 3.4. 기획관리실, 아주국, 미주국, 문화협력국, 구주국, 중동아국에 회보
- 3.5. 통상국, 아주국, 영사교민국에 회보

92-0349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19 공관 건의사항 및 조치 II(3.6.-3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3 / 5 / 1-226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별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내용임.

1. 재외공관 건의사항 관련 회보

- 1992.3.10. 구주국의 국제경제국 및 통상국에 대한 회보
  - 연찬회, 구주지역회의 시 EC(구주공동체) 관련 건의사항
- 3.11. 구주국의 기획관리실, 외교정책실, 국제경제국, 통상국, 총무과에 대한 통보
- 3.12. 남미과의 북미1과, 북미2과, 중미과에 대한 송부
- 3.19. 통상국의 아주국, 미주국, 구주국, 중동아국, 국제경제국에 대한 회보
- 3.31. 구주국의 아주국에 대한 회보

2. 재외공관 건의사항 관련 관계부처에 대한 통보(1992.3.16.)

- 외무부, 상공부에 통보
  - 대러시아 바터무역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주러시아대사 건의
- 외무부, 상공부 및 교통부에 통보
  - 시베리아횡단철도 활용에 관한 주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대사 건의

3. 재외공관장 건의사항 관련 공관에 대한 통보

- 1992.3.23. 외무부(남미과), 미주지역 공관에 회의 요록 및 건의사항별 외무부 입장 통보
- 3.30. 외무부(구주1과), 주영국대사에 통보

공관장회의, 1992년도. 서울, 1992.3.5.-10. 전20권 (V.20 공관 건의사항 및 조치 III(4-5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3 / 6 / 1-201

1992.3.5.~10. 서울에서 개최된 1992년도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별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내용임.

1. 재외공관 건의사항 관련 회보

- 1992.4.1. 중동아국, 아주국, 문화협력국, 구주국에 회보
- 4.13. 국제경제국, 구주국에 회보

2. 재외공관 건의사항 관련 외무부 방침 통보

- 1992.4.2. 외무부(중동1과)는 주예멘, 주요르단, 주이란, 주쿠웨이트, 주UAE, 주카타르, 주사우디, 주바레인대사관에 통보
- 4.6. 외무부(중동2과)는 주알제리, 주모로코, 주수단대사관, 주카이로총영사관에 통보
- 4.29. 외무부(동남아과)는 아주 공관 22개, 구주 공관 19개, 아중동 공관 27개 등 총 68개 공관에 통보
- 5.27. 외무부(남미과)는 미주지역 공관에 통보

92-0351

관내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1992년도 - 캐나다. Vancouver, 1992.5.7.-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3 / 7 / 1-261

1992년도 캐나다지역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가 1992.5.7.~8. 밴쿠버에서 개최됨.

1. 공관장회의(1992.5.7.)

- 참석자
  - 주캐나다대사, 주밴쿠버총영사, 주토론토총영사, 주몬트리올총영사 및 관계관
- 주요 협의 안건
  - 캐나다 정세, 교민 및 영사 관계 협의, 남북한 관계 설명
  - 캐나다 상원 개혁 문제, 헌법 개정에 대한 퀘벡주 거부권 문제, 1993년 총선 전망 등
- 회의자료
  - 주캐나다대사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밴쿠버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자료

2. 제1차 상사협의회(1992.5.8.)

- 참석자
  - 관내 공관장 및 관계관, 각 지역 무역관, 토론토 및 밴쿠버지역 지상사 대표 등
- 주요 토의내용
  - 캐나다 경제 동향, 대캐나다 통상 및 수출촉진 대책, 업무계획 등
  - British Colombia주 경제통상장관 초청 주제 발표
- 회의자료
  - 밴쿠버무역관, 주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무역관, 주캐나다대사관 자료

공관장회의, 1992년도 - EC(구주공동체)지역. London, 1992.9.4.-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2-23 / 8 / 1-208

1992년도 EC(구주공동체)지역 공관장회의가 1992.9.4.~5. 런던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EC 회원국 주재 공관장 10명, 주EC대사, 주제네바대사

2. 회의 목적

- 구주정세 협의 및 한·EC 관계 강화방안 모색

3. 회의 의제

- EC 통합 추진 평가, EC 통합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방안
-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1992.11월, 브뤼셀) 한국 제기사항 등

4. 주요 토의내용

- 구주통합 조약 비준 문제
  - 1992.9.20.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한 프랑스 국민투표 결과가 매우 중요
  - 부결 시 방위 문제 등 핵심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조약 협상이 불가피하나 통합작업이 계속될 전망
- 한·중국 수교 후 EC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요 회원국과 정무협의 강화 필요
  - EC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시 대북한 관계 개선 추진 전망
- 한·EC 관계 강화를 위해 기본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한·EC 고위회담 정례화 필요
  - 한·EC 트로이카 간의 외무장관회담 등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과 대CIS(독립국가연합) 공동진출 방안 강구
- 대EC 통상 증진방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 등

5. 자료

- 1992년도 EC 회원국 주재 공관장회의 자료(1992.8월, 외무부 구주국)
- 주EC대표부 자료(1992.9.4.)
  - EC 단일시장 추진 현황, 한·EC 통상관계 현황, 한·EC 경제통상 관계 주요 현안
  - 최근 세계경제 블록화 관계자료, CIS 및 동구 관계자료
- 1992년도 EC 공관장회의 자료(1992.9월, 주영국대사관)

92-0353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독일. Bonn, 1992.11.19.-2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23 / 9 / 1-331

1992년도 독일지역 총영사회의가 1992.11.19.~21. 독일 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주독일대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주베를린총영사, 주함부르크총영사

2. 주요 의제

- 정무: 통일독일 후 독일정세 전망, EC 통합 관련 동향, 독일의 대북한 정책 등
- 경제: 한·독일 교역 동향 및 수출 증대방안, 구동독기업 민영화사업 참여방안 등
- 대사관 베를린 이전 문제, 재외국민 영사 관계 등

3. 주요 논의사항

- 한·독일 관계 강화 필요 및 총영사관의 활동 강화
- 독일과 통상·경협 관계 강화
  - 독일 주재 상사의 프랑크푸르트 이외 대도시로 분산 유도
- 구동독지역에 홍보활동 강화
- 최근 외국인 배척운동 등 관련 교민보호 강화

4. 주요 건의사항

- 통일독일대사관 국유화 사업 추진 예산 확보
- 명예총영사 임명 확대: 구동독지역 및 뮌헨지역
- 주베를린 문화원 설치, Korea House 설립
- 총영사관 관할지역 일부 변경 등

5. 주요 회의자료

- 주독일대사관 자료
  - 총영사회의 안내자료, 정무관계, 경제·통상관계, 홍보문화관계, 재외국민영사관계 자료
  - 통독이후 주독일 공관조직 정비방안 등
- 주베를린총영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회의자료

총영사회의, 1992년도 - 일본. 오사카, 1992.3.26.-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3 / 10 / 1-282

1992년도 일본지역 총영사회의가 1992.3.26.~27. 오사카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주일본대사, 주일본지역 총영사 10인, 영사교민국장, 관계관 등

2. 주요 의제

-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효율적 추진 대책
- 건전한 한·일 관계 발전방안, 한·일 경제 관계의 균형적 발전방안
- 일·북한 수교에 대비한 대책 등

3. 주요 토의내용

- 일·북한 수교 대비 친한 인사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적극 추진
- 자매도시 간 경제 교류 강화, 대전 EXPO에 일본인 참가 노력, 일본의 다품종 소량 주문에 대응
- 한국문화 소개 활동, 한국의 날 행사, 한국의 각종 작품전 순회 개최 등
- 일·북한 수교에 대비한 재일동포 대책 논의

4. 주요 건의사항(후속조치)

- 나하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히로시마 공관 설치
- 한·일 친선협회 조직 강화, 한일 친선 교류 수단으로 스포츠 교류 활성화
- 재일한국인 병역 문제, 일본 내 불법취업자 문제

5. 회의자료

- 1992 주일지역 공관장회의 세부일정(주오사카총영사관)
- 1992년도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및 회의기록(1992.4.3., 주일본대사관)
- 외무부 본부의 공관장회의 자료
  - 한·일 관계 주요 현안, 일·북한 수교 교섭 현황 및 대책, 영사교민 부분 회의자료

92-0355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Atlanta, 1992.3.21.-22.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24 / 1 / 1-137

1992년도 미국지역 총영사회의가 1992.3.21.~22.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주미국대사, 미국지역 총영사, 영사교민국장, 관계관

2. 주요 의제

- 한·미 관계 강화방안, 경제통상 관계 발전방안
- 대미 홍보활동 활성화 대책, 교민사회 육성 및 지도방안 등

3. 주요 토의내용

- 북한 핵개발 관련 의견교환,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안보협력 강화방안
- 대미 수출 진흥방안, 대전 EXPO 유치활동
- 교포사회의 대북한 교류 및 북한의 재미교포 사회 침투 대책
- 한국전 참전용사회 지원방안 논의
-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협의 등

4. 주요 건의사항

- 상공부의 Task Force와 주미국 각 공관과 직접 연결체제 구축방안
- 재외국민 정기포상제도 운영 개선방안
- 미국대학의 한국학 연구를 위한 지원금의 획기적 증액
- 고교생 도피성 유학 방지책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Atlanta, 1992.3.21.-22. 전3권 (V.2 자료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24 / 2 / 1-272

1992.3.21.~22.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1992년도 미국지역 총영사회의(제1차) 관련 회의자료임.

1. 외무부 본부 회의자료
   - 92년도 주미국 총영사회의 자료
     - 정무 관계, 경제통상 관계, 미국의 대전 EXPO 참가 유치

2. 미국지역 총영사관 회의자료
   - 주아가나총영사관
   - 주앵커리지총영사관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 주보스톤총영사관
   - 주시카고총영사관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주휴스턴총영사관

92-0357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Atlanta, 1992.3.21.-22. 전3권 (V.3 자료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24 / 3 / 1-203

1992.3.21.~22.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1992년도 미국지역 총영사회의(제1차) 관련 회의자료임.

1. 미국지역 총영사관 회의자료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주마이애미총영사관
   - 주뉴욕총영사관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주시애틀총영사관

2. 주미국대사관 회의자료(1992년도 주미총영사 회의자료)
   - 정무관계: 정세 및 전망, 주요외교현안, 대미외교활동 강화방안
   - 경제통상관계: 대미무역 동향 및 92년도 수출전망, 대미 수출 부진요인 분석
     - 대전박람회 참가 유치
   - 영사교민관계: 재미교포 사회 현황, 주요 이슈별 대책, 재외국민 교육 강화
   - 홍보관계

총영사회의, 1992년도 - 미국, 제2차. Washington D.C., 1992.11.20.-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4 / 4 / 1-92

1992년도 제2차 미국지역 총영사회의가 1992.11.20.~23.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주미국대사, 주미국총영사 12인(주아가나총영사 제외), 신기복 제1차관보

2. 주요 의제

- 미국 대선(1992.11.3.) 결과 평가 및 클린턴 신정부 외교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신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 및 한·미 경제·통상 관계 현황 검토

3. 회의 결과

- 한인교포의 미국 정계 진출, 신행정부 인사 접촉 및 홍보활동 강화 등 논의
- 신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 뉴욕 KOCHAM 육성 필요, 대미 수출 증대방안 등 협의
- 4월 LA 폭동사태 수습 문제, 한·흑 화합 문제 등 논의
- Pascoe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및 Kartman 한국과장이 참석하여 한·미 관계 및 신행정부 정책 전망 등 브리핑

4. 신기복 제1차관보의 미국 방문(1992.11.19.~26.)

- 방문 목적
  - 주미국 총영사회의 참석 및 미국 현행 정부와 클린턴 신행정부 인사 접촉
- 주요 활동
  - Clark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1.19.)
  - Roth 미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접촉(1.19.)
  - Abramowitz 카네기 연구소장 면담(1.23.)
  - Wilson 하원의원(정보위) 및 Browder 하원의원(군사위) 면담(1.23.)
  - Lord 전 주중국대사, Torricelli 하원의원 면담(1.25.)

92-0359

중동구지역 공관장 협의회, 제1차. Prague, 1992.11.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24 / 5 / 1-124

제1차 중·동유럽지역 공관장협의회가 1992.11.30.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중·동유럽지역 6개 공관장, 주오스트리아대사,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구주국장

2. 회의 목적

- 중·동유럽지역 정세협의 및 관계 내실화방안 모색

3. 토의 결과

- 북방외교성과 검토
- 중·동유럽지역 정세
- 경제 관계

4. 건의사항

- 경협 확대 등 기약속사항 성실 이행 필요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대동구권 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문화홍보활동 강화
- 1993년 하반기 헝가리에서 제2차 회의 개최

92-0360

중동구지역 공관장 협의회, 제1차. Prague, 1992.11.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24 / 6 / 1-262

1992.11.30.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차 중·동유럽지역 공관장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중·동구지역 공관장협의회 자료(주헝가리대사관)

2. 우리나라와 중·동구 국가와의 관계 현황(외무부 구주국)

3. 중·동구 공관장협의회 및 제1차 한·폴 정책협의회 참석자료

4.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 관계인사 자료

5. 헝가리 외무부 관계 인사 면담자료

6. 장관 훈시

7. 공관장협의회 관련 자료(주폴란드, 주루마니아, 주불가리아, 주체코대사관) 등

92-0361

MERCOSUR(남미공동시장) 지역 공관장 협의회. Brasilia, 1992.10.8.-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24 / 7 / 1-154

MERCOSUR(남미공동시장)지역 공관장협의회가 1992.10.8.~9.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5년 MERCOSUR 창설을 앞두고 남미지역의 경제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2. 참석 범위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주재 대사, 상파울루총영사
- 손명현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경제부장, 상공부 대표단, 브라질 외무부 중남미 통합국장 등

3. 주요 토의 의제

- 남미공동시장 건설을 위한 각국의 추진 현황 발표
- 한국의 MERCOSUR 경제 진출상 문제점 및 대책 협의

4. 주요 회의 결과

- MERCOSUR 창설 추진 현황 및 남미 경제정세 파악
- 북방, 동남아 러시 등으로 무관심해진 남미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 제고
- 건의사항 채택
  - 중남미지역 관심 제고(MERCOSUR 전담요원 지정, 중남미 전담 연구부서 설치 등)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증면제협정 등 체결
  - 미주개발은행 가입 재추진
  - MERCOSUR지역 주요 박람회 적극 참가 및 통상사절단 파견 등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 서울, 1992.10.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4 / 8 / 1-137

한·일본 간의 아주국장회의가 1992.10.12.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석우 아주국장
- 일본 측: 이케다 아주국장

2. 회의 결과

-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에 인식 일치
- 군대위안부 문제
  -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1992.7.6.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미흡하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성의 있는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
  - 일본 측은 조기 해결을 희망하며, 진상 규명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후속조치로 기금 조성의 불가피성을 언급
- 사할린동포 문제, 강제 징용, 징병자 문제에 관한 입장 교환 및 향후 외교일정 협의
-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등

92-0363

한·미국 간 러시아 전문가 회의, 제8차. 서울, 1992.6.1.-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24 / 9 / 1-321

제8차 한·미 러시아 전문가회의가 1992.6.1.~2.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권영민 구주국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외 4명
- 미국 측: Kauzlarich 미 국무부 구주담당 부차관보 외 3명

2. 주요 토의 내용

- 미국의 대CIS(독립국가연합) 정책
- 미국의 CIS 정세 평가
- 러시아 정세 평가
- 러시아의 대외정책
- 러시아의 대아·태정책
- 대러시아 지원
- 러시아·북한 관계
- 한·러시아 관계 등

3. 관찰 및 평가

-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선린·협력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에 공감
- 미국 측은 CIS 각국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문제와 대CIS 지원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 표명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 제4차. 북경, 1992.8.19.-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24 / 10 / 1-37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가 1992.8.19.~23. 베이징에서 개최됨.

1. 주최기관
   - 베이징대학 조선문학연구소 및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2. 참석자
   - 중국 150명, 한국 130명, 일본 80명, 북한 80명, 미국 30명, 캐나다 20명 등 총 500여 명

3. 국제학술토론회 성격
   - 주최 측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조총련과 연계)과 베이징대학 측이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진보적 학자들이 호응
   - 한국 정부는 한국 측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학자들의 대거 참여 유도(1990년 193명 참가)
   - 국정원은 국내학자들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학술회의 참가는 허용하되 동 학회 가입 및 서울대회 유치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92-0365

한·중국 학술회의, 제1차. 서울, 1992.11.11.-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22-24 / 11 / 1-57

제1차 한·중국 학술회의가 1992.11.11.~12.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목적

- 외교안보연구원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간의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 계기 마련

2. 참석자

- 한국 측: 한승주 고려대 교수,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안병준 고려대 교수
- 중국 측: 쉬산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장원중 고급연구원, 타오빙웨이 고급연구원, 우징징 연구원, 자오천 부연구원

3. 회의 내용

- 제1세션: 국제 신질서 형성과 한·중국 관계
  - 한·중국 수교와 동북아의 국제 관계: 한승주 교수 발표
  - 신질서에 관한 논쟁: 쉬산푸 부소장
- 제2세션: 한반도 정세
  - 한반도 정세: 유석렬 교수
  - 신시대의 동북아와 한반도: 자오천 부연구원
- 제3세션: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국 관계
  - 한·중국 관계 쟁점과 전망: 안병준 교수
  - 한·중국 수교와 그 영향: 타오빙웨이 고급연구원

한·미국·일본 3자 관계 세미나. 부산, 1992.10.22.-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4 / 12 / 1-23

부산대학교는 탈냉전하의 한·미·일 관계라는 주제로 1992.10.22.~23. 세미나를 개최함.

1. 세미나 개요

- Gregg 주한 미국대사의 제안에 따라 개최되는 세미나로 주한 일본대사관도 개최에 협조
- 당초 Gregg 대사 및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산대생들의 반대로 무산됨.
  - Gregg 대사는 10.24. 유엔묘지 행사차 부산 방문
- John Merrill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아·태담당 분석관 및 Charles Doran SAIS 대학 교수가 외교 분야 관련 발표

2. 주요 발표 내용

- 한·미·일 3국 간의 역사적 관계(Merrill 국무부 분석관)
- 지역 세력으로 일본의 장래와 일본의 대미, 대한국 관계(Doran 교수)
- 한·중국 수교와 한·미·일의 입장(이광규 부산대 교수)
- 한·일본 양국민 간의 상호인식의 차이 및 한·일본 양국 언론의 상호 보도 문제(가와다케 도쿄여대 교수)

92-0367

한·미국 언론학회 학술회의. Montreal, 1992.8.5.-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4 / 13 / 1-128

한·미국 언론학회 학술회의가 1992.8.5.~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미주언론학회 연례총회 계기, 한·미 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 남북한 언론 관련 학술회의 개최

2. 참석자
   - 허종 주유엔 북한차석대사, 재미교포 학자 및 언론인 50여 명, 한국언론학회(회장: 최창석 서강대 교수) 회원 10여 명 등

3. 회의 주제
   - 매스미디어와 한국의 통일
   - 매스미디어와 한·미 관계

4. 허종 주유엔 북한차석대사 연설문 주요 내용
   - 1991년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가 7·4 남북공동성명을 계승한 통일 강령임.
   -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의 언론보도는 체제 발전의 수단일 수밖에 없음.
   - 남북 분단의 책임은 미국과 함께 소련의 민족적·전략적 이익에서 비롯됨.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주관 학술회의. Washington D.C.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4 / 14 / 1-81

조지워싱턴대학과 요미우리신문사 공동주관으로 6개국 학술회의가 1992.5.28.~30.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 정종욱 서울대 교수, 윤정석 중앙대 교수 등
- 북한 측: 김병홍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 이근 평화군축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일훈 연구원 3명

2. 주요 토의 의제

-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CIS(독립국가연합) 내부 정세 및 아시아 안정과 평화에의 영향
- 중국 내부 정치·경제 동향, 중국·미국 관계, 중국의 대주변국 관계
- 일본 내 정당정치 및 경제 동향, 미국·일본 관계, 일본의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 한반도 군축, 남북한 경제교류, 한국 국내정치 동향, 북한 내부정세, 북한의 대미·대일 정책
- 인도네시아·태국의 내부 정세 및 대외정책, 아·태지역 경제협력, 미국·중국·일본의 대동남아 정책

92-0369

미국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4 / 15 / 1-130

1992년 중 미국에서 개최된 한반도 관련 학술회의 관련 내용임.

1. CIA 주관 한반도 통일 문제 세미나(1992.3.4., 워싱턴 D.C.)

- 미국 내 학계 및 연구소의 한국문제 전문가 및 미 국무부 관계자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
- 3개 분야에 걸쳐 패널형식으로 진행
  - 통일 한국: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통일에의 경제적 도전(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한국의 통일 비용)/통일의 의미(동·서독 통일의 교훈, 통일이 미국과의 관계 및 이익에 미치는 의미, 통일 한국의 미래상)

2. 미시건대 주최 한반도 통일 패널(1992.3.14., 앤아버)

- 발표자: Kenneth Liebertal 교수(미시간대, 아시아 정치학), Andrew Nam 교수(웨스턴 미시건대, 동양사), Roads Murphy 교수(미시건대, 동양사), 장도영 박사(웨스턴 미시건대, 정치학), 김응한 교수(미시건대, 경영학)

3. NCC(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KCC(코리아정의·평화·통일을위한교회연합회) 공동 주최 세미나 (1992.5.21., 뉴욕)

-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내부 세미나
  - 윤병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참석

4. 국방대학원·조지워싱턴대 공동 주최 북한 문제 모의연습(1992.7.6., 워싱턴 D.C.)

- 'International Appoaches to Korean Peninsula Security' 제하의 북한 내 경제·정치위기 발생을 가상으로 한 모의연습(Simulation)

5. 북미 한국인 정치학자 협회 주최 세미나(1992.9.5., 시카고)

- 1992.9.2.~6.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정치학회 연례회의 기간 중 북미 한국인 정치학자협회 주관으로 남북한 관계에 관한 별도의 Roundtable 개최
- 'Inter Korean Relations: Perspectives from Pyongyana and Seoul' 주제하에 주유엔 남북한대표부 관계관과 재미 한국인 정치학자 5명 등 7명이 연사로 발언
  - 윤병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허종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참석

Asia Society 한반도 세미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24 / 16 / 1-251

1992년 중 Asia Society 주최 한반도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남가주 Asia Society 주최 한·미 안보·경제 관계 세미나(1992.1.16., 로스앤젤레스)

- 주미대사 연설(US-Korean Economic Relation: Towards a Trans-Pacific Partnership)
- Gregg 주한 미국대사 오찬 연설(US-Korean Relation: New Perspectives in a Changing, Vital Relationship)
- 경제·안보 관련 Panel Discussion(주제: 한국 시장 자유화, 한국의 자본시장 및 투자 기회, 한국의 세계경제에서의 확대된 역할, 1990년대 동북아 안보)

2. Asia Society와 미시건대 아시아센터 공동 주최 한반도 세미나(1992.1.30.~31., 랜싱)

- 세미나 주제: Korea: Its Political and Economic Future
- 회의 진행
  - 동북아 안보 환경(1부), 한국 통일의 대체 모델(2부), 한국 통일의 장애 요인(3부), 남북관계 전망(4부) 등으로 나누어 진행
  - 세미나에 초청된 이근 평화군축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북한대표단 3인은 1부, 2부, 4부에서 주제 발표
- 노창희 주유엔대사, 만찬 기조연설(연설문, 첨부)
  -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대화, 북한 핵 문제 및 남북한 유엔가입 등 남북관계 진전 동향 및 과제, 통일 문제 등 설명
- 세미나 발표 논문 수록

3. 콜롬비아대 한국학센터와 Asia Society(스칼라피노 프로그램) 공동 주관 남북한 관련 세미나 (1992.3.6., 콜롬비아대)

- 주제: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 발표자: 서대숙 교수(하와이대 정치학교수)

4. Asia Society 북한 관계 간담회(1992.3.11., 워싱턴 D.C.)

- Asia Society는 서대숙 교수 및 John Merrill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한국문제 분석관을 연사로 초청하여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제하의 간담회 개최



5. 미시건대와 Asia Society 공동 주관 한국문제 관련 심포지엄(1992.4.10., 앤아버)

- 현홍주 주미대사는 'Emerging Korea: Korea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in the World Today' 제하의 심포지엄에 참석
  - Solomo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김경원 사회과학연구원장 등과 한반도 최근 정세에 대해 발표 및 토론

6. Asia Society 주관 세미나(1992.4.13., 뉴욕)

- 현홍주 주미대사는 'Economics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제하의 세미나에 참석, 오찬 연설
  -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 세미나는 한반도 경제·안보 문제와 관련 3개 분야로 나뉘어 개최
  - 한반도와 지역 경제,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대화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체제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 제2-4차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24 / 17 / 1-107

1990~92년 중 제2~4차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됨.

1. 제2차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1990.9.24.~30., 서울)

- 회의 주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 회의 주제: 1990년대 변화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한·베트남 경제협력
  - 1990년대 한국과 베트남의 현안 경제 문제와 상호 경제협력에 관해 토의
- 주요 일정
  -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코트라, KDI(한국산업개발연구원), KIET(산업연구원), 선경, 대우, 삼성그룹 등 방문
  - IPECK·베트남 상의 간 의향서(Letter of Intent) 교환

2. 제3차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1991.6.6.~12,, 하노이)

- 회의 주최: 베트남 상공회의소
- 회의 주제: 산업화 과정의 동반자, 한·베트남 경제협력
- 한국 측 참가계획
  - 김달중 연세대 교수, 박성상 한국산업연구원장 등 11명 연구 발표

3. 제4차 한·베트남 국제학술회의(1992.5.27.~28., 서울)

- 회의 주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 회의 주제: 산업화 과정 동반자 한·인도차이나 3국의 경제협력과 투자환경
- 인도차이나 3국 참석자: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정부부처 국장급 8명, 캄보디아 경제부 기획국장, 라오스 대외경제부 투자국장
- 면담 자료 및 결과
  -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Pham Chi Lan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소장·Bui Xuan Nhat 베트남 외무부 경제문화협력국장 면담자료
  -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윤해중 아주국 심의관, Bui Xuan Nhat 베트남 외무부 경제문화협력국장 면담 결과

92-0372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0회. 동경, 1992.10.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5 / 1 / 1-55

제30회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92.10.1.~3.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현확 명예회장
- 일본 측: 후쿠다 전 총리

2. 회의 의제

- 한국 측
  -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일본 양국의 협력 방향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한·일본 간 경제협력
- 일본 측
  - 세계사의 전환기에 있어서의 동북아시아
  - 20세기 최후의 10년: 세계와 아시아와 일본의 경제

3. 한·일 협력위원회 대표단 방일 결과

- 제30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개최
  - 의제에 대한 토론 및 공동성명 채택
- 공동성명 요지
  - 아·태지역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본 양국의 역할 중요 및 협력 다짐
  - 일·북한 및 미·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무역불균형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양국 정부에 촉구
  - 과거사 문제 조속 해소 및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 노력
- 대표단, 미야자와 총리 예방

한·일본 협력위원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5 / 2 / 1-167

1992년 중 한·일본 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한·일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최

- 1992.2.11. 한일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 정세 브리핑 요청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브리핑 실시(자료: 최근의 한·일본 관계)

2. 일·한 협력위원회 친선대표단 방한(1992.4.26.~30.)

- 부산, 경주, 포항, 판문점 등 시찰
- 김영삼 민자당 대표, 김대중 민주당 대표, 정주영 국민당 대표 등 예방

3.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이사회 및 심포지엄(1992.8.24.~26., 제주)

- 합동이사회
  - 제30회 합동회의에 관한 사항(기간, 장소, 의제, 공동성명 등) 논의
  - 제30회 합동회의를 1992.9.30.~10.2. 일본 도쿄에서 개최 결정
- 합동 심포지엄
  - 주제: 한·일본 남서부지역 경제권 개발과 협력

92-0374

1992년도 외빈 방한 접수계획 및 현황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3 / 1-147

1992년 중 외빈 방한 접수계획 및 실적, 정상 방문외교 관련 자료임.

1. 주요 국제행사 예정표(1992.1.22.,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 월별 한국 관계, 북한 관계, 국제 관계 행사일자

2. 1992년도 외빈 영접계획 검토(1992.1.30., 의전담당관실)
   - 가용 예산, 방한 계획(확정 인사, 신청 인사), 조정 방안

3. 1992년도 외빈 영접계획(1992.1.31., 의전장실)
   - 1992년도 외빈 영접 관련 가용 예산
   - 외빈 방한 접수계획: 국가원수, 총리급, 외무장관급
   - 방한 확정 및 접수 고려(가능) 인사 지역별 구분
   - 향후 조치계획

4. 1992년 반기별 외빈 방한계획(외무부 의전장실)

5. 1992년 월별 외빈 방한계획 및 실적(외무부 의전장실)

6. 1992년 외빈 방한 실적(외무부 의전장실)

7. 1988~92년간 주요 외빈 방한 및 정상 방문외교
   - 총괄(주요 외빈 방한, 대통령 순방)
   - 주요 외빈 방한: 1988~92년 기간 중 국가원수급, 총리급, 외무장관
   - 대통령 순방 외교: 1988~92년 방문국, 방문 기간, 방문 횟수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1992.9.27.-30. 전6권 (V.2 계기별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2-25 / 5 / 1-309

노태우 대통령의 1992.9.27.~30. 중국 방문 시 계기별 말씀자료임.

1. 출국 인사(9.27.)

2. 교민 초청 리셉션: 대통령 인사말씀, 대화자료(9.27.)

3. 양상곤 국가주석 주최 공식만찬 시 대화자료(9.28.)

4.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 연설문, 말씀자료(9.28.)

5. 이붕 국무원 총리 내외 접견 시 말씀자료(9.29.)

6. 이붕 총리 내외 주최 오찬 시 대화자료(9.29.)

7. 강택민 당 총서기 면담 시 말씀자료(9.29.)

8. 기자회견: 서두연설, 예상 질문과 답변자료(9.29.)

9. 민속공연 관람 시 말씀자료(9.29.)

10. 일반 말씀자료

11. 상해시장 내외 주최 오찬 시 대화자료(9.30.)

12. 상해 임시정부청사 시찰 시 말씀자료(9.30.)

13. 영부인 말씀자료

14. 귀국인사(9.30.)

92-0376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1992.9.27.-30. 전6권 (V.5 해외 언론반응)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2-25 / 8 / 1-136

노태우 대통령의 1992.9.27.~30. 중국 방문 관련 해외 언론의 기사 및 반응임.

1. 중화계 언론의 기사 및 반응

- 중국, 대만 및 싱가포르 언론이 노 대통령 방문 기사 게재
  - 싱가포르 Strait Times(1992.9.29.): 한·중 정상회담의 의의, 방중 일정,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한·중 관계의 과거 및 현재 등에 대해 보도
- 특히 홍콩 언론은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기사 게재
  - SCMP(9.27.): 노 대통령 독점 인터뷰 기사 게재
  - 대공보(9.27.): '노태우 중국 방문과 한·중 관계' 제하 평론문에서 노 대통령 중국 방문 의의 평가
  - 성도일보(9.28.): 양국 경제 전망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북한·대만과의 관계 등 분석

2. 일본 언론의 기사 및 반응

- 아사히신문(1992.9.28.): 한·중 수교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국제 정세 및 양국 간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남북 간 화해, 북한 핵문제 등 논의)
- 요미우리신문(9.28.): 동북아지역 냉전 구조 변화 및 새로운 관계 모색 계기
- 일본경제신문(9.28.): 동북아지역 정치·경제 질서 재편 가속화, 북한이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3. 서방 언론의 기사 및 반응

- 프랑스, 독일, 미국, 헝가리 등의 언론이 방중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룸.
  - 독일 Sueddeutsche Zeitung(1992.9.29.): '두 번째의 커다란 전환점' 제하 기사 수록
  - 헝가리 Hagtar Hirlap(9.29.): 노 대통령 방중 관련 논평 수록
- 기타 전 세계 각국 언론이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보도

92-0377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1992.9.27.-30. 전6권 (V.6 감사서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2-25 / 9 / 1-83

노태우 대통령의 1992.9.27.~30. 중국 방문 이후 대통령과 영부인이 감사서한을 발송함.

1. 대통령 명의 감사서한
   - 양상곤 국가주석, 강택민 당 총서기, 이붕 총리, 전기운 부총리
   - 전기침 외교부장, 이람청 대외경제부장, 송건 과학기술위 주임

2. 영부인 명의 감사서한
   - 이붕 총리 부인, 이람청 대외경제부장 부인, 황국 상하이시장 부인

92-0378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1 선발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10 / 1-170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 선발대에 관한 내용임.

1. 파견 준비

- 1992.8.26. 외무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정부합동답사반에 포함될 직원 추천 요청
- 8.26. 외무부, 주중국대사에게 답사반 접수 준비에 참고하도록 항공일정 등 답사반 방문계획 통보
- 8.27. 외무부, 주중국대사에게 숙소 예약, 차량 준비, 합동회의 자료 준비 및 중국 측과 일정 협의 등 답사반 활동에 필요한 준비 지시
- 8.28. 외무부는 정부합동답사반 파견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외무부(장선섭 의전장 등 4명), 대통령 비서실(의전), 대통령 경호실 직원 등으로 구성

2. 활동 결과

- 중국 측과 합동회의를 통해 방문일정 잠정 합의
- 행사장 답사
  - 베이징: 인민대회당, 조어대, 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푸단대학

3. 참고자료

- 정부합동선발대 일정(주중국대사관)
- 정부합동선발대 보고 자료(1992.8.30., 주중국대사관)
- 북악산 선발대 자료(1992.8.30., 외무부)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2 일정 I : 8월-9.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11 / 1-243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 선발대에 관한 내용임.

1. 의전사항 협의

- 1992.9.7. 외무부는 기상조건 및 복장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바, 9.8. 주중국대사관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기상조건 및 복장을 보고함.
- 9.8. 주중국대사관은 아래 사항의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함.
  - 공항 도착, 교민 리셉션,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확대회담, 만리장성 시찰, 이붕 내외 접견, 이붕 총리 주최 오찬 참석, 기자회견 등
- 9.16. 주중국대사관은 교민 대표 초청 리셉션에 조선족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중국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2. 1992.9.18. 외무부는 주중국대사에게 확정된 행사일정을 통보함.

- 9.27.~30. 일정 및 영부인 별도 일정

3. 1992.9.24. 주중국대사는 외무부에 중국 측과 협의한 일정 및 세부계획을 보고함.

- 환영행사 시 수행경제인의 도착 및 출발일자, 환영행사 후 정상회담 이동 절차 등

92-038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3 일정 II : 9.25.-10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12 / 1-125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사항에 관한 내용임.

1. 1992.9.27.~9.30. 주중국대사관은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9.27. 대통령 내외분 베이징 도착, 교민 대표를 위한 리셉션 참석
- 9.28. 공식 환영행사 참석,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9.29. 이붕 총리 접견 및 이붕 총리 주최 오찬 참석, 강택민 총서기 면담
- 9.30. 무역협정 등 4개 협정 서명식 임석

2. 경제인 일정

- 9.14. 외무부, 주중국대사관에 한·중 경제인 오찬 절차(안) 통보
- 9.17. 주중국대사관, 중국국제상회 측과 민간경제협의회 개최에 관해 협의한 내용 보고
- 9.23. 주중국대사관, 외무부에 한·중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 보고

3. 참고자료

- 대통령 내외분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방문계획(1992.9월, 외무부)
  - 비행 일정, 수행원, 방문 일정 개요, 세부 일정, 기타 준비사항
-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 시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1992.9.28., 베이징 조어대)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4 상하이 일정)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13 / 1-128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사항 중 상하이 일정에 관한 내용임.

1. 1992.9.7. 외무부는 주중국대사관에 상하이 방문 추진 일정을 통보하고, 중국 측에 대한 통보 및 필요조치를 지시함.
   - 임시정부청사 방문 시 방명록 서명 문안에 대한 보고 지시
   - 푸단대학교 방문 시 명예박사학위 수여 협의

2. 1992.9.15. 주중국대사관은 허세린 공사가 상하이시 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함.
   - 상하이 공항 및 호텔 도착, 상하이시장 주최 오찬 참석,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시찰 일정 등 관련 세부 내용

3. 1992.9.19. 주중국대사관은 상하이 숙소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VIP PRS 1실, 공식수행원, 청와대 CP, 대사관 준비요원 CP, 경호 CP, 연회실 등

4. 1992.9.19. 주중국대사관은 상하이 일정 차량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대형버스 7대, 승용차 16대, 밴 3대 등

92-0382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5 수행원)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14 / 1-156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사항 중 수행원에 관한 내용임.

1. 수행원 명단

- 수행 경제인 선정 기준
  - 10대 그룹 회장, 10대에는 속하지 않지만 대중국 교역 및 투자활동이 크거나 지사 설치 또는 민간경협위원회 참여 기업,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기업 및 기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현재 중국에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 기타 민간경협위원회 부회장 또는 현안이 있는 기관 대표, 각계 대표
- 공식 수행원(안)
  - 이상옥 외무부장관, 한봉수 상공부장관,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 손주환 공보처장관, 노재원 주중국대사 부부,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이현우 대통령 경호실장, 이진설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이필섭 합동참모의장,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김학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이병기 대통령 의전수석 비서관, 최규완 대통령 주치의, 장선섭 외무부 의전장, 김석우 아주국장

2. 출국 협조

- 1992.9.13. 주중국대사관, 외무부에 출입국 신고서 송부
- 9.14. 외무부 의전실, 재외국민영사국에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 및 한국통신공사 직원들에 대한 특정 국가 여행허가 등 출국에 필요한 조치 요청

92-0383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6 특별기 / 경호 / 통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5 / 15 / 1-174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사항 중 특별기 및 경호 등에 관한 내용임.

1. 특별기

- 1992.9.2. 김하중 주중국대사관 참사관은 이빈 중국 외교부 조선처장을 면담, 특별기 운항 관련 사항을 협의함.
  - 김 참사관은 대통령 특별기의 서울-베이징 직항항로 이용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입장 문의
  - 이빈 처장은 외교부 측으로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대통령 특별기를 운항할 항공회사에서 중국 민항 측에 직항로 이용에 관한 허가 신청을 조속히 제출해 주기를 바라며, 중국 민항 측에서 의견을 문의해 올 경우 즉시 허가하겠다고 답변

2. 경호

- 방탄 차량
  - 1992.9.9. 중국 외교부 의전국은 대통령 내외의 베이징 체류 기간 중 대통령용으로 벤츠 방탄차, 대통령 부인용으로 캐딜락 방탄차 제공 의사를 통보함.
  - 9.11. 중국 외교부 의전국 부처장은 상하이 체재 기간 중 대통령 내외를 위한 방탄차(차종: 홍기) 2대 준비 통보

3. 통신

- 1992.9.5. 주중국대사관은 통신업무 실무부서인 우전부 베이징시 전신관리국과 실무회의를 위해 통신계획 및 소요회선 재확인을 건의함.
  - 9.9. 외무부는 공관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회신

92-0384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7 숙소 / 인력지원)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1 / 1-151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사항 중 숙소 및 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임.

1. 숙소

- 1992.9.7. 주중국대사관은 조어대 숙소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함.
- 9.8. 중국 외교부 의전사 직원은 한국 수행원 숙소로 조어대 2호, 6호 및 9호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 9.10. 외무부는 주중국대사관에 숙소(조어대, 샹그릴라 호텔) 관련 자료 보고를 지시함.
  - 9.14. 주중국대사관은 전화 사용법, 편의시설 및 식당 등 숙소 관련 내용을 보고함.
- 9.18. 외무부는 주중국대사관에 수행경제인 숙소 배치 지침을 통보하면서 배치 후 결과 보고를 지시함.
- 9.19. 외무부는 주중국대사관에 비공식수행원 명단을 통보하고 배치 후 결과 보고를 지시함.

2. 인력 지원

- 1992.8.26. 외무부는 대통령 행사 지원을 위해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지원요원 파견 관련 재가를 득함.
  - 해당 공관장들에게 동인들이 주중국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는 데 대한 양해 지시
- 9.7. 외무부는 대통령 행사 지원을 위해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지원요원 추가 파견에 관한 재가를 득함.

3. 공보 협조

- 1992.9.14. 주중국대사관은 외무부에 비표, 취재 신청, 취재 공통 참고사항에 관한 주재국 측 설명 내용을 보고함.
- 9.15. 외무부는 주중국대사관에 대통령 기자회견 진행 절차를 통보함.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8 의전용품 / 선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2 / 1-167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용품 및 선물에 관한 내용임.

1. 의전용품

- 1992.9.9. 외무부, 주중국대사관에 의전용품 송부
  - 대통령 존영, 내외분 사진, 명함 및 봉투
  - 경제인 오찬 초청장 및 봉투
  - 병풍, 탁상기, 태극기, 선호 음악 악보 및 테이프 등
- 9.16. 외무부, 주중국대사관에 의전용품 추가 송부
- 9.22. 외무부, 주중국대사관에 자체 연회 행사별 선정 메뉴 통보

2. 선물

- 1992.9.10. 주중국대사관, 선물 대상자 및 품목에 대한 의견 보고
  - 양상곤 국가주석: 홍삼(대), 자개서류함
  - 강택민 총서기: 홍삼(대), 칠보보석함
  - 이붕 총리: 홍삼(대), 칠보커피세트
  - 기타: 분청항아리, 은제 티스푼, 자동카메라, 넥타이, 스카프 등

92-0386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9 예산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3 / 1-110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 예산에 관한 내용임.

1. 예산 신청

- 1992.9.1. 주중국대사관, 외무부에 대통령 행사 경비를 신청함.
- 9.3. 외무부 아주국, 의전실에 대통령 행사 소요 예산을 송부함.
- 9.5. 외무부 기획관리실, 의전장실에 대통령 행사 소요 예산을 제출함.
- 9.5. 대통령 경호실, 외무부에 대통령 행사 소요 예산을 신청함.

2. 예산 배정

- 1992.9.21. 외무부는 대통령 행사 예비비 배정 및 집행과 관련 재가를 득함.
  - 해당 부서에 통보 및 예산 배정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의전], 1992.9.27.-30. 전10권 (V.10 예산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4 / 1-242

1992.9.27.~30.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 관련 의전 예산에 관한 내용임.

1. 경비 지불

- 1992.8.28. 외무부, 대통령 행사 정부합동답사반(선발대) 파견 활동비 지출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출장 기간: 1992.8.30.~9.4.
  - 출장자: 이병기 의전수석 외 31명
  - 출장 활동비: 50,000달러
- 8.29. 외무부 의전장실, 경비 76,006달러 지불 의뢰
- 9.23. 외무부 의전장실, 경비 1,380,300달러 지불 의뢰
- 10.31. 외무부 의전장실, 출장 항공료 경비 지불 의뢰
- 12.22. 주중국대사관, 대통령 행사 예산 집행 결산 보고

2. 항공기 임차

- 항공기 임시 가격(대한항공)
- 항공기 견적 가격(대한항공)
- 1992.10.21. 외무부 의전실, 총무과에 대통령 행사 전세항공료 임차료 지불 의뢰
  - 지불액: 482,545,050원(611,738달러)

92-0388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6 / 5 / 1-280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11.8.)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17.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일 정상 간에 격식을 차리지 않는 정상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확인
- 1992.9.21. 유엔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와타나베 일본 외상 접견 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한·일 정상 간 협의 필요성 거론
- 1992.9.30. 일본 정부, 11월 중 노 대통령의 방일 제의
- 1992.10.30.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와타나베 일본 외상 회담 시 방일에 관한 합의사항 확인
  - 노 대통령 방일 일자 및 장소를 1992.11.8. 교토로 확정

2. 방일 성격 및 의의

- 성격: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정상 간에 격식을 차리지 않은 최초의 회동
- 의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등

3. 주요 일정

- 정상회담·확대회담, 미야자와 일본 총리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간담, 재일동포 대표와의 간담회

4. 자료

- 홍보 대책
  - 서해사업 홍보대책(10월, 아주국), 대통령 방일 홍보대책(11월, 아주국)
- 대통령 방일 추진 현황(정무 관계)(11.4. 현재, 아주국)
  - 주요 일정, 정상회담, 홍보대책, 청와대 제출자료
- 교토회담(1992.11.8.)의 배경과 의의(사전홍보자료)(11.4., 주일본대사관)
- 기자 간담회 자료(11.6., 아주국), MBC 인터뷰 자료(11.8., 아주국 동북아1과), 교민대표 접견 시 격려사(11.8., 오사카)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2 정상회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6 / 6 / 1-176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11.8.) 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관련 내용임.

1. 정상회담 의제

-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일반(한국 측 리드)
  - 대미 관계(미 대통령 선거 결과 포함): 일·미 관계(일 측 리드), 한·미 관계(한국 측 리드)
  - 대중국 관계: 일·중국 관계(일 측 리드), 한·중국 관계(한국 측 리드)
  - 대러시아 관계: 일·러시아 관계(일 측 리드), 한·러시아 관계(한국 측 리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국제경제 문제(일 측 리드)
- 한반도 정세
  - 남·북한 관계(북한 정세 포함, 한국 측 리드)
  - 북한 핵문제(한국 측 리드)
  - 일·북한 관계(일 측 리드)
- 한·일 관계 일반(한국 측 리드)

2. 정상회담 결과

- 일본 측은 남북대화가 한걸음씩 전진해나가고 있음을 환영하고, 대화의 계속적인 진전에 기대 표명
-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동보조 유지에 합의
- 북한의 핵개발 의혹 완전 불식을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보완하는 남북 상호사찰 촉구 합의
- 양국 간 현안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 일치

92-0390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3 자료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6 / 7 / 1-162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1992.11.8.) 관련 자료임.

1. 오찬 시 대화자료(1992.11.8., 외무부)

2. 미야자와 총리 주최 오찬 시 노 대통령 답사(안)(1992.11월, 외무부)

3. 산보 시 대화자료(1992.11.8., 외무부)

4. 교민 대표 접견 시 대화자료(1992.11.8., 외무부)

5. 외무장관 보고자료(서해사업)(1992.10.28., 주일본대사관)

6. 대통령 방일 정무 관계 자료(1992.11.7., 외무부)

92-0391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1992.11.8. 전4권 (V.4 자료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26 / 8 / 1-213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11.8.) 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외무부 각 실·국 소관자료임.

1. 외교정책기획실: 국제정세 일반, APEC 현황, 동북아 유관국 대화, 대러시아 관계 발언자료(안), 아·태지역 경제통합

2. 문화협력국: 한·일 간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 문제

3. 국제경제국: 국제경제 현황

4. 주일본대사관 영사과: 재일 한국인 주요 통계자료

5. 주일본대사관 정무과: 회담 장소(つる家: 쓰루야) 관련 자료, 京都 속의 한국

92-0392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1 일정 및 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9 / 1-217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11.8.) 관련 일정 및 준비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방일 일정(안)

- 08:45 서울공항 출발
- 10:15 오사카공항 도착(와타나베 외상 영접)
- 10:20 교토 향발(차량편)
- 11:25 교토 회담장(쓰루야) 도착(미야자와 총리 영접)
- 11:25~11:45 휴식
- 11:45~13:15 정상회담
- 13:15~14:45 확대회담 겸 일본 총리 주최 오찬
- 14:45~15:00 휴식
- 15:00 오사카 향발
- 15:50 오사카공항 도착
- 15:55~16:35 교민 대표 접견 (공항 귀빈실)
- 16:40 오사카공항 출발
- 18:40 서울공항 도착

2. 정부 합동답사단 관련 자료 및 결과보고

- 서해사업행사 추진 점검표(공관 준비 및 보고사항)(1992.10월, 외무부 의전장실)
- 정부합동답사단 안내자료(1992.10.26., 외무부 의전장실)
- 정부합동답사단 일정(서해사업)(1992.10.27.~29, 주일본대사관)
- 정부합동답사단 보고자료(서해사업)(1992.10.29., 주일본대사관)
- 합동답사 결과보고(1992.10.30., 외무부 의전담당관실)

3. 일본 방문 세부 일정(1992.11.8., 청와대 의전비서실)

92-0393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2 수행 및 경호)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10 / 1-145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11.8.) 관련 수행 및 경호 내용임.

1. 수행원

- 1992.11.3. 외무부, 본대 수행원, 지원 인력(청와대, 외무부), 경호원, 언론인, 승무원 명단을 일본 측에 통보하고 사증발급 및 출입국 수속 등 협조 요청

2. 경호 협조

- 1992.10.24. 외무부, 대통령 경호실의 요청으로 아래 자료를 작성, 정부합동답사팀에게 전달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 행사장별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지도 및 안내책자 확보, 각 행사장별 요도 확보, 경호기관 및 책임자 인적사항, 지도 이정표 등 양식
- 11.3. 외무부, 경호 선발 및 특별전용기 승무원에 대한 대리수속, 자상조업 협조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3. 특별기 운항

- 대통령 특별전용기의 항로 및 공항답사단 일본 방문(1992.10.29.~31.)
  - 공항 관계관 회의 및 헬기운항 관계관 회의
- 1992.10.27. 외무부, 특별기의 운항 허가를 취득을 위한 허가 신청자료 및 운항 스케줄을 주일본대사관에 타전, 결과보고하도록 지시

4. 인력 지원

- 대통령 방일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오사카총영사관에 외신관 및 의전 선발요원 등 인력 지원

5. 숙소, 차량

- 1992.10.31. 외무부, 행사 관련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및 외무부 선발 요원과 기자단의 숙소 배치(안), 의전 선발, 경호 선발 및 기자단의 차량 소요를 통보, 임차 조치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6. 홍보

- 1992.10.25. 주일본대사관, 대통령 방일 홍보계획 수립 및 외무부에 소요예산 지원 요청

92-0394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3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11 / 1-81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1992.11.8.) 관련 참고자료임.

1. 교토 관련 자료(1992.10월, 주일본대사관 정무과)
   - 교토의 자연환경, 교토의 역사, 교토시의 제반 지표, 교토의 명승지

2. 회담 장소(쓰루야) 관련 자료(1992.10월, 주일본대사관 정무과)

3. 일본의 미, 교토 춘하추동(日本の美, 京都 春夏秋冬)

4. Miyako Hotel Floor Plan: 미야코호텔 층별 단면도

5. 각종 지도 및 도면
   - 헬리콥터 좌석배치도, 교토-오사카 간 고속도로 지도, 오사카 국제공항 단면도, 미야코호텔 인근 지도, 행사장(쓰루야) 안내도

92-0395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의전], 1992.11.8. 전4권 (V.4 예산)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12 / 1-227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11.8.) 관련 행사를 위한 예산 내용임.

1. 행사 소요예산 건의

- 1992.10.22. 외무부, 표제 행사를 위해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소요될 경비를 공관별, 예산목별로 신청 건의하도록 지시
  - 10.26. 주일본대사관, 예산 신청
- 행사 준비를 위한 정부합동답사단, 의전수석비서관 등 개별 출장자의 출장 경비와 홍보계획 집행을 위한 지출 건의
- 11.2. 외무부, 행사 소요예산 집행 내부결재
  - 소요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집행하되, 금번 방문이 9월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연설 및 중국 방문과 연결되는 성격임을 감안, 동 2개 행사 예비비 중 불용액에서 집행

2. 행사 경비 집행

- 1992.11.4. 외무부, 행사 경비를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등에 송금 조치
- 행사 기간 중 및 행사 종료 후 아래 비목의 경비 지급
  - 대통령, 수행원, 경호 및 의전 요원 숙박비, 항공료 등 여비
  - 각종 인쇄물, 행사 비품 등 구입비
  - 정부교섭, 홍보대책 및 교민대책비, 출장인원 개인활동비
  - 방문국 관계자 접촉 특별판공비
  - Hot-line 설치, 텔렉스, 전화요금 등
  - 프레스센터, 행사차량, 사무기기 등 임차료
  - 오사카공항 지상 비용, 교민 접견행사 관련 경비 등

92-0396

노태우 대통령 스페인, 태국 및 싱가포르 방문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6 / 13 / 1-279

1991~92년 중 노태우 대통령의 스페인, 태국 및 싱가포르 방문을 추진함.

1. 노태우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올림픽(1992.7.25.~8.9.) 개막식 참석 계기 스페인, 태국 및 싱가포르 방문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치 현안으로 인해 이를 취소함.

2. 정상의 해외 방문 시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에 관한 내용 수록

- 일정 교섭
- 국별 의전계획
- 친서
- 숙소 및 경호
- 각종 자료준비
- 홍보
- 선물 등

92-0397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7 / 1 / 1-248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대언론 발표

- 1992.8.27. 청와대 대변인은 노태우 대통령이 제47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92.9.20.~24. 뉴욕을 방문 예정이며, 방문 기간 중 유엔총회에서 연설, 총회에 참석하는 주요 국가 수뇌들과 회담, 미국 각계 지도자 및 교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함.

2. 유엔 방문 의의

- 유엔을 활용한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 안보협력을 더욱 확고히 함.

3. 공식수행원

- 이상옥 외무부장관, 현홍주 주미국대사 등 11명

4. 한·미 정상회담 추진

- 1992.6월부터 정부는 미국 정부에 노 대통령의 유엔 방문 계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미국 측은 9.17. 부시 대통령의 노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금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어려운 국면 등을 이유로 정상회담의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함.

5. 유엔 방문 후속조치

- 정부는 노 대통령의 유엔 방문 동안 수고한 프리차드 워싱턴주 부지사, 랄프 먼로 워싱턴주 국무장관, 전 닉슨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주요인사에게 노 대통령 명의 감사 서한을 송부함.
- 전 닉슨 대통령 등 미국 인사들도 노 대통령 앞으로 감사 서한을 송부함.

92-039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2 주요 일정 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7 / 2 / 1-166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계기 개최된 교민 행사 및 미 언론사 주최 만찬 대화자료임.

1. 미국 교민 행사자료

- 앵커리지 인사 및 교민 접견자료
  - 말씀자료, 인적사항(Tom Fink 앵커리지 시장, W.J. Hickel 알래스카 주지사 등)
- 뉴욕 교민 초청 리셉션 말씀자료
  - 뉴욕시 개황(개관, 역사, 정치, 경제, 인종, 언론기관, 문화, 관광 등)
- 뉴욕 교민 초청 리셉션 시 대화자료
  - 헤드테이블 대화 대상자, 뉴욕 개황

2. 월스트리트저널지(WSJ) 발행인 주최 만찬 시 대화자료

- 만찬 시 대화자료
  - 알렌 알렌사 회장, 피터 칸 WSJ 발행인 겸 다우 존슨 회장
  - 피터슨 국제관계협회 의장, 외아트 헤드 아시아협회 이사장 등
- WSJ 개황

92-039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3 주요 일정 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7 / 3 / 1-176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계기 개최된 주요 행사자료임.

1. 아시아협회 만찬 말씀자료(1992.9.23.)
   - 헤드테이블 참석자별 대화자료
     - 리드시티사 및 시티은행 사장
     - 외이트 헤드 아시아협회 이사장
     - 옥스남 아시아협회 회장
     - 스칼라피노 교수
     - 클라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인적사항, 아시아협회 개황

2. 닉슨 전 대통령과의 오찬 시 말씀자료(1992.9.23.)
   - 인적사항
   - 말씀 요지
     - 인사말씀, 미국의 대외정책
     - 동북아 신질서 형성
     -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 항구적 한·미 동반자 관계
     - 맺음말씀

3.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협회 초청 연설문(1992.9.23.)
   - 연설 제목: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미 동반 관계(영문 및 국문)

92-040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92.9.20.-25.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27 / 4 / 1-115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준비를 위해 정부가 작성한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인사 접견자료임.

1. **알래스카 주지사 접견 시 말씀자료**(1992.9.20.)
   - 인적사항, 말씀 요지, 알라스카 개황

2. **한·미 정상회담 자료**(1992.9.21.)
   - 부시 대통령 인적사항
   - 말씀자료
     - 인사말씀, 국제정세와 미국의 리더십, 동북아 신질서 형성
     - 한·미 양국관계
     - 맺음말씀

3. **한·미 정상회담 참고자료**(1992.9.21.)
   - 부시 대통령 신상자료, 미국 개황

4. **스코우크로프트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접견 시 말씀자료**(1992.9.21.)
   - 인적사항, 말씀요지

5. **이글버그 미 국무장관대리 접견 시 말씀자료**(1992.9.21.)
   - 인적사항, 말씀 요지

6. **클라크 국무부 차관보 접견자료**(1992.9.21.)
   - 인적사항, 말씀자료

7.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시 말씀자료**(1992.9.2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 준비현황)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5 / 1-206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의전 준비 현황임.

1. 1992년 해외순방계획(1992.2.27., 외무부)
   - 제25회 올림픽대회 참관 계기 태국, 스페인, 싱가포르 3국 방문
   -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방미
     - 유엔총회 기조연설 개시일(9.21.) 전후 4박 5일 내외

2. 1992년도 하반기 순방계획 검토(1992.5월, 외무부)
   -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석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스페인, 태국, 싱가포르 방문계획 유보
   -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추진

3. 주미국대사 건의 세부 일정에 대한 검토의견(1992.6월, 의전실장)
   - 주미국대사 건의 세부 일정(안)
   - 세부 일정(수정)
   - 항공 일정(안)

4. 일정(안) 검토(1992.7.15., 외무부)
   - 항공 일정(서울, 앵커리지, 뉴욕, L.A., 서울)
   - 체류 일정
   - 검토사항
   - 참고자료

5. 행사별 참석범위(안)

6. 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연설을 위한 미국방문계획(1992.9.15., 외무부)

92-040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2 선발대)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6 / 1-212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선발대 내용임.

1. 정부합동답사단 파견(1992.8.9.~17.)

- 방문지(1개국 3개 지역)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앵커리지
- 답사기간: 1992.8.9.~16.(앵커리지 답사요원: 1992.8.14.~16.)
- 활동내용: 현지 공관과의 행사 준비 협의 및 현장답사
- 주요 협의사항
  - 로스앤젤레스: 행사 관련 진행사항,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및 기념도서관 시찰, 교포 피해지역 시찰, 교민 리셉션 등
  - 뉴욕: 도착인사, 교민초청 리셉션, 우방국 지도자 면담추진, 유엔총회 연설,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등
  - 앵커리지: 알래스카 주지사 등 미국 측 5명과 한인회장 등 교민대표 접견, 앵커리지 시장 및 교민대표 다수 접견

2. 주미국대사관 관련 사항

- 주미국대사는 6.2. Paal NSC 아주담당 선임보좌관 면담 시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 주선을 요청함.
  - Paal 보좌관은 한국 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 주미국대사는 6.4. Kanter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 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요청함.
- 주미국대사는 6.19. 대통령 내외분의 미국 방문 일정(안)을 건의
  - 뉴욕 체재 일정은 주유엔대사와 협의, 유엔 관련 행사는 주유엔대사가 별도로 건의 예정
- 주미국대사는 9.4. 부시 미국 대통령 측이 9.23. 오찬행사에 동의함을 보고함.
- 주미국대사는 9.12. WSJ 만찬 관련 사항을 보고함.

92-0403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3 일정 I : 유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7 / 1-142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유엔 방문 일정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1992.6.20. 날짜별 체류 일정안을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9.21. 미국 대통령 주최 리셉션, 교민 리셉션, 비공식 만찬 참석 등
- 9.22. 유엔사무총장 면담, 유엔 연설 등
- 9.23. 아시아협회 만찬 연설 등
- 9.24. 특파원과의 조찬 간담, 지사장 대표 접견, 뉴욕시장 접견 등

2. 주유엔대사는 1992.7.31. 뉴욕 근교 시찰 일정을 건의함.

- IBM, Advanced Silicon Technology Center 또는 IBM Plant(생산시설) 방문
- 영부인 별도 일정(안)
  - 미국 요리전문학교, 루스벨트 기념관 및 Hyde Park 방문 등

3. 주중국대사는 1992.8.29. 유엔총회 기간 중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 중국 측은 구체적인 예방 일시는 양국의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확정하자고 함.

4. 주유엔대사는 1992.9.13. 유엔사무총장 의전장이 9.21. 사무총장 오찬에 한국 대통령이 꼭 참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해왔다고 보고함.

5. 주유엔대사는 1992.9.13. 대통령의 유엔사무총장 면담 및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보고함.

92-0404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4 일정 II : 미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8 / 1-202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미국 방문 일정 보고 내용임.

1. 시애틀(앵커리지)

- 외무부는 1992.7.16.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대통령 내외분이 제47차 유엔총회 참석차 특별기편으로 뉴욕 향발 도중에 앵커리지를 아래와 같이 경유할 예정임을 통지함.
  - 9.20.(일) 05:10 귀지 도착
  - 9.20.(일) 06:10 귀지 출발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8.6. 대통령 내외분의 앵커리지 도착 시 구체 일정, 출영 인사 등 상세 내용 보고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8.19. 대통령 방문 행사 관련 주재지 인사 및 교민 접견자료 송부
  - 주재지 인사 및 교민 접견자료(말씀자료 및 인적사항)
  - 총영사관 업무 개황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Spurr 화산폭발과 관련, 9.17. 동일 오전 앵커리지공항 경찰대장, 경호실 안전처장 등과 협의한 결과, 현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 안전 측면에서 시애틀공항으로 행사장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9.18. 특별기가 앵커리지의 화산폭발로 시애틀에 1, 2차 기착하기로 하였다고 주앵커리지총영사, 주시애틀총영사, 주유엔대사에게 통지
- 주시애틀총영사는 9.19. 공항 영접계획을 작성, 외무부에 보고

2. 로스앤젤레스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92.7.17. 대통령 내외분의 LA 체류 일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함.
- 행사 관련 검토사항
  - 로스앤젤레스시장의 공항 영접 후 숙소동행 및 오찬 제의
  - 레이건 전 대통령과의 오찬
  - 교민리셉션
  - 로스앤젤레스 사태 성금 전달 관련 교포사회 동태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5 연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9 / 1-181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연회 내용임.

1. Asia Society 만찬

- 주미국대사는 1992.4.8. Asia Society가 협회 연례만찬에 한국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여 왔으며 그 기회에 한국의 발전 및 한·미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Asia Society 대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고 보고함.
- 주미국대사는 6.2. Oxnam Society 회장이 5.29.자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하여 금년도 Society의 만찬에 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고 하고, 동 측은 본직 앞으로 보내온 서한을 통하여 상기 서한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정식 회한(formal reply)으로 통고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함.
- 주미국대사는 상기 만찬 시 한국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slide presentation을 제작, 상영하는 방안을 건의함.

2.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 주유엔대사는 1992.8.20.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과 관련, 1991년 관례에 따라 뉴욕 주재 각국 대사 및 총회 참석 대표, 사무국 관계자, 미국 각계인사 등 1,500명을 초청대상으로 현재 최종명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함.
- 주유엔대사는 9.8. 뉴욕 방문(1992.9.22.~10.5.) 예정인 김영남 외교부장을 대사 주최 리셉션에 초청해도 좋은지 여부에 대해 외무부 지침을 요청함.

3. 동포 리셉션

- 주뉴욕총영사는 1992.7.16. 교민대표 초청 리셉션 준비 관련, 초청 인원 규모 및 초청대상 인사의 신원조회 양식 등을 요청함.
- 주뉴욕총영사는 8.20. 교민 주최 리셉션은 주뉴욕총영사 주최로 하되, 초청장 문안은 현지에서 인쇄할 것을 건의함.

92-0406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6 수행원 / 공보협조)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0 / 1-149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수행원 및 공보 협조 내용임.

1. 수행원

- 외무부는 1992.8.21. 공식수행원 명단을 주미국대사, 주유엔대사, 주뉴욕총영사 등에게 통보함.
- 외무부는 9.7. 수행원 명단(공식, 비공식, 경호, 기자단)을 결정하는 재가문을 상신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았으며, 동 명단을 9.9.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함.
- 주유엔대사는 9.9., 9.23. 경호선발대(62명)의 호텔 체크아웃 시간 조정을 위해 이상진 경호관을 제외한 57명의 뉴욕출발 항공편 통보를 요청함.
- 주유엔대사는 9.12. 수행원 중 경호원 영문명단을 요청함.

2. 공보 협조

- 주유엔대사는 1992.7.24. 사전 홍보, 사전브리핑 및 press release 등 홍보계획을 보고함.
- 주유엔대사는 8.27. 유엔 행사 순서별·위치별 취재 관련 사항을 보고함.
- 주유엔대사는 8.31. NYT와의 회견(사전홍보) 및 뉴욕 방문 중 WP의 Don Oberdorfer와의 회견을 건의함.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7 경호 / 숙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1 / 1-171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경호 및 숙소 내용임.

1. 경호 협조

- 주유엔대사는 1992.8.18. 합동답사반의 뉴욕 방문 시 협의된 바 있는 경호선발대용 숙소를 호텔 스탠포드에 예약하였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8.19. 국가 주요 행사에 따른 국제전용회선 및 일반전화를 청약하고자 한다며 한국통신 사장에게 공한으로 요청하였음.

2. 숙소

- 외무부는 1992.3.11. 주유엔대표부에 금년 가을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 객실예약 조치를 지시함.
  - 호텔 객실 소요는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니 1988년 개천절 당시 예약상황 등을 참조하여 호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도 무방
- 주유엔대사는 월도프 아스트리아호텔 측과 협의 결과, 1차 숙소 배치안을 보고함.
  - 기자단 숙소 배치안은 추후 별도 보고 예정
- 주미국대사는 9.15. 미 국무부가 행사지원을 위해 Clark 동아태차관보와 Kartman 한국과장을 뉴욕에 파견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미국 측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9.20.~24.) 주미국대사관의 임성준 참사관과 안호영 서기관을 유엔에 파견할 예정임을 알리고 숙소 확보 등을 주유엔대사에게 요청함.

92-040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8 차량 / 인력지원)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2 / 1-84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차량 및 인력지원 내용임.

1. 차량

- 주유엔대사는 1992.8.28. 정부합동답사반 뉴욕 방문 시 지침에 의거, 행사차량을 임차하고자 한다면서 외무부 지침을 요청함.
  - 경호 선발을 위한 승용차, 밴, 화물트럭
  - 공식수행원용 타운카, 기자단을 위한 승용차 등
  - 차관급 수행원들을 위한 Luxury 미니버스 등
- 주유엔대사는 1992.9.9. 행사장 이동 시 모터케이드 대형(안)을 보고하고 외무부 안을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인력지원

- 외무부 의전실은 1992.6.5. 하반기 주요 의전 행사계획 및 건의사항에서 대통령 유엔 방문 계획을 포함한 국빈 행사 및 주요 외빈행사를 위해 부내 인력지원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장관 앞으로 보고함.
- 외무부 의전실은 행사 인력지원을 위해 외무부 및 재외공관에서 지원 요원을 차출 및 파견하고자 한다면서 재가문을 상신, 장관 재가를 득함.

92-040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9 항공기 / 출입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3 / 1-132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항공기 및 출입국 내용임.

1. 항공기

- 외무부는 1992.8.14. 주미국대사, 주유엔대사,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대통령 방문 행사 관련, 특별기 항로 및 공항답사반 3명이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지시함.
  - 대통령 경호실: 공군연락관 김영철 대령
  - 대한항공: 맹동섭 특별기 기장, 구재목 운항기술과장
- 외무부는 8.21. 주일본대사관 및 주미국대사관에 행사 관련, 특별기 운항허가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관계당국에 통보하고 운항 허가번호 등을 받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미국대사는 9.14. 특별기에 대한 영공통과 허가는 미 국무부를 통해 조치되었다고 보고함.
- 주일본대사는 9.16. 일본 외무성 측이 특별기의 영공통과를 허가하였음을 전화로 우선 통보하여 왔다고 보고함.

2. 출입국

- 주미국대사는 1992.8.31. 특별기의 출·입국 수속이 JFK에서 이루어지도록 국무부 의전실에 요청하였는바, 국무부 의전실은 특별기의 경우에는 최초 기착 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하는 것이 미국의 관례로 한국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하여 옴.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9.9. 주알래스카연방 이민성 소장 등과 면담하여 입국 수속, 간이 통관, 승무원 입국수속 및 통관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보고함.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9.15. 현지 출입국 당국이 특별기 기착 시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위하여 이민 및 세관신고서의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본인이 서명하도록 재차 상기시켜왔다고 보고함.

92-041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0 의전용품 및 선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4 / 1-92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의전용품 및 선물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8.8. 주뉴욕총영사, 주미국대사, 주유엔대사,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대통령 내외분 명의 선물대상자 및 품목을 선물접수 규정 및 관례를 참고하여 8.14.까지 건의하도록 지시함.**
   - 주앵커리지총영사는 8.10. 주지사용 동양화 1폭, 주지사 부인용 자수정 목걸이, 앵커리지 시장용 동양화 1폭 등을 건의함.
   - 주미국대사는 8.17. 한·미 정상회담, Asia Society 만찬 등의 행사별로 면담할 미국 정부 인사들별로 선물 종류를 기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주뉴욕총영사는 일반교민, 각 한인회장, 평통 회장단 등으로 구분하여 선물 종류와 수량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92.8.20. 주유엔대사, 주미국대사 및 주뉴욕총영사에게 각 공관에서 보관 중인 의전 및 연회용품(존영, 국기, 초청장, 입장 카드, 좌석표, 명찰 기타 등) 외에 외무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소요량(상세규격 및 내역포함)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국기 제작은 시일을 요하므로 우선 파악 지급보고 요청

3. **주미국대사는 1992.9.9. 대사관이 Asia Society 측과 협의, 만찬 참석자들에게 지공예 보석함을 1점씩 선물하기로 한바, 총 소요량 1천 개를 확보하여 9.17.까지 AS 측에 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1 소요예산)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5 / 1-115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소요예산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8.5. 주유엔대표부, 주미국대사, 주뉴욕총영사,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행사 관련 대사관(총영사관)의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8.12.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함.
   - 고용원의 수당, 일용 잡금,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외교 교섭비, 언론 대책비, 교민 대책비, 후속조치 활동), 특판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등으로 구분

2. 상기 외무부 지시 관련, 주유엔대표부, 주미국대사, 주뉴욕총영사, 주앵커리지총영사는 각각 대사관(총영사관)의 소요경비를 추산하여 보고함.

3. 대통령비서실은 1992.8.19. 선물 및 부대경비 소요 예정 금액을 외무부에 제출함.

4. 외무부 의전실은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위한 미국방문 행사 관련,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재가문을 상신, 장관 재가를 득함.

92-041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의전], 1992.9.20.-25. 전12권 (V.12 경비 집행)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7 / 16 / 1-199

1992.9.20.~25.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방문 관련 경비 집행 내용임.

1. **외무부 의전실은 1992.8.7. 총무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경비지불을 의뢰하면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지불 내역: 사전답사 출장경비
   - 지불액: 5,891달러(지불처는 이병기 청와대 의전수석)

2. **외무부 의전실은 행사 준비 관련 정부합동답사반의 출장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결재를 상신, 차관 전결로 재가를 득함.**
   - 출장자: 장선섭 의전장 외 17명
   - 여비 총액: 17,384달러

3. **외무부 의전실은 1992.9.5. 청와대 경호실이 선발경호의 행사지 파견과 관련하여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여 왔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비지불을 위한 결재를 상신, 차관의 재가를 득함.**
   - 지불액: 200,000달러
   - 지불처: 청와대 경호실

4. **외무부 의전실은 1992.10.21. 총무과장에게 전세항공기 임차료에 대한 경비 집행을 위한 결재를 상신, 의전장 전결로 결재를 득함.**
   - 신청 내역: 전세항공기 임차금
   - 신청 금액: 1,858,476,070원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1 / 1-238

보두엥 1세(Baudoun I) 벨기에 국왕의 방한(1992.10.12.~19.) 관련 사전준비 사항임.

1. 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접수

- 1991.4월 벨기에 정부, 주한 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보두엥 국왕이 1992.10월 셋째 주 방한 희망을 통보
  -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방한 초청
- 1991.5.3. 한국 정부, 주한 벨기에대사를 통해 보두엥 국왕의 방한 환영을 통보
- 1991.6.4. 벨기에 국왕의 공식 방한 발표

2. 벨기에 국왕 방한 일정 협의

- 1991.12.16. 벨기에 왕실 시종장, 주벨기에대사에게 1992.10.12.~18. 잠정 방한 일정안 제시
  - 1992.10.13. 환영식 및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 벨기에 선발대 방한(1992.6.6.~12., De Wever 외무부 의전장(단장))
  - 국왕 체한 일정 합의: 1992.10.12.~19.(7박 8일)
  - 주요 행사: 김포공항 환영행사, 공식 환영식, 대통령 내외분 예방 및 회담, 외무장관회담,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공식 환송식, 제주도 방문 등
  - 수행원: 공식 수행원, 비공식 수행원, 수행 언론인

3. 회담 일시 및 의제 협의

- 정상회담(1992.10.13.): 의제 없이 단독회담
- 외무장관회담(1992.10.13.): 한반도 정세, 구주 정세, 양자관계

4. 보두엥 국왕 방한 발표

- 1992.9.16. 벨기에 보두엥 1세 국왕 내외가 노태우 대통령 내외 초청으로 1992.10.12.~19. 국빈으로 공식 방문 예정임을 발표
- 금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으로 의의가 있음.

5. 자료

- 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준비(1992.10.1.)

92-0414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2 영접계획)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2 / 1-256

보두엥 1세(Baudoun I) 벨기에 국왕의 방한(1992.10.12.~19.) 관련 영접계획임.

1. 국왕 내외 및 수행원

- 보두엥 1세 국왕 및 파비올라(Fabiola) 왕비
- 수행원
  - 공식 수행원: Claes 외무장관 내외 등 16인
  - 비공식 수행원 11인 및 수행 기자단 15인

2. 영접 준비사항(의전 관련 사항)

- 숙소: 신라호텔, 제주는 제주신라호텔
- 공식 문안, 환영 장식(현판 및 국기게양), 선물, 경호, 홍보 등

3. 체한 일정

- 10.12.: 공항 환영식, 국립묘지 헌화 등
- 10.13.: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무총리주최 오찬,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및 민속공연
- 10.14.: 판문점 방문,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벨기에 참전기념비 헌화
- 10.15.~16.: 설악산, 대구(구미 삼성전자 포함) 방문, 공식 환송식
- 10.17.~19.: 제주 방문
- 공식 수행원 별도 일정: 10.13. 한·벨기에 외무장관회담

92-0415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3 오·만찬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3 / 1-239

보두엥 1세(Baudoun I) 벨기에 국왕의 방한(1992.10.12.~19.) 관련 오·만찬 및 연설문 내용임.

1. 벨기에 국왕 방한 시 오·만찬(준비)

- 보두엥 국왕 내외를 위한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및 민속공연(10.13.)
- 보두엥 국왕 내외를 위한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10.13.)
- 보두엥 국왕을 위한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10.14.)

2. 벨기에 국왕 방한 시 연설문

- 보두엥 국왕 공식 환영행사 시 대통령 환영사(국문, 불문)
  - 보두엥 국왕의 환영 답사(불문, 국문 번역문)
- 보두엥 국왕 내외를 위한 공식만찬 시 대통령 만찬사(국문, 불문)
  - 보두엥 국왕의 만찬 답사(불문, 국문 번역문)
- 국무총리 주최 오찬 시 국무총리 오찬사(국문, 영문)

92-0416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4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4 / 1-88

보두엥 1세(Baudoun I) 벨기에 국왕의 방한(1992.10.12.~19.) 관련 결과 및 후속조치임.

1. 한·벨기에 정상회담(1992.10.13.)

- 한국 측 언급내용
  - 남북 상호 핵사찰 필요성을 포함한 남북한 관계 설명
  - 북방외교의 성과 및 한·중국 관계 발전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설명
- 벨기에 측 언급 내용
  - 남북한 관계 개선 추진 노력에 경의 표명
  - 한국의 민주화 정착, 북방외교 성공에 공감 표시

2. 한·벨기에 외무장관회담(1992.10.13.)

- 한국 측 언급내용
  - 아·태지역 안보 문제 및 경제협력, 한·중국 수교, 남북대화 및 북한 핵문제 설명
  - 대전 EXPO, 벨기에 요청 의약품 지재권 보호 지정에 대한 입장 설명
- 벨기에 측 언급내용
  - 구주통합조약 추진, EC(구주공동체) 회원국 확대, 유럽 안보 문제 등 설명
  -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인권상황 개선이 관계 개선의 관건임을 표명
  - 벨기에 제약회사의 7개 의약품을 지재권 보호 대상으로 지정 요망

3. 보두엥 벨기에 국왕 방문 후속조치

- 보두엥 국왕의 대통령 앞 감사 서한
- 벨기에 관심 사항인 다이아몬드 특소세 문제 및 의약품 보호 지정 건을 해당 부처에 검토 요청
- 외무부장관의 브뤼셀 방문 시(1992.11.12.) Claes 외무장관 면담
  - 보두엥 국왕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논의

92-0417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5 자료 I(회담자료 / 말씀자료))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5 / 1-293

보두엥 1세(Baudoun I) 벨기에 국왕의 방한(1992.10.12.~19.) 관련 자료임.

1. 회담자료
   - 한·벨기에 정상회담 자료
   - 한·벨기에 외무장관회담 자료(국문, 영문)

2. 대화자료
   - 파비올라 왕비 접견 시 영부인 말씀자료
   - 보두엥 국왕 내외를 위한 공식 만찬 시 대화자료
     - 공식 만찬 시 영부인 대화자료
   - 보두엥 국왕 내외를 위한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시 말씀자료
     - 공식 오찬 시 국무총리 참고자료

92-0418

Baudouin I(보두엥 1세) 벨기에 국왕 방한, 1992.10.12.-19. 전6권 (V.6 자료 II(참고자료))

생산연도	1980-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6 / 1-185

보두엥 1세(Baudoun I) 벨기에 국왕의 방한(1992.10.12.~19.) 관련 참고자료임.

1. 벨기에 국왕 및 왕가 관련 자료

- 국왕 및 왕비 사진, 벨기에 왕국 역사 및 왕가 계보
- 1990~92년간 국왕 및 왕비 연설문
- 국왕 및 왕비 신상자료
- 벨기에 국가 악보 등 참고자료

2. 벨기에·대한민국 수교 백주년 기념 방문(책자)

- 1992.10월 주한 벨기에대사 발행 홍보 책자(국문 및 영문 병기)
- 벨기에·한국 간의 교류 역사 100년의 주요 내용 설명
- 초창기 수교의 역사, 벨기에군의 한국전쟁 참전, 최근의 교류 현황 등

Franco, Itamar 브라질 부통령 방한초청 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7 / 1-251

1991~92년 중 Itamar Franco 브라질 부통령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초청 경위

- 1991.10.21. 한철수 주브라질대사, Franco 브라질 부통령 신임 예방 시 동 부통령의 방한 문제 협의
- 1991.11.12. 브라질 측, Franco 부통령의 방한 희망 의사 전달
- 1991.12.20. 정원식 국무총리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2. 목적 및 의의

-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기반 확대
- 1959년 한·브라질 수교 이후 브라질 최고위 인사 방한
- 불법이민 문제로 1980년대 이후 다소 소원하였던 양국관계의 개선 및 상호 협력 확대 추세 반영

3. 주요 방한 일정(안): 1992.3.7.~12.

- 대통령 예방(오찬), 국무총리 예방, 회담 및 공식 만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 전경련 주최 만찬, 한·브라질 친선협회 회장·포항제철 사장 주최 오찬, 대한항공 부회장 주최 만찬
- 남산·창덕궁·이태원 관광

4. 방한 연기

- 1992.3.4. Franco 브라질 부통령, 모친이 위독하여 방한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한 브라질대사관 공한을 통해 외무부에 통보
- 브라질 측은 3.23. 5월 중순경 Franco 부통령 방한 재추진 여부에 관해 한국 측 입장 문의
  - 한국 측, 동 기간 중 주요 외빈 방한계획이 확정,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5월 중 방한 접수는 곤란하고, 1992년 하반기 또는 1993년 중 적절한 시기에 부통령의 방한 재추진 의사표명

5. 자료

- 총리회담 자료, 브라질 부통령을 위한 국무총리 만찬사, 브라질 부통령 접견자료, 대통령 오찬사

92-0420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1 사전준비 I (1990.11-92.4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8 / 1-147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의 1992.5.31.~6.4.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경위

- Soglo 대통령은 1991.1월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입후보 및 당선(3월)으로 방한을 연기함.
- 노태우 대통령 명의 1991.4.8.자 취임 축전에 동 대통령 방한 초청의사 표명
  - Soglo 대통령은 1992.5월 말 중국, 한국, 일본 순방계획 수립으로 1992.5.31.~6.4. 방한 희망
  - Holo 베냉 외무장관 방한(1991.12.19.~22.) 시 한국 측 접수 방침 통보

2. 베냉 대통령 방한 관련, 아래의 정상회담 의제(잠정)에 대한 베냉 측 입장 파악 지시 (1992.4.23.)

- 국제 정세(의견교환)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한국 측 설명)
- 베냉 및 서부아프리카 정세(베냉 측 설명)
- 양국관계(논의)
  - 양국관계 평가
  - 향후 협력방향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2 사전준비 II(1992.5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9 / 1-157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의 1992.5.31.~6.4.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베냉 대통령 방한 준비(1992.5.12.)

- 베냉 측 관심사항 및 대응방안(외무장관회담 시 아래의 한국 입장 통보)
  - 모노(Mono)강 하류지역 농지개발 및 코또누(Cotonou)시 하수 배수시설 사업의 한국 참여 요청: 한국의 제한된 경협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에 부적합
  - 4명의 기술연수생 방한 초청 훈련: 금년 중 연수생 1명 초청계획
  - 연례 대베냉 무상원조 시행: 1992년도 15만 달러 예산 기배정(앰뷸런스 등 베냉 측 희망 품목 지원 예정)
- 외무장관회담 및 협정 서명식
  - 일시: 1992.6.1. 15:00~16:30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외교관, 관용 사증면제협정 서명: 문안 기확정, 국내절차 진행 중
- 이한 시 공동 언론발표문 배포 합의
  - 영문문안 재가 후 사전합의 예정
- 주요 체한일정
  - 5.31. 도착
  - 6.1.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및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 6.2. 경북도지사 주최 만찬, 현대중공업 및 자동차(울산공장) 시찰
  - 6.3. 경주 관광
  - 6.4. 이한

2. 한·베냉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안)(1992.6.1., 대통령 비서실 공보)

- 국문 및 영문

92-0422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3 의전 : 영접준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10 / 1-390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의 1992.5.31.~6.4.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베냉공화국 Nicephore Soglo 대통령 내외 공식방한 영접계획(1992.5.31.~6.4., 외무부 의전장실)

- 대통령 내외 약력
- 수행원 명단
  - 공식(15명): 외무장관, 경제기획장관, 건설장관, 상업청장 등
  - 비공식(13명)
- 영접 준비사항
- 공식체한 일정
  - 5.31. 공항 도착행사, 자유 만찬
  - 6.1.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국립묘지 헌화,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 6.2. 현대중공업 사장 주최 오찬,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공장 시찰, 경북도지사 접견, 경북도지사 주최 만찬
  - 6.3. 경주지역 관광, 자유오찬, 비공식 만찬
  - 6.4. 공항 환송행사
- 주요 행사
  - 공항 도착행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국립묘지 헌화, 공식 만찬, 지방일정, 공항 환송행사, 외무장관회담 및 협정 서명식
- 베냉공화국 개황

2. Soglo 베냉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시 환영사(안)(1992.6.1., 대통령비서실 공보)

- 국문 및 불어

3. 베냉 측 환영답사(불어)

92-0423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4 청와대 만찬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8 / 11 / 1-179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의 1992.5.31.~6.4. 방한 관련 만찬 자료 및 결과보고 내용임.

1. Nicephore Soglo 베냉공화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안)(1992.5.21., 외무부 의전장실)
   - 일시 및 장소: 1992.6.1. 청와대 본관
   - 메뉴: 양식
   - 초청 범위(부부 동반): 58(85)

2.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내외 공식 만찬 시 말씀자료(1992.6.1.,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3.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안)(1992.6.1., 대통령비서실 공보)

4. 한·베냉 정상회담(1992.6.1.) 결과 자료
   - 회담 요록(인사말씀, 국제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베냉 및 서부아프리카 정세, 양국관계(확대정상회담), 맺음말씀

5. 한·베냉 외무장관회담 합의의사록(1992.6.1.)
   - 이종무 국제경제국장 및 Michel Adechian 아시아대양주국장 서명

6. 한·베냉 외무장관회담(1992.6.1.) 결과
   - 양국 간 외교협력 강화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합의의사록 서명)
     - 1992년도 대베냉 무상원조 예산 증액: Soglo 대통령 방한 계기 특별무상원조 15만 달러 추가 지원(1992년 중 총 30만 달러 상당의 국산 기자재 베냉 제공 예정)
     - 개발조사사업 실시: 베냉 측 제시 주요 협력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팀 베냉 파견, 동 조사 결과에 의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가능성 검토
     - 기술협력: 1992~93년간 4개 분야 각 1명의 베냉 기술연수생 방한 초청 훈련계획
     - 국제입찰사업에 한국업체 참여 권장
   - 협정 체결: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외교관·관용 사증면제협정

92-0424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 방한, 1992.5.31.-6.4. 전5권 (V.5 자료)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1 / 1-210

Nicephore Soglo 베냉 대통령의 1992.5.31.~6.4.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베냉 정상회담 자료(1992.6.1.,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 대통령 인적사항
- 말씀요지
  - (단독회담 45분) 인사말씀, 국제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베냉 및 서부아프리카 정세
  - (확대회담 15분) 양국관계, 맺음말씀

2. 한·베냉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6.1., 중동아프리카국)

- 행사진행계획
- 말씀자료
  - 한반도 정세, 베냉 및 아프리카 정세, 양국관계 논의(양국관계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강화, 경제·기술협력 증대)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외교관·관용 사증면제협정 서명
- 참고자료
  - 외무장관 인적사항, 체한 일정, 한·베냉 관계(북한·베냉 관계), 베냉 개황,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경제·기술협력 현황

3. 베냉 대통령 방한 관련 자료(1992.5.15., 아프리카1과)

- 양국 정상회담 자료
- 공식 환영행사 시 환영사
- 만찬사 및 만찬 시 말씀자료
- 영부인 접견자료
- 공동 언론발표문
- 참고자료(대통령 내외 인적사항 및 베냉 개황)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2 / 1-219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초청 경위

- 1991.2.26. 체코 정부, 주체코대사관을 통해 Havel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계기 한국 방문 가능성을 타진
- 1991.6.12. 한국 정부, 1992.1월 중 Havel 대통령의 방한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 회신
- 1992.3.12.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 일정과 연계, 1992.4.26.~28. 방한 일정 합의

2. 초청 사유

- 북방외교의 내실화 및 한·체코 간의 양국관계 심화 발전
- 안정된 정세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 개혁 추진, 신유럽질서 확립 기여 등 국제적 명망을 받고 있는 Havel 대통령의 방한은 북방외교 성과 확산 및 한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기여

3. 주요 일정

- 정상회담, 청와대 공식 만찬
- 국회의장 및 정계지도자 면담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산업 시찰
- 조선일보 및 MBC 언론 인터뷰

92-0426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2 의전 I : 3월-4.10.)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3 / 1-201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을 위한 의전 관련 내용임.

1. 정상회담
   -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개요
   - 영부인 별도 환담

2. 국립묘지 헌화
   - 참석범위, 영접 및 안내(수도방위사령관, 국립묘지관리소장), 체코 국기 게양, 방명록 서명 등

3. 경제4단체장 오찬
   - 행사 개요 및 참석범위
   - 경제4단체장 영접
   - 한국무역협회 회장 오찬사 및 체코 대통령 답사

4. 농촌 방문행사
   - 방문 장소: 경기도 화성 동탄면 새마을 시범마을
   - 행사 개요: 기념식수 및 농가 방문, 토속음식 시식 등

5. 국회 방문
   - 국회의장 및 정계지도자 면담: 국회의장, 정당대표(5), 원내총무(2), 외무위원장, 국회사무총장
   - 국회의장 주최 오찬

6. 삼육재활원 방문(영부인 별도 일정)

7. 공식수행원 별도 일정
   - 한·체코 민간경협위원회 합동회의(1992.4.27., 롯데호텔)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식(4.27., 외무부)
   - 상공부장관-체코연방 경제장관 면담(4.27., 롯데호텔)
   - 체코 올림픽조직위 위원장-한국 올림픽조직위 위원장 면담(4.27., 올림픽센터)

8. 언론사 기자회견(1992.4.28., 롯데호텔)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3 의전 II : 4.11.-2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4 / 1-216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 일정별 의전 관련 내용임.

1. 창덕궁(비원) 관람

- 참석범위, 경내 안내

2. 한국종합무역센터 방문

- 참석범위, 무역협회장 면담, 52층 전망대 시찰

3.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참석자 및 행사 개요
- 삼성전자 사장 영접 및 공장 시찰 안내

4. 농촌 및 삼육재활원 방문

- 참석범위 및 행사 개요
- 경기지사 영접 및 시범부락 시찰 안내, 토속음식 제공

5.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 참석범위 및 행사 개요
- 박물관장 영접 및 박물관 안내
- 한국무역협회 회장 오찬사 및 체코 대통령 답사

6.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

- 참석자 명단 및 좌석 배치도
- 메뉴표 및 민속공연

7. 체코 대통령 방한 공식 환·영송 행사

- 환영식: 1992.4.27., 청와대 대정원
- 환송식: 1992.4.28., 서울공항
- 공식 환·영송 초청 인사범위 및 환영 현판 제작, 게양

92-0428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4 경제협력 세미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5 / 1-143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계기 1992.4.27. 한·체코 경제협력 세미나가 개최됨.

1. 주관

- 한국 측: 대한상공회의소
- 체코 측: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

2. 주요 의제

- 한국경제 현황
- 한·체코 통상·투자협력증진 방안
- 체코연방 통상 투자정책
- 체코공화국 투자유치정책
- 슬로바키아공화국 투자유치정책

3. 참석자

- 한국 측: 윤영석 한·체코 경협위원장,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관련기업 및 진출업체 기업인 30여 명
- 체코 측: Dlouhy 체코연방 경제부장관, 민간기업인 10여 명

4. 회의 진행

- 개·폐회사: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윤영석 경협위 위원장(대우사장), Cilek 체코·한 경협위원장 대행
- 체코연방 경제 현황: Vladimir Dlouhy 체코연방 경제부장관 발제
- 체코공화국 투자유치정책: Kalel Spacek 체코공화국 재무장관 발제
- 슬로바키아공화국 투자유치정책: Anton Vavro 슬로바키아공화국 산업담당 부총리 발제

92-0429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5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6 / 1-86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주요 일정

- 확대정상회담 및 단독정상회담 개최(1992.4.27.)
- 이상옥 외무부장관와 Dlouhy 연방경제장관 간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Dlouhy 연방경제장관과 한봉수 상공부장관 면담
- Miklosko 연방부총리와 이수정 문화부장관, 조완규 교육부장관 면담
- Caslavska 체코 올림픽위원장과 김종렬 KOC 위원장 면담
- 한·체코 경제협력 세미나
- Havel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2. 주요 성과

- 양국의 민주화 노력 평가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합의
  - 북한의 개방화, 특히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
  - 체코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유지기능 노력 지속
- 경제 분야 실질협력 증진 노력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 한국기업의 체코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지원 적극 검토
  - 베트남 등 제3국 공동진출 적극 협력 합의
- 기타
  -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사증면제협정 추진 적극 검토
  - 하벨 대통령 경제단체장 주최 오찬 연설 및 수행 경제각료의 한국기업인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방안 집중 협의

3. 후속조치

- 한·체코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협의
- 경제 관계 후속조치 관련, 재무부 및 상공부 협의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이후 전자, 의료기 분야 투자 증대
  - 철강, 생산경영, 중소기업 분야 협력
  - EDCF 자금지원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
  - 93 대전엑스포 체코 참가 문제

92-0430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6 회담자료 /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7 / 1-189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 관련 회담 및 말씀자료임.

1. 확대 및 단독정상회담자료

- 대통령 인적사항
- 인사말씀
- 국제정세
- 동북아, 한반도 및 구주정세
- 한·체코 관계

2. 체코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만찬 시 대통령 영부인 대화자료

- 하벨 대통령 영부인 인적사항
- 하벨 대통령 인생·문학
- 체코 역사와 민족성, 문화·예술·체육
- 체코 민주화 및 개혁 정책, 여성의 사회활동

3. 체코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시 환영사

4. 체코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만찬 시 노태우 대통령 만찬사

5. 청와대 공식 환영행사 시 하벨 대통령 답사

Havel, Vaclav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1992.4.26.-28. 전7권 (V.7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8 / 1-214

Havel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1992.4.26.~28. 공식 방한 관련 외무부에서 작성한 정상회담자료 및 영부인 환담자료임.

1. 국제정세
   - 국제정치 정세(외교정책실)
   - 세계경제 동향(국제경제국)

2.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중 및 중·북한 관계(아주국)
   - 일·북한 관계(아주국)

3. 북방외교(구주국, 아주국)

4. 구주 정세(구주국)
   - 구주통합 동향
   - CIS 회원국 및 중·동구 정세

5. 한·체코 양자관계
   - 양국관계 평가(구주국)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국제기구국, 국제경제국)
   - 경제·통상 실질 협력관계(국제경제국, 통상국)
   - 문화·학술 실질 협력관계(문화협력국)
   - 영사교민 실질 협력관계(영사교민국)

6.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개황

7. 하벨 대통령 영부인 환담자료
   - 체코 사회복지 문제
   - 한·체코 문화협력관계
   - 체코 여성관계
   - 하벨 대통령 부인 앞 옥중 서한 모음

92-0432

Bongo, El 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9 / 1-92

1991~92년 중 봉고 가봉 대통령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봉고 가봉 대통령 방한 희망

- 1991.3.7. Diop 주한 가봉대사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 국장을 방문, 봉고 대통령의 6월 이전 방한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 측의 초청을 요청해 옴.
  - Diop 대사는 봉고 대통령이 중국 및 일본 방문 기회를 이용,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 실업인을 만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방문기간이 길어야 1박 2일 정도면 충분하며 수행원은 3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

2. 봉고 대통령 방한 시기 협의

- 1991.4.24. Diop 주한 가봉대사는 봉고 대통령의 방한일자를 중국 방문(5.17.~21.) 후인 5.21.~31.로 제시해 옴.
  - 외무부는 9~11월 중으로 방한 시기를 늦출 것 제의
- 8.15. 봉고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하여 주가봉대사관에 9.30.~10.5. 중 방한 희망 의사를 통보함.
- 8.16. 외무부는 봉고 대통령의 방한 희망 시기는 한국의 유엔 가입 관련 일정과 겹쳐 방한 접수가 불가한바, 12월 둘째 주(12.9.~14.) 방한에 대한 가봉 측 의견을 타진함.
- 9.26. 가봉 측은 봉고 대통령이 12월 중 중부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므로 방한할 수 없다고 통보함.
- 1992.1.23. 가봉 측은 봉고 대통령이 비동맹 정상회담(8.30.~9.2., 인도네시아)에 참석한 후 방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문의함.
- 2.10. 외무부는 국내 정치 일정에 비추어 봉고 대통령의 방한 접수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함.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1 사전준비 I : 1991.9-92.7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10 / 1-180

Jorge A.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의 1992.8.26.~29. 방한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7.12. 노태우 대통령 명의 Serrano 대통령 방한초청장 전달
  - 방한한 과테말라 의원사절단이 전달한 Serrano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서를 통해 방한 초청
  - 1992.6.26. Serrano 대통령, 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교환을 희망하는 내용의 친서 송부
- 1991.9.18. 강웅식 주과테말라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Serrano 대통령은 1992.4~5월 중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방문계획 시사
- 1992.2.18. Mendez 과테말라 외무장관은 강웅식 주과테말라대사와의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개최 비동맹정상회담 시기인 8월 말 또는 9월 초 대통령의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1992.6.1. Gonzalez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 대통령 방한 일자(1992.8.26.~29.) 확인 공한 접수
- 1992.6.5. 과테말라 대통령의 1992.8.26.~29. 공식 방한 접수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 재가

2. 방한 준비 업무계획(안)

- 방한 준비 개요
  - 방한 초청 목표: 한·과테말라 우호협력관계 증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 방한 시 중점 추진사업: 양국 간 협정체결, 진출업체 보호육성, 경제사절단 상호교환
  - 과테말라 제기 예상 문제: 무상원조 증액 요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지원, 투자진출 확대
- 방한 준비내용
  - 방한 일자 확정
  - 방한 준비: 일정 전반 및 세부행사 준비,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협정 체결 추진, 언론발표, 통역 준비, 기자회견
  - 자료 준비: 언론발표(보도자료), 대통령 연설문, 정상회담 자료, 영부인 예방자료, 과테말라 대통령 신상자료, 각종 계기 시 대화자료, 외무장관회담 자료 등

3. 자료

-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행사 개요
  - 수행원, 방한 기간 및 일정, 한·과테말라 관계, 양국 간 회담 대책, 조치 예정사항, 준비자료 목록

92-0434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2 사전준비 II : 1992.8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11 / 1-263

Jorge A.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의 1992.8.26.~29. 방한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선발대 방한

- 과테말라 외무부 의전차장 등 2명의 선발대가 Serrano 대통령 내외 영접 준비를 위해 1992.8.3.~6. 방한하여 방한 일정(안) 등에 합의
- 주요 합의사항
  - 대통령 방한 일정(안), 영부인, 외무부장관 별도 일정(안), 서훈 및 자서존영(양국 대통령 간 교환), 주요 행사별 참석범위, 공식 만찬, 체재비 제공, 차량 제공, 경호, 홍보 및 기록영화 제작, 의료진, 통역, 공식문안, 국기 제작
- 대통령 방한 일정(안)
  - 8.26. 김포공항 도착, 공항 환영행사, 비공식 만찬(롯데호텔)
  - 8.27. 공식 환영식(청와대 정원), 정상회담, 국회의장 및 정계 지도자 면담, 국회의장 주최 오찬(국회 귀빈식당), 국립묘지 헌화, KOEX 방문, 국립박물관 관람,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청와대 본관)
  - 8.28.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롯데호텔)
  - 8.29. 기자회견, 공항 환송행사, 이한

2.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개요

- 정상회담: 개괄적인 의견교환에 한하고 실무적인 사안은 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
- 외무장관회담: 필요 시 양국 관련 정세를 간단히 언급하고 주로 양자관계에 대해 협의
  - 의제 및 토의사항: 양자관계의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경제·기술협력 문제(투자진출 증진, 경협,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요청)

3. 자료

- 과테말라 선발대 회의자료(1992.8.5., 외무부 의전장실)
- 한·과테말라 정상회담 자료(1992.8.27., 외무부)
- 외무부장관 등 장관급 수행원 이력서, 수행원 명단
- 환영사 및 만찬사 요지, 환영식 답사 및 만찬 답사(스페인어본)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3 영접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12 / 1-361

Jorge A.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1992.8.26.~29.)관련 영접계획 내용임.

1. 주요 내용

- 세라노 엘리아스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분 공식 방한 영접계획(1992.8.26.~29., 외무부 의전장실)
  - 대통령 내외 약력,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사항, 공식 체한 일정, 주요 행사, 공식수행원 별도 일정, 과테말라공화국 개황

2. 자료

- 국빈 영접 준비 기본자료(과테말라 측 자료 수집용)
  - 도착 및 출발 일시, 항공 일정, 국가원수 관련 사항, 부인 동반 여부, 국기·국가·민요, 수행원 명단, 훈장, 선물 및 자서존영 교환, 공식 현판 문안, 숙소, 일정, 차량 대형, 특별기, 선발대, 경호 관련 자료
- 과테말라 대통령 경호부대 조직표

92-0436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4 청와대 만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29 / 13 / 1-90

Jorge A.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 관련 내용임.

1.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안)(1992.8월, 외무부 의전장실)
   - 개요(일시, 장소, 복장, 메뉴, 초청범위), 만찬 세부 진행절차, 접견 관련 도표, 접견 시 리시빙 라인 및 내빈 정렬도, 만찬장 테이블배치도, 헤드테이블 좌석배치도

2.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1992.8.27., 외무부 의전장실)
   - 개요(일시, 장소, 복장, 메뉴, 초청범위), 만찬 세부 진행절차, 접견 관련 도표, 접견 시 리시빙 라인 및 내빈 정렬도, 만찬장 테이블배치도, 헤드테이블 좌석배치도,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 좌석배치도,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 시나리오, 초청장 발송

3. 과테말라공화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참석자 점검표(1992.8월, 외무부 의전장실)
   - 만찬 Check List, 청와대 본관 만찬 시 유의사항, 입장계획, 만찬 비표리스트

4. 과테말라공화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진행 안내문(안)(1992.8.27., 외무부 의전장실)

5. 자료
   - 만찬 메뉴표, 청와대 승차 입장카드, 만찬 입장카드, 초청장(국·영문본), 실내악 연주자료(1992.8.27., 문화부)

92-0437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5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1 / 1-114

1. 한·과테말라 외무장관회담(1992.8.27.)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 한·과테말라 투자진출 증진 문제, 경협 및 기술이전 증진 대책, 교역 증대 추진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한국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및 INTELSAT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법률전문가 입후보에 대한 지지 약속
- 평가
  - 양국 우호 및 실질협력관계 심화 계기로 활용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여건 조성에 기여
  - 중남미 국가와의 기존 유대관계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도모

2. 한·과테말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언급 요지

- 노태우 대통령
  - 국제정세: 탈냉전 시대의 신국제 질서 설명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북방정책과 한·중국 수교 설명,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당부
  - 양자관계: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 희망, 대과테말라 투자진출에 정책적 협조 당부
-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 과테말라 및 중남미 정세: NAFTA 협상 타결 및 중남미지역 통합 동향 설명 등
  - 양자관계: 한국의 기술이전 및 투자 다변화 기대, 선교 활동을 비롯한 한국의 대중남미 유대 증진 활동에 사의 표명

3.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

-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계기 개최된 한·과테말라 외무장관회담 시 거론된 양국 간 사증협정 체결 문제, 한국의 ICAO 등 국제기구 이사국 등 입후보 관련 과테말라 측 지지 입장 표명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 조치 이행
- 방한 시 환대에 감사 의사를 표명한 과테말라 대통령 친서 및 노태우 대통령 답서 교환

4. 기타 참고자료

- 과테말라 농목식량부장관의 국제협력단 총재 면담요록

92-0438

Serrano Jorge A.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1992.8.26.-29. 전6권 (V.6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2 / 1-325

1. 말씀자료

- 공식 환영 행사 시 환영사(1992.8.27., 외무부): 환영사 요지, 환영사(안), 참고자료
- 과테말라 대통령의 환영식 답사(국문 번역본)
-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안)
- 만찬사(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행사): 만찬사 요지, 만찬사(안), 참고자료
- 과테말라 대통령의 만찬 답사(스페인어본 및 국문 번역본)
- 청와대 만찬 시 대화자료
- 과테말라 대통령 내외 공식 만찬 시 말씀자료
- 영부인 접견 말씀자료(외무부, 청와대 외교안보)
- 공식 만찬 시 영부인 말씀자료(외무부)
- 과테말라 대통령 신상자료: 인적사항, 성장 배경, 정치 철학, 업적 및 평가, 정상 외교
-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발표자료
  - 발표 시기 및 발표문(안), 세라노 대통령 인적사항, 방한 의의, 정상회담 의제, 방한 일정, 과테말라 개황

2. 참고자료

- 한·과테말라 외무장관회담 자료
  - 외무장관 인적사항, 회담 개요, 회담자료(인사 말씀, 양국 관련 정세, 양자관계(양국관계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경제·기술협력 관계)), 참고자료(과테말라 개황, Serrano 대통령 방한 주요 일정)
- 과테말라 대통령 공식 방한 참고자료(1992.7.2., 주과테말라대사관)
- Serrano 대통령 방한 참고자료(1992.7.16., 주과테말라대사관)
  - 공식 만찬 시 말씀자료, 공식 만찬 시 영부인 말씀자료, 영부인 환담자료, 과테말라 역사·관습 등 참고자료
-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관련 외무부 각 실국 작성 참고자료
  - 국제경제국, 중동·아프리카국, 외교정책기획실,
-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관련 대책 브리핑자료(외무부 미주국)
- 한·과테말라 정상회담 참고자료(청와대 외교안보)
- 중남미지역 정세

Gonchigdorj, Radnaasumbereliin 몽골 국회의장 겸 부통령 방한, 1992.2.9.-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0 / 3 / 1-29

Gonchigdorj, Radnaasumbereliin 몽골 국회의장 겸 부통령이 1992.2.9.~13. 방한함.

1. 방한 목적

-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주관으로 한국을 비롯, 네팔·파키스탄·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 시찰, 민주정치와 시장경제 운영 실태 파악

2. 방한 일정

- 2.9. 서울 도착
- 2.10. 김광웅 한국행정학회 회장 강연 및 행정학회장 주최 오찬, 대우사장 주최 만찬
- 2.11. 박준규 국회의장 예방, 국회사무처장 면담 및 오찬, 국회 시찰, 박준규 국회의장 주최 만찬
- 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대통령 예방, 몽골 신헌법 발효 기념 만찬 주최
- 2.13. 서울 출발

3. 참고자료

- 국회의장 면담 요록(1992.2.11., 국회의장 접견실)

92-0440

Macapagal, Diosdado 전 필리핀 대통령 방한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0 / 4 / 1-149

1986~92년 중 Diosdado Macapagal 전 필리핀 대통령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6.5.12.~21. 방한
   - 방한 목적: 유엔세계평화의 해 기념식 및 제5회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 기조연설
   - 대통령 및 최규하 국정자문위원회 의장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2. 1987.5.30.~6.6. 방한
   - 방한 목적: 통일교 주관 세계평화정상회의 참석
   - 대통령 예방을 요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음.

3. 1992.5.22.~25. 방한
   - 방한 목적: 제13차 밝은 사회 연찬회 회의 참석(경희대 주관)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0 / 5 / 1-52

1990~92년 중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1990.6.14. 페루 외무부,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자(7.28. 취임)의 7월 초 방한 희망 의사 전달

- 외무부는 6.18. 후지모리 대통령 방한 접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페루 측 국내 일정상 방한 계획 연기

2. 1990.8.17. 주한 페루대사, 11월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 후지모리 대통령의 방한 희망 의사 전달

- 8.20. 외무부, 11.12.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전후 다수의 국빈 방한 계획이 있음을 고려, 방한 시기를 11.5.~7.로 제의
- 9.19. 페루 측, 국내 사정으로 방한 계획 취소 통보

3. 1991.9.13. 페루 외무부, 후지모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계기 11.13.~15. 방한 희망 의사 전달

- 9.17. 외무부, 제3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11.12.~14.) 및 기확정된 국빈 방문 계획으로 방한 접수가 어려움을 통보

4. 1992.1.15. 페루 정부, 후지모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1992.3.18.~22.) 계기 3.22.~24. 방한 희망의사 전달

- 1.28. 페루 측은 일본 방문 계획이 연기되어 방한이 어렵다고 통보

92-0442

Gorbachov, M. 전 소련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전2권 (V.1 1991-92.6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6 / 1-263

1991~92.6월 중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방한 추진 경위

- 1992.1.13.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재단 총재로서 활동 재개
- 1992.2.18. 주러시아대사대리, 고르바초프 재단 야코블레프 부총재에게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고르바초프의 4월 중순 방일 계기 방한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 전달
- 1992.3.20. 레벤코 부총재는 금년 가을 편리한 시기에 고르바초프 방한 의사 표명
- 1992.3.23.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주러시아대사관에 방한 초청을 수락하며 금년 가을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한국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1992.4월 금명간 한국 측이 편리한 방한 일자를 제시하여 상호 절충하기로 합의

2. 방한 시기 검토

- 1992.3월 중순 추진 중인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이후로 방한 시기를 정하되 다른 외빈 방한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
  - 1991.10.12.~18. 보두엥 벨기에 국왕
  - 1991.11.2.~5. 영국 찰스 황태자
  - 1992.8월 또는 11월 중순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 및 인도 수상

Gorbachov, M. 전 소련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전2권 (V.2 1992.7-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7 / 1-245

1992.7~12월 중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방한 일정

- 10.7.
  - 서울 도착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
- 10.8.
  - 대통령 예방, 판문점 시찰
  - 서울대 총장 면담,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청와대 만찬
- 10.9.
  - 특별인터뷰(경향신문사 등)
  - 경향신문사 주최 오찬, 포럼 참석
- 10.10.
  - 기자회견 및 이한

2.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1992.10.3. 주러시아대사에게 러시아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방한을 중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면서 한국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해옴.

- 친서 요지
  - 금번 방한이 좌절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림.
  - 장래에 방한이 이루어져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함.
- 출국금지 조치 경위 및 배경
  -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구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관한 소송 증인으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출두를 하도록 하였으나, 고르바초프는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서 소환 불응 입장을 표명함.

92-0444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 사전준비 I(1990-92.8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8 / 1-316

1990~92.8월 중 정부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추진 및 사전준비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6.12. 소련의 최대 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6.17. 주러시아(구 소련)대사는 쿠나제 러시아공화국 외무차관 면담 시 노태우 대통령의 옐친 대통령 앞 축전을 전달함.
- 1992.1.22. 코지레프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은 주러시아대사 면담 시 옐친 대통령이 1992.5월 또는 6월 방한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함.
- 1992.3월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시 한국 측은 옐친 대통령의 1992.9.1.~10. 중 방한을 요청함.
- 1992.7.10. 정부는 옐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2.9.16.~18. 한국을 공식 방한 예정이라고 발표함.
  - 옐친 대통령은 1991.12월 소련연방 해체 이후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 러시아연방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시아 기본관계 조약에 서명할 예정임.

2. 옐친 대통령 방한을 위한 준비자료(1992.8.18., 구주국)

- 일정
  - 외무장관회담, 부총리회담, 기타 관계부처 장관회의, 경제인 간담회, 러시아 선발대 방한
- 정상회담 의제
  - 국제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양국관계 등
- 외무장관회담 의제
  -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기타 의제
- 옐친 대통령 방한 준비사항
  - 공동성명, 한·러시아 기본관계 조약, 양국 소개 TV 프로그램 주간 설정
- 자료 준비
  - 만찬사, 정상회담 자료, 외무장관회담 자료, 옐친 대통령 상세 인적사항, 만찬 시 대화자료 등

92-0445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2 사전준비 II(1992.9-11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9 / 1-272

1992.9~11월 중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일정 확정 경위

-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2.9.9. 및 9.10. 2차례 노태우 대통령과 전화통화 시 당초 예정되었던 1992.9.16.~18. 방한을 연기한다고 하고 1992.11월 말 혹은 12월 초순경 방한을 희망하였으며, 노 대통령은 11월 중순 이전 방한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1992.9.16. 주러시아대사는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면담 시 러시아 측이 제의한 옐친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일정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2. 쿠나제 외무차관 방한(1992.10.2.~7.)

- 쿠나제 차관은 1992.10.2.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양국 정상회담 의제, 한·러시아 공동성명 문안, 1983년 구소련기에 의해 격추된 KAL기 사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자료 전달 문제, 대사관 건축부지의 상호교환 문제, 러시아의 주부산총영사관 개설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3. 외무부 작성자료

- 옐친 대통령 방한 준비(1992.9.3., 구주국)
  -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경제부총리 회담, 기타 각료회담, 경제 세미나 개최
  - 공동성명 문안(국제안보, 아·태 협력, 한반도 문제)
  - 만찬사, 환영사, 정상회담 자료, 외무장관회담 자료 및 참고자료 등
- 옐친 대통령 방한 준비상황 보고(1992.9.3., 조약국)
  - 기본관계 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세관협력협정, 총영사관 설치 의정서 체결 추진
  - 대사관 건축부지 교환 문제
- 옐친 대통령 방한 준비(1992.11.7., 조약국)
  - 기본관계 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세관협력협정, 문화협정 체결 추진
  - 구러시아 공관 부지 문제

92-0446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3 사전준비 III(경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10 / 1-164

1992.7~11월 중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작성자료임.

1. 대러시아 경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1992.7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 추진 배경, 러시아연방의 최근 경제 동향, 대러 경제협력 기본방향
- 주요 경제 현안사항
  - 자원협력(야쿠트 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 가스전 개발사업 등)
  - 과학기술협력(첨단기술의 기업화, 과학기술 인력교류), 군수사업의 민영화 참여
  - 어업협력(러 극동수역 내 조업, 수산합작사업), 통신협력(한·러·일 해저케이블사업)
  - 연해주 공단 설치 추진,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 기타 추진사항(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상사고방지협정 체결 등)

2. 옐친 대통령 방한 준비(경제 분야)(1992.9.3., 외무부 국제경제국)

- 대통령 관련 일정별 추진현황
  - 공동성명(경제 분야), 별도 성명, 경제 세미나 개최, 경제4단체 주최 오찬
- 기타 사항
  - 경제 분야 별도 각료회담,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연해주 공단 문제 등

3. 한·러시아 양측은 1992.8.31.~9.1. 서울에서 개최된 경협 실무회의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경제 분야),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4. 옐친 대통령 방한 준비(1992.11.16., 외무부 국제경제국)

- 대러 경협재개 문제 타결
- 공동성명(경제 분야) 교섭 현황
  - 한국의 대러 경협차관, 자원개발, 통신 분야, 산림 분야,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명칭 등
- 경제4단체 주최 오찬, 한·러 기업인 세미나
- 부총리회담, 상공부장관회담, 재무부장관회담, 동자부장관회담, 관세청장회담 추진 현황

92-0447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4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11 / 1-273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방한 일정

- 국립묘지 헌화,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시찰, 국회 방문, 공동기자회견
- 경제부총리,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동자부장관 및 관세청장 회담 등

2. 체결 문서

-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양국 부총리 및 양국 관계기관 간 협정
- 1993년도 한·러시아 간 군사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3.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지

-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거부 등 러시아의 대외정책, 한·러시아 관계,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함.

4. 주요 협의내용

- 정무 분야
  - 러시아 측은 러·북 상호원조조약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북한 무기공급 중단 및 북한 핵문제 해결에 협조를 약속함.
  - 러시아 측은 1983년 구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KAL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블랙박스와 음성기록 테이프를 전달함.
  - 러시아 측은 스탈린 치하에서 강제 이주한 한인들의 법적권리와 명예 회복, 물질적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언급
  - 양측은 남북대화, 한·러시아 군사협력, 아·태지역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관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로 합의
- 경제 분야
  - 한국 측은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러시아 야쿠트 가스전에 대한 한국의 참여, 한국의 1992~93년도분 대러시아 경협차관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함.
  - 양측은 러시아가 제의한 23개 협력프로젝트, 러시아의 대전 Expo 참여, 러시아 연해주 한국공단 설치 추진 등에 대해 협의함.



5. 평가

- 옐친 대통령의 방한은 러시아의 한국 중시 정책 반영, 한·러시아 선린우호관계 틀 마련, 한국 북방정책의 내실화에 계기가 되었으며, 한·러시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6. 후속조치

- 다자간 대화 메커니즘 구성, 전략문제 연구센터 창설 등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옐친 대통령의 제의를 검토함.
- 한국의 대러시아 소비재 차관 재개, 제1차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제2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한·러시아 무역센터 건립, 러시아 내 한국기업 공단 설치, 러시아 군수사업의 민수화 참여방안, 산림 및 건설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함.

92-0448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5 공동성명)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0 / 12 / 1-263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1992.11.18.~20. 방한 시 발표된 공동성명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92.8.13. 외무부는 주러시아대사관을 통해 공동성명 문안을 러시아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8.28. 러시아 측은 대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 1992.10.2.~7.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한하여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 협의함.
- 1992.11.17. 한·러시아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된 실무협의에서 공동성명 문안에 최종 합의함.

2. 주요 내용(총 27개 조항)

- 한국의 러시아 개혁 노력을 지지하며 아·태지역의 협력 증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함.
- 러시아의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및 남북한 상호 핵사찰 실시를 지지함.
- 옐친 대통령은 1983년 구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KAL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협상에 의해 구러시아 공사관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 러시아의 강제 이주 러시아 거주 한인에 대한 명예 회복
- 러시아 야쿠트 가스전 공동개발, 연해주 한국공단 건설, 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자금 집행,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과학기술협력 추진 등

92-0449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6 의전 I : 일정 / 선발대)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1 / 1-304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외무부에서 작성한 의전 내용임.

1.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확정

- 1992.11.5. 러시아 정부는 주러시아대사관에 옐친 대통령이 방한 일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통보함.
  - 국립묘지 헌화, 정상회담,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국회 방문 및 연설, 한국 민속촌 방문, 공동 기자회견, 삼성전자 시찰 등

2. 방한 대표단

- 옐친 대통령 내외
- 공식 수행원: 코지레프 외무장관 등 7명
- 비공식 수행원: 바르추크 재무장관 등 34명
- 선발대: 크라시코프 대통령 공보 비서관 등 7명
- 언론인: 약 30명
- 경제인: 약 120명

3. 외무부 작성자료

- 러시아연방 옐친 대통령 내외분 공식방한 영접계획
  - 옐친 대통령 내외 약력, 수행원, 영접 준비사항, 공식 체한 일정
  - 주요 행사(공항 도착행사, 정상회담, 국회 방문 및 연설, 공동기자회견, 작별 예방, 공항 환영행사 등)
  - 공식 수행원 별도 일정
- 러시아 선발대와의 회의 자료
  - 선발팀 명단, 체제 일정, 수행원 명단, 점검사항, 통역계획
- 러시아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 시나리오
  - 국립묘지 헌화, 공식 환영식, 국회 연설, 김영삼 총재 조찬 등

92-0450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7 의전 II : 의전행사)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2 / 1-128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주요 행사 및 연설문 내용임.

1. 옐친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만찬(1992.11.18.,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 러시아 측 인사(49), 한국 측 인사(131), 주한 외교단(12)
- 노태우 대통령의 환영사, 옐친 대통령의 답사
- 만찬 세부 진행절차, 만찬장 테이블 배치도, 헤드 테이블 좌석 배치도

2. 옐친 대통령 내외분 방한 환영 공연(1992.11.19., 청와대 영빈관)

- 참가 인원(184)
  - 국립극장(62), 국립국악원(48), 리틀엔젤스 합창단(17) 등

3. 옐친 대통령 국회 방문 시 박준규 국회의장의 환영사(1992.11.19., 국문 및 러시아어)

4.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시 옐친 대통령 연설문(1992.11.19., 롯데호텔)

92-0451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8 의전 III : 관계기관 협조)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3 / 1-204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외무부가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한 내용임.

1. 1992.8.20. 외무부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1992.9.16.~19. 공식 방한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국방부장관, 총무처장관, 국회 사무총장 등 관련 부처에 공문을 통해 1992.8.23.~28. 방한한 러시아 선발대의 행사장 답사지원 등 협조를 요청함.
   - 9.14. 외무부는 옐친 대통령의 1992.9.16.~19. 방한이 연기되었다고 관계부처에 통보함.

2. 1992.9.14. 외무부는 옐친 대통령 내외분이 1992.11.18.~20. 공식 방한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국방부장관, 총무처장관, 국회사무총장 등 관련 부처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함.
   - 법무부, 관세청, 대한항공: 공항 도착 및 출발 행사
   - 공보처: 러시아 수행기자단 안내 및 취재 협조, 홍보대책 수립, 한국소개 책자 배포
   - 보사부: 국립의료원 비상의료진 편성 및 대기
   - 국방부: 서울공항 이용 및 출입 허가
   - 경찰청: 경호 협조, 사이드카 지원
   - 국회사무처: 국회의장 및 정계 지도자 면담
   - 문화부: 민속공연
   - 총무처: 공식 환영식, 공항 출발 시 환송 행사
   - 법무부, 국방부: 러시아 특별기 운항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9 홍보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4 / 1-214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 및 주요국의 반응 내용임.

1. 러시아 언론보도

- 러시아 언론들은 1992.11월 중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영상물을 방영함.
  - 11.15. 러시아 오스탄키노 제1 TV는 한국전통무용과 탈춤을 20분간 방영
  - 11.16.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노태우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
  - 11.17. 러시아 국영방송사 RTR는 '21세기를 앞둔 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25분 방영
  - 11.20. 러시아 모스크바방송은 한·러시아 간 오랜 대결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도
- 러시아 언론들은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러시아 대외정책이 기존의 서방 일변도에서 아·태지역에 중점을 두는 동방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함.

2. 주요국 반응

-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이 한·러시아 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슈나이더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러시아 관계 증진을 환영하며 동북아 평화협력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논평(1992.11.20.)
  - 미야자와 일본 총리는 옐친 대통령의 아·태지역 집단안보 체제 창설 제의가 바람직하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논평(11.20.)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언론들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한·러시아 관계 증진이 일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
- 북한은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은 외세 의존적이라고 비난

92-0453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0 경제인 세미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5 / 1-245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중 11.19.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시아 경제인 세미나 결과임.

1. 주최

- 주한 러시아대사관, 한·러시아(구소련) 경제협회

2. 참석자

- 한국 측: 한·소련 경제협회 회원, 정부 및 유관 단체 인사 약 200명
- 러시아 측: 옐친 대통령 수행 경제인 약 140여 명

3. 발표 주제

- 한·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한봉수 상공부장관)
- 러시아의 경제개혁 현황(쇼힌 러시아 대외경제담당 부총리)
- 러시아의 과학기술 잠재력(말리셰프 러시아 대통령 고문)
- 한·러시아 경제 관계의 발전 동향(콥젭스키 러시아 대외경제관계성 아·태국장)

4. 주요 결과

- 러시아 측 언급 요지
  - 러시아와 아·태지역 간 협력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 과거 러시아는 정부가 주관이 되어 외국 차관을 도입하였으나, 앞으로 러시아 기업들이 외자도입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한국의 러시아 야쿠트 가스전 및 사할린 가스전 개발 참여 의지를 평가함.
  - 한·러시아 간 유망협력 분야는 소비재 합작투자 및 생산, 우주항공 등 과학기술 분야임.
- 한국은 1993.1월 중 경협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함.

92-0454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1 자료 I)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6 / 1-283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외무부 작성자료임.

1. 옐친 대통령 부인 면담 시 영부인 면담자료

- 인사말씀, 서울 소개, 자연환경, 취미 등 일상생활, 문화예술
- 여성의 사회활동, 가정과 교육, 내조의 공 치하, 맺음말씀

2. 나이나 러시아 대통령 부인을 위한 오찬 시 말씀자료

- 인적사항, 말씀자료, 참고자료(러시아 연방 개관 등)

3. 옐친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만찬 시 대화자료

- 인사말씀, 러시아에 대한 관심 표명, 옐친 대통령 신상
- 한·러 기본관계 조약, 국회 연설, 양국 경제협력, 맺음말씀

4. 한·러 정상회담 자료

- 인사말씀, 말씀 요지(단독회담, 확대회담), 한·러 기본관계 조약

5. 한·러 외무장관회담 말씀자료

- 외무장관 인적사항
- 말씀자료
  - 러시아 및 CIS 정세
  - 협정체결, 러·북한 관계, 대사관 부지 상호교환 문제
  - 총영사관 설치, KAL기 사건,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 문제 등

92-0455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2 자료 II)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7 / 1-131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정부 관련 부처 작성자료임.

1.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계획(과학기술처)
   - 제2차 한·러시아 과기부 장관회의 주요 합의사항, 한·러시아 정상회담 시 포함 희망사항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첨단기술이전 기업화 과제, 과학기술 인력교류
     -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운영, 현지 정보·연구 활동의 활성화

2. 한·러시아 과거 사료 발굴사업(외무부)
   - 한·러시아 사료 발굴작업 현황, 러시아-여타국 간 사료 발굴 협조
   - 한·러시아 사료 발굴 관련 러시아 측 입장, 현행 작업의 문제점, 향후 대처방안

3. 한·러시아 정상회담 자료
   - 외무부
     - 동북아 정세 일반, 한반도 정세(외교정책기획실)
     - 대러 경협자금 집행, 자원개발 참여, 연해주 공단(국제경제국)
     -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통상국)
   - 한·러시아 군사협력(국방부)
   - 러시아 내 한국어 방송 확대(공보처)
   - 어업협력(수산청)
   - 한·러시아 에너지 자원협력 현황(동력자원부)
   - 철도 및 해운 협력(교통부)

92-0456

Yeltsin, Boris 러시아 대통령 방한, 1992.11.18.-20. 전13권 (V.13 자료 III)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8 / 1-149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992.11.18.~20. 방한 관련 외무부 작성자료임.

1. 옐친 대통령 신상 관련 자료

2. 보리스 옐친 대통령 내외 방한 참고자료
   - 옐친 대통령 신상자료, 대통령 부인 신상자료, 러시아연방 개황

3. 옐친 대통령 방한 수행원 인적사항
   - 그라체프 국방장관, 코지레프 외무장관, 부르불리스 국무장관
   - 페로로프 대통령 행정실장, 쿠나제 외무차관, 체르니쉐프 국가 의전장 등

4. 한·러 외무장관회담 참고자료
   - 러시아 및 CIS 정세
   - 한·러 관계
     - KAL기 사건, 과거 사료 정리, 한·러 외무부 간 협의체 구성, 구소련 거주 한인 명예회복 문제
     - 군사협력, 러시아 측의 극동분쟁방지센터 설치 제의, 대사관 부지 상호교환 문제, 경제통상 관계
   - 러·중 관계, 옐친 대통령의 영국 및 헝가리 방문 결과

5. 옐친 대통령 방한과 한·러 관계(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 방한 개요, 방한 의의, 향후 대러 외교방향

92-0457

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 방한, 1992.5.19.-2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9 / 1-210

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가 1992.5.19.~24. 방한함.

1. 사전 교섭

- 주태국대사는 1989.5.2. Maha Vajiralongkorn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3.25.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푸미폰 국왕 면담 시 왕세자를 초청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방한 초청을 언급함.
- 태국 외무성 동아과장은 1991.12.23. 왕세자가 1992.3.9.~14. 북한을 방문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남북한을 공히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명함.
- 외무부는 주태국대사에게 왕세자를 정부 귀빈자격으로 1992.3.14.부터 3박 4일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주재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 태국 측은 1992.5.19.~24. 방한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주태국대사에게 외무부장관 명의 왕세자 방한초청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2. 결과보고(외무부장관의 태국 왕세자 예방 시 거론사항)

- 양국관계 평가
  - 양측은 태국의 한국전 참전 이래 양국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무역, 투자 등 실질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
- 왕세자 방한의 의의
  - 양측은 출라톤 공주(1987.8월)와 시린톤 공주(1991.3월)의 방한에 이은 왕세자의 방한으로 한·태국 양국관계가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 태국 국왕 영도력 치하
  - 한국 측은 푸미폰 국왕이 태국 국민의 화합과 번영의 구심점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향유하고 있는 데 경의를 표하고, 최근 들어 태국이 이러한 국왕의 영도력에 힘입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

92-0458

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 방한, 1992.5.19.-24. 전2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10 / 1-242

Maha Vajiralongkorn 태국 왕세자의 1992.5.19.~24. 방한 관련 의전 내용임.

1. 타부처 협조 요청

- 법무부장관
  - 입출국 시 대리수속
- 한국공항관리 이사장
  - 화물 간이 통관 및 출입국 대리수속
- 국방부
  - 공항 환영송 인원 지원 및 서울공항 이용과 출입 허가
  - 국립묘지 헌화, 합참의장 면담 및 주최 만찬, 육군사관학교 시찰, 방산 업체 방문
- 국무총리 비서실장
  - 국무총리의 공항 출영,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주최 만찬
- 총무처
  - 국무총리 예방 시 정부청사 방문 관련 조치

2. 국무총리 주최 만찬

- 마하 와질라롱콘 태국 왕세자를 위한 국무총리 내외 주최 만찬(안)
- 연주계획: 문화방송관현악단 소속 5인조 실내악단
- 메뉴: 국무총리 주최 만찬 참석범위(안)
- 만찬 초청인사
- 공식수행원 명단
- 만찬초청장

92-0459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11 / 1-184

1992.11.2.~5. 찰스 영국 왕세자 방한 관련 사전교섭 관련 내용임.

1. 방한 초청 경위

- 주영국대사는 1991.2.26. R. Hervey 영국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 찰스 왕세자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 명의 방한초청장을 전달함.
- 주한 영국대사는 1991.5.14. 구주국장을 면담,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4.2.자 찰스 왕세자의 답신을 전달해옴.
- 1991.10.21. 주한 영국대사관은 찰스 왕세자 부처가 1992.10월 마지막주 또는 11월 첫째주에 방한 가능함을 통보해옴.
- 동 방한에 대해 1991.11.1. 영국시간 09:00(한국시간 18:00), 양국 정부가 동시에 아래 문안으로 발표를 희망함.
  - '영국 찰스 왕세자 부처가 노태우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2년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 언론 대책

- 발표 시기는 청와대(공보)와 협의, 확정 후 언론에 통보

3. 조치 사항

- 구체적 방한 일시 및 일정에 대해 영국 측과 계속 협의 예정
- 찰스 왕세자 방한 일정은 영국 측 제의대로 1992.11.2.~5.로 확정됨.

4. 일정 검토사항

- 국회 연설
  - 기본적으로 국회와 협의할 사안
- 스코틀랜드 발레단 공연 관람 시 대통령 내외분 초청 문제
- 지방 일정
  - 경주 또는 민속마을(전남 낙안) 방문 등 검토
- 왕세자비 별도 일정
  - 삼육재활원 방문 가능성 검토

5. 관련 자료(영국 측으로부터 입수)

- 왕세자 공식 약력 및 신변사항
- 왕세자 내외 관련 서적 목록 및 The Definitive Diana 1권
- 왕세자 외국 방문 및 수행원 관계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2 선발대 방한)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1 / 12 / 1-113

1992.11.2.~5. 영국 찰스 왕세자 방한 준비를 위해 방한한 선발대 관련 내용임.

1. 선발대 인적사항

- 단장
  - Mr. P. Westmacott 왕세자 비서차장
- 단원
  - Mr. R. Arbiter 왕세자 공보비서
  - LT. Comm R. Frazer 집사
  - Superintendent C. Trimming 경호관
- 주한 영국대사관
  - D. Reilly 참사관, J. Silva 부영사

2. 선발대 방한 일정

- 8.18. 서울 도착
- 8.19.
  - 자체회의
  - 제1차 한·영국 합동회의
  - 주한 영국대사 주최 오찬
  - 청와대 답사 및 경호 관계 회의
  - 세종문화회관 답사 등
- 8.20.
  - 영국군 참전기념비, 신라호텔 답사 등
- 8.21.
  - 중앙복지원, 현대자동차 답사 등
- 8.22.
  - 불국사, 안동 하회마을 답사 등
- 8.23.
  - 고려대 인촌기념관 답사 등

92-0461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3 일정 및 의전)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1 / 1-218

1992.11.2.~5. 영국 찰스 왕세자 방한 일정 및 의전에 관한 내용임.

1. 일정

- 11.2.
  - 서울공항 도착 및 공항 환영식
  - 국립묘지 헌화
  - 주한 영국대사관 신청사 개관식, 서훈 전수식 및 리셉션
- 11.3.
  - 대통령 내외분 예방
  - 소장기업인과의 간담회
  -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 영국군 전적지 방문 및 영국군 참전기념비 헌화
  -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 11.4.
  - 대한성공회 방문
  - Britain for Korea Fair 시찰
  - 공항/하수처리에 관한 세미나 참석
  - 경영 및 환경에 관한 합동 기업인 세미나 참석
  -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 영국 모직물 전시회 참석
  - 주한 영국인을 위한 리셉션
  - 스코틀랜드 발레단 공연 관람
- 11.5.
  - 석굴암, 불국사 관광
  - 현대조선소, 양동마을 방문
  - 이한

2. 의전

- 귀빈 방문 시 적용되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모든 의전절차 진행

92-0462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4 오·만찬)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2 / 1-274

1992.11.2.~5. 영국 찰스 왕세자 방한 관련 오·만찬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

- 일시: 11.3. 19:00~21:00
- 장소: 청와대 영빈관
- 복장: 블랙타이 또는 고유의상(부인: 한복)
- 메뉴: 양식(케이터링: 신라호텔)
- 초청 대상(부부 동반): 112(203)명
  - 영국 측: 13(18)명
  - 주한 외교단: 7(13)명
  - 한국 측: 92(172)명

2.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 일시: 11.3. 12:10-13:40
- 장소: 국무총리 공관
- 복장: 평복(부인: 한복)
- 메뉴: 한식(케이터링: 워커힐호텔)
- 참석 범위(부부 동반): 34명
  - 한국 측: 18명
  - 영국 측: 14명
  - 주한 외교단: 2명

92-0463

Charles 영국 왕세자 방한, 1992.11.2.-5. 전5권 (V.5 기관방문 및 자료)

생산연도	1985-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3 / 1-226

1992.11.2.~5. 영국 찰스 왕세자 방한 관련기관 방문 및 자료에 관한 내용임.

1. 경호 관련 검토사항
   - 차량 문제, 총기류 반입 문제, 숙소 경호 문제, 화물 검측 등

2. 기관 방문 시 필요한 동선과 의전 등 관련 사항 수록

3. 각 행사별 필요한 자료 수록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1 기본문서 I : 1990.10-91.10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4 / 1-182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부시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 추진

- 1991.11.27.~12.7.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4개국 방문
- 아시아 순방 일정(안)
  - 워싱턴 출발(11.27.), 일본 방문(11.28.~12.1.), 한국 방문(12.1.~3.), 인도네시아 방문(12.3.~4.), 호주 방문(12.4.~7.), 하와이 도착(12.7. 진주만 피습 50주년 행사)

2. 미국 측 선발대 방한(1991.10.22.~23.)

- 주요 일정
  - 한국 측 의전 관계자와 2차례 회의, 부시 대통령 방한 일정 잠정(안) 협의
  - 신라호텔, 국립묘지, 국회, 용산미군기지(Camp Casey), 청와대 등 행사장소 답사

3. 한국 측의 한·미 정상회담 의제(안)

- 신세계 질서 형성에 있어서의 한·미 간 협력
  -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 동북아지역 정세,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역할
- 한·미 안보협력체제 강화
  - 한·미 안보협력, 한반도 핵문제
- 한반도 통일 및 대북한 정책
  - 남북대화 추진 방향,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미국의 대북한 정책
- 통상·경제협력
  - 한·미 통상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 강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성공을 위한 협조
-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협의
  - 유엔에서의 한·미 협력, 베트남 문제, 중동평화

92-0465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2 기본문서 II : 1991.11월-12.22.)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5 / 1-211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부시 대통령 아시아 순방 연기

- 1991.11.20. 백악관 브리핑에서 Fritzwater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발표
  - 호주(1991.12.31.~1992.1.3.), 싱가포르(1992.1.3.~5.), 한국(1992.1.5.~7.), 일본(1992.1.7.~10.)
-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1991.11.21.)
  - 부시 대통령 방한 및 아시아 순방(배경 설명)

2. 미국 측의 부시 대통령 방한 일정(안)

- 1.5. 서울 도착, 국립묘지 헌화, 대사관 직원 접견, 비공식 만찬(청와대)
- 1.6. 공식 환영식, 정상·확대회담, 과학기술협정 서명식 참석, 기자회견, 한·미 기업인 초청 오찬 연설(신라호텔), 국회 방문 (정당 지도자와의 면담 및 국회 연설), Camp Casey 방문, 공식 만찬(청와대)
- 1.7. 서울 출발

3. 부시 대통령 아주 순방 설명회

- 1992.12.20. Solomon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USIA 외신기자센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부시 대통령의 아주 순방 설명회 개최
- 부시 대통령 방한 시 의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 부재 관련 부시 대통령의 언급내용 등을 주목할 필요성
  - 부시 대통령 방한 시 의제로 UR(우루과이라운드) 등 경제문제, 북한 핵문제 및 기타 한·소련 경제 관계와 같은 지역문제 등을 포함한 정치·경제·안보상의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

4. 참고자료

-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대책(1991.11.25., 북미1과)
  - 방한 및 아시아 순방 배경, 미국 측의 기대성과, 우리의 기대성과, 대책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3 기본문서 III : 1991.12.23.-92.1월)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6 / 1-223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미국 백악관 선발대 방한 일정(안)

- 12.27. 선발대 도착(숙소: 신라호텔)
- 12.28. 미국 측 자체 회의, 선발대와의 회의, 국회·국립묘지·Camp Casey·용산기지 답사
- 12.29. 개별 활동
- 12.30. 서울공항, 외무부 의전장 주최 오찬, 청와대 답사

2. 부시 대통령 수행 기업인

- 부시 대통령 수행 기업인 관련 사항(1992.1.6., 통상국)
  - 수행 기업인 성명, 기업명·직위·기타 직책·자격, 인적 사항, 기업 업종, 기업 현황
- 부시 대통령 수행 기업인 일정 관련 미국 측 제의 및 우리 측 입장 검토(1991.12.24., 외무부)

3. 한·미 정상회담(경제·통상 관계)

- 1991.12.31.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 한·미 정상회담 시 양측 간 경제·통상 분야 합의사항을 언론에 발표할 것을 제의
- 1992.1.3. 한·미 정상회담 관련 대책회의 결과 및 외무부 검토의견 작성

4. 참고자료

-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면담자료(1992.1.4., 외무부 미주국)
  - 정상회담 의제별 언급 예정사항, 북한 핵문제, 한·미 전략 비행훈련, 미·북한 접촉 문제, 구소련 지원 국제회의 참가, 새로운 통상 문제 해결 체계, 과학기술협력협정 재체결 및 과학기술재단 설립
- 공식 환영식 환영사, 비공식 만찬 말씀자료(1992.1.5., 외무부)
- 부시 미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 시 말씀자료(대통령용)(1992.1.6., 외무부)
- 만찬 환영사(국문본·영어번역본)(1992.1.6., 청와대)
- 부시 대통령 만찬 답사(영문본, 국문번역본)(1992.1.6.)

92-0467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4 영접계획/의전행사)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7 / 1-310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시 영접계획 및 의전행사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영접준비 관련 사항

- 도착, 출발 일자와 시간, 주재국 출발 후 귀국 시까지의 전 일정, 대통령 관련 사항, 부인 동반 여부, 국기·국가·민요, 수행원 명단, 일정, 훈장, 선물 및 자서 존영 교환, 공식 현판 문안, 차량, 숙소, 특별기, 선발대 파견
- 부시 대통령 방한 영접 관련 주요 검토사항, 부시 대통령 내외분 공식 방한 일정 관련 주요 검토사항, 미국대사관 측과의 협의자료(1991.12.20.)
-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1991.12.24., 외무부 의전장실)
- 미국 측 선발대와의 회의자료(1991.12.28., 외무부 의전장실)

2. 환영·송, 일정 관련 사항

- 미합중국 조지 부시 대통령 내외분 공식 방한 환영·송 행사계획(1991.12월, 총무처)
- 부시 미 대통령 내외분 방한 주요 일정(1992.1.4., 외무부 의전장실)

3. 만찬, 환영 공연 관련 사항

-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 및 민속공연(안)(1991.12월, 외무부 의전장실)
-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참석자 점검표(1992.1.1., 외무부 의전장실)
-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좌석배치도, 청와대 만찬 참석범위
- 미합중국 대통령 초청 청와대 만찬 초청자 리스트, 만찬 메뉴
- 부시 대통령 내외분 방한 환영 공연(1992.1.6., 문화부)
-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만찬 진행 안내문(안)(1992.1.6., 외무부 의전장실)
- 조지 부시 대통령 환영 공연 프로그램, 만찬 초청장, 만찬 입장카드·좌석표(Table Plan) 등

92-0468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5 결과 /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8 / 1-282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결과 및 언론 보도 관련 자료임.

1.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 정상회담 시 주요 협의내용
-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결과(국무회의 보고자료)(1992.1.9., 외무부)
-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경제 분야 주요 논의사항(1992.1.7., 경제기획원)
- 부시 대통령 한·미 상공인 초청 오찬 연설 요지 및 연설문(영문)(1992.1.6., 외무부 통상2과)
- 부시 대통령 국회 연설문(영문본, 국문 번역본)(1992.1.6.)
- 부시 대통령 한·미 상공인과의 조찬 시 언급내용
- 부시 대통령 내외 초청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 만찬 시 부시 대통령 건배사
- 외무부장관, 솔로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 시 말씀요지(경제·통상 분야)(1992.1.9., 통상국)

2. 언론 및 홍보 관계

- 부시 대통령 아주 순방 관련 기자회견(1991.12.21., 외무부)
-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대언론 브리핑자료(1992.1.3., 외무부)
-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보도 참고사항(1992.1.3., 외무부)
- 한·미 정상회담 경제·통상관계 홍보지침(1992.1.4., 외무부)
-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발표문(1992.1.6., 외무부)
-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문(1992.1.6., 청와대 공보)
- 부시 대통령 방한 결과 대언론 설명자료(1992.1.6., 외무부 미주국)
- 양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시 질문 응답 요지(1992.1.6., 대통령 공보비서실)
- 부시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외무부 홍보 실적(정무·안보 분야)(1992.1.7., 외무부 미주국)
-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외신기사(NYT, Washington Post, LA Times, Chicago Tribune 등)
-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경제·통상관계 국내 언론보도 평가(1992.1.7., 외무부)
- 기자회견 시 말씀자료(1992.1.10., 미주국)
- 부시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참고사항, 특기 보고사항
-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예상 질문·답변자료
- 부시 대통령 아시아 순방 브리핑(미 NSC), 부시 대통령 방한 성과 등 설명회, 상원 청문회

92-0469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6 자료 I : 정상회담 자료)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9 / 1-198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자료임.

1. 한·미 정상회담자료(정무 분야)(1992.1.6., 외무부 미주국)
   - 인사 말씀, 동북아·태평양에서의 신질서 형성, 한·미 안보협력, 한반도 통일 및 대북한 정책, 주요 대외정책협력

2. 별도 회담자료(단독 정상회담 시)(1992.1.6., 외무부)
   - 정치·안보 분야
     - 대소련 지원 국제회의, 대소 경협 문제, 한·베트남 관계, 몽골 지원 문제, 팬암기 폭파사건 관련 대리비아 조치, 말레이시아 제의 '동아시아 경제회의(EAEC)' 문제, 대미얀마 제재조치 동참 문제, 걸프전비 문제
   - 경제·통상 분야
     - 한·미 통상 문제의 체계적 해결방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활 운동, 금융시장 개방, 통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Amway사 영업 제한), 지식재산권,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한·미 과학기술재단 설립, 유자망 어업 중지

3. 한·미 정상회담 전 검토·조치사항(1991.10월, 미주국)
   - 안보 분야, 경제·통상 분야, 대외정책협력

4. 한·미 정상회담, 한·미 외무장관회담 대비 외무부 각 실·국 소관 회담자료
   - 통상국, 국제기구국, 외교정책기획실, 중동아프리카국

5. 한·미 정상회담 전 검토 및 조치사항(정무 분야, 1991.12월, 미주국)
   - 걸프전비 문제, 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PSA), 전시지원협정(WHNS) 체결, 대소 지원 국제회의, 팬암기 폭파사건 관련 대리비아 조치, 몽골 지원 문제, 요르단 추가지원, 대미얀마 제재조치 동참 문제, 한·베트남 관계, 한·이스라엘 관계

6. 한·미 정상회담 참고자료(1992.1월, 주미국대사관)
   - 정상회담에 임하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 우리 측 주요 고려사항, 정상회담 시 중점 강조사항, 정무 관계 주요 현안, 경제·통상 관계 현안, 금후 한·미 관계의 과제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방한, 1992.1.5.-7. 전7권 (V.7 자료 II : 통상현안 대책자료)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10 / 1-236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2.1.5.~7. 방한 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통상 현안 대책자료임.

1. 한·미 간 주요 협의 의제(안)(정상 및 관계 각료 간 토의 의제 포함)(통상2과)

2. 한·미 통상 관계(한·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의 자료)(1991.10.23., 통상2과)

3. 한·미 정상회담 경제·통상 주요 현안 점검(1991.10월, 주미대사관 경제과)

4. 한·미 경제 관계와 대응방안(1991.12.24.,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5. 부시 대통령 방한 관련 상무부 작성자료

6. 부시 대통령 수행 기업인에 대한 한·미 통상 관계자료

7. 한·미 정상회담 자료(경제·통상 분야)(1991.12월, 외무부)
   - 말씀자료 및 참고자료

8. 정상회담 후 발표자료(경제·통상 관련)

9. 한·미 정상회담 대책회의 자료(통상현안)(1992.1.3., 통상국)

10.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경제·통상 관계 논의 예상 사항(1992.1.3., 통상2과)

11.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자료(경제·통상 관계)(1992.1.3., 통상2과)

12.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미 측의 의도 분석)

13. 미국 측 제기 현안 검토(1992.1.3., 경제기획원)

92-0471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2 / 11 / 1-188

Islam A. Karim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1992.6.16.~19. 방한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 1990.8월 우즈베키스탄 측, 김종인 경제수석 방소 시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초청
- 1990.9월 대통령, 카리모프 대통령에 대한 정부 명의 방한 초청 건의 재가
- 1991.11.26. 주소련대사, 정부 명의 카리모프 대통령 초청 서한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전달
- 1992.3.20. 카리모프 대통령, 1992.6.16.~18. 방한 희망

2.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일정 합의(1992.6.5.)

- 6.16. 공항도착 행사, 비공식 만찬
- 6.17.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립묘지 헌화,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비원 관람,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기자 인터뷰,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
- 6.18. 한국수출입은행장 접견, 삼성물산 방문,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서강대 총장 주최 오찬, 공항 환송행사

3.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관련 준비사항(정무 관계)(구주국)

4.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관련 자료

- 정상회담 요록(확대회담, 별도환담)(1992.6.17., 청와대 본관)
- 주라베코프 부총리 면담요록(1992.6.17., 경제기획원 장관실)
- 외무장관 면담요록(1992.6.17., 외무부장관실)
- 우즈베키스탄 항공사 사장 면담요록(1992.6.18., 외무부 통상국장실)

5. 우즈베키스탄 방한 관련 국내 언론보도 기사

92-0472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2 관계와 협력원칙 선언)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3 / 1 / 1-197

1. 한·우즈베키스탄 협정 관련 회의 결과(1992.5.28., 외무부)

-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우즈베키스탄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안 제의,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서명 희망(선언 정본언어는 한글, 우즈베키스탄어로 함.)
- 우즈베키스탄 측은 투자보장, 과학기술, 무역협정은 한·소련 간 해당 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을 희망하나 우즈베키스탄 측은 의회 비준 등 국내 정치적 문제상 한·소련 간 협정을 별도 각서로 승계하는 형식의 한·우즈베키스탄 간 협정 체결은 곤란하다는 입장
- 기타 협정(사증발급 양해각서, 문화협정, 대사관 개설의정서) 관계는 1992.5.19. 제2차 회의 시 토의 예정
- 추진계획
  - 한·우즈베키스탄 선언: 우즈베키스탄 측 희망대로 추진
  - 투자보장, 과학기술, 무역협정: 가급적 우즈베키스탄 측 희망대로 추진

2.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 검토(1992.6.2., 외무부)

- 경위
  - 1992.5.5. 우즈베키스탄 측,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협력 원칙에 관한 조약' 체결 제의
  - 1992.5.8. 한국 측, 국내절차 등 사정상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동 조약 서명은 어렵다는 입장 전달
  - 1992.5.26. 우즈베키스탄 측, 동 조약을 양국 간의 선언형태로 서명 희망
  - 1992.5.28. 우즈베키스탄 선발대, 한·소련 모스크바 선언과 유사한 형태의 우즈베키스탄 측 안 제시
  - 1992.6.1. 한국 측 대안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 측과 협의
- 선언 채택 문제 검토
  - 우즈베키스탄 측이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의 성과로 동 선언 서명을 강력히 희망하는 점을 감안, 양국 간 제반 우호협력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동 선언의 호의적 검토 요망
  - 우즈베키스탄에는 20여만 명의 한인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바, 선언내용에 한인교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장 확보
  - 양국 대통령 간 선언형태의 합의문 채택에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불요한바, 양국 간 문안 합의가 되는 경우,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서명 가능

92-0473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3 의전 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3 / 2 / 1-186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선발대 회의자료(1992.5월, 외무부 의전장실)

- 제2차 합동회의 개요
- 선발대 답사일정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일정(안)
- 수행원 규모(잠정)
- 영접 준비사항
- 주요 행사별 검토사항 및 요청사항
- 기능별 검토사항

2.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1992.6.16.~19., 외무부 의전장실)

- 대통령 약력
- 수행원 명단
  - 공식 수행원(8명): 부총리, 외무장관, 대외경제관계장관, 지방산업장관, 보건장관, 문교장관 등
  - 비공식 수행원(21명):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자문관 등
- 영접 준비사항
- 공식 체한일정
  - 6.16. 서울공항 도착, 공항 도착행사
  - 6.17.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립묘지 헌화,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비원 관람,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기자 인터뷰,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
  - 6.18. 한국수출입은행장 접견, 삼성물산 방문,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서강대 총장 주최 오찬, 공항 환송행사, 대우 국민차 공장 시찰, 대우 의류공장 시찰, 부산시장 주최 만찬
  - 6.19. 김해공항 향발, 이한
- 주요 행사
  - 공항 도착행사, 공식 환영행사, 정상회담, 국립묘지 헌화,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공식 만찬,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총장 주최 오찬, 공항 환송행사
- 공식수행원 별도 일정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개황

92-0474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4 의전 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3 / 3 / 1-144

1. 관계기관 협조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관리국장, 문교부장관, (주)대우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총무처장관, 문화부장관, 부산직할시장, 한국공항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종합무역전시장 사장, 삼성물산 회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에 협조 공문 발송

2. 연회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내외분 주최 공식 만찬(안)(1992.6.16., 외무부)
  - 일시: 1992.6.17. 19:00~21:00
  - 장소: 청와대 본관
  - 복장: 평복(한국 측 부인: 한복)
  - 메뉴: 양식(케이터링: 워커힐호텔)
  - 초청 범위(부부 동반): 우즈베키스탄 측 25(25)명, 외교단 2(4)명, 한국 측 41(57)명
  - 첨부: 메뉴, 만찬 세부 진행절차(안), 접견 관련 도표, 접견 시 리시빙 라인 및 내빈 정렬도, 만찬장 테이블 배치도, 헤드테이블 좌석 배치도

92-0475

Karimov, Islam 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1992.6.16.-19. 전5권 (V.5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3 / 4 / 1-223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카리모프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만찬사(안)(1992.6월, 외무부)

2.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시 환영사(안)(1992.6.16., 외무부)

3.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자료(1992.6월, 외무부)
   - 카리모프 대통령 인적사항
   - 말씀자료
     - 인사말씀
     - 국제정세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독립국가연합 및 우즈베키스탄 정세(우즈베키스탄 측 설명 예정)
     -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 맺음말씀

4.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자료(1992.6.17., 외교안보)
   - 카리모프 대통령 인적사항
   - 말씀요지
   -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

5. 아브두라자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장관 면담자료(구주국)
   - 면담 일시 및 장소: 1992.6.17., 외무부장관실

6.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위한 공식 만찬 시 대화자료(1992.6월, 외무부)

Perez, Carlos Andres 베네수엘라 대통령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8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3 / 5 / 1-58

1981-92년 중 Carlos Andres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 방한 교섭 관련 내용임.

1. 1982.6월 정래혁 국회의장 명의 방한초청장 발송
   - 페레스 대통령은 당시 상원의원, 1974~79년간 집권한 전 대통령
2. 1983~88년 수차례 방한 추진 중 베네수엘라 국내 사정으로 취소
3. 1989.2월 최광수 특사, 페레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시 노태우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 전달
4. 1990.6월 페레스 대통령, 노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1991년 말 또는 1992년 중 방한 희망 의사 표명
   - 노 대통령 명의 방한 환영 답신 전달
5. 1991.5월 페레스 대통령, 김재훈 주베네수엘라대사 면담 시 1992년 중 방한 예정임을 언급
6. 1991.11월 페루 여당 중앙위원 방한 시, 페레스 대통령의 1992.5월 중국 방문 계기 방한계획 언급
7. 1992.1.22. 페루 외무차관, 페레스 대통령 중국 방문이 5월 초로 확정됨에 따라 4월 말 또는 5월 초 한국과 일본 공식 방문 추진계획임을 언급

92-0477

정원식 국무총리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방문, 1992.6.7.-2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남미과
MF번호	2022-33 / 6 / 1-159

정원식 국무총리가 1992.6.7.~22.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를 방문함.

1. 정원식 국무총리의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 및 남미 순방계획

- 대표단
  - UNCED대표단(29명): 국무총리(부인 동반, 수석대표), 대표 14명(환경처장관, 외무부차관 등), 자문관 13명 등
  - 남미순방대표단(14명): 국무총리 내외, 공식 수행원 6명(외무차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비공식 수행원 6명 등
- 주요 일정
  - L.A.(6.7.~8.): 교민 피해지역 시찰, 교민대표들과 조찬 등
  - 상파울루(6.9.~11.): 환경기술박람회 시찰, 교민초청 리셉션 등
  - 리우데자네이루(6.11.~15.): UNCED 정상회의 참석, 브라질 대통령 주최 오찬 등
  - 아르헨티나(6.15.~18.): 한국상품 종합전시장 개관식 참석, 교민 주최 환영 만찬, 메넴 대통령 예방, 메넴 대통령 주최 오찬, 국회 상·하원 의장 면담 등
  - 뉴욕(6.18.~19.)

2. 방문 보고

- L.A.(6.7.~8.)
  - 6.7. 브래들리 LA 시장 면담, 교민 피해지역 시찰
  - 6.8. 교민대표 초청 오찬, 폭동사태 피해자 대표 별도 면담 및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예방
- 상파울루(6.9.~11.)
  - 6.9. 환경기술박람회 참관, 교민초청 리셉션
  - 6.10. 상파울루대학 방문 및 교민 유학생 격려, 교민 상가 방문 및 이민 선도개척자 추모비 개막식 참석
- 아르헨티나(6.15.~18.)
  - 6.15. La Nacion지 단독회견, 한국상품 종합전시장 개관식 참석, 교민 주최 환영 만찬
  - 6.16. 메넴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회 상·하원 방문
  - 6.17. 한국인 학교 건립추진 관련 교민간담회

Kostikov, Nikolai 벨라루스 부총리 방한, 1992.3.25.-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3 / 7 / 1-90

Nikolai Kostikov 벨라루스 부총리가 1992.3.25.~27. 방한함.

1. 방한 경위

- KTL(Korean Trade Leader Co. 서울 역삼동 소재)사 초청에 의한 비공식 방한

2. 방한 목적

- 주한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 및 경제·과학·기술협정 체결 문제 협의

3. 방한 인사

- 코스티코프 부총리(산업담당)
- 라드케비치 대외경제위원장
- 예브도첸코 외무부 의전과장
- 보이코 ITEX사 대표

4. 주요 일정

- 3.25. 서울 도착
- 3.26.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상공부차관, 외무부장관 면담
- 3.27. 이한

5. 언론 대책

- 1992.3.23. 방한 사실 발표 예정

6.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

- 양국 간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는 작년 9월 케비치 벨라루스 수상 방한 시에도 거론된 사항으로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가 한국 내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데 이견이 없고 동 대표부 설치 시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임.

92-0479

Hun Sen 캄보디아 수상 방한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3 / 8 / 1-17

1991~92년 중 Hun Sen 캄보디아 수상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세일중공업의 캄보디아 시찰 및 훈센 초청 추진
  - 훈센 수상 방한 초청을 위한 세일중공업의 인적사항 요청에 대해 캄보디아 측(Cambodian Enterprises, Inc.)은 1991.5.6. 비자신청서 양식에 Sok An 외무차관 부부 및 Cham Prasidh 수상실차관 부부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팩스로 송부해 옴.
  - 캄보디아 측은 동 팩스에서 훈센 내외 및 상기 4인에 대해 5.16.부터 1주일간 방한을 희망
  - 5.5. 태국 외무성은 주태국대사에게 훈센 방한 및 Sok An 외무차관의 방한계획을 전달

2. 훈센 수상 방한 검토

- 훈센 수상 방한은 캄보디아 신정부 수립 시까지 특정정파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방침에 배치됨.
- 특히, 향후 수개월 캄보디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시기에 훈센의 방한은 미국, 아세안 등 우방국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3. 조치사항

- 외무부는 1991.5.8. 주태국대사에게 캄보디아 외무성과 접촉하여 훈센 수상 및 Sok An 외무차관의 방한은 아직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전달하도록 지시
- 아울러, 외무부는 세일 측에 훈센 수상의 방한을 추진하지 않도록 별도로 요청

92-0480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수상 방한, 1992.1.16.-18. 전6권 (V.3 의전 I : 영접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3 / 11 / 1-279

1992.1.16.~18.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영접준비 내용임.

1. 숙소
   - 롯데호텔 로열 스위트(33층)

2. 영예 수행
   - 오재희 주일본대사
   - 장선섭 외무부 의전장

3. 환영 및 환송장식
   - 환영현판
     - 장소: 서울공항, 광화문전면, 서울특별시청, 경주시청, 숙소
     - 문안: 환영 일본국 미야자와 키이치 총리대신 공식 방한
   - 국기게양
     - 게양기: 정부종합청사, 서울공항청사, 김해공항청사, 경주시청사, 숙소, 행사장
     - 울타리기: 정부종합청사
     - 가로기: 청와대 주변, 숙소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92-0481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수상 방한, 1992.1.16.-18. 전6권 (V.4 의전 II : 오·만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 통상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3 / 12 / 1-146

1992.1.16.~18.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오·만찬 준비내용임.

1. 대통령 주최 만찬

- 일시 및 장소: 1992.1.16. 18:30~20:30, 청와대 영빈관
- 복장: 블랙타이(한국 측 부인: 한복)
- 차림: 양식

2. 경상북도 지사 주최 오찬

- 일시 및 장소: 1992.1.18.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
- 복장: 평복
- 차림: 한식

Shokhin, Alexandr 러시아 부총리 방한, 1992.5.5.-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2-33 / 15 / 1-164

Alexandr Shokhin 러시아 부총리가 1992.5.5.~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4.24. Shokhin 러시아 부총리, 홍순영 주러시아대사 면담 시 9월 예정인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준비 및 경협차관 재개 문제 협의를 위해 1992.5.5.~7. 방한 의사를 표명
- 1992.4.30. 한국 정부, 방한 예정일이 촉박한 관계로 경협재개 최종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러시아 부총리가 방한을 희망할 경우 접수 가능함을 회신

2. 방한 목적

- 옐친 대통령 방한, 경협차관 재개,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발족 등 양국 현안문제 협의

3. 수행원

- 부수상실, 대외경제부, 외무부, 노동부, 대외경제은행 고위관리 11명

4.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 면담
- 삼성, 대우 방문 및 한·소련 경제협회 기업인 조찬 간담회

5. 방한 결과

- 은행차관 보증 문제 및 잔여차관 재개 문제 협의를 위한 금융 분야 실무 전문가회의의 모스크바 개최 합의
-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의 옐친 대통령 방한 이전 개최 합의(구체적 시기와 장소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

92-0483

Thatcher, Margaret 전 영국 수상 방한, 1992.9.2.-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34 / 1 / 1-121

Margaret Thatcher 전 영국 수상이 1992.9.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년 김상만 회장 및 정주영 당시 현대 명예회장의 초청으로 방한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당 창당 등 국내 사정으로 한국정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 동아일보사의 단독으로 초청함.

2. 방한 목적

- 동구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구시장 경제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처재단(The Margaret Thatcher Foundation)의 활동기금 모금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

3. 주요 일정

- 9.2. 서울 도착
- 9.3.
  - KBS 회견: 주한 영국대사관저
  - 강연: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의 주제는 '21세기와 산업 민주주의의 미래'
  - 주한 영국대사 주최 만찬
- 9.4.
  - 기자회견(주한 영국대사관저)
  - 청와대 오찬(외무장관 내외 참석)
  - 강연: 롯데호텔, 강의 주제는 '아시아의 경제·정치 전망: 일본의 역할'
  - 김상만 회장 주최 만찬
- 9.5.
  -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 정주영 국민당 대표최고위원 주최 오찬
  - 경주 방문
  - 이한(홍콩 향발)

이상옥 외무장관 오스트리아 방문, 1992.11.12.-1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34 / 2 / 1-255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1992.11.12.~14. 오스트리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92.5.26. Mock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양국 수교 100주년을 계기로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11월 중 오스트리아 공식방문 초청 서한(5.14.자)을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를 통해 전달해 옴.
- 이상옥 장관은 1992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답신을 송부함.
- 1992.8.7. 이상옥 장관은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1992.11.12., 브뤼셀) 참석 후 11.12.~14. 오스트리아 방문을 제의한바, 8.20. 오스트리아 측에서 동의함.

2. 주요 일정

- 11.12. 비엔나 도착
- 11.13. 외무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Mock 외무장관 주최 오찬, 대통령 및 수상 예방
- 11.14. 교민대표 초청 조찬 간담회, 오스트리아 언론(Die Press지) 단독회견, 한·오 친선협회장 주최 오찬, 런던 향발

3. 한·오스트리아 외무장관회담(1992.11.13.) 후속조치 결과

- 유엔 비엔나사무소 존속 요청 관련 한국 측 입장 검토 중
- 세계인권회의(1993.6월, 비엔나) 의제 관련 협조
  - 유엔총회 시 동 회의 의제 관련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
- 서울-비엔나 간 직항로 재개 문제
  - 교통부, 1993년 하반기 이후 수송수요를 감안, 재개 가능 여부 검토 입장 표명(12.11.)
- 오스트리아 현대미술전: 오스트리아 측, 1993.12월로 개최 연기
- 오스트리아 국회대표단 방한 초청(주오스트리아대사 건의)
  - 국회, 오스트리아 측 의원 5명 방한 초청 결정(12.11.)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3년도 사업으로 방한 초청 검토 중(1993.1월 중 확정 예상)

92-0485

이상옥 외무장관 오스트리아 방문, 1992.11.12.-14.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34 / 3 / 1-155

1992.11.12.~14.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 관련 양국 외무장관회담 및 방문 참고자료임.

1. 한·오스트리아 외무장관회담 의제(안) 중 소관 실국별 자료 요청 및 자료 송부(1992.10월)

- 지역 정세
  - 최근 유고 정세 및 전망(구주국), 구소련지역 정세 및 전망(구주국), 유럽통합 현황 및 전망(구주국), 오스트리아의 EC 가입 문제(구주국)
  - 최근 동북아지역 정세 및 전망(아주국),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현황(외교정책기획실), 북한의 핵사찰 문제(미주국, 국제기구국)
- 국제정세
  - 국제정세 일반(외교정책기획실), 유엔의 새로운 역할(국제기구국)
- 양자관계
  - 정무협력 일반(구주국),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국제기구국)
  - 경제·통상 분야(국제경제국, 통상국)
  - 문화·학술교류 분야(문화협력국)

2. 외무부장관 오스트리아 방문 참고자료(1992.10.15.,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외무장관 자료(양자관계)
  - 정무관계, 경제·통상관계, 과학기술협력
- 오스트리아 정세
  - 정치, 외교, 경제
- 공동기자회견 예상 질의
- 대통령 및 수상 예방 시 언급사항

3. 한·오스트리아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10.26., 과학기술처)

- 한·오스트리아 과학기술협정 추진 경위, 한·오스트리아 협력 현황

4. 한·오스트리아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10.26., 상공부)

- 한·오스트리아 현안사항

92-0486

노창희 외무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방문, 1992.12.4.-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34 / 4 / 1-216

노창희 외무부차관이 1992.12.4.~13.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를 방문함.

1. 사우디아라비아(1992.12.5.~7.)

- 주요 예방 및 면담 인사
  - Saud 외무장관, Mansouri 외무차관, Dr. Suleiman 상무장관
- 주요 결과
  - 한국은 남북한 관계, 한반도 정세 및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 유엔에서의 협력 설명
  - 사우디는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한국기업의 기여에 대한 감사표명
  - 한국은 사우디의 대전 EXPO 참가 결정을 환영하고,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
  -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를 1993년 중 서울 개최 추진

2. 이집트(1992.12.7.~10.)

- 주요 예방 및 면담 인사
  - Mubarak 대통령
  - Moussa 외무장관, Al-Baz 외무차관, Makhlouf 외무부 아주담당 차관보, El-Razaz 재무장관
- 주요 결과
  - 한국은 남북한 관계, 한반도 정세 및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 설명
  - 한·이집트 간 수교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실현 희망
  - 이중과세방지협약, 문화협력협정 서명식 참석

92-0487

이상옥 외무장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계기 일본 방문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34 / 5 / 1-69

1. 이상옥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추진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및 몽골 공식 방문 후 일본 비공식 방문 추진
  - 방문 기간: 1992.4.20.~21.
  - 주요 일정: 한·일 외무장관회담(와타나베 외무대신), 미야자와 총리 예방
- 이상옥 장관은 국내 일정으로 조기 귀국하여 일본 방문 취소

2. 한·일 외무장관회담 자료(안)

- 대중국·대몽골 관계
  - 한국 측은 중국, 몽골 방문 결과 설명, 일본 측은 강택민 총서기 방일 설명
- 한반도 정세
  - 일본 측이 제7차 일·북한 수교교섭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설명
  - 한국 측은 남북대화, 북한 핵개발 문제 언급
- 한·일 관계(현안사항) 등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4 / 6 / 1-296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1992.6.27.~7.3.)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문 경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이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공식 방문 초청
  - 러시아: 1992.3.18.(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시)
  - 카자흐스탄: 1992.5.28.
  - 우크라이나: 1992.5.29.

2. 방문 목적

- 러시아
  - 옐친 대통령, 코지레프 외무장관 등 면담
  - 옐친 대통령 방한 문제,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 등 현안 협의와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 방안 협의
- 우크라이나
  - 크라프추크 대통령, 줄렌코 외무장관 면담
  - 협정 체결 문제 등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 협의
- 카자흐스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술레이메노프 외무장관 등 면담
  - 협정 체결 문제, 한인 권익보호 등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 협의

3. 장관 수행원

- 외무부 직원
  - 구주국장
  - 국제경제국장
  - 조약심의관
  - 동구1과장 외 관련 직원
- 관련 공관 직원

92-0489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2 결과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4 / 7 / 1-317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1992.6.27.~7.3.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을 순방함.

1. 러시아(1992.6.27.~30.)

- 옐친 대통령 방한 일정 확인
  - 1992.9.16.~18. 방한
- 한·러시아 기본관계 조약 문안 합의
- 러시아·북한 관계 소원 재확인
- 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관심 표명
-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강력 희망
- 경협차관 조속 재개 희망
-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문제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 제의

2. 우크라이나(1992.6.30.~7.2.)

-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지지
- 한국기업의 대우크라이나 진출 요청
- 경협차관 제공 요청

3. 카자흐스탄(1992.7.2.~3.)

-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지지
- 카자흐스탄 내 한인에 대한 관심 표명
- 한국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요청

4. 전체적 의의

- 북방외교 성과의 내실화
- 북한 핵 개발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확보
- 실질 협력기반 확대
- 체계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3 자료 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4 / 8 / 1-264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1992.6.27.~7.3.) 관련 자료임.

1. 해당 실·국별 관련 자료

- 외교정책기획실
  - 남·북한 관계
  - 러시아의 아·태지역 안보협력정책
  - 러시아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정책
  - 북한 핵문제
- 아주국
  - 한·일 관계
  - 북방 4개 도서 연근해 조업 문제
  - 한·중 관계
- 미주국
  - 한·미 관계
- 국제경제국
  -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재개 문제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의 자원개발, 과학기술협력, 합작투자 등 현황과 전망
- 통상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의 통상 증진
- 문화협력국
  - 러시아와의 문화협력협정 추진

2. 회담과 관련된 말씀자료 등 각종 자료 수록

92-0491

이상옥 외무장관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 1992.6.27.-7.3. 전4권 (V.4 자료 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4 / 9 / 1-237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순방(1992.6.27.~7.3.) 관련 자료임.

1. 한·우크라이나 간 회담 의제에 관한 자료
   - 우크라이나 정세 및 대외관계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고위인사 교류
   - 제반 협정 체결 문제 협의
   - 경제협력 및 통상 증진
   - 상주공관 상호 설치

2. 한·카자흐스탄 간 회담 의제에 관한 자료
   - 카자흐스탄 정세 및 대외관계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양국 간 협정 체결
   - 양국 간 경제협력
   - 상주공관 설치
   - 한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 카자흐스탄 내 한인 문제

3. 각종 참고자료 수록

이상옥 외무장관 몽골 방문, 1992.4.17.-19. 전3권 (V.1 사전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34 / 10 / 1-210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1992.4.17.~19. 몽골 방문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방문 경위

- 1991년도 몽골의 대통령, 부총리 및 외무장관 등 고위 인사의 방한에 따라 몽골 측에서 한국 외무부장관의 몽골 방문을 강력히 요청

2. 방문 의의

- 한·몽골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실질협력 증진방안 협의
- 한·몽골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3. 주요 일정

- 오치르바트 대통령, 바이암바수렌 수상 예방
- 외무장관회담
- 청년봉사단 몽골 파견에 관한 각서교환

92-0493

이상옥 외무장관 몽골 방문, 1992.4.17.-19. 전3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34 / 11 / 1-69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1992.4.17.~19. 몽골 방문 관련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 예방(4.17.)

- 한국 대통령 내외 몽골 방문 초청
  - 대통령이 몽골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바쁜 국내 일정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 방문 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함.
- 경제협력 협의
  - 오치르바트 대통령은 한·몽골 정상회담(1991.10월, 서울) 이후 한국이 몽골의 민주화와 경제 개혁을 지원해준 데 깊은 사의를 표명함.
  - 한국 측은 한국이 능력 범위 내에서 몽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핵문제 협의
  - 한국 측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에 따라 신속히 핵사찰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오치르바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몽골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2. 한·몽골 외무장관회담(4.17.)

- 한국 측은 한국이 앞으로 수년간 매년 2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임을 밝히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몽골 측은 일회용 주사기 공장, 판유리 공장 및 봉제공장 건설 등 3개 프로젝트를 제시
- 한·몽골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한국청년봉사단 몽골 파견 합의각서 교환
  - 한국 측은 청년봉사단원 10명을 9월경 파견 예정

3. 방문 결과 평가

- 한국 외무부장관의 최초 몽골 공식 방문으로 한·몽골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에 기여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로 양국 간 실질협력의 법적기반 마무리



4. 후속조치계획

- EDCF 차관공여, 프로젝트사업, 몽골 기술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 개발조사사업, 청년봉사단 파견, 몽골 지원 다자간 원조공여국회의,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민간공동회의, 경제특구 설치 지원, 한국교육센터 설치,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 등

92-0494

이상옥 외무장관 몽골 방문, 1992.4.17.-19.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34 / 12 / 1-186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1992.4.17.~19. 몽골 방문 관련 자료임.

1. 수록자료

- 한·몽 외무장관 면담자료
- 한·몽 외무장관회담 자료
- 몽골 대통령 예방자료
- 몽골 대통령 부인 예방자료
- 몽골 수상 및 상공장관 면담자료
- 대몽골 경제협력 현안 및 대책
- 한·몽골 공동위 개최
- 한·몽골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한·몽골 협정 체결
- 대몽골 자원협력
- 곰보수렌 외무장관 주최 만찬 관련자료
- 몽골기자단 질문사항 답변자료

2. 기타 주요 정세 등 관련자료 수록

이상옥 외무장관 유엔 방문, 1992.2.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34 / 13 / 1-47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1992.2.8.~15., 콜롬비아) 참석 후 귀로에 뉴욕을 방문, Ghali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유엔활동 지원 및 한·이집트 수교 문제 등을 논의함.

1. 이상옥 외무부장관 주요 언급내용

-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 진전 상황
- Ghali 유엔사무총장 방한 초청
- 한국인의 유엔사무국 진출을 위한 협조
- 한·이집트 수교 추진에 대한 Ghali 사무총장의 측면 지원 요청

2. Ghali 사무총장 주요 언급내용

- 한국의 유엔가입 환영
- 한국인 유엔사무국 직원 임용 우선적 고려
- 한·이집트 수교 추진에 대한 가능한 한 협조 약속

92-0496

Pedro de Castro dos santos VAN-DUNEM 앙골라 외무장관 방한, 1992.3.27.-31. 전2권 (V.1 사전 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 / 1-163

1992.3.27.~31. 방한한 반 두넹 앙골라 외무장관의 방한 일정 및 사전 준비자료임.

1. 방한 경위
   - 이상옥 외무부장관 초청

2. 수행원
   - 앙골라 중앙은행 부총재, 외무부 아주국장 등 6명

3.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서훈, 외무장관회담, 이상옥 장관 주최 만찬
   - 수출입은행장, 무역협회장 면담
   - 대우중공업 공장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대우 회장 주최 만찬

4. 한·앙골라 외무장관회담 의제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 한반도, 동북아 정세, 아프리카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5. 관련 자료
   - 반 두넹 앙골라 외무부 장관을 위한 이상옥 장관의 만찬사
   - 반 두넹 앙골라 외무부장관 공식 방한 영접계획
     - 반 두넹 장관 약력,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사항, 체한 일정, 주요 행사별 세부계획

Pedro de Castro dos santos VAN-DUNEM 앙골라 외무장관 방한, 1992.3.27.-31.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2 / 1-109

반 두넹 앙골라 외무장관이 1992.3.27.~31. 방한함.

1. 방한 결과

● 주요 정세 협의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및 북방 정책 등을 설명했으며, 앙골라 측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앙골라 측은 1991.5월 평화협정 체결로 1975년 독립 이후 계속되어온 내전을 종식하고 1992.9월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양국관계
- 양측은 1992.1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경제 관계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함.
- 앙골라 측은 한국의 대앙골라 투자증대 및 교역 증진을 희망하고 추후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함.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된 사회 재건을 위해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및 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 여부에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양국 간 수교기념으로 제공한 35만 달러의 원조에 이어 1992년 중 14만 달러의 추가 원조제공계획을 설명하고 매년 15만 달러의 원조와 기술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2. 자료

● 한·앙골라 외무장관 회담자료(1992.3월, 주나미비아대사관)
- 앙골라 외무장관 이력사항, 방한 관련 일반사항, 앙골라 개관
- 외무장관 회담자료

● 앙골라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3.30., 외무부)
- 외무장관 이력사항, 말씀 요지, 체한 일정, 앙골라 개관

92-0498

Di Tella, Guid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91.12.11.-14.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3 / 1-166

Guido Di Tella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이 1991.12.11.~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이상옥 외무부장관 초청

2. 방한 일정

- 12.12.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외무장관회담 및 만찬, 대한상의 회장 면담
- 12.13.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고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한국기업인 초청 오찬 등

3. 한·아르헨티나 외무장관회담(1991.12.12.)

- 아르헨티나 측,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희망
- 아르헨티나(IAEA(국제원자력기구) 의장국)의 북한 IAEA 핵안전협정 체결 등 촉구 노력 평가
- 아르헨티나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참여 희망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노력 합의
- 상용복수비자협정 가서명(12.13.) 등

4. 후속조치

- 1992.6월 메넴 대통령 방한 추진, 정원식 국무총리 아르헨티나 방문
- 6월 한국 민속공연단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방문 공연
- 6월 상용복수사증발급협정 서명
- 9월 투자보장협정 한국 측 최종안 송부
- 제1차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 개최(1992.10.15.~16., 부에노스아이레스)

92-0499

Di Tella, Guid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91.12.11.-14.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4 / 1-95

1. Guido Di Tella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1991.12.11.~14.) 관련 사전 준비 내용임.

- 일정, 숙소, 서훈, 경호, 국기 게양, 선물 등 준비
  - 서훈: 수교훈장 광화장(대통령 예방 시 친수)
-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회담,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등 행사 준비

2. 체한 일정 준비

- 12.12. 대통령 예방 및 서훈, 외무장관회담 및 만찬, 대한상의 회장 방문 및 오찬
- 12.13.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건국대 세계언어문자 조형물 제막식 참석, 기업인과의 오찬, 고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기자회견
- 12.14. 상공부장관 면담, 한국개발연구원장 방문

92-0500

Di Tella, Guid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1991.12.11.-14.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5 / 1-167

Guido Di Tella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1991.12.11.~14.) 관련 주요 자료임.

1. 외무부 내 각 실국의 회담 관련자료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문제, 한반도 정세 및 남북대화
   - 한·아르헨티나 투자보장협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등

2.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접견자료(1991.12월)

3. 아르헨티아 외무장관 방한 관련자료
   - 1991.11.25.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보고
   - 한·아르헨티나 경협, 통상관계 현황(별도)

4. 한·아르헨티나 외무장관회담자료(1991.12.12.)

Evans, Gareth 호주 외무무역장관 방한, 1992.11.5.-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5 / 6 / 1-137

Gareth Evans 호주 외무무역부장관이 1992.11.5.~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11.5.~15. 서울 및 지방에서 개최되는 호주 진흥행사 개막식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함.

2.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양국 외무장관회담
- 호주 진흥행사 개막식 및 한·호주 민간경협위원회 개막식 참석

3. 양국 외무장관회담(1992.11.6.) 결과

- 양측은 양국관계 강화 추세에 만족을 표하고 호주 진흥행사(상품전시회, 스포츠 행사 등)가 양국 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호주 측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APEC 정상회담 추진 관련 호주 측은 대부분 참가 대상국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대만(구 중화민국) 및 홍콩의 참가에 반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측의 부정적인 태도가 난관이라고 함.

4. Evans 호주 외무무역장관 접견자료(1992.11.6., 외무부)

- 인적사항, 방한 개요, 말씀자료, 참고자료

92-0502

Cyprien MBONIMPA 브룬디 외무장관 방한, 1992.2.25.-2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7 / 1-182

Cyprien Mbonimpa 부룬디 외무장관이 1992.2.25.~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이상옥 외무부장관 초청

2. 방한단

- 공식 수행원: S. Kadobeye 외무부 아주국장 등 3명
- 비공식 수행원: D. Bihute 부룬디 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대표단 4명

3. 방한 일정

- 노태우 대통령 예방, 한·부룬디 외무장관회담 등

4. 한·부룬디 외무장관회담(1992.2.26.) 결과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 양측은 한·부룬디 간 일반 협력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국 측은 20만 달러의 국산 기자재 공여 등 1992년도 대부룬디 경제협력사업을 설명하고 한국의 섬유 및 수산업계의 대부룬디 진출과 합작투자를 장려하기로 함.
- 한국 측은 북한의 국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북방외교의 성과 및 유엔가입의 의의, 남북대화 진전사항을 설명함.
- 부룬디 측은 부룬디의 국민화합정책 및 제도개혁으로 정치안정 달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 등을 설명함.

5. 평가 및 전망

- 한국의 통일 정책, 남남협력정책에 대한 부룬디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서 한·부룬디 간 협조 기반 구축으로 제3세계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함.
- 한·부룬디 외교관계 수립(1991.10.3.) 및 Mbonimpa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및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92-0503

Cyprien MBONIMPA 브룬디 외무장관 방한, 1992.2.25.-2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8 / 1-123

Cyprien Mbonimpa 부룬디 외무장관의 1992.2.25.~28. 방한 관련 외무부 작성자료임.

1. 한·부룬디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2.26.)
   - 말씀자료
     - 한반도 정세, 부룬디 및 중부아프리카 최근 정세
     -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양국관계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경제협력 및 통상 증진)
   - 참고자료
     - 부룬디 외무장관 이력 사항 및 수행원 명단, 체한 일정
     - 한·부룬디 관계, 부룬디 일반 개황
     -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경제지원 현황 및 수출금융지원제도
     - 남·북한 관계 현황

2. Mbonimpa 장관을 위한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만찬사(1992.2.26.)

3. 노태우 대통령의 Mbonimpa 장관 접견자료(1992.2.27.)
   - Mbonimpa 장관 약력
   - 말씀 요지
     - 환영 인사, 양국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만족 표명, 경제협력 증진 희망 등
   - 방한 일정 및 부룬디 개황

92-0504

Dobrev, Valentin 불가리아 외무차관 방한, 1992.6.29.-7.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35 / 9 / 1-102

Valentin Dobrev 불가리아 외무차관이 1992.6.29.~7.1.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6.4. 주불가리아대사관이 주재국 외무차관의 6월 말 중국 방문 계기 방한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바, 6.17. 외무부는 양국 우호협력 관계 강화 일환으로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2. 주요 일정

- 노창희 외무부차관, 박호택 코트라 부사장, 유득한 상공부 차관보, 이학성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면담
- 노창희 차관 주최 만찬, 럭키금성 주최 오찬, 동양물산 주최 만찬, 조찬(2회)
- 럭키금성상사 방문

3. 한·불가리아 외무차관 면담(19092.6.30.) 요지

- 경제관계 협정 체결
  - 조속 체결을 위한 상호 노력 및 실무적인 조치 완료 후 협정 서명을 위해 불가리아 경제담당 부총리 방한 가능성 언급
  - 이중과세방지협약: 1주 전 불가리아 관계부처 간 협의 종료 및 서명 준비 완료
  - 투자보장협정: 외국인 투자보호법 입법에 따라 양국 간 이견 사항 축소, 단 불가리아 재무부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관련 추가적 논의 희망
  - 무역협정: 체결에 이견 없음.
- 교역 증진: 교역 증대를 위한 상호 노력 필요성 공동 인식
-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 한국 입장 지지 표명
-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 한국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 Ganev 불가리아 외무장관의 차기 유엔총회의장 입후보에 대한 한국의 조속 지지에 사의 표명 및 유엔에서의 긴밀한 협력 약속

Theodore HOLO 베냉 외무장관 방한, 1991.12.19.-22.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35 / 10 / 1-179

Theodore Holo 베냉 외무장관이 1991.12.19.~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8.27. 주유엔대사, 한·베냉 외교관계 수립 추진을 위한 베냉 외무장관 방한 초청 건의
  - 10.3. 한·베냉 수교 합의 공동성명서 발표
- 베냉 측은 한·베냉 수교의 정치적 활용(선거 홍보)을 위해 Holo 외상의 조기 방한 희망
- Holo 외무장관은 1991.12.19.~22. 이상옥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방한

2. 수행원(2명)

- Michel Adechian 아시아대양주 국장, Auguste Alave 주중국 베냉대사

3.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장관회담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산업 시찰

4. 외무장관회담 주요 의제

- 한·베냉 양국관계
  - 소글로 베냉 대통령 방한 초청 문제, 양국 경제협력 증진방안
- 민주화 동향을 비롯한 아프리카 정세

92-0506

Theodore HOLO 베냉 외무장관 방한, 1991.12.19.-2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35 / 11 / 1-147

Theodore Holo 베냉 외무장관의 1991.12.19.~22. 방한 결과임.

1. 한·베냉 외무장관회담(1991.12.19.) 결과

- 동북아 및 아프리카지역 정세 의견교환
  - 북방외교 성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의의 설명
  - 남북한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관련 한국 측 입장 설명
- 한·베냉 우호협력 강화
  -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베냉에 무상원조 5만 달러 상당 특별지원
  - 경제개발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연수생 훈련 초청 합의

2. 방한 초청 성과 평가

- 한국의 통일 정책 및 북방외교, 남남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기반 구축으로 제3세계권 내 한국 위상 제고
- 한국기업 투자진출 지원 확보
  - 대우 경제조사단 베냉 파견 및 조사활동 착수 합의

3. 후속조치

- 앰뷸런스 3대 특별 추가지원
- 베냉 정부 희망 분야 기술연수생 초청 훈련
- 태권도사범 파견 검토
- 베냉 농업, 건설 분야 프로젝트 참가 검토

Separovic, Zvonimir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방한, 1992.3.25.-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35 / 12 / 1-92

Zvonimir Separovic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이 1992.3.25.~27.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3.3. Separovic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방한 희망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
- 1992.3.12. 외무부, 비공식 방한 전제하에 3월 말 방한 접수 수락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방한경비 자비 부담 등 비공식 방한 조건

2. 방한 목적

- 유고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 문제 등 크로아티아 정세 설명
- 한·크로아티아 경제·무역관계 증진방안 협의
- 대학 간 교류 등 문화협력관계 협의

3.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국립박물관 견학

4. 방한 결과

- 크로아티아의 유고연방으로부터의 독립승인 요청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승인 검토 입장 전달
- 실질협력관계 증진 통로로 오스트리아 주재 양국대사관 활용 합의

92-0508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6.-29.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3 / 1-187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이 1992.11.26.~29. 방한함.

1. 방한 경위

- 에티오피아 외무성 아주국장은 주에티오피아대사 면담 계기, Seyoum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1992.11월 중 방한 초청 요청
- 1992.8.4. 외무부는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로 1992.11.26.~29. Seyoum 외무장관의 방한을 접수하고 방한초청장 송부

2. 수행원

- Abdulmejd 대외경제협력장관, Akalu 외무성 아주국장 등 5인

3.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 외무장관회담
- 삼성, 대우 방문 및 경제단체장 면담
- 6.25 참전 기념비 참배

4. 외무장관회담 의제

- 한반도 정세(한국 측 설명)
- 에티오피아 및 아프리카 최근 정세(에티오피아 측 설명)
- 양국관계 증진방안
- 무상원조 및 기술원조 증액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5. 한·에티오피아 외무장관회담(1992.11.27.) 결과

- 양국 외무장관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추가 무상원조 제공 합의: 10만 달러 상당 기자재 제공 및 연수생 초청사업 매년 실시
- EDCF 및 전대차관 제공은 에티오피아 측이 구체적 사업계획안 제출 시 검토 합의
- 양국 투자증진 및 교역증대를 위해 1993년 상반기 중 관민경제사절단 에티오피아 파견 합의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6.-29.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4 / 1-144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1992.11.26.~29. 방한 관련 의전 준비 내용임.

1. Seyoum 장관 이력사항 및 수행원 명단

2. 주요 방한 일정
- 외무장관회담
-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식
- 대통령 예방 및 서훈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방문
-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에티오피아 6.25 참전기념비 헌화

3. Seyoum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을 위한 이상옥 외무부장관 공식 만찬사 및 참석자 명단

92-0510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6.-29.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5 / 1-87

Seyoum Mesfin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1992.11.26.~29. 방한 관련 자료임.

1. Seyoum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대통령 예방 시 접견자료
   - 환영 인사
   - 에티오피아 국가발전 기원
   - 양국관계 현황
   - 에티오피아 가뭄 지원

2. 한·에티오피아 외무장관회담 자료(국영문)
   - 회담 관련 주요 사항: Seyoum 장관 인적사항 및 수행원 명단
   - 말씀자료
     - 한반도 정세
     - 에티오피아 및 아프리카 최근 정세
     -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

Vayrynen, Paavo Matti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 1992.10.24.-26.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6 / 1-178

Paavo Matti Vayrynen 핀란드 외무장관이 1992.10.24.~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8.30. 주핀란드대사의 Vayrynen 외무장관 면담 시, 1992년 중 방한 희망의사 표명
- 1992.7.28. 주한 핀란드대사관, 1992.10.25.~27. Vayrynen 장관의 공식 방한 접수 가능 여부 문의
- 1992.9.26. 이상옥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1992.10.24.~26. 핀란드 외무장관 공식 방한 접수 결정

2.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수교훈장 서훈
- 외무장관회담
- 전경련 방문 및 판문점 견학

3. 방한 결과

- 남북한 관계, 유럽통합 및 북유럽지역 정세 및 유엔 문제 등에 관한 의견교환
- 투자보장협정 및 문화협정 조속 체결 추진 합의
- Finn Air 서울 취항노선 개설 제의 검토
- 핀란드산 박격포 탑재 차량 입찰 지원

92-0512

Vayrynen, Paavo Matti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 1992.10.24.-26.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7 / 1-113

Paavo Matti Vayrynen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1992.10.24.~26.)에 따른 의전 관련 내용임.

1. Vayrynen 외무장관 약력, 수행원 명단

2. 방문기관 의전 협조사항

3. 주요 행사별 세부 의전계획

- 공항 출·도착
-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환영사 및 참석자 명단)
- 대통령 예방 말씀자료 및 서훈

Vayrynen, Paavo Matti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 1992.10.24.-26.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5 / 18 / 1-206

Paavo Matti Vayrynen 핀란드 외무장관 방한(1992.10.24.~26.) 시 외무장관회담 관련 자료임.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참석 범위, 사용언어, 회의 의제 등

2. 인사 말씀 및 대표단 소개

3. 의제별 자료
   - 동북아 정세: 한·러시아 관계, 한·중국 관계, 남북대화 현황,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문제
   - 유럽정세: 유럽통합 전망, 구주안보 정세,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기능 및 전망, 러시아·발틱3국 관계 전망, 북구협력
   - 유엔 문제: 기본 입장,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유엔 경제 분야 개혁, 환경협력
   - 양자 협력: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투자보장협정 및 문화협정 체결 문제

4. 방한 주요 일정 및 핀란드 개황

92-0514

Bongo, Pascaline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92.8.3.-7.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1 / 1-198

Pascaline Bongo 가봉 외무장관의 방한(1992.8.3.~7.) 관련 기본문서임.

1. 가봉 외무장관 방한 접수 방침 통보 및 초청장 송부 경위

- 1992.2.4. Charles Mamadou Diop 주한 가봉대사, 파스칼린 봉고 가봉 외무장관의 방한 접수 여부를 이상옥 외무부장관에게 문의
- 1992.2.29. 이상옥 외무부장관, 1992.7~8월 중 접수 방침을 주한 가봉대사에게 통보
- 1992.4.27.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Bongo 가봉 외무장관 앞 방한초청장 송부

2. 주요 방한 일정(안)

- 8.4. 외무부장관 예방 및 회담, KOICA 총재 주최 오찬, 여성개발원 방문, 국무총리 예방 및 서훈,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8.5. 재무부차관 면담, 무역협회장 면담 및 오찬, 중앙박물관·경복궁·서울타워 관광
- 8.6.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가봉 국경일 리셉션 참석

3. 한·가봉 외무장관회담 의제

- 한반도 정세(한국 측 설명): 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대화 진전사항
- 가봉 및 아프리카 정세(가봉 측 설명): 가봉 최근 정세, 서부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 양국관계 논의: 양국관계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강화, 경제협력 증대

4. 한·가봉 외무장관회담(1992.8.4.) 결과

- 한반도 정세 관련 한국에 대한 지지 확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협력 강화,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5. 참고자료

-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마마두 디옵 주한 가봉대사 접견자료, 면담 요록(1992.3.4., 아프리카1과)
- 봉고 가봉 외무장관 방한 관련 정무 관계 브리핑자료(1992.7.31., 중동아프리카국)
- 한·가봉 외무장관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안)(1992.8.4., 외무부)
- 봉고 가봉 외무장관을 위한 이상옥 외무장관 만찬사(1992.8.4.)
- 한·가봉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8.4., 중동아프리카국), 회담 요록(1992.8.5., 아프리카1과)

Bongo, Pascaline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92.8.3.-7. 전3권 (V.2 영접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2 / 1-204

Pascaline Bongo 가봉 외무장관의 방한(1992.8.3.~7.) 시 영접계획 관련 내용임.

1. 가봉 외무장관 방한 관련 자료수집

- 1992.6.27. 외무부, 가봉 외무장관 방한 관련 아래 자료를 수집, 보고하도록 주가봉대사에게 지시
  - 대통령 친서 관계, 대통령 서훈 관계
  - 외무장관 공식 영문이력서, 사진, 기호 및 기피 음식, 수행원 명단, 희망 일정 등

2. 가봉 외무장관 일정 관련 부처·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문화부, 재무부, 국무총리 비서실, 경찰청, 관세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협회,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통신공사, 한국여성개발원, 정부종합청사관리소, 삼성물산 등

3. 봉고 가봉 외무장관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1992.7.30., 의전장실 의전담당관실)

- 외무장관 약력, 수행원 명단, 영접 준비사항, 체한 일정(안), 주요 행사별 세부계획
  - 가봉공화국 파스칼린 봉고 외무장관 공식 방한 영접계획 소형 책자(1992.8.3.~7., 외무부 의전장실)
  - 가봉 외무장관 영접 시나리오(1992.8.3.~7.)

4. 봉고 가봉 외무장관을 위한 장관 주최 만찬(안)(1992.8.1., 의전장실 의전담당관실)

- 일시 및 장소: 1992.8.4. 19:00~21:00, 장관 공관
- 메뉴(한식, 신라호텔 케이터링)
- 참석자 명단·좌석 배치도

92-0516

Bongo, Pascaline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92.8.3.-7.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3 / 1-120

Pascaline Bongo 가봉 외무장관의 방한(1992.8.3.~7.) 관련 자료임.

1. 한·가봉 외무장관회담 관련 외무부 실·국 자료
   - 국제정세 일반(외교정책실), 동북아 정세 일반(아주국)
   - 남북대화 진전 현황 등 한반도 정세(외교정책실)
   - 남북 간 핵문제 협상 진전 현황(미주국)
   - UN 등 국제무대에서 한·가봉 협력방안(국제기구국)
   - 한·가봉 경제협력 증진방안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문제(국제경제국)
   - 한·가봉 교역 현황 및 통상 증진방안(통상국)

2. 가봉 외무장관 국무총리 예방자료(1992.8.4.)
   - 외무장관 인적사항, 말씀 요지, 참고자료(가봉 개황, 가봉 및 서부아프리카 정세, 체한 일정)

3. 가봉 측의 한·가봉 협력사업 프로젝트
   - 가봉 측, 봉고 외무장관의 방한 계기에 한국 측과 논의하기를 희망하는 농업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사업 프로젝트 제시

Solanki, Madhavsinh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92.3.15.-1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4 / 1-248

Madhavsinh Solanki 인도 외무장관이 1992.3.15.~18. 방한함.

1. 인도 외무장관 방한 관련 준비사항

- 중점 고려사항
  - 인도는 1991.6월 라오 수상 집권 이래 신경제 개방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
  -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접근 필요성 인식: APEC(아태경제협력체) 참여 희망, 아세안과 Sectoral Dialogue Partner 관계 설정
  -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희망
- 일정 관련사항
  -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회담, 외무장관 주최 만찬
  - 국립묘지 헌화. 산업 시찰, 경제인과의 오찬 또는 만찬

2. 방한 일정

- 3.15. 도착
- 3.16. 외무장관회담, 국립묘지 헌화, 경제인과의 오찬, 국무총리 및 재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3.17. 삼성전자 방문, 대통령 예방, 주한 인도대사 주최 리셉션
- 3.18. 이한

3. 한·인도 외무장관회담(1992.3.16.) 결과

- 정책협의회 개최 합의
- 인도 수상 방한초청장 전달
- 대인도 수출금융 지원 문제
  - 한국 회사들의 대인도 선박 및 해양 석유생산 설비 수주와 관련, 수출금융 확대 지원방안 적극 검토
- APEC 참여
  - 인도의 APEC 참여 희망에 대해 한국 측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92-0518

Solanki, Madhavsinh 인도 외무장관 방한, 1992.3.15.-18.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5 / 1-196

Madhavsinh Solanki 인도 외무장관의 1992.3.15.~18. 방한 관련 자료임.

1. 인도 외무장관 방한 관련 자료 송부(1991.11.29., 주인도대사관)

- 한·인도 외무장관회담 자료, 인도 외무장관 방한 참고자료(국내정세 및 지역정세), 만찬사 내용에 대한 공관 의견, Solanki 장관 영문 이력서 및 외무장관 관련사항 등

2. 한·인도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3.16., 아주국)

- 회담 개요
- 개회사 및 대표단 소개
- 의제별 자료
  - 지역정세: 한반도 정세(한국 측 리드), 서남아 정세(인도 측 리드)
  - 양자관계: 한국 측 제기사항(UN 및 비동맹에서의 협조, 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인도 수상 방한), 인도 측 제기사항(인도의 신경제 정책, 대인도 수출금융 지원 문제, 대전 EXPO '93, APEC 참여
- 외무장관 인적사항, 체한 일정, 인도 개황, 최근 인도 정세, 한·인도 관계

3. Solanki 인도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3.16., 외무부)

- 인적사항
- 방한 개요
- 말씀 요지
  - 인사말씀, 양국관계 평가, 한반도 정세 설명(남북한 관계, 북한의 핵개발), 최근 서남아 정세(필요시 언급), 인도의 신경제 정책 평가, 경제관계(교역, 대전 EXPO '93 참가 환영, 대인도 선박·해양석유 생산설비 수출 지원 문제(인도 측 언급 시 답변), 맺는 말씀
- 인도 개황
- 체한 일정(안), 수행원 명단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36 / 6 / 1-66

1991~92년 중 Ali Akbar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1.8.7. 한·이란 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1991년 Velayati 이란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 서한을 이란 측에 전달함.

2. Tavassoli 이란 외무부 아시아·대양주담당 부국장은 1991.11.12. 주이란 관계자와의 면담 시 Velayati 장관의 방한 계기 판문점 경유 북한 동시방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1991년 내 Velayati 장관의 방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함.

3. 이란 측은 1992.4.22. Velayati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조정위원회 참석 계기 1992.5.15.~18. 방한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국내 일정상 방한 접수가 어렵다고 전달함.

4. 한국 측은 1992.8.24. 이란 측에 외교 일정상 Velayati 장관의 방한 시기를 1993년으로 연기함을 통보함.

92-0520

Yurkans, Yanis 라트비아 외무장관 방한, 1991.12.13.-1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6 / 7 / 1-128

Yanis Yurkans 라트비아 외무장관이 1991.12.13.~15.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11.22. 라트비아 외무부, 외교 공한으로 12월 중 Yurkans 외무장관 방한 희망의사 표명
- 1991.11.29. 외무부, Yurkans 외무장관의 1991.12.13.~15. 비공식 방한 접수 수락을 라트비아 외무부에 회신

2. 수행원

- Zeyle 국회 예산위원장
- Streips 외무부 관방장

3. 주요 일정

- 한·라트비아 외무장관회담
- 한·소련 경제협회 주관 라트비아 경제설명회
- 대우, 금성사 산업 시찰

4. 한·라트비아 외무장관회담 의제

- 남북대화 및 북한 핵개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설명
- 국제무대 협력
- 주라트비아 겸임대사 임명 및 주한 라트비아 명예영사 임명 문제
- 한·라트비아 협력 문제
- 대전박람회 참가초청장 전달

Barros Valero, Javier 멕시코 외무차관 방한, 1992.10.28.-3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6 / 8 / 1-73

Javier Barros Valero 멕시코 외무차관이 1992.10.28.~30. 방한함.

1. 주요 일정

- 10.28.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면담
- 10.29.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개회식 참석,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10.30. 국회의장·국회 외통위원장 예방, 교육부차관 면담

2. 주요 활동

- 한·멕시코 외무차관회담(10.28.)
  - 1993년 중 Salinas 멕시코 대통령 방한 일자 협의
  -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설치 허용 보류
  - 대전엑스포 참가 문제 협의
-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참석(10.29.) 및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면담(10.28.)
  - 한·멕시코 공동위에 멕시코 측 수석대표로 개회식 참석
  - 외무부 외교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멕시코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 문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의
- 국회의장, 국회 외통위원장 예방 및 교육부차관 면담
  - 국회의장은 1993년 중 Salinas 멕시코 대통령 방한 시 국회연설 문제 호의적 검토 언급
  - 교육부 측과는 양국 간 학생·교원 단기교환 방문 문제 협의

3. 참고자료

- Barros 멕시코 외무차관 접견자료(1992.10.28., 외무부 미주국)
- 한·멕시코 외무차관 면담요록
- 외교정책실장, 멕시코 외무차관 면담록(1992.10.28., 외무부 외교정책실 정책총괄과)
- 멕시코 외무차관을 위한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계획, 만찬사(1992.10.29., 외무부 미주국)

92-0522

Olu ADENIJ 나이지리아 외무차관 방한, 1992.5.19.-2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36 / 9 / 1-65

Olu Adenij 나이지리아 외무성 차관이 1992.5.19.~21. 방한함.

1. 방한 경위

- Olu Adeniji 나이지리아 외무성 차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회의(1992.5.12.~15.)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비공식 방문 예정임을 5.13. 주한 나이지리아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통보해 옴.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 삼성기흥연구소 시찰
- 삼성전자 주최 만찬

Shah, Narendra Bikram 네팔 외무차관 방한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36 / 10 / 1-99

1992년 중 Narendra Bikram Shah 네팔 외무차관의 방한을 추진함.

1. 네팔 외무차관 방한 추진

- 초청 경위
  - 1992.6.22. 주네팔대사 초청 건의
  - 1992.7.8. 외무부차관 명의 공식초청장 발송
  - 1992.8.14. Shah 차관 초청 수락
  - 1992.10.17. 네팔 측 11월 둘째 주 방한 제의
- 주요 일정(안)
  - 외무부차관 예방 및 차관 주최 만찬
  - 주요인사 예방(체육청소년부장관, KOICA 총재, 외교안보연구원장, 대전박람회 조직위원장 등)
  - 판문점 방문 및 산업 시찰
- 방한 효과
  - Shah 차관은 네팔 외무부의 실질적인 제1인자로서(Koirala 수상, 외무장관 겸직) 외교정책 수립 및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바, 금번 방한을 계기로 향후 한·네팔 간 기존 친선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건의
  - 외무부차관의 11월 둘째 주 일정을 감안, 1992.11.11.~14.(또는 15일)로 네팔 측에 통보

2. 네팔 외무차관 방한 취소

- Shah 외무차관은 1992.11.5. 주네팔대사를 초치, 자신이 Chief Secretary of the Cabinet 후보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Koirala 네팔 수상의 지시(11.4.)에 따라 불가피 금번 방한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양해를 간곡히 구해 옴.
  - 동 차관에 의하면 상기 직에 대한 정식 임명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주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
- 상기 Chief Secretary of the Cabinet은 내각 사무처장에 해당하는 직으로서 네팔 직업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최고위직임.

92-0524

Frutos Vaesken, Alexis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4.9.-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6 / 11 / 1-218

Alexis Frutos Vaesken 파라과이 외무장관이 1992.4.9.~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4.8. 주파라과이대사, Frutos Vaesken 파라과이 외무장관의 대만(구 중화민국) 등 아시아 방문 계기 동 장관을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과 특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확보
- 1992.1.29.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 송부
- 1992.2.24. 파라과이 외무부,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Frutos Vaesken 장관 방한 초청을 수락, 감사하는 내용의 공한을 주파라과이대사에게 송부

2. 방한 일정

- 4.9. 국립묘지 참배
- 4.10. 외무장관회담, 삼성물산 사장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및 서훈,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및 외무부장관에 대한 파라과이 훈장 전수식
- 4.11. 대우통신 시찰, 대우그룹 회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 4.12. 이한

3.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설명
- 양국 간 현안 협정(투자보장협정, 범죄인 인도조약) 조기 체결 희망
- 한국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유엔 및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기대
- 양자관계
  -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파라과이 방문 초청,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파라과이의 엑스포 참가, 한국의 대파라과이 투자 확대 문제 등
- 회담 평가
  -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파라과이의 지지 재확인
  - 양국 간 무역·투자·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의지 확인 등

4. 참고자료

- 프루토스 바에스켄 파라과이 외무장관 내외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
-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 요록, 외무장관회담 합의의사록

92-0525

Frutos Vaesken, Alexis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4.9.-12. 전2권 (V.2 회담 및 행사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6 / 12 / 1-217

Alexis Frutos Vaesken 파라과이 외무장관의 1992.4.9.~12. 방한 시 개최된 회담 및 행사 관련 자료임.

1. 파라과이공화국 알렉시스 프루토스 바에스켄 외무장관 공식 방한 일정

2.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관련 외무부 실·국 소관자료
   - 국제경제국, 조약국, 문화협력국

3.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관련 주파라과이대사관 자료
   - 외무부 장·차관 신상자료, 이력서, 내외사진, 파라과이 가요 악보, 카세트테이프, 소형 국기

4.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4.10., 외무부 미주국)

5. 파라과이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4월, 외무부)

6. 파라과이 외무장관 부인 접견자료(1992.4월, 외무부 미주국)

7. 외무부차관, 파라과이 외무차관 면담자료(1992.4.10., 미주국 남미과)

8. 프루토스 바에스켄 파라과이 외무장관 내외를 위한 외무장관 만찬사(국문본, 스페인어 번역본)

9. 파라과이 외무장관 만찬 답사(스페인어본, 국문 번역본)

92-0526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6 / 13 / 1-37

1986~92년 중 파나마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Abadia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초청

- 1986.3월 주파나마대사관, Abadia 장관이 1986년 중 방한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면서 동 장관의 방한 초청 건의
  - 3.27.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 송부
- 1987.4.23. 파나마 외무성, Abadia 장관의 1987.6월 중 방한 희망의사 표명
  - 5.21. 외무부, 기확정 외빈 방한 일정상 10월 이후 접수 가능 입장 송부

2. Linales 파나마 외무장관 방한 초청

- 1992.6.23. Linales 장관, 주파나마대사 면담 시 9.11.~14. 방한 희망의사 표명
  - 6.24. 외무부, 기확정된 외빈 접수일정 및 추석연휴 기간임을 사유로 방한 접수 불가 입장 통보

Dusava, Gabriel J.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 방한, 1992.11.27.-2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6 / 14 / 1-28

Gabriel Dusava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이 1992.11.27.~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11.23. Gabriel Dusava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은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게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관 감사차 서울에서 1박 예정이라고 말하고, 단 하루 체류하는 관계로 11.28. 11시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그간 한국의 제반 경제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싶다면서 예방 주선을 요청함.

2.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 노창희 외무부차관 예방(1992.11.28.)

- Gabriel Dusava 외무차관은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대전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1.30. 주한 파푸아뉴기니대사가 대전박람회 조직위원장에게 참가 결정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함.

92-0528

Kozyrev, Andrei V.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1992.3.17.-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15 / 1-272

Andrei Kozyrev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2.3.17.~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1.22.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 공로명 주러시아대사의 이임 예방 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협의 및 한·러시아 우호친선조약 체결 문제 협의를 위해 3월 중 방한 의사를 표명
- 1992.1.25. 한국 정부, 코지레프 장관의 3월 중 방한 접수에 동의하고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송부

2. 방한 목적

- 옐친 대통령 방한 협의(1992.9월 예정)
- 한·러시아 우호친선조약 가서명
- 한·소련 간 체결된 협정의 러시아 승계 문제 협의(코지레프 장관이 원칙적 차원에서 천명)
- 영사협정 및 부속 양해각서 서명
- 러시아 내 한국 총영사관 설치 문제 협의
- 한반도 정세, 아·태 정세 및 남북한 관계 등과 관련한 러시아 입장 의견교환
- 기존 대소련 차관의 보증 문제 및 동 차관의 CIS(독립국가연합) 회원국별 분배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3. 수행원

- 쿠나제 외무차관, 파노프 태평양·동남아국장 등 공식수행원 11명, 하바로프스크 주의회 의장, 연해주 주지사, 야쿠츠크 대통령, 기업인연맹 부총재 등 지방정부 및 기업인 12명

4.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장관회담 및 영사협정, 사증양해각서 서명
- 삼성, 대우, 현대, 럭키금성 및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 한·소련 경제협회 주최 러시아연방 경제사절단 초청 조찬 간담회

5.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1992.3.18.)

- 주요 의제



- 옐친 대통령 방한 및 외무부장관 러시아 방문
- 한·러시아 기본조약, 문화협정 체결 및 한·소련 간 체결된 협정의 한·러시아 간 승계 문제
- 경협차관 집행, 통상·자원·투자협력
- 북한 핵문제 해결 협조, 북·소련 상호원조조약 개정 문제,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협력 자제 문제

● 회담 결과

- 옐친 대통령 방한 시기는 1992.9월 중순으로 합의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적 협의 합의
- 한·러시아 기본조약의 1992.7~8월 중 가서명, 옐친 대통령 방한 시 정식 서명 원칙에 합의
- KAL기 사건, 총영사관 교환 설치, 북방 4개 도서 연근해 조업, 구러시아공관 부지, 경협차관,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문제 등 협의

92-0529

Kozyrev, Andrei V.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1992.3.17.-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6 / 16 / 1-209

Andrei Kozyrev 러시아 외무장관의 1992.3.17.~19. 방한 관련 자료임.

1.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 자료

- Kozyrev 외무장관 인적사항
- 회의 진행
  - 한반도 및 주변 정세 설명(한국 측), 러시아 정세 설명(러시아 측)
  - 양국관계 및 국제정세 현안
- 한국 측 주요 제의사항
  - 한·러시아 기본조약 체결 일정 제시
  - KAL기 사건 등 과거사 규명 협조 문제
  - 한·러시아 간 협정 승계 문제
  - 영사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
  - 자원개발(사할린 가스개발사업) 참여, 과학기술협력 교류 희망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설 문제
- 러시아 측 주요 제의사항
  - 양국 고위인사 교류(외무부장관 러시아 방문)
  - 한·러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 대CIS(독립국가연합) 경협차관 재개
  -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문제
  - 경제·통상협력

2. 코지레프 외무장관 대통령 예방 시 접견자료

3. 대소 경협차관 집행 재개문제 협의를 위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안기부 등 관계 부처 간담회(1992.3.14.) 자료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36 / 17 / 1-39

1991~92년 중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90.11.30. 주르완다대사관 폐쇄 결정 관련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Bizimungu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 서한 송부

2. 1991.1.7. Bizimungu 장관 명의의 이상옥 외무부장관 취임 축전 접수
   - 공관 폐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 유지 및 적절한 시기 방한 희망 의사 표명

3. 1992.1.6. Bizimungu 장관은 르완다 기업인을 동행하고 1992.2~3월 중 방한 희망

4. 1992.8.27. 외무부, 외빈 방한 접수 일정상 1993년 이후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이 가능함을 르완다 정부에 통보

92-0531

Fernandez Ordonez, D. Francisco 스페인 외무장관 방한계획.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7 / 1 / 1-314

1990~92년 중 D. Francisco Fernandez Ordonez 스페인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1. 1991년도 방한계획

● 방한 경위
- 1990.9월 유엔총회 계기 한·스페인 외무장관회담 시 스페인 외무장관은 1991.3월 중 방한을 희망
- 1990.11월 주한 스페인대사, Ordonez 스페인 외무장관의 1991.3.4.~8. 중 방한 제의, 한국 측 수락

● 주요 일정(안)(1991.3.4.~6.)
- 3.4. 김포공항 도착, 국립묘지 헌화, 대통령 내외분 예방 및 서훈, 국무총리 예방
- 3.5. 외무장관회담,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예방, 한·스페인 경협위원장 주최 오찬, 판문점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3.6. 이한

2. 방한 연기

● 주한 스페인대사는 1991.2.21. 의전장을 방문 1991.3.4.~6. 예정된 스페인 외무장관의 방한계획 연기를 통보하여 옴.
- 걸프사태 및 대소련 경제원조 문제 논의를 위한 EC 외무장관회담(1991.3.4.~8., 브뤼셀) 참석

3. 1992년 방한계획

● 주요 일정(안)
- 1.19. 서울 도착
- 1.20. 국립묘지 헌화, 외무장관회담, 대통령·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1.21. 통일원장관 예방(스페인 측 희망 시), 스페인 진출 한국업체 대표 면담, 이한

4. 방한 연기

● 주한 스페인대사는 1991.12.24. 외무부 의전장에게 Ordonez 스페인 외무장관이 대소련 지원 국제회의(1992.1.22.~23., 워싱턴) 참석 관계로 방한계획을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음을 통보함.

92-0532

Fernandez Ordonez, D. Francisco 스페인 외무장관 방한계획.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서구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7 / 2 / 1-292

1991~92년 중 추진되었던 스페인 외무장관의 방한 관련 자료임.

1. Ordonez 스페인 외무장관 접견자료(1991.3.4.)
   - 인적사항, 방한 개요, 말씀자료, 스페인 개황

2. 한·스페인 외무장관회담 자료(1991.3.5.)
   - Ordonez 외무장관 인적사항
   - 회담 개요
   - 방한 일정
   - 인사 말씀
   - 의제별 말씀자료
     - 국제정세(양측 설명): 국제정세 개관, 국제경제 동향, 걸프사태
     - 구주 정세(스페인 측 설명): 구주 정세 일반, 소련 및 동구권 정세, EC 통합 현황 및 전망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한국 측 설명):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통일정책, 북방외교
     - 양자관계(양측 리드): 정무관계, 경제관계, 문화협력
   - 맺는 말씀

3. Ordonez 스페인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1.21.)
   - 외무장관 인적사항, 면담 시 언급사항, 양국 간 현안문제

92-0533

Shubhas Chandra, Mungra 수리남 외무장관 방한, 1992.5.11.-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7 / 3 / 1-299

Mungra Shubhas Chandra 수리남 외무장관이 1992.5.11.~13. 방한함.

1.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외무장관회담 및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 KOICA 총재 방문 및 KOICA 총재 주최 오찬
- 김우중 대우 회장 방문, 이춘림 현대종합상사 회장 주최 만찬

2. 외무장관회담(1992.5.12.)

- 한국 측 관심사항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지지 및 비동맹 회의 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 체결 추진, 수산협력 증진
- 수리남 측 관심사항
  - 전력(1천만 달러) 및 통신(5백만 달러)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지원 요청, 제3차 전대차관 지원 요청, 기타 기술협력 및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요청

3. 외무장관회담 후속조치

- EDCF 지원 문제, 제3차 전대차관 요청, 기술협력, 경제사절단 파견 등

4. 참고자료

- 한·수리남 외무장관회담 자료
- 수리남 외무장관 청와대 접견자료
- 수리남 외무장관 부인 접견자료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2.-25.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37 / 4 / 1-273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이 1992.11.22.~25. 방한함.

1. 추진 경위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유엔총회 계기 면담한 바 있는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에게 1991.10.15. 방한 초청 서한 송부
- 1992.4.30. 한·탄자니아 외교관계 수립
-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한 Mwinyi 탄자니아 대통령은 1992.6.14.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Diria 외무장관이 1992년 가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비동맹회의 후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
- Diria 장관, 1992.7.28.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답신 송부

2. 방한 일정 및 주요 협의사항

- 방한 일정
  - 11.22. 서울 도착
  - 11.23. 대통령 예방 및 서훈, 외무장관회담 및 만찬, KOICA 총재 면담
  - 11.24. 수출입은행 총재·전경련 회장 면담, 산업 시찰(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 11.25. 이한
- 주요 협의 사항
  - 한·탄자니아 외무장관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및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논의
  -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및 아프리카 정세에 관해 의견교환
- 탄자니아 외무장관 내외분 공식 방한 관련 보고(중동아프리카국)

3. 영접 준비

-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내외를 위한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안)
- 외무부장관 만찬사, 탄자니아 외무장관 답사
- 탄자니아합중국 아흐메드 하싼 디리아 외무장관 내외분 공식 방한 영접계획(소책자, 외무부)

4. 부내 및 관계기관 협조

- 탄자니아 외무장관 방한 시 제기될 외무장관회담 의제, 서훈, 협정 체결 문제 등에 대한 외무부 내 의견조회 및 결과 접수
- 탄자니아 외무장관 방한 시 영접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제공 요청

92-0535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 방한, 1992.11.22.-25.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2-37 / 5 / 1-222

Ahmed Hassan Diria 탄자니아 외무장관의 1992.11.22.~25. 방한 결과 및 자료임.

1. 방한 결과

- 주요 정세 협의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설명: 남북한 관계 및 핵사찰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북방정책 성과 설명
  - 아프리카 및 탄자니아 정세 설명
- 양국관계 확대방안
  - 1992.4.30. 수교 계기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 확대 발전 희망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가서명 및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 합의
  - 경제 협력: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 가능성 검토, 관민 경제사절단 파견 검토
  - 원조 제공: 30만 달러 상당 기자재 제공, 연수생 초청사업 시행 의사 표명

2. 공동 언론발표문, 만찬사 등

- 한·탄자니아 외무장관회담 요록
- 한·탄자니아 외무장관회담 결과 포함, 방한성과를 정리한 공동 언론발표문(Joint Press Release)
- 이상옥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탄자니아 외무장관 내외를 위한 공식 만찬 시 만찬사 및 답사
- Mwinyi 탄자니아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영어본, 국문 번역본)
- KOICA 총재 면담 요록

3. 후속조치

- 대탄자니아 무상원조(기자재 공여), 정부 초청 장학생 훈련, 탄자니아 언론인 방한 초청사업 추진

4. 회담자료 및 참고자료

- 탄자니아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11.23., 외무부)
- 한·탄자니아 외무장관회담 자료(국문, 1992.11.23., 중동아프리카국)
- 이상옥 외무부장관, 탄자니아 외무장관 면담 요록(1991.9.30., 유엔)
- 탄자니아 외무부 외교통신망 및 어업 관련 자료

Shultz, George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7 / 6 / 1-85

1989~92년 중 George Shultz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9.12.6.~8. 방한

- 방한 목적
  - 경제 현황 시찰 및 정부 고위인사 면담
-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동자부장관, 보사부장관, 교통부장관 면담
  - 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시찰

2. 1992.10.3.~6. 방한

- 방한 목적
  - 서울평화상 위원회 제정, 제2회 서울평화상 수상차 방한
-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서울평화상 수상 기념식 참석
  - 외무부장관 오찬 및 외교안보연구원 특별강연

92-0537

Kanter, Arnold 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2.5.13.-1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7 / 7 / 1-125

Arnold L. Kant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92.5.13.~15. 방한함.

1. 방한 목적

- 아시아 우방국 순방(중국: 5.6.~9., 태국 5.9.~13., 한국 5.13.~15. 및 일본 5.15.~20.) 및 G-7 정상회담 준비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우방국 순방 일환

2.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등
- 판문점, DMZ 시찰 등

3. 외무부장관 면담(1992.5.13.) 결과

- 남북관계와 북한 핵사찰 추진 문제 공동대처
  - Kanter 차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사찰의 중요성 재확인
-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수출 문제 대처
- 리비아 제재 문제, LA 사태, 미·북한 관계 및 한·중국 관계 등 논의

Gros Espiell, Hector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1.12.-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7 / 8 / 1-188

Hector Gros Espiell 우루과이 외무장관이 1992.1.12.~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외무부장관 초청

2.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서훈
- 외무장관회담 및 외무부장관 주최 공식 만찬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방문

3. 한·우루과이 외무장관회담(1992.1.13.)

- 한국 측의 남북관계 설명 및 우루과이 측의 지원 표명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어려움 설명
  - 우루과이 측은 협상 타결 및 농산물 분야의 진전된 안 채택 희망
- APEC(아태경제협력체), MECOSUR(남미공동시장) 등 지역협력체제의 개방적 추진에 의견일치
- 우루과이 측은 낙농제품에 대한 대한국 수출 희망
  - 한국 측은 우루과이 수역 내 한국어선 조업 협조 요청
- 3개 협정 추진 합의 양해각서 서명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추진

92-0539

Gros Espiell, Hector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92.1.12.-1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37 / 9 / 1-128

Hector Gros Espiell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1992.1.12.~15.) 관련 주요 준비자료임.

1. 외무부 내 각 실국의 회담 관련자료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문제, 국제정세 및 남북한 관계
   - 투자보장협정, 대전 EXPO 참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우루과이와 경협 문제 등

2. 우루과이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1월)

3. 한·우루과이 외무장관회담자료(1992.1.13.)

92-0540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 방한, 1992.5.7.-11.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7 / 10 / 1-179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이 1992.5.7.~10. 방한함.

1. 추진 경위

- 1990.9월 수교 이후 잠비아의 각료급 공식 방한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 정부는 1992.1.6.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부장관 앞 방한 초청 서한을 송부
- 1992.3.31. 잠비아 외무부, Mwaanga 장관 방한 희망 일자(1992.5.7.~11.)를 주잠비아대사관에 통보

2. 방한 일정

- 5.7. 김포공항 도착
- 5.8. 대통령 예방 및 서훈, 외무장관회담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대우 사장 주최 오찬, 상공부장관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5.9.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및 대우중공업 시찰, 대우중공업 주최 오찬, 서울 시내 관광
- 5.10. 이한

3. 한·잠비아 외무장관회담 토의 의제

-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주변 정세, 최근 남북대화 진전 상황
- 아프리카지역 정세: 흑아프리카 및 잠비아 정세, 남아공 문제
-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비동맹, 유엔기구 등에서의 협조
- 양국 간 관계 확대: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대잠비아 경제·기술원조계획 설명

4. 참고자료

- 잠비아 외무장관 접견자료(1992.5.8., 외무부)
- 한·잠비아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5.8., 중동아프리카국)
- 잠비아 외무장관을 위한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안), 만찬사
- 잠비아 외무장관 공식 방한 영접계획(안)

92-0541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 방한, 1992.5.7.-11.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37 / 11 / 1-194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의 1992.5.7.~10.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한·잠비아 외무장관회담(1992.5.8.) 결과 및 후속조치

- 양국관계
  - 1990.9월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에 만족 표명
  - 한국의 유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원 합의
- 경제협력 관계
  - 한국기업의 대잠비아 투자증진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 문제 협의
  - 한국업체의 잠비아 개최 국제무역박람회 참여 문제 협의
- 원조 관계
  - 잠비아에 한발 구호금 5만 달러 지원 등 협조 약속
  - 매년 10만 달러 정도의 원조계획과 연수생 초청, 정부의 파견계획 설명 등
- 회담 후 한·잠비아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후속조치
  - 한·잠비아 외무장관회담 시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Mwaanga 잠비아 외무장관에게 동 박람회에 한국기업의 참가를 권유하겠다고 언급
  - (주)대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금성전자, KOTRA 등에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였으나, 박람회 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한국업체 참여는 미실현

2. 참고자료

- 한·잠비아 외무장관 회담록, 만찬사
- Chiluba 잠비아 대통령 친서, 노태우 대통령 답서(국·영문본), Mwaanga 외무장관 감사 서한
- 잠비아 외무부장관 방한 관련 외무부 내 각실·국 자료
- 한·잠비아 외무장관회담 자료(1992.5.8., 중동아프리카국)

민관식 특사(전 국회의장서리) 중화민국(대만) 방문, 1992.2.20.-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7 / 12 / 1-106

민관식 전 국회의장 서리가 1992.2.20.~23. 대만(구 중화민국)을 방문함.

● 방문 관련 현지 언론보도
- 연합보(1992.2.19.): 민관식 부부의 방문은 실질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큼. 대만 외교부는 민관식의 방문을 중시, 특사로 방문하는 데 대한 오해를 우려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함.
- 연합보(1992.2.21.): 학백촌 대만 행정원장은 2.20. 민관식 특사에게 대만·한국 관계는 기초가 튼튼하며, 민 특사 일행의 방문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대만·한국 관계 증진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표시
- 중국시보(1992.2.21.): 민관식 특사는 대만 행정원장 예방 시 노태우 대통령의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노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수교할 때 기존의 외교관계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하였다고 설명함.
- 연합보(1992.2.22.): 민관식 특사는 2.20. 이등휘 총통을 예방하고 한국은 대만과의 우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대만 관계는 지속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이원족 부총통과의 만찬석상에서 본인의 방문은 한국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기를 희망하는 성의 있는 표시라고 언급

92-0543

쟝이엔스(蔣彦士) 중화민국(대만) 특사 방한, 1992.5.6.-9. 전3권 (V.2 언론보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8 / 2 / 1-176

쟝이엔스(장언사, 蔣彦士) 대만(구 중화민국) 특사의 1992.5.6.~9. 방한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1. 이상옥 외무부장관 베이징 방문에 대한 대만 측 언론보도(1992.4.16., 주대만대사관)
   - 언론보도 기사 및 한국어 요약

2. 대만 장언사 특사 방한 관련 대만 언론보도(1992.5.7., 주대만대사관)
   - 언론보도 기사 및 한국어 요지

3. 대만 장언사 특사 방한 관련 대만 언론보도(1992.5.14., 주대만대사관)
   - 언론보도 기사 및 한국어 요지, 사설 번역

민주당 사절단 대만 방문, 1992.8.26.-3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8 / 4 / 1-16

민주당 사절단이 1992.8.26.~30. 대만(구 중화민국)을 방문함.

1. 방문단(7명)

- 이기택 대표최고위원, 김정길 최고위원, 손세일, 조순승, 김원웅 국회의원, 박우섭 부대변인, 권혁준 보좌관

2. 주요 일정

- 8.27. 대만 입법원장, 국민당 부비서장 예방
- 8.28. 대만 외교부장, 행정원장, 민진당 주석 예방

3. 면담 인사 주요 언급사항

- 유송번 입법원장
  - 한국이 북방정책을 위해 중국과 수교한 것은 이해하나, 우방인 대만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수교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매우 불만
  - 한국의 중국 수교로 대만의 대중국 입장을 약화시킴.
- 장효엄 외교부차장
  - 단교는 대만의 조치이며 한국의 대중국 교류 경고
  -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한국 측이 현지 교민과 상사 이익을 그대로 보호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

92-0545

김종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총재 코스타리카 방문, 1992.7.11.-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8 / 5 / 1-61

김종호 WSPU(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가 1992.7.11.~14. 코스타리카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WSPU 미주 총회(1992.7.9.~17., 산호세) 참석

2. 방문단
   - 김종호 의원(WSPU 총재) 및 승병구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사무총장 등 5인

3. 주요 일정
   - WSPU 개막식 참석(개막 연설)
   - Calderon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국회의장,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박준규 국회의장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1992.11.13.-1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38 / 6 / 1-45

박준규 국회의장이 1992.11.13.~16.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Dubcek 전 체코연방 의회 의장의 장례식 참석

2. 주요 일정

- 장례식(11.14.) 참석
- 주요인사 면담
  - Gasparovic 슬로바키아공화국 의회 의장
  - Cernak 슬로바키아공화국 경제부 장관
  - Rakickyga 슬로바키아공화국 외무부 국무장관

3. 주요인사 면담 내용

- 박 의장은 Gasparovic 의장을 방한 초청하였으나 슬로바키아 측은 1993년 상반기 중 Knazko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의 방한을 희망함.
- 슬로바키아 측은 한·슬로바키아 간 합작사업(삼성전자와 Calex사 간 냉장고 합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함.

92-0547

정주영 국민당 대표 멕시코 및 미국 방문, 1992.8.24.-9.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중미과
MF번호	2022-38 / 7 / 1-93

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1992.8.24.~9.1. 멕시코 및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로스앤젤레스(8.24.~25.): 피해지역 시찰, 교민대표 및 특파원 간담회
- 멕시코(8.26.~27.): 대통령, 외무장관, 상공장관, 재무장관 예방
- 워싱턴(8.29.~31.): 한국전 참전기념비, 웰링턴 국립묘지 방문 및 프레스클럽 연설, CNN·WP 인터뷰
- 뉴욕(8.31.~9.1.): WSJ 및 NYT 인터뷰

2. 수행원

- 박제상, 정몽준, 이학원 의원 등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및 수행 기자단 13명

3. 방문 결과

- 멕시코
  - Altamira 항구 시찰(선박수리소 건설 5억 달러 규모 투자 협의)
  - 멕시코 남부 운하건설 협의(비행기로 현지답사)
- 미국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질의응답)
  - 남북통일 문제, 한·중국 수교, 미·북한 관계, 정주영 대표의 대선 가능성
  - 동구권 국가와의 경제 관계, 소고기 수입 문제, NAFTA(북미자유무역협상) 한국 무역시장 영향

김대중 민주당 대표 러시아 방문, 1992.9.6.-1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38 / 8 / 1-68

김대중 민주당대표가 1992.9.6.~10. 러시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 수여

2. 수행원

- 민주당 국회의원 및 기자 등 약 15명

3. 주요 일정

- 모스크바대학에서 강연, 모스크바 한국학교 개교식 참석
-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 논문 발표
- 주요인사 면담
  - 부르불리스 러시아 국무장관, 하스블라토프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

4. 러시아 측 언급 내용

- 부르불리스 국무장관
  - 러시아는 구소련과 달리 법과 정의를 기초로 대외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국 및 한국과의 3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 기회에 밝힐 수 있도록 KAL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 중임.
- 하스블라토프 의장
  - 현재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2~3년이 지나면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구소련연방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 중 러시아와 한국과의 수교로 사문화된 조항들을 점검하고 이를 재조정하도록 러시아 외무부에 지시함.

92-0549

국회의원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8 / 9 / 1-206

1991~92년 중 국회의원의 미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정재문 의원(1991.6.23.~28.)

- 버클리대학 한국학연구소와 워싱턴 소재 윌슨센터는 1991.6.25.~26. 'New Economic Order: A U.S.-Korea Forum' 제하 세미나를 개최
  - 동 세미나에 정재문, 황병태, 박찬종, 한승수, 유준상, 이해찬 의원 참석

2. 조순승 민주당 의원(1992.1.12.~18.)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동아시아 Working Group에서의 연설 및 Carter Center 세미나 참석

3. 장기표 민중당 정책위원장(1992.2.1.~6.)

- 버클리대학 강연회 연설 및 하버드대학 Yenching 연구소 연설

4. 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1992.4.6.~17.)

- 하버드대학 만찬 연설 및 카네기재단 연설 등

5.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1992.6.8.~16.)

- 유타대학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참석, LA 교민 재해대책본부 방문 및 피해교민 격려
- 수행원: 옥만호, 김동근, 이상희 의원 등

6. 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1992.9.17.~20.)

- Kanter 국무부차관, Wolfowitz 국방부차관 면담
- 워싱턴포스트 및 워싱턴타임스 회견, 가톨릭대학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 및 연설 등

박준규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1992.12.21.-3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8 / 10 / 1-264

박준규 국회의장이 1992.12.21.~30.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함.

1. 방문 목적

- 1993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차 APPLF(아·태의회지도자협의회) 관련 협의

2. 방문국 및 주요 일정

- 필리핀(1992.12.21.~22.)
  - 필리핀 대통령 예방, 하원의장 면담
- 태국(1992.12.22.~27.)
  - 태국 국왕 및 수상 예방, 상원 및 하원의장 면담
- 말레이시아(1992.12.27.~29.)
  - 말레이시아 수상 예방, 상원 및 하원의장 예방

3. 주요 협의 내용

- 필리핀
  - 제2차 APPLF 참가 문제 및 양국관계
- 태국
  - 양국 간 기존 우호협력 강화, 의회지도자 간 협력방안 등 논의
- 말레이시아
  - 제2차 APPLF에 참가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상의 지원 요청
  -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

4. 참고자료

-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브리핑 자료(1992.12월, 외무부)
- 필리핀 대통령 예방 자료(1992.12월, 외무부)
- 필리핀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 면담 자료(1992.12월, 외무부)
- 태국 국왕 및 수상 예방자료(1992.12월, 아주국)
- 태국 하원의장 면담자료(1992.12월, 아주국)
- 말레이시아 국왕 및 수상 예방자료(1992.12월, 외무부)
- 말레이시아 하원의장 면담자료(1992.12월, 외무부)

92-0551

호주 의회사절단 방한, 1992.6.10.-1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8 / 11 / 1-61

Lloyd O'Neil 의원을 단장으로 한 호주 의회사절단이 1992.6.10.~17. 방한함.

1. 방한 경위

- 박준병 한·호주 의원친선협회장의 공식 초청
  - 1991.7월 한국 측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호주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

2. 방한 목적

- 양국 간 상호협력 관계 증진 및 교류 확대
- 양국 의회 간 우호관계 강화

3. 방한단

- Lloyd O'Neil 하원의원(단장, 노동당 소속) 등 호주 상·하원의원 5인 및 의회 사무처 직원 1인

4.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및 동력자원부장관 예방
- 포항제철 시찰 및 포항제철사장 주최 오찬,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 비원, 경복궁, 경주 일원 관광

5. 참고자료

- 호주 의회사절단 방한 일정 책자
- 호주 의회사절단 일행 방한 결과 보고서

독일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38 / 12 / 1-89

1992년 중 독일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Hornhues 독일 하원 기민당·기사당 원내 부총무 방한(1992.4.8.~11.) 추진

- 박준규 국회의장·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통일원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 박준규 의장은 Suessmuth 독일 하원의장의 방한 초청 의사 전달을 요청, 이에 Hornhues는 동 초청 의사를 하원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하원의장의 방한이 일 년 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2. Graf Lambsdorff 자민당 당수(1992.4.14.~16.)

- 방한 목적: 한·독일 양국 우호 협력관계 증진
- 방한 일정: 김우중 대우 회장 주최 만찬, 정주영 국민당 대표 예방, 외무부장관대리·통일원장관 면담, 대통령·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상공부장관 면담, 주한 독일 경제인 주최 조찬
- 외무부장관대리의 Graf Lambsdorff 자민당 당수 면담 시 주요 언급 요지
  - 핵문제 및 독일·북한 간의 관계 개선: 북한이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수용한다 해도 핵사찰의 목적에 비추어 남북한 간 상호사찰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는 서방선진국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함. 독일의 대북한 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시켜 줄 것을 요청함.
  - 콜 수상 방한 문제: 외무부장관대리는 콜 독일 수상의 1992년 아주 순방 시 한국 방문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동 방문은 양국 정상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양국의 정치·경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Graf Lambsdorff 당수는 1992년 말 한국 대통령 선거 일정에 관하여 질문한바, 외무부장관대리는 대통령 선거는 지난 예에 비추어 12월 중순경 실시될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동 수상의 방한은 한국 선거와 하등 관련이 없음을 언급, 이에 Graf Lambsdorff 당수는 한국 측 요청사항을 콜 수상에게 전달하겠다고 함.
  - 기타사항: Graf Lambsdorff는 지난 2월 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방독 시 동인을 면담했음을 언급하고 김달현은 김일성의 측근으로 독일의 대북한 경제원조를 요청하였다고 첨언함.

92-0553

Sajjad, Wasim 파키스탄 상원의장 방한, 1992.10.29.-1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38 / 14 / 1-202

Wasim Sajjad 파키스탄 상원의장이 1992.10.29.~11.3.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상 목격
- 파키스탄 경제개혁 관련,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한국의 대북한 정책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2. 방한 추진 사유

- Sajjad 의장은 파키스탄 헌법상 서열 제2위로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승계
- 한·파키스탄 친선협회장으로 파키스탄 내 대표적인 친한 인사
- 한국기업의 대파키스탄 진출 제고

3. 주요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회의장 예방 및 국회의장 주최 만찬
- 외무부장관 면담
- KDI 경제브리핑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현대중공업 공장 시찰

4. 외무부장관 예방 시 언급내용

- 장관: 최근 남북한 관계는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사찰 문제는 주요 장애요소임.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 사찰도 필요하나 북한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상호 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함.
- 상원의장: 파키스탄은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고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용의도 있으며 양자간 대화 및 미·중·러시아 강대국의 협조 하에 인도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남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5. 참고자료

- 파키스탄 상원의장 방한자료(주파키스탄대사관)
- 환담 참고자료(외무부)
- 파키스탄 상원의장 면담자료(외무부)
- 파키스탄 상원의장 대통령 면담자료(외무부)

필리핀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8 / 15 / 1-138

1990~92년 중 필리핀의 국회의원 방한 관련 내용임.

1. Neptali A. Gonzales 상원의원 겸 민주투쟁당(LDP) 총재 비공식 방한(1990.7.9.~13.)
   -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외무부장관 면담
   - 삼성물산사장 면담 및 삼성전자 시찰

2. Ramon B. Legaspi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방한(1991.10.7.~11.)
   - 박준규 국회의장·신순범 경과위원장·박관용 한·필리핀 친선협회장 예방, 유준상 의원 주최 만찬
   - 김진현 과기처장관 예방
   - 판문점 및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3. Jose De Venecia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추진
   - 경위
     - 박정수 국회외무통일위원장의 1991.12.18.~21. 필리핀 방문 시 Jose De Venecia 하원 외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방한 초청
     - De Venecia 위원장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 방한 희망을 표명
   - 초청장 전달
     - 1992.1.20. 국회, 외무부에 필리핀 하원 외무위원장 앞 박정수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명의의 초청 서한 전달 요청
     - 외무부, 주필리핀대사에게 동 방한초청장 송부

92-0555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8 / 16 / 1-86

1. 김창준 다이아몬드바 시장 방한(1992.1.23.~30.)

- 방한 경위: 외무부장관 초청
-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2.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 방한(1992.11.20.~29.)

- 방한 목적
  - 연방 하원의원 당선에 따른 한국 국민에 대한 인사
- 주요 일정
  - 11.21. 김영삼 민자당 총재 예방
  - 11.23. 주한 미국대사관 브리핑
  - 11.24.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대통령 예방
  - 11.25. 안기부장 면담

미국 한국계 주·시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8 / 17 / 1-58

1992년 중 미국 한국계 주·시의원 방한 관련 내용임.

1. 신호범 워싱턴주 하원의원(1992.11.10.~19.)
   - 한국에서 개최되는 몰몬교 선교사 모임 참석
   - 외무부차관 예방, 김현욱 전 국회 외통위원장 주최 조찬

2. 임용근 오레곤주 상원의원(1992.11.13.~20.)
   - 상원의원 당선에 따른 한국 내 친지 인사
   - 국무총리·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예방,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오찬, 한국일보사 방문

3. 정호영 캘리포니아주 가든 그로브 시의원(1992.11.26.~12.6.)
   - 시의원 당선에 따른 인사차 외무부장관의 초청
   - 외무부장관·안양시장 예방, 안양시 의회 방문

92-0557

미국 의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8 / 18 / 1-95

1992년 중 미국 의회 의원 보좌관 및 전문위원 방한 관련 내용임.

1. 1차 방한(1992.5.24.~30.)

- 방한 인사
  - Elizabeth Lambird(상원 외교위 전문위원, 동아·태담당), Joan Morgan(Murkowski 상원의원 외교안보 보좌관) 등 미 의회 의원 보좌관 및 전문위원 7명
- 방한 주요 일정
  - 기관 방문: 국회, 외무부, 민족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 오·만찬 등: 공보처장관 주최 오찬,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만찬,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주최 오찬, 세종연구소장 주최 만찬,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최 오찬, 정재문 민자당 의원 주최 만찬,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조찬 간담회,
  - 시찰 및 관광: 판문점 시찰, 용인 민속촌 관광
- 외국 인사 방한 초청 결과보고서(첨부)
  - 주요 동정 및 초청 인사의 방한 소감 및 제언 등

2. 2차 방한(1992.8.23.~29.)

- 초청 목적 및 대상
  - 목적: 미 의회와의 효율적 업무 협조 관계 구축 및 중·장기적 의회 내 친한 세력 확보
  - 대상: 미 의회 중진의원의 외교·안보·군사담당 보좌관 또는 의회 전문위원
- 방한 인사
  - Alice Slayton (Torreicelli 하원의원 외교·안보 보좌관), Christopher Griffin (Bentley 하원의원 국방담당 수석보좌관) 등 7명
- 방한 주요 일정
  - 기관 방문: 국회, 외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민족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 오·만찬 등: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오찬, 국방연구원 주최 오찬, 세종연구소 주최 만찬,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주최 만찬
  - 시찰 및 관광: 판문점 시찰, 국립박물관 관람, 경복궁·창덕궁·이태원 관광

미국 의회 의원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38 / 19 / 1-108

1992년 중 미국 의회 의원 방한 관련 내용임.

1. 미 의회 의원 사절단(1992.11.24.~29.)

- 방한 의원단 구성
  - Patricia Schroeder 하원 군사위원회 시설소위원회 위원장(단장) 등 총 9명의 미 하원의원
- 방한 목적
  - 한반도 안보 정세 파악, 주한미군 시설 시찰, 군인 가족 문제 파악
  - 한국 정부 관계자와 방위 분담 문제, 첨단기술통상협정 문제 등 협의
- 주요 일정
  - 주한미군 Roundtable, 국방부장관 예방, 주한미군 사령관 주최 오찬,
  - 미국대사관 브리핑, 외무부장관 예방 및 오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리셉션
  - 주한미군 시설 시찰 및 군인 가족 면담
- 참고자료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시 장관 오찬사, 미 하원 의원단 오찬 면담자료(1992.11.25., 미주국)

2. Thomas M. Foglietta 의원(1992.11.28.~12.1.)

- 방한 경위
  - 국제미래사회연구원 초청으로 대통령 선거 관찰 및 세미나 참석 목적
- 주요 일정
  -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예방, 국제미래사회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김대중 민주당 대표 면담
- 참고자료
  - 폴리에타 하원의원(민주, 펜실베이니아) 외무부장관 면담자료, 국무총리 접견자료(첨부)

92-0559

예멘 의회사절단 방한, 1992.9.19.-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38 / 20 / 1-67

예멘 의회사절단이 1992.9.19.~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8.25. 주예멘대사가 Noman 예멘 국회의장 방문 시 동 의장은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제의함.

2. 대표단

- Shafel Omer Ali 대통령 자문위원 겸 국회인권위 위원장(단장) 외 5명

3. 방한 목적

- 예멘의 통일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한국 통일정책 결정에 기여
- 한·예멘 친선 교류 활성화

4. 주요 일정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외무부차관, 정재문 의원 예방
- 판문점 시찰, 서울타워·국립중앙박물관·비원 관광
- 경인에너지 인천공장,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금성사 평택공장 등 시찰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38 / 21 / 1-45

1986~92년 중 프랑스 하원 내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재결성 관련 내용임.

1.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로 환원 경위

- 프랑스 사회당은 1981.6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기존 하원의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를 미수교국 또는 미독립국 등에 대해 구성하고 있는 연구조로 격하
- 외무부는 1986.3.16.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이후 하원의원친선협회 재구성을 적극 추진
- 1986.6.4. 프랑스 하원은 한국 연구조를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로 환원하기로 결정
- 1986.7.9. 창립총회 개최 및 의장단 선출

2. 구성

- 회장: 쟝 드 립코프스키 의원
- 부회장 6명, 현역 의원 47명

3. 평가

- 금번 조치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으로 새롭게 조성된 한·프랑스 간 우호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라크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향후 한·프랑스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긴밀화 전망

4. 주프랑스대사관의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관련 보고

- 1990.5.7. 회원 명부 송부
- 1992.4.23. 프랑스 내 상·하원의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에 대해 보고

92-0561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8 / 22 / 1-58

1988~92년 중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에 관한 내용임.

1. 1988~90년도

- 과테말라·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 Jose Fernando Lobo Dubon(여당인 기민당 소속으로 1988.2월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로 방한) 과테말라 의회 재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의원 13명이 친한(親韓)의원 그룹 결성
  - 1988.8.3. 주과테말라대사관은 동 의원들을 초청, 관저에서 오찬 겸 간담회 개최
  - 1989.10.16. Jose Fernando Lobo Dubon 과테말라 국회의장은 주과테말라대사관에 과테말라·한 의원 친선협회가 구성되었다고 알려 옴.
-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결성
  - 1988.8.4. 주과테말라대사관은 외무부에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결성 건의
  - 8.26. 외무부는 국회사무처에 과테말라 친한의원 그룹 결성을 알리면서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결성에 관한 의견을 알려 줄 것을 요청
  - 9.6. 국회사무처는 외무부에 과테말라 의회와의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환영한다고 회신
  - 1990.2.20.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구성

2. 1991~92년도

-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간사인 Carlos Escobedo 의원은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인 김동영 장관의 타계와 관련, 1991.9.20.자 주과테말라대사 앞 서한을 통해 과테말라 측 의원협회 명의 조의 표명
- 1992.1.21. Edmond Mulet Lesieur 신임 국회의장에 대한 박준규 국회의장 및 김문원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대리 명의 축하서한 발송
- 한·과테말라 의원 친선협회 간사인 Carlos 의원은 1992.6.1.자 주과테말라대사 앞 서한을 통해 새롭게 개선된 1992~93년도 과테말라·한 의원친선협회 회장단을 포함한 회원 명단 통보

한·헝가리 간 의회 인사교류 및 친선협회 결성 검토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38 / 23 / 1-121

1. 헝가리 국회의원단 방한, 외무부장관 면담(1989.12.6.)

-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 한·헝가리 양국관계 및 의회 교류, 남북한 관계 논의

2. 국회운영위원회 의원단 헝가리 방문(1990.1.29.~1.31.)

- 헝가리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헝가리 국회의사당 건물 시찰, 헝가리 국회부의장 면담 등

3.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 결성

- 1990.2.9. 헝가리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박철언 정무장관 앞 서한으로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의
- 3.23. 주헝가리대사관은 주재국 총선거가 3.25.로 임박하므로 총선거 개최 및 새 국회 구성 이후인 금년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함.
- 9.13. 헝가리 국회는 헝가리·한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함.

4.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헝가리 방문(1991.8.19.~22.)

- 국회부의장 예방, Szekszard 시장 주최 오찬
- 주재 상사 지사장과의 오찬. 헝가리·한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5. Roszik 헝가리 의원 방한,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1992.9.8.)

- 대헝가리 경제협력, 투자 증진방안 등 협의

92-0563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20차. 동경, 1992.9.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39 / 1 / 1-103

제20차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1992.9.3. 도쿄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박태준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44명
- 일본 측: 다케시타 노보루 일·한 의원연맹 회장 등 100명

2. 주요 의제

- 안보외교위원회: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안전 보장에 관한 한·일 협력 관계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한·일 양국 간의 무역 균형적 확대 추구 및 산업과학기술의 구체적 협력 증진
- 사회문회위원회: 한·일 양국 간의 학술·문화·스포츠 등 인적·지적 교류 증진 및 청소년 교류 확대
- 법적지위위원회: 재일한국인의 법적·사회적 개선 노력의 계속과 재한 원폭 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 문제 등 전후 처리 문제의 적극 지원

3. 주요 일정

- 9.2. 미야자와 총리 및 다케시타 일·한 의원연맹회장 예방, 일본 외상 주최 리셉션
- 9.3. 한·일 의원연맹 총회 및 공동기자회견, 다케시타 회장 주최 리셉션

4. 공동성명서 요지

- 한·중국 수교를 높이 평가하고, 동북아의 동반자로서 한·일 양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
- 북한의 남북한 상호 핵사찰 거부 자세를 수정하도록 유도하며, 일·북한 관계 개선 문제도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은 물론, 양국 간 경제교류의 균형적 확대를 위해 한·일 의원연맹 내 경제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개칭하기로 합의
- 재일한국인의 보다 완전한 법적·사회적 지위 개선과 전후 처리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

5. 참고자료

- 한일·일한 의원연맹 제20차 합동총회 결과보고서(1992.9.3., 일본 도쿄)(한·일 의원연맹)
- 대표단 명단 및 공동성명서

한·일본 의원연맹 활동강화 및 합동간사회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39 / 2 / 1-216

1992년 중 한·일 의원연맹의 결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한 내용임.

1. 일·한 우호친선의회연맹 결성(1992.2.22.)

● 일본 자민당,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102명을 회원으로 하는 오사카부 일·한 우호친선의회연맹이 결성됨.

2. 한·일 의원연맹 활동 강화

● 1992.4.9. 정부는 일·한 의원연맹이 일본 자민당의 일부 파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한국의 제14대 총선에서 한·일 의원연맹 소속 민자당 의원 164명 중 100여 명이 낙선 혹은 낙천으로 인맥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일 의원연맹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함.

3. 도쓰카 신야 일·한 의원연맹 운영위원장(중의원) 방한(1992.7.10.~11.)

● 주요 일정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주요 협의 내용
- 한·일 산업과학기술 협력재단 설립, 일본 연근해에서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북한의 핵사찰 문제, 한·중 국교 정상화 문제 등
- 김 국장은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수산청에 알아본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북한의 핵사찰 문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이외 남북한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함.

4. 1992년 한·일 의원연맹 활동 내역

● 일본의원 11명 방한(1992.2.28.~3.1.): 제3남침땅굴 및 국립박물관 견학
● 한·일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1992.7.31.~8.2., 서울)
- 한국 측 정석모 간사장 등 9명, 일본 측 가토 무츠키 간사장 등 6명 참석

● 한·일 양국 교류를 위해 일본 여자대학생 등 23명 방한(1992.8.17.~21.)
● 일본 중학교 교사 12명 방한(1992.8.24.~26.): 제3남침땅굴 견학
● 일·한 친선협회 대표단 39명 방한(1992.11.5.~7.): 국회의장 예방

92-0565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39 / 3 / 1-106

1989~92년 중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요르단·한 친선협회 개요

- 1987.12.8.자로 구성되었으나, 1988.7.31. 하원 해산으로 동 협회 해산
- 주요르단대사관과 요르단 국회사무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1990.7.25. 재구성

2. Arar 전 국회의장 방한(1991.4.30.~5.5.)

- 박준규 국회의장 예방, 대우 방문

3.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요르단 방문(1991.8.1.~4.)

- 고위인사 면담 시 주요 발언 요지
  - 후세인 국왕: 걸프사태 시 요르단 입장 설명, 요르단 국민의 우정 및 본인의 인사 전달
  - 하산 왕세자: 한·요르단 간 학계, 의회, 언론, 통상 전 분야에 걸친 대화 및 교류 제의, 신세계 질서 내 상호협력 필요성 강조
  - Lawzi 상원의장 외 상원의원 다수: 요르단의 민주화 설명, 세계 신질서 구축에 있어서 약소국가 간의 협력강화 제의, 요르단 정부의 한국 지지 입장 설명,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정당성 지지 요망
  - Arabiyat 하원의장: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 문화, 기술, 언론 등에서의 협력 강화 제의
- 방문 성과
  - 동 사절단은 8.3. 국왕 알현을 비롯하여 왕세자, 상·하 양원 의장 및 외상 등 주재국 관계 최고위 인사와 면담한바, 관련 사항이 주재국 TV 및 주요 일간지 1면 등에서 크게 보도됨으로서 의원 외교성과를 높였음.
  -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결성 이래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친선강화 뿐만 아니라 주재국 원로 정치지도자인 ARAR 전 국회의장 등 국회지도자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실질위원 외교성과를 거두었음.

92-0566

한·미국 과학기술통상 관련 의원협의회 결성 추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2-39 / 4 / 1-266

1.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1990.6.26.~27.)

- 방문단
  - 유준상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한승수·황병태·서상목·조경목 의원, 경기원 제2협력관, 김적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
- 방문 목적
  -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 과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 의회 간 유기적 대화 정례화 시도
- 주요 일정 및 활동
  - 상·하원 의원과의 개별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 통상 문제 전반에 걸쳐 의견 교환
- 방문 결과
  - 양국 의원 모두 앞으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더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함.
  - 양국 간 통상관계의 보다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 양국 의회 간 과학기술협의체 설립 추진 및 이를 위한 향후 관련 의원 간 긴밀한 협의를 합의함.

2. 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협의회 의원단 미국 방문(1991.5.13.~16.)

- 방문단
  - 이승윤 의원(단장), 조경목·한승수·황병태 의원
- 방문 목적
  - 한·미 간 통상·과학·기술 협력관계 긴밀화
  - 최근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미 의회 및 행정부의 시각 직접 확인
  - 한국 측의 입장과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이해시킴과 아울러 양국 국회 간 대화채널 정례화
- 주요 일정 및 활동
  - 의회 인사, 상공부, USTR(미국무역대표부), 농무부, 국무부 등 정부인사 면담, 카네기재단 등 주요 Think Tank와의 5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참가
- 방문 결과
  - 정치·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3. 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협의회 의원단 미국 방문(1992.4.26.~30.)

- 방문단
  - 나웅배 의원(단장), 조경목·서상목·조순승 의원
- 방문 목적
  - 국회 차원에서 한·미 간의 통상·과학·기술협력관계 긴밀화
  - 한국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이해 증진
  - 한·미 의원 외교의 정례화 및 조직화
- 주요 일정 및 활동
  - 의회 및 행정부 인사 면담, 브루킹스연구소 등 주요 Think Tank와의 정책 토론회 참가
- 방문 결과
  - 양국 통상관계에 대한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시각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적 시각이 상존
  -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에 대한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의 지지 획득

한·이란 노동부장관 교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39 / 5 / 1-120

1992년 중 한·이란 노동부장관 교류 관련 내용임.

1. Hossein Kamali 이란 노동사회부장관 방한(1992.9.24.~28.)

- 주요 일정
  - 최각규 부총리 예방, 한·이란 노동장관회담
  - 한국산업안전공단, 정수직업훈련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우자동차 공장 시찰
- 주요 논의 내용
  - 양국 간 협력사항 논의
  - 피랍 대우 근로자의 조속한 안전 생환을 위한 협조

2. 이연택 노동부장관 이란 방문(1992.11.20.~24.)

- 양국 노동장관회담(11.20.)
  - 양국 노동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한국 진출업체 애로사항 협의: 비자제도 재선, 노동허가 기간 연장 문제, 노동행정 관할 조정 문제, 개인 급여액 과표 적용 문제
  - 이란 측 요청사항: 이란 진출 한국 기업의 이란인 기능공 고용 확대, 직업훈련 초청 확대(내년도 26명까지 증원 용의 표명)
- Zanjani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면담(11.23.)
  - 양국관계 증진 협의: 양국 노동장관회담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약속
  - 제5차 한·이란 공동위원회 개최 합의
  - 이란 측 요청사항: 조선 분야 협력 확대. 한국 전문가 파견, 이란 내 직업훈련 실시 요청. 한국 기업의 대이란 투자 증대(Qeshm 자유지역)

92-0568

정세조사단 캄보디아 방문, 1992.2.24.-2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9 / 6 / 1-77

정세조사단이 1992.2.24.~27. 캄보디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91.10.24.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SNC(최고민족평의회)를 사실상 승인
- 1991.12.12.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한·SNC 간 특수관계 설정 협의를 위한 한국대표단의 캄보디아 방문 제의
- 1992.1월 주태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측에 캄보디아 방문 용의 표명
- 1992.10월 캄보디아 측은 주태국대사의 캄보디아 방문을 환영한다고 회신

2. 방문단

- 정주년 주태국대사 외 3인(외무부, 안기부, 주태국대사관 관계관)

3. 주요 활동

- Hor Nam Hong 외무장관(SNC 위원) 등 캄보디아 정부 및 당 주요인사 면담
  - 외무장관, 국회의장, 기획부장관, 상무부장관 등
- 프놈펜 주재 일본대사, 미국 차석대표 등과 한·캄보디아 관계 개선 방안 의견 교환
- 캄보디아 정세 파악

4. 캄보디아의 대한국 태도

- 시아누크 SNC 의장의 친북한 성향으로 인해 한국의 대SNC 외교관계 설정에 애로가 있음을 인정
  - 그러나 외무부장관 등 캄보디아 정부 인사는 한·SNC 간 관계 수립을 위해 시아누크를 설득할 것임을 공히 언급
- 한·캄보디아 간 경제통상관계 발전 희망,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적극 기대

5. 참고자료

- 캄보디아 출장 관찰보고서(1992.2.24.~27., 외무부 동북아2과)
- 주태국대사의 캄보디아 외무장관 Nor Nam Hong 면담요록(1992.2.24.)
- 캄보디아 관련 자료(1992.2.21., 주태국대사관)

92-0569

이시영 외무부대사 중국, 중화민국(대만) 및 홍콩 순방, 1992.2.14.-2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2-39 / 8 / 1-117

이시영 외무부 본부대사가 1992.2.14.~27.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및 홍콩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 1991년도 중국, 대만, 홍콩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을 위한 이시영 대사의 APEC-SOM (고위실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감사표시로 중국, 대만 정부 및 홍콩정청이 이 대사 내외를 각각 공식 방문 초청

2. 국별 방문 일정

- 중국
  - 진화손 국제기구국장 주최 오찬
  - 유화추 외교부 부부장 내외 주최 만찬
  -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방문
  - 전기침 외교부장 예방
  - 이남청 대외경제무역부장 예방
- 대만
  - 방금영 외교부 차장 내외 주최 오찬
  - 마영구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 면담
  - 허가생 경제부 국제무역국장 면담
  - 강병곤 경제부 차장 면담
  - 고진보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대만위원장 겸 공상협진회 이사장 면담 및 오찬
- 홍콩
  - Donald Tsang 무역청장 주최 오찬
  - 신공항 건설계획 브리핑
  - T. H. Chau 상공장관 주최 만찬

3. 관찰 및 평가

- 한·중국 수교 실현 당위성에 대한 중국 정부 내 공감대 형성 확인
-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낙관 표명
- 한·중국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강한 희망 표시

92-0570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순방, 1992.4.11.-2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9 / 9 / 1-74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이 1992.4.11.~24.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를 순방함.

1. 방문 목적

- 한·미국 간 주요 현안 협의
- 1992.6월 예정된 정원식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방문 협의
- 페루, 도미니카, 캐나다 정세 파악

2. 주요 일정

- 아르헨티나(4.13.~14.)
  - Ossorio 외무부 아주국장 및 Kreckler 의전장 면담
- 페루(4.14.~16.)
  - Bresan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도미니카(4.16.~18.)
  - 현지 진출 한국업체 대표와 간담회
- 미국(4.18.~21.)
  - Somon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Lilley 국방부 차관보 면담
- 캐나다(4.21.~23.)
  - Tennant 외무부 북아·태국장, Davidson 외무부 중남미국장 면담

3. 주요 결과

- 미국
  - 양측은 북한 핵문제, 미·북한 교역 문제,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함.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측은 정원식 국무총리의 1992.6월 방문에 동의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무역불균형 시정, 어업협력, 한국기업투자, 공동위원회 개최,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함.
- 페루
  - 양측은 공동위원회 개최, 투자보장협정 및 어업협정 체결 추진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캐나다
  - 양측은 북한 핵문제, 쿠바 및 페루 등 중남미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협공동위원회 개최, 투자증진, 원자력 협력, 관광확대 등 양국 경협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함.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순방, 1992.4.11.-24.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39 / 10 / 1-252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의 1992.4.11.~24.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순방 관련 준비 자료임.

1. 미국 방문자료(외무부)
   - 아·태지역 정세, 남·북한 관계, 미국 정세, 한·미 양자관계

2. 캐나다 방문자료(외무부)
   - 한·캐나다 양자관계, 아·태지역 정세, 핵문제 및 남북한 관계, 북한·캐나다 관계

3. 미주국장의 캐나다 방문자료(주캐나다대사관)
   - 일정, 면담인사 인적사항, 양자관계 토의 참고사항
   - 한·캐나다 주요 현안, 캐나다 주요 정세

4. 미주국장 방문 브리핑자료(주아르헨티나대사관)
   - 대아르헨티나 주요 현안, 주재국의 대한반도 정책, 주재국의 대외정책
   - 지역 정세, 공관 건의사항

5. 아르헨티나, 페루, 도미니카 방문자료(외무부)
   - 아르헨티나
     - 한·아르헨티나 현안사항, 공관 건의사항
   - 페루
     - 한·페루 현안사항, 공관 건의사항
   - 도미니카
     - 1991년도 업무 추진실적, 한·도미니카 현안사항, 공관 건의사항
   - 방문지 개황, 참고자료

92-0572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독일 방문, 1992.9.14.-2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39 / 11 / 1-112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992.9.14.~25. 독일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1992.4월 비영리 사단법인 IPI(International Partnership Initiative) 총회 측은 1992.9.16.~18.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3차 IPI 총회에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초청함.
- 1992.8.7. 정부는 민간외교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강영훈 총재의 제3차 IPI 총회 참석을 지원하기로 함.

2. 제3차 IPI 총회(1992.9.16.~18., 독일 볼프스부르크)

- 주제
  - 변혁과정의 유럽과 세계(경제지역별 세계적 경쟁 속에서의 기업)
- 참석자
  - 정계, 재계,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500명

3. 주요 일정

- 9.14. 주독일대사 주최 만찬
- 9.21. 독일 적십자사 National Tranining Center 방문, 독일 적십자사 총재 주최 오찬 및 만찬
- 9.22. 독일 적십자사 본부 방문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독일 및 예멘 순방, 1992.8.24.-9.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중동1과
MF번호 2022-39 / 12 / 1-222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1992.8.24.~9.3. 독일 및 예멘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독일 및 통일예멘과의 정부간 통일정책 협의체제 구축

2. 예멘 방문(1992.8.25.~8.28.)

- 정부지도층 인사 면담: Saleh 대통령, Al-Attas 총리, Al-Arashi 국무장관
- 예멘정치학회 초청 강연: 한국의 통일정책 특강
- 남북예멘 통일 전 국경지역 시찰
- 합동 기자회견: 통일정책 설명

3. 독일 방문(1992.8.30.~9.3.)

- 정부지도층 인사 면담: Bohl 수상실 장관, Seiters 내무장관, Kinkel 외무장관, Diepgen 베를린시장
- 한국 정부 통일정책 소개 및 설명, 기자회견(Die Welt 및 Berliner Morgenpost)
- 주베를린 특파원 간담회: 독일, 예멘 방문 결과 및 최근 남북관계 현황 설명

92-0574

주요인사 필리핀 방문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9 / 13 / 1-48

1991~92년 중 주요인사들이 필리핀을 방문함.

1. 김정렬 전 국무총리 내외(1991.1.4.~6.)

-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방문 일정의 일환

2.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대표단(1991.5.26.~28.)

- 방문단(단장)
  - 김중화 최저임금심의위 부위원장
- 방문 목적
  - 필리핀의 최저임금제도 운용 실태 조사
- 주요 일정
  - 필리핀 노동부 및 최저임금 관련 단체 방문

3. 박세직 전 서울시장 내외(1991.12.13.~16.)

- 필리핀 국가 조찬 기도회(12.14.) 강연

4. 정주영 국민당 대표(1992.8.19.~21.)

- 주요 일정
  -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예방, 아키노 전 대통령과 만찬
  - 필리핀 경제인단체장 및 실업계 인사(약 150명) 대상 오찬 연설, 마닐라시장 주최 환영 리셉션
  - 신 추기경 주최 조찬, 고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 추모미사 참석, 공항 기자회견 등
- 참고자료
  - 정주영 국민당 대표 필리핀 방문 참고자료(1992.8.19.~21., 외무부)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39 / 14 / 1-58

1989~92년 중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의 미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1989.9.4.~9. 방문

- 방문 목적
  - 미 행정부 외교안보담당 고위관리 및 미 의회 주요인사들과 한·미 협력관계 방안 협의
  - 대통령 방미 행사 사전협의
- 면담 인사
  - 백악관: Scowcroft 안보보좌관
  - 국무부: Kimmitt 정무담당 차관, Solomon 동아태담당 차관보, Gregg 주한대사 내정자
  - 국방부: Wolfowitz 정책담당 차관, Ford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 의회: Nunn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Cranston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2. 1992.7.28.~31. 방문

- Scowcroft 대통령 안보보좌관, Kanter 국무부 정무차관, Wolfowitz 국방부 정책차관 등 면담
  - 북한의 핵문제 및 김달현 부총리 방문 등에 관한 의견교환

3. 1992.10.4.~6. 방문

- Scowcroft 대통령 안보보좌관, Kanter 국무부 정무차관, Wolfowitz 국방부 정책차관 등 면담
  - 노태우 대통령 방중 결과 설명

92-0576

통일고문회의 고문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호주 순방, 1992.11.5.-1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39 / 15 / 1-53

통일고문회의 고문단이 1992.11.5.~15.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를 순방함.

1. 방문 목적

- 통일 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 수렴 및 통일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통일원이 사회 각 분야의 원로급 인사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통일고문회의의 고문 일행이 교민초청 간담회를 위해 방문

2. 방문단

- 고문 10명: 김판술(단장, 전 보건사회부장관), 김영정, 김집, 김치열, 김현자, 박동진, 오인갑(오록원: 스님), 이형근, 조향록, 최호중
- 수행원(3명): 통일원 과장 외 2인

3. 방문 일정 및 활동

- 일정: 싱가포르(11.5.~8.), 인도네시아(11.8.~12.), 호주(11.13.~15.)
- 활동: 방문국별 교민 초청 간담회 개최

4. 참고자료

-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해외방문 브리핑 자료(1992.11월, 외무부)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중동 순방, 1992.5.31.-6.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39 / 16 / 1-120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가 1992.5.31.~6.12. 중동 4개국(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시리아)을 순방함.

1. 이란(6.2.~3.)

● 한·이란 정책협의회 개최(이란 측 대표: Broujerdi 외무차관) 및 Larijani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면담
- 양측은 고위인사 교환방문 추진 등 양국관계 증진방안 협의
- 제5차 한·이란 공동위원회를 1992.7~8월 중 테헤란 개최 추진에 합의
- 한국 측은 남북한 대화의 진전 상황 설명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2. 아랍에미리트(6.4.~5.)

● Al Nuaimi 외무부 정책국장 면담
- 한국 측은 북핵 문제를 설명하고 대북한 관계 개선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 국장은 현재로서는 대북한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함.

3. 쿠웨이트(6.6.~7.)

● Salem 부총리 겸 외무장관 및 Rquaba 석유장관 예방, Alwadi 기획부차관 면담
- 걸프전 이후 중동정세 및 한·쿠웨이트 간의 관계 증진방안 협의
- 쿠웨이트 측은 걸프전 당시 한국의 지지와 지원에 사의 표명, 한국 측은 전후복구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 요청

4. 시리아(6.8.~10.)

● Al-Shara 시리아 외무장관 예방 및 Shakoor 외무차관 면담
- 한·시리아 관계 증진방안 협의

92-0578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관할지역 순방, 1992.11.10.-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39 / 17 / 1-263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은 1992.11.10.~24. 관할지역 4개국(가나,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튀니지)을 순방함.

1. 순방 목적

- 제1차 한·튀니지 정책협의회 참가
-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방문국 정세 및 동포 실태 파악

2. 주요 일정

- 가나(11.11.~13.)
  - Chambas 외무차관 예방, Simpson 외무성 중동아시아국장 면담
- 코트디부아르(11.13.~16.)
  - Amara 외무장관 예방, Traore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 모로코(11.17.~18.)
  - 대사관 현황 설명 및 업무 협의
- 튀니지(11.20.~22.)
  - Ben Yahia 외무장관 예방, 제1차 한·튀니지 정책협의회

3. 주요 성과

- 제1차 한·튀니지 정책협의회(1992.11.21.)
  - 중동 및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튀니지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함.
  - 튀니지 측은 한국의 대튀니지 자유무역지대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함.
- 가나,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피선 협조에 대한 사의를 전달함.
  - 한국 측은 남북관계 설명 및 양국 간의 우호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함.
  - 코트디부아르 측은 한국의 무상원조 제공에 사의를 표하고 주한 상주공관 개설에 관심을 표명함.

4. 참고자료

- 제1차 한·튀니지 정책협의회 자료(1992.11.21.,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 주가나대사관 현황자료(1992.11.11., 주가나대사관)
- 코트디부아르 주요 정세(1992.11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Amir Khosru Mahmud CHOWDHURY 주치타공 방글라데시 명예영사 방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39 / 18 / 1-13

1991~92년 중 Amir Khosru Mahmud Chowdhury 치타공 주재 방글라데시 명예영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1.11.19.~24. 방한

● 주요 일정
- 11.21. 김동인 의원, 김창성 방글라데시 명예총영사(전남방직 회장) 면담

● 방한 목적
- 해외인력의 국내 취업 문제 및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활성화 문제 협의
- 개인사업 협의

2. 1992.10.15.~20. 방한

● 방글라데시 인력의 한국 취업 및 양국 경협 증대방안 등 협의

92-0580

Moudila, Nicodime 콩고공화국 외무부 의전장 방한, 1992.1.9.-1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39 / 19 / 1-44

Nicodime Moudila 콩고공화국 외무부 의전장이 1992.1.9.~16.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콩고 양국관계 증진방안 협의
  - 무상원조 등 경협 요청
- 국산 자동차 및 통신장비 구매
  - 국내 자동차 업계 인사 면담 주선 중

2. 주요 일정

- 1.10. 중동아국장 면담 및 오찬, 외무부장관 예방, 의전장 면담
- 1.11. 이경훈 대우중공업 사장 면담
- 1.13. 통일원 관계관 면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찰
- 1.14. 코엑스 시찰, 코트라 관계관 면담,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1.15.~16.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시찰

3. 방한 결과

- 콜로로 외무장관 방한 추진
- 콩고 외무부 신청사 건립 지원 검토
- 승용차 및 통신장비 구매 협조

중화민국(대만)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39 / 20 / 1-71

● 황대주 대북시장(1992.7.9.~12.)
- 방한 추진 경위
  ·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만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화민국 6개년 개발계획에 대한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 지원을 위해 대북시장을 방한 초청함.
- 주요 일정: 국무총리 예방, 건설부장관 면담, 서울시장 예방

92-0582

Evans, Paul M.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극동문제 연구소장 방한, 1992.4.21.-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0 / 1 / 1-35

Paul M. Evan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극동문제 연구소장이 1992.4.21.~27.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토론토총영사관 건의에 따른 공보처 주관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

2. 주요 일정

- 공보처장관 예방
- 민족통일연구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국방연구원, 국제교류재단,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방문
- 장만순 외무부 제1차관보,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송용식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 면담

3. 방한 결과

- 1992.6월 예정 동 소장의 북한 방문 시 북한 핵개발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 역할 기대
- 캐나다 정부의 대한국 정책 결정 시 우호적으로 지원할 친한 인사 확보

Jurisic, Milivoj 크로아티아 Zagreb시 부시장 방한, 1992.6.26.-7.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40 / 2 / 1-26

Milivoj Jurisic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 부시장이 1992.6.26.~7.4. 방한함.

1. 방한 목적

- 서울시와 문화교류 협의(문화 전시회, 자매결연)
- 신임 Z. Skrabalo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친서 전달(수교 및 관계 강화 요청)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방문

2. 주요 일정

-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면담 및 오찬
- 외무부 동구 2과장 면담,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 서울시 부시장 면담

3. Milivoj Jurisic 부시장의 외무부 동구 2과장 면담 및 제1차관보 예방(1992.6.30.) 시 언급 요지

- 부시장은 한국의 크로아티아 승인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북한이 동국과의 수교 희망을 밝혔다며 한국도 조속히 수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전자 분야 등 유망사업에 한국의 투자 요청 (Z. Skrabalo 외무장관 친서 전달)
- 한국 측은 양국 간의 수교는 유고 정세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 후, 그 이전에라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교류(특히 민간 부문)가 필요함을 언급함.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크로아티아 측의 법령개정 등 조치에 관해 문의

92-0584

독일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0 / 3 / 1-103

1992년 중 독일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Kaiser 독일 대외정책연구소장(1992.9.7.~12.)

- 방한 경위
  - Kaiser 독일 대외정책연구소장은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차대회(1992.9.9.~12., 서울)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에 한국의 관계인사들을 접촉하여 정치, 경제 정세, 대외관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주독일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 주요 일정
  - 민족통일연구원 방문, 서울포럼 세미나 참석
  - 노창희 외무부차관, 유장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면담

2. Eberhard Diepgen 베를린시장(1992.11.18.~19.)

- 방한 목적
  - 한국 기업들의 베를린시 투자 유치 목적
- 주요 일정
  - 경제부총리, 이상배 서울시장 면담 등
  - 주한 독일대사 주최 리셉션 및 독일·한국 상공인들과의 조찬

Moshe YEGAR 이스라엘 외무부 아주·태평양·아프리카국장 방한, 1991.10.3.-6.

생산연도 1991-1991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40 / 4 / 1-34

Moshe Yegar 이스라엘 외무부 아주·태평양·아프리카국장이 1991.10.3.~6. 방한함.

1. 방한 목적

- 중국 방문 계기 한·이스라엘 관계정상화 가능성 타진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및 중동아국장 면담
- 중동아국장 주최 만찬

3. 유종하 외무부 차관 면담(1991.10.5.) 결과

- Yegar 국장은 이스라엘은 한국을 중요국가로 평가하는데 더 이상 차별받을 수 없으며, 통상·문화 교류 등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공식적인 양국관계가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주한 이스라엘 공관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제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으므로 상주 공관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함.
- 유 차관은 양국관계에 영향을 준 요소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랍권과의 긴밀한 경제관계이며, 두 번째는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와 관련한 아랍권의 지지 확보였다고 함. 그러나 이제 제반 상황이 변하고 있고 유엔에도 가입하였으므로 중동 문제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있을 것이며, 한·이스라엘 관계도 긍정적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92-0586

일본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40 / 5 / 1-80

1992년 중 일본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나카야마 타로(中山 太郎) 전 외상(1992.4.24.~25.)

- 방한 목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개인적 방문
- 주요 일정: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최호중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 주최 만찬, 의사 출신 송두호 의원 및 서울대병원장 면담
- 면담 내용
  - 환동해(일본해) 의료전문가 교류기구(가칭) 설치 문제, 한·일 의원연맹 강화, 한·일 관계 심포지엄,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2. 도츠카 신야(戸塚 進也) 중의원 의원(1992.4.29.~5.1.)

- 방한 목적: 일·한 의원연맹 운영위원장으로서 한·일 관계 발전방안 의견교환
- 주요 일정: 주한 일본대사관과 조찬,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박태준 한·일 의원연맹 회장 예방, 정석모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주최 만찬, 주한 일본 특파원과 조찬

3. 외무성 중견 간부(1992.12.15.~18.)

- 방한 인사: 모리모토 세이지(森本 誠二) 국제보도과장, 이와타니 시게오(岩谷 滋雄) 과학과장
- 주요 일정
  - 12.15. 김포 도착, 판문점 시찰,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만찬
  - 12.16. 외무부 아주국장 예방, 외무부 관계 과장(국제연합2과장, 대변인, 과학환경과장, 중동1과장) 면담, 동북아1과장 주최 오찬, 독립기념관 관람
  - 12.17. 경주 관광,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방문,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주최 만찬
  - 12.18. 도쿄 향발

Lkhagvasuren, S. 몽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한, 1992.12.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40 / 7 / 1-25

S. Lkhagvasuren 몽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992.12.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몽골대사는 1992.10.27. 주재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3년 상반기 중 최초로 실시될 몽골 대통령 선거에 대비, 선관위 대표단 3명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시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방한 목적

- 민주적 선거제도 경험 습득을 위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관찰

3. 주요 일정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각 정당의 의전담당관 및 대통령 취임식 관계기관 면담

92-0588

멕시코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2-40 / 8 / 1-106

1986~92년 중 멕시코의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Victor Cervera 유카탄 주지사(1986년)
   - 주지사 내외를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편리한 시기에 4박 5일간 방한 초청
   - 실제 방한은 이루어지지 않음.

2. Antonio Villegs Villalobes 외무부 아주국장(1986년)
   - 초청했으나 실제 방한은 이루어지지 않음.

3. Guillermo Cosio Vidaurri 'Jalisco' 주지사(1990.5.23.~25.)

4. Bautista Samuel Maldonado 'Morelia' 시장(1992.12.19.~28.)

5. Ruffo Appel 남캘리포니아 주지사(1992.10.20.~22.)

6. Paras 외교 고문(1992년)
   - 실제 방한은 이루어지지 않음.

7. P.J.A. Carranza 멕시코시 방재 및 시민보호 프로그램 담당실장(1992.12.1.~4.)

Logunov, Anatoliy A. 모스크바대학 총장 방한, 1991.12.25.-92.1.3.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40 / 9 / 1-126

Anatoliy A. Logunov 모스크바대학 총장이 1991.12.25.~92.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10월 모스크바대학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명예정치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 Logunov 총장이 방한하여 대통령에게 동 학위를 전달하겠다고 주러시아(구 소련)대사관에 알려옴 (세종연구소 초청).

2. 방한 인사(3명)

- Logunov 총장
- 트로핀 모스크바대 부총장
- 지멘코 모스크바대 부총장보

3. 주요 일정

- 세종연구소 방문 및 만찬
- 연세대 총장 방문, 연세대 주최 오찬
- 청와대 예방(대통령에게 박사학위 수여) 등

92-0590

러시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40 / 10 / 1-224

1992년 중 러시아 주요인사가 방한함.

1. 표도로프 사할린 주지사(1992.1.12.~19.)

- 방한 경위
  - 1991.9월 주소련대사관은 사할린 주지사에 대한 정부 명의 방한 초청 건의
- 방문단: 표도로프 주지사 등 20명
- 주요 일정
  - 제주도 방문(제주도와 사할린 간의 자매결연 체결식 참석)
  -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산업 시찰 및 경주 관광

2. 스탄케비치 모스크바 부시장 겸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1992.3.25.~29.)

- 방한 목적
  - 삼성종합건설과 모스크바시 개발 프로젝트 협의
-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면담, 삼성종합건설 및 삼성물산 고위급인사 면담 등

3. 페트로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1992.8.26.~28.)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및 김대중 민주당 대표 주최 조찬

Tinca, Gheorghe 루마니아 외무차관보 방한, 1992.6.22.-2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40 / 11 / 1-165

Gheorghe Tinca 루마니아 외무차관보가 1992.6.22.~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5월 노신영 대통령특사의 루마니아 방문 시 구두 초청
- 1992.4.22. 주루마니아대사, Tinca 루마니아 차관보의 방한 초청 건의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이한빈 KIST 이사장, 서기원 KBS 사장 등 면담
-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금성정보통신, 판문점 시찰

3. 방한 결과

- Tinca 차관보는 한국 측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민간 기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문화교류 강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 체결 희망 등을 표명함.
- Nastase 외무장관의 친서를 전달하고, 외무부장관의 루마니아 방문 초청

92-0592

See Chak Mun 싱가포르 외무차관보 방한, 1992.10.23.-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0 / 12 / 1-112

See Chak Mun 싱가포르 외무차관보가 1992.10.23.~27. 방한함.

1. 방한 경위

-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1992.6.2. 주한 싱가포르대사 면담 시 방한 초청 의사 전달

2. 주요 일정

- 주한 싱가포르대사 주최 만찬
- 외무부장관, 제1차관보 주최 만찬
- 국립박물관 방문

3. 방한 결과

- See Chak Mun 차관보는 유엔의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에 대한 싱가포르의 입장, 남사군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갈등 현황 등 설명

Mayer, Anna 주Montreux(스위스) 명예총영사 방한, 1992.4.29.-5.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40 / 13 / 1-90

Anna Mayer 주몽트뢰 명예총영사가 1992.4.29.~5.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주최 만찬석상에서 스위스 외무장관을 통해 방한 초청 의사 표시
  - Anna Mayer는 건강상 이유로 방한 초청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사 전달
- 1992.2.14. 주스위스대사관은 1969.10월 이래 주스위스대사관의 명예총영사로 활동해온 Anna Mayer가 상반기 중 방한을 희망해 옴에 따라, 비공식일정 주선(공항 영접 및 관광 등) 및 왕복항공료 부담을 제공할 것을 건의
- 1992.2.18. 외무부는 Mayer 주몽트뢰 명예총영사에 대한 방한 초청 의사를 통보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장관 내외 주최 오찬, 구주국장 면담
- 장강재 한국일보 회장 면담 및 장 회장 주최 만찬
- 국립중앙박물관 및 경희대 한방의료원 방문, 현대자동차(울산) 방문, 경주 관광

3. 방한 결과

- 정치·경제·스포츠 분야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기존 우의 강화
- 양국관계 심화·발전에 이바지

92-0594

CHAMLONG Srimuang 태국 Bangkok 시장 방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0 / 14 / 1-45

1990~92년 중 Chamlong Srimuang 태국 방콕시장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0.10.8.~14. 방한

- 방한 경위: '시사저널'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공동 초청
- 주요 일정: 종교계, 정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강연(3회), 산업 시찰 및 대구시청 방문
  - 10.8. 김포공항 도착
  - 10.9. 민자당 주최 조찬, 국립묘지 참배, 경실련과의 간담회
  - 10.10. 조계사 방문, 서울대 총장 예방 및 강연, 경실련·시사저널 공동 리셉션
  - 10.11. 국무총리 예방, 민주당 방문, 동국대 강연, 서울시장 주최 만찬 및 민속공연 관람
  - 10.12. 금성사 방문, 서울시장 예방 및 교통상황실 순시, 평민당사 방문
  - 10.13. 포항제철 시찰, 대구시청 방문, 계명대 강연, 환송 만찬
  - 10.14. 김포 출발

2. 1991.9.4.~11. 방한

- 방한 목적: 일가 기념상재단(가나안 농군학교)이 수여하는 제1회 일가상 사회공익 분야 수상
- 방한 일정: 일가상 수상식 참석, 일가상 후원회 주최 강연, 원주 문화방송 강연, 부산 공무원 대상 강연, KBS 사장 면담, 민속촌 관광,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아시아나항공·농협 주최 만찬

3. 1992.10.2.~8. 방한

- 방한 경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교장의 초청
- 주요 일정: 방콕시 공무원(35명)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연수교육

영국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0 / 15 / 1-276

1992년 중 영국의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I.S. Caitheness 영국 외무부 국무상(1992.2.26.~27.)

- 외무부장관 및 제1차관보 면담
  - 북한 핵문제, 한반도 주변정세, 한·EC(구주공동체) 관계, 찰스 영국 왕세자의 방한 문제 등 협의
  - Caitheness 국무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측은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경협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설명함.

2. A. Goodlad 영국 외무부 국무상(1992.6.24.~25.)

- 외무부장관 및 제1차관보 면담
  - 북한 핵문제, 한반도 주변정세, 한·EC(구주공동체) 간 협력 증진방안, 찰스 영국 왕세자의 1992.11월 방한 문제 등 협의

3. D. Hunt 영국 웨일즈 담당 국무상(1992.9.27.~30.)

- 웨일즈지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유치 목적
- 조순 한국은행 총재, 현대자동차 사장,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 한·영국 간 경제협력, EC 통합 동향, 북한 핵문제 등 협의

92-0596

Walker, Richard L.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MF번호	2022-40 / 16 / 1-141

1987~92년 중 Richard Walker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7.9.27.~10.6. / 10.11.~16. 방한
   - 방한 경위: 국내 친지 방문
   - 주요 방한 일정
     - 예방 및 면담: 대통령 내외, 외무부장관 예방,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이병철 삼성 회장 면담
     - 오·만찬: 총리 관저 만찬, 일해 이사장 주최 만찬, 효성그룹 회장 주최 오찬, 대우그룹 주최 만찬. 한미경제협의회 주최 만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만찬, 주한 미국공사 관저 만찬 등

2. 1988.5.31.~6.5. 방한
   - 방한 목적: Steve Cowper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1988.6.25.~30. 예정) 관련 사전협의
   - 주요 일정: 청와대 오찬(6.2.)

3. 1988.9.15.~10.4. 방한
   - 방한 목적: 제24차 서울올림픽대회(1988.9.17.~10.2.) 참관

4. 1989.6.24.~30. 방한
   - 방한 목적: 한국 정세 파악
   - 주요 일정
     - 통일원장관·안기부장·국방부장관 예방,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미8군 사령관 면담, 한미경제협의회 방문
     - 대한항공 사장과 조찬, 외무부 의전장과 오찬

5. 1989.10.3.~11. 방한
   - 방한 목적: 한·미 경제협의회 미 동남부 7개주 제4차 합동회의(1989.10.11.~12.) 준비
   - 주요 일정: 대통령 예방 및 오찬(10.10.)

6. 1992.8.8.~16. 방한
   - 방한 목적: U.S. News and World Report 지의 '93 대전박람회(EXPO) 계기 한·미 통상관계 특집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



● 방한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상공부장관, 한미경제협의회 부회장, 대전박람회 조직위원장 면담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만찬
- 대전박람회 시설 방문 등

92-0597

AFC(미국자유연맹) 대표단 방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0 / 17 / 1-100

AFC(미국자유연맹) 대표단이 1990.1.30.~2.3. 방한함.

- 방한 목적
  - 통일교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참석
- 대표단
  - R. Ichord AFC 회장(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등 33명

92-0598

Allen, Richard V.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0 / 18 / 1-153

1990~92년 중 Richard V. Allen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와 대미 홍보 관련 컨설턴트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방한함.

1. 미국 PR 전문회사와 용역계약 체결(1990.4.20.)

- 계약 회사명: AEA Washinton Ltd.(대표가 Allen의 대리인)
- 계약 기간: 3년(제1차 연도: 1990.5.1.~91.4.30.)
- 계약 내용(요지): 미국에서의 매체관계, 홍보업무 및 PR 활동 분야에서 주미국대사관과 해외홍보관에게 컨설팅과 대행업무 제공
- 계약 명의: 해외홍보관
- 계약 금액: 연 40만 달러(공보처 예산, 분기별 지급), 제2·3차 연도 인상분은 추후 협의

2. 1990.11.5.~12. 방한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공보처장관 및 국방부장관 면담
- 국무총리 주최 조찬 및 과기처장관 주최 조찬

3. 1991.1.18.~24. 방한

- 박준규 국회의장 예방, 공보처장관 및 상공부장관 예방
- 대통령 주최 오찬 및 외무부장관 주최 조찬

4. 1991.6.13.~19. 방한

- 6.18.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 노태우 대통령 방미 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5. 1991.9월 방한

- 9.11.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 남북한 유엔 가입, 중국·대만(구 중화민국)·홍콩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 등에 관해 의견 교환

6. 1991.10월 방한

- 10.14.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 부시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등 관련 의견 교환



7. 1992.3.8.~13. 방한

● 3.9.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동향 등 관련 의견 교환

8. 1992.4.27.~5.24. 방한

● 4.28.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동향 등 관련 의견 교환

Bradley, Tom 미국 Los Angeles 시장 방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0 / 19 / 1-77

1991~92년 중 Bradley Tom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장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1.4.17.~20. 방한

- 방한 목적
  - 대만(구 중화민국)과 일본 방문 계기 한·로스앤젤레스 간 통상 증진방안 협의
- 방문단
  - 통상사절단 17명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부산시장 면담, 기자회견 등

2. 1992.10.18.~20. 방한

- 방한 목적
  - 한·로스앤젤레스 간 교류 증진
- 방문단
  - 통상사절단 12명
- 주요 일정
  -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 주한 미국대사 예방
  - Fourth Annual Korea Visit USA Trade Fair & Travel Seminar(1992.10.19.~22., 서울) 참석

92-0600

Solomon, Richard H.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0 / 20 / 1-128

1992년 중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 등 한·미 간의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1992년 3회 방한함.
- 방한 기간: 1.10.~12. / 3.14.~17. / 8.29.~9.1.

2. 방한 일정

- 이상옥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최 만찬 등

3. 주요 협의 결과

- 이상옥 장관 예방(1.11.)
  - 미·북한 간 고위급 접촉, 한·미 정상회담 평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미·일 관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등 협의
  - 이상옥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의 장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등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함.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3.16.)
  - 북한 핵문제,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수출, 대베트남 정책 협조, 대리비아 제재 문제 등 협의
  - 솔로몬 차관보는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수출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였고, 남·북한 간의 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 합의에 만족을 표명함.
- 이상옥 장관 예방(9.1.)
  - 한·미 관계,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북한 핵문제, NAFTA 등 협의
  - 솔로몬 차관보는 최근 한·미 관계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하고 북한 핵문제 관련 남·북 상호 사찰은 향후 남·북한 상호군축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함.
  - 이상옥 장관은 한·중국 양측이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조기 수교의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 수교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함.

미국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0 / 21 / 1-289

1992년 중 미국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Jeb Bush 미 대통령 차남(1992.3.16.~20.)
   - 방한 목적: 개인 사업

2. Douglas Mulholland 미 국무부 정보조사 차관보(1992.3.25.~27.)
   - 아·태지역 중장기 정세 파악
   - 외무부차관, 외정실장,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면담

3. Richard Cronin 의회 입법조사국 전문위원(1992.5.17.~30.)
   - 국회도서관 초청 행사 참석
   - 한·미 관계 및 한·일 관계 담당 외무부 관계관 면담

4. Thomas Pickering 주인도 미국대사(1992.8.4.~6.)
   -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면담

5. Lloyd Hand 변호사(1992.10.24.~29.)
   - 민주당 인사들과 친한 중진 변호사로 한국 문제에 많은 관심 표명하여 주한 미국대사가 방한 초청
   - 한·미 경제협의회 주관 미국 통상 관련 입법 동향 설명회 개최

6. Arne Carson 미네소타 주지사(1992.11.12.~15.)
   - 미네소타 통상사절단 아주지역 순방 인솔
   - 상공부장관 예방, 무역협회장·코트라 사장 면담, 대전박람회 시설 방문

92-0602

베트남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1 / 1 / 1-226

1992년 중 베트남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Le Duc Cang 베트남 외무부차관보(1992.6.20.~25.)
   - 방한 목적
     - 한·베트남 양국관계 협의
   - 주요 일정
     - 이상옥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제1차관보 및 경기원 차관 면담
     - 삼성전자 수원 공장 방문
   - 주요 협의 내용
     - Cang 차관보는 이 장관 예방 시 서울 주재 베트남 연락대표부를 7월 혹은 8월 초 개설 예정이라고 하고, 주한 구 월남대사관을 대표부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한국 측은 주하노이 연락대표부 개설을 위해 창설 요원을 7월 중에 베트남에 파견 예정이라고 함.

2. Nguyen Trung 주태국 베트남대사 부부(1992.8.27.~31.)
   - 주요 일정
     - 노창희 외무부차관 면담, 산업경제연구원·대우중공업 방문
   - 주요 면담 내용
     - 노 차관은 한·베트남 관계 증진을 위한 Trung 대사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과 하노이에 연락대표부가 설치되면 양국 간 경제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 Trung 대사는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은 밝다고 하고, 연락대표부 개설 합의는 양국관계 확대를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함.

3. Ms. Phan Luong Cam 베트남 수상 부인(1992.10.14.~21.)
   - 주요 일정
     - 영부인 예방, 이화여대 방문, 포항종합제철·울산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시찰

4. Dr. Nguyen Trong Nhan 베트남 적십자사총재 겸 보건부장관 방한(1992.10.24.~30.)
   - 주요 일정
     -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대한적십자사 창립 제87주년 기념식 참석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베트남적십자사 하이퐁지사 간 자매결연식 참석
   - 기자회견(10.27.) 시 주요 언급 내용
     - Nhan 장관은 월남전 참전 한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 및 실종자 관련, 한국 측이 베트남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베트남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예멘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41 / 2 / 1-115

1991~92년 중 예멘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Yehya Al-Amri 예멘 내무성 경찰담당 차관보(1992.6.2.~7.)

● 방한 목적
- 대테러 훈련 및 마약 수사 관련, 양국 경찰 협조체제 구축

● 대표단
- 예멘 내무성 경찰담당 차관보, 외사국장, 대테러 국장 등 경찰 간부 5명

● 주요 일정
- 경찰대 방문 및 경찰특공대 시범훈련 참관

2. Al-Mosoudi 예멘 국민회의당 의원(1992.7.6.~10.)

● 방한 경위
- 통일예멘 의회 형태 및 운영실태 파악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방한 초청

● 주요 일정
- 국회외무통일위원장, 외무부차관 예방
- 통일연수원 방문 및 판문점 시찰
- 반월공단, 대우자동차 산업 시찰

3. Al-Saidi 예멘 자유지역위원회 부위원장(1992.8.19.~30.)

● 방한 목적
- World Peace Academy 주최 세미나 참석 및 한국 경제발전 전략 및 수출진흥정책 정보수집

● 주요 일정
- KDI 및 통일연수원 방문

92-0604

김만제 특사(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Duran Ballen, S.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2.8.9.-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41 / 3 / 1-162

김만제 특사(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가 Duran Ballen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1992.8.9.~12. 에콰도르를 방문함.

1. 특사파견 필요성

-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 정부의 축의 및 관계증진 의사 전달
- 신정부 요인과의 접촉을 통해 친한 기반 확대

2. 에콰도르 외무성은 에콰도르 주재 전 외국공관 앞 서한을 통해 경축사절 일행 접수계획을 통보함.

- 특사파견 유무 및 명단 통보 기간: 1992.7.15. 이전
- 사절단 도착일: 8.9. 12시 이전
- 신임장 제정: 8.9.
- 체재비 부담기간: 서열에 따라 추후 결정

3. 과거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특사파견 현황

- 1984년 강경식 대통령 비서실장
- 1988년 김정렬 전 국무총리

4. 한국 정부는 김만제 전 부총리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

- 수행원: 배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5. 김만제 특사의 주요 활동 결과

- 8.9. 전임 보르하 대통령 앞 신임장 제정
- 8.10. 대통령 취임식 참석
- 8.11. 신임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교민대표 및 상사 주재원 초청 만찬

라원찬 특사(주케냐대사) 모리셔스 선포 경축행사 참석, 1992.3.12.-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41 / 4 / 1-86

라원찬 특사(주케냐대사)가 모리셔스공화국 선포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992.3.12.~14. 모리셔스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모리셔스 외무성은 1992.1.30.자 공한을 통해 3.12.부로 공화국 선포 예정임을 알리고 동 기념 행사에 경축사절 파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92.2.14. 모리셔스공화국 선포 경축행사 사절단의 파견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수석대표: 라원찬 주케냐대사

2. 방문 목적

- 모리셔스공화국 선포 기념 경축식 참석
- 모리셔스의 주요인사 접촉 및 정세파악
- 주케냐대사를 모리셔스공화국 겸임대사로 임명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추후 아그레망 부여 등 협조 요청
- 1992년도에 7만 달러 상당의 국산기자재 공여 예정임을 통보하고 원조 품목 협의

3. 주요 일정

- 공화국 선포 기념식 참석
- Ringado 대통령 주최 오찬, Jugnauth 수상 주최 만찬
- Seetram 국회의장(한·모 친선협회 회장) 면담
- Berenger 외무장관 예방, Ruhee 외무부 사무차관 면담

4. Berenger 외무장관 예방 시(1992.3.14.) 언급사항

- 한국 정부의 모리셔스 경제협력 지원에 사의 표명
- 남북한 화해가 평화적인 통일로 발전되기를 기원

92-0606

노신영 특사(전 국무총리) Ramos, Fidel V.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92.6.29.-7.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2-41 / 5 / 1-250

노신영 특사가 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92.6.29.~7.2. 필리핀을 방문함.

1. 특사 훈령

- 대통령 취임식 및 취임 기념행사 참석
- 대통령의 축의 및 친서 전달
- 필리핀 신정부와의 계속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 기반 구축
- 필리핀·북한 수교 문제 관련 협조 요청
- 북한의 핵문제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 지지 확보

2. 주요 일정

- 6.29. 마닐라 도착, 주필리핀대사 주최 만찬
- 6.30. 취임식, 신임 필리핀 대통령 주최 리셉션
- 7.1. 필리핀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 대통령 주최 경축사절단을 위한 칵테일 파티
- 7.2. 필리핀 부통령 내외 예방, 홍콩 향발

3. 라모스 대통령 면담(1992.7.1.) 결과

- 한국 대통령의 축의 및 친서 전달
- 필리핀·북한 수교 연기
  - 라모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 대북한 불수교 입장 표명
-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
  - 라모스 대통령은 투자 및 무역 증진 필요성 언급
  - 노신영 특사는 이에 공감 표시

4. 방문 결과

- 라모스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은 일단 순조로운 것으로 관측
- 취약한 지지 기반(득표율 23.6%)을 극복하고 강력한 지도력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낙후된 경제 재건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

5. 기타

- 이번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본의 가이후 전 수상과 아세안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등이 특사로 참석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Brandt, Willy 전 독일 수상 장례식 참석, 1992.10.1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1 / 6 / 1-121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Willy Brandt 전 독일 수상 장례식 참석차 1992.10.15.~19. 독일을 방문함.

1. 조문 사절단 구성

-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내외
- 신동원 주독일대사

2. 파견 이유

- 정치지도자로서 세계평화 공헌 노력 등 생존 시 위업 추모에 동참(동서화해의 서막을 연 동방정책 추진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 통독 이후 독일 정부의 제반 과제 대처 현황 파악
- 전통적 한·독일 우호 협력관계 및 고인의 방한(1989.10월) 경력 등 한반도 통일문제 관심 표명 고려

3. 참석 결과

- 조문 사절단은 1992.10.17. 11:00부터 의회에서 개최된 Willy Brandt 전 독일 수상의 국장(추도식 및 영결식)에 참석하여 조문록에 서명한 후, 한국 국민과 대통령의 심심한 조의를 전달함.
- 최호중 장관은 별도의 접견실에서 킹켈 독일 외무장관을 면담함.
-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이 조문 사절단을 위하여 주최한 리셉션 석상에서 동 대통령과 콜 수상을 면담하고 한국 대통령의 인사 말씀을 전달함.
  - 동 대통령은 한국이 특사를 파견하여 조의를 표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대통령에게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언급함.

92-0608

북한·호주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1 / 7 / 1-29

1992년 중 북한·호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유엔사 호주 군사요원 철수 요청

- 1992.4.1. Evans 호주 외무부장관, 유엔사에서 호주 군사요원의 철수를 요청해 온 2.4.자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서한에 대해 아래 요지로 회신함.
  - 호주는 최근의 남북한 간 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환영하나 휴전협정 체제의 내용은 평화조약과 같은 항구적인 장치로 대체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
  - 현 상황에서 호주가 유엔사에서 군사요원을 철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북한이 6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전에 포괄적인 핵사찰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

2. 북한·호주 외무장관 면담 추진

- 1992.9.16. 호주 외무부는 Evans 장관이 유엔총회 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호주대사관에 통보함.
  - Evans 장관은 김영남과의 면담에서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필요성 등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

3.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북한 방문(1992.10.20.~26.)

- James Cotton 호주 국립대 외교학부 소속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북한 군축평화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함.
  - 북한에 대한 IAEA의 핵사찰, 남북한 상호사찰 문제에 대한 북한 입장 등 파악

4. 호주·북한 무역 현황(1991년도)

- 개관: 수출 19,706,000달러, 수입 30만 달러, 호주 측 19,406,000달러 무역 흑자
- 주요 수출품목: 육류, 밀, 면, 잡제품(공산품) 등
- 주요 수입품목: 어류, 갑각류 및 연체류, 유기·비유기 이종고리식 합성물(Organo-inorganic & heterocyclic compounds), 보석, 금·은 세공품 등

북한·벨기에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1 / 8 / 1-94

1991~92년 중 북한·벨기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 서명 운동

- 파리 주재 북한대표부는 1991.7.4.자 서한을 통해 Noerens 벨기에 상원의원(벨기에 IPU(국제의원연맹) 단장, 평양 개최 제85차 IPU 총회 참석)에게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불가결한 불가침선언 채택을 위하여' 제하의 공동청원서를 송부하고, 서명 후 이를 북한 공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함.

2. 벨기에의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

- 벨기에는 1992.4.14.자 관보를 통해 벨기에 왕국은 북한, 마셜제도 및 미크로네시아연방이 1991.9.17.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이들을 국가로서 승인한다고 발표함.

3. 북한의 주브뤼셀사무소 개설 추진 동향

- 경위
  - 1992.6.3. 김흥림 북한 외교부 구주국장은 벨기에 방문 시 Duchene 벨기에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을 비준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음으로써 핵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벨기에와의 관계정상화 및 주브뤼셀사무소 개설을 요청함.
- 사무소 개설 요청 서한 전달
  - 8.24. 북한은 주프랑스 벨기에대사관에 주브뤼셀사무소 개설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함.
- 벨기에 측 반응
  - 8.25. Duchene 벨기에 아주국장은 현재 EC(구주공동체)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인 점에 비추어 벨기에 측은 북한 측의 서한에 부정적인 회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92-0610

북한·칠레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41 / 9 / 1-89

1991~92년 중 북한·칠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칠레 외교관계 수립

- 1992.9.25. 칠레 외교부는 Silva Cimma 칠레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회동, 9.25.자로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동일 수교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국 측에 공식 통보해 옴.
- 9.26. 외무부는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대북한 수교를 결정한 칠레 정부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하고, 북한의 여사한 책동에 적극 대응하도록 중남미 주재 공관에 주의를 환기시킴.

2. 북한·칠레 외교관계 수립 이후 칠레 측의 입장 표명

- 1992.9.30. Silva Cimma 칠레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주북한 칠레대사관 및 주칠레 북한대사관 개설 불가 방침을 밝힘.
  - 동일 Lagarini 주한 칠레대사는 외무부 미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칠레 정부는 현재 북한 주재 공관 설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칠레 주재 북한 공관 설치 허용 문제는 아직 확언할 수는 없으나 상호주의에 의해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

북한·콜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41 / 10 / 1-27

1992년 중 북한·콜롬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진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일행(3명) 콜롬비아 방문(1992.4.4.~5.)

-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 및 김일성 생일 축하 세미나 참석
  - 쿠바, 멕시코, 도미니카,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14개국 15명이 참가하고, 콜롬비아 측에서는 메데진 출신 상·하원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함.

2. 리성록 북한 무역부 부부장 일행(4명) 콜롬비아 방문(1992.7.4.~8.)

- 콜롬비아 대외무역부 차관 면담(7.7.)
  - 동 일행은 대외무역부 차관에게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콜롬비아 측은 동건이 대외관계에 해당되므로 외무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함.

3. 콜롬비아의 대북한 태도

- 1992.10.6. 콜롬비아 외무부 한국담당관은 지난 4월 북한의 콜롬비아 상주공관 설치 제의와 관련 당시 국방부, 외무부, 보안청 등 관계기관회의에서 상주공관 설치 반대 결정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국방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경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언급함.
  - 콜롬비아 외무부 양자경제국장 보좌관은 콜롬비아의 대남북한 외교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북한 상주공관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함.

92-0612

북한·캐나다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1 / 11 / 1-133

1992년 중 북한·캐나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12차 캐나다·북한 외교관 접촉(1992.2.20., 베이징)

- 핵문제 관련
  - 캐나다 측: 북한 측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핵사찰 수용 촉구
  - 북한 측: 핵안전협정을 2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할 것임을 언급
- 양자관계(북한 측 요청 사항)
  - 양국 간 외교관 접촉을 기존 참사관급 수준에서 차관급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요청(대사급 수준도 환영함을 추가로 언급)
  - 북태평양지역 안보협력 학술회의(1992.5월, 토론토 개최 예정)에 북한 측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고자 하는바, 초청해 줄 것을 요청
  - 김일성 80회 생일에 캐나다 의원 대표단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

2. 제13차 캐나다·북한 외교관 접촉(1992.4.15., 베이징)

- 캐나다 측
  - 북한 접촉 수준 대사급 격상은 불가하며, 김일성 생일 축하 목적 방북 희망 캐나다 의원은 없음.
  - 북태평양지역 안보학술회의(1992.5월, 오타와)에 북한 관리 초청은 불가하며(단, 북한학자 2명에 대해서는 초청 예정), 유엔사령부로부터 캐나다군 철수는 불가함.
- 북한 측
  - 북한은 약속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미군 핵기지 사찰을 포함하는 전반적 사찰을 기피하고 있어 진전이 없음.

3. 제14차 캐나다·북한 외교관 접촉(1992.7.7., 베이징)

- 북한 측은 제3차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 영화축전(1992.9.8.~13., 평양)에 캐나다 참가 요청

4. 제15차 캐나다·북한 외교관 접촉(1992.10.12.)

- 캐나다 측: 북한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 전달
- 북한 측: IAEA 임시사찰 3회 실시 언급 후 캐나다 측이 한국 및 미국에 주한미군 시설을 개방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요구

북한·중국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1 / 12 / 1-120

1992년 중 북한·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일성 중국 방문(1991.10월) 시 언급 및 협의사항

-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을 권장한 데 대하여 김일성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페이스 대로 서서히 개혁 및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김일성은 SCUD Ⅱ 미사일을 중국이 대리 수출해 줄 것을 요청
- 중국은 북한 측에 1992년 말까지 한국을 비롯한 남아공,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을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김일성은 경제원조와 남한 불승인 요청

2. 양백빙 중국 인민해방군 총지휘부주임 북한 방문(1992.6월)

- 6.5. 김일성은 양백빙 총지휘부주임을 접견 후 오찬을 함께 하였으며, 중국과 북한은 피로 맺어진 전우관계라고 하면서 양국 인민과 군대 간의 계속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함.

3. 중국, 북한과의 무역결제 시 현금결제 요청

- 1992.12.31. 주인도대사관은 당지 언론 보도를 인용, 중국이 향후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현재까지의 바터제 대신 현금결제를 결정, 이를 북한 측에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92-0614

북한·체코슬로바키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41 / 13 / 1-41

1992년 중 북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체코·북한 무역협정 수정

- 1992.5.18. Martak 체코 대외무역부 차관과 한수길 북한 대외무역부 부부장은 1990.10월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의 일부를 수정하는 협정안에 서명
  - 동 협정 서명을 위해 북한에서 한수길 외 2명이 5.14.~20. 체코 방문
- 동 개정 협정 주요 내용
  - 1992.1.1.부터 재화에 대한 모든 거래는 경화결제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국제관례에 따른 다른 형태의 거래(예, 바터무역)을 행할 수 있음.
  - 용역에 관한 거래(무역외 수지)는 쌍방 해당 기관의 합의에 의해 경화로 결제함.
  - 본 협정문은 양국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였으나, 발효되는 경우에는 1992.1.1.부터 소급 효력을 인정
- 평가
  - 1990년 무역협정이 과도기적으로 경화결제와 청산계정 방식을 병용하도록 규정한 데 대하여 상기 수정안은 양국 간 무역을 완전한 형태의 경화결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 과거 공산정권 시절 양국 간 물물교환의 내용을 규정하던 연례 무역의정제도를 폐지하여 교역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무역거래 형태를 채택함.

2. 체코의 대북한 채권 회수(1992.12.9., 주체코대사관)

- 체코는 대북한 채권 2천 6백만 루블의 조기회수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1992.10월 실무자가 평양을 방문해 채무를 달러로 결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달러와 루불의 교환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임.

북한·덴마크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41 / 14 / 1-48

1990~92년 중 북한·덴마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Moeller Hansen 덴마크 노동당 당수 북한 방문(1990.6.14.~21.)

- 김일성 위원장 면담
- 판문점 시찰 및 평북지역 방문

2. 주덴마크 북한대사관, 북한·덴마크 비자면제협정 체결 제의

- 1991.3.20. 주덴마크 북한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체결 제의
  - 덴마크 측은 사증면제협정 체결 문제는 EC(구주공동체) 12개국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임을 들어 부정적으로 대응함.

92-0616

북한·에콰도르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41 / 15 / 1-64

1992년 중 북한·에콰도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권민준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 3명 에콰도르 방문(1992.3.12.~18.)

-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정당들과의 건설 경험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 참석(1992.3.14.~15., 에콰도르)

2. 북한의 수교 책동

- 1992.10.28. Ayala 주유엔 에콰도르대사가 주유엔 북한대사와 면담 후 작성한 보고서 주요 내용
  - 동 북한대사는 지난 9월 유엔에서의 양국 외무장관 면담을 상기시키고 조만간 에콰도르와의 외교관계 수립이 북한의 관심사라고 강조함. 또한 유엔 가입으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장애가 해소되었고, 미수교국과의 관계 수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칠레와 수교하였다고 언급함.
  - Ayala 대사는 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정치적 장애물은 해소되었고 관계 수립 확장 노력을 반갑게 생각하며, 동 면담 결과를 외무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 Ayala 대사는 본국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국제 정치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동 문제는 에콰도르 국내 정치와 에콰도르의 이익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함.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41 / 16 / 1-153

1991~92년 중 북한·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에티오피아 방문(1991.2월)

- 방문 경위
  - 1990.4월 Tesfaye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
- 주요 일정
  - 2.25. Tesfaye 에티오피아 외무장관과 외상회담 개최
  - 2.2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등 수개국 외상 면담

2. 북한 고위군사사절단 에티오피아 방문(1991.3.12.부터 1주일간)

- 방문단(단장)
  - 전병호 노동당 정치국원·당비서·국방위원회 위원
- 방문 목적
  - 포탄 공장 준공식 참석 및 양국 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3. 제6차 에티오피아·북한 경협합동회의(1992.7.14.~19.,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대표단
  - 북한 측: 정송남 대외경제부장 외 8명
  - 에티오피아 측: Abdul Mejid Hussein 대외경협성장관 외 8명
- 회의 결과(의정서 채택)
  - Gilgel Gibe 수력발전사업 재개 등 개발 프로젝트 분야
  - 농림, 공업에너지, 수자원 분야 등 기술협력 분야
  - 기타 재정 관련 문제, Omo강 유역 농업개발 사업 등

4. 참고자료

- 에리트리아 출장 보고(1992.9.29.,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에티오피아 일간지에 게재된 북한관계 기사(1992.9.29., 12.22.,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남북한 방문 결과(1992.12월, 주에티오피아대사관)

92-0618

북한·EC(구주공동체)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1 / 17 / 1-139

1992년 중 북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구주의회 접근 동향

- 1991.11.29. 주프랑스 북한대표부, Visser 의원을 비롯한 구주의회 의원단의 1992년 중 북한 방문 초청
  - Visser 의원 측은 상기 초청서한을 접수하고, 한·구주의회 친선협회 회의 시 초청 문제 제기
- 김용순 북한노동당 국제부장, 1992.1월 중 구주의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방문 희망 제의
  - 구주의회 측은 현 시점에서 북한·EC 교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정적 대응

2.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서명 관련 EC 성명 발표(1992.1.31.)

- EC 및 EC 회원국은 1.30.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IAEA가 사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협정을 조속히 비준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 EC 및 EC 회원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이 남북한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 및 비핵화 선언과 함께 향후 남북한 대화 촉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3. 북한의 대EC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EC 입장

- 1992.4.24. EC 집행위원회 담당관은 북한의 대EC 관계 개선 이전에 아래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IAEA의 북한 핵사찰이 실시되고, 동 핵사찰 결과가 긍정적일 것
  - 남북한 관계의 의미있는 진전
  - 북한의 국제 테러활동 중지
- 동 담당관은 북한이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EC 집행위원회로서는 실무 차원에서 북한 인사와의 접촉은 허용할 것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4. 김흥순 북한 외교부 구주국장 서구 순방(1992.5.25.~6.9.)

- 순방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 EC 집행위원회 및 아일랜드는 접수 거부
- 북한 측 주요 언급 내용
  - 대EC 회원국과의 관계 개선(수교) 희망
  - IAEA 핵사찰 경과 설명
  - 다원주의적 국제질서 강조(유일 강대국 미국 출현 반대)
  - 북한 내 인권 문제 부재 주장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1 / 18 / 1-49

1991~92년 중 북한·프랑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Scheer 외무차관, 프랑스의 대북한 정책 발표(1992.9.5.)

- 프랑스는 북한의 유엔 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는 없음.
-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테두리 내에서의 의무를 준수하더라도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함.

2. 북한 상업외채 상환을 위한 채권은행단 운영위원회 회의(1992.8.5., 파리)

- 참석자
  - 대외무역은행(북한), ANZ(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은행) 등 4개 운영위 구성 채권은행단(서방 측)
- 회의 목적
  -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상업외채 상환 노력 촉구(북한은 1984년 이후 상업외채 상환 중단)

3. 강석주 북한 외교부부장 프랑스 방문(1992.9.24.~27.)

- 주요 면담인사
  - Vivien 외무담당 국무상, Scheer 외무차관
- 방문 목적
  - 북한·프랑스 간 외교관계 격상(수교) 및 경협 재개 방안 협의

92-0620

북한·독일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1 / 19 / 1-118

1992년 중 북한·독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달현 북한 부총리 독일 비공식 방문(1992.2.10.~13.)

- 뮐레만 독일 경제장관 면담(2.10.)
  - 북한 측은 독일의 UNDP(유엔개발계획)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참여 및 북한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 독일의 대북한 경제원조 요청
  - 독일 측은 독일의 대북한 경제원조는 북한의 대독일 채무 청산, 남북대화 진전, 핵사찰 이행 이후 거론할 수 있는 사항임을 언급

2. 독일 OAV(동아시아협회) 북한위원회 회의

- 1992.3.3. 회의
  - 참석 기업인들은 북한의 대독일 채무 미해결 상황을 고려, 대북한 합작투자 등 경협 추진은 곤란하며, 다만 구상무역 등은 추진 입장
  - 평양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 5~6개 기업만이 동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용 부담 의향 표명
- 1992.5.18. 회의
  - 평양 주재 독일 이익대표부 근무 직원의 북한 사정에 대한 설명 청취
  - 1992.9~10월경 OAV 사절단 북한 파견 문제 검토

3. 북한인들의 독일 함부르크지역 방문(1992.3~5월)

- 방문자
  - 주독일 북한 이익대표부 상무관, 북한 봉화종합상사 상무 및 마그네슘원광 수출입상사 상무 등
- 방문 목적
  - 함부르크지역에 대한 경제진출 강화
- 주요 활동
  - 함부르크 경제진흥공사와 경제 진출 협의

4. 참고자료

- 북한의 경제 실상 관련 자료(1992.12.1., 독문 및 영문 번역본)
  - 평양 주재 독일 이익대표부 보고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1 / 21 / 1-61

1992년 중 북한·인도네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 계기 Sudhrmono 인도네시아 부통령 방북(1992.4.13.~16.)

- 주요 일정
  - 연형묵 북한 총리와 회담 및 총리 주최 만찬
  - 김일성 생일행사
  - 김일성 주최 만찬
- 특이사항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친서 전달
  -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비동맹 정상회의에 김일성 참석 요청

2.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인도네시아 방문(1992.7.6.~8.)

- Wiryono 외무성 정무차관 및 Kadarisman 외무성 의전차관보 면담, 비동맹 정상회의장 시찰

3. 연형묵 총리,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 1992.9.5. 인도네시아 출발 전 수하르토 대통령을 약 10분간 면담함.

92-0622

북한·이란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41 / 22 / 1-35

1992년 중 이란·북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Velayati 이란 외무부장관은 북한 초청으로 북한 김일성 생일행사(1992.4.15.)에 참석하기 위해 1992.4.12.~17. 방북함.

2. 주이란 북한대사관은 1992.5.23.부터 1주간 북한영화 상영 등 이란·북한 친선주간행사를 이란 이스파한에서 개최함.

3.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92.4월 Velayati 장관의 방북에 대한 답방으로 1992.7.31.~8.2. 이란을 방문하여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 예방 및 Velayati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협의함.

4. 김달현 북한 부총리가 1992.12.4.~6.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4차 이란·북한 경제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Foroozesh 건설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수산 분야,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협의함.

북한·쿠웨이트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42 / 6 / 1-49

1991~92년 중 북한·쿠웨이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11.17. Al-Khodr 쿠웨이트 아시아·아프리카국장은 주쿠웨이트대사 면담 시 최근 주시리아 북한대사가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으니 북한·쿠웨이트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함.

2. 1992.11.23. 임대택 외무부 아프리카·중동심의관은 Essa 주한 쿠웨이트대사를 초치, 남북한 상호 핵사찰 및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쿠웨이트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자제를 요청한바, Essa 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도록 본국에 건의하겠다고 하고 걸프전 당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3. 1992.12.3. Al-Ayoub 쿠웨이트 의전장은 주쿠웨이트대사 면담 시 주쿠웨이트 북한 통상대표부의 재개를 허용하였다고 하고 한국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 통상대표부 규모를 정규직원 3인, 현지 보조원 3인으로 제한하였다고 설명함.

4. 1992.12.18. Al-Khodr 국장은 주쿠웨이트대사 면담 시 북한의 수교 제의에 대해 쿠웨이트 정부는 수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함.

92-0624

북한·모로코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42 / 7 / 1-20

1992년 중 북한·모로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용섭 주이집트 북한대사는 1992.11.16. 겸임국인 모로코를 방문하여 Cherkaoui 모로코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Cherkaoui 차관은 1992.12.17. 주모로코대사 면담 시 모로코가 1989년 북한과 수교한 것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언급하고 주모로코 북한공관 및 주북한 모로코 공관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북한·모리타니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2-42 / 8 / 1-25

1991~92년 중 북한·모리타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4.25. 김창룡 주알제리 북한대사가 겸임국인 모리타니를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정함.

2. 디디 모리타니 외상은 1991.5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예방하고 모리타니 국가원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북한 외교부장 면담 시 비동맹 회의의 새로운 진로방향에 대해 협의함.

3. 1992.3.18. 주모리타니대사관은 모리타니 정부가 북한 측에 모리타니 농지 구획정리 및 교량건설 사업에 2,362,500달러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함.

92-0626

북한·멕시코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미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2 / 9 / 1-167

1991~92년 중 북한·멕시코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멕시코,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설치 동의

- 1992.3.20. 멕시코 측은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과 송호경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 시 북한의 주멕시코 상주공관 설치에 동의
  - 1980.9.9. 멕시코·북한 수교

2. 한국 측의 조치

- 1992.3.23. 외무부는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설치 불허 요청 지시
  - 3.24. 주멕시코대사, 멕시코 외무차관 접촉 및 한국 입장 전달
  - 3.24. 주미국대사를 통해 동건 관련 미국 측의 측면 지원 요청
  - 3.27. 주한 멕시코대사 초치, 한국 입장 전달

3. 멕시코 외무성,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설치 재검토

- 1992.6.4. 멕시코 외무성은 멕시코 내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북한 요원 5명의 입국사증 기각
- 동일 멕시코 외무성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 측 무장 도발, 북한의 핵위협 제거 필요성,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미진, 남북대화 부진 및 긴장상태 지속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북한 상주공관 설치는 부적절하며, 내년에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4.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설치 연기

- 1992.7.3. Luiselli 주한 멕시코대사는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는 주멕시코 북한 상주공관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였다고 언급함.
  - 동 대사는 멕시코 측의 입장이 북한 측에 전달되었다는 것과 또한 상주공관 개설 연기 이유가 북한 핵문제임을 북한 측에 분명히 하였음을 강조함.

북한·나미비아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42 / 10 / 1-217

1990~92년 중 북한·나미비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나미비아 수교

- 북한·나미비아 간의 '외교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 교환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 발표(1990.3.22., 빈트후크)
  - 서명자: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데오벤 구리라후 나미비아 외상
- 북한·나미비아 관계
  -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나미비아 독립운동단체인 SWAPO(서남아인민기구)의 의장 삼 누조마(현 대통령)의 6회 방북 초청을 통해 쌍방간 긴밀한 관계 유지
  - 나미비아 독립기념일에 김영남 외교부장 파견 및 김일성의 국가 승인 축전 발송(3.19.)

2. 주나미비아 북한대사 아그레망 부여

- 1990.10.1. 주나미비아대사관은 나미비아 외무부가 최근 주나미비아 북한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확인했다고 보고함.
  - 주나미비아 북한대사 내정자: 김병기

3. 나미비아 대통령 북한 방문(1992.9.10.~14.)

- 방문 경위
  -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1992.9.1.~6.) 참석 계기 경제협력 및 교역 증대 모색을 위한 아시아지역 순방 일환
- 주요 일정
  - 9.11. 김일성과 회담, 김일성 주최 환영연회 참석
  - 9.14. 정부간 무역협정 체결

92-0628

북한·네덜란드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2 / 11 / 1-27

1991~92년 중 북한·네덜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년 북한과 네덜란드 간 교역 총액: 약 790만 달러(1990년대 대비 49% 증가)
   - 네덜란드의 대북한 수출: 약 590만 달러, 수입: 약 200만 달러

2. 1991.11.19. 김수익 프랑스 파리 주재 북한 대표는 J. Hoekema 네덜란드 외무부 유엔국장 면담에서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서 주네덜란드 북한대표부 설치를 희망한바, 동 국장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 및 이에 따른 핵사찰 수락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대네덜란드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함.

3. 1992.12.17. 박동춘 프랑스 파리 주재 북한 대표는 J. Hoekema 네덜란드 외무부 유엔국장 면담에서 북한은 유엔회원국이 되었으나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하고 네덜란드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함.

북한·뉴질랜드 관계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2 / 12 / 1-62

1990~92년 중 북한·뉴질랜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외교책동 대응

- 외무부는 1990.5.14. 주뉴질랜드대사관 등 한국 단독수교국 및 남북한 동시수교국 중 북한 상주 공관 미설치국 주재 공관에 북한의 외교선전활동 강화 관련 북한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관계 개선 요청에 응할 수가 없음을 주재국이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망하도록 지시함.

2.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1990.1월, 외무부)

- 목적: 북한의 개방유도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재정립
- 배경
  - 7·7 선언 이후 한국의 외교자세 변화
  - 북한 태도의 불변
- 입장(안): 우방국들이 북한에 대해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도록 함.
  - 무력적화 통일노선 포기, 평화공존 상호교류 협력 확대, 유엔가입 인정

3. 해외 북한 관련 단체 현황

- 1990.4.11.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북한 관련 단체인 NZ-DPRK Society 현황을 보고함.

4. 북한·뉴질랜드 관계 개선

-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91.2.25.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접근 움직임 및 뉴질랜드의 대북한 접촉과 관련한 정책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talking note를 전달함.
- 이와 관련, 외무부는 북한의 기본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재국 정부가 그간 견지해 온 대북한 정책이 유지되게 노력하도록 지시함.

5.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뉴질랜드 방문

- 한봉하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1991.6.6.~12. 뉴질랜드를 방문, John Wood 외무성 북아시아 국장을 면담하고 외무성 간부들과의 원탁회의 일정을 가짐.

92-0630

북한·오만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2-42 / 13 / 1-105

1991~92년 중 북한·오만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10.28.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평양에서 개최된 UNDP(유엔개발계획) 회의에 참석한 주중국 오만대사에게 오만과의 수교 의사를 전달함.

2.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1992.5.23.~25. 오만을 방문하여 오만 법률담당 부수상을 예방하고 카부스 오만 국왕 앞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오만 외무부 정무차관과 면담 시 수교 문제를 협의함.

3. 1992.5.26. 오만 정부는 북한과 대사급 수교를 발표함.

4. 1992.5.27. 주오만대사는 Al Toobi 오만 외무부 아주국장과 면담 시 오만 정부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함.
   - 동 국장은 북한과의 수교 결정은 평화공존, 주권의 상호존중 등 오만의 수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북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2-42 / 14 / 1-60

1992년 중 북한·파키스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일성 생일행사

- Hassain 파키스탄 청년부장관이 김일성 생일행사 축하사절로 1992.4.14.~17. 방북함.

2. 북한 외교부장, 파키스탄 방문

- 김영남 외교부장이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순방 일환으로 1992.8.3.~7. 파키스탄을 방문, 외무장관회담 및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 김영남 일행은 비밀리에 국방장관을 면담, 방산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방산시설을 시찰하였으며, 파키스탄 측은 스커드미사일 기술 도입 건 등 협의를 위해 군사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정보도 있음.

3. 주파키스탄 북한대사 기자회견

- 최수일 주파키스탄 북한대사가 Khabrain지와의 기자회견(1992.10.24.자)에서 한국에 대한 비방, 중상 발언을 하고 북한을 선전함.
  -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비난, 고려연방제 선전
- 주파키스탄대사관 공사는 10.28. Amed 파키스탄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동 북한대사의 대언론 왜곡 모략행위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고, 이는 한·파키스탄 관계를 이간하는 행위로서 주재국 외교부 가이드라인(1988년, 주재국 내에서 타국의 제3국 비방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92-0632

북한·폴란드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42 / 15 / 1-35

1991~92년 중 북한·폴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3.19. 폴란드 정부는 R. Baturo를 주북한 폴란드대사로 임명하였으며, 3.30. 한경식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무관이 부임함.

2. 1992.4.15.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은 야루젤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생일 80회 기념 리셉션을 동 대사관에서 개최함.

3. 1992.5.13. 북한과 폴란드는 양국 간 무역을 경화결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러시아 화폐인 루블로 상호 계정을 청산할 것을 규정하는 의정서를 폴란드에서 체결함.

4. 1992.9.28. 박종득 북한 남포시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주폴란드 북한대사로 부임함.

북한·필리핀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42 / 16 / 1-134

1992년 중 북한·필리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필리핀·북한 수교 문제

- 1992.7.3. 망글라푸스 필리핀 외무장관은 외교단 리셉션 참석 기회에 노정기 주필리핀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최근 북한과 친북 성향의 베네치아 하원의장으로부터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대북 수교를 종결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바, 현재 자신의 계획으로는 7월 중 대북 수교를 종결하고자 함.
  - 이에 대해 노 대사는 금년 7.1. 노신영 특사의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면담 시, 동 대통령은 필리핀이 남북한의 핵문제 해결 전까지 대북 수교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음을 상기시킴.

2. 필리핀 불법체류자 강제출국과 대북 수교

- 필리핀 Chronicle지 1992.12.10.자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장이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미온적임을 이유로 필리핀의 대북수교를 촉진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함.
- 주필리핀대사관 공사는 필리핀 외무부에 동 보도 사실여부를 문의한바, Ong 국장은 일부 의원으로부터 대북수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함.

3. 한국 정부 조치사항

- 1992.12.14.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필리핀대사를 초치, 아래 입장을 설명함.
  - 한국 측은 라모스 대통령이 금년 7월 노신영 특사 및 이상옥 외무부장관 면담 시 밝힌 기본 입장에 따라 필리핀 측이 대북한 수교를 계속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기한 연장 문제는 필리핀의 대북한 수교 문제와는 별도로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감안, 필리핀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계 당국과 최대한 협조 중임.

92-0634

북한·페루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2-42 / 17 / 1-73

1992년 중 북한·페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경제사절단 출국(1992.2.20.)

- 북한 경제사절단 4명(김웅호 단장 외 3명)은 아바나로 향발함.
- 동 사절단은 페루 내 사금광 개발 목적으로 1991.9월 페루에 입국, 마드레디오스 산악지역 사금광 개발 현장을 3회에 걸쳐 답사한 바 있고, 1992년에는 자금난에 처한 벽돌·타일 제조공장과 합영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성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본국의 지시에 따라 조기 철수한 것으로 보임.

2. 주페루 북한대사관, 김일성 행사 축하 리셉션 개최(1992.4.14.)

- 페루 주재 북한대사관저에서 김일성 행사 축하 리셉션을 개최
  - 동 행사에는 호르헤 델쁘라도 상원의원 등 110명 참석

3. 주페루 북한대사, 페루 외무부 차관보 면담(1992.8.28.)

- 김경호 주페루 북한대사는 Solari 페루 외무부 차관보를 면담, 북한·페루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한바 북한대사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북한 체제 옹호
  - 남북대화 및 핵사찰 문제: 남북대화는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남한 측의 비타협적 태도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음. 핵시설 사찰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한국 측이 원할 경우 IAEA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일본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9·9절 행사 리셉션 초청: 9·9절 행사에 외무부 관리가 참석해 주기 바람.
  - 협정 체결 추진: 현안 중인 경제과학기술협정 및 문화협정의 조기 체결 추진 희망
  - 베이징 주재 대사(북한 겸임) 조기 임명 촉구 등

4. 북한·페루 군사협력(1992.10.22., 주페루대사관 보고)

- 북한·페루 간 군사 교류(페루 군 장성 북한 방문, 주페루 북한대사의 국방부 고위층과의 빈번한 접촉, 북한 군 장비 및 부품 도입 정보, 주페루 북한대사관 무관부 설치 등)가 극비리에 추진 중에 있으며, 페루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AK-47 소총 등 저렴한 무기 도입, 소련제 군 장비 T-54 / 5 탱크의 부품 수입 및 수리·관리, 군수공장(Indumill)에서 군복 등 합작 생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러시아 관계.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2 / 18 / 1-135

1. 로가초프 러시아연방 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1992.1.15.~21.)

- 주요 일정
  - 이종옥 부주석,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면담
- 협의 내용
  - 러시아 측은 1961년 체결한 소련·북한 상호원조조약의 군사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및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서명과 동 협정의 이행을 촉구함. 만약 협정 불이행 시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이 불가능함을 강조
  - 북한 측은 조약 개정에는 이해를 표시하나, 핵문제에 관해서는 조건 충족 시에 IAEA와 핵안전협정을 서명하고 이어 핵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

2. 삼소노프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 통합군 참모총장 북한 방문(1992.3.2.~3.)

- 결과
  - 'CIS 통합군과 북한 인민군 간의 군사협력 증진 계획서'에 서명
  - 김일성, 삼소노프 참모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CIS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희망

92-0636

북한·러시아 관계.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2 / 19 / 1-97

1.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 관련 러시아 외무부 성명 발표

● 경위
- 1992.7.18.자 동아일보는 한국 국방부차관이 주한 러시아대사관 무관(4.3.) 및 CIS(독립국가연합) 군 참모차장(6.4.) 면담 시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의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음을 보도함.
- 동 보도로 인하여 러시아 측이 성명을 발표하게 됨.

● 성명 요지
- 7.28.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한국 국방부의 러시아·북한 상호원조조약폐기 요구 발언 관련,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러시아는 동 조약을 유지하고자 하며, 대외정책 시행에 있어 외국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조치사항
- 7.29. 이원영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안톤 바실리예프 러시아 외무성 아·태 제1부국장을 면담, 아래와 같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 동 조약의 폐기 또는 개정은 러시아 측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며, 동 조약의 폐기 또는 개정이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님.

2. 한·러시아 정상회담 관련 평양방송 보도(1992.11.22.)

●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억제, 개방 유도,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분야 협조 중지 등을 간청한 것은 남의 힘을 빌어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속셈임.
- 민족 주체의 역량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서와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도 배치
- 정권 교체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민자당 재집권을 위한 행위

북한·루마니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42 / 20 / 1-26

1991~92년 중 북한·루마니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1년 북한·루마니아 간 교역은 약 15백만 달러임.
   - 대북한 수출: 4,867,000달러, 대북한 수입: 10,321,000달러

2. 1991.12.27. 북한·루마니아는 양국 간 관세, 통관절차, 운송에 있어 최혜국 지위의 상호부여, 달러 사용을 통한 청산거래 등을 규정한 1991~92년간 무역 및 결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3. 1992.4.14. 주루마니아 북한대사관은 루마니아 언론인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생일 80회 기념 리셉션을 동 대사관에서 개최함.

92-0638

북한·세네갈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2-42 / 22 / 1-39

1992년 중 북한·세네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정일 생일 축하 리셉션

- 주세네갈 북한대사관은 1992.2.14. 김정일 생일 축하 리셉션을 대사관에서 개최
  - 리셉션에는 세네갈 Wade 국무장관, Diouf 수산부장관, Tall 문맹퇴치부장관, 외무부 Diallo 관방장 등 세네갈인들만 30명 참석
  - 세네갈 주재 외교단은 전부 불참

2. 북한 관계 보도, 광고

- '김일성, 통일에 있어 독립적 입장을 취하라고 남한에 권고하다' 제하 김일성 신년사 중 통일, 핵 관련 부분을 1992.1.14. Le Soleil지에 광고로 게재
- 월간 정치 전문 잡지 Le Nouvel Afrique Asie는 2월호에서 '북한 김정일' 제하 김정일이 북한군 사령관을 계승했다고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
- 주세네갈 북한대사관, 김일성 80세 생일 계기 4.9. Le Soleil지에 김일성 홍보기사 게재

3. 주세네갈 북한대사 이임

- 신병철 주세네갈 북한대사는 4년 8개월의 세네갈 근무를 마치고 1992.11.5. 이임
  - 동 대사는 이임 전 Djibo Ka 외무부장관 및 외교단장 주최 리셉션에 각각 참석

북한·우간다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42 / 23 / 1-109

1991~92년 중 북한·우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북한 방문(1992.4.13.~16.)

- 주요 일정
  - 김일성과 두 차례 회담 개최, 군사협력협정 서명
  - 김일성 80회 생일 경축연회 및 경축축전 참석, 5만 호 국민주택단지 시찰
- 군사협력협정 내용
  - 우간다에서 생산 중인 무기의 부품 생산 합의, 주우간다 북한 군사고문 5명 증원(1992.10월), 주우간다 북한 군사고문 40명 증원(1993년), NRA(국제저항군) 요원 102명에 대해 방북 훈련 실시, 우간다에 군사차관 365만 달러 제공(1993년) 등

2. 최수헌 북한 외교부 부부장 우간다 방문(1992.7.10.~14.)

- Ssemogerere 외무부장관 및 Agar Didi 외무부부장관 등을 방문, 금년 9월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 및 유엔 가입에 대한 우간다의 지지 교섭

92-0640

미국·북한 고위급 접촉. New York, 1992.1.22. 전2권 (V.1 1991.10월-92.1.1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2 / 24 / 1-153

1991.12월 외무부가 작성한 미·북한 고위 접촉 계획의 관계국 통보 및 국내 조치 관련 내용임.

1. 미국 측의 구상 배경 및 접촉 계획

-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뉴욕에서 북한과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 접촉을 추진 중임.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인 1991.12월 뉴욕에서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접촉 예정임.
- 동 접촉 시 미국 측은 아래 내용을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임.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체결하여, 모든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국제 사찰하에 두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 문제는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한 국제 감시하에 두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뢰 구축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북한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함.

2. 한국 측 대처방향

- 동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 측 인사 비중에 비추어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비공개 접촉이 가능하더라도 북한 측이 접촉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북한 고위인사 접촉이 결국은 공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 접촉으로 인한 국내외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북한 고위 접촉 계획에 관해 관계국에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국회 및 언론에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92-0641

미국·북한 고위급 접촉. New York, 1992.1.22. 전2권 (V.2 1992.1.16.-3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3 / 1 / 1-112

1. 1992.1.20. 외무부는 미·북한 고위 접촉 관련 주요 내용을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함.

● 접촉 개요
- Kant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22. 뉴욕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접촉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통보할 예정임.
- 금번 접촉은 미국의 입장을 통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북한 직접협상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이 북한에 전달할 핵심요지
- 금번 접촉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 지도층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미·북한 간 어떠한 접촉도 남북한 간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남북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북한 관계 진전은 불가함.
- 북한의 모든 핵시설 및 활동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완료되고 남북한 간 상호사찰 체제가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미국은 미·북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북한 핵문제 진전 지속, 남북대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관계 발전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

2. 1992.1.22.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접촉함.

● 미국 측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북한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함.
-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타 미국 측 관심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도 표명함.

● 향후 전망
- 금번 미·북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1회적인 것이며, 추가적인 접촉 계획은 없음.
- 북한이 핵문제 관련 IAEA 의무사항과 남북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미·북한 접촉 수준 격상 등 단계적 관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92-0642

미국·북한 외교관(참사관급) 접촉, 제19-29차. 북경. 전2권 (V.1 제19-24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3 / 2 / 1-200

● 북한의 미·북한 관계개선 요구 공식서한 관련 보도(1992.4.8., 연합)

- 미국은 1992.4.6. 북한과 정무참사관 접촉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을 요구한 3.17.자 북한 측 공식 서한에 대한 답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측은 답신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미·북한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핵사찰이 6월까지 실시되고 남북 상호사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임.

92-0643

미국·북한 외교관(참사관급) 접촉, 제19-29차. 북경. 전2권 (V.2 제25-29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3 / 3 / 1-118

- 1992.9.17. 미국무부 정례브리핑 시 미·북한 베이징 접촉 관련 질의·응답
  - 북한이 미·북한 관계 개선을 제의하는 서한을 전달해왔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특정 서한이나 답신에 대해 거론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북한은 그간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해 왔는바, 베이징 접촉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변
  - 또한 미·북한 관계 개선에 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핵문제 해결, 유해송환의 정례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미사일 및 미사일 제조기술의 수출 중단, 인권존중 등임을 강조

92-0644

북한·미국 관계.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4 / 1-148

1992.1~6월 중 북한·미국 관계에 대한 내용임.

1. 김일성 북한 주석의 미국 워싱턴타임즈와 기자회견 내용(1992.4.14.)

- 미·북한 간 조속한 관계 수립 희망
  - 조속한 대사관 개설 희망
  - 부시 미 대통령에게 미·북한 관계 해빙 희망 전달
  - 미군 유해 송환 계속 추진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조기 수정 필요
- 주한미군에 대해 유화적 입장 표명
- 핵문제 종결 주장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의 비준 등 필요한 법적 조치 종결
  - 핵개발 의도 및 핵무기 운반수단 부재 재차 강조
- 민족 대단결에 의한 통일 재차 강조
  - 남북합의서 채택은 통일투쟁에 있어서 큰 성과
  - 한반도 통일의 주역은 한민족이며 외세 개입 배제
- 김정일의 권력 승계, 국정 운영 확인
- 진정한 대외 개방, 경제개혁의 필요성 부정
- 김일성식 사회주의 노선 견지 강조

2. 1992.4.15. 미국 측은 미·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아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핵문제, 남북한 관계 개선, 테러 포기, 유해 송환 외에 탄도미사일 및 동 기술 수출 금지, 북한 내 인권 개선 등

북한·미국 관계.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5 / 1-150

1992.7~12월 중 북한·미국 관계에 대한 내용임.

1.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초청 오찬 간담회(1992.9.28., 뉴욕 아시아협회)

- 참가자
  - 북한 측: 김계환 본부대사, 김형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허종 주유엔 차석대사 등 6명
  - 미국 측: 퀴노네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및 민간 전문가 약 20명
- 간담회 내용
  - 김영남 연설 요지
    - 북한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은 탈냉전 시대의 자연스러운 방향이며, 미·북한 관계 개선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통해 북한 핵 의혹이 해소되고 있는 반면, 상호 사찰의 미실시로 남한 내 미군기지에 대한 핵 의혹은 상존함.
    - 남측은 핵문제에 실권이 없으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북한 핵문제
    -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간 실무자협의 개최를 강력히 희망
    - IAEA 사찰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선례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 반응
  -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 이인모 송환과 연계하여 남측이 어부 송환 등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산가족 교환 방문 조속 실시 가능

2.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면담을 통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미국 방문 동향 파악(1992.9.30.)

- 김영남 일행이 아시아협회 등 학술단체와 언론기관을 통해 북한 핵문제 관련 북한 측 입장에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코자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상·하원의원 등 일부 정계인사와의 접촉을 시도한바 있으나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일은 없음.

92-0646

미국·북한 경제교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6 / 1-169

1992년 중 미국·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내용임.

1. 미국의 대북한 소맥 수출

- 경위
  - 1990.12.10. Hastings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미국상사로부터 12억 달러 상당의 대북한 곡물 및 식품 수출허가 요청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
  - 1992.3.26. Hastings 미 국무부 담당관은 L.A. 교포간담회 시 미 행정부가 미국업체에 대해 12억 달러 한도 내의 대북한 소맥 수출허가 사실 공개
  - 1992.4.10.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 상무부가 2년 동안 12억 달러 한도 내 대북한 소맥 수출허가 사실 확인
- 대북한 소맥 수출실적
  - 1991년 하반기 뉴저지주 소재 미국상사는 약 15만 톤의 소맥을 북한에 수출
  - 1992.4월 말~5월 초 김예식 북한 대성상사 총사장 등 간부 2명이 상기 미국상사 초청으로 미국 방문 예정
- 대북한 소맥 추가 수출 전망
  - 미 국무부는 1992.9월 동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대북한 추가 소맥 수출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 미 국무부는 대북한 추가 소맥 수출 관련 동향에 대해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약속

2. 미국·북한 교역 현황에 관한 주미국대사관 보고 내용

- 최근 국내 언론의 미·북한 교역에 관한 과장 보도와 관련, 1992.4.20. 미 국무부에 미국의 대북한 교역 규모 및 내역을 재확인한바, 1989~91년간 미국의 대북한 직교역 규모는 수입 53만 달러(콜타르 등), 수출 15만 달러(플라스틱 등)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일부 언론이 전략물자 수출이라고 보도한 것은 평양 주재 UNDP(유엔개발계획)사무소가 수입한 사무용 컴퓨터와 독일산 심전도기에 포함된 일부 미국제 부품을 전략물자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됨.
- 제3국을 통한 교역 내역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최종 선적지가 북한이므로 별도 수출허가가 되지 않는 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북한 학술·문화 교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북미1과
MF번호 2022-43 / 7 / 1-124

1992년 중 미국·북한의 학술 및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임.

1. 미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북한 평화군축연구소 간 심포지엄(1992.3.16.~18., 워싱턴)

- 주제 및 목적
  -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정책, 지역 문제, 미·북한 관계 등
  - 북한 학자들과의 교류가 미 각계각층의 대북한 인식과 미국의 우려를 북한 지도층에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2. 북한인사의 미·일 협회 연례 심포지엄 참석(1992.4.3.~8., 시카고)

- 참석자
  - 최석현 북한 평화군축연구소 선임연구원 외 1명
- 참석 경위
  - 한반도 군축문제 회의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스탠포드 국제안보 및 군축연구소 소장 John Lewis의 초청

3. 북한 도서·사진전 개최(1992.1.27.~31., USC 중앙도서관)

- 북한 측 참석자
  - 한종섭 도서 사진전시 총국장, 노명옥 도서 사진전시 총부국장, 김용수 해외 거주 한인 안전위 참사
- 전시회 내용
  - 북한의 문학·학술·문화·예술 등 각 분야 관계서적 300여 권과 풍물을 담은 사진 190여 점 전시

92-0648

북한·동남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8 / 1-92

1992년 중 북한·동남아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말레이시아, 제3회 영화축제 참가(1992.9.6.~13., 평양)

- 참가 회사
  - National Film Corporation
- 참가자
  - Datuk Zain Hamzah National Film Corporation 전무(단장), Tan Sri Kamarul Ariffin Film Producers Association 회장, Adman Salleh 영화감독, Yusof Aslam 영화감독 겸 주연배우
- 참가 내용
  - 출품 경쟁영화: Night Star
  - 다큐멘터리 2편: Tree of Life, Kuching Port
- 전시용 영화 3편
  - The Death of Patriot
  - Shadow of Death
  - No Harvest, But a Thorn

2. 리도섭 주태국 북한대사, 수교 교섭차 브루나이 방문(1992.1.7.~8.)

- 주요 일정 및 활동
  - Lim Jock Seng 외무차관 및 Maidin 정무국장 면담
  - 향후 1개월 내 외교 관계 수립 제의
- 브루나이 측 입장
  - 수교 문제는 국내 절차상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측 제의에 확답 회피
- 한국 측 조치
  - 1991.12.24. 외무부차관이 주한 브루나이대사를 초치,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서명 및 핵사찰 수락 시까지 대북 수교 연기 요청
- 참고사항
  - 브루나이는 냉전체제 와해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91.10월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사회주의권과 관계정상화를 도모 중임.

북한·서남아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9 / 1-151

1992년 중 북한·서남아시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반도 비핵화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회의(1992.10.16.~17., 네팔 카트만두)

- 회의 소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제연락위원회(국제적 친북전위단체)
- 참석 대상
  - 일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주지역의 좌익정당 및 친북단체
  - 북한 측: 송호경 당 국제부 부부장(단장) 및 대표단 8명
- 참고사항
  - 북한이 체재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초청
  - 북한은 1991.8월 네팔 공산당을 사주하여 카트만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주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남한 내 핵무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소문을 채택한 바 있음.

2. 북한 경제사절단 방글라데시 방문(1992.3.22.~25.)

- 사절단
  -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이경화 외교부 부국장, 김철진 대외경제사업부 과장, 심민석 대외경제사업부 과장
- 주요 일정 및 활동
  - 수상 및 대통령 예방
  - 경제장관회의 개최: 경제공동위원회 설립협정 서명
  - 재무·농업·상무·공업·통신장관 등 면담
  - 재무장관 주최 만찬

3. 인도 내 친북단체 집회(1992.10.30.)

- 집회 내용
  - 인도·북한 친선협회 주관으로 '조선 통일 지지 1992년도 국제연대 운동' 및 '고려연방제 수립 지지 월간 연대 운동' 종료 기념 자축 집회 개최
- 집회 성격
  - 인도·북한 친선협회가 북한 공관 지원하에 개최해 온 정례적 성격의 모임

92-0650

북한·중동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동1과 / 중동2과
MF번호	2022-43 / 10 / 1-82

1992년 중 북한·중동 국가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UAE(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를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UAE 수교 등 GCC(걸프협력회의) 내 기반 구축 추진
- 북한·UAE 간 군사협력
  - 북한 스커드 미사일, 자주포, 훈련용 미사일, 방사포 등 대UAE 무기수출

2. 이집트

-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 이집트 방문(1992.1.19.~26.)
  - 이집트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부총리 겸 집권당 사무총장 등 예방
- 이종옥 북한 부주석 이집트 방문(1992.3.12.~15.)
  - 무바라크 대통령을 예방하여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 공업지역 및 수에즈지역 시찰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10.12.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이집트 내 지진 발생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10.13. 카이로로 귀환

3. 요르단

- 이종옥 북한 부주석, 요르단 부총리 겸 교통부장관 및 공보부장관 면담(1992.3.15.)
  - 중동지역 정세 및 문화교류협정 서명 등을 협의
  - 김일성 생일 행사에 요르단 인사 방문 요청

4. 수단

- 1992.3.16. 주수단 북한대사, El Beshir 수단 대통령을 예방
  - 수단·북한 간 협력 증진 방안 협의

5. 튀니지

- 1992.4월 Noureddine Mejdoub 튀니지 외무부차관 북한 방문
  - 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 후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면담, 인도네시아 개최 비동맹 외무부장관회의 및 남북한 회담에 관해 의견 교환
  -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는 튀니지·북한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



● 제1차 북한·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1992.11.9.~15., 튀니스)
- Salah El Hamdi 경제부차관과 한태열 북한 수석대표(대외경제부 부부장)가 제1차 공동위원회 합의서에 서명
- 양잠사업 합작투자에 관해 합의하고, 시범사업으로 북한 측이 2명의 양잠 전문가를 1993년 초 파견하기로 결정

6. 예멘

● 1992.1.15. Hussain Taher Ben Yahiya 주북한 예멘대사의 김일성에 대한 신임장 제정 및 이종옥 부주석,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예방

92-0651

북한·중미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11 / 1-106

1992년 중 북한·중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니카라과

- 주니카라과 북한대사관 문제
  - 1981년 북한은 4만 달러 상당의 대사관 건물을 당시 소유주 Sanchez Morales로부터 2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구입했으나, 여러 가지 핑계로 지불을 미뤄 옴.
  - 1991년 남편의 사망으로 미망인 Sanchez 여사는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패하고 유엔 국제인권위원회, 비엔나협약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북한 측은 외교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냄.
  - 주니카라과 북한대사관 측은 외교적 특권을 이용하여 이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으며, 양측에 의해 합의된 협정에 의해 자신들이 지불할 것은 없다고 밝힘.

2. 도미니카공화국 국회의원단 북한 방문 계획

- Norge Botello 도미니카공화국 하원의장(PLD 소속)과 4~5명의 주요 정당대표(주로 대변인)들로 구성된 의원 일행이 북한 초청으로 1992.4.15.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예정임.

3. 벨리즈

- 북한·벨리즈 수교(1992.6.20.)
  - 6.27. 북한 중앙방송은 벨리즈와 수교하였음을 보도함.

4. 엘살바도르

- 1992.2.5. 주페루 북한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주페루 엘살바도르대사관을 방문, 남북한 관계 진전 상황을 설명한 후 엘살바도르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함.
  - 동 제의에 대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가 없는바, 북한과 접촉을 하지 말도록 페루 및 유엔 주재 자국 대사관에 지시함.

5. 자메이카

- 차봉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 자메이카 방문(1992.8.20.~26.)
  - 8.24. Clare 외무부 국무장관 면담, 문화협정 서명



6. 코스타리카

- 북한 외교부 중남미담당관이 모스크바를 방문, 1992.1.14. 주모스크바 코스타리카대사관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 교섭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코스타리카 외무부는 이를 거절함.

92-0652

북한·남미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남미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12 / 1-113

1992년 중 북한·남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차봉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 베네수엘라 방문(1992.8.11.~15.)

- 주요 인사 면담
  - David Lopez 외무차관, Jose Rodriguez Iturbe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Frank de Armas 상공부장관, Miguel Rodriguez Mendoza 대외무역청장

2. 볼리비아 공산당 대표단 김정일 생일행사 참석(1992.2.14.)

- 참석자
  - Jorge Ibanez 볼리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 주요 일정 및 활동
  - 김영선 노동당 중앙위원의 영접, 생일 축하서한 및 선물 전달
  -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셉션 참석

3. 북한 무역대표단 브라질 방문(1992.6.27.~7.2.)

- 방문단
  - 이성록 북한 무역부 부부장, 김일건 라틴 아메리카 담당 부국장, 이영석 무역촉진위원, 김제길 상사 대표 등
- 방문 목적
  - 리우데자네이루 소재 CVRD 철강회사와 철광석 문제 협의
  - 상파울루 소재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및 주공업연맹 등 방문

북한·신유고연방 관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43 / 13 / 1-19

1991~92년 중 북한·신유고연방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고 민속무용단,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계획

- Avracevic 민속무용단장이 이끄는 유고 민속무용단 일행 46명이 평양 개최 4월의 봄 예술축전 참가차 1992.4.2.~21. 방북 예정
  - 동 무용단은 4.15. 김일성 생일축하 리셉션에도 참가 예정

2. 유고의 1991년도 대북한 무역 현황

- 대북한 수출
  - 금액: 760만 달러
  - 주요 품목: 기계류, 화학제품
- 대북한 수입
  - 금액: 350만 달러
  - 주요 품목: 직물류, 피혁, 광물

92-0654

북한 인사교류 현황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14 / 1-43

1992년 중 외국인사의 북한 방문 및 북한 주요인사의 해외 방문 등 인사교류 현황임.

1. 주요 외국인사의 북한 방문

-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1992.1.17.~21.): 강석주(1.18.)·이종옥 부주석(1.20.) 면담
- 와지다 롱콘 태국 왕세자(3.9.~14.): 김일성 면담(3.10.)
- 폼비한 라오스 대통령(4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가 주석(4.12.~17.), 양상곤 중국 주석(4.13.~17.), 벨리야티 이란 외상(4.14.~16.): 김일성 80회 생일행사 참석
- 한스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5.11.~16.)
- 상누조마 나미비아 대통령(9.10.~14.): 김일성 면담(9.11.), 무역협정 체결(9.14.)
- 스칼라피노 미국 아시아협회 교수(10.3.~10.): 김영남 면담(10.9.)
- 코나레 말리 대통령(12.19.~21.): 김일성 면담(12.19.)

2. 북한 주요인사의 해외 방문

- 김용순 당비서 미국 방문(1992.1.20.~24.): 미·북한 고위급회담 참석(1.22.)
- 이형철 평화군축연구소부소장 네팔 방문(1월): 아·태지역 군축회의 참가(1.27.~29.)
- 김달현 대외경제위원장 이집트 방문(3.17.~20.): 장기무역협정 조인(3.19.)
- 황장엽 사회과학자협회위원장 일본 방문(4.2.~9.): 제9차 주체사상 국제세미나 참가, 다나베 사회당 위원장 면담
- 김영남 외교부장 인도네시아 방문(5.9.~19.): 비동맹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참석
- 김유순 체육위원회 위원장 스페인 방문(7월): 제99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참가

북한 기독교도연맹 대표단 미국 방문, 1992.6.27.-7.1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북미1과
MF번호 2022-43 / 15 / 1-116

북한 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이 1992.6.27.~7.17.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미주 한인교회 평화통일협의회 창립 총회 참가
- 북미주 기독학자회의 제26차 대회(1992.7.9.~11., 뉴욕 호프스트라 대학) 참가
- 교포들과의 광범위한 접촉

2. 방문단

- 강영섭 목사(조선 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승덕 박사(사회과학연구원 교수), 김근영(평양 신학원 학생), 김혜숙(조선 기독교도연맹 통역관), 이명수(해외동포원호위원회 국장)

3. 주요 일정

- 6.28.~30. 뉴욕 방문, 평화통일협의회 창립총회 및 통일부흥회 참석
- 7.1~6. 시카고 방문
- 7.7.~8. 보스턴지역 교회 및 학계 방문
- 7.9.~11. 북미 기독학자회의 1992년도 연례대회 참석
- 7.12.~14. 댈러스 방문
- 7.14.~16. L.A. 방문

92-0656

김흥림 북한 외교부 구주국장 구주 순방, 1992.5.25.-6.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43 / 16 / 1-72

1. 순방 국가 및 일정

- 그리스(1992.5.25.~27.), 스페인(5.28.~30.), 포르투갈(5.31.~6.2.), 벨기에(6.3.), 네덜란드(6.4.), 룩셈부르크(6.5.), 영국(6.7.~9.)
  -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및 아일랜드는 방문 접수 거부

2. 북한 측 공통 언급사항

- 관계 개선(수교) 희망
- 남북한 관계 설명
  - 특히,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
- 다원주의적 국제질서 강조
  -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미국 출현에 반대, EC 통합 및 강화 지지
- 북한인권 문제 부재

3. 기타 특이사항

- 기수교국인 포르투갈에 대해 북한의 대서구 수교를 측면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 포르투갈 아주국장과의 면담 시, 미군 철수 및 팀스피리트 훈련 완전 중지 후 남북한 상호핵사찰에 응할 수 있다고 언급
- 벨기에 아주국장과의 면담 시, 브뤼셀 내 북한사무소 개설을 요청하고 서구 국가 중 일부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동의하였다고 언급

4. 서구 국가의 반응

- 대북한 관계 개선 문제는 상호사찰을 포함한 핵문제 등 해결 후에 EC 공동 입장을 따를 예정
- 인권, 무기 수출, 테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촉구

북한 인사 중남미 순방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2-43 / 17 / 1-22

1992.8월 중 차봉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이 중남미를 순방함.

1. 베네수엘라 방문(1992.8.11.~15.)

- 주요 일정
  - 8.12. David Lopez 외무차관 면담
  - 8.13. William Laralde 외무성 경제국장 면담
- 면담 내용(외무차관 및 외무성 경제국장 면담내용 동일)
  - 9월 인도네시아 개최 비동맹회담에서의 협조 요청
  - 베네수엘라·북한 간 정치·경제공동위원회 설치 검토, 양국 간 통상 증대 희망 등

2. 가이아나 방문(1992.8.15.~19.)

- 주요 일정
  - 8.17. Cedric Grant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David Hales 외무차관 면담
  - 8.18. Hamilton Green 수상 면담
- Green 수상 면담 내용
  - 남북한 관계 개선, 비무장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 측 노력 설명
  - 인도네시아 개최 9월 비동맹 정상회의 시 한국 입장 반대 요청 및 양국관계 결속을 위한 가이아나 정부사절단의 북한 방문 요청

3. 자메이카 방문(1992.8.20.~26.)

- 주요 일정
  - 8.20. Cooke 총독 예방
  - 8.24. Clare 외무부 국무장관 면담, 문화협정 서명
  - 8.25. Whiteman 교육문화부장관 예방, Jones 상원의장 예방
- Clare 장관 면담 내용
  -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북한의 통일정책 등 설명 및 비동맹을 통한 양측 간 협력 강조
  - 문화협정(양측 간 문화·예술·체육 교류 증진 내용) 체결에 사의 표명
  - 양측 간 제반 교류 확대 강조 및 향후 여타 협정 체결 희망

92-0658

Solarz, Stephen 미국 하원의원 북한 방문, 1991.12.17.-19.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43 / 18 / 1-142

Solarz 미국 하원의원은 1991.12.17.~19. 북한을 방문함.

1. 면담 인사

- 김일성 주석, 김영남 외교부장, 송호경 외교부 부부장

2. 주요 언급사항

-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남한 내에 핵무기 철수를 확인하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정을 서명하겠다고 함.
- 한국이 제의한 동시시범사찰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남한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북한 측의 사찰을 주장함.
-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한 협상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미·북한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Graham, Billy 미국 목사 북한 방문, 1992.3.31.-4.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19 / 1-63

Billy Graham 미국 목사가 1992.3.31.~4.4. 북한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H. Holley 빌리그레함전도협회 인사가 1991.10월 및 1992.2월 평양을 방문, 북한과 접촉 후 Graham 목사의 북한 방문 성사

2. 방문 목적

- 평화와 복음 전파 등 순수한 종교적 활동

3. 주요 일정

- 김일성 주최 오찬, 평양 봉수교회 설교, 김일성대학 강연

4. 방문 결과

- Graham 목사는 1992.4.6. 홍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의 오찬 초청에 정중한 대접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이 개방하기 시작한 조짐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개방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92-0660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20 / 1-343

1992.4.15. 북한 김일성 주석 80회 생일 관련 주요 동향임.

1. 북한은 1992.4.15.~16. 기간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5만 세대 주택 건설 등 김일성 치적 선전을 강화함.

- 3.25.부터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 연구토론회 개최
- 3.18.~4.30. 전국기술혁신 전시회 개최

2. 해외 경축 사절단의 북한 방문(1992.4월)

- 국가 원수: 양상곤 중국 주석,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 각료: 튀니지 외무차관, 잠비아 토지부장관 등
- 의회 및 정당 관계: 도미니카 하원의장단, 볼리비아 상원의장단. 노르웨이 공산당 당수, 일본 자민당 및 사회당 대표단
- 기타 사절: 유고,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3. 해외 행사(1992.3~4월)

- 해외 주재 북한 공관들의 리셉션 개최
- 해외 친북단체 주관 도서·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개최

4. 평가

- 북한은 김일성 경축행사의 대대적인 개최를 통해 김일성 및 김정일 부자의 위대성을 선전하여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함.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 생일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3 / 21 / 1-72

1992.2.16. 김정일 북한 최고사령관 50회 생일 관련 주요 동향임.

1. 대내 행사(1992.2월)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중앙 인민위원회, 정무원은 공동명의로 김정일에 대한 공동생일 축하문을 전달하고 충성을 다짐함.
- 김일성, 김정일, 주요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일 경축연회가 개최됨.
  - 이란, 쿠바,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이 축하사절로 참석
- 충성편지 이어달리기, 김정일 선집 출판 등 행사가 개최됨.

2. 해외 행사(1992.2월)

- 수단, 모잠비크, 이집트, 캄보디아 국가원수가 축전을 송부함.
- 해외 주재 북한 공관들은 리셉션을 개최하였으며, 해외 친북단체들은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함.

3. 평가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김정일에게 공동축하문을 보낸 것은 김정일에 대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함.

92-0662

북한 공관장회의 관련 각국 북한대사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2 / 1-46

1992년 중 북한의 공관장회의 개최 동향임.

1. 1992.6.24. 외무부는 페루, 자메이카 및 나이지리아 주재 북한대사들이 북한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인도, 가나, 폴란드 등 관련 해외 공관에 북한대사의 동향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함.

2. 1992.6~7월 주알제리·파키스탄·요르단·인도네시아·네팔·몽골·스웨덴·인도대사관 등은 북한 대사들이 일시 귀국했다고 보고함.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개선 시도 및 관련 대책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3 / 1-129

1992년 중 북한의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 개선 시도에 관한 정부의 대책임.

1. 북한은 남북한 유엔 가입(1991.9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2.2월), 한·중국 수교(1992.8월)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를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함.

-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1992.9.1.~6.) 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브루나이, 쿠웨이트, 뉴질랜드, 칠레, 스페인 외무장관을 포함한 27개국 대표를 접촉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함.
-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기간(1992.9.22.~10.3.)에 김영남 외교부장은 칠레, 우루과이 등 17개국 외무장관을 접촉하여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함.

2. 이에 대해 정부는 1992.10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에 연계시킨다는 입장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대처하도록 지시함.

- 북한 핵문제 해결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사찰규정이 채택되고 남북 상호 사찰이 실시되어 북한의 핵 의혹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대북경협 포함)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임.
-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구성된 남북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4개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합의, 실천되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이산가족 간 서신 교환 및 정기적 왕래가 실현되어야 의미 있는 진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92-0664

북한의 대아프리카지역 외교망 정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4 / 1-136

1991~92년 중 북한의 대아프리카지역 공관 폐쇄 현황임.

1. 1991년 북한은 경제사정 악화로 시에라리온, 가봉, 니제르, 기니비사우, 중앙아프리카 주재 5개 공관을 폐쇄함.

2. 1992년 북한은 르완다, 부룬디, 토고, 코트디부아르 주재 공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 1992.11.15. 주코트디부아르 북한대사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북한대사관을 폐쇄하고, 주가나 북한대사관이 겸임할 것이라고 통보함.

3.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공관 유지 경비 절감을 위해 전통적으로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아프리카지역 공관(1991.2월 상주공관 30개) 일부를 폐쇄하고 외교망을 재정비한 것으로 분석함.

북한 인권문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44 / 5 / 1-199

1992년 중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냉전 종식 후 미국 중심의 서방그룹이 제46차 유엔총회(1991.9~12월)에서 토의를 주도하여 이라크 및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등 인권 분야 활동을 강화함.

● 미국은 1990.2월 제4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최 이래 매년 동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기본적 인권 부재 상황을 비판해 옴.

2. 1992.3월 정부는 인권 논의가 동구의 개방 및 민주화에 기여하였음을 감안, 남북한 합의서를 토대로 남북 대화의 진전과 함께 대외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3국 및 민간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는 입장을 마련함.

● 한국은 1991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토의 시 유엔 회원국으로서 최초로 인권 문제 표결에 참가함.

3. 1992.8.7. 정부는 1992년 유엔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방국이 쿠바, 이라크, 이란, 중국, 미얀마 등 세계 주요 인권 위반 국가를 일괄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만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요 우방국 발언 내용에 북한인권 상황을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관련 공관에 통보 함.

-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유엔 총회 및 인권위원회의 관행에 비추어 한국이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함.

4. 1992.11.24.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인권 문제 토의 시 영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92-0666

러시아 내 북한인 인권문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 재외국민2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44 / 6 / 1-131

1992년 중 러시아 내 북한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임.

1. 러시아 하바롭스크지역 내 북한 벌목노동자 수용소 문제

- 1992.5.11. 러시아 주간지 노보예 브레미야는 '동족 사냥'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 유학생 김명세 망명사건을 보도하고, 하바롭스크지방 북한 벌목장 내 수용소 실태를 공개함.
- 5.27. 영국 ITN TV는 시베리아지역 내 북한 강제수용소에 정치범으로 추정되는 약 2만 2천 명이 벌목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1992.4월 동 수용소 실태 자료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보도함.

2. 러시아 정부의 입장

- 1992.6.5. 러시아 정부는 북한 벌목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러·북한 간 노무협약 및 북한 주재 러시아인 보호와 연관되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집단 거주지 탈출 북한인 처리 문제는 UNHCR(유엔난민기구)과 협의 예정이라고 함.
- 6월 하바롭스크 지방 최고회의는 북한 벌목노동자 수용소 현지조사를 통해 북한 노무자들의 후생 조건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언급함.

3. 1992.9월 정부는 러시아 내 북한 벌목노동자의 망명 처리와 관련, UNHCR을 통한 해결방안을 검토함.

김정일 북한 후계자 권력승계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7 / 1-188

1991~92년 중 김정일의 북한 권력 승계 동향임.

1. 김정일체제 출범 및 숭배 운동

- 1980.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에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김정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북한은 1988년 백두산 정일봉 제막 등 김정일 숭배 운동을 강화함.

2. 김정일 위상 강화 작업(1991.8월)

- 북한은 소련 사태 이후 김정일 전설집 발간 등 김정일 위상 강화 작업을 가속화함.

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1991.12.24.)

- 김정일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천하였고, 김정일은 북한군을 장악하게 됨.

4. 김일성 80회 생일 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1992.4.1.)

- 김정일을 '당과 국가와 군대의 수위'로 지칭하였으며, 이는 주체사상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함.

5. 최대 장성급 인사 단행(1992.4.23.)

- 김정일은 16명의 상장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군부를 김정일 친위체제로 완전 개편함.

92-0668

김일성 북한 주석 신년사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4 / 8 / 1-87

1992.1.1. 김일성 북한 주석의 신년사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임.

1. 주요 내용

- 대내적으로 가장 절실한 과업은 전력 및 석탄의 생산 증대와 철도 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강화로 격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함.
- 대남 및 통일 분야 관련, 남북합의서는 7·4 공동성명과 더불어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라고 하고, 동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함.
- 남북한은 해외 동포의 대단결이 통일의 근본이라고 하고 반제·자주에 입각한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

2. 평가

- 북한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로 사회주의 위업 수호를 강조하며 소련 소멸 등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요 방지에 주력함.
- 미군 및 핵무기 철수 불언급 등 상투적인 대남 비방과 통일전선 형성 등 선동을 자제하고, 전력 및 석탄 생산 증진을 강조하는 등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시인함.

북한 동향. 전2권 (V.1 1-10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9 / 1-238

1992.1~10월 중 북한의 대내외 주요 동향임.

1. 연금 인상 발표(1992.2.15.)

● 1992.3.1.부터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비 43.4%, 사회보장자들의 연금 50.7%를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김정일 생일 하루 전에 발표하여 김정일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1992.4.8.~10.)

● 헌법 개정과 핵안전협정을 비준하고 1992년 예산을 확정함.
- 세입 및 세출 각 185.5억 달러의 균형예산으로서 1991년 대비 세입은 6.2%, 세출은 7.0%로 증가
- 세출의 부분별 구성 내역
  - 인민경제비: 125.2억 달러(67.5%)
  - 사회문화 시책비: 36.3억 달러(19.6%)
  - 군사비: 21.5억 달러(11.6%)
  - 기관 관리비: 2.4억 달러(1.3%)

3. 화폐 개혁 단행(1992.7.15.)

● 화폐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낡은 돈과 새 돈의 교환비율을 1:1로 함.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92.10.5.)

●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법규는 1984.9월 채택한 합영법과 달리 한국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 남북 경협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92-0670

북한 동향.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0 / 1-143

1992.11~12월 중 북한의 인사 개편 주요 동향임.

1.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0차 전원회의(1992.12.10.)

- 정무원 총리를 경질하는 등 당 중앙위원회 인사 개편을 단행함.
  - 김달현 부총리 및 김용순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함.
  - 김일성의 사위 장성택 등 9명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격 임명함.

2.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1992.12.11.)

- 연형묵 정무원 총리를 해임하고 강성산 전 총리를 신임 총리로 선출함.
  - 강 총리는 김일성의 이종사촌으로 금번 인사개편은 김정일 측근 체제 강화로 평가되며, 강성산은 북한의 구 서열 13위에서 4위로 급부상함.
  - 강 총리는 1984년 총리 재임 시 기업독립채산제, 합영법 제정을 주도한 경제 문제 전문가로서, 북한이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에 최대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북한의 법령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1 / 1-195

1992년 중 북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은 1950.3.3.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1976년 1차 개정하였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1992.1.15. 제2차 개정함.

- 제2차 개정한 형사소송법은 10장 30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권주의적 소송 구조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보장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소홀히 함.

2. 북한은 1972년 헌법을 대폭 개정한 신헌법을 1992.4.9.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함.

- 주요 내용
  -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등 마르크스 레닌주의 퇴조에 따른 시대적 상황 변화 반영
  - 외국인과 합작 장려 등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산업기술혁명을 강조함.
  -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등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국방 관련 조항을 보강함.
  - 주석이 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직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1991.12.24.)에 대한 헌법적 근거 제공
  - 명목상 최고인민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등 주요 기관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함.
- 평가
  - 북한은 개정 헌법에서도 북한 정권의 유일합법성,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정일 세습체제를 더욱 확고히 함.

92-0672

북한의 대외교역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2 / 1-296

1992년 중 재외공관을 통해 집계한 북한의 대외교역 주요 동향임.

1.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 1989년: 48억 달러(수출 19.5억 달러, 수입 28.5억 달러)
- 1990년: 46.4억 달러(수출 20.2억 달러, 수입 26.2억 달러)
- 1991년: 35.2억 달러(수출 12.4억 달러, 수입 22.8억 달러)

2. 1991년 북한과 주요 국가 간 무역 현황(단위: 억 달러)

- 소련: 14.21(수입 8.58, 수출 5.63)
- 중국: 6.09(수입 5.24, 수출 0.85)
- 일본: 5.07(수입 2.23, 수출 2.84)
- 홍콩: 1.64(수입 1.24, 수출 0.4)
- 독일: 1.20(수입 0.48, 수출 0.72)

3. 평가

- 1990년 대비 1991년도 전체 무역액의 감소(약 11억 달러)는 주로 대소련 무역액의 격감(약 9억 달러)에 기인함.
- 대중국 무역에서 1990년 대비 1991년 수입이 약 40% 급증한 것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 급감에 따른 수입선 전환에 기인함.
- 북한이 1991년 곡물을 대량 수입(약 1.2억 달러)한 것은 어려운 식량난을 반영한 것임.

통일관계 장관회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3 / 1-188

1. 통일관계 장관회의 실무 조정회의(1992.8.27., 통일원)

- 회의 주재: 임동원 통일원차관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17개 부처 실·국장
- 주요 결과
  - 남북 기본합의서 후속조치 관련 1단계 실천사업 기본계획 심의
  -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의 정부 통일정책 추진 성과 종합보고
  - 1단계 실천사업 추진방안 주요 골자
    · 화해 분야, 불가침 분야, 경제 분야 교류 및 협력, 사회·문화 분야 교류 및 협력

2. 제7차 통일관계 장관회의(1992.12.2.)

- 주요 결과
  - 남북 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기본 요건이 될 것임.
  - 특히 남북 간 회담은 현안문제를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된 일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져야 할 것임.
  -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상호사찰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신뢰성이 있고 효과적인 핵사찰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남북 간 상호 핵사찰이 실시된다면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가 검토될 것이나,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 방지를 위한 방어적 훈련은 계속될 것임.
  - 핵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제협력 준비 단계에서 경제협력사업 실시 단계로 전환될 것임.

92-0674

통일촉진외교 추진 대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4 / 1-107

1991~92년 중 외무부가 작성한 통일촉진외교 추진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통일외교 추진 3대 원칙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직접 해결
- 한국 안보의 확고한 보장
- 민족 전체의 공동 이익 신장

2. 통일외교 세부 추진 대책

- 평화 정착과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여건 조성
  -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서 한국 안보의 확고한 보장
  - 평화통일 과정에 주변국들이 건설적으로 기여하도록 외교 노력 전개
-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외교 노력 전개
  - 남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시키는 국제적 환경 조성
  - 외국 유력인사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 해외동포를 통한 변화 촉진
  -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과정 촉진
  - 남북 간 교역 활성화에 대비, 남북 물자 교류의 내국 간 거래 인정을 위한 대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협의 추진
  - 북한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가입 계기 역내 경제협력 사업 참여 지원
  -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실현을 위한 외교적 지원
  - ADB(아시아개발은행),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사업 추진
-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간 협조체제 구축
  - 1992.9월 제47차 유엔총회 시 남북 외무장관회담 추진
  -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남북 대표부 간 협의 정례화
  - 북한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 바르셀로나 올림픽 등 국제행사 참가 시 남북 간 협조 지원

7·7 선언 4주년 계기 정원식 국무총리의 대북한 제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5 / 1-147

1992.7.7. 정원식 국무총리의 7·7 선언 4주년 계기 대북한 제의 내용임.

1. 주요 내용

-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상봉 및 왕래를 허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 즉각 실시
-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서 한국 안보의 확고한 보장
- 특히 고령 이산가족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 정착하는 문제 우선 협의 및 즉각 실천
- 타의에 의해 이산의 고통을 받고 있는 특정인들의 생사 확인과 상봉 및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 및 정착사업 추진
- 한국 정부는 금번 제의가 인도주의, 상호주의, 엄정중립이 보장되는 자유의사 확인의 3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산가족 귀환 및 정착사업의 추진 방법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분과위원회나 북한이 원할 경우 별도의 접촉을 통해 협의하는 한편, 동 사업이 가능하도록 쌍방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입장

2. 제안 취지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 타의에 의해 강제 이산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 강구
-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화 도모

3. 1992.7.12. 북한 측은 상기 제의에 대해 아래 내용의 고위급회담 대표단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함.

- 남측의 제안은 이인모 송환 거부를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비현실적인 것임.
- 본의 아니게 헤어진 사람들의 귀환 및 정착 문제는 쌍방 간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임.
  - 남측에는 본의 아니게 남에서 사는 북측 사람이 있지만 북측에는 그런 남조선 사람이 없음.
- 이인모는 무조건 즉시 송환되어야 하며, 다른 문제와 절대로 섞어 흥정할 수 없는 긴급하고 절실한 인도주의 문제임.

4. 북측 반응에 대한 한국 측 평가(1992.7.13., 외무부)

- 북측이 연형묵 총리 대신 고위급회담 대변인 담화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 측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됨.

92-0676

남북한 관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4 / 16 / 1-140

1991~92년 중 남북한 관계 동향임.

1. 평양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참석 대표단의 입북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1991년)

- 별지 비자발급(북한 측) 및 수령(한국 측)은 남북한 상호 간의 법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보는 한국의 기존입장에 하등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 도출

2. 남북한 외교·경제·군사 부문 주요 비교자료(1992.2월 / 6월 / 9월, 외교정책기획실)

- 남·북한 수교 및 상주공관 현황 비교, 남·북한 주요 경제·산업·군사 지표 비교

3. 종교계 대북 교류 추진

- 「종교계 대북 교류 추진활동 내실화 지원책 필요」(1992.4.25.)
  - 한국 종교단체들의 경쟁적 대북 접촉 제의로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책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종교계의 대북 교류 추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대책 필요

4. 북한의 인신공격 방송

- 1992.9.4. 및 9.6. 북한 중앙방송,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인신공격 방송
  - 한국 언론의 김일성 애정행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

5. 남북관계 설명회

-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홍보 및 교민사회 여론 수렴을 위해 일본 도쿄 및 오사카에서 설명회 개최(1992.10.23. 및 10.26.)

6. 참고자료

- 남북 협상의 성과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정규섭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5회 국내학술회의('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자료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5 / 1 / 1-295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가 1992.6.23.~25. 호놀룰루에서 개최됨.

1. 이삼노 북한 대표(군축 및 평화연구소 고문으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

- 연방제 통일안 상세 설명
  - 지역 정부의 외교권, 군 통수권, 경제운영권 보유 강조
- 통일과정 및 통일 후 한반도와 주변 정세 안정 필요
  - 통일연방국가는 비핵, 중립정책 실시
  - 통일 이전 남북이 체결한 조약 존중 및 외국의 이권 보호
  -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조선인민과 미, 일 등 주변 대국의 이해에 부합
- 미·일의 과감한 대한반도 정책 수정 촉구
  - 남북 양측에 대한 균등정책 필요
  - 한쪽을 계속 적대시할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 발생
- 질의응답 시 답변
  -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할 것임.
  - 고려연방제에서는 남과 북이 제3국과 맺은 조약은 그대로 유효함.

2. 1992.6.24.자 마이니치신문 보도

- 이삼로의 발언 보도
  - 남북한은 통일 전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통일 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안됨.
  -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도 인정함.
- 발언에 대한 해석
  - 북한 측은 통일 후에도 한·미 안전보장체제 유지를 인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임.

3. 관찰

- 마이니치신문은 이삼로의 발언과 관련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다소 과장 보도한 것으로 분석

92-0678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1 1991.12월-92.1.2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45 / 2 / 1-152

1991.12월~1992.1.22. 중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관련 내용임.

1. 남북합의서 채택과 외무부의 대응체제(안)(1991.12.17., 외교정책기획실)

- 합의서 내용 중 외무부 관련 사항 및 부내 관련 부서, 남북한 문제 외무부 대책기구(안)

2. 남북합의서 채택과 우리의 대외관계(설명자료)(1991.12.16., 외무부)

- 남북관계와 국가 승인 문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휴전협정 존속 문제, 합의서와 기존의 타조약과의 관계, 우방국의 대북한 수교 문제, 북한 핵개발 저지 대책, 합의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문제, 기타 참고사항

3. 통일관계 장관회의 실무 조정회의(1992.1.7.)

- 회의 결과
  - 남북합의서 후속조치 계획 관련 총리 지시사항 전달
  - 남북합의서 채택 후속조치 문제 협의: 3개 분과위원회 및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등
- 자료: 남북합의서 후속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자료(1992.1.9., 경제기획원)

4. 외무부 남북대화지원위원회 회의

- 제1차 회의(1991.1.10.)
  - 참석자: 차관(위원장), 외교정책기획실장(부위원장), 위원(미주·국제기구·조약·국제경제·문화협력·영사교민국장, 통상국 심의관), 외정실 제3정책심의관(간사)
  - 회의 결과: 외무부 실천계획안 작성 일정 결정 등
- 제2차 회의 (1991.1.22.)
  - 남북합의서 후속조치 계획(안) 검토
  - 외무부 남북대화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1992.1월, 외교정책기획실)

5. 참고자료

- 남북합의서 이행 관련 외무부 후속조치 계획(안)(1992.1월, 외무부)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2 1992.1.23.-30.)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45 / 2 / 1-152

1992.1.23.~30.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자료 관련임.

1. 「남북 기본합의서」 후속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교류 협력 분야 실천 과제와 추진 방향 (1992.1.22., 통일원)

-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및 교류 협력 전망, 추진 방향, 단계별 추진 과제, 분야별 추진 과제

2. 남북합의서 실천계획 종합지침

- 1992.1.22.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에서 확정
  - 실천계획 추진 방향, 역점 대비 과제 추진, 관계부처 간 협조 등 결정

3. 외무부 내 남북합의서 후속 실천계획 수립

- 해외동포 관련 남북합의서 후속 실천계획안(1992.1.28., 영사교민국)
- 남북 직교역 추진방안(1992.1.27., 통상국), 남북합의서 후속 실천계획안(문화협력국)
-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방안(1992.1.28., 국제연합1과)
- 남북합의서 실천계획(안)(1992.1월, 국제경제국)

4.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관련 외무부 후속조치 계획(초안)(1992.1.28., 외무부)

- 상호체제 인정 및 내정불간섭 문제
-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에 관한 합의 추진방안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문제
-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축방안
- 경제교류 협력 실천방안
- 해외동포의 방한·방북 문제
- 해외동포의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경제·문화 분야 등에서의 대외 공동진출방안
- 남북합의서의 유엔 등록 문제 검토

92-0680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3 1992.2-7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45 / 4 / 1-109

1992.2~7월 중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의 남북대화 지원체제

- 1992.2.19.「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3개 분과위원회(정치, 군사 및 교류·협력) 등에 외무부가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남북대화를 지원하고자 '외무부 남북대화 지원체제를 구성
-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관련 외무부 역점 대비 과제별 실천계획(초안)(1992.2월, 외무부)
  -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방안, 북한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경제기구 진출 협조방안

2. 남북대화 관련 정부 대책회의(1992.3.20.)

- 남북한 간 3개 분과위원회 및 제1차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 종료에 따른 정부의 향후 대책협의를 위해 통일원 부총리 주재로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 부속합의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위원회 구성 추진
  - 고위급회담 및 3개 분과위원회의 지속 입장 견지
  -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 간 균형된 진전 도모
  -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 핵문제 선불거론, 북측이 먼저 제기하는 경우 강력 대응
  - 고령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긴급 제안으로 계속 제기 등

3. 외무부 남북대화지원본부 회의

- 1992.3.23. 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제1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대책 방향 설명
- 1992.5.28. 회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 및 남북대화 관련 대책협의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전4권 (V.4 1992.8-1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2-45 / 5 / 1-145

1992.8~11월 중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관련 내용임.

1. 남북대화 전략기획단 회의

- 1992.8.5. 통일원 남북대화 전략기획단회의에서 남북대화 종합 평가 및 향후 대책 방향 검토
  - 3개 분과위 및 핵통제공동위와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진행 경과 등 파악, 향후 남북대화 추진 방향 논의

2. 남북 기본합의서 후속 실천 기본계획 수립

- 1992.8.24. 외무부, 남북한 간의 부속합의서 채택 후 분야별 공동위원회 운영 시 착수할 1단계 실천사업 기본계획(안)을 통일원에 송부
  - 「남북 기본합의서」 제1단계 실천사업 기본계획(안)(1992.8.18., 외무부)

3. 「화해 분야 부속합의서」 외무부 관련 사항 실천계획(안)

-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1992.9.15.~18., 평양) 결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분야별 이행 대책을 담은 3개 부속합의서(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서명·발효
- 외무부, 1992.9.30. 「화해 분야 부속합의서」의 외무부 관련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안)을 통일원에 송부

4. 참고자료

- 「부속합의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안)(1992.10.7., 제5차 통일관계 장관회의 안건)
- 남북회담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관한 지침(1992.11.27., 국무총리 훈령 제267호)

92-0682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2-45 / 6 / 1-117

1992년 중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임.

1.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 경제기획원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및 정책을 사전 심의·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 설치 근거: 남북 교류협력 사전조정에 관한 지침(총리 훈령 제258호)
  - 구성방안: 경제기획원 차관(위원장) 및 경기원, 외무부 등 8개 부처 차관보급을 상임위원으로, 비상임위원은 기타 관련 부처 차관보급
  - 기능: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부정책, 교류사업 등 사전 심의 및 부처 간 의견조정

2.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간담회(1992.5.22., 경제기획원 차관실)

- 참석자: 남북경제협력조정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9명,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측 위원 3명
- 안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
-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간담회 자료(1992.5.21., 경제기획원)

3. 남북 경제 관계부처 회의(1992.6.18.)

-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관련 당면 추진 과제 협의

4. 제1차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1992.10.2., 경제기획원)

- 1992.11.19. 개최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대한 한국입장 준비

5. 제1차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 실무회의(1992.10.26.)

-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협상 대책 논의

6. 참고자료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안)(국무총리 훈령)
- 남북 경제교류 협력 조정에 관한 지침(안)(경제기획원 고시)

남북대화 중단. 전2권 (V.1 9-10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5 / 7 / 1-303

1992.9~10월 중 남북대화 중단 관련 동향임.

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 공작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 내 북한공작 현지 지도부를 구축,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선노동당을 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1992.10.6. 이를 발표
- 1992.10.7.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대북성명문 발표
  - 북한의 공작활동은 기본합의서와 화해 분야 부속합의서 규정 정면 위배임.
  -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역행되는 여사한 행동이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
  - 핵문제 해결과 노부모 방문단 교환 등 민족전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북한에 촉구하며,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생기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는 것을 경고함.
  - 해당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해 금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임.

2.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및 팀스피리트 훈련 등 관련 남북한 대응

- 1992.10.7.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통일원장관의 대북 성명문 발표
  - 북한의 공작활동을 규탄하고 남북 정치분과위 긴급 소집 제의
- 1992.10.8.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북한 조평통 성명 발표
  - 안기부가 허위 날조한 반공화국 모략 사건, 정치적 위기 탈출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충격요법
  - 구속인사 석방,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요구
- 1992.10.12. 남북정치분과위 북측 위원장 백남준은 한국 측의 정치분과위 긴급소집 제의 거부
- 1992.10.14. 연형묵 북한 총리, 한국 총리에게 서한 발송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발표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1992.10.7.~8., 워싱턴)에서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미군 추가감축 중지 결정 비난
- 1992.10.21. 현승종 총리 명의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앞 서한 발송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이인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고,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시인·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
-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개최(1992.10.27., 평양)
  - 연형묵 총리, 박성철 부주석 등 250명 참석

- 연석회의 결정서 채택: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및 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 보류 등 비난, 북한의 평화적 핵 정책의 정당성과 결백성 강변, 4개 결정사항(팀스피리트 훈련 강행 시 고위급회담 및 각 공동위원회 등 모든 대화와 접촉 동결 등) 결정

● 1992.10.31. 연형묵 북한 총리 명의 한국 총리 앞 긴급 통신문을 통해 11월 초 한국 측 군사훈련을 핑계로 남북 화해공동위원회 개최 거부 가능성 통보

남북대화 중단.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5 / 8 / 1-150

1992.11~12월 중 남북대화 중단 관련 동향임.

1. 현승종 총리, 연형묵 북한 총리 앞 남북관계 전화통지문 발송(1992.11.2.)

- 북한이 한국 측의 11월 초 군사훈련을 구실로 남북공동위원회 중지 가능성을 통보해 온 것을 반박하고, 공동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한국 입장 표명

2 북한,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불참 성명 발표(1992.11.3.)

- 북한 측 4개 남북공동위원회 위원장, 1992.11월 개최 4개 남북공동위원회 회의에 불참 성명 발표
- 한국 측 통일원장관 명의 대북 성명 발표
  - 남측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구실로 상호 합의한 대화를 파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대화적 태도로서 예정대로 공동위 개최 및 상호 핵사찰, 이산가족 교환방문 조속 실현 촉구
- 북한의 「남북공동위원회 위원장 연합성명」 분석(1992.11.4., 통일원)

3. 현승종 국무총리, 대표 접촉 제의(1992.12.4.)

- 4개 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문제와 제9차 남북 고위급회담 운영 문제 협의를 위한 12.7. 남북 대표 접촉 제의(대북 전통문 발송 유보)

4. 북한 고위급회담 대변인, 공로명 남한 대변인 앞 전통문 발송(1992.12.4.)

- 북한 고위급회담 대변인은 공로명 대변인 앞 전통문을 통해 12.15.까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 철회 촉구
- 공로명 대변인은 12.10. 북측 대변인에게 대응 전통문 발송
  - 제9차 고위급회담은 합의된 일정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최되어야 하며, 팀스피리트 훈련은 기존입장 재확인

5. 북한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의 성명 발표(1992.12.19.)

- 북한은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 측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구실로 제9차 고위급회담(당초 1992.12.21.~24. 예정) 불참 입장 공식 표명
- 현승종 총리, 12.21. 강성산 북한 총리에게 전통문 발송
  - 북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제9차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동위원회와 제9차 고위급회담의 조속 재개 촉구

92-0685

남북한 정상회담 의전 분야 검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5 / 9 / 1-180

1992년 중 남북 정상회담 의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자료임.

1. 기본입장

- 남북한 관계는 상호 국가승인 이전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특수한 의전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례적인 일정을 배제하고 실무적인 일정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행사로서 선례가 없고 국가 간 의전 관례를 적용할 수가 없어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먼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임.

2. 주요 내용

- 수행원 규모
  -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 개최를 전제로 영부인은 동행하지 않으며, 공식수행원은 11명 정도, 실무수행원은 최소한으로 구성함.
- 일정
  - 2박 3일 일정으로 하되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의례적인 일정을 제외함.
- 교통편
  - 차량으로는 서울~평양 간 편도 3시간이 소요되어 비현실적이므로 특별기를 이용
- 선발대
  - 외무부 의전장을 단장으로 선발대 구성

3. 의전 분야에 관한 검토의견(1992.2월, 외무부 의전장실)

- 1991.12.13. 서명된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합의서에서 남북한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명하고 있어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분야를 검토함.
-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 검토 필요사항
  - 일반사항(장소, 기간, 숙소, 체재비, 수행원, 교통편, 경호, 통신, 출입국, 선발대 파견 등)
  - 의전사항(국기, 국가, 환영식, 정상회담, 공식 만찬, 환송식 등)
- 참고자료
  - 동·서독 정상회담, 남·북 합의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 비교
  - 1986.11월 몽골 대통령의 방북 시 의전 진행 절차

4. 주독일대사관의 보고자료

- 슈미트 서독(현) 수상의 동독 방문 세부 일정, 호네커 동독 서기장의 서독 방문 세부 일정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원 명단 통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6 / 4 / 1-45

1992년 중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명단 통보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의 화해공동위원회 및 군사공동위원회 참여

- 화해공동위원회 위원: 제3정책심의관
  - 수행원: 특수정책과장
- 군사공동위원회 수행원: 안보정책과장
  - 북한과의 화해공동위원회 및 군사공동위원회 대표단 명단 교환은 한국 측 제의에 따라 1992.10.26.로 연기
-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에는 외무부 인사들이 선임되지 못함.
  - 수행원 정원 15명 중 절반은 관계부처 행정요원(도청 방지 등)으로 충원

2. 한국 측 여타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일부 재조정

- 기선임되었던 군사, 경제교류, 사회문화공동위원회 위원 중 차관보급 위원을 국장급으로 하향 조정

3. 공동위원회 위원 및 수행원 합동연수(1992.10.19.~21., 통일연수원)

4. 북한 측 화해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 정남호 외교부 순회대사
- 위원
  - 조상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 이길청 조선인민군 대좌
  - 강성룡 중앙인민위원회 상급 심의원
  - 박세덕 정무원사무국 상급 심의원

5. 기타 공동위원회

- 북한 측은 위원장 포함 명단 불변
- 한국 측의 경우 경제, 사회문화 2개 공동위원회 위원은 대폭 교체

92-0687

문선명 통일교 교주 및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 북한 방문, 1991.11.30.-12.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7 / 6 / 1-101

문선명 통일교 교주와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이 1991.11.30.~12.7. 북한을 방문함.

1. 방북 목적

- 북한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세계여론 전달
- 북한과 자유세계 기업 간 협조 기틀 조성
- 이산가족 재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향적 사고 촉구

2. 방북 경위

- 1991.4월 북한과 '세계평화 정상회의' 평양 개최 문제 협의 시 동 회의 총재인 문선명 목사와 회장인 박보희의 방북 문제가 제기됨.
- 1991.11.16. 박보희 회장은 베이징에서 김달현 북한 부총리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고, 문 목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
- 1991.11.29. 문 목사 일행은 베이징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11.30.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김달현 부총리의 공식초청장을 전달받고 평양으로 출발함.
  - 특별기 제공, 국빈에 준하는 대접 및 김일성과의 회담 약속

3. 방북 주요 활동

- 1992.12.1. 윤기복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장과 회담
  - 윤기복은 "한국식대로 잘살고 있다"는 제목하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예찬하며 주체사상 선전
- 문 목사는 하나님주의, 참사랑에 의한 조국통일, 무신론과 주체사상의 허구성 등 설교
  - 30여 명의 북한 고위 간부가 경청

4. 문 목사와 윤기복 위원장 간 공동성명 채택(1992.12.5.)

- 경위
  - 문 목사는 윤기복 위원장에게 이산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북한 정부가 발전적 증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주요 내용
  - 조국통일은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 평화적으로 실현
  - 남북이 불가침에 합의하고 핵 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해야 함.
  -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기원

김달현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 방한, 1992.7.19.-2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7 / 7 / 1-157

김달현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이 1992.7.19.~25. 방한함.

1. 방한 개요

- 경위
  - 1992.1월 김달현 부총리, 서울 방문 의사 표명
  - 1992.6월 베이징 주재 양국 실무자 간 접촉으로 북측 의사 확인
  - 부총리 명의 초청장 발송
- 방문단: 김달현 부총리 외 9명
- 방문 목적
  - 한국 측 경제정책 책임자와의 면담
  - 주요 산업 시찰을 통해 한국경제 실상 파악

2. 주요 일정

- 예방 및 면담
  - 대통령 예방
  - 부총리 예방(과천)
  - 부총리 답방(숙소)
- 산업 시찰(13개소)
  - 서울 근교: 삼성반도체,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 중부권: 럭키 청주공장
  - 영남권: 대우전자, 금성전자, 제일모직,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유공, 화승,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 참관(8개소)
  - 서울: 비원, 남대문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민속관, 무역전시관, 63빌딩
  - 지방: 경주 일원(불국사, 석굴암, 천마총 등)

3. 주요 합의사항

- 최각규 부총리의 평양 방문에 합의
- 남포 경공업단지 건설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

92-0689

남북한 경제 교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7 / 8 / 1-151

1992년 중 남북한 경제 교류 관련 내용임.

1. (주)대우의 대북한 경제협력사업 추진 관련 대책방향(1992.2.11., 특수정책과)

- (주)대우와 북한 간의 합의사항
  - 남포시에 약 30만 평 규모 경공업단지 건설: 와이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신발, 메리야스, 종합 면방직, 봉제완구, 식사 도구(양식기) 등 9개 분야
  - 1992.2.15.까지 현지조사단 파견
- 대책 방향(통일원차관 주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회의(2.10.))
  - 합의된 협력사업의 남북한 간 상호 보완성, 실현 가능성 및 시범적 성격 등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
  - 북한 측과의 사업 추진 협의와 구체적 사업 착수는 분리해서 검토
  -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
  - 합작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협의를 위한 현지조사단의 방북 승인

2. 남북한 물자교류의 국제법적 검토(1992.2.21., 국제법규과)

- 남북합의서의 효력
  -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로, 남북한의 거래를 민족 내부교류로 합의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waiver 신청 필요
  - 남북한 합의에도 불구,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교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북한 간의 거래가 GATT 규정의 대상국인 국가 간의 거래로 인정되어 waiver 신청이 필요

3.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 연계 관련 정부 입장 검토(1992.10.6., 외교정책기획실)

- 남북한 간 3개 부속합의서 타결 및 공동위 가동에 따른 구체적 실천단계 진입으로, 핵문제와 대북경협 연계에 대한 정부입장 수립 필요성 제기

남북한 여성 세미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7 / 9 / 1-167

1. 제1차 남북한 여성 세미나(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1991.5.31.~6.2., 도쿄)

- 일본 기독교단체가 공동 주최
- 남북한과 일본 여성계 대표 참석

2.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서울 개최 관련 대책(1991.11월, 통일원)

- 판문점 예비 실무접촉 결과
  - 주요 합의사항: 개최 기간(1991.11.25.~30.), 대표단(대표 5명, 수행원 4명, 기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발표 주제(전혀 언급 없었음), 시찰지역, 판문점 통과 절차
- 향후 대책방향(기본방향)
  - 동 세미나는 지난 5월 일본에서 기합의된 제2차 남북한·일본 간 여성 공동 세미나이며, 여성계 전체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회의임.
  - 북측 인사에 대한 정부의 안내와 지원은 관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되, 순수 민간차원의 행사임을 고려, 그 운영은 주최 측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
  - 정부승인 조건대로 진행 전 과정에 걸쳐 정치성이 배제되도록 사전 조정을 철저히 함.

3.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1991.11.25.~29., 서울)

- 북한 대표단의 조기귀환으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끝냄.

4. 여성대표단 북한 방문(1992.9.1.~6.) 결과(1992.9.7., 특수정책과)

- 김일성 주석 면담(9.6.)
  - 주로 비정치적 대화로 일관
  - 다만 김 주석은 문익환, 임수경 문제와 관련, 노태우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북한 방문 사실만으로 계속 구속시키고 있는 것은 가혹하다고 언급
- 북한 측이 주장한 공동결의문 불채택(한국 측 주장에 따라 고별 기자회견으로 대체)
- 군대위안부 문제는 남북한, 일본 3자 간 계속 논의하기로 함.
- 토론회 정례화, 실행위원회 구성
  - 4차 토론회, 1993년도 도쿄 개최 합의(의제: 군대위안부 문제)

92-0691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군축회의(CD) 문서 공동 배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7 / 10 / 1-159

1.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선언, 제네바 군축회의 문서 공동 배포

- 1992.3.20. 제네바 주재 남북한 대사는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네바 군축회의 문서로 배포하여 줄 것을 군축회의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동 문서는 3.25.~26.경 배포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2개 문서의 군축회의 문서 배포는 북한 측의 제의를 한국이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영문본은 한국의 문안을 북한 측이 그대로 수락하였고 프랑스어본은 북한 측이 작성한 번역본을 한국이 일부 수정한 것임.
- 동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을 유엔안보리 문서로 공동 배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유엔 주재 남북한 대사 간에 협의하도록 할 예정임.

2. 남북한 합의서 및 비핵화 선언 CD 문서 배포

- 1992.3.27. 주제네바대표부는 남북한 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이 CD 1147(1992.3.25.자)로 배포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며, 동 문건의 영문본, 프랑스어본을 송부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 전3권 (V.3 주요국 반응)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47 / 14 / 1-100

1991~92년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임.

1. 샌프란시스코 주재 교포 핵물리학자 신은호의 대통령 앞 서한(1991.12.23.자) 전달 의뢰 보고 (1991.12.27.,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서한 요지
- 핵 농축시설 관련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생산하는 핵 농축시설은 평화적 목적의 시설이나, 고농 핵 농축시설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고농 핵 농축시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함.
- 다만 핵연료 생산용 핵 농축시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북한 측에서도 그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은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100%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북한은 우라늄광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연료 생산용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도록 함이 장래 핵연료의 자급자족을 위해 국익이 될 것임.

2.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

● 미국 국무부 브리핑(1991.12.31.)
- 남북한이 핵무기 포기 및 핵 재처리 포기 등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함.
- 북한의 핵안전협정 즉시 서명과 이행을 촉구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1992.1.1.)
- 금번 조선 북·남이 상호 합의에 이른 것은 쌍방 공동노력의 결과이며, 이에 환영을 표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조기 실현될 것을 희망함.

● 일본 와타나베 외상 담화(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영함.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완전히 수락하도록 계속 강하게 촉구하고자 함.

92-0693

한반도 군축 세미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47 / 16 / 1-116

1. 4개국 한반도 군축 세미나(1992.6.1.~2.,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 주최: 북한 연구소와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
- 발표자: 조충연 국방대학원 군사 연구위원, 로널드 레만 미 국방부 군축국장,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CIS(독립국가연합)군 제1참모차장, 가츠이치 츠카모토 일본 평화안보연구소 사무국장
- 평가
  - 발표자 전원이 남북한 군축 문제 토론을 위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더불어 남북한 상호사찰의 필요성에 공감함.
  - 한반도 군축 방식 관련, 유럽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정보교환을 통한 신뢰구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 이는 한국 정부의 남북한 군축 기본 입장과 일치함.

2. '신국제 질서와 아태지역 안보' 회의(1992.10.13.~15., 한국국방연구원)

- 주최: 한국국방연구원/CSIS 공동 주최
- 참석자: 한국국방연구원, 부르킹스연구소 등 연구소 및 국내외 주요 학계인사 30여 명

3.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1992.11.2.~3.,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 주관: 서울국제포럼
- 냉전 종식에 따른 아태지역의 질서개편
  - 미국의 정책변화: 냉전 종식과 국내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반적으로 재조정 단계에 있으나,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수립되는 경우에도 미국의 대아태지역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태지역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장래 불확실, 아태지역에서 미국 세력의 퇴조에 따른 일본의 장래 역할 불투명, 지역분쟁의 미해결(한반도, 북방 도서, 스프랫틀리 섬 등)
- 다자간 신뢰 구축 및 안보협력체제 구상
  - 아태지역 차원의 안보 대화 및 협력 논의, 공통 안보이해가 있는 국가 간에 소지역 차원의 대화 병행, 상기 대화 및 협력에 미국의 계속적인 참여 및 지원이 필수적

미국 Asia Society 한반도 연구조사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8 / 1 / 1-222

1. 미국 아시아협회(Asia Society) 한반도 조사단 남북한 방문

- 방문 목적: 제1차 조사단 방문(1991.5.7.~29. 남북한 등 5개국) 이후,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 남북한 정세변화 및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 최근 한반도의 중요 변화 파악
- 제2차 조사단 구성
  - Robert Scalapino 버클리대 명예교수(단장) 교수, 연구소, 언론인 12명
- 방문 기간: 1992.10.3.~10.(북한), 1992.10.11.~14.(한국)

2. 미국 아시아협회 조사단 북한 방문

- 주요 방북 활동
  - 북한 평화군축연구소와 회의, 청진 및 두만강 등 시찰
  - 김영남 외교부장,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장,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등 면담
- 방북 결과(북한 측 반응)
  - 연방제 통일 방안, 핵문제에 관한 북측 기본 입장 설명
  - 남북대화 관련, 고위급회담으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
  - IAEA 사찰 수용 등에도 불구,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 표시

3. 미국 아시아협회 조사단 한국 방문

- 주요 방문 일정
  - 간담회 개최: 총리특보 주최 간담회, 서울포럼 회장 주관 간담회, KDI 주관 남북한 경제간담회
  - 대통령·외무부장관 예방, 공보처장관(오찬), 통일부장관(오찬)
- 주요 논의 내용
  - 조사단의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한 평가 공유
  - 미·북한 및 일·북한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방안,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입장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건의사항 발표

- 1992.12.21. 스칼라피노 조사단장, 남북한 방문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건의서 발표
- 주요 정책 건의사항
  -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제1차적 책임, 미국의 안보공약은 역내 안정화의 기반 제공, 핵문제 해결 후 미·북한 관계 개선, 주한미군을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 미국의 핵우산 지속 등

92-0695

북한의 무기 밀매 동향 및 대외군사협력

생산연도	1992- 1992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48 / 2 / 1-210

1. 스커드미사일 적재 북한 화물선 문제

- 1992.3.6. 미국 NYT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시리아로 수출되는 미사일 부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선박 2척에 대한 승선 임검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함.
  -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선박에 대한 임검이 실시된다면, 이는 중동에 대한 무기 확산 금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북한 핵문제와는 무관한 조치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함.
- 주이란대사관은 당지 테헤란타임즈가 스커드 C미사일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선박 대흥호가 주재국 반다라바스항에 3.10. 도착했다는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로이터통신을 인용, 보도했다고 하면서 주재국 측 언론보도 및 외교단 반응을 보고함.
  - 영자지 KAYHAN은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비밀은 아니나,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만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
- 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은 11.4. 주미국대사관 서기관과 면담 시 북한의 3개 회사가 공동으로 110대의 우크라이나 트럭(스커드미사일 이동발사기 장착 가능) 및 중장비(스커드미사일 발사에 활용 가능)를 이란에 수출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함.

2. 대외 군사협력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92.8.16.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주재국 군사대표단 4명이 8.21.부터 2주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미사일 생산공장 등 군사시설을 시찰하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및 기술도입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외무부는 8.19. 관계부처에 의하면 북한은 1988년 스커드미사일 시험에 착수하여 1990년에 성공하였으며, 동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사정거리 1천 km)하고 이미 이란, 시리아에 판매 단계에 있다고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지함.
- 9.9. 미 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은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에게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 1천 MW 경수로식 핵발전소 4기를 2000년부터 북한에서 건설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언급하였음.

북한 핵문제. 전13권 (V.1 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4 / 1-130

1992.1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1992.1.17. Boucher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시 Kanter 정무차관과 북한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1.22. 뉴욕에서 접촉을 가질 예정임을 발표함.

- 북한과 핵문제를 협의하게 되며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예정
- 한반도 문제의 일차적 해결방안으로는 남북한의 관계 개선 및 핵문제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인바, 이를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음.

2. 북한의 일본 핵 위협 대두 주장

- 주장 내용: 1992.1.18. 노동신문은 일본이 필요 이상의 핵물질을 축적하는 등 핵 개발을 맹렬히 추진 중인바, 이를 막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쳐야 함.
- 분석: 향후 일·북한 수교회담 등 기회에 대일 카드로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1992.1.29. 헤리티지재단은 북한 핵문제 관련 정책 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 내 행정부, 의회, 언론 등에 배포함.

-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안보에 위협요인이 됨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북한의 확실한 핵사찰 절차 이행과 북한 내 핵무기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미국은 정치·경제적 제재 조치 또는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함.

92-0697

북한 핵문제. 전13권 (V.2 2-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5 / 1-249

1992.2~3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뉴욕타임즈 사설에 대한 대응

- 뉴욕타임즈는 1992.2.24. 'Hold the Fire on Pyongyang's Nukes' 제하 사설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조만간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냉정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주미국대사관은 동일 상기 보도에 대한 반박 서한을 논설위원 앞으로 송부
  -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핵시설 사찰 대상 리스트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한국은 현재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조속 비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최초 사찰에 앞서 사찰 대상 리스트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음.
  - 귀지는 한·미 양국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핵문제에 관해서 시간은 결정적 요인이며 이미 얼마 남지 않음.
  - 국제사회가 인내를 보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함.

2.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국무부 보도지침(1992.2.26.)

- (북한 핵개발 저지의 다음 단계) 북한이 국제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협정을 신속히 비준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 간 신뢰할 수 있는 상호사찰을 실시하는 것임.
- (IAEA 사찰) 2.25. 이사회에서 협정 비준 이전이라도 IAEA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함.

북한 핵문제. 전13권 (V.3 4-5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6 / 1-248

1992.4~5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Karl Jackson 미국 Quayle 부통령실 안보보좌관의 주미국대사와의 오찬 시 북한 핵문제 관련 발언(1992.4.7.)
   -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나 남북한 상호사찰에는 회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은폐하면서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외교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미국 내에서 군사적인 대응을 배제해서는 사태 해결이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2. Schniel 미국 국무부 과장대리의 주미국대사관 직원 면담 시 미국의 대북한 조치 관련 발언 (1992.4.15.)
   - 북한이 성실하게 IAEA 핵사찰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사찰을 받게 되면 미·북한 고위급 대화의 정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 대북한 직접통신 제한 철폐 문제가 논의될 것임.
   - 미·북한 학술교류는 북한 체제를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않으며, 북한 측 참석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은 사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92-0699

북한 핵문제. 전13권
(V.4 한·미국·일본 실무회의. 서울, 5.3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7 / 1-87

미국의 북한 핵문제 관련 한·미국·일본 간의 실무회의가 1992.5.30. 서울에서 개최됨.

1. 미국, 북한 핵문제 관련 한·미·일 3자 실무협의 제의

- 미국 측 제안내용(4.22.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발언 요지)
  - 최근 JNCC(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결과를 감안할 때,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만을 수용하고 남북 상호사찰은 회피할 가능성 농후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 5월 말경 한·미·일 3국 실무자 간 협의를 갖고 상호 입장 조율 필요
- 건의 및 조치 예정사항
  - 미국 측 제안 수용, 3국 간 실무회의를 5월 말 개최 추진
  - 한국 측 동의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조치

2. 한·미·일 3자 실무협의(1992.5.30., 서울)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등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 및 지역정책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북한 핵문제. 전13권 (V.5 6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8 / 1-234

1992.6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주미국대사, Paal 미국 NSC 아주담당 선임보좌관 면담(1992.6.2.)

- 주미국대사는 미·러 정상회담 시 공동성명에 남북한 상호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강조함.
- Paal 보좌관은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협의될 것임에는 분명하나, 공동발표문은 표현의 방식과 전반적인 발표문 구성 문제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2.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Kartman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면담(1992.6.11.)

- Kanter 미 국무부 차관의 서한 형식 대북한 메시지 작성 현황 및 전달 시기에 대해 문의한바, Kartman 과장은 메시지 내용에 대한 내부협의를 1차 가졌으며, 부서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메시지 전달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3. 미·러시아 간 정상회담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1992.6.16. 및 6.17., 워싱턴)

- 북한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함께 남북한 간 상호사찰 수락 강조
-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이행 촉구

92-0701

북한 핵문제. 전13권
(V.6 Wolfowitz 미국 국방차관 방한, 6.25.-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9 / 1-50

북한의 핵문제 관련 Wolfowitz 미국 국방차관이 1992.6.25.~26. 방한함.

1. 방한 목적

- 아시아 순방(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일환

2. 주요 일정

- Gregg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 국방부장관·외무부장관 예방,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대통령 예방 등

북한 핵문제. 전13권 (V.7 7월(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10 / 1-127

1992.7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북한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1992.7.5.)

-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과 미 국방부 대변인의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 발표를 주목함.
-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 것으로 봄.
- 이번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함.

2. 솔로몬 미 국무부 차관보의 의회 청문회 발언(1992.7.9.)

- 북한 측의 재처리시설 능력 보유 의도는 명백하나, 완전한 핵 재처리 능력을 갖추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신고된 시설 외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바 있어,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간파할 수 있음.

92-0703

북한 핵문제. 전13권 (V.8 7월(II))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11 / 1-146

1992.7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한·미 대북한 관계 실무협의

- 1992.6.23.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평가의 상호교환을 통한 대북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간 실무협의를 7월 중순 이전 개최할 것을 제안
-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1992.7.8.~9. 워싱턴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외무부 북미1과장, 특수정책과장 등 참석

2. Blix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하원 외무위 공개설명회(1992.7.22.)

- 북한과 같이 장기간 핵시설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 신고된 시설의 목록이 완벽한지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 북한은 1990년 실험실을 통한 그램 단위의 플루토늄 추출을 시인하였으나, 그 이상의 플루토늄 추출은 부인함.
- 대형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인 북한은 중간 단계의 시험시설 존재를 부인하나, 이는 일반적인 산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북한의 핵개발 의혹 관련, 지나치게 놀랄 일은 아니나 섣부르게 안심할 상황도 아님.

북한 핵문제. 전13권 (V.9 8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12 / 1-133

1992.8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남북 상호사찰 촉구 성명문 국제기구 공식문서 배포 추진(1992.7월)

- 추진 목적
  - 철저한 남북 상호사찰 실시가 북한의 핵의혹 해소에 필수적이라는 한국의 기본 입장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재확인 및 이를 통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 계속 강화
- 남북 상호사찰 촉구 성명문
  - 미·러 정상회담 공동성명(6.17.), EC(구주공동체) 및 회원국 성명(6.29.), G7 뮌헨 정상회담 의장 성명(7.7.)
- 추진 대상 국제기구
  - 유엔총회 및 안보리 공동 문서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공식 문서
  - CD(제네바 군축회의) 공식 문서

2. 북한 핵 관련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1992.8.3.)

- 마이니치신문은 '핵사찰 미국 참가 인정' 제하의 워싱턴 시게무라 특파원발 기사를 보도함.
- 북한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미국 민간인을 통해서 핵사찰에 미국의 참가를 인정할 용의가 있으며 핵시설 관계자료를 미국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북한 및 미국 간의 3자회담을 제의함.

92-0705

북한 핵문제. 전13권 (V.10 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13 / 1-195

1992.9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북한 핵 관련 기고문

- Leonard Spector 미 카네기재단 연구원은 Foreign Policy지 가을호에 '회개하는 핵개발 국가' 제하 기고문 발표
- 기고문 내용
  - NPT(핵확산금지조약)가 핵무기 관련 부품의 개발, 제조 및 실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어야 함.
  - 현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은 사찰실시를 위한 정치적 협상, 거증 책임 및 사찰이 실제로 실시되기까지 시간적 지연 등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불시·강제적인 사찰이 이루어져야 함.
  - 북한 등 핵 개발 의심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각 일정한 횟수의 불시·무조건·강제 사찰이 실시되도록 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임.

2. 미국 학계 및 언론계 인사의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북한 핵문제 관련 발언(1992.9.25.)

- Harry Harding 브루킹스연구소 책임연구원
  - 일본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북한 핵문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아시아지역 군비경쟁 추세 등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인바, 다자간 접촉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바람직함.
  - 이런 견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관련국 대화 구상에 대해 관심이 많음.
- Leonard Spector 카네기재단 연구원
  -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남북 상호사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 측이 제안하고 있는 남북 상호사찰 규정안이 채택·실시될 경우 이는 핵비확산 검증에 있어서 모델 케이스가 될 것임.

북한 핵문제. 전13권 (V.11 10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14 / 1-147

1992.10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Lewis Libby 미 국방부 부차관 방한(1992.10.20.~22.)

- 국방부 정책실장 등 면담, 세종연구소 주최 만찬 참석
- 외교안보수석, 외무부차관, 합참의장 등 방문

2. 한·미·일 차관보급 정무협의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1992.11.14.~15.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제1차관보, 외무부 미주국장, 북미1, 2과장 등
  - 미국 측: Clark 차관보, Kartman 한국과장, Demming 일본과장 등
  - 일본 측: 이케다 아주국장, 무토 북동아과장, 오자와 안보과장 등
- 주요 의제
  - 북한 문제(한국 측 리드)
  -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 중국 및 러시아 정세
  - 한·미·일 3자 협력 및 역내 다자협력

92-0707

북한 핵문제. 전13권 (V.12 1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8 / 15 / 1-146

1992.11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신행정부 외교정책 건의서(1992.11.2.)

- 미 신행정부가 당면할 주요 이슈를 Agenda at Home, Regional Agenda 및 Global Agenda 3가지 부문 이하 51가지로 선정하고 각 이슈마다 현황, 배경, 정책대안, 건의 순으로 작성
-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Korean Unification and Nuclear Inspections항)
  - 남북한에 각각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고, 1회에 한해 남·북·미 간 고위 3자회담 개최를 촉구
  - 동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2+4 형식의 주변국과의 회담 방식을 대안으로 추진

2. 아마코스트 주일본 미국대사 강연 시(1992.11.20.)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일본의 원활한 대아시아 정책 추진이 주변국과의 이해조정 차질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 문제
  - 한국과의 과거사 해결 문제
- 한국이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보지 말고 접촉 수준의 다양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함.
  -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일본 자세는 감정적이며, 일본의 대한국 자세는 오만함.

북한 핵문제. 전13권 (V.13 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49 / 1 / 1-95

1992.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미국 'Foreign Affairs'지 한국통일 관련 기고문
   - 에버스타트 하버드대학 객원 연구원의 기고문으로 1992년 겨울호에 실림.
   - 주요 내용
     -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은 적절하지 못함.
     - 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에 비할 때 한국 통일은 용이한 과제가 아님.

2. 1992.12.3.~4. Clark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Asia Society 휴스턴 지부 및 시카고 소재 The Mid-America Committee에서 각각 미국의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책에 관해 연설한바,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 및 한·미·일 3자협의 개최로 북한의 점진적 호응 유도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도출
   - 신뢰성 있는 남북 상호사찰제도의 확립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보완, 북한의 핵 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 불가결
   - IAEA 및 남북 상호사찰 실시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정책대화 및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

92-0709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 1991.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2 / 1-203

1991.1~2월 중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추진 동향임.

1. 북한 외교부, 1990.11.12.자 유엔안보리 문서 및 12.11.자 IAEA 이사회 문서 배포
   -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지연 이유를 미국 측에 전가하고,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보장 요구 및 대미 직접 협상 개시를 촉구함.

2. 미국, 대북한 반박 및 유엔안보리 문서 배포(1991.2.22.)
   - 미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폴란드와 공동 서명한 대북한 반박 및 조속한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유엔안보리 문서를 배포함.

3. 한국 정부, 1991.2.8. IAEA 이사회 문서, 2.25. 유엔안보리 문서 배포
   - 북한이 핵무기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시점까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조약상 의무인 핵안전조치협정의 조속 체결을 촉구함.

4. IAEA 이사회(1991.2.26.~28., 비엔나)
   - 한국·미국·소련 등 16개국 대표가 북한을 거명하며 핵안전조치협정의 조기 체결을 촉구함.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2 1991.3-5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3 / 1-258

1991.3~5월 중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추진 동향임.

1. 제2차 일·북한 수교회담(1991.3.11.~12.)
   - 일본 정부는 북한 측의 NPT(핵확산금지조약)상의 의무인 핵안전협정 조기 체결 및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일본에 대한 미·북한 중재 요청을 거부함.

2. 일·소련 정상 공동성명 발표(1991.4.18.)
   - 북한의 조속한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핵시설 국제사찰 수락을 촉구함.

3. 전인찬 주오스트리아 다자담당 북한대사 서한 전달(1991.5.28.)
   - 전 대사는 북한·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 교섭 재개 제의 서한을 IAEA 사무총장에게 전달함.

92-0711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3 1991.6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4 / 1-286

1991.6월 중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추진 동향임.

1. 1991.6.7. 진충국 북한 순회대사는 블릭스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아래 내용의 핵안전협정 서명 의사를 통보함.
   - 북한 정부는 IAEA가 제시한 핵안전협정안에 동의하기로 결정
   - IAEA 협정안 최종 수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1991.7.10.~15. 개최 제의
   - 확정된 협정안은 IAEA 9월 이사회 승인 후 서명
   -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한 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6월 IAEA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서명 의사 재고

2. IAEA 6월 이사회 개최(1991.6.10.~14., 비엔나)
   - 한국 정부는 우방 이사국과 협의하여 북한 측의 조약상 의무인 핵안전협정 조속 체결 발언 교섭
   -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우방국은 국제 압력 일환으로 북한의 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추진
   - 북한 측은 최종 협정안 확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및 9월 IAEA 이사회에 협정안 상정 제의
   - 이사회 의장(폴란드) 명의 성명 채택
     - 다수 이사국이 북한에 대해 지체 없는 핵안전협정 체결 촉구 사실 상기
     - 7월 협정문안 협의, 9월 이사회 제출 및 지체 없는 서명과 발효에 대한 이사국들의 강력 기대 표명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4 IAEA 6월 이사회 관련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5 / 1-122

1991.6.10.~14.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지지 교섭 내용임.

1. 1991.6.7. 북한은 IAEA 사무국에 핵안전협정 서명 의사 통보 및 최종 문안 확정을 위한 전문가 회담 개최를 제의함.

2. 1991.6.9. 외무부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의사 통보에도 불구,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및 발효 시까지 대북한 국제 압력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30개 IAEA 이사국들에 대한 대북한 핵안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함.

3. 1991.6.11. 핵심우방국 전략회의는 진충국 북한 대표 발언을 이사회에서 청취 후 결의안 상정 입장을 결정함.

4. 1991.6.12. 이사회 토의에서 소련과 인도 정부 등 제3세계 이사국들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의사 결정 통보를 이유로 9월 IAEA 이사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표명함.

5. 1991.6.13. 한국과 우방국 대표들은 소련 및 일부 비동맹국가들의 9월 이사회까지의 관망 입장을 고려,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고 다수 이사국 대표의 대북한 촉구 발언 및 IAEA 이사회 의장 명의 성명 채택을 결정함.

92-0713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5 1991.7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6 / 1-232

북한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91.7.12.~16.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IAEA 핵안전협정 표준협정안 문안에 합의함.

1. 1991.7.16. 북한은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 문안 교섭에서 본질 내용의 수정 없이 IAEA가 제시한 표준협정안 문안에 동의함.
   - 북한은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온 제26조(효력지속조항)의 단서(남한 내 핵무기가 철거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핵위협 계속 시 협정의 효력 정지) 삽입 주장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 표명

2. 북한·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 내용
   - 핵 사찰관 임명
     - IAEA는 북한에 대한 사찰관 임명 시 북한의 동의 필요, 북한이 반대할 경우 IAEA 사찰관 교체 임명
     - 북한은 사찰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나 IAEA는 북한의 국내법규 존중 의무 부담
   - 효력 조항
     - 협정은 북한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IAEA에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 있는 한 효력 지속
   - 사찰 대상
     - 북한은 협정에 따른 사찰 대상이 될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협정 발효 후 익월 말까지 제출
     - 북한은 사찰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조약정을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IAEA와 체결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6 1991.8-9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7 / 1-192

1991.9.11.~13.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에서는 IAEA·북한 간 핵안전협정 문안을 승인하고 북한에 대해 동 협정의 조속한 서명, 비준,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1. 결의안 채택 표결 결과
   - 35개 이사국 중 찬성 27, 반대 1(쿠바), 기권 6(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이라크), 불참 1(카메룬)로 결의안 통과

2. 북한 대표(오창림 본부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동 결의안이 북한의 주권 침해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무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까운 시일 내 핵안전협정의 서명 비준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
   - 북한은 핵안전조치 문제를 대미국 및 대일본 관계 개선 협상에 최대한 활용할 의도인 것으로 관찰됨.

3. 한국 대표(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북한이 지체 없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비준,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특별 핵사찰제도 도입 지지 발언을 함.

92-0715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7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0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8 / 1-144

1991.10.21.~22. 개최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IAEA 간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함.

1.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행 촉구

-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루마니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한국 등 10개국은 북한을 거명하며 북한·IAEA 간 핵안전협정의 조기 서명, 비준 및 이행을 촉구함.

2. 한국 대표(주유엔대사) 발언 요지

- 북한은 안전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핵시설을 상당 기간 가동 중으로 IAEA 이사회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장기 지연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
-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헌장상 의무를 수락하겠다고 서약한 이상, 더 이상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북한 대표 답변권 행사 내용

- IAEA 이사회는 호주, 일본 등을 주축으로 일방적 결의를 채택, 북한의 권위를 손상하고 압력을 가함.
- 북한은 주권침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협정에 서명할 수 없음.
- 남한 내 핵무기 철수로 인한 핵위협 제거가 핵안전협정의 선결 요건이며 남한 내 핵무기 조속 철수를 희망함.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8 체결 촉구 교섭, 1991.10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9 / 1-99

1991.10월 중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유엔총회 본회의 및 제1위원회 교섭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유엔 회원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하여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교섭 활동을 전개함.

- 1992.10.18. 일본 외무성 원자력과장은 유엔총회 IAEA 보고서 심의 시 북한을 거명하여 핵안전협정 조기 체결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방침이나, 북한 거명 문제는 최종적으로 여타 발언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함.
- 10.18. 소련 외무성 관계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은 핵안전협정 체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므로,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속 체결을 발언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북한 거명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2. 유엔총회, 본회의 IAEA 연례보고서 심의(1992.10.21.~22.)

- 일본, EC(구주공동체),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뉴질랜드 등은 북한을 직접 거명하여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함.

92-0717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9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10 / 1-122

1991.1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자 차원에서의 북한 핵안전협정 조속 체결 촉구 관련 내용임.

1. 제45차 유엔총회 시 IAEA 사무총장 보고 관련(1991.11.15.,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IAEA 사무총장 보고 중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국("one state")은 이라크를 말하는 것이며, 북한은 엄격히 말해서 아직 NPT를 위반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IAEA 사무국 및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국가들의 입장임.

2. 핵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의 조치 사례

- 이스라엘 핵개발 관련 유엔총회 결의 채택
  - 제35차 유엔총회 시부터 매년 총회 결의로 채택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핵시설을 IAEA 안전조치 하에 둘 것을 촉구
  - 1981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결의 제487호 채택
- 유엔안보리의 대이라크 핵사찰 실시
  - 1991.4.3. 유엔안보리 결의 제687호 채택
  - 이라크의 핵,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파괴·제거 확인 및 현장사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결정
  - 이라크는 안보리결의 채택 후 15일 내 안보리와 IAEA에 핵무기 사용물질, 개발시설 및 연구활동 관련 정보를 제출, 긴급현장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0 1991.1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11 / 1-185

1991.11월 중 12월 개최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제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속 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추진 관련 내용임.

1. 12월 IAEA 이사회(1992.12.3.~4.) 잠정 의제
   - 기술지원협력위원회 보고
   - 안전조치 사무총장 보고서, 안전조치협정 체결
   - 원자로 프로젝트
   - 기여금 미납으로 지연 중인 기술협력사업 추진
   - 이사회 및 관련 회의일정 조정

2. IAEA 사무국,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보고서 배포(1991.10.23.)
   - IAEA 안전조치 검증 활동이 신고되지 않은 핵시설 및 물질에도 적용되어야 함.
   - IAEA 사무총장은 미신고 핵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평가하기 위해 사무총장 직속으로 소규모 특별반을 설치
   - 접근이 거부되고 있는 핵시설 장소 및 설계 내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함.
   - 핵시설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당사국은 핵시설 건설 전 설계정보를 IAEA에 보고하도록 함

92-0719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1 1991.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12 / 1-211

1991.12.5.~6. 개최된 IAEA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임.

1. 북한의 협정 체결 촉구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구소련), 에콰도르, 영국, EC(구주공동체) 등이 북한을 거명하여 지체 없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
  -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은 1992.2월까지 북한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

2. 기술협력 및 지원 문제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러시아(구 소련), 태국 등은 핵안전협정 미체결국(북한을 지칭)에 대한 기술협력 유보를 주장
- 북한,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쿠바, 베트남 등은 IAEA 기술협력과 NPT(핵확산금지조약), 핵안전협정 체결 문제를 연계할 수 없음을 주장

3. 안전조치제도 강화 방안

- IAEA 사무총장은 안전조치제도 강화를 위한 아래 방안을 보고함.
  - 핵안전조치협정을 적극 해석, 미신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사찰 가능
  - 특별사찰은 일반사찰 결과 및 외부(언론 및 여타 회원국)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실시 가능
  - 핵시설의 설계, 건설, 가동 등 각 단계별로 설계정보 조기 제출 방안 제의
- 한국, 일본, 헝가리 및 서방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스 등) 대표는 사무총장 보고 내용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NPT 비당사국 또는 비동맹 국가(멕시코, 알제리, 인도, 쿠바 등)들은 반대 입장 표명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2 1992.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49 / 13 / 1-174

1992.1.30.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관련 내용임.

1. 서명 경위

- 1985.12월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 1991.7.16. 북한, IAEA와 협정문안 최종 확정
- 1991.12.18. 노태우 대통령, 한국 내 핵부재 선언
- 1991.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1992.1.7. 북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최단 시일 내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 비준 및 사찰 수용 발표
- 1992.1.30. Blix IAEA 사무총장과 홍근표 북한 원자력공업부 부부장 간 협정에 서명

2. 북한 대표(홍근표 원자력공업부 부부장) 기자회견 요지(1992.1.30.)

- 핵안전협정 비준은 국내 절차상 1992.2월 IAEA 이사회까지는 비준 발효가 어려운 상황이나 조속한 처리 예정
- 일본 플루토늄 문제와는 관계없이 협정 비준
- 핵사찰 대상에 영변 소재 시설 포함

3.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에 대한 외무부 대변인 논평(1992.1.30.)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핵안전조치협정의 발효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보유 핵물질과 시설의 IAEA 핵사찰 수용을 통한 NPT 당사국 의무 완전 이행을 기대함.

92-0721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3 1992.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0 / 1 / 1-284

1992.1~2월 중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후 비준 등 협정 이행 지연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IAEA 2월 이사회 시 대북한 대책안(1992.2.15. 외무부 국제기구국)

- 1992.2.8. 주한 미국대사관, 2월 이사회 개최까지 북한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동 이사회 결의안 통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
- 한국은 2월 이사회 시 대북한 결의안 채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 이사국들의 대북한 촉구 발언 유도

2. IAEA 2월 이사회(1992.2.24.~28.) 북한 문제 토의

- IAEA 사무총장의 북한 핵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보고
  - 북한 1.30. 협정 서명, 최고인민상설회의가 2.18.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 협정안을 송부하기로 결정
- 오창림 북한 대표는 최고인민회의 심의 후 협정 규정에 따라 협정비준을 IAEA에 통보할 것이며, 협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함.
- 이장춘 한국 대표는 협정 비준 시기에 관한 북한의 구체적 언급이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북한의 핵위협은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저지되어야 하므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조치 강구도 필요하다고 발언함.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4 IAEA 2월 이사회 관련 협조 요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0 / 2 / 1-133

1992.2.24.~2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관련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 관련 내용임.

-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속 이행을 촉구를 위하여 관련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2월 IAEA 이사회 시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전개함.
  - 덴마크: 한국의 요청이 덴마크 외교정책과도 부합하며, IAEA 대표로 하여금 한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언급
  - 루마니아: 한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자국 대표단에게 훈령하겠다고 약속함.
  - 코스타리카: 북한 핵개발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언급
  - 인도: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에 소극적 입장일 수밖에 없으며, 유엔헌장에 규정된 이외의 국제적 강제사찰은 반대하는 입장임.
  - 노르웨이: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 입장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할것임.
  - 포르투갈: 정부 대표에게 북한이 핵사찰 수용협정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발언을 하도록 훈령할 예정임

92-0723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전15권 (V.15 1992.3-4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0 / 3 / 1-170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핵안전협정 비준 통보에 따라 1992.4.10. 동 협정이 발효됨.

1. 발효 경위

- 1992.1.30. 핵안전협정 서명
- 1992.4.9. 북한 최고인민회의 비준 심의
- 1992.4.10. 비준 및 IAEA 통보(발효절차 완료)

2. 일본 및 미국 논평(1992.4.13.)

- 일본 외무성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 이행이라는 오랜 현안의 해결을 향한 일보 진전으로 평가
  - 협정상 의무인 사찰 수락 등을 조기에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이행하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미국 국무부
  - 북한의 협정 발효를 환영하며, 북한이 완전하고도 조속하게 핵물질 및 설계 정보를 제출하여 IAEA 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
  - 남북한이 상호사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한반도 내 핵확산 위험 제거에 대한 상호 확신을 갖도록 촉구

북한 핵문제 :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0 / 4 / 1-156

1. 유엔사무총장 북한 핵문제 언급(1992.4.15.)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총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Boutros Ghali 유엔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중 북한의 핵문제 및 IAEA 조치 관련 질문에 "문제가 제기되면 안보리와 총회에서 논의될 일이다'라고 답변함.

2. 허종 주유엔 북한대사 기자회견(1992.6.29., 뉴욕)

- 북한은 IAEA의 임시사찰에 최대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심할 소지가 없음.
- 북한은 IAEA 임시사찰을 통해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찰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
  - 상호사찰은 의심 동시해소 원칙에 따라 조속히 실시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찰은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요소임.
- 남북한 상호사찰은 남북한 당사자 간에 협의될 문제로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은 용납될 수 없음.

92-0725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1 / 10 / 1-186

1992.1~4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에 관한 내용임.

1. IAEA 사찰단 방북 관련 북한 방송

- 북한 방송 내용
  - 1992.2.28. 북한 중앙방송은 IAEA 전문가들이 북한을 떠나기 전에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감명을 표시했다고 보도
  - 2.29. 및 3.2. 북한 중앙방송은 IAEA 2월 이사회에서 37개국 대표들의 북한 입장 지지 연설과 과거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던 나라들도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 절차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보도
- IAEA 확인 결과
  - 최근 평양을 방문 중인 IAEA 사찰관은 없으며, 부분 안전조치협정에 의거 실시되는 정기사찰을 위해 3.20.경 사찰관 2명이 방북 예정
  - 2월 이사회에서는 35개 이사국 중 31개 이사국 및 2개 옵서버 국가가 북한의 조속한 협정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행함.
  - 중국, 쿠바, 베트남 등도 북한의 조속한 협정 비준과 이행을 촉구
- 한국 측 조치
  -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단에게 배포, 북한의 허위 보도사실을 적의 홍보하도록 함.
  - 동 내용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관련 공관에 통보, 주재국 활동에 참고하도록 함.

2. IAEA 핵사찰팀 북한 방문

- IAEA 핵안전조치국 직원 2명이 북한 영변 소재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부분적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정기사찰을 위해 1992.3.21.~28. 북한을 방문
- 4.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Blix IAEA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방북 결과에 대하여 문의한바, 동 사무총장은 금번 사찰팀과 북한 당국자 간 최초 보고서 제출 준비 및 핵안전협정 보조약정 체결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 문제와 관련 새로운 조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

3. 1992.4.14. IAEA 북한 핵사찰담당관의 IAEA의 대북한 핵사찰 실시계획 관련 언급내용

- IAEA는 북한에 대해 최초 보고서와 설계정보를 시한(5월말) 이전에 제출하도록 요청, 북한 측은 긍정적 반응
- 북한이 5월 중순까지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핵사찰 계획을 마련 중
- 최초 보고서에 대한 임시사찰은 6월 이사회(6.15.~10.) 훨씬 전에 실시할 계획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2 5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1 / 11 / 1-133

1992.5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에 관한 내용임.

1. 북한, 핵 관련 최초 보고서 IAEA에 제출(1992.5.4.)

- IAEA 사무국은 당초 동 보고서 제출을 5.6.~7.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회원국들로부터의 문의 및 언론의 압력 등을 감안, 시기를 앞당겨 5.4. 발표
- 최초 보고서의 내용 분석
  - 총 16개 시설 중 준임계시설, 건설 중인 방사능화학연구소 및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635MW급 3기)는 한국 측이 그간 몰랐던 새로운 시설임.
- IAEA 의견
  - 방사능화학연구소는 그간 재처리 시설로 지목되어 온 시설임.
  - 동 시설은 연구용이 아니라 대규모 용량의 재처리 시설로 보임.
  - 북한은 동 재처리 시설을 계획대로 완공시킬 의향을 시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

2. 미국 및 일본의 반응

- 미국
  - 북한의 광범위한 최초 보고서 제출을 환영하며, 동 보고서에 북한 측이 모든 시설을 포함시킨 것으로 봄.
  -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재처리인바, IAEA 사찰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함.
- 일본
  -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핵사찰 수락을 촉구함.

3. 향후 전망 및 조치 계획

- 북한의 최초 보고서 내용은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방북 및 IAEA 임시사찰 실시를 통해 그 진위가 확인되고 핵무기 개발 의혹 등이 대체로 밝혀질 것임.
- 동 확인 결과에 따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의, IAEA 6월 이사회 관련 대책 등 대처 방안 수립
- 북한의 재처리 계획 및 능력이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 북한의 재처리 시설 폐기 유도

92-0727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3 Blix 사무총장 북한 방문, 5.11.-16. :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1 / 12 / 1-166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핵시설 사찰을 위해 1992.5.11.~16. 북한을 방문함.

1. 블릭스 사무총장 방북결과 기자회견 요지

- 최초 보고서상의 주요 시설을 모두 시찰함.
  - 자력으로 개발한 구식모델의 원자로 포함
  - 연형묵 총리 등 북한 정부인사를 면담한바 당초 예정된 김일성·김정일 예방은 실현되지 않음.
- 방사능 화학연구소는 완공되면 핵 재처리 시설임.
  - 길이가 180m나 되는 큰 건물로서 건물은 80% 정도 완성되고 내부 장비는 40%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현재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부품은 국내 조달 중임.
  - 내부 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확증은 없음.
- 상기 연구소에서 1990년 극소량의 플루토늄이 추출되었으나, 폭탄 제조용으로는 너무 부족한 양임.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핵무기 개발까지 장비 면에서 부족하며 몇 단계를 거쳐야 함.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수 주 내에 있을 IAEA 임시사찰에서 밝혀질 예정임.

2. 사무총장 발언 분석 및 평가

- 방사능 화학연구소가 그간 의혹의 초점이었던 핵 재처리 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됨.
- 그간 추출한 플루토늄은 상기 연구소에서 추출한 것이며, 여타 추출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수 주 내로 있을 IAEA 임시사찰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것인바, 임시사찰 결과 별다른 의혹이 없을 경우 6월 이사회에서 대북한 조치사항은 없을 것임.
- 앞으로 문제는 북한이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사능 화학연구소 완공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임

92-0728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4 Blix 사무총장 북한 방문, 5.11.-16. : 보고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2 / 1 / 1-141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1992.5.11.~16. 북한 방문 관련 보고서 내용임.

1. 방문 배경

- 1992.4.10. IAEA·북한 간 안전조치협정 발효
- 1992.5.4. 북한의 최초 핵물질 보고서 제출에 따른 북한 정부의 초청

2. 방문 목적

- 전반적인 북한의 원자력 프로그램 파악 및 원자력 시설 방문
- 안전조치 문제, 원자력 안전성 및 기술협력 문제 협의

3. 주요 면담 인사

- 연형묵 정무원 총리, 최학근 원자력공업부 부장, 강석주 외무부차관 등

4. 방문 시설

- 영변 50MWe 실험용 원전(운영), 50MWe 원전(건설 중), 방사화학 실험실(건설 중)
- 태천 200MWe 원전(건설 중), 박천 및 평사 우라늄정련 시험공장 등

92-0729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5 6-8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2 / 2 / 1-154

1992.6월 중 외무부가 작성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 종료에 따른 북한의 선전 책동 관련 보고 내용임.

1. IAEA 임시사찰 종료에 따른 북한의 대미국·대일본 핵기술 지원 요청

- 1992.6.1. 제23차 미·북한 참사관급 베이징 접촉 시, 북한은 IAEA가 경수로 분야 기술 제공 시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용의를 블릭스 IAEA 사무총장에게 표시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함.
- 6.10. 이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 시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 발전용 경수로 분야 기술 제공 및 협력하는 경우 재처리 시설 개발을 중지할 것으로 발언

2. 북한의 대미국 접근 책동

- 윤호진 주오스트리아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케네디 미 국무부 핵확산 방지 담당대사에게 접근, 동인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함.
  - 6월 IAEA 이사회 시 양측 발언 문안 사전 교환도 제의
  - 미국 측, 북한 제의 거절
- 6.10.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은 덕스 IAEA 사무차장을 방문,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전달함.
  - 핵연료주기 기술, 원자력 안전 통제기술 관련 미국 측의 협력 가능성 타진
  - 케네디 대사 등 미 전문가들이 방북, 핵시설을 확인하도록 제의

3. 평가 및 대책

- 북한 측은 자신들의 핵개발 계획은 평화적 목적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이 해소되었음을 선전하고 상호사찰에 대한 압력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냄.
  - 특히 재처리 시설 포기를 대가로 한 경수로 기술 및 핵안전 기술 습득을 빌미로 대미 관계 개선에 이용하려는 시도
- 북측의 대미 접근 책동과 관련, 북측 의도에 대한 한국 측 분석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신중히 대처하도록 미국 측 협력을 확보함.
  - IAEA 이사회 시 각 우방국을 통해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도록 교섭 전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전6권 (V.6 9-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2 / 3 / 1-186

1992.9~12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에 관한 내용임.

1. IAEA(국제원자력기구) 고위인사 방북 추진
   - 미국의 인공위성 정보로 파악한 2개의 미신고 핵폐기물 시설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 이러한 방북 계획은 북한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필수로 하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북한 측의 경계심이나 거부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시기 선택 등 추진 방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추진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92.12.23. IAEA 안전초지부 Thesis 과장과 면담하고 제5차 사찰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제5차 사찰팀이 계획된 임무를 순조롭게 수행하였으며, 북한의 협조로 추가 샘플 채취, 감시장비 기록 점검 등 성과가 있었음.
   - 제6차 사찰은 1993.1월 후반에 실시될 예정이며, 정상적인 사찰업무 개시 이전에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앞으로는 조사결과를 충분히 분석·평가하기 위해 사찰관을 증원할 계획임.

92-0731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포럼 제안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52 / 4 / 1-186

1. 1991.11.5. Solomon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을 방문 중인 외무부 미주국장과 면담하고 6자회의에 대한 미국 측 구상을 설명함.

-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양자문제를 기초로 하며, 주요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자 framework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밝힘.
-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시급한 만큼 실질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6자회의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음.

2. Baker 미국 국무장관 Foreing Affairs지 기고문 중 6자회담 관련(1991.11월)

- 한반도의 화해 및 궁극적인 통일 과정은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나, 미·러(구 소련)·중·일 4국도 한반도에 지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미국은 남북대화 진전에 맞추어 긴장완화 및 남북한 간 협상 결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및 동북아 4대 강국 간 회의(forum) 창설 가능성도 모색할 것임.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1 일본)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52 / 5 / 1-213

1992년 중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우방국(일본)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미야자와 일본 총리 연두 기자회견 시 한반도 관련 언급내용

- 1991.12.28.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야자와 총리는 한반도 핵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
  -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대담한 대응을 했으므로, 이제는 북한 측이 움직일 차례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방한 시 노태우 대통령과 논의 희망

2.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다나베 일본 사회당 위원장은 1992.4.16.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과 면담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서명 비준을 평가하고 조속한 핵사찰을 기대한다는 다나베 위원장 언급에 김용순 국제부장은 북한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면서, 핵사찰 수락과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고 답변함.

92-0733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2 러시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52 / 6 / 1-143

1992년 중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우방국(러시아)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러시아 외무차관의 북한 핵문제 관련 언급

- 1992.1.9. 주러시아대사의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북한 핵사찰 문제 등에 대해 아래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도 제공함.
  - 러시아는 대북한 핵사찰 관련 모든 긍정적 사태의 발전을 환영하는 것이 기본입장
  - 중요한 것은 북한 측이 이러한 협정의 서명 및 비준을 선언하는 것보다는 협정상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러시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사찰이 중요함을 강조

2. 미·러 정상회담 시 러시아 측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평가(1992.6.17.)

- 미·러 양국은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환영
- 미·러 양국은 북한이 최근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조치(Initial Step)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유의
- 미·러 양국은 북한이 IAEA와의 의무를 이행하고 남북 상호사찰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3 중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52 / 7 / 1-53

1992년 중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북한 핵사찰 문제 관련 중국 입장(1992.3월)

-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면담 시 북한이 결국은 사찰에 응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더 이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함.

2. 1992.12.16. 주중국대사관 공사는 무대위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방문하고 중·러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표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무대위 부국장은 한국의 요청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조속한 실현'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3. 한·중국 원자력협정 체결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1.11.)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재로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과기처, 동력자원부 관계관 참석
- 회의 결과
  - 중국과의 평화적인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의 필요성 인정
  - 다만 협정 체결 추진은 미국 등 서방 관련 국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양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92-0135

북한 핵문제 : 우방국 협조. 전4권 (V.4 우방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 특수정책과
MF번호	2022-52 / 8 / 1-163

1992년 중 북한 핵문제 관련 우방국(EC(구주공동체)·아세안 회원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반응 관련 내용임.

1. 캐나다

- 1992.4.29. 맥두걸 캐나다 외무장관 주최 아세안그룹 대사를 위한 오찬에서 박건우 주캐나다대사는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장관과 별도 대화
  - 맥두걸 장관은 '…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여하에 따라 캐나다 외교정책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제15차 캐나다·북한 참사관급 접촉(1992.10.12., 베이징)

2. EC, 아세안 회원국 등

- 1992.5.5. 외무부는 일부 우방국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만 실시되면 북한과 관계 개선을 다소 성급히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아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도록 EC·아세안 회원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주재 공관에 지시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등 건설적인 자세 변화의 구체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성급한 대북한 관계 격상조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6.1. 반기문 외무부장관 특보(핵 통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주한 EC 및 아세안 국가 대사를 초치, 사찰 규정 협상 경위, 대북 총리 서한문 내용 및 남북 상호사찰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우방국의 협조 요청
- 6.4. 브뤼셀에서 개최된 EC 회원국 외무부 아주국장회의는 만족스러운 IAEA 핵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prerequisite)으로 결정하고, 이를 EC 정무 총국장회의(1992.6.17.~18., 리스본)에서도 강조

3. G-7(선진7개국) 정상회의 의장성명, 남북한 상호 핵사찰 촉구

- 1992.7.6.~8. 뮌헨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의장성명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
  - 남북한 간 대화 진전을 환영하며, 이러한 진전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희망을 주고 있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 IAEA 핵안전협정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남북한 상호 핵사찰이 시행되어야 함.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1 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2 / 9 / 1-155

1992.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관한 청문회 개최(1992.1.14.)

- 해리슨 카네기재단 선임 연구원
  - 북한 핵문제와 미·북한 관계 개선 문제의 연관성을 고려, 미·북한 간 외무장관 또는 차관회의 개최 권유
- 테일러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 북한의 태도 변화는 국내 경제의 악화 및 무력통일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도부의 자각에 기인
  - 미국 및 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및 인권 문제 등과 연계 추진
- 레벤탈 핵통제연구소 소장
  -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핵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 중단이 필요
- 쉰만 코넬대학 교수
  -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외에 남북한 간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함.
- 질의 및 응답
  - 북한은 최근 IAEA 핵안전협정 서명을 발표했으나 핵사찰에 응할 것인지는 불확실함.
  - 북한은 현재 식량 부족, 분배 체제 취약 및 소련 원조 중단 등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음.
- 평가
  - 남북한 간 합의서 채택 및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 미·북한 외무장관회의 및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보호 제거 제의 등은 미국의 북한 핵개발 저지에 대한 강박감을 대변

2. 1992.2.6.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핵 확산과 미국의 정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함.

- 북한이 핵문제에 관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미국의 정책은 한·미 동맹 관계 및 남북 분단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북한 핵무기 계획, 남북한 관계, 미국 및 주변 열강과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함.
  - 주한미군 제2단계 감축 동결 결정은 한국을 안심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고를 의미함.

92-0737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2 3-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2 / 10 / 1-143

1992.3~4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상원 청문회 증언

- 1992.3.31.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상원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아시아 순방 결과에 대해 증언한바, 한국 관계 발언은 아래와 같음.
  -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및 남북 상호사찰 문제가 협의되고 있으나. 북한은 상금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 남북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이후 각 분과위원회 및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등 일부 희망적인 조짐도 있음.
  - 북한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면 IAEA 및 남북한 상호사찰은 6월까지 실시 가능함.
  -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취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시간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솔로몬 차관보 증언에 대한 평가
  - 북한 핵문제 관련, IAEA 사찰 뿐 아니라 남북 상호사찰도 6월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한 제재 가능성 언급 등 핵사찰 수락에 따른 반대급부에 중점을 두어 발언함.

2. 1992.4.26. 국내 언론은 미 회계감사국이 4.23.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함께 동 보고서에 게재된 테일러 미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의 한국전 가상 논문 내용에 관해 상세히 보도함.

- 테일러는 북한의 남침 격퇴에 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전3권 (V.3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2 / 11 / 1-86

1992.5~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에 대한 내용임.

1.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의회 청문회 발언

● 솔로몬 차관보는 1992.7.9. 개최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의 질의응답 시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북 및 제1차 IAEA 임시사찰 결과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능력 보유 의도는 명백하나, 완전한 핵 재처리 능력을 갖추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이미 신고한 시설 외에도 IAEA 측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바 있어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남북 상호사찰은 군사시설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며, 특히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군비 통제 및 화해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1.22. 미·북한 고위접촉 시 미국 측은 IAEA 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시될 경우 뉴욕 등지에서 미·북한 간 정례적인 접촉 허용 입장을 전달함.
- 미·북한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미·북한 관계 개선에는 북한의 제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북한이 한국전 실종자 유해 송환, 대미국 비방 자제, 테러리즘 비난 성명 등 일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솔로몬 미 차관보 발언 분석 및 대책
-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블릭스 사무총장 방북 시 이를 기정사실화시켜 북한이 회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관찰되나,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상호사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음.
- 상호사찰의 특수한 역할 및 중요성을 들어 북한 개방화를 위해서는 기존 입장의 유지가 보다 유효한 점을 미국은 물론 여타 관계국과의 협의 시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1992.7.22. 블릭스 사무총장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함.

● 북한은 1990년 핵실험을 통해 그램 단위의 플루토늄 추출을 시인했으나, 그 이상의 추출은 부인함.
● 대형 재처리 시설을 건설 중인 북한은 중간 단계의 시험시설 존재를 부인하나, 이는 일반적인 산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북한의 핵개발 의혹 관련, 지나치게 놀랄 일은 아니나 섣부르게 안심할 상황도 아님.

92-0739

한반도 영공개방제도 적용 검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2 / 12 / 1-158

1991~92년 중 한반도 영공개방제도 적용 검토를 추진함.

1. 한반도 영공개방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1991.12.4., 외무부)

-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상호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1989년 이래 영공개방 문제를 논의해온 결과, 1992년 중으로 동 국가들 간 영공개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전망임.
- 이러한 영공개방제도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제도가 한국의 남북한 군축 기본 입장과 부합되고, 대북 영공개방 제의 자체로 얻는 정치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영공개방제도가 갖는 군사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상태의 남북관계에서 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동 제도가 갖는 정치·군사 신뢰구축 효과와 제의의 의의를 감안할 때 남북한 관계 발전에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이니셔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영공개방제도에 관한 실무 검토서에 따라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대북 영공개방 제의에 따른 군사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국방부, 안기부)와 협의가 필요함.

2. 영공개방제도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검토(1991.12.28., 국방부)

- 국방부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군사정보 교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 인사 상호 교류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과 동일한 차원에서 영공개방방안의 실현을 검토 중에 있음.
- 동 영공개방방안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고위급회담과 연계하여 차후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의제로 상정, 전반적인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유럽 25개국, 영공개방협정(Open Skies Accord) 조인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25개국은 1992.3.24. 헬싱키에서 영공개방에 관한 협정에 서명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국적취득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52 / 13 / 1-150

1.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 방한 초청

● 초청 경위
- 1991.3.4. 황승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주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하여 불가리아에 무국적자로 거주 중인 북한 유학생 출신 이상종을 1991.5.8.~19. 방한 초청함.

● 특기사항
- 동인은 불가리아 유학 중 1962년 북한 당국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불가리아에 거주 중인 4명의 북한 출신 유학생 중 1명임.
- 1990.3월 최호중 전 외무부장관 불가리아 방문 시 면담

● 조치 예정사항
- 동인이 극히 친한적 인사임을 감안,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방한 실현 적극 지원계획
- 한국 국적취득 희망에 대비한 필요사항 사전 검토

2. 북한 출신 무국적자 국적 취득

● 1991.3월 북한 출신 무국적자 이상종, 이장직 양인은 주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이와 관련한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안기부의 신원조사 경과는 문제점이 없음.
-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거한 한국적 취득은 제반 요건상 어려움(국방부 의견).
-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동인들에게 한국적 부여를 위한 일반적인 관계 법령이 미비한 점을 감안,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한국적 취득에 관한 관련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바, 동 지침이 확정될 경우 동인들의 한국적 취득 가능성은 열려 있음.

3. 공산권 거주 교포 국적처리 문제 관련 법무부의 대통령 보고사항(1991.12.24.)

● 수교국 내 북한적 소지자 및 무국적자
- 현재 사할린 동포에 한하여 영주귀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후 모든 대상자에 대해 일본 조총련에 준하여 재외국민등록 시 국민대우 부여

92-074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1 기본지침 개정, 1992.6.1.(국무총리훈령 제260호))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동북아2과 / 영사과
MF번호	2022-52 / 15 / 1-166

1991~92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1991.10월 정부는 9.30. 한국과 러시아(구 소련) 수교 이후 한·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점증하는 추세이나, 국민의 방한 초청에 대한 사전허가제로 인하여 한·러시아 간 인적 교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91.2.10., 국무총리령 제245호) 개정을 추진함.

2. 정부는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제8차 회의(1992.3.20.) 및 관계부처 회의(1992.3.11.) 결과에 따라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함(1992.6.1., 국무총리 훈령 제260호)
   - 주요 개정 내용
     -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및 미수교 특정 국가 방문자에 대한 특별 보안교육을 1992.6.1.부터 폐지함.
     - 북방사회주의 국가 국민의 초청허가제를 사증발급 인정제로 개선함.
     - '북방사회주의 국가' 명칭을 '특정 국가'로 변경함.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2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동북아2과 / 영사과
MF번호 2022-52 / 16 / 1-113

1991년 중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 및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에 대한 정부의 잠정적 지침임.

1. 1992.7.15. 정부는 한국과 북방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여행 목적도 다양해짐에 따라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89.5.20., 국무총리 훈령 제239호)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인 지침을 마련함.

- 한국과 중국의 입출국자: 1987년 1,700명, 1989년 23,000명, 1990년 57,000명

2. 주요 내용

- 한국인의 특정국 여행허가
  - 단수일 경우 여행기간을 90일 이하로 명시하고, 한국인이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능한 복수를 허가함.
  - 미수교국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특정국 여행허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보안교육 사전 실시를 검토함.
  - 미수교국 주재 상사원과 가족의 여행허가 규정을 마련함.
- 특정국 국민의 입국 허가와 비자 발급
  - 초청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미만은 공관장이 발급함.
- 중국 및 사할린 거주 한국 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문제를 검토함.

92-074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3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동북아2과 / 영사과
MF번호	2022-52 / 17 / 1-163

1992년 중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 및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지침에 대한 정부의 개선 내용임.

1. 정부는 1991.12.31. 한·중 무역협정 체결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해 1992.2.10.부터 상업 목적의 중국 여행자에 대해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단수여행 허가 절차
  - 여행자는 코트라에 보안교육 신청 및 이수(2년 유효)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여권과는 가능한 조속히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
- 복수여행 허가 절차
  - 여행자는 코트라에 보안교육 신청 및 이수(2년 유효)하고, 상공부에 중국 복수여행 추천신청서를 제출함.
  - 여행자는 외무부 여권과에 복수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과는 1년 단위 복수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
- 복수여행 허가 대상자
  - 현지 주재 상사원과 동반가족, 중국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등

2. 정부는 1992.6.1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령 제245호)의 개정을 사유로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을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특별보안교육의 폐지로 동 교육 관련 항목을 삭제
  - 민간인의 경제활동 목적 여행의 경우 코트라에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외무부에 제출하도록 함.
  - 사용 용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특정 국가'로 대체함.
  - 러시아연방 12개국 중 조지아(구 그루지야)는 '미수교 특정 국가'로, 러시아 등 기타 11개 국가는 '수교 특정 국가'로 세분함.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전4권 (V.4 기본지침 개정, 1992.12.10.(국무총리훈령 제269호))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 동북아2과 / 영사과
MF번호 2022-53 / 1 / 1-232

1992년 중 정부의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1992.8.4.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이 '미수교 특정 국가'에서 '수교 특정 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10.24. 외무부, 법무무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인의 중국 여행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중국 여행절차 개선방안은 신중히 수립하기로 함.

2. 정부는 1992.10.30.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 국민의 한국 입국 관련 사증발급 절차의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결과, 한국의 대중국 및 대CIS 국가와의 인적 및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사증발급인정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함.

3. 정부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들의 특정 국가 방문이 급속히 증가 추세임에 부응하여 중국 및 미수교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허가제 개선방안을 1992.12.14.부터 시행하기로 함(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269호).
   - 특정 국가의 구분
     - 미수교 특정 국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조지아(구 그루지야) 5개국
     - 수교 특정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
     - 미수교 특정 국가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수교 특정 국가: 중국
   - 복수여행허가제 확대
     - 방문국으로부터 장기체류사증을 소지한 자
     - 여행 국가와 연간 교역액 50만 달러 이상 혹은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
     - 여행 국가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 중국 여행의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90일 이하 한국인의 단수여행 허가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여행 목적별 구비 서류를 명시함.

92-0745

비동맹 15개 개도국 정상회담(G-15). 제2-3차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남미과
MF번호	2022-53 / 2 / 1-83

1991~92년 중 제2~3차 비동맹 15개 개도국 정상회담이 개최됨.

1. 제2차 회담(1991.11.27.~29.,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회의 목적
  - 회원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 자카르타 개최 비동맹 정상회의 예비회담
- 회원국(15):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자메이카, 유고,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짐바브웨
- 의제: 환경보호 문제, 경제협력, 유엔 구조조정(제3세계 개발 중점)

2. 제3차 회담(1992.11.21.~23., 세네갈 다카르)

- 회의 목적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남남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 세계적 탈이데올로기 실리주의 경향 대처방안 마련
- 회원국(15):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자메이카, 유고,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짐바브웨
- 공동성명서 요지(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 냉전종식 및 군축 확대로 군사 분야 경비 감축, 평화배당금 차원의 개도국 발전지원비 증대
  - 집단안보 개념이 아닌 사회경제발전을 포함하는 광의의 집단보장 개념 도입
  - 상호의존성 및 이해관계의 호혜성을 인식하는 진정한 신국제 질서 확립 지지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제10차. Bali(인도네시아), 1992.5.12.-15.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3 / 1-158

1992.5.12~15. 인도네시아(발리)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관련 내용임.

1. 세부 일정

- 운영위원회 회의(5.12.)
- 고위실무자 회의(5.13.)
- 각료회의(5.14.~15.)

2. 참석자

- 78개국 외무장관 또는 각료급 인사
  - 북한은 김영남 외교부장 참석
  - 한국은 김재춘 주인도네시아대사 및 오윤경 주유엔대표부 공사가 현지 교섭단으로 참석

3. 참고사항

- 1992.9.1.~6. 개최되는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잠정 의제 등 확정 예정
- 현 의장국인 유고에서 개최되어야 하나 유고 국내사정으로 차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대신 개최

92-0747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제10차. Bali(인도네시아), 1992.5.12.-15. 전3권 (V.2 5-6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4 / 1-165

1992.5.12.~15.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결과 내용임.

1. 주요 의제 및 결정 사항

- 유고사태 등 지역분쟁, 비동맹의 진로 설정,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
-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의 회원국 가입 및 중국의 옵서버 참가 승인
- 최종문서는 채택하지 않고 토의 결과를 반영한 회의 보고서를 인도네시아가 추후 배포

2. 한반도 문제

- 인도네시아 작성 최종문서 초안에 '한반도 정세 진전을 환영하고 자주·평화·민족 단결에 기초한 통일 희망' 요지의 한반도 조항 포함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잠비아 등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조속한 통일실현 희망' 요지의 수정안 제출
- 최종문서 불채택으로 여타지역 문제들과 함께 자카르타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3. 북한대표단 동향

- 김영남 외교부장 등 10명의 대표단 참석
- 정치문제 위주의 비동맹노선 견지를 주장, 경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반적 분위기와는 유리된 입장 표명
- 한국의 비동맹 참여(옵서버 또는 게스트) 문제에 비상한 관심 표출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제10차. Bali(인도네시아), 1992.5.12.-15. 전3권 (V.3 회의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5 / 1-133

1992.5.12.~15.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회의 관련 자료임.

1. 비동맹조정위 각료회의 초청장(인도네시아 외무성)

2. 비동맹조정위 각료회의 의제 초안(인도네시아 외무성)

3. 비동맹조정위 각료회의 발리 선언문(인도네시아 외무성)

4. 한반도 조항 관련 수정안

5.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및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연설문

92-0749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1 기본대책 I : 2-7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6 / 1-198

1992.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기본대책 관련 내용임.

1. 전망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분위기에 맞추어 탈이념 추세 강화
- 개발 등 실질 문제 해결에 주력, 77그룹과의 협력관계 강화 예상

2. 세부 일정

- 1992.8.27.~28.: 고위실무자 준비회의
- 1992.8.29.~30.: 외상회의
- 1992.9.1.~7.: 정상회의

3. 한국 기본 입장

- 남북한 간 외교적 대결은 가급적 피하되 북한의 반한 책동은 단호 대응

4. 한반도 문제

-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상회담 최종문서에 한반도 조항 포함 예상
-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는 아래 요지의 문안 채택 추진
  - 최근의 남북한 간 협력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정세 발전 환영
  -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한민족의 통일 열망이 조속 실현되기를 희망

5. 한국의 비동맹 게스트(빈객) 참여 문제

- 배경: 외교영역 확대 및 비동맹권과의 유대강화 차원에서 비동맹 참여 문제 검토
- 정회원국 가입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게스트 참여 가능성 모색
  - 게스트는 비동맹 공식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나 발언권은 없음.
- 금번 자카르타 정상회의에서는 게스트 참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2 기본대책 II : 8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7 / 1-111

1992.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기본대책 관련 내용임.

1.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문서안 주요 내용

- 국제정세 개관
- 신국제 질서에서의 비동맹운동 역할
- 유엔의 재구축, 재활성화 및 민주화
- 탈냉전시대에서의 국제 안보 및 무장해제
- 환경과 개발, 인권 문제
- 동남아, 한국, 아프간, 팔레스타인 등 지역 문제
- 비식민지화, 난민 문제, 마약 남용 및 불법거래 문제
- 국제 테러
-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 국제무역
- 개발원조, 부채 및 통화 문제
- 남남협력
- 식량 및 농업
- 인적자원개발 및 인구 문제
- 여성·청소년·유아·보건 문제

2. 정부는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문서 한반도 조항의 객관적 반영을 위한 현지 교섭단을 아래와 같이 파견함.

- 대표단: 김재춘 주인도네시아대사, 금정호 외무부 국제기구 심의관, 이윤복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 송민순 주싱가포르대사관 참사관
- 활동 지침
  - 최종문서 한반도 조항 관련 한국 입장 관철
  - 비동맹 향후 진로 설정 등 전반적 회의 동향 파악
  - 북한대표단 활동 동향 파악
  - 한국 정부의 대비동맹 관계 설정 관련 참고사항 수집

92-0751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3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8 / 1-135

1992.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결과임.

1. 참가국

- 108개 회원국 중 99개국(60개국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 유엔사무총장)

2. 주요 의제

- 국제정세 검토, 신국제 질서하에서의 비동맹운동 역할
- 유엔 재편, 활성화 및 민주화
- 국제 안보 및 군축
- 개발, 환경, 인권 등 새로운 국제 관심사

3. 주요 결정내용

- 신규회원국 가입: 필리핀, 미얀마, 브루나이(태국,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는 옵서버국 가입)
- 중동, 남아공, 소말리아 사태 등에 대해 비동맹권의 기존 입장 재확인
- 유엔 민주화를 위한 총회 권능 강화로 총회, 안보리, 사무총장 간 균형적 관계 정립 촉구
- 합의문서: 자카르타 메시지, 최종 성명, 결의안 및 최종문서 등 4개 문서 채택
- 7·4 공동성명 3원칙에 입각한 통일 지지, 남북 기본합의서 등 2개 문건 채택, 환영 요지의 한반도 조항 문안 채택

4. 분석 및 평가

- 신국제 질서 형성과정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비동맹 의지 표명에 일단 성공
- 향후 정치보다는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는 실용주의 노선 추구 예상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4 지지교섭 I : 중동아프리카)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9 / 1-102

1992.8.12. 외무부는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에 대해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문서 한반도 조항의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한 지지교섭을 지시함.

1. 지지교섭 내용

- 7·4 공동성명 3원칙에 입각한 통일 지지, 남북 기본합의서 등 2개 문건 채택, 환영 요지의 한반도 조항 문안이 수정 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재국 지지 발언 요청
-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주재국 정부의 정상회의 최종문서 논평 요청이 있을 경우 한반도 조항이 적절한 내용이라는 입장 개진

2. 중동아프리카공관 결과 보고내용

- 한반도 조항 무수정 채택 주재국 정부 지지 확보
- 정상회의 참석 주재국 대표단(수석대표 포함) 명단

92-0753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5 지지교섭 II : 아주 등)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10 / 1-101

1992.8.12. 외무부는 아주·미주·구주지역 공관에 대해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최종문서 한반도 조항의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한 지지교섭을 지시함.

1. 지지교섭 지시내용

- 7·4 공동성명 3원칙에 입각한 통일 지지, 남북 기본합의서 등 2개 문건 채택 환영 요지의 한반도 조항 문안이 수정 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재국 지지 발언 요청
-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주재국 정부의 정상회의 최종문서 논평 요청이 있을 경우 한반도 조항이 적절한 내용이라는 입장 개진

2. 아주지역공관 결과 보고내용

-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의 비동맹가입 추진 동향
- 한반도 조항 무수정 채택 주재국 정부 지지 확보
- 정상회의 참석 주재국 대표단(수석대표 포함) 명단

3. 미주·구주지역공관 결과 보고내용

- 유고 사태 관련, 이슬람 비동맹국가들의 유고의 비동맹 의장국 조기 사임 추진 동향
- 한반도 조항 무수정 채택 주재국 정부 지지 확보
- 정상회의 참석 주재국 대표단(수석대표 포함) 명단

비동맹 정상회의,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92.9.1.-6. 전6권 (V.6 최종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3 / 11 / 1-169

1992.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자료임.

1. 정상회의 의제
   - 세계적 이슈
   - 정치적 이슈
   - 경제·사회적 이슈

2.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개막 연설문

92-0755

비동맹 아프리카 기금위원회, 제10차. Cairo(이집트), 1992.5.3.-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2-53 / 12 / 1-93

정부는 1992.5.3.~7.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 아프리카기금위원회 회의에 박동순 주카이로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 정부의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지원 현황

- 1988~89년: 모잠비크 40만 달러(군화)
- 1990년: 앙골라 20만 달러(가축 의료기구 및 약품)
- 1991년: 짐바브웨 20만 달러(앰뷸런스)

2. 정부 훈령

- 각국의 비동맹 아프리카기금회의 참가 동향 및 최근 남아공 정세와 관련한 동 회의의 입장 변화 파악
- 동 회의 참가 미수교 전선국가(짐바브웨, 모잠비크) 대표 접촉, 양국관계 개선방안 협의
- 북한대표단 동향 파악

3. 한국대표단 활동 내용

- 한국 정부의 1992년 비동맹 아프리카기금위원회 지원계획 통보
  - 탄자니아에 2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지원 등
-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미수교 전선국가 대표들을 접촉, 한국의 대탄자니아 수교사실 전달 및 기금공여 실적을 설명하고 양국관계 개선 의사 타진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53 / 13 / 1-222

1992년 중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관련 내용임.

1. CRS(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 정책보고서

- 1992.6.9. 로버트 슈터 연구원 작성
- 주요 내용
  - 북한의 핵문제 등 한미 관계 현황을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한국 정책방안 제시
  - 미국의 현 대한국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 조야의 심각한 분위기 반영

2. 미 합참의 1992년 미 군사력 평가보고서

- 미 합참은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제출되는 연례보고서인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1992.9.15. 미 의회에 제출
- 한반도 관련 내용
  - 작년에 이어 한반도 위기 발생 시의 대응능력을 '적정(adequate, 1991년도에는 good로 표현)'으로 평가함.
  -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사시 대규모 수송 능력과 전략물자 비축 필요성 강조

3.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신정부 외교정책 건의

- CSIS는 금년도 대통령 선거 결과 수립될 신행정부에 대한 대외정책 건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Agenda 1993: CSIS Policy Action Papers)를 개최
- 북한 핵문제 관련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의 건의사항
  - 미국 신행정부는 남북한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할 정부대표단 파견
  - 1회에 한한 남북한과 미국 간 고위 3자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동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신속히 2+2 주변국 회담방식을 대안으로 추진

92-0757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53 / 14 / 1-124



1. 이시카와 일본 방위청장관 동남아 순방(1990.4.30.~5.6.)

- 호주 방문(5.1.~2.): 레이 국방장관과 회담
  - 아태지역 미군 문제,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 일본·호주 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 태국 방문(5.3.): 차티차이 수상 및 차일리트 국방장관 면담
  - 일본 군사 대국화 문제, 일본·태국 군사협력 문제 협의
- 말레이시아(5.4.~5.): 리타우신 국방장관
  - 말레이시아 측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에 우려 표명

2. 미·일 안보조약 개정 30주년(1990.6.23.) 관련 동향

- 가이후 일본 수상과 부시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및 공동성명 발표
  - 안보조약이 미·일 관계 발전 및 아태지역 안전에 기여한 역할 평가
- 아베 자민당 전 간사장, 일본 정부 특사로 미국 방문
  - 베이커 국무장관, 체니 국방장관 면담 등

3. 일본의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 채택

- 1990.12.19. 일본 정부, '1991년도 이후의 방위계획의 기본사고'를 정식 채택
- 12.20. 일본 정부,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 채택

4. 일본 정부, 1991년도 방위백서 채택(1991.7.26.)

- 1991년도 일본 방위비 약 312억 달러로 서방 국가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위

5. 일본 정부, 1992년도 방위백서 채택(1992.8.7.)

- 동서 대립의 종결로 세계적 전쟁 가능성 희박, 지역분쟁 위험성 대두
-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 요인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 및 미사일 개발 움직임은 일본 주변 정세의 불안정 요인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문제. 전2권 (V.1 1월-6.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53 / 15 / 1-153

1. 배경

- 걸프전 당시의 인적기여 부재에 대한 미국 등의 비판적 시각을 배경으로, PKO(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PKO 협력법안의 입법을 추진

2. 경위

- 1991.9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PKO 참여절차 등을 법제화하는 PKO 협력법안(약칭)을 국회에 제출
- 1992.6.1. 자민당, 공명당, 민사당 3당은 동 법안의 공동수정안 제출
- 1992.6.9. PKO 협력법안 참의원 본회의 통과

3. 법안 골자

- 조직: PKO 협력본부 및 상설사무국 설치
- 국회승인: 평화유지군 파견 여부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국회가 휴회 중이거나 해산된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함.
- 파견조건: 분쟁당사자 간 정전 합의 성립, 분쟁당사자의 동의, 활동의 중립성 보장
- PKF(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중 참여 동결 분야
  -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단위부대의 참가를 필요로 하는 PKF 본체 활동 및 PKF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 중 PKF 본체 활동과 분리되기 어려운 활동에의 참여는 동결

4. 한국 외무부 당국자 논평 보도자료 요지

-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견 움직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옴.
-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의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람.

92-0759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문제. 전2권 (V.2 6.10.-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53 / 16 / 1-152

1. **외무부는 1992.6.19.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야나기 주한 일본대사가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면담하였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아래 요지로 주일본대사관에 통지함.**
   - 야나기 대사는 본국 훈령이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평화헌법 하에 전수방위에 철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생각임을 전달함.
   - 이상옥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서 과거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다루어주기를 누차 표명해왔다고 언급함.
     - 또한 금후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계속 신중히 다루어주기를 요청함.

2. **주일본대사는 1992.8.3. 일본 정부가 8.4. 소집될 국무회의에서 8.10.부터 PKO 법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3. **주일본대사는 1992.9.8. 일본 국무회의는 PKO 실시계획(정령)을 채택하였다고 하고, 동 계획은 9.11. 공표,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고함.**

미국의 국방정책. 전3권 (V.1 1-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3 / 17 / 1-169

1. 미 합참의 국가 군사 전략보고서

- 발표 일시: 1992.1.29.
- 한반도 관련 내용
  -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필요하게 하고 있는바, 주한 미 지상군 및 공군 병력의 감축 속도는 북한의 행동과 핵 협상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군의 능력향상으로 현재 주한 미 지상군 숫자가 1개 사단 이내 병력으로 감축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공군도 한국, 일본을 합쳐 2~3개 전투비행단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미 국방부 연례 국방정책 보고

- 주미국대사관 사전입수: 1992.3.1.
- 한반도 관련 내용
  -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이 지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임.
  -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상 의무이행 공약 확고

3. 하원 외무위원회 청문회(1992.3.4.)

- 한반도 관련 내용(Powel 합참의장)
  - 공군력은 가장 신속하게 이동시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미국은 북한의 저지만이 아니라 북한을 격퇴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지상군이 필요하게 되는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음.

92-0761

미국의 국방정책. 전3권 (V.2 4-5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1 / 1-145

1.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1992.4.1.)

● 한반도 관련 내용(Carl Ford 국방부 국제안보문제 부차관보)

- 1993~95년 주한미군을 추가 철수하려던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으로 연기된바,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분명히 핵폭탄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의 목적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협정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사찰을 통해 무기제조, 원료생산 능력을 완전히 봉쇄(total ban)하는 것임.

● 북한 핵 관련 내용(Les Aspin의원)

- 북한은 이라크의 핵무기 확산위협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구소련연방의 핵무기 제조기술 및 핵무기 제조원료가 북한, 이라크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됨.

2.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관련 청문회(1992.5.8.)

● 북한 관련 내용

-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긴박한 안보 우려사항이며, 중동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음.
- 북한은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무기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은 중동 도처에 있음.

3.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예산 청문회(1992.5.21.)

● 한반도 관련 내용(Cheney 국방장관)

- 미국이 제2차 대전 후 해이한 안보관으로 한국전을 당하였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월남전과 1970년대 말에도 계속되었음을 유의하여,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또다시 중대한 실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미국의 국방정책. 전3권 (V.3 6-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2 / 1-115

1. 미 상원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청문회(1992.6.9.)

● 주요 내용(Lillye 국방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 걸프전에서 얻은 집단적 조치의 중요성은 유엔의 역할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PKO의 역할은 단순한 휴전감시 기능을 넘어 대량살상무기 파괴와 확산감시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유엔안보리의 집단안보기능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PKO를 포함한 유엔의 집단안보 조치가 미국 안보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외교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님. 1950년 한국전에서 얻은 교훈은 북한의 야심을 저지시킨 것이 결국 미국의 개입이었다는 점과 그 후 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임.

2.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1992.6.18.)

● 주요 내용

- (Kenneth Pyle 워싱턴대 교수) 미·일 동맹 관계를 냉전시대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일본이 보다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함.
- (Nicholas Lardy 워싱턴대 교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안보정책의 첫째 목표는 개방된 교역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며, 둘째 목표는 일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일본의 쌍무원조를 줄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92-0763

한·몽골 군사·안보협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2-54 / 3 / 1-56

1991~92년 중 한·몽골 간의 군사·안보협력을 추진함.

1. 몽골 국방부차관 일행 방한(1992.3.24.~31.)

- 몽골대표단
  - 단장: 국방부 제1차관 겸 참모장 R. Gavaa 준장
  - 단원: 국방부 대외관계 국장 A. Suhbaatar 중령
- 방한 목적: 양국 국방부 간 상호 이해 증진, 관계 수립 및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교환
  - 몽골군 상황 설명, 동북아지역 군사·정치적 상황 의견교환
  - 한국군의 지휘 행정 상황 파악, 한·몽골 국방부 간 협력에 관한 의견교환
  - 국방부 주요인사 예방, 일반 군수품 공장 방문 등
- 주요 일정
  - 국방부 장·차관 및 합참의장 예방, 군수본부 및 군인공제회 방문
  - 군수공장 및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포철 및 현대조선소 시찰
  - 경복궁·국립박물관 관람, 민속촌 관광, 전방 시찰

2. 군인공제회 인사 몽골 방문(1992.5.27.~31.)

- 방문 경위: R. Gavaa 몽골 국방부차관 방한 시 국방부 측은 의류 봉제, 신발, 합성수지(PVC) 제품 생산업체 설립 추진 문제를 협의한바, 이와 관련한 현지조사단 파견계획의 일환
- 방문자(5명)
  - 홍대권 군인공제회 이사장(예비역 소장), 구상모 대신기업(주) 사장(예비역 준장), 김문웅 오리엔탈(주) 사장(예비역 준장), 이봉희 제일제화 사장(예비역 준장), 군인공제회 개발과장
- 주요 일정
  - 의류 봉제, 신발 제조, 합성수지시설 시찰
  - 합작사업 검토 자료수집: 몽골 정부의 투자정책 방향, 투자 환경(세금제도, 금융, 전기, 수도, 연료, 수송조건, 임금수준 등) 및 의류·신발·합성수지 제품의 시장 여건 등
- 군인공제회 실사팀(구상모 사장 외 3명), 1992.8.17.~22. 몽골 방문

중국의 군사·안보동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북아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4 / 5 / 1-93

1991~92년 중 중국의 군사·안보 주요 동향임.

1.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무기수출 3원칙 발표(1991.7.6.)

- 무기수출의 목적은 무기 수입국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 무기수출 시 지역 내 세력 균형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무기수출을 통해서 타국의 내정에 간섭을 시도하지 않음.

2. 이붕 중국 총리·가이후 일본 수상 회담(1992.8.10.)

- 주요 언급 내용
  - 이붕 총리, 중국의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 의사 표명
- 배경
  - 1991.6월 프랑스의 NPT 가입 의사 표명으로 대중국 가입 압력 가중
  - 미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에 장애 제거
  - 최근 미·러시아 간 START(전략무기협정) 서명으로 강대국 간 전략 핵무기의 실질적 감축 시대 도래
- 의의
  - 프랑스와 중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2개의 핵보유국인바, 양국의 NPT 가입 실현은 NPT의 보편성을 증진하고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
  - 신국제 질서 속에서 다자간 군축협상 촉진 분위기 조성
  -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조기 체결 및 이에 따른 사찰 의무 부담 가중

92-0765

한·미국 LORAN-C 운영 협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7 / 1-176

1. LORAN-C 운영 관련 한·미 회의(1992.1.17., 해운항만청)

- 참석자
  - 한국 측: 김재국 해운항만청 표지과장 외 7명
  - 미국 측: W. Rhrall 해안경비대 전파표지과 부과장 외 8명
- 주요 협의사항
  - 해운항만청의 LORAN-C 사업계획 설명
  - 통제권 인수 협의
  - 통신망 구성, 장산 감시국 운영 등

2. LORAN-C 운영 관련 한·미 회의 참가 요청

- 일시 및 장소: 1992.8.18. 09:00
- 장소: 용산미군부대 내 회의실
- 회의 안건: 동아시아 LORAN-C 체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LORAN-C 국제협력체인협정 체결

- 협정 체결일: 1992.9.7.
- 체결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 협정 서명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4개국)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4차. Washington D.C., 1992.10.7.-8. 전2권 (V.2 공동성명)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9 / 1-143

1992.10.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국 SCM(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 안보정세 평가(2~3항)
  - 세계적 화해·협력 추세 불구, 지역적 불안 요인은 상존
  -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동북아, 더 나아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
  -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
- 북한 핵문제 해결 공동노력(4~5항)
  -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에 대해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상호사찰 수용 촉구
-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확인(6항)
-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및 역할 조정(7~9항)
  - 북한 핵문제 해결시까지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제2단계(93~95년) 주한미군 추가 감축 계속 유보
  - 1994년 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에 이양
  - 남북관계, 특히 상호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 훈련 준비 조치 계속
- 방위비 분담(10항)
  - 1993년도 방위비 분담 2.2억 달러 합의
  - 19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 1 / 3 부담 원칙 재확인
- 장기적 한·미 안보협력 모색(11~12항)
  - 21세기에 있어 한·미 안보 동맹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 전망
  - 현 휴전협정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유지

92-0767

필리핀 주둔 미국 특수작전부대 한국 이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10 / 1-40

1991~92년 중 필리핀 주둔 미국 특수작전부대의 한국 이전 관련 내용임.

1. 미국 국방부 정례 브리핑(1991.9.10.)

- 미국의 필리핀 수빅기지 사용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국 및 일본이 대체기지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Pete Williams 대변인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동 국가들과 적절히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답변함.

2. 필리핀 주둔 미국기지 관련 미국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청문회 시 필리핀기지 폐쇄가 아태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Solarz 의원의 질의에 대한 Ford 국방부 부차관보 답변(1991.9.25.)

- 중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인접성에 비추어 동 지역에서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가능성, 특히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발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할 것임. 따라서 일본, 하와이 및 한국에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긴요함.
- 필리핀 수빅기지 폐쇄가 한국 및 일본 주둔 미군의 병력 구조나 상비군 유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3. 재일본 미군 사령부 및 가데나 미공군기지 제18항공대 보도부 발표(1992.1.31.)

-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종래 "전투"에서 "수송" 기능으로 변경 및 재편
  - 제353항공대 헬기증대를 한국으로 이전 배치
  - 가데나기지는 보급기지로 전환하여 기능을 강화
-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일환으로 배치된 일본 주둔 미군 중 4,700명을 삭감, 이중 오키나와 주재 미해병대를 중심으로 2,000명 이상 철수 예정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2권 (V.1 1-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4 / 11 / 1-152

1992.1~3월 중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임.

1. 미 합참의 국가 군사 전략보고서(1992.1.29. 발표)

● 한반도 관련 사항
- 태평양지역에 걸린 미국의 이익은 막대하므로 동 지역의 미군전진배치(forward presence)는 여전히 중요함.
-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필요하게 하고 있는바, 주한 미 지상군 및 공군 병력의 감축 속도는 북한의 행동과 핵 협상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것임.

2. FY93 국방예산 관련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1992.1.31.)

● 주요 내용
- (Cheney 국방장관) 1992.12월까지 필리핀을 포함, 동아시아로부터 2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임.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추가 철군계획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 예정임.
- (Powel 합참의장) 작년 말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는 건설적이고 고무적인 발전이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 계속 우려를 갖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 Cheney 장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함.

3. 상원 군사위원회 미 군사 전략청문회(1992.3.4.)

● 주요 내용
- (Larson 사령관) 주한미군의 역할은 주도적 안보유지 역할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Riscassi 사령관)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김일성 후계 문제, 주한미군 추가 철수가 세가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기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함.

92-0769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2권 (V.2 4-1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4 / 12 / 1-188

1992.4~11월 중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임.

1. 1992.4.16. Cheney 미국 국방장관은 해군협회 모임 연설 중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주도세력이며 계속해서 그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 동인은 4.25.경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 남서부 태평양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며, 한국 및 일본 주둔 미군의 부분적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 지역안보에 대한 공약과 미군배치는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부분이라고 강조
- 미국은 필리핀기지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전진배치를 계속할 것이며, 한국, 일본 등 우방국에게 더 많은 책임분담을 요구해 나갈지언정 태평양지역에서의 과도한 미군 감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2. 아·태 전략에 관한 RAND 연구소 보고서

- 발간 일자: 1992.9.15.
- 주요 내용
  - 아태지역의 안보환경 평가
  - 아태지역 배치 미군의 장래에 대한 시나리오
  - 상기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 정책적 제안
- RAND 연구소는 서문을 통하여 동 보고서가 1990.4월에 발표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연장한 것이라고 자평함.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13 / 1-42

1.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 배경
  - 한국 정부는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여건의 조성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기로 결정함.
- 국방부 발표내용
  - 1992.1.7.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미 정부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정부의 추가설명
  - 동 훈련 중지 결정은 우선 금년에 한한 것으로 만일 북한이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핵개발 포기를 확인하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계속될 수 있음.

2. 북한의 발표내용

- 외교부 성명(1992.1.7.)
  - '가까운 시일' 안에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가장 빠른시일'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 비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기로 결정함.
- 북한 조평통 성명(1.8.)
  - 남조선 당국은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올해만 중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만두어야 하며, '림팩' '독수리'를 비롯한 다른 모든 대규모 군사연습들도 그만두는 전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92-0771

한·미국 안보협력 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4 / 19 / 1-24

1. U-2기 실종 문제

- 주미국대사관은 1992.1.16. 동일 미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작일 U-2기 실종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고 보고함.
  - 1.15. 22:45경(미 동부시간) 한국 해군함정이 동해안으로부터 10여 마일 떨어진 동해상에서 U-2기 동체 일부를 발견함.
  - 1.16. 03:00경 U-2기 조종사 사체 발견, 조종사 성명은 Jamesm Mcgregor이며,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9전략 정찰비행단 2편대 소속임.
  - 동 기체의 추락 사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기계적 결함(Mechanical Problem)에 의한 추락사고로 추정됨.

2. 해군훈련참관단 승선에 관한 미국의 정책 재조정

- 경위
  - 미국은 해군훈련참관단 승선 문제와 관련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변경내용을 비공식문서(non-paper)로 한국 측에 통보해 옴.
- 신정책 내용
  - 금후 미국은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시 사안에 따라 합동해군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도 참관을 초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미국이 직접 참가하지 않는 해군훈련에 대해서도 참관 초청을 받아들일 것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5 / 1 / 1-145

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회의(1992.5.25.~27., 브뤼셀)

- NATO 신전략 지침 논의
  - 새로운 NATO 전략 지침에 합의
  - 역외 우발적 핵 위협에 대한 선별적 핵 사용으로 핵무기의 정치적 통제 강화
  - NATO 평화유지활동 확대: 신속 대응군 강화 및 평화유지군으로서 역외 파견방안 승인

2. NATO 외무장관회의(1992.6.4.~5., 오슬로)

- NATO 16개국 외무장관들은 1992.6.4. 공동성명을 채택, 향후 NATO가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테두리 내에서 유럽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합의
- 6.5. NATO 16개국과 CIS(독립국가연합) 및 동유럽 21개국 외무장관 간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에 관한 추가의정서 서명
  - 대서양과 우랄산맥 간 전 유럽지역에서의 재래식무기의 대폭 감축 규정

3. NATO 핵 기획단 회의(1992.10.20.~21., 스코틀랜드)

- NATO 핵 기획단(Nuclear Planning Group) 회의 최종 성명서

4. NATO 이사회(1992.12.17., 브뤼셀)

- NATO 16개국 외무장관이 참석, 유고 사태를 위시한 NATO의 평화유지 임무, NATO와 CSCE, WEU(서유럽연합) 등 지역 안보기구와의 관계, 환대서양 안보협력의 중요성 및 군비통제 문제 등을 협의하고 24개항의 Final Communique와 10개항의 유고 사태에 관한 Statement 발표

5. NATO 관련 자료

- The New Security Context
- The Future of the Armed Forc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 Alliance Security
- A European Security Identity after Rome and Maastricht

92-0773

WEU(서유럽연합)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55 / 2 / 1-115

1. WEU(서유럽연합) 연혁

- 1948.3월 브뤼셀에서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독일의 침략정책 부활 방지를 위해 창설
- 1954.10월 초기 설립 목적을 수정하여 국방·안보정책 및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력 증진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 서독, 이탈리아가 가입하고 1955.5월 회원국의 비준서 기탁 완료로 정식 발족되었으나, 1960.6월 사회·문화 분야를 CE(구주이사회)에 이양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 강화에 따라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재

2. WEU 역할 강화

- 최근 유럽 각국의 독자방위체제 수립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그 역할을 강화함.
  - 1988.11월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 1991.12월 마스트리흐트 EC(구주공동체) 정상회의 시 WEU를 통합 EC의 방위기구로 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런던 소재 WEU 사무국의 브뤼셀 이전(1993.1월 완료 예정)에 WEU 독자군 창설을 위한 군사기획단 발족 등 실질 군사기구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3. WEU 회원국 확대

- WEU 정례 각료이사회(1992.11.20., 로마)에서 그리스를 정회원국으로, 튀르키예·노르웨이·아이슬란드를 준회원국으로, 덴마크·아일랜드를 옵서버로 각각 가입시키기로 합의함.
- 상기 합의로 EC 회원국 중 WEU 비회원국인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등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향후 EC 방위기구로서의 WEU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아울러 NATO와 WEU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WEU의 유럽 내 독자적인 위상 확보와 함께 향후 유럽방위기구로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전2권 (V.1 1-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5 / 3 / 1-244

1. 제2차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외무장관회의(1992.1.30.~31., 체코 프라하)

- 참가국: 38개 회원국(기존 34개 회원국, 알바니아, 발트 3국)
- 주요 의제
  - CSCE 기구 및 조직 발전방안, 신규 회원국 가입
  - 1992년 CSCE 정상회의 시기(1992.6~7월 예정, 헬싱키), 제4차 CSCE 후속회의 전개 방향
- 주요 결과
  - 프라하 Document 채택: CSCE 기구 및 조직 강화 노력, 만장일치제의 예외 인정
  - 10개 CIS(독립국가연합) 참가 공화국 신규 가입(회원국 48개로 확대)
  - 재래식무기 확산 억제에 관한 성명 채택
- CSCE 제2차 외무장관회의 주요국 연설문 수록
  - 체코 대통령, 미 국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 독일 외무장관, 프랑스 유럽문제담당장관 연설문

2. CSCE의 CSBM(신뢰안보구축조치) 협정안 채택

- 1992.3.4. CSCE 48개 회원국 대표는 1989.3월 이래 진행해 온 CSBM 실무협상을 종결하고 아래 요지의 협정안 채택
  - 주요 군사정보 교환 상세규정
  - 군사활동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자발적 사찰실시 권고
  - 군사활동 관련 강제 조항 강화
  - CSBM 적용지역을 CIS 중앙아지역 구성국 5개국까지 확대

3. 제4차 CSCE 후속회의(1992.3.24.~26., 핀란드 헬싱키)

- 개최 배경: 1990.11월 파리 정상회의 결정(2년 1회 개최)
- 주요 회의 동향
  - 기조연설: 미·영·불·독 등 주요국 포함, 51개국 외무장관 및 대표가 기조연설
  - 신규회원국 가입 승인: 조지아(구 그루지야),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총회원국 51개국으로 증가)
  -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Agreement) 체결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한 Minsk 국제평화회의 개최 합의(시기 미정)
- CSCE 장래 관련 주요국별 입장 수록

92-0775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전2권 (V.2 4-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5 / 4 / 1-209

1.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1992.7.9.~10., 핀란드 헬싱키)

- 참석 현황: 총 52개 회원국 중 50개국 정상 및 정부수반(유고 불참 및 캐나다 외무장관 참석), 유엔, NATO, WEU(서유럽연합) 등 9개 국제기구 및 지중해지역 8개국 참석
  - 일본은 특별초청국(guest)으로 참석
- 주요 회의 결과
  - 최종 문서(Helsinki Document) 채택: 정치선언 및 결정사항으로 구성
  -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유럽지역 병력제한협정 서명
  - 평화유지활동의 제도화 및 소수민족문제 담당 고등판무관제 신설
  - CSCE 안보협력포럼 신설, 구동구권의 시장경제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경제포럼 개최 합의 등
- CSCE 정상회의 최종문서 및 각국 연설문 수록

2. 극동분쟁방지센터 설치 검토(1992.8.4.)

- 검토 배경
  - 1992.6월 한·러 외무장관회담 시 러시아 측은 극동분쟁방지센터 설치 제안
- 한국 측 입장
  - 아·태지역 안보는 역내 각국별로 역사적·문화적 배경, 경제발전 수준 상이 등으로 인해 포괄적인 안보협의기구 창설 여건이 미성숙
  - 현재로서는 아·태 역내 국가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제를 통한 대화 진행이 바람직하며, 러시아 측이 제의한 극동분쟁방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안보 장치의 구축 여건도 이를 통해 조성 가능

3. 제3차 CSCE 외무장관회의(1992.12.14.~15., 스웨덴 스톡홀름)

- 참석 현황: 52개 CSCE 회원국 중 신유고연방을 제외한 51개 회원국 외무장관 참석
- 주요 회의 결과
  - CSCE 최종문서(Final Document) 채택: CSCE '특별법정(Ad hoc Tribunal)' 설치 합의, 보스니아 상공 군사비행 금지 이행을 위한 추가 제재 조치 요구 결정
  - CSCE 특별중재재판소 신설 합의, 소수민족 문제 담당 고등판무관 임명, 역내 분쟁 해결 노력 강화, 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 추진
  - 신규회원국 가입 승인: 체코 및 슬로바키아 분리 신규 가입 등

일본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참여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2-55 / 5 / 1-156

1. 1990.6.18. 외무부는 주벨기에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 아래 사항을 지시함.

- 외신보도에 의하면 오와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1990.6.18.~20. 브뤼셀에서 개최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비공개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안보 및 국제정치 정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함.
- 일본의 동 회의 참석 배경 및 경위, 동 회의 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옵서버 참가 추진 가능성 등을 보고 바람.

2. 주일본대사관은 1992.6.27.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오와다 심의관과 함께 NATO 세미나에 참석한 사토 세사부로 도쿄대학 교수를 면담한 내용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간 CSCE 참여 가능성을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은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사료되며,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 11월 CSCE에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3. 외무부는 1992.5.28. 주미국대사, 주영국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5.27.자 일본 지지통신(비엔나 발)은 최근 CSCE는 제4차 헬싱키 후속회의에서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일본에 특별초청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또한 7.9. 개막되는 헬싱키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참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바, 특별초청국 자격 부여 결정 배경 등에 대해 파악·보고 바람.

4. 주이탈리아대사는 1992.7.18. 주재국의 CSCE 정상회의 평가를 청취한바, 이번 정상회의(7.17.)에서 CSCE 회의 비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참석, 금후 일본과 직접 관련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함.

- 이는 일본이 참여 신청 후 2년여에 걸친 협의 결과로 결정된바, 일본은 동 관계회의에 참석하여 자국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사전회의 준비 또는 결정사항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됨.
- CSCE는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참여도 제한하지 않을 것인바, 일반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CSCE가 이를 검토, 결정하게 될 것임.

92-0777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 동북아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5 / 6 / 1-153

1.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 검토(1992.2월,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 문제의 제기
     - 신세계 질서의 태동
     -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 환경의 형성
     - 평화유지를 위한 안보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
   - 다자안보협력 구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아세안, 북한, 기타 국가
   -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제의
   - 다자안보협력 구상을 위한 지역 환경의 검토
   - 결론

2. 국제안보세미나(1992.2.19.~20., 일본 외무성)
   - 참석자: 김국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명칭: 국제안보포럼(주제: 아태지역의 안보-임무와 시각)

3. 외무부는 1992.3.21. 주재국 정부의 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을 접촉하여 아·태 다자안보 협의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아·태 다자안보 협의 구상에 찬성하는 경우,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주미국·주일본·주중국대사관에 지시함.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 동북아1과 / 북미1과
MF번호 2022-55 / 7 / 1-187

1.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아·태 다자안보기구 구상 발언(1992.6.22. 기자회견)

- 아시아의 안전보장 문제는 유럽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처럼 지붕과 같은 기구를 만드는 문제라 생각함.
- 현재 가토 관방장관의 주선으로 여러 인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6.24.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이 이를 위해 일본을 방문함.
- 아시아의 안보 구상에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참가해야 할 것임.

2. 일본의 한반도 4강 협력 제의 관련 청와대 보고(1992.7.4., 외무부)

- 발언 내용
  - 미야자와 총리는 1992.7.2.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남북대화 관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협력의 필요성 언급
- 분석 및 관찰
  - 미야자와 총리는 세계적, 지역적, 미·일 협력을 설명하면서 아태지역 내에서의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남북대화 지원을 위한 4강의 협력 및 남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국·일본 삼각협력을 언급한 것은 그간 미국 측이 수차례 시사하였던 한반도 다자협력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관찰됨.

3. 한·미·일·캐나다·호주 5자 정책기획협의회(1992.10.17.)

- 회의 주제
  - 아·태지역 내 안보협의체 구성 필요성 인정, 안보협의체 관련 각종 구상 협의
  - 아·태지역 경제 문제 협의

92-0779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설립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5 / 8 / 1-130

1992년 중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 관련 내용임.

1. ISTC 설립계획

- 목적: CIS(독립국가연합) 핵 전문가 유출 방지
- 합의 국가: 미국, 독일, 러시아
- 소재지: 모스크바

2. 기금조성계획

- 목표액: 1억 달러
- 참가국
  - 미국 2천 5백만 달러, EC(구주공동체) 2천 5백만 달러, 일본 약 1천만 달러 예상
  -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등 참여와 각종 재단, 학술 및 과학단체의 기여 예상
  - 이외 참가 희망국에 개방

3. 운영 방안

- 1992.4월 중 개설 목표로 추진 중
  - 늦어도 6월 말 또는 7월 초 설립될 것으로 전망
- 동 센터는 구소련 내 1만~2만여 명의 원자력 전문가 중 실직 상태에 있는 3천여 명의 핵무기 분야 과학자 수용
- 센터 주요 임무
  - 구소련이 보유한 전술 핵무기의 폐기방안 연구
  -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프로젝트 연구
  - 원자로의 안전성 제고 방안 연구
  - 군수산업의 민간산업으로의 전환 문제 및 환경보호 문제 연구
  - 미국은 동 센터가 CIS의 핵무기 능력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방안 확보에 주력

4. 향후 조치사항

- CIS 핵 전문가의 북한 유출 가능성에 대비, 동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 상세 파악

SOFA(주둔군지위협정) 관련 계약 분쟁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5 / 9 / 1-58

1. 사건 개요

- 대림기업(주)는 1980.3.15. 미8군 계약관 레오날드 라조프와 계약을 체결,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미군 전용의 내자호텔 내에서 전자제품과 음향기기 매장을 운영해 옴.
- 동 계약의 이행 관련, 대림 측은 미합중국 또는 미8군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조치

-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2.7.10.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을 담은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 최근 2~3년 동안 미합중국 내에서 미국회사 또는 미국시민 개인이 사업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는지
  - 제기한 일이 있다면 일시, 사건번호, 원고 이름, 사건의 처리결과(미국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내용
- 외무부는 7.20. 주미국대사관 및 미주지역 총영사관들에게 상기 법원의 문의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회보하도록 지시함.

3. 주미국대사관 보고내용

- 당사자 문제
  - 미국 정부기관이 관련된 소송에서의 소송당사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미국임.
  -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은 연방법상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법무부 내에서는 민사국이 담당, 특히 외국 소송 관련 처리를 위해 민사국 내에 외국소송담당관실을 두고 있음.
- 미국 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례는 최근 2~3년간은 없었으며, 1955년 및 1986년에 2건 있었음.

92-0781

싱가포르 주둔 미군기지 설치 문제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55 / 10 / 1-92

1989~92년 중 싱가포르 주둔 미군기지 설치 문제 관련 내용임.

1. George Yeo 싱가포르 재무 및 외무 담당 국무장관, 싱가포르 내 미군기지 설치 허용 의사 표명 (1989.8.4.)

- 동 국무장관은 자국 국회 연설을 통해 아래 입장을 표명함.
  - 미군의 필리핀 주둔은 동남아지역 안정 및 강대국 간 대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필리핀 미군기지의 효율적인 계속 주둔을 위해 싱가포르 내 미군시설 설치를 허용할 용의 있음.

2. 미국·싱가포르 간 싱가포르 내 군사시설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90.11.13., 도쿄)

- 이광요 싱가포르 총리와 퀘일 미국 부통령은 미군의 싱가포르 내 군사시설 이용 증대에 관한 양국 간 합의문에 서명함.

3. 부시 미국 대통령, 필리핀 수빅만 주둔 미군 일부 싱가포르 이전 합의 발표(1992.1.4.)

- 동 대통령은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싱가포르 양국이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 주둔 미 해군 병참시설을 1993년 중 싱가포르로 이전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4. 필리핀 수빅만 주둔 미군기지의 이전 시작

- 미 해군은 1992.6.22.부터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 내 제7함대 병참사령부를 싱가포르 셈바왕항으로 이전 시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5 / 11 / 1-74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상공부, 노동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운영체제 개선을 추진, 1992.5.15. 주한미군 측과의 합의를 통해 SOFA 운영체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

- 현황: 1967.2.9. SOFA 협정 발효 이후 합동위원회 및 1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주한미군 주둔 제반 사항을 협의 처리
- 문제점: 동 SOFA 운영체제는 전반적 한·미 관계 위상 변화, 관련 업무의 양적 확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운영상의 어려움 표출
- 개선 내용
  - 각 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직급을 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
  - 합동위원회 한국 측 위원의 숫자(12명)를 주한미군 측(9명)에 맞추어 조정
  -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과장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의 과장 또는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자그룹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92-078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70차, 1991.12.1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5 / 12 / 1-263

제170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가 1991.12.11.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위원장)
- 미국 측: Ronald R. Fogleman 미국 측 위원장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수석대표)

2. 회의 결과

- 주한미군 사용 부지에 관한 35개의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를 승인하였으며, 동 분과위원회에 28개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함.
- SOFA 제15조에 의한 계약 수행을 위하여 11개 초청계약자를 지명하였으며, 주한미군과의 계약을 종료한 4개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지명을 철회함.
- 차기 회의는 미국 측 위원장의 주재로 주한미군 영내에서 1992.5.15. 개최 예정임.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71차, 1992.6.26.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5 / 13 / 1-344

제17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가 1992.6.26.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위원장)
- 미국 측: Ronald R.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위원장)

2. 회의 결과

- 주한미군 사용 부지에 관한 32개의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를 승인하였으며, 동 분과위원회에 35개의 신규 과제를 부여함.
- SOFA 제15조에 의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9개의 초청계약자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주한미군과의 계약을 종료한 4개의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지명을 철회함.
- 개별적 노무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승인하고,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근로자 노조의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전향적인 의견 교환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또한 SOFA에 따른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1992.10.23.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92-0785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금 문제

생산연도	1986-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5 / 15 / 1-65

1986~92년 중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전기, 상하수도, 석유류 등 공공용역 이용 관련 내용임.

1. 전기(제37차, 116차, 136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 관련 부처: 동력자원부 전력정책과
- 주한미군 부대용: 산업용 요율 적용
  - 한국 정부 기관 및 군부대: 업무용 요율 적용
  - 주한미군 전기사용량이 한국 총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7%
  - 전기요금은 가격이 낮은 순으로 농사용(최저가 율), 산업용, 가로등용, 주택용, 업무용(최고가 율)으로 구별

2. 상·하수도

- 관련 부처: 건설부 수도계획과
- 주한미군 부대용: 한국 군부대용 적용 요율과 동일

3. 석유류

- 관련 부처: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 주한미군 부대용: 간접수출로 간주, 국제가격으로 공급(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면제)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6 / 1 / 1-68

1. 주한미군 관련 환경 현안 논의

- 환경처는 1991.9.19. 외무부 앞 공문에서 Cohe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이 환경처차관을 방문, 주한미군 시설 등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폐기물 등에 대한 종합적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고 하면서, 한·미 환경처 간 양해각서의 재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는 10.7. 금년 10월 중 환경처에서 갖기로 한 한·미 간 환경협의위원회는 아래 사유로 외무부 검토가 완결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해 주기를 환경처에 요청함.
  - 환경협의위원회 및 한·미 환경처 간의 '양해각서' 재체결 문제 등은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개정 교섭이 진행 중인 점과 한·미 행정협정상 규정 등을 감안하여 보류함이 바람직함.
- 외무부는 11.8.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는 한·미 간 SOFA(주둔군 지위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환경처에 송부함.

2.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 외무부는 1992.1.9. 국방부 및 환경처에 공문으로 아래 사항을 통지함.
  - 최근 외무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하와이 미 25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TCE라는 물질로 크게 오염되어 지하수를 임시로 정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해외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 강물, 지하수 등이 맹독성 화학폐기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미 일반회계국의 보고서도 있음.
  - 외무부는 한·미 SOFA 산하에 환경실무협의회를 설립하여 조사, 협의 등을 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의견 및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외무부에 알려주기를 요청함.

92-0787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전3권 (V.1 1989-90)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6 / 2 / 1-268

1989~90년 중 필리핀 주둔 Clark 미군 공군기지 및 Subic 미군 해군기지 철수 관련 동향임.

1. 댄 퀘일 미국 부통령 필리핀 방문(1989.9.26.~28.)

- 아키노 대통령·라우렐 부통령·살롱가 상원의장 등 예방, Subic 미군 해군기지 방문
  - 주필리핀 미군기지 장래 문제 관련 협상을 통해 미군기지 존속 문제 협의 등

2.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미국 방문(1989.11.8.~12.)

- 부시 대통령, 퀘일 부통령, 베이커 국무장관, 체니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지도자 및 상·하원 의원 등과 회담
  - 필리핀·미국 우호협력관계 협의, 필리핀·미국 군사기지협정(1989.12월) 체결 합의

3. 필리핀·미국 군사기지협정 체결 및 장래 문제에 관한 협상

- 필리핀 내 미군 군사기지협정 체결
  - 1947.3월 미국·필리핀 군사기지협정 체결: 99년간 기지 사용 합의
  - 1966.9월 군사기지협정 개정: 향후 25년간 사용 합의(1991.9.16. 유효기간 종료)
- 필리핀·미국 군사기지 장래 문제에 관한 협상
  - 일정: 제1차(1990.5.14.~18.), 제2차(9.18.~21.), 제3차(11.3.~9.), 제4차(12.5.~7.)
  - 장소: 마닐라
  - 대표단(수석대표): (필리핀 측) Manglapus 외무부장관, (미국 측) Armitage 특사
  - 주요 내용
    - 제1차 협상에서 양측은 기지 연장 문제 포함, 양국관계 전반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필리핀 측은 동 군사기지협정이 1991.9.16. 종료됨을 미국 측에 공식 통보
  - 1990.11.6. 주필리핀 미국대사관은 1991.9월까지 필리핀에 배치된 모든 전투기와 병력 1,000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

4. 필리핀 내 미군기지 존속 관련 양국 입장 및 주변국 동향

- 미국 입장: 현 군사기지 계속 보유 희망
- 필리핀 입장: 아키노 대통령은 군사기지협정 장래 문제 결정에 유보적 입장, 상원은 미군기지 존속 반대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원은 한시적으로(향후 10년간) 존속 지지 입장 견지
- 주변국 동향: 싱가포르는 미군에 기지 제공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싱가포르의 동 제의에 반대 의사 표명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전3권 (V.2 1991)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6 / 3 / 1-267

1991년 중 필리핀 주둔 Clark 미군 공군기지 및 Subic 미군 해군기지 철수 관련 동향임.

1. 필리핀·미국 군사기지 협상 종결

- 1991.7.17. 필리핀·미국 간 군사기지 협상 종결로 1947년 체결된 군사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 MBA)을 대체할 양국 간 협력협정이 MBA 종료 기간(1991.9.16.) 다음날인 9.17.부터 발효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미국은 Subic 해군기지만을 향후 10년간 계속 사용하되, Clark 공군기지 등 여타기지는 필리핀에 반환하도록 하며 Clark 공군기지는 1992.9.16.까지 복구 및 반환 작업 완료
  - 미국은 Subic 해군기지 사용 대가로 1992년 회계연도에 3억 6천만 달러 무상공여 등 계속 지원
- 참고자료
  - 양국 대표 공동성명서, 필리핀·미국 협력 협정문

2. 양국 정부, 기지 사용 연장협정 서명(1991.8.27.)

- Manglapus 필리핀 외무장관과 Frank Wisner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필리핀이 미국에 대해 Subic 해군기지의 10년간 추가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필리핀·미국 우호협력 및 안전협정 및 보충협약'에 서명

3. 필리핀 상원, 협정 비준동의안 부결(1991.9.16.)

- 필리핀 상원은 미국과 필리핀 정부간 체결된 Subic 해군기지 사용연장협정에 대한 비준안을 12:11로 부결
  - 냉전체제 종식, 미국 측에 유리한 불평등 협정, 미군 철수로 실질적인 자주독립 성취

4. Clark 공군기지 공식 반환 및 Subic 해군기지 조기 철수

- 1991.10.2. 아키노 대통령, 협정 비준동의안 부결에 따라 미군기지 철수 시한의 3년 연장 허용 시사
- 10.21. 필리핀 정부, 미군기지 철수 문제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미국 측에 제의
- 11.26. 미국, Clark 공군기지를 필리핀 정부에 이양하는 행사 개최
- 12.27. Subic 해군기지 철수 문제 관련 행정협정 체결 교섭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MBA에 따라 1992.12.31.까지 Subic 해군기지를 철수하기로 합의
  - 1992.11.24. 미국, Subic 해군기지 철수 완료

92-0789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전3권 (V.3 1992)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6 / 4 / 1-104

1992년 중 필리핀 주둔 Clark 미군 공군기지 및 Subic 미군 해군기지 철수 관련 동향임.

1. 미국, 필리핀 주둔 미 7함대 병참 지원부대 싱가포르 이전 계획

- 1992.1.3.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필리핀 Subic 해군기지 내 미 7함대 병참 지원부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방안을 싱가포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비공식문서(Non-paper)를 통해 외무부에 통보
  - 이전 사유: 1992.12.31.까지 필리핀 Subic 해군기지 폐쇄
  - 규모 및 임무: 약 135명의 해군 병력, 미 7함대 병참 지원
  - 기대 효과: 미국, 필리핀 기지 철수 후에도 동남아에 계속 잔류 의지 표명

2. 필리핀의 미군기지 전용 계획

- 1992.2월 필리핀 정부는 1992년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인수하게 될 Clark 공군기지 및 Subic 해군기지를 민간 상업지구로 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입법조치 시행
  - Subic 기지 포함 주변 15,130ha를 '특별 경제 및 자유무역항(Special Economic and Free Port Zone)'으로 조성
  - 동 구역 내 해양산업단지(Maritime Industrial Complex)를 건설하여 선박 수리기지, 화물선 정박항구, 유류 비축시설 등 건설
  - 필리핀 정부는 동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며, 특히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투자 기대

3. 참고자료

- 미군기지 전용계획 관련 필리핀 의회 입법자료
- 미군기지 철수 이후 미국·필리핀 관계에 관한 Richard Solomon 주필리핀 미국대사의 마닐라 로터리클럽 연설문
  - In Our Common Interest: Shaping a New U.S.-Philippine Relationship(1992.10.15.)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6 / 5 / 1-105

1. 1990.1.1.~12.31. 휴전협정 유지 활동 관련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1990년도 활동 보고서가 1991.6.24. 안보리 문서로 배포됨.

- 주요 내용
  - 유엔사의 설립 경위 및 임무
  - 휴전협정의 체제 및 절차(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회 및 한국의 역할)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활동: 1990년 6차에 걸친 군사정전위원회 개최
- 부록(1990년 중 군사정전위 토의 사건)
  -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지하땅굴
  -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불법 장애물 건설
  - 공동조사단 기능 회복
  - 주요 군사훈련 상호 통고 및 참관 초청
  - 공동경비구역 안전 협상
  - 한국전 중 전사한 유엔군 유해 송환 문제

2. 1991.1.1.~12.31. 휴전협정 유지 활동 관련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1991년도 활동 보고서가 1992.6.15.자 안보리 문서로 배포됨.

- 주요 내용
  - 유엔사 임무, 휴전체제와 절차, 군정위원회 활동 및 남북한 관계(신설)
  - 1991.3월 유엔사의 한국군 장성 군정위원회 수석대표 임명에 대한 북한 측 거부 처사 부당성 지적
  - 1991.5월 북한군 DMZ 무장 침투사건(특별보고서)
- 남북한 관계(신설) 내용
  - 유엔 동시가입에도 불구하고 유엔사 지위 및 역할의 불변
  - 남북합의서 완전 이행 필요성 강조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촉구
  - 남북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현 휴전협정 대체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 휴전협정체제 유지 (유엔사 평화유지 기능 계속 수행)

92-0791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전2권 (V.2 보고서 및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 국제법규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6 / 8 / 1-175

제47차 유엔총회 한반도 문제(주한유엔사 해체 및 휴전협정 대체) 관련 참고자료임.

- 유엔사 규정
  - 비무장지대 남방 경계선 표시 등
- 남북한 기본합의서

한국전 참전 미군에 대한 수장 재교부 및 기념사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56 / 9 / 1-86

1991~92년 중 한국전 참전 미군에 대한 대통령 부대 표창 증명원, 개인 수장 재교부 및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 기념사업 관련 내용임.

1.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훈포장 재교부

- 1991.7.19. 주미국대사는 미 정계 및 참전용사회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장 및 표창장 재교부 건의
- 1991.8.27. 외무부, 국방부, 총무처는 한·미 양국 우의 증진, 유엔군 참전 의의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 부대 표창 수여증명원 및 개인 수장 재교부를 결정하고 부대명, 개인 수장 지급 필요 인원, 인적 사항(성명, 군번) 등을 파악 보고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1992.2.18. 국방부, 한국전 참전 대통령 부대 표창 수상 부대원에 지급할 5,600개 개인 수장을 제작, 주미국대사관 송부

2. 한국전 참전 기념비 기공식

- 1992.6.14. 워싱턴 D.C. 근교 소재 한국전 참전 기념비 기공식 개최(1994.7.27. 준공 예정)
  - 부시 미국 대통령, 체니 국방장관, 현홍주 주미국대사 등 참석
- 한국 정부는 5,000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해 개인 수장 수여

92-0793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6 / 10 / 1-27

1990~92년 중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에 관한 내용임.

1.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가 1992.8.17.자로 교체됨.
   - Ronald R. Fogleman 구임 공군 중장은 공군수송사령관으로 전보되고. Howell M. Estes, Ⅲ 신임 중장 부임.

2. 1992.9.4. 상기 미국 측 대표는 외무부 미주국장(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을 신임 예방함.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 전2권 (V.1 3-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56 / 11 / 1-143

1992.3~9월 중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2.2.13. 유엔사 참모장 주최 리셉션에 대한 북한 측 답례 리셉션에서 권중형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사실 언급(30여 구로 추정)
   - 북한 측은 3.5., 3.11. 판문점 쌍방 군정위원회 비서장 비공식 접촉 시 미군 유해 송환 가능성 언급

2. 1992.3.23. 레코드 유엔사 참모장 명의 서한을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앞으로 발송
   - 유엔군 유해 30여 구를 군정위원회 비서장회의를 통해 송환해 줄 것을 요구
   - 쌍방 군사위원회 비서장들이 유해 송환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 제의

3. 1992.4.1. 북한 측 인민군 부총참모장 답신 발송
   -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용의 표명
   - 동 문제 협의를 위해 4월 초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유엔사 참모장 접촉 제의

92-0795

한·러시아 군사 관계 인사교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56 / 13 / 1-158

1992년 중 한·러시아 간 군사 관계 인사교류 관련 내용임.

1. 오멜리체프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군 제1참모차장 방한(1992.5.29.~6.5.)

-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참석
- 국방부장관·차관 및 합참 1차장과 대담 시 발언내용
  - 남북회담: 남북회담 진행 중 DMZ 도발은 우려되는 사건이나 인내심을 갖고 회담 지속 바람직
  - 북한의 핵사찰: 남북합의서 및 비핵화 선언 실현을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및 상호 사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상호사찰을 통한 신뢰 구축 후 군축을 추진한다는 한국 의견에 공감함. 러시아는 IAEA 사찰 결과에 따른 유엔안보리 조치를 존중함.

2. G. Korotkov 러시아군 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4명 방한(1992.6.19.~29.)

- 6·25 42주년 계기 홍보의 일환으로 공보처에서 방한 초청

3. 송웅섭 합참 제1차장 러시아 방문(1992.7.27.~29.)

- 러시아군 총참모부 제1차장의 공식 초청

4. 코코신 러시아 국방부 제1차관 방한(1992.10.4.~8.)

- 양국 간 군사 교류 협력 가능성 협의
- 국방부차관 면담
  - 국방부차관: 한·러시아 군사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양국 간의 군 인사교류 증진에 원칙적 합의, 한국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계획에 한국기업의 참여 필요 시 가능한 적극 지원 예정
  - 코코신 차관: 러시아는 향후 병력을 감축시키는 한편 군대의 장비수준 현대화 및 새로운 군비 개발 예산 계속 확보, 남북관계 관련 한국의 대북한 유연성와 인내성 발휘를 높이 평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안정에 적극 협력 예정 등

한·루마니아 군사협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2-56 / 14 / 1-17

1992년 중 한·루마니아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임.

1. Anghelescu Gheorghe 루마니아 해군사령관 방한(1992.4.5.~10.)

- 방한 경위
  - 해군참모총장 초청
- 주요 일정
  -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예방
  - 진해 해군함정 및 대우조선중공업 시찰
- 방문 결과
  - 양국 해군 간의 군사·외교협력과 우호증진 방안 협의

2. 국방관계 대표단 루마니아 방문(1992.6.18.~21.)

- 방문단
  - 박웅 국방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 5명
- 주요 일정
  - 루마니아 국방장관 및 관계인사 면담, 방위산업 시찰
- 방문 결과
  - 6.21. 박 차관보·F. Popa 루마니아 국방부 군수차관(중장) 간 방위산업 및 군수 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 서명

92-0797

최세창 국방장관 캐나다 방문, 1992.10.3.-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2-56 / 15 / 1-6

최세창 국방부장관이 1992.10.3.~6. 캐나다를 방문함.

1. 주요 일정

- 10.3. 토론토 도착
- 10.4. 토론토지역 시찰, 몬트리올 향발, 몬트리올 총영사 주최 만찬
- 10.5.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산업 시찰, 국방장관 주최 오찬 및 방위산업협회 주최 만찬
- 10.6. 워싱턴 향발

2.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1992.10.5.) 결과

- 한반도 및 주변 정세
  - Masse 장관은 남북한 관계, 북한의 핵문제 및 북한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한바, 최 장관은 현재까지의 남북대화 진전사항 및 북한 태도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북아 정세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함.
- 한·캐나다 양국관계
  - Masse 장관은 멀로니 수상이 최 장관의 캐나다 방문 환영 의사를 전해달라고 하였음을 전언
  - 동 장관은 한·캐나다 양국관계가 역사적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캐나다 양국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에 만족 표명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 Masse 장관은 캐나다는 한국이 530명 규모의 병력을 PKO 활동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캐나다의 PKO 참여 경험을 한국 측에 전수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
- 태평양지역 안보
  - 캐나다 측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세계평화와 직결된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항으로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따라서 다자대화가 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필요하며,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
- 군수산업 협력
  - Masse 장관은 군수산업협력 MOU(양해각서)를 제시한 후 한국이 동 내용을 검토해 줄 것 요청

Miller, Geoff 호주 정보평가처장 방한, 1992.9.8.-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56 / 16 / 1-23

Geoff Miller 호주 정보평가처장이 1992.9.8.~12. 방한함.

1. 방한 목적

-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차총회 참석

2. 주요 일정 및 활동

- 9.9.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 최근 남북관계 및 전반적인 양국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
- 9.10.~12. IISS 연차총회 참석
- 임동원 통일원차관,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면담

92-0799

PEHIN Sulaiman 브루나이 군참모총장 방한, 1992.2.27.-3.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56 / 17 / 1-40

Pehin Sulaiman 브루나이 군 참모총장이 1992.2.27.~3.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1.7.22.~24.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시 한·브루나이 외무장관 면담에서 브루나이 외무장관은 국방차관 또는 참모총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요청함.
- 1991.12.17. 외무부는 Sulaiman 브루나이 군 참모총장의 방한 초청에 대한 협조를 국방부에 요청한바, 1992.1.21. 국방부는 이를 수락함.

2. 주요 일정

- 2.27. 김포공항 도착
- 2.28. 국립묘지 참배, 합참의장 및 국방부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합참의장 주최 만찬
- 2.29. 해군총장 예방, 특전사령부 방문, 민속촌 관광
- 3.1.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관광
- 3.2. 이한

3. Pehin Sulaiman 브루나이 군 참모총장 방한 결과에 대한 브루나이 측 반응

- 1992.3.11. 주브루나이대사관은 브루나이 측이 한국군의 조직화·현대화된 모습에 감동받았으며 금번 방한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함.
  - 방한 시 Sulaiman 브루나이 군 참모총장에게 훈장이 수여된바, 이는 양국 친선·우호관계가 가일층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함.

Ileto, Rafael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 방한, 1992.5.25.-2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56 / 18 / 1-112

Rafael Ileto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이 1992.5.25.~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2월 필리핀 측의 방한 희망에 따라 주필리핀대사 명의 방한 초청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교안보연구원 및 민족통일연구원 방문
- 판문점 시찰, 제1차관보 주최 만찬

3. 외무부장관, Rafael Ileto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 접견 요지(1992.5.27.)

- 북한의 핵문제
  - 외무부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의 한계를 설명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상호사찰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Ileto 국장은 북한의 핵문제 관련, 전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고 아시아지역 핵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필리핀의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고 언급함.
- 필리핀·북한 수교 문제
  -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시까지 대북한 수교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사의를 표함.
  - Ileto 국장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시까지 대북한 수교를 연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 파견
  -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1992.6.30. 신임 필리핀 대통령 취임행사에 외국의 경축사절을 초청할 경우, 한국 측이 경축사절단 파견 예정임을 언급함.

92-0801

YEO Ning Hong 싱가포르 국방장관 방한, 1992.11.15.-1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2-56 / 19 / 1-61

Yeo Ning Hong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1992.11.15.~1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3월 싱가포르 측의 방한 희망 의사에 따라 국방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

2. 주요 일정

- 국방부장관 회담, 육군본부 및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육군총장 주최 오찬 및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판문점 시찰, 대우 본사 방문

3. 방한 결과

- 1992.11.18. Yeo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및 일본 방문(1992.11.12.~15.)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한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급속한 군사력 감축이 역내 힘의 균형 유지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한·싱가포르 양국 간의 방산협력과 관련, 양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장비 제작기술이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강구하면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봄.

Lilley, James R. 미국 국방부차관보 방한, 1992.3.4.-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6 / 21 / 1-33

James R. Lilley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1992.3.4.~6. 방한함.

1. 방한 목적

- 신임 차관보로서 동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안보정세 시찰

2. 주요 일정

- 주한미군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 국방부 방문,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예방

92-0803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2-56 / 23 / 1-172

1992년 중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관련 동향임.

1.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91.1.28. 연두교서를 통한 전술핵무기 추가 감축 조치 발표에 대해 외무부는 1.31.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 미국의 대폭적인 전략핵무기 추가 감축 조치 발표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1.29. 핵무기 감축 및 생화학·재래식 무기 감축계획 발표를 환영함.
- 미국과 러시아의 조치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타 핵무기 보유국들도 동참할 것을 기대함.
- 북한도 1.30.자로 서명한 핵안전조치협정 비준 발효 조치를 최단 시일 내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2. 부시 대통령, 핵무기 철수 완료 및 수정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 시행 성명 발표(1992.7.2.)

- 1991.9.27.자 대통령 선언에 따라 예정되었던 모든 핵무기 철수 완료 및 이에 따른 수정 NCND 정책 시행 성명 발표

각국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및 동향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56 / 24 / 1-119

1990~92년 중 각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및 관련 동향임.

1. 프랑스, NPT 가입

- 1991.6.3. 프랑스 정부, 전 세계적 군축안을 제의하면서 NPT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
  - 지난 20여 년간의 핵 독자노선 포기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중국·이스라엘 등 NPT 미가입국에 대한 압력 가중 예상
  - 미·소 간 군축협상 급진전에 따른 세계적 군축 무드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양대국에 의한 일방적 군사력 재편 기도 저지 의도
- 1992.8.3. 프랑스 정부, NPT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NPT에 가입

2. 중국, NPT 가입

- 1991.8월 가이후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시 이붕 중국 총리는 향후 중국의 NPT 가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나, 국내 절차를 이유로 가입 지연
- 1992.3.17. 중국 정부, NPT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NPT 가입

3. 대만(구 중화민국)·NPT 관계

- 1970.1.27. NPT 가입서를 미국에 기탁한 후 3.5. NPT 조약 발효
- 1971.10.25. 중국의 대표권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만은 현재 NPT 당사국이 아닌 상태
  - 그러나 대만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1969.10.13.)에 따라 IAEA 핵사찰을 받고 있음.

4. NPT의 1995년 이후 연장 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

- NPT는 발효 25년 후(1995년) 효력 연장 문제 검토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무부는 1992.4.14. NPT 효력 연장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 검토에 참고하고자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입장을 파악·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 해당 국가: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92-0805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 평가회의. Vienna(오스트리아), 1992.9.29.-10.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57 / 1 / 1-136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평가회의가 1992.9.29.~10.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1.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협약 평가회의 개요

- 핵물질에 대한 테러, 운송 중 사고 등의 불법적인 사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약은 1987.2월 발효
  - 동 협약 서명 당사국들은 협약 발효 5년 후인 1992년 협약 평가회의 개최에 합의

2. 참가자

- 47개 회원국 가운데 40개국 대표 및 3개 국제기구(CEC(구주공동체위원회), IMO(국제해사기구),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대표
  - 한국 대표: 허남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3. 주요 내용

- 의장단 선출
  - 의장: Vilmos Cserveny 주오스트리아 헝가리대사
  - 부의장(4명): 한국(허남 과학관), 캐나다·네덜란드·아르헨티나 대표
- 최종 발표문 채택
  - 협약 전문, 이행 부분 및 부속서 검토 결과 동 협약의 타당성 확인
  - 도난, 악용 및 불법행위로부터 핵물질 방호 필요성 확인
  - 핵물질 물리적 방호에 관한 동 협약의 중요성 재확인
  - 동 협약에 대한 전적인 지지 재확인 및 동 협약 미가입국의 가입 촉구
  - 핵물질 물리적 방호에 관한 기구 문서 승인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동 문서 검토회의 조기 개최 촉구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구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7 / 6 / 1-130

1992년 중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관련 내용임.

1. MTCR 개요

- G7(서방 선진 7개국)이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의 범세계적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미사일 관련 수출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1987.4월 창설한 협의체
- 수출규제 대상을 2개 분야로 분류, 통제
  - Category I: 사정거리 300km, 적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본체·생산시설 및 기술
  - Category II: 비행통제시스템 등 미사일 생산에 전용 가능한 부품
- 특히 1991년에는 2차례 회의(1991.3월, 도쿄 및 1991.11월, 워싱턴)를 개최, 통제대상 기술 및 물자의 확대와 화학·생물무기 탑재 가능 소형미사일까지도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2. MTCR 오슬로 회의(1992.6.29.~7.2., 노르웨이 오슬로)

- 참가국
  - 18개 회원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호주·네덜란드·오스트리아·캐나다·벨기에·룩셈부르크·덴마크·스페인·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
- 회의 내용
  - 미사일 및 관련 기술·장비 수출규제 강화 문제 등 협의
- 회의 결과
  - MTCR 가이드라인의 '핵(Nuclear)'을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
  - 각 회원국이 자국의 특정 물자 수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을 통제한다는 포괄적 조항 삽입
  - 수출통제무기 목록 Category II에 적재량을 막론하고 사정거리가 300km 이상인 미사일 및 그 부품 포함 등
  - 기타 아르헨티나의 가입 신청, 각국 국내법 조화 문제 등 협의

3. 참고자료

-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관하여(1992.2월, 외무부)
  - MTCR 개요, MTCR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MTCR의 규제 성격 및 평가, MTCR에 대한 주요국 입장, MTCR의 전망
- MTCR 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MTCR 신지침(영문)

92-0807

유럽 재래무기 감축 협상(CFE) 동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7 / 1-59

1991~92년 중 CFE(유럽재래무기감축협상) 관련 동향임.

1. CFE 조약 체결(1990.11.19., 파리)

- CFE 협정은 29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하는데,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미발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CFE 협상 대표들은 동 협정을 1992.7.17.부터 120일 동안 잠정 발효하도록 하는 CFE 보완협정에 합의
- 이 협정에 따른 재래식 무기의 폐기는 40개월 내에 완료되며, 폐기될 무기의 수는 최소한 탱크 16,200대, 장갑차량 16,000대, 대포 5,800문

2. CFEIA(유럽병력감축협정) 가서명(1992.7.6., 비엔나)

- CFEIA는 CFE 조약의 후속회담 결과로서 유럽 주둔 병력 제한에 관한 다자협정
  - CSCE 52개국 정상회담(1992.7.8.~9., 헬싱키)에서 정식 서명 예정
  - 가서명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6개 회원국, 구 바르샤바조약기구 6개 회원국, CIS(독립국가연합) 7개국
  - 적용지역: ATTU 지역(Atlantic Ocean to the Ural Mountains)
- 감축대상 병력
  - 육·공군, 방공군(防空軍), 지휘사령부 및 참모부, CFE 규제 장비를 보유한 지상 발진 해군, 90일 이상 동원 가능한 예비군(단, 해상 발진 해군, 국내수비대, 유엔 산하 군대는 제외)
- 유럽 주둔 병력 상한선
  - 러시아 145만, 우크라이나·튀르키예 각 45만, 독일 34.5만, 프랑스 32.5만, 미국 25만, 헝가리·벨라루스 각 10만, 폴란드 7.5만, 체코 14만, 조지아(구 그루지야) 4만 등
- CFE 협정과는 달리 비준을 요하지 않는 당사국 간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Concluding Act)으로서 CFE 조약 발효 시(모든 당사국 비준서 기탁 10일 후) 효력 발생

3. 참고자료

- CFE 비준 미 의회 청문회
  - Cheney 국방장관 및 Powell 합참의장 발언문
- CFE 조약안(영문)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1차. Geneva, 1992.3.30.-4.1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8 / 1-100

정부는 1992.3.30.~4.1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경위

- 유엔사무총장은 1992.1.30.자 외무부장관 공한을 통해 1991.9월 제3차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시 설치된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를 알려옴.

2. 회의 결과

- 생물무기 전문가회의는 1992.3.30. Toth 주유엔 헝가리대사 사회로 개막되어 의제 및 토의 일정을 채택하고 실질 토의를 개시함.
- 실질 토의에서는 생물무기에 관한 Backgroud Information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바, 영국은 생물무기 물질과 이에 대한 대처를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상영, 배경 설명을 함.
- 부의장 및 분과위원회별 사회자 선출
- 배경 토의
  - 1992.3.30.~4.3. 생물무기 검증 문제에 관한 기본정보, 검증의 목적, 생물무기 생산계획이 갖는 요소, 여타 군축 분야 검증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적 교훈(최근 이라크 내 사찰 경험 등 소개), 검증에 필요한 정보, 각국의 국별보고서 소개 등 주제를 중심으로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토의 형식으로 진행
- 분과위원회 토의
  - 1992.4.6.~9. 3개 분과위별로 검증에 필요한 제반 고려사항을 추출, 리스트를 작성함.
  - 동 리스트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단계별로 Off-Site Measures, 관련 정보 감시, 정보 및 자료교환, 원격 감응, 사찰, On-Site Measures, 방문, 사찰, 계속 감시 등을 골자로 하고, 세부 관련 조치를 적시함.
- 차기 회의 일정
  - 1992.11.23.~12.4.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

92-0809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2차. Geneva, 1992.11.23.-1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9 / 1-223

정부는 1992.11.23.~1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에 주제네바대표부 담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91.9월 제3차 BWC 평가회의에서 검증 관련 정부 전문가회의 개최를 결정함.

2. 개최 목적

- 생물무기 검증기술 개발 및 이를 통한 관련 BWC 체제 강화

3. 참가국

- BWC 가입국(1992.3월 현재 119개국) 중 46개국 및 WHO(세계보건기구)

4. 주요 회의 내용

- T. Toth 주제네바 헝가리대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장단을 구성함.
- 생물무기 개발, 획득 혹은 생산, 저장 또는 보유 3개 분야에 대해 토의했으며 그동안 확인된 검증 수단을 점검하고 평가함.
- 1993.5월 및 9월 제네바에서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한국 건설업체의 이란 Ghazvin 프로젝트 참여 문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 북미2과
MF번호 2022-57 / 10 / 1-109

1992.4월 대림엔지니어링의 이란 Ghazvin 프로젝트 참여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내용임.

1. 배경

- 이란의 한 회사가 Ghazvin 지방에 살충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대림엔지니어링의 참여를 요청하고 동사는 이를 수락함.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살충제 공장이 화학무기 공장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사의 참여를 막아주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함.

2. 이란 Ghazvin 프로젝트에 관한 각국의 입장

- 미국
  - 대림이 동 공장의 건설에만 참여한다고 하나, 이는 이란 국내기업에 맡겨도 가능한 일이므로 기술이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영국
  -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를 희망함.
- 호주
  - 한국 정부가 그간 취해 온 화학무기 반대 입장과 일치되도록 하고, 관련 자국민 또는 기업이 화학무기 확산에 기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3. 검토 의견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서방 선진국의 화학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책 수립 요청에 부응
- 한국이 그간 취한 화학무기 반대 입장에 비추어 관계부처를 통해 대림 측에 동 프로젝트 참여 자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92-0811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1 3-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11 / 1-138

1992.3~4월 중 NSG(원자력공급국 그룹) 관련 동향임.

1. NSG 개요

- 성립: 1978.1월
- 회원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등 27개국
- 목적: 평화적 목적으로 수입된 핵 물질의 타용도 전용 방지
- 활동 내용
  - 핵무기 미보유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시 적용되는 런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 규제품목 리스트 강화와 이중용도품목 재조정

2. 제2차 NSG 회의(1992.3.31.~4.3., 폴란드 바르샤바)

- 주요 의제
  - NSG의 Trigger List와 Zangger List를 조화시킨 New Trigger List 작성
  -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규범 창출
  - 신공급 국가의 NSG 가입 권유
- 회의 결과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규제 확대
  - NSG 상설사무국 설치: 비엔나 주재 일본대표부에 설치, 핵공급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위한 연락창구 역할 수행
  - 회원국 확대 문제: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 핵기술 수출 가능국의 NSG 가입 필요 의견 대두

3. 참고자료

- NSG 회의 관련 문서: 이중용도품목 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중용도품목 리스트, full-score safeguards에 대한 가이드라인
- 핵 비확산의 배경과 주요 수단, 핵 비확산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핵공급국 그룹(NSG). 전2권 (V.2 5-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12 / 1-220

1992.5~9월 중 NSG(원자력공급국 그룹) 관련 동향임

1. NSG의 한국가입 요청

- 1992.5월 NSG 의장국인 폴란드 외무부의 핵담당 Strulak 대사가 주폴란드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동 기구 가입을 요청
  - 제2차 NSG 회의에서 의장국인 폴란드가 NSG 확대를 위해 핵공급 가능 국가들의 NSG 가입을 권유하기로 결정

2. 한국 측 대응

- 1992.6.4. 외무부는 주폴란드대사와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폴란드 측 요청내용 및 NSG 가입 관련 정부 입장을 통보
  - 외교적인 측면에서 가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입 여부는 핵기술 개발 노력(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종합적 평가 후 최종 결정 예정
  - 현재 한국은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핵기술·물질 수출은 자제 중
- 과기처에 NSG 가입 문제 검토 요청
  - 외교적 고려 및 서방 선진국과의 핵기술 협력 촉진을 위해 NSG 가입 필요성 강조

3. 참고자료

- 제2차 NSG 회의 결과 문서
- NSG 관계 문서
  - Guidelines for Transfer of Nuclear-related Dual-use Equipment
  - NSG 바르샤바회의 보도자료, Draft Model Not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tatement on Full Scope Safeguards, Statement by Chairman
  - 통제대상 이중목적사용품목 리스트

92-0813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13 / 1-224

1992.1~4월 중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COCOM 체제 개편

- 개편 방향 및 협의 일정
  - 동서냉전의 종식에 따라 COCOM 체제를 냉전 대응형에서 지역분쟁 방지형으로 개편 추진
- 구체적 개편내용
  - 규제대상 국가 조정: 일부 동구권 국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동·서남아의 분쟁·테러 다발 국가를 대상에 추가
  - 규제품목 조정: 산업 분야는 계속 완화, 미사일·원자력·화학·생물무기 관련 품목은 규제 강화
  - 종합적 수출통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 검토

2. COCOM 집행위원회(1992.2.5.~6., 파리)

- 주요 결과
  - 규제대상국에서 헝가리 제외, 체코·폴란드에 대한 규제 완화
  - 발트 3국 및 CIS(독립국가연합)는 계속 규제대상국으로 분류
  - 광섬유 등 통신장비 수출 해제 문제 관련, 독일 등이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개혁 지원에 긴요함을 들어 동 품목의 해제를 주장한 데 반해,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미·영국측이 적극 반대함에 따라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차기 COCOM 고위급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
- COCOM 집행위 결과 수록

3. 참고자료

-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안)(1992.3월, 상공부)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회의자료(1992.4월, 상공부 무역협력과)
- 우리나라의 기술수출통제제도 현황 및 계획, 한국의 기술수출통제제도 현황 및 진전사항(1992.4월, 과학기술처)
- 수출물품 통관 시 COCOM 관련 세관의 확인제도(1992.4월, 관세청)
- COCOM과 TDX 수출과의 관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14 / 1-164

1992.5~12월 중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COCOM 고위급 협의(1992.6.1.~2., 파리)

- 회의 경과: 당초 1992.6.1.~2.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 대표의 조기 귀국 필요성 등 사정에 따라 하루만에 종결
- 주요 결정사항
  - COCOM 협력체 설치 문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금지 국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화의 무대로서 기능
  - 통신장비 수출통제 완화: 1992.7.1.자로 광섬유 케이블을 포함한 첨단 통신제품 수출통제를 대부분 자유화
- COCOM 고위급 협의에 관한 미국 측 보도자료 수록

2, COCOM 협력 포럼(1992.11.23.~24., 파리)

- 참가국: 총 42개국(COCOM 회원국 17개국, COCOM 협력국 6개국, CIS 13개국, 동구 5개국, 몽골)
- 회의 주요 내용
  - COCOM 측은 구공산권 등에 대해 COCOM 기능, 통제 리스트 및 통제 절차를 설명하고 동 국가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출통제제도 수립, COCOM 통제품목 수입 시 민간용도 사용 등 체제 수립 요청
  - 참가국들은 구공산권 국가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출통제체계가 수립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감 품목 및 기술 수출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합의
  - 미국은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1,100만 달러 제공계획 발표

3. 참고자료

- 일본 외무성 및 통산성 전략물자 수출관리 담당자 면담 결과
  - 일본 외무성 경제안보실 관계자, 통산성 수출관리과장

92-0815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V.1 1991-92.4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15 / 1-193

1991~92.4월 중 제3차 한·미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1992.5.4.~5., 호놀룰루) 준비 관련 내용임.

1.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1992.4.29., 상공부 중회의실)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과기처, 경찰청, 관세청, KOTRA, 무역협회,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 회의 주재: 상공부 제1차관보
- 주요 안건
  - 최근 COCOM 동향,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운영 현황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안), 제3차 한·미 협의회 의제별 입장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회의자료(1992.4월, 상공부 무역협력과),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수출통제 절차(국방부 획득개발부)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상기 외무부 통상2과장
- 미국 측: Robert Price 국무부 COCOM 과장

3. 주요 의제

-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최근 COCOM 제도 변경 내용
-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 군수물자 수출통제 및 재래식무기 이전

4. 자료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제3차 한·미 협의회 대책(1992.4월, 상공부 상역국 무역협력과)
- 1992년도 한·미 COCOM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1992.4.28., 외무부 통상국)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V.2 1992.5-6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7 / 16 / 1-189

1992.5~6월 중 제3차 한·미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1992.5.4.~5., 호놀룰루)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협의 결과

- 한국의 수출통제 시행 시기 및 내용
  - 한국 측, COCOM 통제리스트 중 국내생산 품목만 수출통제 대상으로 하여, 1993.1월 중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고시, 수개월의 경과 기간 후 본격적인 수출통제 실시계획임을 설명
  - 구체적 통제품목과 통제절차는 미국 측과 협의,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
- 최근 COCOM 동향
  - 미국 측은 COCOM 회원국 간 현 COCOM 체제를 유지하되, 전략적 환경 변화를 감안, 협력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 도출 사실 설명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 미국 측,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원자력공급국 회의, MTCR, 호주그룹)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협력 희망

2. 회의 대책자료 및 협의회 참가보고서

-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제3차 한·미 협의회 대책자료(1992.5월, 상공부 무역협력과)
- OM 동향
- 1992년도 한·미 COCOM 협의 참가보고(1992.5월, 외무부 통상국)
  - 회의 개관, 양측 수석대표 개회사, 주요 협의 결과

3. 한·미 COCOM 협의 후속조치

- 1992.5월 한·미 COCOM 협의 시 한국 측이 제의한 상공부 직원의 미 수출통제제도 훈련 문제에 대해 미 상무부는 동 훈련 실시에 동의하면서 훈련 분야, 기간, 훈련비용 문제 등 제안
- 주미국대사관이 6.19. 미 국무부로부터 접수한 COCOM 협의회에서 결정된 이중용도 품목과 HS와의 연계작업 자료 및 결과 수록

92-0817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V.3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2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 / 1-145

1. 1992년도 한·미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협의(1992.5.4.~5., 호놀룰루) 자료(외무부 통상국)
   - 회의 개관: 일정, 양측 대표단, 의제, 한국 측 수석대표 개회사
   - 의제별 입장
     -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IC/DV 제도 이행, COCOM 통제목록 번역, 한국산 전략물자 수출통제, 한국 공무원 및 기업체 직원의 미국 연수
     - 최근 COCOM 동향: 동구권 및 러시아(구 소련)에 대한 통제 완화, COCOM 통제목록의 수정, 통신장비 수출통제, 잔여 5(K) 혜택
     - 비확산: 국제 비확산체제의 개관(MTCR, 호주그룹, 원자력공급국 그룹), 미사일 비확산 문제, 미국의 중동지역 군축 제안, 화학무기 비확산 정책
     - 군수물자 허가 및 재래식무기 이전: 미국의 군수물자통제제도, 한국의 군수물자 수출통제, COCOM 군수물자 목록과 미국의 군수물자 목록, 미국의 ITAR(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ulation) 개정, 재래식군비의 투명성에 대한 유엔 결의

2.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수출통제 절차(The Procedure of Export Control in COCOM) (국방부 획득개발국)
   - 목적, 방침, 세부 시행계획, 행정 사항, 통제대상 국가

독일산 잠수함 수입

생산연도	1984-1992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2-58 / 2 / 1-20

1984~92년 중 독일산 잠수함 수입 관련 내용임.

1. 독일(구 서독)의 대한(對韓) 잠수함 건조계획

- 1984년 이래 Süddeutsche Zeitung, Morgen Post, Die Zeit 등 독일 언론은 한국이 독일 HDW 조선소 특허로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보도

2. 독일 기술에 의한 잠수함 진수식(1992.10.12.)

- 한국 해군은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진에 의해 처음 건조된 잠수함 '이천(李阡)함' 진수식 거행
  - 노태우 대통령 내외,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참석
  - 이천함은 대우조선이 1987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설계와 기술을 제공받아 1989년부터 건조에 착수한 T509급 디젤엔진 추진 잠수함임.

3. 독일산 잠수함 인수(1992.10.14.)

- 주독일대사, 한국 해군이 독일 HDW 조선소에서 제작한 해군 잠수함 '장보고'호 인수식 참석
  - 동 인수식에는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내외를 비롯한 양국 해군의 고위인사 및 조선업계 관계자, 킬지역 출신 하원의원 등 정치·경제계 주요인사 참석

92-0819

한·네덜란드 방위산업협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서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2-58 / 6 / 1-29

1991~92년 중 한·네덜란드 간의 방위산업 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네덜란드 간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1991.4.26.)

- 한·네덜란드 군사비밀보호 양해각서(1989.9월)에 의거, 한·네덜란드 국방부 간 협정 체결

2. 네덜란드 J-79 항공기 엔진 판매

-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1991.11.25.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의 국방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J-104 Starfighter 및 F-4 Phantom용 J-79 항공기 엔진을 우방국에 급히 판매하고자 구매자를 물색 중이라고 알려옴.

3. 네덜란드 국방장비 판매

-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1992.2.19. 네덜란드 국방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국방 장비 명세를 당관에 알려오면서 동 장비를 우방국에 판매하고자 한다고 알려옴.

동구권 국가 방위산업 기술 도입 문제 검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2-58 / 11 / 1-91

1. 동구권 국가 방산기술 도입 문제 검토(1991.10월, 외무부)

- 동구권 방산기술 도입 시 긍정적 측면
  - 무기체제의 미국 의존에서 오는 한계 극복에 기여
  - 북한 보유 군사장비 체계 관련 기술정보 획득 용이
  -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
- 대책 건의
  - 한국에 있어서 한·미 안보체제 유지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산물자 도입이나 대외적 민감도가 높은 국방 과학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인 도입보다는 한국에 필요하고 동구권으로부터 획득 가능한 기술을 기초과학기술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안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미 안보협력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구체적인 실익을 얻는데 바람직함.
  -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첨단 고도기술 도입 등 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진행시켜 나가되, 필요시 내용 면에서 방산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제2차 구소련 방산기술 획득 활성화 대책회의(1992.3.19., 국방부)

- 주관: 국방부 제2차관보
- 참석: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과기처, KIST, 청와대 등 제1차 회의 참석대상에서 외무부만 제외(ADD 관계자 추가)
- 결과
  - 제3국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수 분야 협력사업으로 추진(과기처 주관)
  - 정부부처 간 실무위원회, 방산기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KIST 한·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기술 도입 가능성을 타진 후 기술별로 협력 대책 강구
  - 한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 소요 84건 제기
- 외무부 관련 사항
  - 금번 회의는 한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 요소를 제기하는 기술적 성격이어서 외무부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후부터는 기술적 성격의 회의라 하더라도 외무부가 참가하도록 의견 집약

92-0821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총회, 제34차. 서울, 1992.9.9.-12. 전2권 (V.1 5-8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2 / 1-98

1992.9.9.~12.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총회 관련 준비사항임.

1. 총회 개요

- IISS는 세계 주요 국내에 설치된 National Committee를 통하여 300~400명이 참가하는 연례 총회를 매년 개최함.
- 1988.2월 김종휘 IISS 한국위원회 회장의 한국 개최 신청에 대해 동년 3월 IISS 이사회가 승인함.
- 1992.9.9.~12. 서울에서 개최될 제34차 IISS 총회는 세계적 안보·군축 동향 및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해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국제학술회의 성격임.
  - 주제: 탈냉전시대의 아시아의 국제적 역할

2. 제34차 IISS 연차총회 준비계획서

- 기간 및 장소: 1992.9.9.~12.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 조직위원회
  - 위원장: 정연권(동아일보 이사)
  - 위원: 김경원(전 주미국대사), 박권상(언론인), 임동원(국토통일원차관), 유혁인(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종휘(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총회 일정
- 분과회의 주제

3. Bo Huldt IISS 신임 소장 방한(1992.9.6.~13.)

- 제34차 IISS 총회 참가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외교안보연구원장·청와대·국무총리 예방, 판문점 시찰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총회, 제34차. 서울, 1992.9.9.-12.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3 / 1-169

제34차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총회가 1992.9.9.~12.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31개국 정부 관리 및 학자 208명(한국 측은 29명 참석)

2. 회의 특징

- 금번 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의 국제적 역할'이라는 주제하에 아시아의 전략적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양식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짐.

3. 회의 관찰 요지

- 금번 총회는 1986년 일본 교토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된바, 이는 최근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지역 내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 대한 세계적 관심을 의미함.
- 금차 총회에서는 특히 아시아지역 내 주요 안보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중국과 대만의 재래식 군비증강 문제, 일본의 새로운 역할 문제, 미국의 역할 조정 문제, 러시아의 국내정세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됨.
- 금차 총회를 계기로 1987년 이래 IISS Director로 근무해 오던 Francois Heisbourg가 퇴임하고 Bo Huldt가 신임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바, 서울 총회를 계기로 동 연구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적절한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됨.

92-0823

북태평양 안보 워크숍, 제1차. Ottawa(캐나다), 1992.5.22.-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북미1과 /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4 / 1-163

제1차 북태평양 안보 워크숍이 1992.5.22.~23.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북태평양 7개국(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남·북한) 및 호주, 싱가포르

2. 회의 주제

- 북태평양에서의 군비통제 및 신뢰 구축

3. 회의 의제

-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신뢰 구축
- 지역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등

4. 북한 측 주요 언급내용(워크숍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한반도 내 군사적 신뢰 구축은 군축 분위기 조성과 남북 상호 불신 제거에 중요함.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 핵통제위원회에서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제도를 설치해야 함.
-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함.

화학산업과 군축에 관한 심포지움. Basel(스위스), 1992.1.24.-2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6 / 1-70

정부는 1992.1.24.~27.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화학산업과 군축에 관한 심포지엄에 과학기술처 유성은 박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화학산업과 군축에 관한 심포지엄 참가자 선정(1992.1.6., 외무부)

- 스위스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1992.1.24.~27.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화학산업과 군축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가할 한국 측 화학 산업 전문가 1명을 초청
- 동 세미나는 1992년 말까지 체결될 화학무기금지협약이 화학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 체결 대책 수립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할 예정임.
  - 과기처의 심포지엄 참석 추천 인사: 유성은 한국 화학연구소 유기화학 제2부장

2. 화학 산업과 군축에 관한 심포지엄 참가보고서 송부(1992.2.19., 과학기술처)

- 회의에서의 주요 검토사항
- 각국의 화학무기 군축에 대한 대응
- 건의사항: 본 심포지엄의 전체적 분위기나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속도로 보아 빠른 기간 내 협약 내용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이 국제협약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 협정이 국내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92-0825

국제 비핵자치단체회의, 제6회. 요코하마(일본), 1992.11.4.-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7 / 1-131

정부는 1992.11.4.~8.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 비핵자치단체회의에 경기도청 소속 직원을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함.

1. 참가자

- 23개국의 자치단체 대표단과 일본 내 139 자치단체 관계자, 시민 등 약 1,400명

2. 토의 의제

-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

3. 회의 결과

- 가나가와 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일본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반입을 반대하는 일본 비핵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어필이라는 문서를 대회 이름으로 수락(채택이 아님)함.

4. 관계자료 송부(1992.11.10., 주요코하마총영사관)

- 제6회 국제 비핵자치단체회의 '가나가와 선언', 일본 비핵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어필(일, 영문), 제2분과회의 한국 관계 발언요지(영문), 관련 신문기사 발췌, 분과회의 등에서 발표된 개별성명(일, 영문) 등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 시즈오카(일본), 1992.11.27.-2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58 / 18 / 1-67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가 1992.11.27.~29.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됨.

1. 주최

-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부설 Mountbatten Center, 일본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2. 참석자

- 한국 측: 강근택 외무부 심의관, 전성훈 민족통일연구원 박사
- 세계 군축 및 핵 전문가 43명

3. 주요 내용

- 동아시아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
  - 스즈키 일본 도쿄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의 핵무기 개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함.
- 동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현황
  - 전성훈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국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함.
- 동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을 위한 지역 협력 문제
  - 강근택 심의관은 세계 각 지역의 안보 환경이 상이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비핵지대 설정 문제가 일률적으로 거론될 수 없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핵 비확산 문제
  - Scheiman 미국 코넬대 교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강화 문제에 대해 발표한바, IAEA 특별사찰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핵 투명성 제고와 핵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 Muller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교수는 핵 수출통제제도 개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IAEA 안전조치 강화와 IAEA 규정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92-0827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0차. 서울, 1992.11.19.-2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22-58 / 19 / 1-71

제10차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가 1992.11.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주제

- 동북아 신질서와 한·미 관계

2. 회의 목적

- 냉전 종식 이후 재편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흐름을 검토하고 한·미 간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 등을 조망하여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에서의 바람직한 양국의 역할과 관계 정립 모색

3. 참가자

- 한국 측: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연구실장, 유석렬 교수 등 원내 10인, 한승주 교수, 안병준 교수, 양성철 교수 등 원 외 6인
- 미국 측: RAND연구소 전문학자 5인

4. 회의 결과

- 클린턴 신행정부에 의해 추진될 미국의 아태 정책
  - 아태지역의 군비증강 등 지역 불안정 요인의 상존, 아태지역의 경제적 비중 증대 등을 감안하여 미국은 쌍무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을 중시해온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
  - 새로운 전략 환경 속에서 기존의 목표 이외에도 미국은 경제적 경쟁력 강화, 대량살상 및 첨단 무기 확산 방지,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
  - 한국 측도 균형자 내지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미국의 아태지역 내 역할이 역내 평화 및 안정과 지속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 미국의 대아태 정책 기조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투영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 한반도 안정유지 및 긴장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및 미·북한 관계
  - 북한의 핵문제 관련, 미국 측은 핵 개발 의혹의 완전한 해소 없이 미·북한 관계 개선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 직원 진출. 전2권 (V.1 1984-89)

생산연도 1984-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58 / 20 / 1-153

1. 정부는 1970년 이래 국제기구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사무국 4명 정원 중 3명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여 왔으며, 1984.6월 현재 2명은 정년퇴직하고 1명만 근무 중임을 감안, 한국인의 유네스코사무국 진출을 적극 추진해옴.

- 1983.10월 제2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분담금 비율 0.4% 이하 회원국의 직원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충원하기로 결의하여 한국(분담금 0.18%)은 추가로 4명 충원이 가능해짐.

2. 유네스코 진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그간 정부는 유네스코 진출 후보자 추전 시 외무부, 문교부, 문공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각 기관별로 산발적 추천을 해옴에 따라 총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왔음.
  - 유네스코 본부 한국인 진출희망자 24명 중 20명은 파견을 희망하지 않거나 이미 타후보자들이 임용
- 1984.11.30. 이후에는 문교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 후 외무부가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유네스코사무국에 직접 추천하기로 함.

92-082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 직원 진출. 전2권 (V.2 1990-92)

생산연도	1984-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국제기구과

1990~92년 중 정부의 유네스코 분담금 지불 및 사무국 직원 진출 추진 관련 내용임.

1. 1991.4.3. 주유네스코대사는 Moriyma 유네스코사무국 인사국장을 면담하고 그간 사무국 직원의 결원 시 한국인 후보의 채용을 신청하였으나 채용되지 못했다고 하고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함. 이에 동 국장은 협조하겠다고 함.

2. 1992.1.9.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서한으로 회원국의 1992년도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며 1.27. 정부는 한국인의 유네스코 진출을 위해 분담금(926,659달러와 7,420,747프랑)을 조기에 납부하기로 함.
   - 2.21. 주유네스코대사관은 상기 분담금을 유네스코사무국에 납부함.

3. 1992.1.14. 주유네스코대사는 Sharma 유네스코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1992년부터 한국의 유엔 가입으로 대유네스코 분담금이 종래보다 3배 증액된 약 2백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1990년부터 사무국 진출을 위해 한국인 6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청함.
   - Sharma 사무차장은 한국인 진출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경비부담 조건으로 한국인을 1~2년 정도 Associate Expert로 사무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의함.

4. 1992.8월 외무부는 다자외교 강화방안으로 유네스코사무국 아태지역부에 외무부 직원 1명을 유네스코에 고용되는 형식으로 파견하기로 함.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한국 직원 파견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경제기구과 / 국제연합2과

1. 1988.1.21.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사무처장은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기술협력사업 계획 분야 자문을 맡을 수 있는 전문가 지명을 요청함.

2. 1988.7.8. 재무부는 경비부담 조건으로 2년간 김광수 재무부 서기관이 UNCTC에 파견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3. 주유엔대표부가 UNCTC과 협의한 결과 UNCTC 측은 1988.9.15.자 공한을 통해 김광수 서기관의 파견에 동의, 김광수 서기관은 1989.2~90.12월간 UNCTC에 파견됨.

4. 1990.12월 정부는 김광수 서기관의 후임으로 김성진 재무부 사무관을 1991.3~92.3월간 UNCTC 파견하기로 함.
   - 1992.3월 김 사무관의 파견 기간이 1992.3~93.3월로 연장됨.

92-0831

ILO(국제노동기구) 파견 공무원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58 / 21 / 1-256

1990~92년 중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주재관 파견 현황임.

1. 정부는 1988년부터 ILO 가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대ILO 창구역할 수행 및 국제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의 경비부담 조건으로 노동부 공무원을 ILO에 연수 파견함.
   - 김하술 서기관(1988.9.27.~91.9.29.), 김윤철 서기관(1991.12.28.~93.12.27.) 등

2. 정부는 ILO가 시행 중인 역내 각종 기술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해 태국 방콕 소재 ILO ROAP (아태지역사무소)에 한국의 경비부담 조건으로 고유진 노동부 공업기정(1991.4.5.~93.4.4.)을 파견함.
   - 1990.7.30. ILO ROAP 소장은 노동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함.
   - 8.26. 노동부는 외무부에 동 파견계획에 대해 문의한바, 10.8.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3. 정부는 1991.12월 ILO 가입 후 한국의 ILO 분담금 규모(분담금율 0.68%로 전 회원국 중 21번째) 및 한국의 대ILO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1~2명의 한국인이 ILO 사무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1992.4.1. 주제네바대사관에 ILO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 6월 Cornwell ILO 인사국장은 ILO 사무국 직원 채용 시 한국인을 특별 고려하겠다고 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사무차장 선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59 / 1 / 1-182

1. 1991.9.3. Khali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사무차장의 사무총장 취임으로 인해 사무차장직이 공석이 되었으며 AARRO 헌장은 후임 사무차장을 공석 후 6개월 이내(1992.3.3. 이전)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
   - AARRO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의 농촌사회 재건 협력 증진을 위해 1961년에 설립됨(회원국은 23개국, 한국은 1963.2.19.가입).

2. 1991.10.30. AARRO 사무국은 공한을 통해 AARRO 사무차장 선출 관련 아래 5개국으로부터 6명의 입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1992.1.31.까지 6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함.
   - 입후보자(6인): 모리셔스 1, 수단 1, 인도 2, 말레이시아 1, 가나 1

3. 1992.1.25. 정부는 아세안 대화체제 격상을 위한 말레이시아 측의 지원 확보 및 긴밀한 한·말레이시아 간 경협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4. 1992.8.18. AARRO 사무국은 공한으로 Bahar Munip 말레이시아 후보가 AARRO 사무차장에 선출되었다고 통보함.

92-0833

각국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2 / 1-219

1992년 중 유엔 산하 국제기구별 위원 선출에 대한 정부의 지지 현황임.

1. 1992.12.10. 외무부는 유엔 산하기구 ICSC(국제공무원위원회) 및 COC(기여금위원회) 위원 선출 시(12.11.) 한국에 지지 요청한 국가 입후보를 투표하도록 주유엔대사관에 지시함.
   - ICSC(5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우간다, 필리핀
   - COC(2개국): 튀니지, 아르헨티나

2. ACABQ(유엔행정예산자문위원회)
   - 1992.7.20.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자국 ACABQ(유엔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 입후보와 한국의 ECOSOC(경제사회이사회) 입후보를 상호 지지할 것을 구두로 제의함.
   - 8.4. 멕시코 외무성은 ACABQ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옴.
   - 볼리비아는 8.19.자 공한을 통해 자국 ACABQ 입후보와 한국의 ECOSOC 이사국 입후보를 상호 지지할 것을 제안함.
   - 9.11. 캐나다 외무부는 ACABQ 선거에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해 옴.

한국의 유엔 정규 및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납부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3 / 1-69

1991~92년 중 정부의 유엔 및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납부 현황임.

1. **1991.12.30. 유엔사무총장은 공한을 통해 한국의 1991~92년도 유엔분담금 8,247,373달러를 30일 이내에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함.**
   - 정규예산 분담금: 7,467,836달러
     - 1991년도 분담금: 672,621달러, 1992년도 분담금: 6,795,215달러
   - 1991년도 PKO 분담금: 89,537달러
   - 유엔사무총장 활동기금 분담금: 690,000달러

2. **1992.1.10. 정부는 분담금 미납국가의 수가 100여 국에 달하고 1991년도 정부의 예산 배정상 30일 이내 전액 지불이 곤란함을 감안, 분담금 일부는 30일 이내에 지불하고 나머지 분담금은 1992년 중 지불하기로 함.**
   - 정부는 4.20. 유엔사무총장 활동기금 분담금, 1991년도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1991년도 PKO 분담금 등 총 1,452,158달러를 송금 조치함.
   - 정부는 7월 1992년도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6,795,215달러) 중 50% 이상 납부함.
   - 정부는 10.6. 1992년도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일부(1,500,000달러)를 송금 조치함.

3. **1992.7월 현재 정부가 1992년도 예상되는 PKO 분담금은 약 270만~370만 달러로 추산됨 (1992년도 PKO 총 경비 20~27억 달러의 0.138%).**
   - 한국의 PKO 분담률은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0.138%(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0.63%의 1/5)임.

92-0835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92.1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59 / 6 / 1-280

유엔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가 1992.11.4. 뉴욕에서 개최됨.

1. 유엔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 1992.11.4.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1993년도 유엔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에서 한국은 UNHCR(유엔난민기구), UNFPA(유엔인구기금), 유니세프 등에 대한 기여금 대폭 증액 서약
- 기여금 서약 개요
  - 16개 기구에 230만 달러 서약(1992년 대비 약 57만 달러 증액, 대상기구 4개 추가)
  - 주요 기금별 서약 규모
    - UNDP(개발): 106,320달러(변동 없음)
    - 유니세프(아동): 90만 달러(30만 달러 증액, 50% 증)
    - UNFPA(인구): 15만 달러(10만 달러 증액, 200% 증)
    - UNHCR(난민): 10만 달러(8만 달러 증액, 400% 증)
- 기여금 증액 의의
  - 유엔가입 후 유엔 활동 적극 참여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
  - 난민, 인구, 아동 분야 활동 중시 및 사회개발 분야 참여 확대

2. 기여금 예산 증액 관련 자료

- UNFPA 기여금 증액 문제
- 기여금 예산 증액 보충설명서: UNDP(유엔개발계획),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UNTFA(유엔노인신탁기금), Reservation Fun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신설, 중앙긴급구호기금(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기금(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und)
- 서약 분담금(Voluntary Contribution) 증액 문제
- 자발적 기여금에 대한 검토
- 아동, 인구, 개발 관련 기여금 증액 문제 검토

유엔 기능 및 역할 강화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7 / 1-123

1991~92년 중 유엔 기능 및 역할 강화 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임.

1. 스톡홀름 회의(1991.4.20.~22., 스톡홀름)

- 참석자: Carlsson 스웨덴 총리, Brundtland 노르웨이 총리, Brandt 전 독일(구서독) 총리, Heath 전 영국 총리, Bhutto 전 파키스탄 총리 등 30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전직 지도자 및 23개 개발기구 대표 등
  - 한국 대표: 이홍구 주영국대사
- 회의 주제: The Stockholm Initiative on Global Security and Governance(Common Responsibility in the 1990's)
- 의제: 세계평화 및 안보, 개발, 환경, 인구 억제, 민주주의
- 회의 결과
  - 28개 제안으로 구성된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메모랜덤 채택
  - 유엔사무총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부여된 특권적 거부권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
- 참고자료
  - 이홍구 주영국대사의 스톡홀름 회의 참가보고서
  - 회의 프로그램, 회의자료

2. 유엔총회 제6위원회 산하 유엔헌장 및 역할강화 특별위원회

- Eyskens 벨기에 외무장관은 리스본 개최 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회담 시(1992.2.17.) 유엔분쟁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4가지 방안 제시
  - 잠재적 분쟁의 탐지기능 강화, 잠재적 분쟁의 예방기능 강화
  - 분쟁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노력 시현
  - 평화유지군의 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수단 강구

92-0837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전2권 (V.1 4-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8 / 1-274

1992.6.18. Boutros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관련 내용 및 논의 동향임.

1. 제출 배경

- 1992.1.31.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는 '예방외교, 평화조성 및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기능 강화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분석 및 건의'를 유엔 회원국에 배포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

2. 보고서 요지

- 서론
  - 냉전 종식으로 유엔은 무력충돌의 예방과 해결, 평화 유지의 중심적 기관으로 부상
-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 국가 간 또는 국내 분쟁 발생이 우려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엔군 배치 적극 고려
- 평화조성(Peacemaking)
  - 전 유엔회원국은 2000년까지 ICJ(국제사법재판소)의 일반적 관할권을 아무런 유보 없이 수락할 것을 요청
  - 헌장 제43조에 의거, 필요 시 안보리가 회원국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헌장 제43조에 의거한 유엔군 실현에 앞서 평화구축부대(Peace-Enforcement Units) 우선 설치 제안
- 평화유지(Peace-keeping)
  -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수요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
  - 현 PKO 경비의 규모와 불가측성을 감안, PKO 분담금을 각국의 외무부 예산보다 국방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 지지

3. PKO 특위 회의(1992.8.17.~24.)

- 참가국
  - PKO 특위 위원국(34개국) 및 옵서버국(30개국)
- 한국 측 대표단
  - 유엔대표부 직원 등 3명



● 회의 결과

-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 회합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각국 보고서 심층 분석을 위한 시간 결여로 토의는 일반적 견해 표명에 그침.

● 참고자료

- 신국제질서와 유엔의 역할-평화의제(An Agenda for Peace) 분석(1992.9.30., 외교안보연구원)

92-0838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전2권 (V.2 10-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9 / 1-324

1992.10~12월 중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관련 논의 동향임.

1. 외무부, 유엔 기능 강화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검토의견 건의(1992.10.26.)

- Agenda for Peace에 대한 전반적 평가
- Agenda for Peace 주요 제안에 대한 한국 입장(안)
-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

2. 유종하 주유엔대사, 제47차 유엔총회 본회의 의제 10(유엔사무총장 보고서-Agenda for Peace) 토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1992.10.27.)

- 사무총장 보고서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 증대방안 토의에서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3. 유엔안보리 본회의(1992.10.28.)

-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 관한 안보리 의장 성명서 채택

4. 소병용 주쿠웨이트대사, 제47차 총회 특정위 의제 75(PKO(유엔평화유지활동) 문제) 토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1992.11.11.)

- 분쟁 발생에 효과적 대처를 위한 평화유지군의 신속 배치 요망
- PKO 초기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의 비축 필요성 강조
- 신규 회원국의 PKO 참여 촉진을 위한 유엔 주관의 훈련제도 실시 요청 등

5. 유엔총회 본회의(1992.12.18.)

- Agenda for Peace 관련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상기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지지하는 선진국 그룹과 동 제안 이행 시 주권 침해, 내정 간섭 허용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비동맹그룹 및 중국 간 의견 대립
  - 논란의 여지가 적은 예방 활동 분야(사실 조사, 조기 경보, 정보 수집)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만 기존의 원칙을 반복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

한·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제기구국장회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10 / 1-126

1992년 중 개최된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간의 양자 국제기구국장회의 관련 내용임.

1. 한·인도 회의(1992.5.26.)

- Sreenivasan 유엔국장 주최 오찬, Sreenivasan 유엔국장 면담 및 Mehrotra 외무차관 면담
- 주요 협의 의제
  - 유엔 개편 및 역할 강화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사항
  - 아주그룹회의 문제 토의
  - 세계인권회의 아주지역회의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입후보
  - 비동맹회의

2. 한·인도네시아 회의(1992.5.29.)

- Hadi Wayarabi 국제기구국장, Wiryono 정무차관보 면담
- 주요 협의 의제
  - 최종문서 초안 배포 문제
  - 한반도 조항 처리 전망
  - 비동맹 참여 문제

3. 한·필리핀 회의(1992.5.30.~6.1.)

- Arcilla 국제기구국장 면담
- 주요 협의 의제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비동맹 관련
  - 유엔 역할 강화
  - 북한 핵문제

92-0840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New York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59 / 12 / 1-182

1. 유엔 아시아그룹 개요

- 유엔 내 지역그룹 중 하나로 아시아와 중동지역 44개국과 팔레스타인으로 구성
- 유엔의 각종 선거와 관련, 지역별로 입후보국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
  - 유엔의 지역그룹은 유엔이 취급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관한 그룹의 입장을 정하기도 하나, 아시아그룹은 구성국이 다양한 관계로 이러한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그룹의 기능 확대 문제 거론
- 지역그룹 의장은 각국이 영어국명 알파벳순으로 1개월씩 수임

2. 한국의 유엔 아시아그룹 의장직 수임

- 1991.9.17. 유엔가입 후 최초로 1992.9월 유엔 아시아그룹 의장국 수임
  - 유종하 주유엔대사가 의장직 수행

3. 유엔 아시아그룹 주요 활동

- 유엔 아시아그룹은 매월 회원국이 번갈아 의장국을 수임하여 아시아그룹회의 개최
  - 유엔 산하 각종 기구 이사국 입후보의 아시아그룹 내 조정, 기구회의 개최 일자 조정 문제 등 논의
- 월별 회의내용 및 회의록 수록

92-0841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일정)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59 / 13 / 1-176

노태우 대통령의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유엔 방문(1992.9.22.~24.) 일정 관련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뉴욕 방문 일정(안)

- 9.20. 뉴욕 JFK공항 도착, 교민 대표 초청 주뉴욕총영사 주최 리셉션 참석
- 9.21. Brundtland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Washingon Post지 인터뷰, Scowcroft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Eagleburger 국무장관대리 접견, 와타나베 일본 외상 접견
- 9.22. 유엔사무총장 면담, 유엔총회 의장 면담 및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유엔대사 주최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참석, Wall Street Journal 주최 만찬 참석
- 9.23. 수행 기자단과의 조찬,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오찬,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Asia Society 연례 만찬회 참석
- 9.24. 뉴욕 JFK공항 출발

2. 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순서

- 1992.9.22. 09:45~11:00 유엔사무총장 면담, 유엔총회 의장 면담 후 지부티 대통령 다음 2번째로 연설

3. 유엔총회 기조연설문(안) 요지

- 세계사의 조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행, 최근 민족분규 재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주요 유엔 현안과 한국 입장
  - 주요 현안 언급: 군축, 개발, 환경, 인권
  - 유엔의 문제해결 노력 지지 및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 표명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북한의 핵 개발 등 동북아 긴장 요소 언급
  - 한국의 역내 냉전체제 극복 노력 소개: 한·중 수교, 한·러 관계 진전, 남북한 관계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조망

92-084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의전 및 행정)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1 / 1-126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1992.9.22.~24.) 의전 및 행정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유엔 방문 예산

-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 행사 관련 주유엔대표부의 소요예산 내역

2. 리셉션 준비

- 리셉션 초청자 명단 작성
  - 주유엔대표부 주최 외교단 리셉션에는 북한 대표 초청, Asia Society 리셉션에는 미·북한 외교관계 부재를 근거로 북한 대표 불초청

3. Asia Society 연례 만찬, 월스트리트저널 만찬 준비

- A.S. 연례 만찬 시 한국 소개 슬라이드 제작 및 상영, 헤드테이블 구성안, 만찬 공연, 선물 및 장식, 테이블 판매
- 월스트리트저널 초청 만찬 준비: 초청대상자 선정 등

4. 선물 준비

- 유엔사무총장, 의전장, 여타 유엔 인사, 국무부 및 경호관계관용 선물 준비

5. 기타 행정사항

- 차량 준비, 호텔 객실 예약
- 공항 출입국 수속 절차 브리핑, 유엔 방청권 확보

6. 경유지 행사 준비

- 앵커리지 경유 시 교민 다과회 준비(대화자 명단, 말씀요지)
- 시애틀 경유 시 행사 준비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홍보)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2 / 1-254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1992.9.22.~24.) 홍보 관련 내용임.

1. 코리아헤럴드 창간 39주년 특별회견 답변자료
   - 답변 요지, 배경자료(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세계정세와 정상외교, Korea & the United Nations)
2. Tass 통신 기자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자료
   - 노태우 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참석 의의
3. 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발표문(1992.8.27., 청와대 대변인)
4. 대통령 유엔 방문 홍보계획(1992.9.5., 외무부 국제기구국)
5.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홍보 대책(1992.9.14., 외무부)
6. 제47차 유엔총회 관련, KBS의 노창희 외무부차관 인터뷰자료
7. 대통령 유엔 연설 계기 해외홍보계획(1992.9.14., 공보처)
8. 유엔가입 1주년 계기 외무부장관 서울신문 인터뷰자료(1992.9.15., 외무부)
9. 외교 문제 해설: 유엔가입: 새로운 도전 – 유엔가입 1주년을 맞으며(1992.9.15., 외무부)
10. 대통령 방미 시 예상 질문·답변자료
11.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관련 브리핑(1992.9.21.)
12. 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해설자료(1992.9.22., 외무부)
13. KBS의 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중계방송 자료(1992.9.22., 노창희 외무부차관 출연)
14.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SBS 인터뷰 참고자료

15. 노창희 외무부차관 인터뷰자료(1992.9.25.)

16. 주유엔대표부, 주미국대사관 및 주뉴욕총영사관의 대통령 유엔 방문활동 홍보실적

17. 외무부장관 평통 상임위/운영위 보고자료(대통령 유엔 방문 성과 포함)(1992.10.1., 외무부)

18. 외교 문제 해설: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향하여-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의의 및 성과

19. 세계 주요 연설문을 게재하는 권위지 Vital Speeches of the Day에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문 수록(1992.10.15.)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4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기조연설문 작성)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3 / 1-331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1992.9.22.~24.) 시 기조연설문 관련 내용임.

1. 기조연설문 작성

- 노태우 대통령이 1992.9.22.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기조연설문 초안 및 최종안(국·영문본) 작성내용 수록
  - 제47차 유엔총회에서의 대통령 연설문(안)(1992.6월, 주유엔대표부)
  - 제47차 총회 기조연설(안)(1992.7.25.~8.24., 외무부 국제기구국)
  - 노태우 대통령 제47차 유엔총회 연설: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향하여(1992.9.22., 뉴욕 유엔본부, 청와대 공보)
  - Toward a Peaceful and Prosperous 21st Century, Address by H.E. Roh Tae Wo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Forty-seven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September 22, 1992, United Nations, New York)

2. 기조연설문 개요

- 두차례 유엔 방문 회고, 가입 1주년 언급
- 국제정세 개관: 신국제질서 형성, 유엔의 역할 치하 및 지지 표명
- 한반도 문제: 정세 설명, 핵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한국의 통일방안 재천명, 통일 한국의 미래상
- 동북아·아태지역 문제
  -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간에 논의·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통일 실현 촉진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주변국으로부터 기대 등
- 경제·사회 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필요성 및 한국의 기여 의지, 개발 문제에 지속적 관심 경주 필요, 경제·사회 분야 유엔 기능 강화 지지 등
- 주요 현안: 지역분쟁(중동, 유고, 캄보디아, 남아공), 군축, 환경, 인권
- 맺음말
  - 대·소 각국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국제질서 염원
  - 한반도 문제해결을 통한 세계평화에의 기여 의지 표명

3. 기조연설문 배포

- 1992.9.17. 외무부, 주유엔대표부 및 재외공관을 통해 노 대통령의 제4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 배포

92-0845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5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말씀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4 / 1-308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1992.9.22.~24.) 관련 말씀자료임.

1. 워싱턴 부지사 접견 시 말씀자료(1992.9.20., 청와대 외교안보)

2. 뉴욕 교민 초청 리셉션 시 대화자료

3.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자료

4. 와타나베 일본 외상 접견 시 말씀자료

5. Scowcroft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접견자료

6. Eagleburger 미 국무장관 접견자료

7. 국제연합 및 유엔총회 개관 참고자료

8. 유엔사무총장 면담 시 말씀자료

9. 유엔총회 의장 면담 시 말씀자료

10.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접견 시 말씀자료

11. 각국 대표단 초청 주유엔대사 주최 리셉션 시 말씀자료

12. WSJ 발행인 주최 만찬 시 말씀자료

13. 주뉴욕 및 주LA총영사 보고 시 말씀자료

14. 닉슨 전 대통령과의 오찬 시 말씀자료

15.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자료



16. 아시아협회(Asia Society) 연례 만찬 전 리셉션 참석 예상 인사 대화 참고자료

17. 아시아협회 연례 만찬 시 말씀자료

18. 아시아협회 연례 만찬 시 연설문

19. 시애틀 거주 교민 초청 다과회 시 말씀자료

20. 기타(미시행)

- 유엔사무총장 주최 총회 대표단을 위한 오찬 시 말씀자료
- 수행기자단과의 조찬 시 말씀자료
- 특파원 다과회 말씀자료, 뉴욕특파원 간담회 말씀자료, 뉴욕특파원 조찬 시 말씀자료
- 대통령 유엔 방문 출발 성명, 귀국 성명
- 노르웨이 총리 환담자료
-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시 말씀자료

92-0846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6 노태우 대통령 유엔 방문 : 활동보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5 / 1-73

제47차 유엔총회 계기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방문(1992.9.22.~24.) 활동 보고자료임.

1. 유엔 및 중국 방문 결과보고(1992.10.1., 외무부)

- 주요 활동: 유엔총회 기조연설, 인도네시아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유엔사무총장, 유엔총회 의장, 일본 외상 등과 회담, 미 아시아협회 연례 만찬회 연설, 유엔총회·교민 대표 리셉션 참석
- 방문 성과: 유엔 외교 본궤도 진입, 새로운 동북아질서 형성과정 참여 기반 마련,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의지 부각
- 후속조치: 유엔 활동 적극 참여,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2. 감사 서한 송부

- 1992.10.16. 노태우 대통령은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 Stoyan Ganev 유엔총회 의장, 유종하 주유엔대사 앞 감사 서한 송부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7 장관 일정)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6 / 1-139

외무부는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참석 계기 각국 외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함.

1. 유엔총회 참석 시 각국 외무장관 면담(안)(1992.8.26.)
   - 면담 필요 국가
     -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알바니아, 이란, 시리아, 이집트, 모잠비크, 짐바브웨
   - 상대측 요청 국가
     - 룩셈부르크, 멕시코, 부탄, 요르단
   - 향후 조치계획
     - 추진 국가 결정 후 대상국 주재 공관에 상대측 의사 타진 훈령

2. 1992.9.15. 주유엔 러시아대표는 Kozyrev 러시아 외무차관이 유엔 참석 시 외무장관 면담을 희망함.
   - 이에 양국은 일정 조정을 통해 동 면담을 9.22. 확정함.

92-0848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8 장관 면담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7 / 1-171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임.

1. 국제정세 일반, 남북한 관계, 아·태지역 안보협력, 군축 문제, APEC 현황: 외교정책기획실

2. 한·미 관계, 미·북한 관계: 미주국

3.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일·북한 관계, 캄보디아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ASEAN과의 협력: 아주국

4. 북방외교 성과, 한·러 관계: 구주국

5. UR 협상 현황과 전망, EC 통합 및 대응, NAFTA 타결 현황 및 대책: 통상국

6. 환경 문제, 개도국 개발지원 문제: 국제경제국

7. 한국 정부 교민 정책, 미주지역 거주 교민 지원방안: 영사교민국

8. 한·러 외무장관 면담 요록

9. 한·이집트 외무장관 면담 요록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9 기본대책 및 의제별 입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8 / 1-244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기본대책 및 의제별 입장 관련 내용임.

1. 유엔 외교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 계획(1992.2월)

- 아주지역 주요국과의 유엔총회 및 주요 국제회의 대책협의를 통한 다자외교 분야 협조체제 강화
- 외무부 본부 및 유엔대표부 간 업무협의 정례화를 통한 효율적 대책 수립 및 시행
- 유엔사무국 주요 간부와의 접촉 강화를 통한 한국인의 유엔사무국 진출 확대 및 협조체제 강화

2. 유엔총회 각 위원회별 각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기본지침(1992.11월)

-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결의안 내용의 한국 입장과의 부합 여부, 한국의 대유엔 외교 방향,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 지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투표
  - 여건 변경 등으로 제46차 총회 시와 다른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경우, 최초로 발의되거나 또는 종전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결의안 등은 외무부 본부에 청훈하여 결정

92-0850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0 대표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9 / 1-45

정부는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함.

1.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장관

2. 교체 수석대표: 유종하 주유엔대사

3. 대표: 소병용 주유엔 차석대사, 권인혁 외무부 환경담당대사, 김재섭 국제기구국장

4. 교체대표: 오윤경 주유엔대표부 공사 등 5명

5. 고문: 최종무 주유엔 참사관, 함명철 조약심의관, 김주석 유엔1과장, 최정일 국제법규과장, 정래권 과학환경과장, 김명진 안보정책과장 등 22명

6.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채택 토론: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7. 화학무기협약 토론(제1위원회):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8. 유엔 기능 강화 국제법 발달 분야 토론(제6위원회): 김영철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찰관

9. 재래식무기 군축 분야 토론(제1위원회):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박상영 대령 등 3인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1 절차 문제 :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등)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10 / 1-197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의장단 선출 및 의제 채택 관련 내용임.

1. 의장단 선출

- 제47차 유엔총회 의장직은 지역교대 원칙에 따라 동구 국가 차례로 동구그룹은 Ganev 불가리아 외무장관을 총회 의장 후보로 추천
  - 1992.4.28. 외무부는 Ganev 외무장관의 유엔총회 의장 입후보 지지 공한 발송
- 제47차 유엔총회 본회의는 9.15. Ganev 불가리아 외무장관을 총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7개 주요 위원회 의장 및 총회 부의장국을 아래와 같이 선출
  - 위원회 의장국: 제1위원회(이집트), 특정위원회(튀니지), 제2위원회(우루과이), 제3위원회(오스트리아), 제4위원회(엘살바도르), 제5위원회(루마니아), 제6위원회(이란)
  - 총회 부의장국: 베냉, 아프가니스탄, 벨리즈, 아일랜드 등 21개국

2. 의제 채택 및 위원회별 의제 할당

- 본회의: 사우디아라비아대표단장 유엔총회 개회(의제1) 등 52개 의제
- 제1위: 군사 예산 감축(의제49) 등 23개 의제
- 특정위: 과학과 평화(의제70) 등 10개 의제
- 제2위: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의제12) 등 17개 의제
- 제3위: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의제12) 등 9개 의제
- 제4위: 비자발적 통제구역 정보(의제98) 등 8개 의제
- 제5위: 감사회계위원회 재정보고서(의제102) 등 26개 의제
- 제6위: OAU(아프리카통일기구) 인정 민족독립운동의 옵서버 지위(의제125) 등 13개 의제

92-085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2 유엔사무총장 연례보고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11 / 1-73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제47차 유엔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1992.9.17.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함.

1. 보고서 구성(총 5장, 47페이지)

- 유엔사무총장 연례보고서는 매년 총회 개막 직전 배포(갈리 사무총장 취임 후 최초보고서)

2. 보고서 개요(한반도 관련 언급 없음)

- 제1장: 서론(미래에 대한 희망)
  -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유엔에 부과된 임무의 성공적 완수 가능성 증대
- 제2장: 유엔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안보리 역할 강화, 사무국 개편 및 활성화, 유엔의 재정난 해소가 관건
- 제3장: 개발(경제 및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및 과제
  - 개발 활동의 총괄적 수행, 유엔 산하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협력 강화, 사업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 강조
- 제4장: 평화유지활동
  - 캄보디아, 유고, 소말리아, 앙골라, 엘살바도르 등 5대 지역 분쟁에 대한 분석
- 제5장: 결론(민주화와 개발)
  - 새로운 국제질서는 민주화인바, 유엔은 분쟁지역 국가 및 민족 관계의 민주화에 주력해야 함.
  - 유엔은 조직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3 각국 기조연설)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0 / 12 / 1-319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각국 기조연설 관련 내용임.

1. 기조연설 기간: 1992.9.21.~10.8.

2. 기조연설 국가(회원국 총 179개국 중 167개국)
- 국가원수: 한국, 미국 등 24개국
- 총리급: 뉴질랜드 등 14개국
- 외무장관: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120개국
- 기타(외무차관, 대사 등): 7개국

3. 각국 기조연설 주요 내용(공통사항)
- 사무총장 제안 Agenda for Peace에 대한 원칙적 지지 표명
  - 60여 개국이 동 제안 환영 입장 표명
  - 유엔의 예방외교 강화 특히 강조
- 유엔의 민주화, 안보리 개편 등 유엔개혁 필요성 언급
- 유고, 소말리아, 중동, 남아공, 캄보디아 등 지역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 군축, 개발, 인권, 환경 등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입장 표명

4. 한반도 문제(총 16개국 언급)
- 일본 및 중국: 한반도 긴장완화 희망, 한·중국 수교 환영
- 도미니카: 북한 핵개발 우려 표명
- 부탄: 노태우 대통령의 금차 총회 연설내용 적극 지지
- 몽골,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네팔, 말리, 요르단, 라오스, 기니비사우, 우간다, 코모로, 피지: 한반도 평화통일 희망
- 시리아, 적도기니: 북한 입장 동조

92-0854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5 본회의 I : 의제별 토의보고, 1992-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1 / 1-309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본회의 의제별 토의 관련 내용임.

1. 의장단

- 의장: Stoyan Ganev 불가리아 외무장관
- 부의장국(21): 아프가니스탄 등 16개국 및 5대 상임이사국

2. 기조연설

- 1992.9.21.~10.8. 간 167개국 실시

3. 전반적 분위기 및 특징

- 냉전적 대립양상은 거의 불식되고 각 의제 토의에 있어 협조적 분위기 조성
- 남북 간 대립은 잔존(비동맹 및 77그룹 등의 공동보조는 약화 경향)
- 탈냉전시대 신국제질서 수립과정에 있어서의 유엔 역할에 대한 회원국 관심 및 지지 증대
-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체제 개편 노력 지속

4. 주요 토의 결과

- 지역분쟁 관련
  - 1993.1.15.까지 대세르비아 군사 조치, 대보스니아 무기 금수 해제 촉구
  - 소말리아 관련 국제회의 개최방안 검토 요청
  - 미국의 대쿠바 금수 해제 촉구
- 평화 유지·조성 활동
  - 예방외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도적 지원 등 헌장 상 내용 반복 결의안 채택
- 유엔체제 개혁
  - 안보리 개편 및 운영 민주화 요청 대두
  - 경제·사회 분야 개편

5. 한국의 참여

- 활동 기조: 한반도 문제 관련 논쟁 지양(북한 핵문제는 단호 대처), 선진·개도국 간 중도적 입장 유지
- 이사국 진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피선
- 본회의 활동
  - 발언(4회): 기조연설, 사무총장보고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보고서
  - 공동 제안(2건): IAEA, IOM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6 본회의 II : 대쿠바 금수, 중동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2 / 1-264

1.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본회의는 1992.11.24. 미국의 대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함.

- 결의 요지
  - 타국의 통상과 항해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조치의 조속한 철폐를 회원국에 요청
  - 사무총장에게 동 결의 실천보고를 제48차 총회 시 제출하도록 요청
  - 제48차 총회 의제로 채택

2. 제47차 유엔총회 본회의는 1992.12.10. 팔레스타인 문제(의제 30) 결의안 5개 및 중동사태(의제 35) 결의안 2개를 표결로 채택함.

- 팔레스타인 문제 결의안 내용
  -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의 권리 행사위원회 활동
  - 유엔사무국 내 팔레스타인 권리 담당 부서 지원
  - DPI(유엔공보국) 활동
  - 중동 국제평화회의
  - 팔레스타인 저항운동
- 중동 문제 결의안 내용
  - 이스라엘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난민 인권침해 결의안
  - 골란고원에 관한 결의안

92-0856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7 본회의 III : IAEA 보고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3 / 1-125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본회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심의함.

1.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유엔총회 보고 연설문 주요 내용(1992.9.21.)

- 현 국제정세로 보아 군축 협상 진전의 호기가 마련되고 있어 심도 있는 협정 체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전 세계적 핵실험 전면 중지 일정이 정해지면 어떤 국가도 새로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 이는 비핵국가들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핵분열 물질생산 중단 일자를 정하는 협정 체결도 중요함.
- IAEA의 대북한 핵사찰이 초기 단계이며 IAEA 사찰단에 대한 북한의 협조적 태도를 평가함.

2.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IAEA 보고서 의제 관련 발언 주요 내용(1992.9.22.)

-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한 간 불가침 등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함.
- 남북합의서 이행에 있어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가 시급함.
- 3차에 걸친 IAEA 핵사찰로 북한에 대한 핵의혹은 사라지고 있음.
- 비핵화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 핵무기 및 기지 사찰이 시급함.
- 일본이 필요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음을 우려함.
-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지 않으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반대함.

3.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IAEA 보고서 의제 관련 발언 주요 내용(1992.9.22.)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옴.
- IAEA 사찰에도 불구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제거되지 않고 있음.
- IAEA 사찰과 아울러 상호주의와 강제 사찰에 입각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해야 함.
- 비핵화 선언에 따른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포기를 촉구함.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8 제1위원회 I : 회의일정, 일반토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4 / 1-185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제1위원회 회의 일정 및 일반토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일정

- 1992.10.6. 사전 비공식회의
- 1992.10.8. 조직회의
  - 한국 제1위원회 부의장국 피선
- 1992.10.12.~11.11.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토의
- 1992.11.12.~20. 결의안 채택
- 1992.11.23.~25. 남극 관련 의제 심의 및 결의안 채택

2. 한국 정부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문

- 연설 시행: 1992.10.21. 유종하 주유엔대사
- 주요 내용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 표명
  - 신뢰 구축, 군비 투명성의 중요성 강조 및 아태지역 신뢰 구축 및 군축 기여 의지 강조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상호사찰 중요성 강조
  -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신뢰 구축 필요성 강조

3. 남북한 대표 유엔총회 제1위원회 발언 요지

- 북한 대표: 박길연 주유엔대사
  - 3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로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사라짐.
  -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남북대화 진전을 방해하는 것임.
- 한국 대표: 유종하 주유엔대사
  - 북한은 IAEA 사찰과 상호주의와 강제 사찰에 입각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해야 함.
  - 비핵화 선언에 따른 핵 재처리 시설 파기를 촉구함.

92-0858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19 제1위원회 II : 대책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5 / 1-215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분야) 주요 의제별 대책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 내용임.

1. 비핵지대 및 평화지대

- 중동 비핵지대 설치: 원칙적 발언 불요, 다만 비핵지대 설치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답변권 행사
-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치: 원칙적 발언 불요, 다만 표결 후 답변권 행사를 통해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비핵지대 설정에 관한 한국 입장 표명 가능
- 아프리카 비핵화 선언 이행: 원칙적 발언 불요, 다만 비핵지대 설치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답변권 행사
-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 이행: 원칙적 발언 불요, 표결에는 기권하되 평화지대 설정 자체에는 찬성

2. 핵무기 군축

-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개정 문제: 기본적으로 국제안보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제이므로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용 및 주요국 입장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
-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원칙적 발언 불요, 표결에는 찬성
-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 현 NPT 체제의 유지 및 강화 지지
  - 핵무기 보유국의 성실한 핵 군축 교섭 및 개도국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정보제공 강화 제의
  - 핵보유국 및 핵선진국들의 협조적 자세 촉구
-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으로부터의 비핵국 안보 강화에 관한 효율적 국제협약 체결
  - NSA(안보강화약정) 관련 결의 채택 시 개도국 등 국제여론의 향배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3. 생화학무기 금지

- 표결 찬성, 북한으로 하여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발언

4. 재래식무기 군축

- 재래식무기 군축: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 표명, 공동제안국에는 가담하지 않음.
- 국제무기이전등록제도
  - 북한의 무기이전등록제도 참여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발언
- 지역 군축: 표결에 찬성, 한반도 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천명
-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 지역 차원 군축 노력 권고 내용에 찬성하되 남북한 관계 등 특수상황 고려 대처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0 제1위원회 III : CWC)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6 / 1-179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CWC(화학무기금지협약)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CWC 결의안 요지

- 화학무기금지협약안 높이 평가
-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1993.1월 파리에서 서명받도록 촉구
- 모든 국가의 CWC 조속 서명을 촉구
- 제48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서명 및 비준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독일, 캐나다, 한국 등 38개국 참여

2. 한국의 CWC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의

- 세계적 군축 특히, 핵·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감축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하에 한국 정부의 CWC 적극 참여 입장 표명
-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협약이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

3. CWC 결의안 채택: 1992.11.30. 유엔총회 컨센서스

92-0860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1 제1위원회 IV : 군비투명성)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7 / 1-123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에서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군비투명성) 토의 관련 내용임.

1. 제46차 유엔총회는 군비 투명성 결의를 채택함.

- 표결 결과: 찬성(150)-반대(0)-기권(2)(쿠바, 이라크)
- 결의 내용
  - 각국은 재래식무기 이전 내역을 다음해 4.30.까지 유엔사무총장에게 등록
  - 등록 대상 품목: 전투용 탱크, 기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함, 미사일
  - 이전(수출입)의 정의: 원조, 신용판매, 물물교환, 현금거래 등 모든 형태의 무기 반출입

2. 제47차 유엔총회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결의안을 채택함.

- 3차에 걸친 정부 전문가회의 결과를 기초로 전차·장갑차·대포·전투 항공기·공격용 헬기·군용함정·미사일 및 동 시스템 등 7종의 재래식무기를 보고 대상으로 선정
- 1992.12.9. 유엔총회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
- 결의 내용: 전 회원국이 1993.7.31.까지 1992년도 수출입 총량을 최초 보고하고 1994년에 2차 최종 보고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2 제1위원회 V : 의제별 토의보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8 / 1-294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제1위원회 의제별 토의 결과임.

1. 개요

- 제4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 국제안보 및 남극 문제 관련 22개 의제를 심의하고 총 47개 결의를 채택하고 토의 종료

2. 전반적 분위기

- 화해와 타협 분위기 정착
  - 의제 토의 및 결의안 표결 시 특정국 비방 자제
- 군축 분야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
  - 관련국 간 타협안 도출 노력 현저
- 결의안 수 감소추세 지속
  - 이념 대립적 결의안 지양 및 총회 업무 합리화를 위한 각국의 호응

3. 주요 토의내용

- 핵 군축
  -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 비핵국 NSA(안보강화약정) 체결
  - 비핵지대
- 화학무기 금지
-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도
- 탈냉전시대의 군축
- 지역군축

4. 한국대표단 활동 주안점

- 군축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적극 개진
- 남북한 간 논쟁 지양 및 답변권 행사 자제
- 주요 의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적극적 유엔 활동 기반 조성
- 각 의제별 한국 입장 사전검토 및 표결 대책수립으로 기권 감소

92-086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3 제1위원회 VI : 속개회의, 1992-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9 / 1-167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제1위원회 속개회의가 1993.3.8.~12. 뉴욕에서 개최됨.

1. 참석 대표

- 유종하 주유엔대사,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 이연수 안보정책과 사무관 등 5인

2. 주요 의제

- 유엔총회 활성화: 제1위 기능 및 운영 합리화, 위원회 통폐합 등
- 다자 군축기구의 역할 및 상호 관계 재평가
- 유엔 군축실 강화 및 제네바 이전 문제

3. 회의 내용

- 군축 관계의 역할 및 상호 관계 재평가
  - CD(제네바군축회의) 확대 필요성 강조
  - 유사 의제 및 결의안 통폐합 등 제1위 개편
  - 유엔 군축 문제 심의기구로서 UNDC(유엔군축기구) 역할 및 운영방안 개선
- 유엔 군축실 강화 및 제네바 이전 문제
  - 유엔 군축실 강화 추진
  - 안보리 군축 관련 역할 증대
  - 유엔 군축실 본부 뉴욕 존치 및 제네바 소재 유엔 군축실 사무소 강화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4 특별정치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10 / 1-182

1992.10.9.~11.25.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특별정치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주요 활동

- 의장인 Khouini 주유엔 튀니지대사 주재로 아래 의제에 대해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발언하고 토의함.
  - 과학과 평화, 핵 방사선 영향,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활동
  - 피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 조사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유엔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공보 문제

2. 주요 결과

- PKO,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인권 침해,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25개 결의안을 채택함.
- 공보 문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핵 방사선 영향 등 기타 의제에 대해서는 최근 수 년간 조성된 타협 분위기가 지속되어 컨센서스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함.
- 매년 대립을 보여 왔던 UNRWA,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토의에는 중동평화 회담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비방적인 발언이 감소함.

3. 한국대표단의 활동

- 1992.11.11. 정부대표단은 PKO 토의에 참가하여 아래 요지로 발언함.
  - 평화유지군의 신속 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PKO 초기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비축 필요성 강조
  - 신규 회원국을 위한 PKO 훈련제도 실시를 요청하고, PKO 담당부서 강화계획 지지 및 인원 증원 시 지역배분원칙 강조
- 한국은 총회 결의로 공보위원회(Committee on Information) 위원국으로 임명되었으며 1993.1.1. 부터 동 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함.

92-0864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5 제2위원회 I, 1992.2월-10.1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1 / 11 / 1-270

1992.10.5.~8.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 토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결과

- 빈곤, 경기침체, 외채 등 세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 GSD(지속개발위원회) 설립 등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체제 개편 추진

2. 주요국의 발언 요지

- 미국: 양자 지원 90억 달러 추가 등 개발지원 확대 및 유엔개발 실행 활동의 개편 주장
- 일본: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선진국의 책임이 크며, 1993년 아프리카 개발회의 주최 및 1994년 인구와 개발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 예정임을 언급
- 영국: 인적 발전과 빈곤 퇴치는 기본적 교육, 직업훈련, 보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제도가 신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파키스탄: 경제회복의 지연과 무역 성장의 불확실성이 개도국의 안정과 경제개혁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이 적절한 거시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개도국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알제리: 개도국은 외채 증가, 교역 조건의 악화, 자본 유입 감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혁은 국제 경제환경의 구조적 조정 없이는 어렵다고 언급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6 제2위원회 II, 1992.10.16.-11.1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1 / 1-372

1992.10.16.~11.15.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 토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협의 내용

- 유엔 회원국들은 개발과 경제협력, 1990년대 아프리카 개발계획, 1990년대 최빈국의 행동계획, 개도국의 산업 발전 협력 및 생산성 현대화, 민영화, 독점 철폐, 사막화, 유자망 어업, 외채 위기와 개발 등에 대해 협의함.
  - 10.23. 외채 위기와 개발에 관한 토의에서 유엔 경제사회개발담당 사무차장은 1992년 현재 외채 총액이 1.3조억 달러라고 하면서 외채 위기는 개도국의 개발 의욕을 감퇴시키는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함.

2. 개도국의 빈곤 척결 관련 토의(1992.11.12.)에서 주요국 발언 요지

- 파키스탄: 제4차 '개발 10년 전략'이 빈곤 퇴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
- 영국: 빈곤 퇴치를 위해 교육·보건·훈련 등의 인적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선진국은 개방 무역체제, 외채 경감조치 등 외부 경제 조건의 조성 필요
- 중국: 세계 빈민의 2/3가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선진국은 교역 조건의 개선, 개도국에 대한 외채 경감 조치 필요
- 캐나다: 빈곤 완화를 위해 여성에 대한 경제 및 교육기회 증진 필요

92-0866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7 제2위원회 III, 1992.11.16.-93.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2 / 1-480

1992.11.16.~93.2월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 토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쟁점사항

●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가 1992년 중 채택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경제구조 개선,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최빈국을 구분하는 신기준 적용의 의미 등에 대해 협의함.

2. 의제별 토의 내용

●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 지구상에 절대 빈곤 인구가 10억 명 정도이며 빈곤이 사회경제 안정에 큰 위협임을 인식하고, 매년 10.17.을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날로 선포하여 1993년부터 지키기로 함.

● 외채 위기 및 개발
- 저소득국의 외채 상환 부담이 경제개발과 성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국제사회가 외채와 개발 문제를 엮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함.
- 한국은 외채 감액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선진국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채권국의 적극적인 외채 정책을 촉구함.

●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제49차 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이 국제개발전략에 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함.

● 특별경제 및 재난 구호 지원
- 재해 구조를 위한 재원 염출의 안전화, 수혜국의 국내제도 개선, 재해의 사전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로 함.

● 앙골라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
- 모든 파벌들이 국가의 경제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청함.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8 제3위원회 I, 1992.6-10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3 / 1-353

1992.9~10월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토의 관련 내용임.

1. 의장 개회사(1992.9.29.)

- F. Krenkel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된 국제정세하에 제3위원회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권 존중, 사회 분야에서의 예방적 활동의 개발 필요성, 소말리아 구호 및 장애자 지원을 위한 모금계획을 제안함.

2. 주요 의제

- 인종차별 철폐, 민족 자결권, 사회개발(청소년, 노령화, 장애자, 범죄 예방 및 형사정의 등)
- 마약, 여성지위 향상, 인권, 난민 및 인도적 문제 등

3. 사회개발 토의(1992.10.20.~22.) 시 주요국 발언 요지

- 캐나다: 국제형사법정 설치 지지
- 덴마크: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코펜하겐 개최 지지
- 미국: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범죄예방위원회 설치 환영
- 한국, 필리핀: 사회개발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 의사 표명
- 러시아: 최근 범죄 증가와 국제화 추세에 대해 언급
- 카메룬: 사회개발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안
- 이탈리아: 범죄 관련 각국의 법 집행기관 및 사법부 간 협력 필요성 강조

92-0868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29 제3위원회 II, 1992.11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4 / 1-306

1992.10~11월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토의 및 결의안 채택 내용임.

1.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토의(1992.10.29.~11.2.) 시 주요국 발언 요지

- 미국: 여성의 지위 향상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음.
- 이탈리아: 문화적 변화 없이는 법 개정만으로 여성차별 철폐가 어려움.
- 캐나다: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유보 조항을 설정한 국가들에게 유보 철회 촉구
- 방글라데시: 개도국 여성의 취업 관련 인력 송출국과 접수국 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 제25차 회의(1992.11.2.)

- 인종차별 철폐, 민족자결권, 사회개발(청소년, 노령화, 범죄 예방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의 결과 아래 결의안을 채택함.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처벌협약
  - 민족자결권 부여 및 식민지 독립 부여
  - 용병 사용 문제
  - 인종 청소 및 인종 증오

3. 제41차 회의(1992.11.16.)

- 유엔 범죄예방 아프리카 기구(찬성 97, 반대 1, 기권 41)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함.

4. 제43차 회의(1992.11.18.)

- 아프리카 난민 지원, 약물 남용 및 불법거래 퇴치를 위한 국제행동에 관한 결의안들이 컨센서스로 채택됨.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0 제3위원회 III, 1992.12-93.1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5 / 1-274

1992.9.29.~12.9.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주요 의제

- 인종차별 철폐, 민족자결권, 마약, 여성 지위 향상, 인권(인권 관련 국제협약 등)
- 난민 및 인도적 문제, 사회개발(청소년, 노령화, 장애자, 범죄 예방 및 형사 정의 등)
-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 인권 상황

2. 채택 결의안 및 결정안

- 총 61회 회의 개최를 통해 9개 의제에 대한 토의 결과, 결의안 65개 및 8개 결정 채택

3. 평가

- 냉전의 종식으로 그간 유엔 활동의 주변적 위치에 있던 사회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 분야 토의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금번 제3위원회에서는 세계인권회의 및 사회개발정상회의 등 세계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 관심의제로 토의되었으며, 마약퇴치 문제, 난민 구호활동, 장애자, 노령화 문제 등 사회 문제가 광범위하게 토의됨.
- 대부분 의제에 대해서는 각국 간 입장 대립이 없이 건설적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 관련국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임.

92-0870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1 제4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6 / 1-86

1992.9.15.~11.25.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주요 의제

- 식민지 및 식민지 주민에 대한 독립부여선언 이행, 비자치지역 현황 보고
-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이행, 남아공의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등

2. 채택 결의안 및 결정안

- 8개 의제하에 결의 10개, 결정 2개, 2개의 컨센서스가 채택됨.

3. 각 의제별 결의안 표결 시 정부 입장

- 찬성
  - 비자치지역 현황 보고,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이행
  - 세인트헬레나 문제, 식민지역 관련 정보 배포
- 기권
  - 식민지 독립부여 선언 이행 및 남아공의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 비자치지역 내에서의 통치 국가 군사활동

4. 평가

-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아 동·서 간의 대립은 사라진 반면, 남·북 간의 대립적인 분위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됨.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2 제5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7 / 1-288

1992.10~93.4월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5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유엔 산하기구 재정보고서를 심사하고 보고서를 승인함.

- 1992~9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제출한 예산수정안을 승인함.
  - 지출 총액: 2,468,039,200달러
  - 수입 총액: 471,016,400달러

2. 유엔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1개 결의안을 무투표로 채택함.

- 유엔의 중기계획: 국제평화의 안전 유지, 개도국 경제발전, 아프리카 경제개발, 환경 문제 등

3. 유엔의 재정위기에 대해 토의하고 1개 결의안을 무투표로 채택함.

-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가급적 자주 발간하고, 회원국이 부담금을 적기에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1995.1.1.까지 총회에 제출할 것

4. 유엔 분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토의

- 구소련 구성국이 독립, 신규로 유엔에 가입하여 이들 국가들의 분담금 산정 문제가 주요 토의과제가 되었으며 유엔 기여금위원회는 구소련의 분담금(9.41%)을 국민소득 기준으로 구성국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건의함.
  - 이에 대해 벨라루스는 구소련의 분담금은 러시아가 부담하고 새로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의 분담금은 실질 국민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것을 주장
- 기여금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04, 반대 16, 기권 34로 채택됨.

5.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예산 조달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기여금위원회(Committee on Contributions), 회계원(Board of Auditors) 등 유엔부속기관 임원을 임명함.

92-0872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3 제6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2 / 8 / 1-304

1992.9.18.~11.25.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주요 의제
- 민족해방단체의 옵서버 지위
- 무력충돌 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 지위
- 외교공관 및 외교관 보호를 위한 효과적 조치
- 국가 및 국가 재산에 대한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
- 외교 신서사의 지위,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등

2. 민족해방단체의 옵서버 지위에 관한 결의안만 표결로 채택됨(찬성 61, 반대 9, 기권 28).
- 한국은 보편적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대표성에 관한 비엔나협약 미서명국임을 감안하여 기권함.

3. 표결없이 채택된 결의안
- 무력충돌 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 지위
- 외교공관 및 외교관 보호를 위한 효과적 조치
- 국제법위원회 보고서, 외교 신서사의 지위
- 유엔헌장 및 기능강화특별위원회 보고서
- 영사업무에 관한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유엔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V.3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연합2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63 / 1 / 1-78

1992.9.15.~12.23. 개최된 제47차 유엔총회의 주요 결과임.

1. 채택 결과

- 152개 의제하에 총 270여 개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함.

2. 주요 의제별 논의 결과

-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화학무기금지조약 채택, 재래식무기 이전등록제 세부사항을 확정함.
- 경제개발 및 환경 관련 CSD(유엔지속개발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공해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를 1993.7월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함.
- 사회개발 및 인권 관련 세계인권회의(1993.6월, 비엔나) 의제를 채택함.
- 유엔체제 개혁 관련 각국이 유엔안보리 개편에 대한 의견을 1993.6월까지 제출하기로 함.

3. 한국대표단의 활동

- 유엔 외교 기반 확보를 위해 주요 문제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이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1993~95)으로 피선됨.
-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부의장국으로 활동, 총 19회 발언, 29개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함.

4. 평가

- 냉전적인 대립 양상은 거의 불식되었으나 남북한 대립은 잔존함.
- 각 분야에서 이념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였으며 유엔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표명함.

92-0874

한국의 유엔 공보위원회 위원국 진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3 / 2 / 1-33

1. 유엔공보위원회 가입 건의

- 1992.3.30. 주유엔대사는 한국의 유엔공보위원회 진출을 건의
- 유엔공보위원회는 유엔의 공보정책 심의 및 홍보활동 운영 현황 평가
  - 유엔의 활동 증대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
  - 공보위원회 위원국은 임기제가 아니며 한번 가입으로 계속 위원국 유지
- 한국의 유엔활동 적극 참여의 일환으로 진출 결정

2. 유엔공보위원회 가입

- 1992.4.1. 주유엔대표부, 가입신청 서한 제출
- 1992.4.16. 제14차 유엔공보위원회, 한국가입을 제47차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
  - 9월 제47차 유엔총회 승인으로 가입 확정 예정
  - 1993.5월 제15차 공보위원회부터 위원국으로 참석 예정
- 가급적 1993년 UNIC(유엔공보센터) 개설 운영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제1차. New York, 1992.1.3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3 / 1-413

제1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가 1992.1.31. 뉴욕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 1991.1월 초 유엔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정상회의 개최 제의
- 목적: 유엔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역할 논의

2. 개최 결과

- 회의 의제: 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책임
- 참석자(의장국: 메이저 영국 수상)
  - 13개국 정상(5대 상임이사국 포함), 2개국 외무장관(헝가리, 짐바브웨), 유엔사무총장
- 회의 진행: 유엔사무총장 및 이사국 정상 개별연설 후 공동성명 채택
  - 공동성명 및 각국 정상 연설문(첨부)
- 공동성명 주요 내용
  - 냉전 종식으로 유엔의 목표실현에 최선의 기회 도래
  - 국제법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준수 및 안보리 역할 강화
  - 군비통제 및 핵무기, 화학무기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촉구

3. 평가

-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의 안보리 정상회의
  - 안보리 및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강화 전기 마련
- 구소련 해체에 따른 핵무기 확산 가능성 방지에 기여

4. 외무부 대변인 논평 발표(1992.2.1.)

- 유엔 역할 제고 및 세계적인 군축 노력 지지

92-0876

1993-94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제47차 총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4 / 1-145

1. 유엔안보리 1993~94 임기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5개국 선출 예정
- 지역별 공석수 및 입후보국
  - 아주(1): 파키스탄
  - 중남미(1): 브라질, 온두라스
  - 서구 및 기타(2):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 아프리카(1): 케냐, 지부티

2.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 1992.10.27. 유엔총회에서 5개국 선출
  - 지부티, 파키스탄, 브라질, 브라질, 스페인, 뉴질랜드
  - 지부티, 파키스탄, 브라질은 지역그룹에서 단일후보로 추천되어 선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5 / 1-245

1992.10월 중 유엔안보리 개편 문제에 대해 외무부 국제기구국이 작성한 내용임.

1. 문제의 배경

-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 독일의 상임이사국 희망
- 비동맹권에서의 안보리 민주화 요구
  - 유엔 회원국 수의 대폭 증가에 따른 이사국 수(상임 또는 비상임) 증대를 통한 안보리의 대표성 제고 필요성
  - 거부권제도의 타당성에 의문 제기
- 제47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약 50개국이 안보리 개편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

2. 제안 내용

-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을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 일본, 독일에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고 기타 지역 강국들에는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지위 부여
- 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면서 거부권 제도 자체를 폐지
- 기존 5개국에 추가하여 지역대표를 선정, 이들이 교대로 상임이사국이 되는 방안

3. 평가

- 전체적으로 볼 때 안보리 구성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음.
- 안보리 개편의 관건인 상임이사국의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유엔 창설 50주년을 목표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결론을 얻기는 어려울 것임.

92-0878

앙골라 사태/유엔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동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2과/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6 / 1-205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앙골라 사태 논의 동향

- 안보리는 1991.5.30. 공식회의를 개최, 앙골라 휴전 합의 이행 감시지원을 위한 사무총장의 옵서버단 임무 확대 및 연장 건의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안보리 결의 제696호).
- 안보리는 1992.3.24. 공식회의를 소집, UNAVEM II(유엔앙골라감시단)의 기존 임무에 선거 감시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무총장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안보리 결의 제747호).
  - 동 결의안은 9월 자유공정선거 실시를 위한 앙골라 당국의 필요 조치 촉구 및 구체적인 선거 실시일정 수립 요청
- 안보리 본회의는 10.30. 유엔사무총장 권고에 따라 UNAVEM II의 활동기간을 11.30.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하고 앙골라 내에서 최근 재개되고 있는 각 정파 간 적대행위의 재개를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안보리 결의 제785호).

2. 앙골라 정세

- 1992.8.28. 앙골라의 PMPLA 1당 국회는 1992.9.29.~30.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8.26. 막스주의 색채를 제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호를 'Republic of Angola'로 변경(종전 국호에서 Peoples를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또한 동 개정에서 앙골라 국회는 다당제, 개인의 권리, 정치단체 구성 및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함.)
- 앙골라에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가 유엔 등 국제감시단의 감시하에 1992.9.29.~30. 실시되어 Jose Euardo dos Santos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집권당 MPLA가 승리를 거둠.
  - UNAVEM II를 비롯한 국제감시단은 5.3백만 명의 유권자 중 4.86백만 명이 등록한 이번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평가함.

캄보디아 사태/유엔논의 동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7 / 1-384

1. 캄보디아평화협정이 1991.10.23. 파리에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등 19개국 대표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지난 13년간에 걸친 캄보디아 내전 상태는 공식적으로 종식됨.

- 동 협정 체결은 동서냉전 종식과 중·소 화해,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미국, 소련,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관련국의 캄보디아 각 정파에 대한 내전 종식 종용에 힘입은 바가 큼.
- 동 협정 규정에 따라 유엔의 주관하에 캄보디아 각 정파의 무장해제, 자유총선, 전후 복구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진전될 것이나, 무장해제 증거 문제, 평화협정 이행에 따르는 경비조달 문제 등이 주요 난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2. 유엔안보리는 1991.10.31.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캄보디아 관련 아래 요지의 파리평화협정 이행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됨(안보리 결의 제618호).

- 파리평화협정에 대한 지지 표명
- 유엔사무총장에게 동 협정상의 총장특사 임명 권한 부여
- 본 건 협정이행 계획수립을 위한 사무총장의 현지조사단 파견계획 환영

3. 캄보디아 SNC(최고국민회의)는 1992.12.30.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유엔대표 참가하에 프놈펜에서 제1차 국내회의를 개최함.

- 1992.1.1.자를 기해 분쟁당사자 간 휴전을 준수하기로 합의
- 유엔사무총장에게 UNTAG(유엔임시행정기구)와 대규모 평화유지군의 조기파견을 요청

92-0880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1 1991.3-7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8 / 1-123

1991.3~7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걸프전 배상위원회 설치 안보리 결의안 채택(1991.5.20.)

- 유엔안보리는 이라크의 배상 책임 이행안을 승인하고, 걸프전 배상 처리를 전담하는 배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 본부: 제네바) 설치 결의안을 찬성 14, 기권 1(쿠바)로 채택
- 5.23. 이라크는 안보리의 이라크 배상 책임 이행안 승인을 아래 요지로 비난
  - 안보리의 월권이며 배상 청구는 ICJ(국제사법재판소) 관할 사항
  - 이라크의 청구심사권 박탈,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배상 책임은 불거론
  - 이라크의 석유 증산을 강요, 결과적으로 국제 석유 수급에 영향
  - 이라크 측의 배상 유예(5년) 요청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라크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

2. 배상위원회 제1차 집행이사회(1991.7.23.~8.2.)

- 주요 결정 사항
  - 국가 및 기업에 대한 배상은 그 내용의 복잡성으로 추후 검토
  - 우선 개인에 대한 배상 기준 및 청구절차 채택
    - 정액 지불(2,500달러) 대상자는 간단한 사실 증명으로 청구 가능
    - 상한선 10만 달러까지의 청구는 증거자료 제출 필요
    - 모든 청구는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며, 동 배상위원회 사무국이 신청서를 배포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 제출 요망 등
  - 배상절차(청구주체, 청구기간, 청구범위, 심의절차, 배상금 지급 등) 결정

3. 한국의 대이라크 손해배상(피해보상) 청구 준비

- 1991.6.5. 외무부은 쿠웨이트 내 건설업체 및 교민들의 걸프사태로 인한 배상 청구 대비 자료 수집 등 작업 개시 계획과 관련, 배상위원회 설치 동향, 배상위 집행위원회의 배상 관련 세부지침 등을 파악·보고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4. 참고자료

- 걸프전 후 피해배상 청구 문제(1991.3월, 외무부)
- 유엔안보리 결의 중 전쟁배상 관련 조항 검토(1991.4.10.,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2 1991.8-9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9 / 1-241

1991.8~9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안 채택(1991.8.15.)

- 이라크 석유 수출 일부 허용(제706호)
  - 6개월 기간 동안 1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석유 수출 허용
  - 수출대금은 유엔사무총장 관할하의 특별구좌에 입금
  - 수출대금 30%는 유엔보상기금에 입금
- 석유수입 공제 상한선(제705호)
  - 30% 상한선 설정 합의

2. 유엔 배상위원회 전문위원 추천(1991.9.6.)

-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 3인을 유엔 대이라크 배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추천
  - 회계 분야: 조익순(공인회계사, 수원대 교수)
  - 보험 분야: 임형주(Guy Carpenter 한국사무소장)
  - 법률 분야: 신현주(변호사, Paris 국제상사중재법원 중재위원)

3. 유엔의 대이라크 배상 청구 관련 관계부처 대책 회의(1991.9.24., 외무부)

- 유엔 안보리가 대이라크 배상 청구에 관해 현재까지 채택한 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동 결의에 따라 한국 정부, 기업 및 국민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점령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 문제 협의

4. 참고자료

- UN 배상위원회 관련 문서 목록(1991.8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 유엔 대이라크 배상 청구 관련 관계부처 대책 회의 자료, 회의록(1991.9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92-0882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3 1991.10-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10 / 1-161

1991.10~12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제2차 집행이사회(1991.10.14.~18., 제네바)

- 실제 배상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배상기금 확보 방안 및 개인에 대한 긴급 배상 청구기준에 관한 법적 해석 문제에 관해 중점 협의
- 참고자료
  - 배상기금 지불 확보 방안, 개인의 사업상 손실 중 긴급 청구대상 기준, 개인의 중상 및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회의결과 채택 문서

2. 제3차 집행이사회(1991.11.25.~29., 제네바)

- 개인 피해, 기업 및 여타 법인체 피해, 정부 및 국제기구 피해에 관해 대상, 청구서 제출, 청구시한 등을 협의
- 정신적 고통 배상 상한선, 금수(Embargo)와 침략행위로 인한 피해 구분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
- 미회수 채권 처리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제안이 '각국으로부터의 통보 사항'으로 소개
- 참고자료
  - 회의 결과 채택 문서

3. 유엔 배상위원회 전문위원 추가 추천(1991.10.16.)

- 외무부, 허익렬·조대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유엔 배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추가 추천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4 1992.1-6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11 / 1-270

1992.1~6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제4차 집행이사회(1992.1.20.~24., 제네바)

-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토의, 개인 피해 중 정신적 고통 피해에 관한 배상 상한선 결정
  - 한국 기업의 미회수 채권 중 건설 분야는 청구 가능성 증대

2. 제4차 집행이사회 속개 회의(1992.3.6., 제네바)

- 기업의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관련 영국 수정안 논의, 채택
  - 금수(Embargo)에 의한 피해 중 상품 수출 피해를 제외하고 서비스, 건설 등은 배상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는 것이 배상위원회 방안이었으나, 영국은 이에 반대
  - 영국 측 수정안은 기업이 입은 피해가 Embargo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가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일 경우에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향적 제안

3. 제5차 집행이사회(1992.3.16.~20., 제네바)

-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Rules for Claims Procedure)' 가운데 우선 적용이 시급한 제1~3장을 채택하기로 합의
-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 적용 사례에 관해 영국의 working paper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

4. 제6차 집행이사회(1992.6.22.~26., 제네바)

- 제5차 회의 시 토의하지 못한 절차규정 제4장(배상청구심의 패널 구성 및 심의) 내용 채택
- 다국적군 보상 요건 결정: 일반적인 개인 배상 청구 요건, 포로가 된 경우 및 국제인도법에 저촉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 배상 청구 가능
- Embargo에 의한 피해 배상 문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회의 시 다시 토의하기로 결정

5. 참고자료

- UN 대이라크 배상 청구 관련 진전사항 및 한국 대책 방향(안)(1992.3월, 중동아프리카국)
- UN 대이라크 배상위원회 개인 청구 절차, 청구 신청서 양식 등(영문)
- UN 대이라크 배상위원회 집행이사회 결과 채택 문서(영문)

92-0884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5 1992.7-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3 / 12 / 1-258

1992.7~12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제7차 집행이사회(1992.9.21.~25., 제네바)

- 기업 배상 문제
  - 기존 영국 등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
- 각종 배상에 대한 이자 청구 문제, 변호사 비용 등 배상 청구비용 부담 문제
  - 인도, 중국 등의 반대로 결론 도출에 실패
- 중복 배상 방지 문제
  -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배상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 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문제
  - 새롭게 발견된 배상 대상의 경우 제출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청구 가능하도록 결의안 채택

2. 제8차 집행이사회(1992.12.14.~18., 제네바)

- 행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배상위원회 산하 위원회(UNCC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tters) 신설 결의
-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배상 청구조건 등 결정

3. 한국의 배상청구서(1차분) 제출

- 외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687호에 따른 걸프전 관련 대이라크 배상 청구를 위해 1992.12.1.까지 한국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배상청구서 1차분을 12.21. 유엔 대이라크 배상위원회에 제출
- 청구 내역
  - 배상 범주 A: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로부터의 출국경비 청구(96명, 청구액 약 22만 달러)
  - 배상 범주 C: 10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피해 청구(76명, 청구액 약 693만 달러)
- 배상 전망
  - 유엔 배상위원회는 각국으로부터의 청구를 검토, 이라크 원유 수출대금 중 30%를 배상기금으로 적립하여 각국에 지불 예정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전6권 (V.6 각국 동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1 / 1-121

1991~92년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활동 관련 각국의 동향 파악 내용임.

1. 1991.2.28. 외무부는 걸프전 종전 후 미국 등 주요국(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및 쿠웨이트 내 자국민과 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검토 동향 파악 지시

2. 1991.8.21. 외무부는 주요 선진국과 걸프전 이전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던 국가 및 아랍지역 국가들의 배상 청구 동향 파악 지시
   -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이 자국의 국가, 기업,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의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국가 및 기업이 입은 피해 포함)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 아랍지역 국가(사우디, UAE,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집트)들이 국가, 기업 및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 자국 내에 있는 이라크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유엔의 조치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에 대해 동 자산을 활용, 배상하도록 하려는 움직임 여부

3. 1991.9.26. 외무부는 아랍 국가(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모리타니, 예멘, 수단) 및 태국이 걸프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 및 피해' 배상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파악 지시

4. 참고자료
   - UN 배상위원회 관련 문서 목록(1991.8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92-0886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라크 제재 조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2 / 1-133

1. 유엔안보리는 1992.3.27. 비공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이라크 경제제재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 이번 안보리의 대이라크 경제제제 지속 결정은 대이라크 경제제재의 해제 여부 결정을 위한 정기 심사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이라크에 대한 대량파괴무기 폐기이행 압력은 물론 유엔이 정한 조건하에 이라크산 원유를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 유엔안보리는 1992.9.24. 비공개회의를 열어 안보리결의 제687호 제21항에 의거, 동 결의 제20항에 의한 대이라크 제재조치(민수용품 이외의 품목 수출금지) 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현 제재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함.

3. 유엔안보리는 1992.10.2.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라크 자산동결에 관한 초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찬성14, 기권1(중국)으로 채택함(안보리 결의 제778호).

- 동 결의에 의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에 있는 이라크 정부 또는 기관 등의 자금과 석유 등의 판매대금을 유엔계정에 이체하여야 함.

4. 유엔안보리는 1992.11.23.~24. 이라크 사태 관련 협의를 개최한바, 11.23. 발표된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안보리의장 성명, 안보리 이사국 평가 발언에 대한 이라크 부수상 답변과 쿠웨이트 공보장관의 반박 발언을 청취한 후 아래 요지의 안보리의장 폐회 성명을 채택하고 종료함.

- 11.23. 발표된 안보리의장 성명 전폭 지지
- 일부 긍정적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라크 정부가 상금 완벽하고 조건 없는 의무이행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바,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 전2권 (V.1 1-3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중동1과
MF번호 2022-64 / 3 / 1-184

1. **유엔안보리는 1992.2.19. 비공식회의를 개최, UNSCOM(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및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를 청취하였는바, 동 보고 요지는 이라크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특위의 임무 완료가 불가하였으며, 이라크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도가 전혀 없음에 비추어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임.**
   - 사무총장은 이라크 측의 결의이행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금일 오후 Ekeus 특위 의장을 이라크로 긴급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유엔안보리는 1992.2.28. 공식회의를 소집, Ekeus UNSCOM 의장의 1992.2.21.~24. 이라크 방문보고서를 심의하고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함.**
   - UNSCOM 의장은 보고서에서 이라크 방문 중 Aziz 부수상, Hussein 외무장관 등 고위인사를 접촉, 결의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이라크 측의 성실한 결의이행 약속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결론짓고 있음.

3. **유엔안보리 회의가 1992.3.12. 속개되어 3.11. 안보리의장 성명 및 각 이사국의 질문에 대한 Aziz 부수상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사국 간의 협의를 거쳐 안보리의장 성명을 발표함.**
   - 안보리는 3.11.자 의장 성명을 전폭 지지하며 이라크 측은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적으로 준수하고 있지는 않음.

4. **1992.3.21.부터 이라크를 방문 중인 UNSCOM은 3.23. 이라크 측이 스커드미사일을 기폐기, 매장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을 방문, 검증 활동 중이며, 이라크 측으로부터 미사일 생산장비 폐기를 위한 문건도 인계받아 검토가 끝나는 대로 폐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함.**

92-0888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 전2권 (V.2 4-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중동1과
MF번호	2022-64 / 4 / 1-182

1. 1992.7.6. 유엔안보리 비공식회의는 7.5. 이라크 정부가 안보리 UNSCOM(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 사찰반의 이라크 농업성 청사 현장 사찰을 거부한 사건을 논의, 아래 요지의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안보리의장이 주유엔 이라크대사대리를 초치하여 전달하기로 함.
   - 안보리 결의 제687항에 의거, 이라크는 사찰반의 무조건적, 무제한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함.
   - 이라크가 특별위원회 사찰반의 사찰을 거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

2. 1992.7.30.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Ekeus UNSCOM 위원장은 7.28.~29. 실시된 이라크 농무성 사찰 결과, 안보리 결의 제687항에 저촉되는 아무런 자료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농무성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믿었던 무기 관련 자료들을 이라크 측이 사찰직전 옮긴 흔적을 조사하였는바, 농무성 내부의 가구 재배치 등의 흔적이 있어 동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자료가 옮겨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3. UNSCOM의 대이라크 무기사찰 관련, 1992.8.18.자 NYT는 유엔사찰반의 8.17. 이라크 국방성 사찰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다고 보도함.

4. 1992.10.15.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는 Ekeus 위원장의 보고서를 청취한바, 동 위원장은 이라크 측이 금번 사찰팀의 파견계획을 지연시키려는 요청을 해왔으나, 금번 사찰이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 계획대로 파견하기로 결정, 10.16. 바그다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함.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의 화학무기폐기작업단 참여 요청. 전2권 (V.1 4월-6.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5 / 1-160

1992.4월~6.9. UNSCOM(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의 화학무기 폐기 작업단 참여 요청 관련 내용임.

1. 유엔 측 요청 내용

- 1991.4.3. Ekeus UNSCOM 위원장은 주유엔대사 앞 서한을 통해 이라크의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 설치 예정인 작업단에 한국의 참여 요청

2. 작업단 구성 및 관련 사항

- 작업단 규모: 20~35명 규모 예상
- 구성: 영어 구사 가능한 민간인 또는 군인으로서 화학무기의 탐지 및 폐기 전문가, 의료진, 건물 철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참여 요청 대상국: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27개국(아시아에서는 한국 이외에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중국, 태국)

3. 한국 측 대응

- 1992.4.29. 외무부, 유엔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UNSCOM의 이라크 화학무기 폐기 작업단에 군 전문가 2명을 파견하기로 결정
- 5.11. 외무부, 한국군 장교 2인을 동 작업단에 파견하기로 하였음을 UNSCOM 측에 통보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4. 이라크 무기 정보 제공 및 무기 전문가 추천 문제

- 1992.5.18. Ekeus 위원장은 주유엔대사 앞 서한을 통해 UNSCOM의 이라크 무기 조사 및 감시 활동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추천 등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옴.
  - 6.8. 한국 정부는 명분상의 이익에 비해 외교적·행정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소극적 대응 추진

92-0890

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의 화학무기폐기작업단 참여 요청. 전2권 (V.2 6.10.-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6 / 1-180

1992.6.10.~12월 중 한국군 장교 2인의 UNSCOM(유엔이라크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의 화학무기 폐기 작업단 참여 관련 내용임.

1. 한국군 장교, 이라크 화학무기 폐기반 참여

- 유엔의 이라크 화학무기 폐기 작업반에 참여하는 한국 장교단(소령 1명, 대위 1명)이 1992.8.24. 출국, 바레인을 경유하여 이라크 향발 예정
  - 3개월간 바그다드 교외에서 화학무기 폐기 감독 예정
  - 금번 작업반은 UNSCOM이 구성한 화학무기 관련 13번째 작업반이며 39명으로 구성

2. 이라크 화학무기 폐기반 참여 요원 귀국(1992.12.4.)

- 폐기반 활동 개요
  - 1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체코, 헝가리 등) 39명으로 구성
  - 바그다드 외곽의 알 무타나 화학무기 폐기장을 중심으로 이라크 요원들의 화학탄 폐기 작업 감독 및 안전절차 주관
  - 이라크 정부는 화학무기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유엔 폐기반 활동에 협조적

3. 참고자료

- 이라크 화학무기 폐기 작업단 안내서(Chemical Destruction Group Information)(1992.6.7.)

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전2권 (V.1 1991.11-92.3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7 / 1-355

1991.11~92.3월 중 대리비아 제재 관련 유엔안보리 동향임.

1. 팬암기 폭파 사건 관련 공동성명 발표(1991.11.27.)

- 미국·영국·프랑스 3국은 리비아 측에 팬암기 폭파 사건(1988.12.21., 영국) 용의자 2명을 인도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 테러행위 완전 포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2. 리비아의 유엔특별총회 소집 요청(1992.1.7.)

- 리비아는 국제 테러리즘을 의제로 한 유엔특별총회 소집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
  - 미국·영국·프랑스 3국의 팬암기, 프랑스 UTA기 폭파 사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에 대응하여 제3세계의 호응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

3. 유엔안보리, 리비아 정부의 팬암기 폭파사건 조사·협조 촉구 결의안 제731호 채택(1992.1.21.)

- 유엔안보리는 1988년 팬암기 및 1989년 프랑스 UTA기 폭파 사건 조사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미국·영국·프랑스 공동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4. 리비아인 팬암기 폭파범 인도 문제

- 1992.1.20. 유엔안보리는 팬암기 폭파사건 관련, 결의안 제791호 채택
  - 리비아 측에 미국·영국의 범인 인도 요청 즉시 이행 촉구
  - 리비아는 몬트리올협약상 범죄인 소재지국도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불복
- 미국·영국은 동 결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
  - 리비아는 3.2. 미국·영국을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

5. 유엔안보리,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가결(1992.3.31.)

- 유엔안보리는 리비아의 미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인도 거부와 관련, 리비아에 대한 항공운항 금지 및 무기 금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 결의안 가결
  - 금번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찬성 10, 기권 5(중국, 인도 등)로 채택
  - 1992.4.15. 발효

6. 참고 자료

- 유엔안보리의 PA, UTA기 사건 처리 동향(1992.2.18.)
- PA, UTA기 사건 관련 회의 자료(1992.3.10., 국제연합1과)

92-0892

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전2권 (V.2 1992.4-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8 / 1-280

1992.4~12월 중 대리비아 제재 관련 유엔안보리 동향임.

1. 리비아 주재 외국 공관 피습

- 1992.4.2.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3.31.(리비아 시간 4.1.)자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격렬한 군중 시위가 안보리 이사국 중 찬성 투표한 국가들의 공관 앞에서 전개
  - 특히 안보리 결의안 표결 시 의장국이었던 주리비아 베네수엘라대사관은 군중들의 습격으로 완파

2. 아랍연맹,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 개시 연기 요청

-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1992.4.8.자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팬암기 폭파 용의자 인도 관련 리비아 측 제안을 전달하고,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 개시일(4.15.)의 연기 요청

3. 대리비아 제재 결의 이행사항 통보

- 1992.5.15. 한국 정부는 대리비아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유엔안보리에 통보
  - 한국 항공기의 대리비아 운항 금지, 리비아 항공기의 한국 영공 통과와 국내 기착 불허
  - 항공기, 동 부품, 관련 기술 정비 지원 및 리비아 항공사 지점 영업활동 금지
  - 무기, 군수품 및 방산 관련품 대리비아 수출 금지
  - 테러와 관련된 리비아인 출입국 금지

4. 대리비아 제재 조치 연장

- 1992.8.12. 유엔안보리, 리비아의 유엔안보리 결의(제748호) 이행 실태를 재검토한 후 대리비아 제재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
- 12.10.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리뷰회의에서 현 수준의 제재 조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 명의 성명 채택

5. 참고자료

-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제748호)
- 대리비아 제재위원회 제재 지침(1992.4.16.)(영문)
- 대리비아 제재 조치 대응 방안(1992.4.7., 중동아프리카국)

소말리아사태/유엔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9 / 1-327

1992년 중 소말리아 사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내용 및 주요국의 동향임.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내용

- 결의(1992.1.23., 제733호)는 소말리아 교전세력 간의 휴전 약속 이행을 위해 대소말리아 무기 금수 조치 및 구호 지원을 요청함.
- 결의(1992.4.24., 제751호)는 소말리아 휴전 감시 및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UNOSOM(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병력 500명을 파견하기로 함.
- 결의(1992.7.27., 제767호)는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내전 당사자 간의 교전 중지를 촉구함.
- 결의(1992.8.28., 제775호)는 소말리아 사태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UNOSOM 병력 3천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로 함.
  - 캐나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벨기에가 각각 750명씩 파견
- 결의(1992.12.3., 제794호)는 소말리아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통합군 파견을 승인함.
  - 동 통합국은 PKO(유엔평화유지군)가 아니며 소요 경비는 군 파견국과 기여금 제공국이 부담함.

2.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의 소말리아 지원

- 1992.8.4. EC(구주공동체)는 식량 18만 5,000톤과 의료품 지원금 1,730만 달러를 소말리아에 지원하기로 함.
- 9.15. 미국은 UNOSOM 병력의 소말리아 파병 지원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해 2척의 함정과 2,400명 병력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파견하기로 함.

3. 제1차 유엔 소말리아 조정회의(1992.10.12.~13., 스위스 제네바)

- 참가국(98개국)은 6억 6,266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소말리아 내전 및 기아사태 관련 100일 행동계획에 합의함.

92-0894

유엔안전보장이사회/중동문제 토의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4 / 10 / 1-26

1989~92년 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중동문제 토의 관련 내용임.

1. 1989년도

- 안보리 의장의 레바논 사태에 대한 성명 낭독
  - 3.31./4.24./8.15./11.7./12.27. 안보리 의장 성명서 낭독
- 9.9. 유엔사무총장, 레바논 평화유지군 활동 중 살해당한 허긴스 중령에 대한 성명 발표

2. 1990년도

- 이란·이라크 사태
  - 2.27. 안보리 의장 성명(유엔사무총장의 중재노력 지지)
  - 3.29. 이란·이라크 UNIMOG(군사옵서버단)의 임무 6개월 연장 결의안 채택

3. 1992년도

- 2.18. 유엔사무총장, 아랍·이스라엘 분쟁 재연 조짐에 심각한 우려 표명
- 3.3. 베네수엘라(안보리의장국)는 비공식회의를 개최, 3월 중 안보리의 작업일정 협의
  -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대량파괴무기 폐기) 이행
  - 팬암기 폭파사건, 이스라엘 점령지역, 소말리아 사태, 유고 사태 등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1 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동구2과
MF번호 2022-64 / 11 / 1-277

1992.1~2월 중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동향임.

1. 유엔연락장교단 파견 경위

- 1992.1.8. 유엔안보리, 유엔군사연락장교단 파견안이 포함된 사무총장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
- 1992.1.14. 유엔장교연락단 50명 유고 내 배치 완료
- 1992.2.8. 유엔안보리, 연락장교단 75명 충원 승인

2.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경위

- 1992.1월 사이러스 밴스 유엔사무총장 특사와 유고 측과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합의
  - 파견지역: 크로아티아 내 UNPAS(유엔보호지역) 지정지역
- 1992.2.18. 유엔사무총장, 유엔평화유지군 배치계획안을 안보리에 권고
  - 유엔평화유지군 명칭: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UNPROFOR)
  - 파견 기간: 우선 12개월(추후 연장 검토)
  - 구성: 약 14,000명(군,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
- 1992.2.21. 유엔안보리, 유엔평화유지군 크로아티아 파견 결정(안보리 결의 제743호)
- 1992.2.22. 유엔안보리, 유엔사무총장이 권고한 유엔평화유지군 유고 배치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3. 주유고대사관은 1992.2.6. 유고 정부가 유고 사태에 관한 입장을 종합 정리하여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1.28.자 메모랜덤을 입수하여 보고함.

92-0896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2 3-6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2-64 / 12 / 1-328

1992.3~6월 중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동향임.

1. 유엔안보리, 대유고 제재 결의안 채택

- 1992.5.30. 유엔안보리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서의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신유고연방(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안보리 결의 제757호)
  -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과 자금 제공 금지
  - 유고에서 이륙 또는 향발 항공기의 이착륙 및 항공 통과 금지
  - 회원국 내 유고의 외교·영사관원 감축
  - 유고와의 과학·기술협력 및 문화·체육 교류 중지

2. 대유고 제재 완화

- 1992.6.18. 유엔안보리는 구유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긴급성과 인도적 원조품 제공의 국제적 노력을 감안하여 인도적으로 필수적인 소비재와 상품에 대해서는 안보리제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유고 수출을 허용하는 결의안 채택(안보리 결의 제760호)

3. 사라예보공항 재개에 필요한 평화유지군 일부 배치

- 1992.6.29. 유엔안보리, 사라예보공항 재개에 필요한 UNPROFOR(유엔평화유지군) 일부 배치 결의(안보리 결의 제761호) 채택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3 7-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2-65 / 1 / 1-308

1992.7~9월 중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동향임.

1. 유엔안보리 보스니아 사태 관련 결의 채택

- 1992.8.13. 유엔안보리,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사태 관련 구호물자 수송에 필요한 모든 조치 촉구 및 분쟁당사자의 국제인도법 준수 촉구를 골자로 하는 2개 결의 채택(제770호, 제771호)
- 안보리 결의 배경: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의 제약 및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제여론 악화

2. 유엔특별인권위원회 결의 채택

- 1992.8.1.~14. 유고 사태 관련 유엔인권위원회 최초의 특별총회가 개최되어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채택
- 결의안 요지: 모든 분쟁당사국들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행위 중단, 구유고지역 내 인권침해 상황 조사를 위해 Special Rapporteur 임명

3. 유엔총회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사태 관련 결의 채택

- 회교 국가들의 요구로 제46차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1992.8.24.~25. 속개되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사태 관련 결의 채택
- 전문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공화국 국경을 변경하려는 여하한 기도로 배격
  -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보스니아의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재확인
- 본문
  - 안보리가 보스니아 내 전투 종식, 보스니아의 국가 일체성 유지 및 영토회복을 위해 헌장 제7장에 따른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
  - 전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인종청소 및 무력 사용을 통한 영토 획득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
  - 보스니아에서 추방당한 난민의 안전하고 무조건적인 귀환을 요구하며, 그들의 손해배상 권리를 인정

92-0898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전4권 (V.4 10-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2-65 / 2 / 1-303

1992.10~12월 중 유고슬라비아 사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동향임.

1. 유엔평화유지군 확대 결의

- 1992.10.6. 유엔안보리, 보스니아 내 UNPROFOR(유엔평화유지군) 활동 확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안보리 결의 제779호)
- 동 결의로 Peruca 댐 보호와 유고군의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중무기 철수 감시 임무 추가 부여

2. 보스니아 상공 비행 금지 조치

- 1992.10.9. 보스니아 내 군사 비행 금지 관련 결의안 채택(안보리 결의 제781호)
  - UNPROFOR가 구유고 비행장에 감시단 배치를 포함하여 비행 금지 위반을 감시하도록 하고, 유엔사무총장은 정기적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반 시는 즉각 안보리에 보고
- 유엔안보리, 11.10. 안보리 결의 제781 후속조치로 사무총장이 건의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의 13개 공항에 군사감시단 파견 등 보스니아 내 군사 비행 금지 감시를 위한 세부적 운영 절차를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안보리 결의 제786호)

3. 대유고연방 봉쇄

- 1992.11.16. 안보리 결의 제757호 이행 강화를 위해 아드리아해 및 다뉴브강 봉쇄 조치 및 동 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 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결의안 채택(안보리 결의 제787호)
  - 안보리제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획득하지 않을 경우 원유, 석유제품, 엔진, 화학물질, 차량, 고무, 석탄, 철 등 주요 물자와 생필품의 신유고연방 내 반입 금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유고연방 제재 관련 각국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5 / 3 / 1-160

1992년 중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각국 정부들의 제재조치임.

1. 1992.5.30.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신유고연방(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재 결의안(제757호)을 채택함.

- 신유고연방과의 인도적 목적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제외 모든 상품에 대한 교역 금지
- 자산 동결을 포함한 금융 제재, 항공기 운항 중단 등

2.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1992.5~6월)

- 5.16. 주신유고연방 미국대사 소환
- 5.20. 신유고연방 항공기의 미국 내 취항 금지
- 5.22. 군 인사 접촉 금지, 주미국 신유고연방대사관 무관 추방 등 군사관계 전면 동결
- 5.30. 미국 내 신유고연방 자산 동결(2억 1,400만 달러)
- 6.5.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교역관계 전면 중단
- 6.23. 주미국 신유고연방 외교관 추방, 시카코 주재 신유고연방 영사관 폐쇄, 유엔 등 국제기구 내 유고의 대표권 박탈

3. 영국 정부의 제재조치(1992.5.31.)

- 항공 운항 금지, 무역 금지, 영국 내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자산 동결

4. 방글라데시 정부의 제재조치(1992.6.2.)

- 무역 전면 금지, 항공 운항 중단, 체육·문화·과학기술 교류 중지

5. 러시아의 제재조치(1992.7.12.)

- 신유고연방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 금지
- 인도적 원조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금융 거래 금지
- 러시아 국적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한 대신 유고 물품 공급 금지
- 주러시아 유고대사관 인원 축소

92-090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유고연방 제재 관련 조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구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5 / 4 / 1-221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유고연방 제재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1992.5.30.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태 관련, 신유고연방에 대한 제재 결의안(제757호)을 채택하고, 각 국가별 조치사항을 6.22.까지 유엔에 통보하도록 요청함.

- 제재 주요 내용
  - 신유고연방과의 인도적 목적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제외 모든 상품에 대한 교역 금지
  - 자산 동결을 포함한 금융 제재, 항공기 운항 중단
  - 과학·기술·문화·체육 교류의 중단 등

2. 신유고연방 제재조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6.4.)

- 정부는 신유고연방 제재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로 대유고 교역 금지, 항공·해상교통 중단, 과학기술 협력 및 문화·학술·체육 교류 중단 등 구체적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3. 정부는 1992.6.22. 상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유고연방 제재 결의 관련, 아래와 같이 한국의 조치 결과를 주유엔대사를 통해 유엔에 통보함.

- 교역 금지 및 교역 목적의 국적기·국적선 이용 금지
- 자산 이전 금지
- 항공기 운항 및 서비스·부품 제공 금지
- 과학기술·문화·학술·체육 교류 중단
  - 한국 및 신유고연방 개최 국제경기대회 초청 및 참가 금지
  - 국비유학생 파견 계획 취소 및 학술 교류 금지
  - 과학기술 분야 신유고연방 연수생 4명 초청 및 한국 전문가 1명 파견 계획 보류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전2권 (V.1 1991-92.7.13.)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5 / 5 / 1-210

1991~92.7.13. 중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각 회원국에 대한 PKO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외무부, 1991.10월 유엔사무국으로부터 PKO 설문지를 접수하고 참여 여부 및 기여 가능 분야 등 기본 입장을 검토함.
- 유엔 PKO 설문지 주요 내용
  - 기여 가능 분야(군 옵서버, 보병, 특수지원부대, 용역, 장비 지원 등 5개 분야) 및 규모
  - 기여 분야별로 파견 준비에 필요한 기간
  - 임지까지의 독자 수송 및 필요장비 자체 조달 가능 여부

2. PKO 설문지 회신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2.6.19.)

- 참가자: 외무부 국제기구국장(회의 주재), 외무부 유엔1과장, 국방부 대외정책과장, 안기부 정세종합과장
- 협의 사항: 회신 내용(군 옵서버 및 보병부대 포함 여부 등), 대국회 보고 문제, PKO 파병 특별법 제정 문제, 대언론 설명 문제

3. 참고자료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자료 제출 문제 검토(1991.10.15., 외무부)
- 유엔평화유지활동 현황 보고(1992.1월, 국제연합1과)
- 유엔 PKO 참여 문제(1992.7월, 외무부)
- UN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검토(1992.7월, 국방부)

92-0902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전2권 (V.2 1992.7.14.-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5 / 6 / 1-189

1992.7.14.~12월 중 한국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 관련 내용임.

1. PKO 참여 문제 관계부처 장관회의(1992.7.15.)

- 참가자
  -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 1차장 및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 회의 결과
  - PKO 파견 원칙에 대한 의견 일치
  - 군 옵서버, 군 의료단 등 군 병력 파견이 결정되었으나, 보병 파견 여부는 향후 당·정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
  - PKO 설문지는 유엔총회 개막 시까지 제출 예정

2. PKO 설문지 회신 대통령 재가(1992.9.9.)

- 1991.10월 유엔으로부터 접수한 PKO 관련 설문지에 대해 그동안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자당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보병 540명(1개 대대), 군 옵서버 36명, 군 의료단 154명 등 총 730명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유엔에 회신하기 위해 대통령 재가 획득

3. PKO 설문서 회신 유엔사무국 제출(1992.9.18.)

- 한국 정부의 PKO 설문지 회신을 유엔사무국에 제출

4. 참고자료

- 유엔 PKO 성공 사례와 희생 사례, 냉전 종식과 유엔 PKO(1992.7월, 외무부)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예상 질의·답변 자료(1992.8월, 국제기구국)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설문서 회신 문제(1992.9.2., 외무부)

UNTAC(유엔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 설치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5 / 7 / 1-322

1. 유엔안보리의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 결의안 채택

- 1992.2.28. 유엔안보리,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권고한 캄보디아 평화유지계획안 만장일치 승인
-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 결의안 주요 내용
  - UNTAC(유엔캄보디아임시행정기구) 설치(소요 경비: 19억 달러, 활동기간: 16개월)
  - 3~5월 15,900명의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약 2만 2천 명의 인력 파견
  - 1992.9월까지 캄보디아 정부 및 각 정파의 무장해제, 난민귀환 지원 및 인권보호활동 전개
  - 1993.5월 이전 총선 실시, 신정부 수립 후 UNTAC 조기 철수

2. UNTAC 활동 제1차 중간 보고(1992.5.1.)

- 1992.3.30.부터 피난민 귀환 작업 시작
- 1992.4월 말 현재 3,694명 군대 배치
  - 캄보디아 각 파벌의 무장해체 작업을 개시할 예정
- Akashi 특별대표는 3.15.부터 활동 중이며, 4개 군벌과 핫라인 설치
- 선거지원 업무, 경찰 배치 등 실시 중
- 대체로 각 분야별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3. 유엔안보리의 캄보디아평화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1992.10.13.)

- 캄보디아 총선은 폴포트파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1993.5월 예정대로 실시 재확인
- 폴포트파의 평화협정 위반을 개탄, 무장해제 등 평화협정 준수 촉구
- 관계국이 캄보디아 재건 동경 국제회의(1992.6.22.)에서 약속했던 원조기금의 조기 이행 등

92-0904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5 / 8 / 1-140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의가 1992.6.29.~7.31. 뉴욕에서 개최됨.

1. 회의 일정

- 경제사회위원회 회의(1992.6.30.~7.30.)
- 고위급 회의(1992.7.6.~8.)
- 조정회의(1992.7.9.~14.)
- 개발활동회의(1992.7.15.~17.)

2. 대표단 구성

- 고위급 회의: 유종하 주유엔대사(수석대표), 강광원 주유엔참사관 등 3명
- 기타 회의: 신기복 주유엔차석대사(수석대표), 금정호 국제기구국 심의관 등 8명

3. 참가 목적

- 유엔체제 내 주요 세계경제·사회 문제 토의 적극 참여를 통한 대유엔 활동 강화
- 유엔 경제사회 분야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표명
- 향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환경규제, 개발체제 개편 등)에 대한 적극 대처
- ECOSOC 산하 및 관련 기구의 주요 활동내용 파악

4. 회의 의제

- 고위급 회의
  -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조정회의
  - 구조조정계획 시행 중 원조 포함, 빈곤 퇴치를 위한 원조와 취약계층 지원
  - HIV/AIDS 예방 및 통제와 사회경제적 악영향 완화를 위한 계획
- 개발활동회의
  - 개발활동, 개도국 간 기술협력, 조정 문제
  - ECOSOC 활성화
  - 특별경제, 인도적 및 재난구호 원조
- 경제사회위원회 회의
  - 지역협력
  - 개발 및 국제경제협력



- 피점령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지역 내 국가 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
- 체르노빌 사건 영향 축소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제2차 인종차별 투쟁 10개년 행동계획 이행
- 인권, 사회개발 및 마약 문제

92-0905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5 / 9 / 1-231

1992.6.29.~7.31. 뉴욕에서 개최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의 결과 내용임.

1.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유엔체제의 역할 제고
- 향후 유엔이 추진할 새로운 개발개념 제시
-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대

2.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 체제 개편

- ECOSOC 기능 활성화
  - ECOSOC의 정책결정 및 조정기능 강화
  - ECOSOC와 총회 제2위원회 및 제3위원회 간의 관계 재정립
  - ECOSOC 산하에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 담당 지속개발위원회 설치
- 개발을 위한 실행활동 강화
  - 각국 파견 유엔 coordinator 제도 도입 검토
  - 현행 자발적 기여금제도의 분담금 방식으로의 변경 추진

3. 한국대표단 활동(수석대표: 주유엔대사)

- 국제개발협력 및 경제사회 분야 유엔체제 개편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 표명
  - 빈곤 척결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유엔의 역할강화 필요 강조
  - 유엔기구 활동의 중복 배제, 총회 및 ECOSOC 간의 책임 균분, 각국 경제력에 따른 재정부담 강조

4. 평가 및 관찰

- 세계 주요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제고
- 유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회와 ECOSOC 간의 명확한 역할 배분 문제 대두
  - 향후 ECOSOC 회의는 선정된 주요 의제 중심으로 운영 전망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8차. New York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6 / 3 / 1-151

제18차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됨.

1. 개최 일정

- 1차 회기: 1992.1.23.~24.
- 2차 회기: 1992.4.8.~15.

2. 한국 대표

- 1차 회기: 강광원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2차 회기: 이수택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3. 주요 의제

- 다국적기업과 세계경제 및 개도국에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 다국적기업과 환경 문제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TNC(무역협상위원회)
- TNC 행동규범 및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계약협정
- UNCTC 활동

4. 회의 결과

- 77그룹의 옴니버스 결의안, 아프리카그룹의 남아공 관련 결의안, 동구권 국가 중심의 사유화와 다국적 기업 관련 결의안 등 3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처리하기로 합의

92-0907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제16차 유엔지명전문가회의. New York, 1992.8.24.-9.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6 / 4 / 1-114

정부는 1992.8.24.~9.4.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UNCSGN(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제16차 UNGEGN(유엔지명전문가회의)에 소병용 주유엔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함.

1. 제6차 UNCSGN(1992.8.25.~9.3.)

- 참가 목적
  - 최초로 유엔회의에서 동해의 한국 영문명칭인 East Sea 표기 문제 공식 거론
  - East Sea 표기의 타당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 제고
  - 유엔 주관하의 지명표기 통일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적극 부응(한글의 로마자 표기 등)
- 주요 의제
  - 국별 표준화, 지명 데이터 파일, 지명표준화의 용어, 지명표준화 유엔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
  - 외국어 지명, 단독 주권을 넘어서는 지형, 표기체제 및 발음 지침
  - 지명 교육 및 판례와 국제협력, 회의 및 회기 등
- 한국 관련 의제
  - 동해 표기 문제: 의제 10(b)에서 거론 가능
  - 로마자 표기: 의제11(a)

2. 제16차 UNGEGN(1992.8.24., 9.4.)

- 주요 의제
  - 1차 회의: 실무그룹 보고,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조직 문제, UNGEGN 규정 검토
  - 2차 회의: 제6차 회의 권고사항 이행 계획, 실무그룹 구성 계획, 제17차 UNGEGN 잠정 의제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제16차 유엔지명전문가회의. New York, 1992.8.24.-9.4. 전2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6 / 5 / 1-159

1992.8.25.~9.3.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UNCSGN(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과임.

1. 의제 10(b) 협의

- 한국 대표는 동해 명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언
  -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해양을 일본해(Sea of Japan)로만 지칭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및 한·일 양국 간 표기 미합의에 비추어 부당하며, 동해(East Sea)도 병기할 것을 제의
  - 북한 대표도 동조 발언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대표도 '동해/일본해', 또는 '한국해/일본해'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 제시
  - 일본 대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다른 표기 사용 시 혼란 초래 가능성 주장
  - 회의 의장은 동해와 일본해를 공용하는 방안 등에 유념하여 관계국 간 협의 진행 권고

2. 남북한 간 한글의 로마자 표기 문제 합의

- 1992.6월 남북한은 ISO(국제표준화기구) 주관으로 '기계화를 위한 로마자표기법의 단일안'에 합의
- 8.25.~9.3. 제6차 UNCSGN 의제 11항 논의 시 북한은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제시
  -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한글의 로마자 표기 단일화를 위한 남북한 전문가회의 추진에 합의

92-0909

유엔직원 연금기금의 한국 내 증권투자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66 / 6 / 1-57

1. 유엔사무국은 1991.12.24.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1992.1월 한국의 증권시장 개방을 계기로 유엔직원 연금기금(The U.N. Joint Staff Pension Fund)의 한국 증권 투자 시 한국 정부의 직접세 면제 여부 및 배당, 이자수입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함.
   - 유엔직원 연금기금은 유엔기구 직원의 연금지급을 위해 1948.12.7. 유엔총회 결의 제248호에 의해 기금규칙이 채택되었으며, 1988.12월 말 현재 16개 국제기구가 동 기금에 가입함.

2. 외무부는 1992.5.4. 유엔직원의 연금기금이 국내 증권 투자를 하는 경우 직접세 면제 및 배당, 이자수입, 자본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유엔 측에 통보하도록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유엔 엘살바도르 감시단(ONUSAL) 동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6 / 7 / 1-146

1992년 중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된 ONUSAL(엘살바도르 감시단) 주요 동향임.

1. 1992.1.14. 유엔안보리는 ONUSAL 임무를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1992.10.31.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 1992.2.3. B.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이 ONUSAL에 군 요원을 지원할 국가로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 스페인 등 10개국을 제의한바, 유엔안보리는 2.5. 이에 동의함.

3. 1992.5.21. 유엔 제5위원회 전체회의는 ONUSAL에 대해 1992.1.1.~10.31.간 경비로 예산 39백만 달러를 승인함.

4. 1992.10.30. 유엔안보리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반군) 간의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ONUSAL 임무 기간을 1992.11.30.까지 1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92-0911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세미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6 / 8 / 1-188

1. 유엔 주관 팔레스타인 문제 구주지역 세미나(1991.5.27.~30., 스페인 마드리드)

- 주최
  - 유엔총회 결의(44/41 B)에 따른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 권리위원회
- 대표단(수석대표)
  - 홍장희 주스페인대사
- 참가 목적
  -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감 표시를 통해 아랍권 및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증진 목적
- 주요 세미나 내용
  - 패널 I: 인티타파-점령지역 거주 팔레스타인인의 안전과 보호
  - 패널 II: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 시행의 긴급성

2.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아시아지역 세미나 및 NGO 심포지엄(1992.1.20.~24., 사이프러스 니코시아)

- 주최
  - 유엔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 권리위원회
- 한국 측 참가자
  - 오기철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참사관

3.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세미나(1992.6.22.~23., 뉴욕)

- 주최
  - 유엔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양 권리위원회
- 주제
  -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의 팔레스타인인 보호를 위한 제4차 제네바협정 이행

유엔 및 비동맹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6 / 11 / 1-93

1991~92년 중 유엔 및 비동맹 관계 유력인사 방한 초청계획 및 추진 내용임.

1. 1991년도 유엔 및 비동맹 관계 유력인사 방한 초청계획

- 초청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안보리이사국 대사(유엔가입 추진 관련)
  - 기초청 인사 중 방한 초청이 계속 필요한 인사
  - 유엔 비동맹에서 한국에 적극 협조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인사
- 초청 고려 대상자(8명)
  - 우선 초청대상자(5명): Gharekan 주유엔 인도대사(안보리 비상임이사국), Ayala Lasso 주유엔 에콰도르대사(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991.8월 안보리 의장), Spiers 총회담당 사무차장(기초청, 미국 국적), Safronchuk 안보리담당(기초청, 소련 국적), Pejic 주유엔 유고대사(기초청, 비동맹 의장국)
  - 예비 초청대상자(3명): Munteanu 주유엔 루마니아대사(안보리 비상임이사국), Schlittler 안보리담당 국장(유엔가입 추진 관련, 브라질 국적), Mahmood 파키스탄 외무부 유엔 및 미주담당 차관보
- 상기 방한 초청대상자의 방한 시기는 가급적 유엔총회 이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실제 사업 진척 및 가용예산, 유엔·비동맹 정책상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해 나가고자 함.

2. 1992년도 유엔사무국 실무책임자 방한 초청계획

- 초청대상자 선정 주안점
  - 방한 초청사업 대상을 현재까지의 각국 주유엔대사 및 사무국 고위인사 중심에서 탈피, 한국의 향후 유엔 활동에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국 실무책임자 위주로 선정
- 초청대상자
  - Riesco 인력충원국장(D-2, 칠레), Jensen 총회담당 국장(D-2, 말레이시아), Stoby 경사리담당 국장(D-2, 가이아나), Shimura 평화유지군담당 국장(D-2, 일본), Kheradi 제1위원회(군축) 간사(D-1, 이란), Maldonado 총회 본회의 선임담당관(P-5, 페루), Pace 인권사무국 회의 선임담당관(P-5, 몰타)
  - (예비대상자) Petrovsky 정무담당 사무차장(러시아), Ciss 인력관리담당 차장보(ASG, 세네갈), Kamal 제3위원회(사회) 간사(D-1, 이라크)
- 가급적 유엔총회 개막 이전 시행

92-0913

Pace, John 유엔 인권사무국 선임담당관 방한, 1992.9.28.-10.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66 / 12 / 1-55

John Pace 유엔 인권사무국 선임담당관이 1992.9.28.~10.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유엔사무국 실무책임자 방한 초청사업

2. 주요 일정

- 관계부처 방문
  - 외무부 제1차관보, 국제기구국장 면담
  - 법무부 법무실장 면담
- 민간단체 인사 면담
  - 대한변협회장: 유엔 인권활동 소개
  - 정대협 대표: 인권위원회 회의 등에 NGO 참여 문제 관련
- 판문점 및 경주 시찰

3. John Pace 유엔 인권사무국 선임담당관 방한 시 주요 언급내용

- 한국의 유엔 인권활동 참여
  -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은 국제적으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이 유엔 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할 경우 그 경험을 활용하여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특히 199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선진·개도국 간의 간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이 유엔 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사무처에 JPO를 파견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며, 이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
- 전시 강제위안부 문제
  - 국제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인권유린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동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
  - 일본 정부는 구체적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종전의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며, 인권위원회 등에서의 동 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가능한 협조를 할 것임.

Perkins, Edward J.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 1992.8.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6 / 13 / 1-63

Edward J. Perkins 주유엔 미국대사가 1992.8.2.~3. 방한함.

1. 방한 경위

- 유엔총회 개최 전 연례적인 주요국 순방계획의 일환

2. 주요 일정

- 1992.8.3. 유엔군사령부 브리핑 청취 및 DMZ 시찰(미국 측 주선),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예방

3. 외무부장관 예방 시 Perkins 대사의 주요 언급사항(1992.8.3.)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한국이 제반 분야에서 유엔의 노력과 그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기대함.
- 한·미 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에 기초해서 양국이 유엔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함.
- 이번 총회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유엔체제 개편, 재정 문제, 캄보디아, 유고 사태 등 주요 국제 문제, 인권 문제 등이며, 인권 문제에서는 이라크, 쿠바, 엘살바도르 등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도 거론될 예정임.

92-0915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6 / 14 / 1-292

1992년 중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기총회 개최 결과임.

1. UNMCK 설치 및 운영

- 1951.1.18. 부산시 내 한국전에 참전하여 사망한 유엔군 묘지(43,615평) 설치
- UNMCK는 1955.12.15.자 유엔총회 결의 제977(X)호 및 한국과 유엔 간 체결된 UNMC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1959.12.11. 발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묘역 관리는 한국 등 11개국 대표로 구성된 재한 유엔기념묘지위원회(CUNMCK, Commission for the UNMCK)가 담당함.
  - UNMCK 대표(관리처장)는 CUNMCK에 의해 임명되며 UNMCK 운영을 책임짐.
  - CUNMCK 회원국(11):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호주, 남아공

2. 외무부는 1992.1.15. UNMCK 관리소가 재한 유엔기념묘지관리소를 재한 유엔기념묘지관리청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유엔기념묘지관리처로 변경하기로 함.

3. CUNMCK 정기총회(1992.10.23., 부산)

-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와 상기 CUNMCK 10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1993년도 예산안(약 3억 6천만 원)을 심의하고 UNMCK 관리차장의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함.

4. CUNMCK 특별총회(1992.12.10., 서울)

- 금정호 외무부 국제기구심의관, 우문기 UNMCK 관리처장, 상기 CUNMCK 10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1993년도 UNMCK 근무직원의 봉급을 평균 11.54% 인상하기로 함.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유엔총회 제출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66 / 15 / 1-68

1991~92년 중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의 유엔총회 제출 문제 관련 내용임.

1. 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채택 추진 검토

- 경위
  - IAUP(세계대학총장회)는 1991.5.20.~25.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평화 학술회의에서 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조영식 경희대 총장(IAUP 종신 명예회장)은 1991년 유엔총회 시 한국 주도하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기 결의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1991.8.30. 외무부에 요청
- 결의안 요지
  - 유엔 전 회원국의 유엔헌장 및 결의안 준수 서약
  - 타국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 유엔의 군축 노력 지지, 대량학살무기 금수
  -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상설 유엔평화유지군 창설
- 결의안 추진 문제 검토
  - 절차상 문제점: 동 결의안은 '세계평화의 날 10주년'이라는 추가 의제하에서만 제출 가능
  - 현재의 북한 측 태도로 보아 남북한의 결의안 공동 제출은 실현 난망
  - 결의안 내용상 문제점: 대량학살무기 금지 또는 금수에는 핵무기가 포함되는바,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유사 결의안에 강력 반대 입장
- 조치방안
  - 현실적으로 의제 채택 및 결의안 채택 전망이 적으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음.
  - 향후 한국대표단이 상기 결의안 취지를 감안하여 제1위 일반토의 연설 및 총회 관련 의제 토의 시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언급함으로써 장차 한국 측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구축

2. 세계평화정착 결의안 제출 관련 추가 검토(1995년도 채택을 목표로 한 사전 제출 문제)(1992.12.2.)

- 결의안 제출은 총회 개막 전후 수주일 내 이루어지며 수년 후 채택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 사전 제출은 불가함.

92-0917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중동2과
MF번호	2022-66 / 16 / 1-263

1991~92년 중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한 한국의 조치사항임.

1. 1991년도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1991.11.29.) 관련, 외무부장관 명의의 메시지 송부
   - 한국은 유엔 결의에 의하여 인정된 팔레스타인인의 민족자결권 등 제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2. 1992년도 팔레스타인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1992.11.30.) 관련, 외무부장관 명의의 메시지 송부
   - 한국은 유엔 결의에 의하여 인정된 팔레스타인인의 민족자결권 등 제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재확인
   - 현재 진행 중인 중동평화회의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중동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입후보. 전2권 (V.1 1987-90)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1 / 1-177

1987~90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입후보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8.12.31. Kibria 현 ESCAP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각국 후보 추천

2. 사무총장 후보 경합자

- Kibria 현 사무총장
- Shahari 현 APDC(아태개발센터) 사무국장
- 필리핀 후보 추천 가능

3. 사무총장 선출 경과

- ESCAP 근거 규정(제17항): 유엔사무총장이 ESCAP 사무국 요원 임명(통상 회원국의 의견 고려)

4. 대사관 보고 사항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Shahari 현 APDC 사무국장은 ESCAP 사무총장 피선에 대비, 1987.12월 유엔에 파견됨.
  - 말레이시아 측은 자국 후보의 피선을 낙관함.
- 주태국대사관
  - Kibria 현 사무총장 임기 연장 희망
  - 임기 연장을 위한 회원국 대상 로비 활동: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방문 및 각국 상임대표와 부대표 초청 만찬 주최 등
  - 인도는 Kibria에 대해 우호적이고 임기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5. 한국 측 입장

-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국 후보 지지 요청 및 ESCAP 사무총장의 연임의사 표명 관련 신중한 고려
  - 말레이시아 또는 방글라데시의 한국 APDC 사무국장 후보 지지 여부 확인
- 타 회원국 정부(특히 필리핀)의 후보 지명 가능성 검토
- ESCAP 사무국 동정 파악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입장 파악

92-091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입후보. 전2권 (V.2 1991-92)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2 / 1-170

1991~92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입후보에 관한 내용임.

1. 사무총장 후보국

- 태국: Xuto 주이탈리아대사
- 말레이시아: Singh 외무부 아세안 차관보
- 파키스탄: Ahmed 유엔 정치사회담당 사무차장
- 키리바시: Tavai 대통령
- 스리랑카: Warnasena Rasaputram 주제네바대사

2. 지지 요청 동향

- 태국: 주한 태국대사, 국제경제국장 면담 시 지지 요청
- 키리바시(구 길버트제도): Timeon 외무차관, 주피지대사에게 한국의 지원과 협조 요청
- 스리랑카: 주한 스리랑카대사, 아주국장 면담 시 지지 요청
- 파키스탄: 구체적 지지 요청 없음.

3. 사무총장 임명 방법

- 유엔사무총장이 임명
  - 통상적으로 주요 회원국의 의견 고려

4. 1992.2.4.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4.1.자로 파키스탄 출신의 아흐메드 현 유엔사무차장을 키브리아 ESCAP 사무총장 후임으로 임명

- 동인의 임명과 관련, 유엔사무국 측은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차장 수를 줄이는 방침에 따라 외부 인사 영입보다는 기존 직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표
- 아세안 측은 지역순환 원칙에도 불구, 유엔사무차장이 아세안 단일후보(말레이시아 외무부차관보) 대신 비아세안 측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 실망감 표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회의구조개편 고위관리회의. Bangkok(태국), 1992.1.13.-1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3 / 1-132

정부는 1992.1.13.~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의구조 개편 SOM(고위관리회의)에 배영한 주태국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ESCAP 산하 조직별 Terms of Reference
- 각 회의별 구성, 대표 수준, 회의 빈도 및 기간
- 개편된 조직하에 각 위원회, 특별기구, 자문기관의 운영방식
- ESCAP 업무에 대한 부문별 접근방식으로부터 주제별 접근방식으로 이행 관련 과도기간 문제
- 주제별 접근방식에 부응하는 개편된 사업조직

2. 정부 훈령

- 지역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문제 이외 여타 회의구조 개편방안은 한국과 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가능한 다수 의견 및 회의 분위기에 따른다는 원칙하에 아래 입장 적극 개진
- 위원회
  - 3개의 주제별위원회, 5개의 기술위원회 설치안보다는 4개의 주제별위원회, 2개의 기술위원회 설치안(수정안)이 바람직
  - 주제별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간의 구별이 불명확하며, 또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시되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이를 통합, 5개 정도의 주제별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 개발정책자문위원회
  - 동 위원회 구성원 임명권이 사무총장에게 있고, 또한 사무총장 필요 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는 방편으로 이사회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주대표자문위원회 이외의 별도 사무총장 자문기관 신설보다는 동 위원회 기능 강화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

3. 주요 합의내용

- 주제별위원회
  - 지역경협위를 포함하여 원안대로 3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단, 제3위원회 명칭은 Themaitic Committee on Poverty Alleviation Through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로 하기로 함.
  - 회의 빈도는 매년 1회 개최하기로 변경함.



- 기술위원회
  - 사무국이 수정을 제안한대로 Transport and Communication 및 Statistics에 관한 2개 위원회를 설치하되, 주제별위원회보다 하급조직이라는 시각에 따른 관심 및 참여수준 저하를 막자는 취지에서 명칭 중 Technical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함.
  - 회의 빈도는 2년마다 1회 개최하기로 함.
- 특별기구
  - 기존 제안대로 2개 조직을 유지하기로 함.
  - 단, Transitional Economy 문제를 주제별위원회 또는 특별기구에서 다루는 문제는 베이징 총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 회의 빈도는 2년마다 1회 개최
- 개발정책자문위원회
  - 설치하지 않기로 함.
  - 단, 사무국 측 설명을 감안하여 향후 주제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총회가 결정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1 199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4 / 1-135

1992.4.14.~17.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제48차 ESCAP 총회 핵심 주제인 연구사업비 지원 요청

- 경위
  - ESCAP사무국은 1991.6월 제48차 ESCAP 총회 핵심 주제 연구사업계획서를 주태국대사관에 수교하면서 사업비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계획을 표명
- 사업명: '아태지역 경제협력 전망, 우선순위 및 정책 옵션' 연구
- 사업추진 비용(207,045달러) 조달: 한국, 일본, 인도 분담
  - 한국 측은 8.13. 주태국대사를 통해 KECF(한·ESCAP 협력기금)에서 35,000달러 지원방침을 ESCAP사무국에 통보

2. 외무부장관, ESCAP 사무총장 면담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제47차 ESCAP 총회 의장자격으로 태국을 방문하여 1991.8.1. ESCAP 사무총장 면담(면담 요록, 첨부)
  - 제48차 ESCAP 베이징 총회, 남북한 유엔가입 후 북한의 ESCAP 총회 참석 문제 등 의견교환

3. 제48차 ESCAP 총회 잠정 의제안 의견 개진

- Kibria ESCAP 사무총장은 1991.10.28. 이상옥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제48차 ESCAP 베이징 총회 잠정 의제안(첨부)에 대한 의견문의
  - 11.8. 이상옥 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잠정 의제안에 이견 없다는 입장을 ESCAP 사무총장에게 전달

92-092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2 1992.1월-3.20.)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5 / 1-141

1992.4.14.~17.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주요 의제

- 아태지역 경제협력-전망, 우선순위, 정책 옵션
- ESCAP 회의 구조 재조정, 북한의 ESCAP 가입, 개도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2. 참가 목적

- 제47차 총회 의장자격으로 참석(이상옥 외무부장관)
- 역내 협력 문제에 있어 ESCAP을 통한 한국의 역할 강화
- 총회 참석기회를 활용,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인사들과 접촉, 한·중국 관계개선 적극 추진
- ESCAP을 통한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

3. 주요 참석 행사(잠정)

- 개회식 행사(4.14.): 제47차 ESCAP 총회 의장자격으로 제48차 총회 개회식 주재
- 기조연설(4.15.)
- 연회
  - 4.14. 총회 의장(중국 외교부장) 주최 만찬
  - 4.15. 인도 수석대표 주최 각국 수석대표 초청 오찬, 중국 총리 주최 리셉션
  - 4.16. 아세안 회원국 공동주최 리셉션, 이상옥 장관 주최 오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3 1992.3.21.-4.10.)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6 / 1-121

1992.4.14.~17.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가 준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수석대표), ESCAP 총회 참석 일정

- 4.11. 서울 출발, 홍콩 도착, 무역촉진간담회, 주홍콩총영사 주최 만찬
- 4.12. 베이징 도착, 4.13. 별도 일정
- 4.14. 개회식 및 의장 선출 주재, 총회 의장(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주최 만찬
- 4.15. 수석대표 기조연설, 인도 수석대표 주최 오찬, 장택민 중국 주석 접견, 이붕 중국 총리 주최 만찬
- 4.16. 아세안 회원국 공동주최 리셉션, 일본 수석대표 주최 리셉션
- 4.17. 베이징 출발, 몽골 울란바토르 향발

2. 외무부장관 ESCAP 총회 기조연설(안)

-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1992.4.14. 제47차 서울 총회 의장으로서 개회식을 주재하고 이어 4.15. 본회의에서 기조연설 예정
- 연설문안
  - 북한의 ESCAP 가입에 따른 총회 참석을 환영하고 향후 ESCAP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 ESCAP 회원국의 지역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참여 계획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표명
  - ESCAP을 통한 지역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제시

92-092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8차. 북경, 1992.4.14.-17. 전4권 (V.4 1992.4.11.-5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7 / 1-162

정부는 1992.4.14.~17.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노재원 주북경대표부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결과

- 지역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베이징 선언 등 12개 결의안 채택
  - 제47차 서울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의 후속조치로 채택
- 차기 총회 핵심 주제로 역내 무역 및 투자 증진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ESCAP 회의 구조 재조정
  - 지역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주제별위원회, 2개 기술위원회, 2개 특별기구로 확정

2. 외무부장관 총회 참석 결과

- 제47차 서울 총회 의장자격으로 개회식을 주재하고, 의장직 이임사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에 관한 서울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 보다 활발한 아·태지역 내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ESCAP 가입 등 동북아지역 정치 상황 호전을 계기로 ESCAP의 동북아 지역 경협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조
- 총회 의장(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주최 만찬, 이붕 중국 총리 주최 만찬, 장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예방
- Ahmed 신임 ESCAP 사무총장을 별도 면담
  - 한·ESCAP 간 협력 문제 협의
-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별도회담
  - 양국 간 현안문제 협의

3. 후속조치

- 1993년 ESCAP 총회 주제 연구사업을 위한 ESCAP사무국 측의 2만 달러 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4. 자료

- 제48차 ESCAP 총회 참석보고(1992.4월, 재무부 관세국)
- 외무장관 방중 관련 주요 일정(1992.4.12., 주북경대표부)
- 중국 전기침 외교부장 주최 각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 시 외무부장관 답사
- 이상옥 장관 기조연설문, 북한 대표 기조연설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4차. Pattaya(태국), 1992.2.18.-2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8 / 1-305

정부는 1992.2.18.~27.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제2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에 박용대 기상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태풍에 대비한 각국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재해방지대책 수립
- 태풍 방재와 관련한 지역협력 적극 참여

2. 정부 훈령(안)

- 태풍 재해 경감을 위한 제반 지역협력사업 의제의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제고하고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것
- 태풍 피해에 대비한 예·경보제도, 홍수 및 폭풍에 의한 기상재해 예방, 태풍 관련 연구·활동 등 각국의 태풍에 대한 추진 대책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능률적인 재해방지대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할 것

3. 회의 결과 자료

- 회의 참가보고서(1992.3월, 기상청)
- 귀국보고서(3월, 기상청 방재과)
- ESCAP/제24차 태풍위원회 보고서
  - Report of the Joint Session of the Panel on Tropical Cyclones and the Typhoon Committee on Its First Session (Pattaya, Thailand, 18~27 February 1992)

92-092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교통·체신 각료회의. Bangkok, 1992.6.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9 / 1-133

정부는 1992.6.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교통·체신 각료회의에 정주년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주진엽 주태국대사관 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지역활동계획
- 지역활동계획의 집행에 있어 회원국, 준회원국, 국제기구 및 정부간·기구간 협력활동
- 지역활동계획의 집행을 위한 재원 조달

2. 참가 목적

- ESCAP을 통한 교통·체신 분야 지역협력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 표명
- 교통·체신 분야 지역활동계획(Regional Action Program)에 한국 입장 반영
-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간 소지역 단위의 교통·체신 분야 협력 가능성 모색

3. 자료

- ESCAP 교통·체신장관회의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1992.5월, 체신부)
- ESCAP 교통·체신장관회의 기본 입장(1992.5.25., 교통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교통·체신 각료회의. Bangkok, 1992.6.1.-5.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10 / 1-141

1992.6.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교통·체신 각료회의 결과 및 관련 자료임.

1. 회의 결과

- 각국 대표는 역내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교통·체신 분야 하부구조(인프라) 개발이 필수요소임을 강조하는 한편,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 역설
- 이와 아울러 관광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교통·체신 10년대 제2단계 사업에 관광 분야도 포함, 상호 연계하에 추진할 것을 강조
- 한국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교통·체신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교통·체신 분야에서 얻은 개발경험을 여타 개도국과 공유할 의사 표명
- 채택 보고서 및 각료 선언문 수록

2. 자료

- ESCAP/교통·체신장관회의 참석 결과(1992.6월, 교통부)
- 한국 수석대표(주태국대사) 기조연설문
- ESCAP 교통·체신장관회의 최종보고서

92-092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태지역 공업기술 각료회의. Teheran(이란), 1992.6.23.-29. 전2권 (V.1 1991-92.4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11 / 1-134

정부는 1992년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예정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태지역 공업기술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 그룹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ESCAP사무국은 1991.9.16. 공한을 통해 1992.2.24.~3.1.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공업기술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 그룹회의를 1991.11.14.~16. 태국 방콕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함.
   - 전문가 그룹회의 주요 안건
     - 아·태지역 개도국의 산업구조 재조정 및 제반 정책
     -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능력 증진에 적절한 환경 조성
     - 투자 증진 및 산업자금 조달, 환경적으로 안전한 산업 및 기술 발전

2. 외무부는 1991.11.6. 상기 고위전문가 그룹회의에 은성수 재무부 행정사무관 등 3명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3. ESCAP사무국은 1992.4.20. 공한을 통해 상기 공업기술 각료회의를 연기하여 1992.6.23.~29.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태지역 공업기술 각료회의. Teheran(이란), 1992.6.23.-29. 전2권 (V.2 1992.5-7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12 / 1-164

정부는 1992.6.23.~29.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태지역 공업기술 각료회의에 신국환 공업진흥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목적

- 아·태지역 국가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2. 참가국

- 32개국

3. 주요 의제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 공업발전을 위한 기술능력 증진에 적합한 환경 조성
- 대개도국 투자 촉진 및 산업금융 지원

4. 정부 훈령

- 공업기술 분야에 관한 지역협력 실천계획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 한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 사례 및 개발 경험을 소개하고 대개도국 지원 의지를 천명할 것

5. 주요 결과

- 참석자들은 최빈국 및 도서개도국을 위한 지역협력,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전략 및 행동계획 등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공업기술에 관한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함.

6. 한국대표단 활동

- 투자촉진을 위한 아·태 투자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지원을 당부함.
- 이란 공업부장관(1992.6.28.) 및 중공업부장관(6.29.)을 각각 면담하고 한·이란 간 기술이전, 한국의 경험 전수, 합작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함.

92-093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 인구회의, 제4차. Bali(인도네시아), 1992.8.19.-27.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13 / 1-321

정부는 1992.8.19.~27.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 인구회의에 송재성 보건사회부 국제협력관과 민태형 통계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8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대표 23명

2. 회의 일정

- 고위급 회의(1992.8.19.~24.)
- 각료급 회의(1992.8.26.~27.)

3. 주요 의제

- 인구 현황 및 전망, 가족계획과 사회복지제도, 인구정책 수립 및 집행
- 인구의 노령화, 개발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빈곤퇴치, 환경보호 및 지속적 성장 등

4. 정부 훈령

- 한국의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의제별 토의 시 한국 입장의 최대한 반영에 노력할 것
-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대개도국 지원 의지를 표명할 것

5. 주요 결과

- 참석자들은 인구 이동 및 도시화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인구 및 지속적 발전에 관한 발리 선언문을 채택함.
  - 참가자들은 인구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폭넓은 발전 개념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6. 한국대표단 활동

- 민태형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인구 현황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개발목표를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양환경 Working Group 회의. 광저우(중국), 1992.9.28.-10.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67 / 14 / 1-86

정부는 1992.9.28.~10.3.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해양환경 Working Group 회의에 신재현 외무부 과학환경과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해양과 연안지역 환경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역내 개도국들의 연안지역 환경관리계획 개발 및 실시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 개발
- Working Group의 위임 권한, 구조 및 사업계획 등 심의

2. 정부 훈령

- 아·태지역 내 해양과 연안지역 환경의 건전·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강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 측 입장을 적극 반영
- 역내 개도국들의 연안지역 환경관리계획 개발·실시를 위한 방법론 및 지침개발 논의와 관련, 참가국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 측 기본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
- 향후 개최될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제2차 NOWPAP(북서태평양보전계획) 실무회의, ESCAP 주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등에 대비,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의 역내 환경 및 해양환경 보존에 관한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할 것 등

3. 회의 결과 합의사항

- 재난 예보 및 방지를 위한 역내 Data Buoys System Network 설립
- 역내 중심 해양연구센터 설립 검토
- 해양 환경 및 범세계적 환경 문제의 지역차원 정기적 진단

92-093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계위원회, 제8차. Bangkok, 1992.11.16.-2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7 / 15 / 1-177

정부는 1992.11.15.~2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통계위원회 회의에 임성곤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지역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발전
- 빈곤경감 지원 등을 위한 사회·인구 통계 발전
- 환경 및 에너지 통계 발전
- 공공부문의 전산화 촉진

2. 참가 목적

- 한국 정부의 통계활동 소개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 주요 참가국 대표 접촉을 통해 국가통계 발전방안 협의

3. 훈령

- 국가통계 사업에 대한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통계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 정부 정책 및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
- 한국의 통계활동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아울러 각국의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을 통해 한국 통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

4. 회의 결과보고서(Draft Report, 영문), 수록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정치지도자 회의. 서울, 1992.11.18.-2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1 / 1-10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정치 지도자회의가 1992.11.18.~20.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3월 상기 연구소, 동 회의 개최 추진 개시
- 1992.7월 KECF(한·ESCAP 협력기금)에서 8만 달러 지원

2. 회의 목적

-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지위향상 방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3. 참가자

- Wendy Fatin 호주 예술·국토 및 여성지위 관련 총리보좌 장관, Sawari Rahman 방글라데시 사회복지 및 여성문제담당 국무장관 등 21명, 국내인사 16명

4. 회의 결과

- '여성의 정치적 권리증진을 위한 서울성명서(Seoul Statement on Empowering Women in Politics)' 채택
- 성명서 요지
  -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저해하는 제반 차별적 요인 제거 촉구
  - 여성 정치의식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한 각국의 추진전략 채택 촉구
    -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입법화 추진
    -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공공의식 도모 등

92-093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5차. 주해(중국), 1992.12.8.-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2 / 1-325

정부는 1992.12.8.~14. 중국 주하이에서 개최된 제2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에 성학중 기상청 예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태풍위원회 개요

- 설립: 태풍 관련 피해 감소를 모색하기 위해 ESCAP과 WMO가 1968년 공동 설립
- 활동 분야: 기상, 수문, 재해예방, 훈련, 연구
- 회원국(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2. 참가 목적

- 태풍 재해 경감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을 파악, 향후 한국의 효율적인 재해방지대책 수립
- 태풍 방재와 관련한 지역협력 적극 참여
- 동 회의에 최초 참가하는 북한 측 동향 파악

3. 북한의 ESCAP 태풍위원회 가입 문제

- ESCAP사무국은 1992.8.17.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북한의 ESCAP 태풍위원회 가입 신청에 대한 한국의 입장 문의
- 9.8. 외무부, 북한의 태풍위원회 가입 신청에 대한 아래의 기본 입장을 ESCAP사무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태국대사에게 지시
  - 4월 ESCAP에 가입한 북한의 태풍위원회 가입은 ESCAP을 통한 남·북한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의 없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63-169차. Bangkok. 전2권 (V.1 제163-166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3 / 1-302

제163~16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됨.

1. 제163차 회의(1992.5.8.)

● 각국 대표는 제48차 ESCAP 총회가 모든 면에서 주최국의 적극적 준비와 노력으로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회의였다고 평가함.

2. 제164차 회의(1992.6.9.)

● 유엔총회 결의 46/235(경제·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유엔개편 및 활성화)에 대한 ESCAP 반응
- 현재 일본만이 동 총회 결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동 의견에 대해 미국, 몽골 등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반응

3. 제165차 회의(1992.7.21. 및 7.27.)

● 유엔총회 결의 46/235(경제·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유엔개편 및 활성화)에 대한 ESCAP 반응
- ACPR이 비공식 작업단을 구성, 제48차 ESCAP 총회 시 작성된 동 결의에 대한 ESCAP 반응안 채택

4. 제166차 회의(1992.9.23.)

● Ahmed 사무총장은 제49차 ESCAP 총회 일정을 예년보다 1일 단축하여 1993.4.21.~29. 방콕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의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회의문서를 간소화할 경우, 1일 추가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함.

92-093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163-169차. Bangkok. 전2권 (V.2 제167-169차)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4 / 1-307

제167~16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가 방콕에서 개최됨.

1. 제167차 회의(1992.10.22.)

- 사무총장이 총회 기간의 1일 이상 단축 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으나, 한국 등 다수국 대표가 점진적 기간단축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차 총회는 종전보다 1일을 단축하여 1993.4.21.~28. 개최하기로 함.

2. 제168차 회의(1992.11.12.)

- 소니 무역국장은 세부의제 토의 개시 전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다카하시 사무차장은 현재 사무국 개편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동 개편은 유엔의 경제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병행 추진될 것이라고 함.

3. 제169차 회의(1992.12.11.)

- Ahmed 사무총장은 제1차 지역경협운영위원회 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생각한다며, 차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경협 행동계획이 확정되기를 희망함.
- 한국을 포함한 다수국가가 동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보다 행동지향적인 구체사안에 대해 집중 토의할 것을 희망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5차. Bangkok, 1992.7.16.-17.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5 / 1-180

정부는 1992.7.16.~17.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KECF (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 신장범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함.

1. 참가 목적

- 1991년 한·ESCAP 협력기금(40만 달러) 사용에 대한 ESCAP 제시 사업 계획안 검토 및 사업 선정
- 한·ESCAP 협력기금 제4차 연도 사업 집행결과 평가
- 한·ESCAP 협력기금 제6차 연도 사업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 협의

2. 정부 훈령

- 제1~4차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집행 여부 검토
- 제5차 사업은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 의지가 보다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KECF를 통한 역내 국가와의 실질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
- 각 사업별 토의 시 세부자료에 따른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92-093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제5차. Bangkok, 1992.7.16.-1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6 / 1-118

1992.7.16.~17.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 결과내용임.

1. 회의 개요

- 한국대표
  - 신장범 국제경제국 심의관 외 주태국대사관 에스캅 담당관 2명
- 목적: 제4차 KECF(30만 달러) 집행결과 검토 및 제5차 KECF(40만 달러) 소요 프로젝트 결정

2. 주요 결과

- 제5차 KECF 용도 결정
  - 가용재원 총 54만 3천 달러 중 제47차 서울 총회 시 채택된 서울 실천요강 후속사업(113,874달러) 등 8개 프로젝트에 약 34만 3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동북아지역 협력강화 관련, 특히 제48차 총회 시 외무부장관의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을 위해 사무국이 사업안을 조속 제출하기로 하고, 동 사업은 잔여 20만 달러에서 활용한다는 데 합의
- ESCAP에 교통 분야 공무원 1명 추가파견과 한국인의 사무국 정규직원 진출을 위한 사무국 측 협조 요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Bangkok, 1992.10.19.-1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7 / 1-41

정부는 1992.10.19.~11.2.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에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역외 선진국의 지역경협운영위원회 참가 문제
- 제1차 지역경협운영위원회 준비
- 제2차 지역경협위원회 회의

2. 회의 결과

- 역외선진국의 지역경협운영위원회 참가 문제
  - 역외선진국의 운영위원회 참가를 반대하는 중국, 파키스탄 등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동 참여를 희망하는 프랑스 등 역외선진국 간 격론이 전개되었는바,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역외국가 참가를 허용하되, 제2차 운영위원회 이후의 참가 문제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잠정합의함.
- 제1차 지역경협운영위원회 준비
  - 사무국 측은 제1차 운영위원회 주요 의제에 대한 회의문서를 다음주까지 배포하겠다고 설명함.
- 제2차 지역경협위원회 회의
  - 총회결의 48/2에 따라 1993.4월 제49차 ESCAP 총회 직전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함.

92-094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그룹회의, 제1차. New Delhi(인도), 1992.11.24.-2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8 / 1-203

정부는 1992.11.24.~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그룹회의에 조원일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 결과

- ESCAP 내 지역경협 강화를 위한 향후 행동강령 마련
  - 역내 무역·투자 분야 및 중소기업 진흥 분야 등에서 협력방향 설정
  - 역내 전환기 경제 국가지원에 있어 협력 필요성 강조

2. 평가 및 전망

- 한국대표단은 의장직 수행 및 한·ESCAP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부각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역내 지역협력에 있어 한국 측의 주도적 역할 고양
- 금번 회의 시 마련된 행동강령은 향후 ESCAP 지역경협위원회 및 총회에서 계속 논의, 발전되어 나갈 전망

3. 특기사항

- 북한대표단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술이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나진-선봉 자유경제지대 및 두만강 개발계획 소개
-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 한국 주도 아·태 투자정보센터 발족 지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그룹회의, 제1차. New Delhi(인도), 1992.11.24.-27. 전2권 (V.2 참고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9 / 1-177

1992.11.24.~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지역경제협력위원회 운영그룹회의 관련 자료임.

1. ESCAP/지역경협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국제경제국)
   - 회의 개요
   - 수석대표 일정
   - 훈령
   - 주요 의제별 입장
   - 인도 개황 등

2. ESCAP/지역경협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참고자료)(국제경제국)
   - ESCAP 개황
   - 아·태 투자정보센터(RIIPS) 설립 추진
   -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및 구조조정 지역포럼 추진
   - 환경정책과 통상증진과의 조화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현황 등

3. ESCAP Steering Group of the Committee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Draft Report)

4. ESCAP Steering Group of the Committee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List of Participants)

5. Inaugural Address by Prof. P. J. Kurien, Minister of State for Commerce, India

92-094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횡단철도 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10 / 1-85

1992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아시아횡단철도사업 추진 동향 관련임.

1. 배경

- 1960년대에 ESCAP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후 약 20년간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재정적인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함.
- 철도, 고속도로가 별개의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며, 각국 철도망 간 상이한 도량형 사용도 문제
- 1980년대 이후 아·태지역의 경제개발 및 관광 활기와 역대 정치상황 호전, 무역, 운송 분야의 기술진보 등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함.

2. 프로젝트 추진 현황

- 남방 및 북방 육로수송로 개발
- 소지역 단위 개발 장려
- 장·단기 개발계획 수립

3. 한국 참여 현황

- 한국은 제47차 ESCAP 서울 총회 시 ESCAP사무국에 대해 한국, 중국, 북한, 구소련, 몽골 등 동북아 5개국 철도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 제의
- 아시아 육로운송개발에 관한 고속도로 및 철도 관계 정부간 회의(1991.12.9.~13.) 시 한국 대표가 대륙횡단 철도의 경제적 필요성과 동 철도의 한반도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 대포는 남북한 간 철도연결은 남북고위급회담 등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ESCAP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

4. 제48차 ESCAP 총회 대책

- 냉전 체제의 붕괴와 남북대화 급진전 및 북한의 ESCAP 가입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동북아 5개국 철도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철도뿐만 아니라 북방도로망의 한반도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ESCAP 사무국 측이 철도산업과 함께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세미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11 / 1-166

1991~92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주최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인구 변동율 확정을 위한 다회 표본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미나(1991.5.20.~24., 방콕)

- 주관기관: ESCAP 통계부
- 목적: 인구변동신고가 불완전한 여건하에서 인구동태 통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다회 표본조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

2. 가족계획 프로그램 훈련생 추천 요청

- 기간: 1992.9월 중 2주간
- 초청자: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니 정부가 '가족계획에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
- 참가 자격: 가족계획사업에 최소 3년간 참여 경험이 있는 중견관리 의사, 간호사, 사회봉사요원 등
- 참가 비용: 인도네시아 정부 부담

3. 수출자유지역 세미나(1991.9.2.~6., 상하이)

- 초청자: ESCAP 사무국은 수출자유지역 세미나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
- 세미나 주관: ESCAP, 중국대외경제무역부 산하 아·태지역 국제무역연구 및 훈련센터
- 참가 자격: 해당 분야 담당 중견관리

92-094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GPRT(잡곡류연구개발센터) 관리이사회, 제8-10차. Bogor(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12 / 1-81

제8~10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GPRT(잡곡류연구개발센터) 관리이사회 회의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됨.

1. 제8차 회의(1990.1.15.~16.)

- 정부대표: 이은섭 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 대맥과장
- 참가 목적: 잡곡류 분야에 대한 각국의 농업 정보 및 자료를 파악, 수집하여 한국의 동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에 기여하도록 함.
- 관찰 및 평가
  - 회의준비, 진행이 무난하였으며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견은 없었음.
  - 현재는 극히 제한된 예산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함.

2. 제9차 회의(1991.1.14.~15.)

- 정부대표: 김강권 농촌진흥청 열대농업담당관
- 주요 의제
  - 1991년도 사업계획 채택
  - 센터 전략계획 검토

3. 제10차 회의(1992.1.13.~15.)

- 농촌진흥청 사정으로 대표 파견이 어려워 한국 불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메콩위원회 원조공여국 회의.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2.12.17.-1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13 / 1-19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메콩위원회 원조공여국 회의가 1992.12.17.~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4개 메콩강유역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18개 원조공여국
- 5개 국제기구

2. 한국대표단 활동

- 메콩위원회 지원사업 공표
  - 한국 정부가 1993~94년 베트남 Ya-soup 다목적사업에 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농업(관개)전문가 1명을 파견예정임을 공표

3. 메콩위원회 관련 사항

- 1993연도 사업원조공여계획
  - 공여 요청: 150만 달러(104개 사업)
  - 기공여 및 공여 약속: 7천 8백만 달러(금번 회의 시 7백만 달러 공여 약속)
- 매콩위원회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4. 조치계획

- 한국 정부와 메콩위원회 사무국 간 사업 참여 관련, 합의서 작성 추진

92-094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8 / 14 / 1-174

1992.2.8.~25.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주요 의제

- 건전하고 안정된 균형 있는 세계경제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발 재원, 국제무역, 기술이전 등 토의

2. 한국 측 참가계획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장관) 항공 일정
- 장관 기조연설: 1992.2.10. 오후 3번째로 등록됨.

3. 장관 별도일정

- 2.11. 주재 상사 및 교민대표 초청 만찬
- 2.12. 콜롬비아 외무장관 면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2 대표단 및 77그룹 입장 토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 / 1-181

1992.2.8.~25.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관련 대표단 및 77그룹 입장 토의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대표단

- 제8차 UNCTAD 총회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장관
  - 교체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장명하 주콜롬비아대사
  - 대표: 이종무 국제경제국장,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박성웅 경제기구과장, 이정기 주콜롬비아 참사관, 김창엽 주제네바참사관, 민동석 장관 비서관, 이충석 경제기구과 비서관, 권태면 주콜롬비아대사관 1등서기관, 재무부, 상공부 실무자 등
- EC(구주공동체) 의장단 외무장관과의 정무협의회
  - 이상옥 외무부장관 외 실무자 3명

2. 타국 대표단

- 영국: 상공성 국제무역담당차관
-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보
- 브라질: 외무장관
- 일본: 정무차관

3. UNCTAD 총회 대비 77그룹 입장 토의자료

- RBP, 기술이전 및 금융자원 분야에 관한 77그룹 대책회의 논의한 working paper
- 77그룹 해운소위원회에서 협의한 working paper
- 무역 및 서비스 분야 토의를 위한 77그룹 무역소위원회가 논의한 working paper

92-094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3 의제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2 / 1-251

정부는 1992.2.8.~25.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장명하 주콜롬비아 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07개 회원국, 34개 국제기구

1000

2. 주제 및 의제

- 건전하고 안정된 공평한 세계경제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조치와 다자간 협력 강화
- 개발 재원, 국제무역, 기술이전, 서비스, 1차 산품 및 UNCTAD 조직개편

3. 주요 결과

- 상기 실질 의제에 대한 합의문서 및 정치 선언문 채택
- UNCTAD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합의
- UNCTAD에 1차 산품 세계회의 개최 요청
- UNCED(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 대한 UNCTAD 역할 강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8차. Cartagena(콜롬비아), 1992.2.8.-25. 전4권 (V.4 연설문 및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3 / 1-129

1992.2.8.~25.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관련 자료임.

1. 연설문

- 한국 측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국문 요지(안)
- 제8차 UNCTAD 총회 수석대표 기조연설문(국문)
- 제8차 UNCTAD 총회 수석대표 기조연설문(영문)

2. 자료

-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주요 분야별 talking points
- 장관, 콜롬비아 외무장관 면담자료
- UNCTAD 사무총장 면담자료
- 콜롬비아 외무장관 및 내무장관 면담자료
- 올리베이라 포르투갈 통상관광장관 조찬 시 말씀자료

92-095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TFF(지역간무역금융기구) 설립 검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4 / 1-87

1991~92년 중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내 ITFF(지역간무역금융기구) 설립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최빈국들의 남남 교역에 있어서의 비전통적 산품수출을 위한 무역 금융지원
- UNCTAD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가 카라카스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검토
- 제8차 UNCTAD 총회에서 개도국들의 설립 타당성 검토 주장에 대해 선진국들은 소극적 입장
- 개도국들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되, 사무총장의 노력에 적극 협력 권고

2. UNCTAD 보고서 요지

- 금융지원 규모: 설립 5년 이내 매년 14억~79억 달러 지원
- 재원: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채권발행
- 금융지원 형태: 단기금융

3. 검토의견

-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채권 발행 방안은 실행상 많은 문제점 내포
- 최빈개도국에 대한 단기융자 시 원리금 회수에 큰 어려움 예상

4. 한국 입장

- 대개도국 경협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움.
- 동 기구의 설립 및 가입 여부는 주요 선진국들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8차. Geneva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5 / 1-127

제3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38차 UNCTAD TDB 1부 회의(1991.9.23.~10.4.)

- 대표단(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주요 의제
  - 무역, 개발금융, 국제통화제도의 상호의존
  - 개도국의 외채 및 개발 문제
  - 지속가능개발 분야에서 UNCTAD의 기여
  - 팔레스타인 국민들에 대한 지원 등
-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 한국의 유엔가입에 따라 개도국 문제에 보다 적극적 참여 예정
  - 한국이 남북문제 해결에 선진·개도국 간의 교량역할 천명

2. 제38차 UNCTAD TDB 2부 회의(1992.4.21.~5.1.)

- 대표단(수석대표): 김삼훈 주제네바대사
- 주요 의제
  - TDB 산하 4개 상임위원회 및 5개 특별 실무 작업반그룹의 Terms of Reference 협의
  - 차기 회의 주요 의제 선정
  - UNCTAD 1992~93 주요 회의 일정 검토
  - 기타 행정 문제

92-095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9차(1부). Geneva, 1992.9.28.-10.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6 / 1-313

정부는 1992.9.28.~10.1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1부 회의에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2개 회원국 및 17개 국제기구

2. 회의 결과

- 세계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협조 및 UR(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결말 촉구
- UNCTAD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4개 상임위원회 및 5개 특별실무위원회의 활동 강화에 합의
- 무역확대와 환경 문제의 긴밀한 관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UNCTAD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 확인

3. 평가

- UNCTAD 내 상기 9개 위원회의 활동 강화에 선진국도 동의함으로써 향후 UNCTAD의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
- 선진·개도국 간 협력에 있어 선진국은 개도국 자체의 책임 강조, 개도국은 선진국의 실질적 지원 강조로 나뉘어 기본적 입장의 차이 노정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산하 특별실무위원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7 / 1-300

1992년 중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산하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참가 검토 관련 내용임.

1. 배경

- 1992.2.8.~25. 개최된 제8차 UNCTAD 총회에서는 UNCTAD 조직개편 문제에 합의
  - 4개의 신규 상임위원회 및 5개 특별실무위원회 설치
  - 4개 신규 상임위원회에 이미 가입
- 한국이 특별실무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우, 회원국으로 가입할지 옵서버로 참가할지의 문제 발생

2. UNCTAD/TDB 산하 5개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 투자 및 자금 흐름 특별실무위원회: 1992.11.9.~13.
- 무역능률화 특별실무위원회: 1992.11.16.~20.
- 민영화 경험 비교 특별실무위원회: 1992.11.30.~12.4.
- 개도국 무역기회 확대 특별실무위원회: 1992.12.4.~18.
- 투자 및 기술이전 특별실무위원회: 미정

3. 조치사항

- 특별실무위원회에의 정회원 참가를 위한 내부결재 이후 주제네바대표부가 공식서한으로 UNCTAD 사무국에 통보
- 회의 참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인사가 참가하도록 해당 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긴밀한 협의 조치

92-095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1차. Geneva, 1992.11.23.-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8 / 1-21

정부는 1992.11.23.~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의 RBP 규제를 위한 원칙과 규칙(The Set) 이행 실적 설명
- RBP 사례연구 및 국제간 협력 증진방안 협의

2. 한국대표단 언급요지

-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경쟁정책 방향 설명
- 최근의 경제력 집중완화 관련 조치, 규제완화 조치, 담합행위 규제 조치 등 상황 설명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19차. Geneva, 1992.5.18.-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9 / 1-80

정부는 1992.5.18.~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에 김창엽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일정

- 1992.5.18.~19.(오전)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이행, 유지, 개선 및 활용에 대한 일반토의
- 1992.5.19.(오후) GSP 원산지증명에 대해 각국 대표의 입장 표명

2. 의장단 구성

- 의장: 독일 대표
- 부의장: 칠레, 모로코, 인도, 일본 대표

3. 주요 의제

- GSP 이행, 유지, 개선 및 활용
- GSP 원산지증명

4. 회의 결과

- 결의안 채택을 위한 선진·개도국 간 논쟁보다 GSP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각국이 공식·비공식 의견교환을 갖는 데 역점을 둠.
- 금번 회의를 활용, GSP 수혜국 및 공여국 간 양자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의장(독일)은 금번 회의가 향후 UNCTAD 회의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여타국 대표도 금번 회의를 계기로 GSP 운영이 개선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표명함.

92-095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PBC(기획예산위원회) 회의, 제7-8차. Vienna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0 / 1-109

정부는 1992.6.29.~7.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8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PBC(기획예산위원회) 회의에 조창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UNIDO 50개 회원국

2. 주요 의제

- UNIDO 재정 현황, 공업개발기금과 자발적 기여금, 1990~91년간 재정 집행 보고
- 제8차 PBC 보고서 채택, 제9차 PBC 회의 시기 결정

3. 주요 결과

- 회의 의장에 영국 대표, 부의장에 카타르, 폴란드, 나이지리아 대표가 선출
-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유고슬라비아의 회의 참석 자격에 유보를 표명, 이에 유고슬라비아 대표는 구유고연방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기구에서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발언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1 / 1-201

1992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선출 추진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임.

1. 경위

- 1992.8월 Siazon UNIDO 사무총장(필리핀)의 사표 제출로 사무총장대리 선출 혹은 후임 사무총장의 조기 선출 문제가 대두됨.
  - UNIDO 이사국(총 53개국)은 아시아(11), 아프리카(13), 라틴아메리카(9), 서구(15), 동구(5)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함.

2.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1992.11월)

- 라틴아메리카그룹은 사무총장직 수임에 적극적이며 아시아, 서구 및 동구그룹은 관망적인 태도임.
  -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3국은 사무총장 후임으로 자국 후보자를 추천하고 각국에 지지를 요청함.
- 아프리카그룹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거와 연계하여 라틴아메리카그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음.

3. 정부의 UNIDO 고위직 진출 검토

- 1992.9.29.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한국이 사무총장 혹은 사무차장직에 입후보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정부는 제10차 UNIDO 이사회(1992.11.2.~6.)에서 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검토해 나가기로 함.
  - 한국은 1991년 UNIDO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재선

92-095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9차. Vienna, 1992.5.18.-2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2 / 1-267

정부는 1992.5.18.~22.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9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등 52개 UNIDO 이사국, 33개 옵서버국, 19개 국제기구 대표

2. 주요 의제

- 개도국간 경제협력, 기술개발 및 이전, 산업투자 촉진, UNIDO 사무차장 임명

3. 정부 훈령

- 주요 의제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개진으로 UNIDO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UNIDO 활동방향을 제시할 것
- UNIDO를 통한 한국의 대개도국 공업협력 의지를 표명할 것

4. 주요 결과

- 3명의 사무차장 선출(러시아, 독일, 멕시코) 및 제5차 UNIDO 총회를 1993.12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하기로 함.
- UNIDO 기술협력 활동의 효율성 제고, 선진·개도국 간 기술협력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채택함.
- UNIDO 재정 상황(1992.4.30. 현재 각국의 체납 분담금 누적액이 98.9백만 달러로 1992년도 UNIDO 예산 총액을 능가)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함.

5. 한국대표단 활동

- 아주그룹 의장국으로서 그룹 입장 정립 및 반영에 기여하여 UNIDO 내 한국의 지위를 고양시킴.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10차. Vienna, 1992.11.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3 / 1-248

정부는 1992.11.2.~6.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0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등 52개 UNIDO 이사국, 40개 옵서버국, 22개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UNIDO 사무총장 후임 선출 및 조직개편, PBC(기획예산위원회) 보고서, 외채와 산업개발 등

3. 정부 훈령

-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UNIDO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UNIDO 사무총장 선출 및 조직개편에 관한 각 지역의 그룹별 입장을 파악할 것

4. 주요 결과

- UNIDO 사무총장 후임자를 조기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신임 사무총장 선출 이후 UNIDO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 누증 등 재정 문제 해결방안,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 대한 정책수립 권고,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정책 분야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함.
- 제5차 UNIDO 총회를 1993.12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하기로 함.

5. 평가 및 건의

- 금번 이사회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인 사무총장 선출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하여 구체적 일정이 확정됨.
- 지역그룹별 안배에 따라 사무차장직은 아세안그룹에 할당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한국인 사무차장 후보 물색을 건의함.

92-0960

Obminski, E. E.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IPCT(공업진흥,자문,기술부) 담당 사무차장 방한, 1992.12.10.-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4 / 1-37

Obminski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CT(공업진흥·자문·기술부) 담당 사무차장이 1992.12.10.~12. 방한함.

1. 주요 일정

- 12.11.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한국수출입은행, (주)금성사 방문
  - 과학기술처차관, 경제기획원차관, 상공부차관보 예방
- 12.12.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예방,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주한 러시아대사 예방

2.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시 Obminski 사무차장의 주요 언급내용

- UNIDO의 주요 재원은 UNDP(유엔개발계획) 자금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자금 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해 UNDP 자금이 예년의 3분의 1정도만 지원되었는바, 부족한 재원을 고려할 때 UNIDO는 전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기구가 되어야 함.
- 개도국에 대한 투자진흥을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를 엄선하여 잠재적 투자가들에게 홍보해야 하는바, 금번 네팔 투자포럼에서 6억 달러 정도의 프로젝트가 선정, 이중 10%만 이행되어도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함.
- 파리 IPS(투자진흥사무소)는 각국 IPS 중 가장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현재 서울 IPS는 투자진흥활동 외 타 IPS에서 시행하지 않는 기술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대북한 사업.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69 / 15 / 1-216

1992.1~4월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대북한 사업 관련 내용임.

1. UNIDO 조사단 북한 방문(1992.2.1.~11.)

- 방문단
  - Mile Janjic UNIDO 사업개발국 산업협력과장 외 1명
- 방북 목적
  - 북한의 공업 및 기간산업 개발 관련, 외국기업과의 산업협력(남북한 기업 간 협력 포함) 가능성 탐색 및 지원
  - UNIDO 자체 방문단이나 투자사절단 등 파견에 앞서 북한의 산업 현황 사전조사
- UNIDO 측 협조 요청사항
  - 한국업체의 북한 개발사업 참여 가능성 및 관심도 타진을 위해 방북 전 베이징 주재 한국상사 대표(력키금성, 현대 등 6~7개 회사)와 접촉 희망(주북경대표부 주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동 조사단의 북한 관련 인사 면담내용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 UNIDO를 통한 남북한 경제교류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
- UNIDO·북한 간 협력사업 현황
  - 추진 중인 사업: 13개 사업, 약 700만 달러, 도량형학연구소, 변압기 생산 현대화, 초산 제조 처리과정 지원 등
  - 향후 추진예정 사업: 11개 분야 83개 사업, 15억 5천만 달러, 광업, 식품 및 농공업, 섬유 및 의류, 목재가공 등

2. 이철 주제네바 북한대사와 UNIDO 공업협력 및 기금운용 부장 간 면담내용(1992.1.29.)

- 이철 대사 언급 요지
  - 북한은 UNIDO를 통해 한국 정부의 통일기금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함.
  - 한국 정부가 통일기금 사용을 승인할 경우 아래 4개 우선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전력발전 설비시설, 신발구두공장, 주사기 및 주사바늘 제작공장, 승강기 제작공장
- UNIDO 측 입장
  - 한국 측이 자금을 UNIDO에 기탁할 경우 조사단 파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함.

92-0962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대북한 사업.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1 / 1-119

1992.5~12월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대북한 사업 관련 내용임.

1. UNIDO를 통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1992.5.15.)

- 참석자
  - 경제기획원 제1협력관(주재)
  - 경제기획원,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관계자
- 주요 의제
  - 1992.4월 UNIDO 측에서 한국의 신탁기금으로 북한 경제조사단 파견을 제의한 데 따른 대책 검토
- 기본 방향
  - 남북 간 직접 경협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에 한국 전문가가 북한 경제 실상을 사전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이전에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역적으로 UNDP(유엔개발계획) 두만강 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북한경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함.
- 조사단 구성
  - UNIDO 관계자, 정부 및 연구소 대표 등으로 조사단 구성, KDI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함.
- 재원
  - 외무부에서 기조성한 UNIDO 신탁기금 15만 달러 활용
- 교섭 창구
  - 경제기획원에서 구체안을 마련하되 외무부를 통해 UNIDO 측과 교섭 추진
- 조치계획(외무부)
  - 부내 관련 실국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상기 내용을 우선 통보하고 구체안이 마련되면 협의 추진

2. UNIDO 활용 대북경협사업 검토 조사단 구성(안)

- 조사 대상: 북한경제의 전반적 상황, 북한산업의 현황 및 개발 가능성, 외국인 투자 환경
- 조사 방법: 방북 전 가능한 한 모든 정보 및 자료수집, 북한 당국자와의 인터뷰 및 자료 요청, 현장 방문
- 조사단 구성(20명)
  - 정부관리(6명), KDI 연구원(4명), 여타 연구소 연구원(4명)
  - 공공경제기관 대표(3명):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 UNIDO 직원(3명)

92-0963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전2권 (V.1 1989-90.7월)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2 / 1-195

정부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신탁기금 설립 및 운영 관련 내용임.

1. 정부는 한·개도국 간 공업협력 촉진을 위해 30만 달러의 UNIDO 신탁기금을 설립함.

- 1988.11월 UNIDO 사무총장은 방한 시 신탁기금 설립을 제의
- 1989.12월 정부는 대외무상원조자금으로 30만 달러를 UNIDO에 기탁
- 1989.12.1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UNIDO 사무총장과 신탁기금 설치 교환각서 체결
- 1990.6월 주오스트리아대사는 UNIDO 사무총장과 신탁기금의 사업 목적, 기금사용 내역 등에 대한 대강을 규정한 기본사업협정을 체결

2. 신탁기금 운용계획

- 한국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대개도국 기술공여사업
- 러시아(구 소련), 중국 등 북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대개도국 원조사업(기술전문가 파견 등)

92-096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전2권 (V.2 1990.9월-92)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3 / 1-183

1990.9월~92년 중 정부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신탁기금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1989.12월 정부는 30만 달러의 UNIDO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UNIDO와 협의를 통해 1991년 신탁기금사업 선정을 추진함.
   - 외무부는 정부 관계부처에 사업안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1990.5월 24개 사업안을 접수함.
   - 6월 주오스트리아대사는 UNIDO 사무총장과 신탁기금의 사업 목적, 기금사용 내역 등에 대한 대강을 규정한 기본사업협정을 체결함.

2. 1990.11월 정부는 최종사업안 4개를 선정하여 UNIDO 측에 통보하였으며 1991.4월 UNIDO 측은 7개 사업안(한국 측 제시한 2개안 포함)을 제시함.
   - 총 소요예산: 376,338달러
   - 7개 사업
     - 이집트 전자사업의 부분별 조사연구, 가나 알루미늄 산업 확장에 대한 투자 연구
     - 코스타리카 한국공업단지 설치를 위한 투자 연구, 한·동구권 산업협력 증진에 관한 워크숍 개최
     - 우간다 철강회사 확장 투자에 대한 연구, 나이지리아 전기분해 아연공장 설립 타당성 연구
     - 중국 합성섬유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조사

3. 1991.5월 정부는 상기 7개 사업 중 '한·동구권 산업협력 증진에 관한 워크숍 개최'(13만 달러)는 소요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6개 사업안에 동의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대Vladivostok 자유경제지역(GVFEZ) 설립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4 / 1-266

1991~92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가 작성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지역 설립에 대한 보고서임.

1. 경위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지역 설립 사업은 UNIDO와 일본 간 신탁기금사업으로, UNIDO와 일본 엔지니어링 자문기업협회(ECFA)가 공동으로 1991.5.25.~6.15. 현지 조사 후 1991.9월 보고서를 완성함.
- 1991.10.23.~30. 상기 보고서 설명회가 UNIDO 본부에서 개최됨.

2. 주요 내용

- 명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자유경제지역(GVFEZ)
- 대상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반경 150km
- 개발 기간: 1991~2010년간 20년 동안 3단계 개발
- 소요자금: 150~200억 달러

92-096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산하 연구소 가입 검토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5 / 1-220

1990~92년 중 정부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산하 ICGEB(국제유전생명공학센터) 가입 및 ICMET(국제소재특성평가기술센터)의 한국 내 설립에 대한 검토 내용임.

1. 정부의 ICGEB 가입 검토

- 1991.7월 Venkataraman UNIDO 공업기술개발과장은 방한 시 한국의 ICGEB 참여를 요청함.
  - 1983년 개도국의 유전생명공학 분야 기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UNIDO 주관 스페인 마드리드 각료급회의에서 ICGEB 설립협정이 채택, 1993.1.1.부터 발효 예정임(1992.3월 현재 45개국이 서명).
- 8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유전공학연구소 및 농진청 농업유전공학연구소 직원이 ICGEB 센터 방문
- 1992.2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공한으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 6월 정부는 한국의 참여 시 예상되는 부담액(연간 최고 76만 달러에서 최저 20만 달러)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함.

2. ICMET의 한국 내 설립 검토

- 1991.3월 UNIDO 측은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최한 신소재 평가에 관한 아시아지역 UNIDO 워크숍에서 ICMET 설립안을 제시함.
- 6월 Venkataraman 과장은 방한 시 전문가 조사 결과, ICMET 설립 타당성이 인정되면 한국에 ICMET를 설립하기로 KRISS와 합의함.
- 1992.5.25. Venkataraman 과장은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시 ICMET의 한국 내 설립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 6.23. 과학기술처는 1995년 ICMET 설립 이후 한국 정부의 연간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CMET의 한국 내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장 교체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6 / 1-115

1991~92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서울 IPS(투자진흥서비스) 소장 임명에 관한 내용임.

1. 배경

- 1991.1월부터 UNIDO 서울 IPS 내부 문제로 인한 소장직 공석으로, IPS 설립협정의 만료(1992.7.15.) 이전에 후임 소장 임명 문제가 대두됨.
  - 1987.1.15. 정부는 선진국의 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IPS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IPS 소장(임기 1년)은 과학기술처 추천에 의해 UNIDO 사무총장이 임명함.

2. IPS 소장 임명 경위

- 1991.1.18. UNIDO 사무총장은 과학기술처에 IPS 소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
- 1991.4.29. 과학기술처는 2명의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UNIDO 측은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고 경험이 풍부한 젊은 인사 추천을 요망함.
- 1992.2.14. 과학기술처는 배정란 삼덕엔지니어링 회장을 소장으로 추천함.
- 1992.7.2 정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잠정 협정 체결과 동시에 배정란이 IPS 사무소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UNIDO 측에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7.16. UNIDO는 동인을 잠정 연장기간 중 소장으로 임명함.

92-096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 활동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2-70 / 7 / 1-164

1992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서울 IPS(투자진흥서비스) 활동 평가 및 실적에 관한 내용임.

1. 활동 평가

- 근거
  - UNIDO 서울 IPS 설립협정(1987.1.15.)은 동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와 UNIDO가 IPS 활동을 공동 평가하도록 규정
- 평가단 구성
  - 한국: 홍성빈 과학기술처 기술협력 2과장
  - UNIDO: 조영린(Head of Global Issue and Policy Analysis Branch)
- 평가기간: 1991.12.9.~18.
- 평가 내용
  - 다른 투자진흥사무소와 비교 시 서울 IPS의 업무수행 능력은 탁월하며, 1992.7.15.자로 종료하는 서울 IPS 설립협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향을 지지함.
  - 장래 활동을 위해 현재 IPS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시정되어야 함.

2. 사업 실적

- 투자계약 체결(7건, 508만 달러)
-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중국, 동구 등 11개국)
- 투자환경조사단 파견(베트남, 중국, 폴란드 등)
- 개도국으로부터 투자전문가 유치(폴란드, 케냐, 스리랑카, 베트남 등)
- 기술협력을 위한 UNIDO 특별신탁기금 활용사업
  - 한·중국 기업 간 산업협력진흥(46만 달러)
- 해외투자정보 입수 및 국내 배포
  - 북한개발사업계획서, 베트남 투자환경정보 등

UNDP(유엔개발계획) 제5차 국가계획 (Country Programme)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0 / 8 / 1-347

1990~92년 중 UNDP(유엔개발계획) 제5차 국가계획 관련 내용임.

1. UNDP 제5차 주기(1993~96년) 계획 기간 사업규모 조정

- 한국은 UNDP로부터 순공여국(1인당 GNP 3천 달러 이상 6천 달러 이하)으로 분류
  - UNDP가 배정한 IPF에 상응하는 자발적 기여금 제공 의무
  - UNDP 사무소 유지 경비 부담
- UNDP 제5차 주기 계획(제4차 주기 1년 연장으로 1993~96년 4년간으로 조정)
  - UNDP 제5차 주기 계획규모(안): 총 1,510만 달러
    (UNDP 지원 510만 달러, 한국 정부 지원 1천만 달러)
  - 5대 중점사업(총 규모의 75%): 환경관리, 산업 재조정, 농업 현대화, 사회개발, 개도국 간 기술협력
  - 향후 한국 정부의 관심사항 포함 검토
- 1992년 중 사업계획 작성 후 1993.2월 UNDP 집행이사회에서 심의, 승인 예정

2. 주한 UNDP 사무소 운영 문제

- 한국 정부는 예산증액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원 감축과 사무실 면적 축소 등 추진

3. 자발적 기여금 증액 문제

- 1992년 자발적 기여금으로 108만 달러 공여 예정

92-0970

한국의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1993-95 임기) 피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0 / 9 / 1-82

1.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 입후보

- 1992.1.29. 한국 정부, UNDP 집행이사국 입후보 결정을 아시아그룹 의장국에 통보
- 입후보 목적
  - 유엔에서의 지위향상 및 유엔경제활동 참여 기반 확대
  - 두만강유역 개발 등 UNDP 지원 동북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 1993~95년 임기 UNDP 집행이사국 선출 절차
  - 집행이사회는 3년 임기의 48개국으로 구성,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 회의에서 매년 16개국 선출
  - 아시아지역에서 3개국(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개선 예정

2. UNDP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및 선출

- 1992.2.18. 재외공관에 한국의 UNDP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지시
- 1992.3.27. 아주그룹은 배정 3석에 한국, 인도, 이란 3국 추천
  - 당초 필리핀을 포함 4국이 입후보하였으나, 필리핀이 입후보 철회
- 1992.4.29. ECOSOC 회의에서 한국은 1993~95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에 피선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9차. Geneva, 1992.5.4.-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0 / 10 / 1-243

정부는 1992.5.4.~2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9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2. 참가 목적

- 유엔의 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주요 기관인 UNDP 활동에 참여하여 유엔과의 협력 강화
- 한국 제4차 주기 국가계획의 1년 연장 등 한국 관련 주요 사안 토의 시 정부입장 표명

3. 주요 의제

- 1991년도 행정처장 연례보고서, UNFPA(유엔인구기금) 및 UNV(유엔봉사단) 계획
- 특별지원 계획, 유엔 기술협력 활동 등

4. 주요 결과

- UNFPA 및 유니세프가 개도국의 개발목표 추진에 기여함을 평가함.
- 유엔개발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엔의 개발 및 인도적 활동을 관장하는 고위급 이사회를 설치하고, 각국에 파견된 유엔기구를 통합하여 단일의 유엔 Country Office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됨.
- 국가사업에 대한 보고서, 예산집행위원회 작성 보고서 등이 채택됨.
- 한국 제4차 주기 국가계획의 1년 연장에 합의함.
- UNDP 본부 이전 문제, 인간개발보고서 중 인적개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92-0972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1차. Vladivostok(소련), 1991.10.28.-31.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0 / 11 / 1-220

정부는 1991.10.28.~31. 러시아(구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제1차 실무회의에 정내권 외무부 과학환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북서태평양 보전계획의 기본방향 및 협력사업 선정에 한국 측 입장 반영
- 한국 영해 오염방지 및 자원보전 도모

2. NOWPAP 회의 관련 한국 측 검토사항

- NOWPAP 논의사항에 대한 한국 입장 정립
  - NOWPAP 관할수역 범위 설정
  - 북서태평양지역 해양 실태파악 공동조사
  -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 해양오염사고 시 대응 협력
  - 특수보전지역 설치
  - 해양생물자원 보전
- NOWPAP 향후 활동계획에 관한 한국 입장 정립

3. 합의사항

- 1992.3월까지 각국의 해양오염 현황과 대처방안 및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은 National Report 작성
- 사업시행 대상 해역은 동해와 황해로 하며, 차기 회의는 1992.9월 또는 10월 중국 베이징 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0 / 12 / 1-201

정부는 1991.5.20.~31.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6차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에 김형철 환경처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신흥공업국으로서 오존층 보호, 유해폐기물 교역 규제 등 국제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할 의향임을 국제사회에 알림.
-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특히 각종 국제환경 협약 제정 시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특수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UNEP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UNEP 측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각국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표명

2. 의제별 훈령

- 사무총장 보고서
  - 현재 58개국으로 제한되어 있는 집행이사국 숫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환경상태 보고서
  - UNEP 사무국이 준비한 환경상태 보고서가 개도국의 환경상태(빈곤, 저개발, 환경파괴 악순환)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작성되어야 함을 지적
- 조정 문제
  - UNEP의 조정 및 촉매역할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수행 시 환경 측면을 보다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프로그램 및 재정 문제
  - 기존 개발된 정책지침 외에도 각 분야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침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92-0974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법 정부 전문가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0 / 13 / 1-131

1991~92년 중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법 정부 전문가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환경법 정부 전문가회의(1991.10.30.~11.2., 리우데자네이루)

- 회의 목적
  - 몬테비데오계획의 이행 상황 검토
  - 국제환경법 체계의 개발을 위한 지구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포함한 실천계획 수립
- 회의 주관: UNEP 사무국
- 기타: 동 회의 결과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보고될 예정
- 평가
  - 동 회의는 기존 각종 국제환경법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환경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가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

2. UNEP 환경협약 개발 및 검토를 위한 정부 실무 전문가회의(1992.9.7.~11., 나이로비)

- 대표단(수석대표)
  - 라원찬 주케냐대사
- 회의 목적
  - UNCED 이후 환경협약 제정 기본원칙 설정
  - 기존 지구환경법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개도국 기술이전, 재정지원방식 규정
  - 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
- 배경
  - 1981년 UNEP 환경협약 평가 몬테비데오 결의 채택
  - 1991년 몬테비데오 결의 평가회의 개최
- 정부 훈령
  - 환경협약 기본원칙에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UNEP 사무국과 동북아 환경회의 협력방안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후속대책 협의

92-0975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2.10.26.-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1 / 1 / 1-266

정부는 1992.10.26.~30. 베이징에서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제2차 실무회의에 정래권 외무부 과학환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동북아시아지역의 해양보전을 위한 지역협력협정 체결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체제 설치 논의

2. 파견 목적

- NOWPAP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추진 분야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
- 황해 및 동해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기반 조성

3. 참가국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 북한 측 참가자: 이상락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총국 부국장 외 2명

4. 정부 훈령

- NOWPAP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국가의 입장 파악
- NOWPAP 토의가 UNEP의 기본사업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 연안 및 해양 오염방지 사업은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검토하고 재정소요가 큰 사업은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

92-0976

UNEP(유엔환경계획)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2.10.26.-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1 / 2 / 1-233

1992.10.26.~30.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자료임.

1. 회의 주요 결과

-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및 북한이 참석하여 황해와 동해 오염방지대책 협의
- 사업계획
  - 제3차 회의(1993.7월, 방콕) 시 초안 작성
  - 1993년 말에 소집할 공식 정부대표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
- 황해오염 공동조사: 한국의 제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반대 입장 표명
- 사무국: 당분간 UNEP가 역할 수행
- 소요 자금: UNEP 사업예산으로 지원

2. 각국 입장

- 중국 및 북한
  - 구체적 오염조사 등에는 소극적
  - UNDP(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 등의 자금 지원에 관심
- 일본
  - 북방도서, 대북한 수교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소극적 입장
-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 해양조사선 활용 가능성에 큰 관심

3. 향후 대책

- 황해와 동해 오염의 가장 큰 피해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주도적 입장 견지 필요
- 동북아 해양협력의 주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하에 해양오염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회의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2-71 / 3 / 1-171

1988~92년 중 개최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회의 관련 내용임.

1. 1988년도

- 제1차 비공식회의(1.19.)
  - 인도차이나 난민 국제회의 개최 문제, 중미 난민 국제회의 개최 문제, 나미비아 난민 문제, 소말리아 및 수단 난민 문제, 아프간 난민 문제, 유럽 난민지원사업 현황 등 토의

2. 1989년도

- 제2차 비공식회의(6.26.~27.)
  - 제1차 비공식회의 이후 각 지역별 난민 현황 및 UNHCR의 주요 활동, UNHCR 직원 감축 문제, 1989년도 사업추진 실적, UNHCR 재정 현황 등 토의

3. 1990년도

- 특별회의(5.28.~30.)
  - UNHCR 조직 강화방안, 1990년 하반기 사업 및 기금조성 문제, 1990년 지역별 난민 현황 등 토의
- 제41차 집행위원회(10.1.~5.)
  -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1990년도 사업평가 및 1991년도 사업과 예산 토의

4. 1991년도

- 1.14. 인도차이나 난민 운영위원회 제3차 비공식회의
- 4.30.~5.1. 인도차이나 난민 운영위원회 제4차 비공식회의
- 9.12.~13. 인도차이나 난민회의
- 10.7.~11. 제42차 집행위원회

5. 1992년도

- 제43차 집행위원회(10.5.~9.)
  - UNHCR 사업예산 검토, 제44차 회의 잠정의제 채택, 금차 회의 보고서 채택 등

92-0978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New York, 1990.9.29.-30. 전3권 (V.1 기본문서 I)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4 / 1-217

1990.9.29.~30.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참가 관련 내용임.

1. 아동 문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참석초청장 접수(1990.2월)

-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1990.2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1990.9.29.~30.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아동 문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 송부
- 회의 개최 경위 및 배경
  - 1989년 초부터 그란트 유니세프 사무처장이 아동 문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개최 구상 제안
  - 1989.4월 유니세프 집행이사회 정기회의 시 대다수 국가가 회의 개최를 지지(남북한 지지 입장 표명)
  - 1989.6월 이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장소, 일자, 소요경비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1990.2.8. 개최계획을 확정
  - 회의 시 1990년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선언 채택 전망
- 한국의 대처 방향
  - 타국 국가원수의 동 회의 참석 동향 파악
  - 회의 개최 소요경비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필요성 검토
  - 금후 정상외교 일정 등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도 건의

2.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초청장에 대한 대통령 명의 회신 송부(1990.7.20.)

- 국내 일정상 대통령의 회의 참석 불가
- 단, 대리인 참석 허용 시 대리인의 회의 참석 희망
- 회의 경비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사 재확인
  - 회의 경비 출연과 관련 5만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으로 통보

3.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국무총리 참석 문제 검토(1990.8.9.)

- 정상회의 사무국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 참석이 불가능할 시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면 타 정상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한국이 유니세프 이사국(1988~91년)임을 감안, 국무총리의 정상회의 참석을 추진하도록 건의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New York, 1990.9.29.-30. 전3권 (V.2 기본문서 II)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5 / 1-166

1990.9.29.~30.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참가 관련 내용임.

1.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현홍주 주유엔대사를 대통령대리인으로 파견 결정(1990.9.18.)

- 고위급 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 고문: 현홍주 주유엔대사
- 한국은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아동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동 정상회의에 즈음한 축전 발송
  -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개최 축하
  - 동 정상회의가 아동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계기 확신
  -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한국의 의지 재확인

2.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국별보고서 송부

-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주최 측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각국 국가원수 명의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이와 관련 외무부는 아동보호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내용을 정리, 아래 요지의 보고서 송부
  - 한국은 오래전부터 아동을 위한 강력한 후원자였으며 식민지 치하의 1920년대에 이미 어린이날을 제정, 현재까지도 매년 기념하고 있음.
  - 아동우선원칙에 대한 한국의 결의는 1957년 공포된 어린이 헌장에 잘 요약되어 있는바, 동 헌장은 아동이 모든 면에서 관심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독립된 인격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조기 실현은 한국 특유의 역사적 고난과 역경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
  - 한국은 유니세프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여 왔으며 필요시 계속해서 유니세프 등 관련 기구와 협조하고 안내받을 것임.
  - 1990년대의 국제환경 속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세계를 남겨주기 위해 단합할 것으로 믿고 있음.

92-0980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New York, 1990.9.29.-30. 전3권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6 / 1-234

1990.9.29.~30.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결과 내용임.

1. 참석자

- 국가원수, 정부수반 참석: 캐나다, 이집트, 말리, 멕시코, 파키스탄, 스웨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71개국)
- 각료급 대표 참석: 한국, 러시아(구 소련) 등(80여 개국)

2.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

-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을 위한 각국의 협력 증진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 강화

3. 행동계획 내용

-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밝힌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

4. 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

- 회의 경비 기여금 납부: 정상회의 개최 경비(총 350만 달러)에 5만 달러의 기여금 납부
-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회의 참석: 아동권리협약 서명, 정상회의 시 채택한 선언문에 가서명
- 한국의 아동 현황 보고서 제출: 정상회의 개최 전 한국의 아동 현황 보고서 제출

5. 후속조치

- 아동권리협약 비준
- 정상회의 선언문 대통령 서명
- 국별 행동계획 작성
- 세계아동정상회의 관련 국가실천계획보고서 제출
  - 한국 정부는 세계아동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 제34항 (i)에 의거하여 외무부, 보건사회부 등 7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작성한 한국의 실천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1992.3.9. 유니세프사무국에 제출함.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7 / 1-148

1992년 중 유니세프 활동과 한국의 참여 관련 내용임.

1.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유니세프 사무총장 앞 서한 송부(1992.1.28.자)

- 유니세프 사무총장의 1991.12.28.자 서한에 대한 회신
  -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주한 유니세프 사무소의 1993.12.31. 폐쇄 내용

2. 유니세프 구호금 전달

- 1992.2.18. 노창희 주유엔대사는 경희대에서 전달을 의뢰한 유니세프 구호금(73,154.66달러)을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함.
  -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 아동 및 아프리카 난민 아동 구호 목적

3.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행사 개최

- 1992.5.1. 외무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제1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대회장: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 신라호텔에서 개최됨.
- 행사 의의
  - 아동 문제 정상회의(1990.9월, 뉴욕) 채택 세계선언과 10개년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내인식 확산
  - 순수 민간단체 주도로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활동 추진체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국협의회 결성
- 특기사항
  - 대통령 부인의 격려사 전달(격려금 포함)
  - 주한 스웨덴대사, 이집트총영사, 멕시코대사대리(아동정상회의 발의국),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 등 참석

92-0982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92.6.15.-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8 / 1-247

정부는 1992.6.15.~26. 뉴욕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집행이사회에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정덕조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니세프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 평가에 관한 토의에 참여
- 기조연설 참여(6.15.~16. 예정)
- 1993년 유니세프 주한 사무소의 폐쇄와 국가위원회 설립 문제 관련 주요국 국가위원회 활동 파악

2. 회의 결과

- 금번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무국과 집행위원국 간 및 집행위원국 상호 간 특별한 의견대립은 제기되지 않았음.
- 신기복 차석대사는 1992.6.15. 오후 기조연설을 행함.
- 계획위원회에서 의제 5(D) 아시아지역 국별계획에 동의하고, 한국에 대한 40만 달러 추가예산 배정 권고안을 승인함.
- 계획위원회 의제7 토의 시 한국 대표는 유니세프 사업 성공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그 실천기반으로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지로 발언하였으며, 의제13 토의 시 모유먹이기 운동을 지지하고 AIDS 퇴치를 위한 WHO(세계보건기구)와의 효율적 분업 필요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함.
- 동 회의는 유니세프 사업, 행정, 예산 전반에 걸친 결의안 22개를 채택함.

UNICEF(유엔아동기금)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동아시아지역 자문회의, 제2차. 북경, 1992.8.4.-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9 / 1-225

정부는 1992.8.4.~8.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동아시아지역 자문회의에 정달호 외무부 국제연합2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동아시아지역 내 아동권리협약 당사자(14개국) 정부 및 민간 대표
- 협약당사국 주재 유니세프 대표 및 지역사무소 대표
- 아동권리위원회 위원(10명)

2. 회의 목적

- 아동권리협약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토의
- 협약 이행 등 협약 비준 후속조치
- 협약과 아동정상회의 관련 국가별 행동계획과의 관계
- 협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

3. 회의 결과

- 필리핀 대표의 발의에 의해 금번 토의에서의 합의 내용을 베이징 컨센서스로 채택 정리하기로 함.
- 베이징 컨센서스 요지
  - 13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증진을 위해 제2차 지역자문회의 개최
  - 국제사회, 정부, 국민에게 15개 사항 권고
  - 동 합의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아동을 위한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
- 한국대표단 활동
  - 8.4. 본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
  - 8.5. 주제별 그룹 토의 시 제5주제인 아동권리의 국제적 문제 및 아동 참여의 장으로 회의 진행
  - 8.6. 본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아동 문제를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의 관심사항으로 재부각시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 회의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각국 의회 및 아동들의 참여활동 촉진방안 검토를 제의

92-0984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일반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10 / 1-161

1992년 중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활동과 한국 정부의 참여 관련 내용임.

1. UNFPA가 발표한 1992년도 세계인구 현황 요지

- 보고서의 목적
  -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절대빈곤 제거, 경제성장 지속 및 환경악화 방지
- 인구증가 규모(현 증가 추세 계속 시)
  - 현재 54억 8천 -〉 2,000년 60억 -〉 2,050년 115억(1일당 25만 증가, 1년당 1억 증가)
- 결론
  -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구증가 억제로 가능
  - 인구증가 억제는 교육과 보건의 향상 및 여성 지위 향상을 통해 가능
- 세계인구회의: 1994년 카이로 개최 예정
  - 주제: 인구, 지속적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 1992.8월 세계인구회의 아태지역 각료급 준비회의(발리)

2. 제4차 아태 인구회의(1992.8.19.~27., 발리)

- 경위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과 UNFPA(유엔인구기금) 공동주관으로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민태형 통계청장
- 회의 의의
  - 아태지역 국가 간 인구 문제에 관한 입장과 정책내용을 소개한 한편, 상호경험을 교환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 권고
  - 1994년도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중요 투입요소로 된다는 지역 준비회의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 회의 결과
  - 인구 및 지속적 발전에 관한 발리 선언문 채택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1 / 11 / 1-61

1990~92년 중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관련 내용임.

- 1990.11.16. 유엔총회 의장, UNRWA 기여금 서약회의 개최
  - 한국: 1만 달러 서약
  - 동 회의에 38개국이 참석하여, 1억 8천 7백만 달러 서약

92-0986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8차. Nairobi(케냐), 1992.6.23.-26.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1 / 12 / 1-91

정부는 1992.6.23.~26.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8차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에 김태수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8개 회원국, 14개 옵서버국

2. 정부 훈령

- 한국은 국민 주식인 쌀에 대해 관세화 조치에 의한 개방이 어려운 실정을 이해시킬 것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진행 상황 및 곡물 수출국의 동향 등을 수집할 것

3. 주요 의제

- 1992년 세계 기아 현황, 동구권 및 소련의 변화와 개도국 식량안보
- 새로운 녹색혁명, 내란으로 인한 난민의 식량대책, 기아 추방을 위한 WFC 기능 강화

4. 주요 결과

- 참석자들은 상기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아래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함.
  - WFC와 FAO(식량농업기구),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등과의 협조관계가 강화되어야 함.
  - 아프리카지역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에 새로운 녹색혁명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기술원조 및 전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WFP(세계식량계획)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생산연도 1984-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1 / 13 / 1-192

1984~92년 중 WFP(세계식량계획) 기여금 서약 관련 내용임.

1. 경위

- WFP는 정규사업 및 IEFR(국제긴급식량비축)을 위해 유엔 회원국 등 세계 각국에 기여금 서약을 요청함.

2. 정부의 기여금 서약

- 정부는 1966년부터 그간 약 1억 달러의 WFP 원조 혜택을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하여 1979년도 이후 매년 5만 달러를 기여해 오고 있으며,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책임의 이행차원에서 1989~92년간 매년 6만 달러를 서약함.
  - 1966~88년간 한국 기여금 총 누계액: 561,000달러

92-098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1 / 1-202

정부는 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김영섭 주몬트리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72개 ICAO 회원국 중 153개국, 23개 국제기구

2. 정부 훈령

- ICAO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피선되도록 적극 교섭할 것
- 주요 토의 시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선진국의 항공정책 동향을 파악할 것

3. 주요 의제

- ICAO 이사국 선출, 회원국의 재정의무 이행, 항공보안
- 항행 분야의 우주기술 사용에 관한 총회 결의안 수정
- 유엔 국제마약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ICAO 역할, 환경보호 등

4. 주요 결과

-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경제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 의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별 의제를 협의함.
- 본회의에서 개최된 Part Ⅰ(주요 항공운송국), Part Ⅱ(항공시설기여국), Part Ⅲ(지역대표국) 선거 결과, 한국은 Part Ⅱ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함.
  - Part Ⅰ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개국이 입후보하여 10개국 당선
  - Part Ⅱ는 인도, 스페인 등 12개국이 입후보하여 한국을 제외한 11개국 당선
  - Part Ⅲ는 세네갈, 파키스탄 등 13개국이 입후보하여 12개국 당선

5. 한국대표단 활동

- 김영섭 수석대표는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국 항공발전 현황, ICAO와의 협력관계를 소개하고, ICAO 이사국으로서 ICAO 활동에 기여하고자하는 희망을 표명하면서 각국의 지지를 요청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2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및 지지교섭 기본대책)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2 / 1-169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정부의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한 회원국 대상의 지지교섭을 추진함.

1. ICAO 개요

-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유지와 발전을 위해 1947.4.4. 설립되었으며 1992.1월 현재 회원국은 165개국임.
- 이사국
  - 총 회원국 165개국 중 33개국을 3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임기 3년), 이사회는 입법, 사법, 기술 등에 관한 국제민간항공 문제를 심의 결정함.
  - 이사국은 Part Ⅰ(주요 항공운송국) 10석, Part Ⅱ(항공시설기여국) 11석, Part Ⅲ(지역대표국) 12석으로 구성

2. 정부의 ICAO 이사국 진출 추진

- 1992.1.25. 정부는 다자외교 강화방안으로 제29차 ICAO 총회(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상기 Part Ⅱ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을 통해 2.5.자 공한으로 ICAO 사무총장에게 입후보 사실을 통보함.
- 정부는 2.11. 재외공관에 ICAO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을 지시하였으며, 9.3. 현재 지지교섭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지지 표명국: 39개국
  - 호의적 고려: 45개국
  - 검토: 27개국
  - 미회신 및 미수교국: 54개국

92-099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3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 : ICAO 상주대표부 및 미주지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3 / 1-231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정부의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해 미주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2.1.25. 제29차 ICAO 총회(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Part II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미주지역 공관에 ICAO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92.9.9. 현재 한국 입후보에 대해 42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한국이 Part II 이사국에 피선에 필요한 최저 득표수(110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아래 4개 그룹의 상호 지지사실을 활용하여 지지교섭을 강화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 노르딕그룹(입후보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중부유럽그룹(입후보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 중미그룹(입후보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벨리즈, 파나마
   - 남미그룹(입후보국: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1992.9.18. 현재 미주 회원국들에 대한 지지교섭 결과, 한국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니카라과, 도미니카,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페루 등임.
   - 제29차 ICAO 총회 불참을 통보한 국가: 수리남, 바하마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4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I : 아주지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4 / 1-141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정부의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해 아주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2.1.25. 제29차 ICAO 총회(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Part II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아주지역 공관에 ICAO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을 지시하였으며, 지지교섭 결과 7.29. 현재 한국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18개국임.

2. 1992.9.21. 현재 ICAO 아주지역 회원국(23개국)을 대상으로 교섭한 결과, 한국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며, 상호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일본, 호주 2개국임.

92-099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5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II : 구주지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5 / 1-189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정부의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해 구주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2.1월 제29차 ICAO 총회(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Part II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구주지역 공관에 ICAO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을 지시함.

2. 1992.9월 말 현재 ICAO 구주지역 회원국(24)을 대상으로 교섭한 결과, 대부분 회원국은 검토 입장을 표명함.
   - 한국 지지를 표명한 국가(5): 루마니아, 불가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폴란드
   - 상호 지지를 표명한 국가(3): 아이슬란드, 러시아, 스페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6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교섭 IV : 중동·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6 / 1-239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정부의 ICAO 이사국 진출을 위해 중동·아프리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2.1월 제29차 ICAO 총회(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Part II 이사국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에 ICAO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을 지시함.

2. 1992.9월 말 현재 ICAO 중동·아프리카지역 회원국(40)을 대상으로 교섭한 결과, 대부분 회원국은 검토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가봉, 가나, 르완다, 우간다, 감비아,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수단, 알제리, 예멘, 이스라엘 등 11개국임.
   - 상호 지지를 표명한 국가(5): 세네갈, 카메룬,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92-099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9차. Montreal, 1992.9.22.-10.8. 전7권 (V.7 회의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7 / 1-329

1992.9.22.~10.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논의된 회의자료(영문)임.

1. 안내 책자
   - 참가자 등록, 개회식, 회의문서 및 사용언어, 전화 및 우편, 의료서비스 안내 등

2. 총회 보고서, 행정위원회,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의제 및 위원회별 토의내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일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8 / 1-219

정부는 1992.5.11.~2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8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에 최성홍 주몬트리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9개국, 5개 국제기구(옵서버)

2. 주요 의제

- FANS(미래항행제도, Future Air Navigation System)의 제도적 법적 측면 검토
- 우주인공통신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 관련 CNS(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문제

3. 정부 훈령

- 의제 토의시 정부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1992.9월 ICAO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할 한국의 자격을 과시할 것

4. 주요 결과

- 참가자들은 FANS의 제도적 법적 측면, 공중과 지상 통신의 법적 측면, 법률위의 작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함.

5. 한국대표단 활동

- Working Paper를 제출하고 서비스 공급자 횡포로부터 서비스 이용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ICAO 모델 계약안을 제시함.

6. 평가 및 건의

- 향후 국제민항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개념이나 제도수립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새로운 항공 법제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회의, 기술위원회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 및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92-0996

IMO(국제해사기구)/GMDSS(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회의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9 / 1-88

1988~92년 중 IMO(국제해사기구)/GMDSS(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회의 관련 내용임.

1. GMDSS에 관한 1974년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 회의(1988.10.31.~11.11., 런던)

- 한국대표단: 허리훈 주영국대사관 공사 외 4인
- 주요 의제 및 토의
  - 부선사의 강제 승선 문제: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타협된 시행 시기(최초 설비: 1993.8.1., 최종 설비: 1999.2.1.) 결의
  - 무선 통신사의 요건을 결정하는 SOLAS 제4장 제15, 16 규칙 관련, 무선설비의 선상 정비를 원양선에서 강제화해야 한다는 그리스의 주장과 무선장비의 선상 정비의 규정화는 무선정비사를 태워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대한다는 선진국 입장이 대립되었으나, 타협안 도출

2. GMDSS 육상무선국 설치운영에 관한 북서태평양지역 국가 전문가회의 계획

- 참가국: 소련,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 회의 목적: GMDSS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북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업무(역할) 조정
  - 지상통신 및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각국의 육상무선국의 설치 및 운용
- 회의 연기: 소련 측 사정으로 GMDSS 북서태평양지역 국가 전문가회의를 1991.9월로 연기

IMO(국제해사기구) 방화 소위원회, 제35-37차. London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10 / 1-157

1990~92년 중 제35~37차 IMO(국제해사기구) 방화 소위원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35차 회의(1990.7.2.~6.)

- 참가자(총 114명)
  - 33개 회원국 대표 100명, 7개 국제기구 직원 14명
- 한국 대표
  - 수석대표: 이은 해운항만청 과장
  - 기술자문: 김종원 한국선급 런던사무소장 외 2명
- 회의 내용
  - 세 개의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집중 토의
  - 특히, 여객선 안전에 관련하여 Grandfather Clause를 없애자는 유럽 각국의 제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2. 제36차 회의(1991.6.24.~28.)

- 한국 대표
  - 대표: 최낙정 주영대사관 해무관, 이은 주영국대사관 IMO 주재관
  - 고문: 김종원 한국선급 런던사무소장 외 1명
- 파견 목적
  - 해상화재 방지를 위한 IMO의 연구결과 및 방화 설비기준에 대한 토의
  - 세부 시험기준 및 소화장치 성능 기준강화 등에 대해 한국 해운산업의 입장 반영

3. 제37차 회의(1992.5.18.~22.)

- 한국 대표
  - 대표: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고문: 김종원 한국선급 런던사무소장 외 2명
- 회의 결과
  - Fire Test 절차의 공식화, Smoke Control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 등

92-0998

IMO(국제해사기구)/런던덤핑협약 당사국 회의, 제14-15차. London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11 / 1-202

제14~15차 IMO(국제해사기구) LCD(런던덤핑협약) 당사국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14차 회의(1991.11.25.~29.)

- 참가자
  - 67개 당사국 중 35개국 대표, 한국을 비롯한 9개 비당사국 대표,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유엔 산하 국제기구, 비정부간 기구(NGO)
- 한국 대표
  - 대표: 최낙정 주영대사관 해무관
- 참가 목적
  -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적 동향 파악
  - LDC 가입을 위한 제반 정보 및 자료수집
  - 당사국들의 LDC 가입 및 운영 실태와 입법 사례 조사 등
- 주요 토의의제 및 회의 결과
  - 런던덤핑협약 현황, 해양투기에 대한 기술위원회 보고서 검토, 사전예방에 의한 해양환경보호, 해양투기에 관한 법률 전문가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토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등

2. 제15차 회의(1992.11.9.~13.)

- 주요 내용
  - 런던덤핑협약 개정
- 참고 자료
  - 제15차 런던덤핑협약회의 Report 사본

IMO(국제해사기구) 유류오염 피해보상기금 설치협약 관련 회의 참석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12 / 1-69

1. IOPC(국제유류오염보상연맹) 펀드 총회(1991.10.7.~11.)

● 한국 대표(옵서버)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이은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2. IOPC 펀드 총회 및 집행위원회(1992.10.5.~9.)

● 한국 대표(옵서버)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한국대표단 활동
- 국제기금의 세부운영 실태 및 정산 절차(크리스털과의 환급 절차 포함)
-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관한 입법례 등 각국 동향 파악

3. 1969 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 및 펀드협약 개정회의(1992.11.23.~27.)

● 한국 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3인

● 파견 목적
- 69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 및 71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협약의 84 의정서에 대한 협약 개정안 채택 시 한국 입장 적극 반영

92-1000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6-67차. London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13 / 1-79

1992년 중 제66~67차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6차 법률위원회(1992.3.16.~20.)

- 참가국: 46개 회원국, 홍콩, IOPC(국제유류오염보상연맹)펀드, 21개 민간 국제단체
- 대표단(수석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의장단 선출
  - HNS(위험유독물협약) 초안 검토
  - 84 민사책임협약 및 84 기금협약 개정 초안 검토
  - 나용선박의 69 민사책임협약 적용 문제 검토 등

2. 제67차 법률위원회(1992.9.28.~10.2.)

- 한국 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2인
- 회의 결과
  - HNS협약에서 선박의 연료류 제외(투표 실시)
  - LNG가 위험등급상 1등급 낮게 책정됨과 동시에 위험등급 ZERO(0)제도 신설(위험등급 0은 사실상 협약 제외 물질)
  - HNS협약의 Sector Factor에 관하여 브루나이 대표가 작업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산출방식(안)이 채택
  - 부담금의 각출에 관하여 부담금으로서의 STAMP 부착방식에 추가하여 회원권제도방식이 제기되어 Alternative로서 채택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68-69차. London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2 / 14 / 1-126

제68~69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8차 이사회(1992.6.15.~19.)

- 한국 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2인
- 주요 내용
  - 비이사국의 옵서버 참관 승인
  - IMO 채택 국제협약 현황: IMO가 채택한 총 35개의 국제협약의 발효 여부 및 가입국 정리 발표
  - 각종 위원회 보고서 접수

2. 제69차 이사회(1992.11.16.~20.)

- 한국 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1인
- 파견 목적
  - IMO 이사회에 재선될 수 있도록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주요 의제
  - IMO협약 및 기타 다자간 조약 현황에 관한 보고
  - 이사회 정족수 및 선거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 검토
  - 유엔 리우환경개발회의 시 및 환경 관련 결정사항 검토 등

92-1002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1 / 1-203

1992년 중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43차 위험물운송 소위원회(1992.1.27.~31.)

- 한국 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2. 제44차 위험물운송 소위원회(1992.10.19.~23.)

- 한국 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주요 의제
  - IMO 타기관의 결정사항, IMDG Code 개정사항

3. 제35차 선박설계설비 소위원회(1992.3.23.~27.)

- 한국 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주요 의제
  - 경보기 및 지시기에 관한 코드의 확대 적용 문제

4. 제38차 항해안전 소위원회(1992.6.29.~7.3.)

- 참석자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2인
- 주요 의제
  - 1972 COLREG 규정 검토, 일인 항해당직, 특수 쾌속선 안전코드의 항행요건 개정, 선고 절차 및 STCW 협약 개정, SOLAS V장의 개정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6차. London, 1992.2.3.-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2 / 1-104

정부는 1992.2.3.~7. 런던에서 개최된 제36차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IMO 37개 회원국 및 1개 준회원국 대표, 유엔 산하단체,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참관자, 사무국 직원 등 179명

2. 주요 의제

- 비손상 복원성
- 구획 및 손상 복원성
- 1977 토레몰리노스협약 의정서의 개발
- 창구개방형 컨테이너 선박
- 동물 운반선
- 대형선의 선체균열
- DSC 안전코드의 복원성 요건의 개정
- 해양오염방지(긁힘 손상)

92-1004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제32-33차. London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3 / 1-229

1992년 중 제32~33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32차 회의(1992.3.2.~6.)

- 대표단(수석대표)
  - 진영일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 주요 의제
  - 유조선 이중 선체구조(Double Hull) 의무화를 위한 MARPOL협약 개정
- 한국 측 성과: 중간갑판구조식에 관한 특허문제
  -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 한국 측, 대량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은 해양환경보호 촉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되어야 할 상황 주장
  - 일본 측 대표 및 미쓰비시 조선사는 동 선박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2. 제33차 회의(1992.10.26.~30.)

- 대표단(정부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3명
- 주요 의제 토의 및 결정사항
  - 해양오염방지협약 현황
  - 기름 배출의 인식기준
  -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안 채택
  - 대량 연료유를 적재하는 선박의 오염방지
  -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
  - 유조선에 대한 선박검사 강화 등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60-61차. London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4 / 1-188

1992년 중 제60~61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0차 회의(1992.4.6.~10.)

- 대표단(수석대표)
  - 박경현 중앙해난심판원 수석조사관
- 주요 의제 및 토의사항
  - SOLAS의 손상복원성규정의 개정
  - SOLAS의 방화규정의 개정
  - 행해안전
  - 해적 및 무장강도
  - 해난사고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역할

2. 제61차 회의(1992.12.7.~11.)

- 대표단(정부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3인
- 주요 의제
  - 여객선의 방화 장치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채택
  - 탱커 및 벌크캐리어 등 대형선의 선체강도 보전을 위한 권고안 채택
  - 69 선박톤수 측정협약의 국제발효로 인한 톤수 변경협약 적용 면제를 위한 톤수 증명방법 협의
  - 기구(FLAG STATE)의 선박통제 방법에 관한 지침 제정 검토
  - 해난사고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역할에 관한 지침안 제정
  - 기타 각 소위원회 관련 보고서 채택 등

92-1006

IMO(국제해사기구) 세계해사대학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5 / 1-118

1987~92년 중 IMO(국제해사기구) 세계해사대학 관련 내용임.

1. 운영위원 재추천

- IMO 사무총장은 세계해사대학 운영위원인 양시권 한국해양대학 학장의 1987.6.30. 임기 만료에 따라 재추천 여부를 문의
- 해운항만청은 양시권 학장이 1989.6.30.까지 운영위원을 연임하도록 재추천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에게 IMO 측에 재추천하도록 지시

2. IMO 사무총장 협조 요청사항

- 주영국대사의 1987.1.15. Srivastava IMO 사무총장 예방 시 요청
  - 훈련 세미나 프로그램 추진 관련 재정적 지원
  - 세계해사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외무부는 해운항만청에 동 요청사항을 전달한바, 해운항만청은 아래 사항을 통보
  - 정부의 직접 지원은 예산 미반영으로 재정 지원 불가능
  - 민간차원 지원: 한국선주협회에서 15,000파운드 지원 결정

3. 세계해사대학 운영위원 변경

- 해운항만청은 양시권 박사가 1989.7.24.부로 한국해양대학학장 임기 만료에 따라 동 대학 신임 학장으로 임명된 하주식 학장을 세계해양대학 운영위원으로 추천
  -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에게 IMO 사무국 측에 동 사실 통보를 지시한바, 주영국대사는 IMO 측이 수락하였음을 보고
- 주영국대사관은 세계해사대학 운영위원인 하주식 박사의 임기가 1992.6.30.부로 끝남에 따라 연장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IMO 사무총장의 서한 보고
  - 주영국대사관은 한국이 추천한 전효중 해양대학 총장을 세계해사대학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는 IMO 사무총장 서한 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1 1991.5-9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7 / 1-175

1991.5~9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1.2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의 언급내용

- 특별사찰
- 핵무기 보유국의 안전조치
- 시설 설계상 안전조치 고려사항 및 설계정보의 기구(IAEA) 조기 제출
- 세계적 보고(universal reporting)
- 유의량(significant quantities)

2. 1991.5.29.자 핵안전조치 강화 관련 IAEA 사무국 검토서

- 핵보유국에 대한 안전조치
  - 핵보유국에 대한 안전조치는 자발적 협정에 의거 적용할 수 있음.
  - 핵보유국의 민간 핵 활동 중 10% 정도가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990년 제4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핵보유국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확대 논의
- 시설설계에 안전조치 적용 및 설계정보 조기 제출
  - 새로운 핵시설 건설 시 핵물질 측정계를 포함한 시설 설계정보 사전 제출
  - 설계정보의 IAEA 공식 제출
  - 시설설계에 있어서 안전조치 적용
- 핵물질 수출 관련 범세계적 보고
  - IAEA 회원국들에게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출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IAEA 안전조치 확대
  - 핵물질의 범세계적 보고를 위해서는 안전조치협정상 의무와 자발적 정보 제공이 필요
- 중요성을 갖는 핵물질의 양
  - 1978년 IAEA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핵물질을 플루토늄, 우라늄 233.20%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HEU) 및 직접 사용가능한 우라늄 235 등으로 규정
  - 안전조치상 중요성을 갖는 양은 동 물질들이 전용되어 핵폭발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질 정도의 양으로 해석
  - IAEA 안전조치 용어 해설에는 '직접사용물질을 더 이상 농축 없이 핵폭발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즉 80% 이상의 플루토늄 238 및 우라늄 233 등을 지칭'한다고 규정

92-1008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2 1991.10-1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8 / 1-251

1991.10~1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핵사찰 강화에 관한 IAEA 사무총장의 제46차 유엔총회 보고내용

- 이라크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 안보리 결의 제687호에 의거 실시한 7차례 핵사찰 결과 이라크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의무와 모든 핵물질을 안전 조치하에 두어야 한다는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짐.
  - 현재까지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에 연인원 약 2천 명의 사찰관이 동원되었고 동 사찰단은 이라크 내 방대한 양의 미신고 핵물질 및 핵개발 계획을 밝혀냄.
- NPT 체제에 대한 이라크 사례의 교훈
  - IAEA는 안전조치를 적용받는 핵물질의 전용만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신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 불가
  - 금번 이라크에 대한 미신고 핵시설 사찰은 IAEA 회원국들이 유엔 특별위원회에 제보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심스러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짐.
  - 사찰관이 아무런 방해 없이 어디든지 사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보장 필요
  - 사찰 권한이 거부될 때 강력한 유엔의 지원 필요
- IAEA 특별사찰 강화방안(이라크의 교훈)
  - 인공위성을 통해 회원국들이 입수한 정보를 IAEA가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 미신고 핵시설과 물질을 발견하는 IAEA 사찰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미신고 의혹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IAEA의 요청이 당사국에 의해 거부될 경우, IAEA 이사회는 동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여타 안전조치 강화방안
  - 핵보유국들 간 군비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NPT 가입이 범세계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NPT 의무의 완전한 준수는 더욱 중요해짐.
  - NPT 의무 위반 가능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제도가 존재해야 함.
  - 이라크와 같은 국가가 또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우발사태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증 및 사찰 절차가 강구되어야 함.

2. 안전조치 강화에 관한 IAEA 문서들이 다수 수록됨.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3 1991.12-92.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9 / 1-134

1991.12~92.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1.12.5. IAEA 이사회에서 블릭스 사무총장의 언급내용

- 대이라크 핵사찰로부터 얻은 교훈
  -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IAEA 핵사찰이 촉진되었으나 이라크 핵개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IAEA에 제공된 핵시설 및 장소에 관한 정보였음.
  - IAEA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언론 및 여타 회원국)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IAEA와 유엔안보리 간 체결된 상호관계 협정과 IAEA 헌장에 따라 IAEA와 유엔안보리 간에 업무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찰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여타 조치를 요하는 중요 문제는 IAEA에서 안보리로 이관될 수 있음.
- 사무국은 특별사찰, 설계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
  - 1992.2월 이사회까지 핵물질 수출, 수입에 관한 보고 및 검증과 첨단장비와 비핵물질의 보고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할 예정
- 특별사찰 검토
  - 전면 안전조치협정에 의하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IAEA는 신고 또는 미신고에 관계없이 안전조치 대상인 모든 핵물질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IAEA는 사찰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미신고 핵물질 및 시설의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된 자료 및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한 정보 등 모든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찰을 실시
  - 수집된 정보는 사무총장 직속 특별반에 의해 비밀리에 신중히 검토된 후 이에 기초하여 특별사찰실시 여부를 결정
  - 특별사찰은 반드시 강제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별사찰을 자청할 수도 있음.
  - IAEA는 효과적인 안전조치제도 확립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안보리의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음.

2. 블릭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북한 관련 사항

- 북한 측 협정 서명계획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바, 북한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희망

92-1010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4 1992.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10 / 1-168

1992.2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2.2.27.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IAEA 이사회의 안전조치 강화방안 토의 결과

- 북한 문제 관련 사항
  - IAEA는 미국 언론이 CIA를 인용,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또는 북한의 은닉 기도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의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며 동 정보를 CIA에 요청하지도 않을 것임.
  - IAEA는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비준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초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음.
  - 북한의 협정 비준 이전에 IAEA 사찰관의 북한 방문은 없을 것임.
  -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발효 후 최초의 IAEA 대북한 사찰단의 단장으로 직접 방북할 생각임.
- 특별사찰
  - IAEA 헌장과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국을 대상으로 한 IAEA의 사찰 권한이 있으며 핵 관련 추가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장소를 사찰할 권한도 있음을 IAEA 이사회가 확인
  -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상기 특별사찰을 행할 경우의 소요예산 내역과 동 소요예산이 기존 예산정책 테두리 내에서 여타 사업(개도국 기술협력사업)용 예산을 손상하지 않도록 요청
- 특별사찰에 관한 한국 측 평가
  - 특별사찰제도는 이미 핵안전조치협정에 포함된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님.
  - 금번 이사회에서 나온 특별사찰에 관한 타협안은 IAEA의 기존 특별사찰 권한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협정 당사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특별사찰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금번 이사회에서 특별사찰 권한을 재확인한 것은 IAEA가 핵개발 위협국을 상대로 한 문제 제기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과로 봄.
- 설계정보
  - IAEA가 신설 또는 기존 핵시설에 관한 설계정보를 조기 입수하기 위해서는 핵안전조치협정 당사국과의 보조약정을 개정해야 함.
  - 한국 측은 보조약정 개정에 안전조치협정 당사국이 소극적일 경우 강제조치 방안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

2. 안전조치 강화에 관한 IAEA 2월 이사회의 토의내용이 수록됨.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전5권 (V.5 1992.3-8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11 / 1-194

1992.3~8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992.2월 IAEA 이사회 주요 토의 결과

- 북한의 핵안전협정 발효 및 이행 문제
  -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협정 심의 후 다른 추가 조치 없이 협정 발효 및 이행할 것을 희망
  - 북한이 협정 발효 이전 IAEA에 핵 재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촉구
- 특별사찰제도 확립
  - IAEA 헌장과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평화적 핵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과 특별사찰을 위한 IAEA 권한을 재확인함.
- 설계정보
  - 신설 또는 기존시설 개축에 관한 설계정보를 조기 입수하기 위해 IAEA가 안전조치협정 당사국과 보조약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핵, 비핵물질 및 민감 장비의 수출입과 생산의 신고 및 검증

2.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1992.3월 한국이 안전조치 장비구입을 위해 예산 외 특별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 옴.

- 새로운 안전조치협정 체결로 안전조치의 수요는 증가(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북한 등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IAEA의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감축으로 효과적인 안전조치 의무이행이 어려운 실정임.
-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블릭스 사무총장은 21개국에 특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 한국 입장
  -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해 IAEA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북한 핵사찰 문제에 있어서도 IAEA와의 협력이 긴요함을 감안, 특별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92-1012

정근모 박사(전 과학기술처장관)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입후보 문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12 / 1-185

1992년 중 정근모 박사(전 과학기술처장관)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입후보 추진 관련 내용임.

1. 1992.6.4. 정부는 블릭스 IAEA 제3대 사무총장의 임기(4년) 만료 시(1993.11.30.), 정근모 박사의 동 사무총장 입후보를 추진하기 위해 1992.6~93.6월간 정 박사를 원자력협력담당대사에 임명함.
   - 1957.8.8. 한국은 IAEA에 가입

2. 1992.10.2. IAEA 이사회 의장은 차기 IAEA 사무총장 선출 방식 및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재입후보 사실을 IAEA 회원국에 공한으로 통보함.

3. 1992.10.31. 정부는 블릭스 사무총장의 재연임이 확실시되며, IAEA에서 북한 핵문제 토의 시 블릭스 사무총장과 IAEA 사무국의 협조 기반 구축을 위해 정근모 박사가 금번 IAEA 사무총장 경선에 입후보 하지 않기로 결정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행정예산위원회. Vienna, 1992.5.5.-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13 / 1-202

1992.5.5.~8.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행정예산위원회 관련 내용임.

1. 1992.3.18.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5.5. 개최 예정인 IAEA 행정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될 IAEA 중기계획(1993~98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함.

2. 1992.4.30. 정부는 상기 회의 의제 관련 검토의견을 송부하고, 1993년도 IAEA 예산 책정에 따른 각국 분담률에 대한 토의가 있을 경우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지시함.
   - 정부의 IAEA 분담금: 1991년 370,727달러, 1992년 369,757달러

3. 1992.4.30.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상기 회의에 대한 관계부처 직원 파견을 요청한바, 5.1. 외무부는 과기처 사정상 참가가 어렵다고 통보함.

4. 1992.5.8.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IAEA 행정예산위원회 결과 의제별로 채택된 보고서를 송부함.

92-1014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6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9.21.-25. 전3권 (V.1 사전준비 I : 6-8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3 / 14 / 1-204

정부는 1992.9.21.~2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6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북한에 대한 IAEA 핵사찰 철저 이행 및 남북 상호사찰 촉구 국제여론 조성
- 원자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기술교환 협의
- EC(구주공동체), 벨기에와의 과학기술협력 증대 문제 협의

2. 정부 훈령

- 한국이 금번 총회 부의장국임을 활용하여 각국 대표 및 사무국 인사와 수시 접촉, 유대를 강화하고 기구 내 주요 의제에 대한 협조 및 양국 간 원자력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

3. 의제별 입장

- 1993년 기술원조 협력자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 차년도 예산 가용규모를 고려 적정액을 서약
- 이스라엘 핵 능력과 위협
  - 중동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 가급적 발언을 유보하고 결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외무부와 협의
- 안전조치시스템 강화
  - 안전조치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해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안전조치 전문가그룹이 강화되어야 함을 피력할 것
- 안전조치 재원조달
  - 지난 6월 이사회 시 합의된 바에 따라 기존 안전조치 재원조달방식을 향후 3년간 연장하는 안 지지
- 헌장 제6조 전면 개정
  - 한국이 그동안 원자력 산업을 평화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세계 원자력발전 9위로 성장했음을 피력하고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타당성을 강조할 것
-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제조능력
  - 남아공의 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



4. IAEA 이사회(1992.6월)의 북한 핵문제 관련 토의 결과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조속 이행 촉구
- 9월 이사회 시 북한의 동 협정 이행 진행상황 보고 요청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 중요성 강조

5. IAEA 9월 이사회(1992.9.16.~18.)

- 수석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92-101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6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9.21.-25. 전3권 (V.2 사전준비 II : 9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 / 1-218

제36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대비를 위한 참석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관련 내용임.

1. 북한 핵문제 관련 각국 입장

- EC(구주공동체): 지속적으로도 다루어야 할 공동정책사항의 하나로,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해소에 불충분하며 남북 상호사찰 이행이 특히 중요함.
- 헝가리: 북한이 IAEA 안전조치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IAEA의 지속적인 사찰과 남북 상호사찰을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 영국: 금번 IAEA 회의에서 북한의 IAEA 협정의무 성실이행 촉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및 남북 상호사찰 이행 촉구 등의 발언을 할 계획임.
- 중국: 남북한 상호사찰 문제 관련, 남북한의 설명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중국으로서는 남북한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2. 제36차 IAEA 총회 개요

- 회의 기간: 1992.9.21.~25.
- 참석 범위: 116개 IAEA 회원국,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관 다수
- 정부 대표: 김진현 과기처장관(수석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교체수석대표) 등
- 북한 핵문제 관련 의제
  - 의제 7: 일반토론 및 1991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각국 기조연설 시 북한문제 거론 전망
- 의제 13: 안전조치체제 강화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6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9.21.-25. 전3권 (V.3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2 / 1-207

1992.9.21.~2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6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결과 내용임.

1. 북한 핵문제

- 블릭스 사무총장 보고
  - 블릭스 사무총장은 총회 보고에서 북한 핵사찰과 관련, 3차에 걸친 임시사찰 결과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핵사찰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언급
- 각국 기조연설
  - 일본, 영국, 호주, 러시아, 독일 등 20개국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남북한 상호사찰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
  - 미국 대표는 기조연설 시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은바, 미국 측은 연설문 분량 조정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음을 강조
  - 북한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 대표의 기조연설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고 한국 측에 대해서는 비핵화 선언과 관련 국제무대를 이용한 대북한 비난 중지를 요구

2. 한국 수석대표(과기처장관)의 기조연설 요지

- 북한 핵 개발에 대한 한국 입장 강조
- 동북아지역의 원자로 안정성 문제 관련, 지역기구 창설 등 인접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언급
- 핵무기 해체로부터 나오는 플루토늄의 IAEA 공동관리방안 지지
- 북한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IAEA에 대책 강구 요청

3. 유고 대표권 문제

- 1992.9.24. 총회 본회의는 신유고연방의 대표권 문제와 관련, 동국의 IAEA 회원자격 자동승계를 부인하고 신규가입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

4. 평가

- 금번 총회에서 20개국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언급함으로써 IAEA의 지속적 관심 촉구
- 블릭스 사무총장이 총회 보고에서 대북 핵사찰이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

92-1017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4 / 1-244

정부는 1992.6.15.~1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1992.6.17.)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상황
  - 북한은 1992.5.4. 최초보고서를 제출
  - 북한 정부 초청에 의거, 사무총장 외 자문관 3명이 5.11.~16. 방북, IAEA 임사사찰단이 5.26.~6.5. 방북
  - 추가 임시사찰단이 수주 내 방북할 것이며, 보조약정의 골격과 일부 시설 부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
  - 북한은 핵시설 운전기록을 계속 공개한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IAEA 관리(officials)가 최초보고서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고 약속
- 안전조치협정 이행상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
  - 핵연료 주기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가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 국가의 미신고 핵시설과 물질을 완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과거 핵시설의 원래 운전기록을 IAEA에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협조가 있어야 함.

2. 회의 결과

- 안전조치제도 강화 문제
  - '핵물질, 비핵물질 및 미간장비 수출입 및 생산의 범세계적 보고제도'에 대해 선진국은 지지, 77그룹은 기존 안전조치제도 적극 활용 주장
- 핵안전 및 방사능 보호
  - 동구권 국가들은 원자로 안전 문제에 대해 IAEA 차원 해결 요청
- 중동지역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문제
  -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와 NPT(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 문제가 쟁점
- 안전조치 재정 문제
  - 안전조치 예산의 회원국 분담률을 1989년 총회 결의 내용에 준하여 1995년까지 연장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V.3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5 / 1-213

1992.6.15.~1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회의자료임.

1. IAEA 6월 이사회 의제 관련 참고자료
   - IAEA 6월 이사회 의제(13개 의제 설명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준비자료
   - 1991년도 IAEA 기술협력사업(과기처)

2. IAEA 문서
   - 6월 이사회 의제자료(IAEA 사무국)
   - 의제8 관련 중동에서의 IAEA 안전조치 적용 문제 보고서
   - 대규모 재처리시설의 안전조치 기술 이용에 관한 국제 합의(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6월 이사회 회의록
   - 1992 핵 안전 리뷰
   - 1992.1.20.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IAEA 사무국)

92-1019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9.16.-17.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6 / 1-196

1992.9.15.~1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를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IAEA 핵사찰 실시 후 북한 핵 개발 문제 경과

- 1992.4월 북한·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 비준 및 발효
  - 5.4. 북한은 핵물질 및 시설 관련 최초 보고서를 IAEA에 제출
- 1992.5.11.~16.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방북, 임시사찰 실시(5.25.~6.5./7.6.~20.)
- 1992.6.15.~19. IAEA 6월 이사회, 남북한 상호사찰의 중요성 강조

2. IAEA 9월 이사회 개요

- 기간 및 장소: 1992.9.16.~17.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가국: 35개 이사국(한국 포함)
- 주요 의제
  - 안전조치(안전조치협정), 원자로 프로젝트, IAEA 안전기준
  -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기술지원 등
  - 제36차 IAEA 총회 준비 등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9.16.-17. 전2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7 / 1-107

정부는 1992.9.16.~1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9월 이사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회의자료 포함)

- 9.16.~17. 양일간 회의 개최,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보고(북한 핵문제 포함)
- 안전조치 문제 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문제 논의(북한 포함)
- 안전기준 문제 관련 안전코드 채택 연기
-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어의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36차 총회에 상정
- 기술원조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의장 보고서를 총회에 상정

2. 북한 핵문제 토의 결과

- 북한 핵문제 관련 35개 이사국 중 23개국 발언
  - IAEA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찰 촉구, 투명성 제고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한 상호사찰 조속 실현 희망
- 사무총장 보고: 3차례 임시사찰 실시, 보조약정의 시설부록 관련 3개 시설은 협의 완료
-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다음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
- 한국 수석대표 발언문 및 각국 발언문 수록

92-1021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12.3.-4. 전2권 (V.1 10-1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8 / 1-138

1992.12.3.~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를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북한의 팀스피리트 훈련 비난 및 핵사찰과 연계 시사

- 1992.10.12. 북한 외교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비난 성명 발표
  - IAEA에 배포 요청하여 11.12. 이사회 문서로 배포
- 11.2. 북한 외교부는 팀스피리트 훈련과 IAEA 핵사찰 연계를 시사하는 성명 발표

2. 12월 IAEA 이사회 개요

- 기간 및 장소: 1992.12.3.~4. 비엔나 IAEA 회의실
- 주요 의제
  - 기술협력위원회(1992.11.23.~27.) 보고서 토의
  - 안전조치(사무총장 보고, 이행상황 점검, 안전조치협정 체결)
  - 원자로 프로젝트, 향후 이사회 일정 등

3. 주요 이사국과의 이사회 대책 협의

- 1991.11.27. 주독일대사관 참사관은 IAEA 이사회에 참석하는 독일 외무부 핵문제 담당 과장을 면담,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된 입장자료도 전달함.
- 11.27.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는 주재국 외무성 안보 및 핵문제 담당관을 접촉, IAEA 회의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주재국 대표가 한국 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함.
- 11.30. 주핀란드대사관 참사관은 주재국 외무부 원자력 및 군축담당 대사를 면담하고, IAEA 이사회 시 한국 대표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12.3.-4. 전2권 (V.2 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9 / 1-121

정부는 1992.12.3.~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12월 이사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IAEA 12월 이사회 77그룹 회의(1992.12.2.)

- 12월 이사회 의제 관련 토의 중 인도, 칠레 등은 당초 12월 이사회가 기술협력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로 출발한 점을 감안, 금번 이사회 의제에 안전조치 등 여타 의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술협력 문제 토의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77그룹 공동 입장을 표명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파키스탄, 한국, 이란의 이의 제기로 채택되지 않음.

2. 회의 결과

-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및 토의
  - 중동지역 핵문제, URATOM과 파트너십 체제 구축 문제, 남아공 핵문제, 안전조치 강화 등
- 인도네시아 원자로 프로젝트 승인
- 연기사업 이행 및 차기 이사회(1993.6.7.) 개최 결정 등

92-1023

IAEA(국제원자력기구)/RCA(지역협력협정) 실무자 회의, 제14차. 동경, 1992.3.24.-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0 / 1-30

정부는 1992.3.24.~27. 도쿄에서 개최된 제1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RCA(지역협력협정) 실무자 회의에 강병수 과학기술처 기계기좌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IAEA 후원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훈련 등 상호 협력사업 촉진 및 조성

2. 정부 훈령

- 기본 훈령
  - RCA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 협력 의지 피력
  - 호주와 IAEA가 제시한 잠정 연계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1993년도 UNDP(유엔개발계획) 자금 획득을 위한 회원국과 IAEA의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
  - 한국이 20여 년간 축적한 원전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의 RCA 참여를 확대하며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전문가 회의 유치방안을 모색할 것
- 사업별 훈령
  - 지역사업 응용기술 관련 한국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시키면서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단위사업 발굴
  - 원자력 기술의 의학 및 생물학적 이용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모색
  - 식품조사 처리 제어, 질소 고정균을 이용한 두과작물 개선 등 원자력 기술의 식품 및 농업이용 분야의 토의에 적극 참여
  - 연구용 원자로 사용, 원전계획 수립 및 인력개발 훈련 등 사업에 적극 참여
  - 방사선 방호사업 관련 한전 등 국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

북한의 대IAEA(국제원자력기구) 활동

생산연도 1978-1985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2 / 1-80

● IAEA의 대북한 기술원조
- 1978~82년간 IAEA의 대북한 기술원조(전문가 및 장비)
- 1978년 65,000달러, 1979년 82,000달러, 1980년 163,800달러, 1981년 155,800달러, 1982년 235,800달러
- 1982년 IAEA 정규 기술원조 사업으로 북한은 IAEA를 통하여 방사능 측정 장비 발주

92-1025

IAEA(국제원자력기구)/RCA(지역협력협정) 연장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3 / 1-83

1992년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RCA(지역협력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배경

- IAEA/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으로 1972.6월 발효, 1992.5월 현재 14개국 가입
  - 한국은 1974.10월 가입, 1988년부터는 한국 기여금으로 매년 훈련과정 개최
- 동 협정은 제13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제3차 연장 시 유효기간은 1987.6.12.~92.6.11.임.
- 1991.9.18. 비엔나에서 개최된 RCA 회원국 정부대표자회의에서 1987년 협정을 수정 없이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
- 1992.5.7. 협정연장 승인에 관한 기본방침 확정

2. IAEA가 제안한 1987년 RCA 협정의 연장협정 주요 내용

- 전문
  - 호주, 한국 등 RCA 회원국(14개국) 정부는 1987년 동 협정이 향후 5년간 유효하기를 희망하므로 아래와 같이 동의함.
- 제1조
  - 1987년 RCA 협정을 향후 5년간 원안대로 연장
- 제2조
  - 1987년 협정당사국은 IAEA 사무총장에게 본 협정의 수락 통보로 연장된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
  - 연장된 협정은 IAEA 사무총장이 두 번째 국가의 수락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협정연장 수락 정부는 그 수락 통보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이라크 핵시설 사찰 관련 협조 요청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4 / 1-91

1992년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이라크 핵시설 사찰 관련 내용임.

1. IAEA의 대이라크 핵사찰 협조 요청

- 1992.4월 IAEA는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요청
  - 현대건설 시공 바그다드 인근 주택단지 내에 이라크 비밀 핵시설 은폐 가능성 의심
  - 현대건설 측에 동 주택단지, 특히 지하터널의 설계도면 등 정보제공 요청

2. 현대 측 회신(1992.5월) 및 IAEA 측 반응

- 현대 측은 공사계약규정에 따라 1985.5월 공사 완료 후 설계도면을 모두 이라크 측에 반납
  - 계약서상 지하터널 건설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
- IAEA 측은 복제한 설계도면이 남아있을 가능성 제기

3. 현대건설 측의 최종 입장을 IAEA 측에 전달

- 공사기간 중 실무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복제 사용한 도면은 공사 후 모두 파기
- 현대 측이 IAEA를 방문하여 설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등 협조 제공 용의

92-1027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4 / 15 / 1-161

1991~92년 중 개최된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0차 WMO 아시아지역협의회(1992.9.5.~16., 이란 테헤란)

- 참석자
  - 20개 WMO 회원국, 4개 WMO 비회원국 등 약 70여 명
- 정부 대표: 박용대 기상청장
- 회의 의제
  - 세계기상감시 등 WMO 각종 사업 토의
- 정부 훈령
  - WMO 각종 사업 토의 시 정부 입장을 반영시키고 국제기상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할 것
- 주요 결과
  - 통신망 개선, 온실기체 및 오존관측소 증가 등 대기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아시아 RBSN(기본종관기상관측명) 및 기후변화감시를 위한 전세계 기후관측망을 구성하기로 함.
-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의 기상업무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상기 RBSN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관측소가 11개소에서 13개로 확충되었다고 WMO 사무국에 통보함.

2. 제10차 WMO 농업기상 전문위원회 회의(1991.12.2.~13., 이탈리아 피렌체)

- 정부대표: 김병찬 기상청 기상 연구관
- 파견 목적: 국제기상연구와 관측 분야 최신 정보수집

3. 제10차 WMO 기본조직전문위원회(1992.11.2.~13., 제네바)

- 정부대표: 윤용황 기상청 기상기정
- 파견 목적: WWW(세계기상감시)사업 논의에 한국 입장 반영

주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대표부 활동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6 / 1-68

1990~92년 중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활동 관련 내용임.

1. 유네스코사무국 인사 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

- 윤석헌 유네스코 집행위원은 1990.6.11.자 서한을 통해 사무국 직위 관련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인사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집행위원회 내규 및 인사규칙 절차에 따른 6개 직위(사회·인문·과학담당 총장보, 정보사업담당 국장, 대외사업협력국 자금조달국장, 대외연락국 구주국장,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사무처장, 제2동원 사업국장)
  - 한국 국익 관련 고위직 간부 2개 직위(커뮤니케이션담당 총장보, 대외관계담당 총장보)
  - 3명의 조정관

2. 유네스코 외교업무 창구 일원화 문제

- 1992.11.5. 주유네스코대사는 유네스코사무처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함에 따라 동 대표부의 유네스코사무국 접촉 및 총괄적 업무 조정 등 대유네스코 사업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고
- 외무부는 11.9. 향후 대유네스코 사업 기획 및 집행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외무부와 협의, 추진하도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협조 요청

3. 유네스코 실크로드 유목/알타이루트 탐사

- 외무부는 1992.5.29. 유네스코가 실크로드 통합 연구의 4번째 탐사 루트인 유목/알타이루트 탐사를 몽골 정부와 공동주최로 1992.7.10.~8.6. 몽골의 고대 실크로드 유적을 중심으로 실시 예정임을 주몽골대사에게 통보
  - 동 탐사에는 약 60여 명의 학자와 언론인 약 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인 학자 2명 및 MBC 기자 3명 참가

92-102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Forum of Reflection 위원 선정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7 / 1-106

1992년 중 유네스코의 Forum of Reflection 위원 선정 관련 내용임.

1. Forum of Reflection 구성

- 제26차 유네스코 총회(1991.10월) 시 Forum 구성하기로 결의
  - 주요 임무: 유네스코 기본 이념을 장래에 적절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 발굴 및 정의
  - 구성원 자격: 세계적 저명인사
- 제140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1992.10월) 시 총 21명의 위원을 임명할 예정
  - 6개 지역 그룹에서 3명씩 총 18명과 사무총장이 집행위원회 의장과 협의 후 임명하는 3인

2. 한국 후보 추천

- 외무부는 1992.8.28. 아래 3인을 포럼에 대한 한국 후보로 추천하고, 동 후보의 포럼 진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유네스코대사에게 지시
  - 김경원 전 주미국대사, 여석기 전 문예진흥원장,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장관
- 외무부는 9.7. 주유네스코대사의 건의에 따라 김경원 후보가 한국의 최종후보로 결정되고 각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확보 교섭

3. 위원 선정 결과

- 1992.10.20. 유네스코 집행위원들의 투표 결과 한국 측의 김경원 후보는 아래 사유로 낙선
  - 아·태지역을 동북아, 동남아·태평양, 서남아 3개 소그룹으로 구분, 각 소그룹에서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투표
  - 한국, 중국, 일본이 경합한 동북아에서 한국 후보가 역내 최대국인 중국 후보를 물리치고 위원으로 선출되기에는 어려움 봉착
  - 동북아에서 일본도 탈락하고 서남아에서는 동 지역 최대국인 인도가, 동남아·태평양에서는 역시 지역 최대국인 호주 선출
  - 유네스코 내 김경원 후보의 지명도 미약

미국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복귀 문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4 / 18 / 1-236

1990~92년 중 발표된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 정책 자료임.

1. 미국의 유네스코 관련 국무부 특별 브리핑 자료

- 1990.4.17. John Bolton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의 유네스코에 관한 국무장관 보고서 브리핑
  - 미국의 대유네스코 정책 관련 국무부 보고서 수록

2. 유네스코에 관한 미 하원 청문회 보고서

- 1992.6.25. 미국 하원 International Operation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소위원회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에 관한 청문회 보고서
  - 청문회에서 다수의 증언자들은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아직 복귀에 부정적 입장이나, 유네스코 사무처는 1993년 총회 시까지는 미국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

3. 미국 회계감사원(US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유네스코 관련자료(1992.6월)

- UNESCO: Status of Improvements in Management, Personnel, Financial, and Budgeting Practices

92-103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WDCD(세계문화발전10개년) 정부간 위원회 회의. Paris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1 / 1-161

1990~92년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WDCD(세계문화발전 10개년사업) 정부간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WDCD 설립 근거

- 제42차 유엔총회, 1988~1997년을 세계문화발전을 위한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으로 선포하고 유엔과 유네스코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것을 결의
- 유네스코, 10개년 사업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제24차 총회(1987.9월)에서 정부간 위원회 설립

2. 1990~91년 중 WDCD 정부간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차 회의(1990.2.5.~9., 파리)
  -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1차 WDCD 정부간 위원회 회의 및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의 권고에 의거 10개년계획에 대한 수정보고서 작성(중점 사업을 8개에서 4개로 축소 조정)
  - 제134차 집행위원회(1990.5.9.~10.)는 상기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이 1991년 제26차 총회에 동 사업계획안을 상정하도록 요청

  * UNESCO 세계문화발전 10개년 4개 중점사업
    1. Cultural Factors in Management and Development
    2. Tourism, Culture and Development
    3. Cultural Pluralism towards the Year 2000
    4. Technology, Cultural Industries and Development
- 임시 회의(1991.2.4.~8., 파리)
  - 주요 의제: 유네스코 10개년 사업계획 보완
  - 임시회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 수록

3. 한국 참여 현황

- 1989.5월 아·태지역회의에 여석기 문예진흥원장 참석
- 1990.5월 제134차 집행위원회 시 윤석헌 집행위원이 동 사업 관련 문화올림픽 창설 제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3차. Paris, 1992.2.17.-24.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2 / 1-51

정부는 1992.2.17.~2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네스코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회의에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IPDC 이사국으로서 동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국제 조류를 파악하고 동 분야에서 한국의 대외협력활동 홍보

2. 주요 의제

- IPDC 정부간 이사회 의장단 선거, 이사회 활동 보고
- IPDC 활동, 재정 상황 토의 및 신규 기여금 발표
- 92/93년도 IPDC 예산 심의 및 신청 사업 검토
- 차기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등 기타 사항

3. 정부 훈령

- 이사회 의장 선출 시 다수국 의견에 동조하되 가급적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가 선출되도록 할 것
- 의장단 선출 시 다수국 의견에 동조할 것
- 의제 및 의사일정 채택에 동의할 것
- IPDC 재정 상황 토의 및 기여금 표명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개도국 방송 관계자 초청 훈련사업 실적 등 대개도국 방송협력 노력을 홍보하고 금년에도 1992.9.21.~10.17. 4주간 약 12명을 초청 훈련할 예정임을 발표할 것
  - 한국의 기여금 제공 여부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타국의 기여금액을 상세히 파악 보고할 것

4. 회의 결과

- 1992.2.24. 개최된 이사회 본회의는 총 규모 3백만 달러의 92/93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채택한 후 유네스코 각 회원국 및 비정부간 기구 등에서 IPDC 사무국에 제출한 38개 사업에 대한 본회의 및 Working Group 회의 심의 결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세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함.
  - 기여금 지원사업: 2개 지역 간 사업(15만 달러), 9개 지역사업(81.6만 달러), 23개 국가별 사업(180.3만 달러)
  - 신탁기금 지원사업: 기니비사우 국영방송 지원 외 1개 사업(50.5만 달러)
  - 기타 2개 사업에 관하여는 기여금 및 신탁기금 확보 시 지원하기로 결정



5. 관찰 및 특기사항

- 금번 회의는 92/93년도 IPDC 사업 예산 확정 및 동 예산규모에 따른 신규사업 승인이 주요 관심사항임.
- 신규사업 승인을 위한 토론 시 다수 개도국 대표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강화를 주장한 바 있으며, 일부 동구권 대표들이 수혜대상국에 동 지역사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 과거 제12차 총회와 마찬가지로 다수 후발개도국 대표들은 양자 협력적 성격의 신탁기금보다는 기여금 증액을 희망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9차. Paris, 1992.5.18.-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3 / 1-231

정부는 1992.5.18.~27. 파리에서 개최된 제139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함태혁 주유네스코 집행위원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유네스코 집행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실질활동에 적극 참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정부간위원회 개도국 방송인 초청 훈련 및 세종대왕상 등 한국의 대유네스코 협력사업을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유네스코 내 한국의 지위 제고
- 1992.3월 현재 유네스코사무국에 진출한 한국인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한국인이 유네스코사무국에 조속 진출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2. 회의 의제

- 제137차 집행위 아·태사무국 활동보고
- 제26차 총회 이후 사무국 재정 상황 및 적자 재정 해소 문제
- 유네스코의 사업계획 및 운영개선방안과 국제 분쟁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 및 이란·쿠웨이트 분쟁 등

3 관찰 및 평가

- 본 회의 개최 직후 사무총장의 보고에 이어 양일 간 개최된 정책 토론 시 각국 집행위원들이 행한 기조연설 내용은 수사학적이고 자기 선전적인 면이 강한 반면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제시가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무국이나 다른 집행위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음.
- 반면,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토의 시에는 구체적 사업이 토의대상이 되었으므로 집행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함.
- 금차 집행위의 전체적 분위기는 매너리즘에 빠져 종래의 관례대로 진행되는 인상을 받음. 다만, 동서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상황은 피하려는 노력이 보였음. 중국, 러시아 등은 한국에 대해 극히 우호적이었음.

92-103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40차. Paris, 1992.10.12.-2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4 / 1-205

정부는 1992.10.12.~29. 파리에서 개최된 제140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함태혁 주유네스코 집행위원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유네스코 집행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실질활동에 적극 참여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사업) 정부간위원회 개도국 방송인 초청 훈련 및 세종대왕상 등 한국의 대유네스코 협력사업을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유네스코 내 한국의 지위 제고
- 제140차 집행위원회에서 선출 예정인 Forum of Reflection 위원에 한국 후보인 김경원 전 주미국대사가 피선되도록 적극적인 교섭 전개

2. 회의 의제

- 유네스코 사업의 집중화
- 적자 해소책
- 세계문화 및 천연유산 보호를 위한 3대 조약의 강화
- 국제사회과학 프로그램 설치
- 평화문화 창출을 위한 행동계획

3. 정부 훈령

- 대표단은 회의 토의 과정에서 적절한 기회에 한국의 대유네스코 협력 강화 노력, 특히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문맹퇴치사업, IPDC 개도국 방송인 초청훈련사업, 세종대왕상 시상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등을 홍보하여 유네스코에서의 한국의 발언권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토의 과정에서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 제기될 경우 기술, 전문적 사안은 대표단이 판단, 적적히 대처하도록 하고 국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외무부에 청훈하여 처리할 것

4.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유네스코 사업의 집중화를 위해서는 예산원칙 외 우선사업 선정기준이 필요함.
- 적자 해소책으로 유네스코사무처가 종래 취해온 정책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정책이나, 사설기관, 특히 국제기업체의 기부를 적극 유지함이 좋을 것임.
- 국제사회과학 프로그램에 한국이 적극 참여함이 바람직하나 한국은 명백한 연구과제 선정기준을 설정한 다음 연구과제를 선정할 것을 주장해야 함.
- 대학 상호교류에 있어서 선진국, 개도국 양자교류체재보다 선진국, 선발개도국, 개도국의 3자 교류체제가 바람직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ICAS(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 준비회의. Paris, 1992.7.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5 / 1-62

유네스코 IICAS(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 준비회의가 1992.7.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유네스코 IICAS 개요

- IICAS(International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인접 국가(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몽골, 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에 학문적 관심이 있는 국가(한국, 북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를 창립 회원국으로 하고 국제기구, 민간 연구소 등을 준회원국으로 구성
- IICAS는 총회(회원국 대표 참석), 학술회의(총회 선출 12~15명의 전문가), 사무처로 구성
- 연구소 본부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설치

2. 설립 경위

- 유네스코는 1991년 제26차 총회 시 중앙아시아지역의 역사, 고고학, 인류학, 문학, 사회과학 등의 국제적 공동연구를 위해 IICAS를 설립하기로 결의
- 상기 결의에 의거, 동 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가 1992.7.1.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어 연구소 설립 초안(Draft Proposal for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작성

3. 제1차 중앙아시아 문화 및 과학협력 국제회의(1992.11.14.~18., 이란 테헤란)

- 논의 의제
  - 중앙아 각국의 교육 지도 변화(교과서 문제 포함), 지역국가 간 문화교류 촉진, 문화유산 문제, 유적 복구 등 분야에서 중앙아 국가와 인접국 간의 협력 증진방안 등 논의
- 참가자
  -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지역 8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오만, 사우디, 몽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핀란드 등 17개국 대표

92-103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WHC(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제16차. Santa Fe(미국), 1992.7.6.-1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6 / 1-79

제16차 유네스코/WHC(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미국 산타페에서 1992.7.6.~10. 개최됨.

1. 제16차 유네스코 WHC 이사국 회의(1992.7.6.~10., 파리)
   - 회의 결과보고서 수록

2. 제16차 유네스코 WHC 회의(1992.12.7.~14., 미국 산타페)
   - 회의 잠정 의제 및 Rules of Procedure 수록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10차. Canberra(호주), 1992.11.30.-1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7 / 1-73

정부는 1992.11.30.~12.4.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회의에 정희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성격

-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정기총회 성격의 회의로서 4년 주기로 개최
  - 유네스코 국내위원회가 설립된 국가만 정식 대표로 참석 가능

2. 주요 의제

- 차기 회계연도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
- 제10차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회의 참가 입장과 대책(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참가 기본 입장, 의제별 세부 입장, 제11차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회의 유치 가능성 대비

3. 한국대표단 활동내용

- 의제 논의 참여
  - 의제 9(C) '유네스코 활동 체계 내에서 국내위원회 간, 지역 및 지역 간 차원의 협력 토의' 시 제안 발언을 통해 한국이 아·태지역 국내위원회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음을 설명
  - 의제 7 및 의제 8 토의에서 제140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사업 우선순위 방향 제시
  - 의제 11(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 발언에서 향후 환경교육이 유네스코 기존 사업인 과학·기술·사회사업의 맥락에서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
- 수석대표 활동
  - 수석대표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처장 및 유네스코 동남아지역 과학기술처장과의 조찬 회동을 통해 현안 협의 및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홍보활동
  - 한국의 유네스코 활동 소개를 목적으로 홍보 책자 2종(Education in Korea, UNESCO Activities in Korea: 1990~1991) 배포

92-103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IP(정부간정보학위원회) 회의, 제4차. Paris, 1992.12.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8 / 1-131

정부는 1992.12.1.~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차 유네스코/IIP(정부간정보학위원회) 회의에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IIP 개요

- 1985년 제23차 유네스코 총회 시 정보학 사업(Informatics Programme)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원조 및 전문가 훈련계획 수립 조정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10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중 하나로 설치
- 주요 업무: 회원국이 공여한 기금으로 개도국(주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보화 사업 지원
- 33개국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국 임기는 4년

2. 주요 의제

- IIP의 인적·물적 재원 강화 문제
- IIP의 우선순위 개선 문제
- IIP, IPDC, PGI 조정 문제

3. 회의 결과

- IIP 강화, IIP 사업 우선순위, IIP 세 분야(IIP, IPDC, PGI) 간 조정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Mayor, Federico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북한 방문, 1992.4.21.-2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9 / 1-53

Federico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1992.4.21.~23. 북한을 방문함.

1. 방북 경위

-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 외에 베트남, 인도, 중국, 몽골 등 아주 지역을 순방함.
- 88 서울올림픽 참관 차 방한한 바 있는 Mayor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의 집요한 방북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아시아 순방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2. 면담 인사

- 김일성 주석, 장철 부수상 겸 문화부장, 최기룡 교육위원장, 최수현 유네스코 북한위원장 겸 외교부 부부장

3. 주요 활동

- 김일성대학으로부터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수여
- 유네스코·북한 간의 협력에 관한 Aide-Memoire 체결

4. Aide-Memoire 주요 내용

- 교육 분야: 북한의 어학 교육기관에 프랑스어 및 영어 교재 지원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자연과학 분야: 전자·미생물학·화학·환경보호 분야에서 북한 지원, 유네스코/UNDP(유엔개발계획) 공동사업으로 북한 해상환경 및 해양학 기술사업 추진
- 사회과학 분야: 북한 사회과학학술원의 문서센터 현대화 및 사회과학 전문가의 연구활동 지원
- 문화 분야: 유네스코 지원하에 2년마다 비동맹 및 개도국 초청 영화제의 평양 개최
- 정보 분야: 북한은 매년 20~30명의 개도국 언론인 초청 훈련사업 계속 추진, 유네스코의 김일성 대학 부설 정보센터 설립 지원

92-104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BE(국제교육국) 회의, 제43차. Geneva, 1992.9.14.-1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5 / 10 / 1-208

정부는 1992.9.14.~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유네스코/IBE(국제교육국) 회의에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정희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주요 의제인 문화발전에 관한 교육의 역할 관련, 한국의 교육사업이 문화발전에 끼친 성과를 소개하여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 세종대왕상 등 유네스코 교육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홍보할 것
- 교육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교육 분야에서의 동향을 파악하여 교육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

2. 주요 토의내용

- 작업반(I): 문화유산 교육, 문화 간 교육, 언어 교육을 세부 주제로 토의 진행
- 작업반(II): 개인의 문화·예술적 발전을 위한 예술, 심미 교육 관련 사항 토의
- 작업반(III): 전통적·현대적 학교의 역할, 학교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 등 토의

3. 한국 수석대표 활동 내용

- 1992.9.15. 문화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연설문 수록)
- 동남아 및 동북아지역 국가 수석대표 초청 오찬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T(특허협력조약) 총회, 제11-20차. Geneva

생산연도 1984-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5 / 11 / 1-96

제11~20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T(특허협력조약) 총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1차 PCT 총회(1984.1.30.~2.3.)

- 참가국
  - 22개국, 11개 국제기구
- 정부대표(옵서버):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한국은 1979.3월 WIPO 가입
- 주요 결과
  - PCT 총회 및 회의절차 규정 및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사무국의 협정 개정
  - 국제출원 사용 언어, 미생물 기탁 등 90개 조항 PCT 규칙 개정

2. 제17차 PCT 총회(1991.4.29.~30.)

- WIPO는 1984년 이래 제8차 회의를 거쳐 특허법(Harmonization) 조약문안 대부분을 완성하였으며, 동 조약 채택을 위한 헤이그 외교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제17차 PCT 총회를 개최함.
- 참가국
  - 60개 국가, 2개 국제기구
- 정부대표: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정부 훈령
  -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헤이그 외교회의 일정이 재조정된 원인을 분석할 것
- 주요 결과
  - 개도국(77그룹)은 특허법(Harmonization) 조약 채택을 위한 헤이그 외교회의 연기에 반대하고 당초 계획대로 1991.6월 개최를 주장한 반면, 선진국 B그룹은 헤이그 외교회의 연기를 주장함.
  - 전체회의에서 외교회의를 2개 회의로 나누어 개최하기로 하는 타협안이 마련되었으며, 제1부 외교회의는 1991.6.3.~21. 헤이그에서 개최하여 조문을 토의하고, 제2부 외교회의(1992년 중반)에서 모든 조문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기로 함.

92-104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8-10차. Geneva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5 / 12 / 1-145

제8~10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8차 회의(1989.4.3.~7.)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주요 토의 내용
     - 개도국의 저작권 분야 인력자원 개발과 법제 현대화 지원사업 평가
     - 한국 측은 1986년 저작권법 개정 시 WIPO의 지원에 사의 표명

2. 제9차 회의(1991.4.15.~18.)
   - 주요 의제
     - 1989/1990년 사업 평가, 1992/1993 사업 검토, 심포지엄 개최 등
   - 제9차 회의 준비자료 및 채택 보고서

3. 제10차 회의(1992.11.2.~6.)
   - 참가국: 총 78개 대표단(회원국 59개국)
     -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및 문화부 관계관 참석
   - 주요 의제
     - WIPO의 과거 15년간의 활동 소개 및 이에 대한 각국의 평가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심포지엄
     - 상설위원회 1993년 활동국(Working Group) 선정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1-4차. Geneva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5 / 13 / 1-407

제1~4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2.19.~23.)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회의 결과
     -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WIPO 사무국 안 심의(물적대상, 인적대상, 분쟁해결 수단 등)
     - 개도국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의 지재권 논의의 정당성 약화 의도
     - WIPO도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통해 권능을 강화하고 GATT 논의에 대응하려는 의도

2. 제2차 회의(1990.10.22.~26.)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회의 내용
     - 분쟁해결조약 초안을 위한 원칙(초안) 심의(선진·개도국 간 입장 대립)
     - 분쟁의 주제, 분쟁 당사자, 적용 제외대상, 협의, 화해 및 조정 등의 원칙 심의

3. 제3차 회의(1991.9.2.~6.)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회의 내용
     -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조약 초안(총 18개 조)에 대한 조문별 심의
     - 한국은 조약 제정을 지지하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행을 감안하여 신중 대처 입장

4. 제4차 회의(1992.7.6.~14.)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조약(안)에 대한 한국의 조문별 입장(1992.6월, 특허청)
     - 조약 제정을 지지하나, UR의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과 상치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필요
   -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조약 초안 세부적 토의
     - 대다수 국가가 조약 제정을 지지하나, 미국은 반대

92-104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적용 실무회의, 제1-5차. Geneva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5 / 14 / 1-451

제1~4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적용 실무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3.12.~13.)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옵서버)
   - 회의 내용
     - 1989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의정서 시행 관련, 마드리드협정과 동 의정서에 공통 적용될 단일시행규칙(안) 마련 필요성에 다수국가 찬성 표명

2. 제2차 회의(1990.11.26.~30.)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옵서버)
   - WIPO 사무국이 작성한 새로운 단일시행규칙(안) 토의
     - 마드리드협정 동맹국에만 인정되는 상표의 국제출원을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 토의 진행

3. 제3차 회의(1991.5.21.~27.)
   - 참석자: 임성태 특허청 상표심사담당관 등
   - 단일시행규칙(안) 중에서 규칙 14~32까지 토의
   - 한국의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가입 검토 필요성

4. 제4차 회의(1991.11.11.~18.)
   - 참석자: 김명한 특허청 상표2심사담당관 등
   - 단일시행규칙(안)에 대한 최종 토의 진행
   - 한국의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가입은 미국, 일본의 가입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검토

5. 제5차 회의(1992.10.12.~16.)
   - 참석자: 김명한 특허청 상표심사담당관 등
   - 단일시행규칙(안)에 대해 토의 계속 진행
   - 한국은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준비 중이며, WIPO 규칙안 제정에 깊은 관심 표명
   - 미국은 1995년, 일본은 1997년경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법 통일화 전문가회의. Geneva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5 / 15 / 1-166

제2~4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법 통일화 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2차 회의(1990.6.25.~29.)
   - 수석대표: 이병균 특허청 항고심판관
   - 회의 목적: 상표제도를 범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WIPO 상표법 통일화조약(안) 협의
   - 한국은 조약(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한국과 다른 부분은 한국 입장 적극 반영

2. 제3차 회의(1992.6.1.~5.)
   - 수석대표: 임성태 상표심사담당관
   - 상표법통일화조약안에 대한 조문별 토의 진행
   - 한국의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사항 검토

3. 제4차 회의(1992.11.16.~20.)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상표법통일화조약안에 대한 조문별 토의 진행

92-1046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의정서 전문가회의. Geneva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6 / 1 / 1-118

제1~2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문화·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의정서 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1.11.4.~8.)

- 회의 개요 및 주제
  -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저작물, 음반 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1967년 개정된 베른협약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정서 작성 목적
  - 전문가회의는 베른협약 의정서 가능성 관련 검토
- 회의 문서
  - 사무국이 작성한 베른협약 의정서 가능성 관련 주요 의제(질문) 제1부 및 제2부

2. 제2차 회의(1992.2.10.~8.)

- 참석자: 베른협약 회원국, 비회원국, 국제기구 등
  -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옵서버로 참석
- 주요 회의 내용
  - 베른협약 의정서에 포함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된 저작물의 복제권, 도서, 문서기록 및 교육적 시설물 등의 복제권, 사적 사용목적을 위한 복제권
  - 공중전시권 및 공중대여권, 방송권, 보호기간 등
- 제2차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 수록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산업디자인(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회의. Geneva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6 / 2 / 1-177

제1~2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1.4.8.~10.)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옵서버)
- 회의 결과
  - 1990~91 WIPO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 관련 헤이그협정 가입국 등 참석
  - 사무국 작성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한 문서를 기초로 토의
  - 주요 토의사항: 산업디자인의 기탁 형식, 기탁 요금제도, 공고 유예기간, 지역제도 등

2. 제2차 회의(1992.4.27.~30.)

- 수석대표: 이상원 특허청 심사1국장
- 주요 내용: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문 검토
  - 주요 쟁점사항인 공기의 연기, 거절 통지기간, 복수 국제출원, 의장권 존속기간의 가산점, 유예기간, 미등록 의장권, 직접출원 등에 대해 집중 토의
- 헤이그협정 미가입국인 미국, 일본 등이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안에 반대
  - 한국과 같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헤이그협정 가입 예상 시 한국의 협정 가입 문제 검토 필요

92-104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운영기구회의, 제23차. Geneva, 1992.9.21.-2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6 / 3 / 1-48

정부는 1992.9.21.~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3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운영기구 회의에 윤수길 특허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03개국 정부대표, 12개 정부간 기구, 16개 비정부간 기구

2. 주요 토의 의제

-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베른협약 의정서, 마드리드 동맹, PCT 동맹 관련 사항 등

3. 회의 결과

- 회의 성격
  - WIPO 관장 동맹 및 조약에 관한 23개 운영기구 중 9개 운영기구 관련 사항 토의 및 의결
- 주요 내용
  - 특허 관련 파리협약 보완조약 채택을 위한 제2차 외교회의 개최를 1993.7.12.~30.로 결정
  - 파리협약 제6조의 3(1) 해석지침 채택
  - 식물 육종자 권리의 우선출원권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어 미채택
  - 베른협약 의정서 관련 회의를 1993.6~7월경 개최
  - 마드리드 동맹규칙 개정 등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총회, 제26차. Geneva, 1992.10.2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6 / 4 / 1-36

정부는 1992.10.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6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총회에 백남훈 농림수산담당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성격

- 제26차 UPOV 총회 및 제31차 행정법률위원회 개최

2. 참석자

- 21개 회원국 대표(41), 15개 비회원국 대표(20), 6개 국제기구 대표(7)

3. 주요 의제

- 1991년 사업 활동보고
- 1990~91년 예산 결산보고
- 1993년 회의 일정 토의
- 행정·법률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 진행보고 등

4. 주요 결과

- 1991년도 UPOV 사업 활동보고 및 승인
  - 캐나다(1991.2월) 및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1991.11월) 가입 기탁
- 행정·법률위원회 의장 보고 및 검토
  - 식물 신품종 시험에 있어 국제협력을 위한 UPOV 모델 행정 협정안 검토
-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가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 1992.10월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23개국 가입
  - 한국의 UPOV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에 상당한 조사연구와 정책적인 검토 필요

92-105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산업재산권에 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5차. Geneva, 1992.11.9.-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6 / 5 / 1-35

정부는 1992.11.9.~1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5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산업재산권에 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1991.7.1.이후 사업 활동 평가 및 1993년도 사업계획 검토
- 산업재산권 교수를 위한 심포지엄 및 차기 회의 심포지엄 주제 결정
- 상설위원회 작업단 회원국 지정 등

2. 회의 결과

- 이란 및 마다가스카르를 상설위원회 회원국으로 지명
  - 유고연방공화국의 지위 문제 협의
- 인력개발사업, 법률 및 행정조직의 강화, 발명 및 기술혁신의 촉진 등의 사업 확대 요청
- 국제특허연수원(충남 대덕)이 아태지역 개도국을 위한 산업재산권 연수센터로서 기능 소개
- 내년도 심포지엄 주제로 '개도국의 수출촉진에 있어 원산지 표시 및 상표의 사용'을 채택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IPI(산업재산권정보상설위원회) 관련회의. Geneva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2-76 / 6 / 1-63

1992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IPI(산업재산권정보상설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차 일반정무 실무 그룹회의(1992.4.6.~10.)

- 참석자
  - 정양섭 특허청 정보기획과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주요 결과
  -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어휘사전 발간(제7차 안의 150개 어휘 정의)
  - 대응특허 정의의 제정, 특허 문헌에 바코드 기재, 국가코드 개정
  - 특허 데이터 정정 또는 변경에 관한 WIPO 권고안 제정 필요성 검토 등

2. 제11차 집행조정위원회 회의(1992.12.7.~11.)

- 참석자
  -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주요 결과
  - 전자출원의 표준화 및 통일화 방안 관련 미국의 현황 보고
  - WIPO 특허정보서비스 업무 관련 각국의 선행기술 조사의뢰 현황 등 보고
  - PCT 최소자료의 변경에 대한 의견교환
  - 중국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정보처리의 전산화 경험 보고
  - IPC 개정에 관한 사항, 온라인 특허검색의 표준화 등 토의

92-1052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준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Bangkok(태국), 1992.1.27.-31.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7 / 1-121

정부는 1992.1.27.~3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준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 김명철 보사부 보건교육과 보건기좌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정부간 회의로서 각 지역별로 공통적인 영양 문제의 평가 및 원인 분석, 경제·사회 발전과 영양과의 관계 및 관련 정책, 영양 문제 개선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권고, 지역적 관심을 반영한 세계적 행동계획의 초안 작성

2. 회의 의제

- 지역 내 영양 상태 분석 및 평가
-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의 기술적·경제적 협력 증진
-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의 규모, 원인, 결과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 내에서 일치된 조직의 시행계획에 대한 관심 및 노력 유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21차. New Delhi(인도), 1992.2.10.-14.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8 / 1-159

정부는 1992.2.10.~14.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1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이병석 농림수산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FAO를 통한 식량농업 분야에서의 아·태지역 내 회원국 간 국제협력 증진, FAO 아·태지역 식량농업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입장 반영 및 관련 국제동향 파악

2. 한국대표단 활동

- 개회 리셉션에서 FAO에서 근무 중인 임종성 교수의 승진과 FAO 수산부에 대한 수산 공무원 파견 관련 협조 당부, 북한 수석대표인 이화섭 농업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 농업 상황 등 관심사 교환
  -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 대표 기조연설을 한바, 한국 대표는 두 번째로 기조연설
  - 농업수출국으로서 열대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장관, 말레이시아 장관, 필리핀 농어차관 면담

3. 북한, FAO 아·태지역 총회 유치

- 북한 대표가 제21차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시 기조연설을 통해 1994년도 차기 북한 FAO 아태지역 총회 유치 공식 제의
- 한국 대표는 북한의 전 회원국 참가 보장을 조건으로 평양 개최를 지지
  -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참가 보장 발언을 하였고 회의 종료 후 한국 대표에게 사의 표시
- 모든 회원국이 조건과 제약 없이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무총장이 검토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

92-1054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스위스), 1992.8.18.-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9 / 1-248

정부는 1992.8.18.~24. 제네바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최수영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보사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741명(132개국 519명, 101개 유관기관 222명)
  - 북한 대표: 김홍범 FAO 북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광 아동영양 연구소장

2. 회의 의제

- 회의 진행 절차, 순서 및 working group 구성
- 세계영양 상태 및 문제점 분석, 평가
-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선언문 및 활동계획(안) 토의
- 세계영양 총회 절차 및 조직 등
- 세계영양 선언문 및 활동계획(안) 채택

3. 주요 토의 내용

- 현재 세계의 영양 상태와 추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 토의

4.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선언문(안)

- 현존하는 굶주림과 영양 불량상태를 해소하여 인류가 영양 상태에 있어서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국이 공통 노력할 것을 천명

5.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선언문 및 활동계획(안)

- 기본 추진전략, 각국 정부의 추진방안, 국제수준에서의 추진방안, 가정에서의 안정적 식량확보, 영양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등으로 구성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해어업 전문가회의. Rome, 1992.9.7.-1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22-76 / 10 / 1-166

정부는 1992.9.7.~15.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해어업 전문가회의에 김경용 수산청 과장 외 2인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책임 있는 어업수행을 위한 편의국적 취득 및 공해어업 행동지침 등 토의

2. 참가국

- FAO 회원국 66개국(EC(구주공동체) 포함), 옵서버 3개국, 15개 기구

3. 주요 의제

- 어획 통계, 조사 연구, 관리,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참여, 법적 체계

4. 회의 결과

- 어획 통계: 자원분포 전역의 자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자원평가 정보의 보안과 간행의 조정을 FAO가 주관하도록 함.
- 자원조사: 관리 목적의 조사(주요 생활환경, 산란장, 해황 및 군집상 등) 강화, 개도국과 원양어업국의 공동조사 강화 필요성 인정
- 관리: 책임 있는 어업 관행, 새로운 개념 및 기술
- 국제기구: 국제 수산기구는 효과적인 공해어업 관리를 위해 조직적인 기능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 개발도상국 참여: 유엔해양법에 따라 차별이 없어야 하고, 지원방안으로 교육훈련, 조직 및 기획 능력 향상 등 포함
- 법적 체계: FAO 사무국에서 준비한 '공해어업에 관한 법적 문제'와 유엔 해양업무 및 해양법 부서에서 작성한 '공해어업에 관한 해양법 체계: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

92-105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102차. Rome, 1992.11.9.-2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1 / 1-176

정부는 1992.11.9.~20. 로마에서 개최된 제10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김광희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현재 FAO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서 식량 및 농업 분야에 있어 실질적 최고 결정기구인 동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2. 참석자

- 49개 이사국, 옵서버국, 국제기구 대표

3. 사무총장 개회 연설 내용

- 소말리아 등의 식량 비상사태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계속적인 기여 촉구
- 변화하는 유엔체제 언급, 경제·사회 분야의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할 움직임에 우려 표시
  - 유엔 각 전문기구의 특성 및 장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 언급

4. 주요 토의 내용

- 의제 6, 수산 분야 동향, 의제 7, 환경 및 지속적 개발에 관해 토의(11.11.)
- 의제 9, FAO와 관련된 최근 유엔체제 동향 토의(11.12.)
- 제17차 WFP 연례보고: 최근의 비상구호 활동 및 개발원조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11.17.)
- FAO 법률·헌장위원회 관련 사항 보고(11.18.)
- FAO 직원 보수 검토(11.19.)

5. 회의 관련 문서

- 제102차 FAO 이사회 관련 보고서: DRAFT REPORT- PART Ⅰ, Ⅱ, Ⅲ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 Rome, 1992.12.5.-1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2 / 1-67

정부는 1992.12.5.~11.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세계영양회의에 주경식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 시 채택될 영양 상태 향상을 위한 세계영양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적극적 참여 입장 표명,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상호 협조방안 도모, 영양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수집

2. 참석자

- 159개 FAO, WHO 회원국 대표 및 국제기구, NGO 대표 등 총 1,200여 명

3. 회의 결과

- 개회식
  -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축사, FAO 사무총장 및 WHO 사무총장 연설
- 본회의
  -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 12.7. 한국 수석대표인 주경식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은 한국 영양 수준과 식생활 패턴 설명
  - 12.9. 북한 수석대표인 김영학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남협력 강조, 북한의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 향상 소개
- 위원회 회의 세계영양 선언문 및 행동계획(안)에 대한 논의
- 세계영양 선언문 및 행동계획 채택
  - 12.9. 본회의에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정된 세계영양 선언문 및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

92-1058

한국의 1992년도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전2권 (V.1 사업계획안)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3 / 1-243

1992년 중 유엔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개도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안 관련 내용임.

1. 1992년도 유엔 FAO/TCDC 사업 검토

- 한국는 1991년도 FAO/TCDC 사업으로 잠업연수과정(농촌진흥청 주관)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연수과정(전남대학교 주관)을 FAO와 공동으로 실시
- 1991.11월 외무부는 주이탈리아대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 1992년 FAO/TCDC 사업계획 수립
  - 식물보호훈련과정(전남대학교)
  - 잠업연수과정(농촌진흥청)
  - 어로기술과정(수산청)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존·평가·이용 및 개발과 교육과정(경북대학교): KOICA는 기존 유사 사업의 연장이 아닌 신규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2. 사업계획안

- 1992 국제식물보호 분야 전문교육 계획안, 교육과정 세부 일정표(전남대학교)
- 1992년도 잠업연수과정 계획안(농촌진흥청)
- 수산 분야 훈련사업 계획안(수산청)
- 1992년도 기술협력사업 계획(1992.2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의 1992년도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전2권 (V.2 훈련사업 실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4 / 1-246

1992년 중 유엔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개도국간기술협력) 훈련사업 실시 관련 내용임.

1. 1992년도 FAO/TCDC 훈련사업 실시내용

- 전남대 주관 식물보호과정: 1992.9.16.~10.6.(3주), 15명
- 농업진흥청(잠업시험장) 주관 잠업과정: 1992.7.29.~9.8.(6주), 20명
  - 7.31. FAO와 협정 체결(TCP 협정서, 첨부)
- 수산청(어업기술훈련소) 주관 어로 및 어선수리과정: 1992.7.29.~9.30.(8주), 20명
  - 6.26. FAO와 협정 체결(TCP 협정서, 첨부)

2. 과정 안내자료

- 어로과정, 식물보호과정 영문 안내서(1992, KOICA)

92-1060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AARI(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연구기관협회) 가입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5 / 1-11

1989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APAARI(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연구기관협회) 가입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가입 요청

- 아태지역 사무소 주관 개최 정부간 자문회의(1988.4.27.~29., 방콕)에서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상호 교류를 위해 아태 농업연구기관협회 설립을 결의
- 아시아·태평양 관련 기관에 통보 및 농림수산부 산하 농촌진흥청의 협회 가입 요청

2. 가입 결정

- 농림수산부는 1989.6.8. 외무부에 농촌진흥청이 동 협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동 기구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입장 통보

3. 가입 조치

- 외무부는 1989.6.30. 주태국대사에게 회원기관 간의 기술 및 정보교환을 통해 한국의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농촌진흥청의 가입을 결정하였다고 하고, FAO 아태지역사무소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잉여농산물 처리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6 / 1-122

1990~92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잉여농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임.

1. FAO 잉여농산물 처리원칙의 개요

- 잉여농산물의 국제적 처분 시 정상적인 농산물 교역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 잉여농산물을 특수한 조건(차관, 무상 지원, 현물 상환조건 대여 등)으로 처분 시 수혜국에 동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 및 FAO 산하 CSD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2. 사전협의 면제

- 정부간 기구에 의한 원조(World Food Programme 포함), 긴급 원조, 민간 자선단체에 의한 원조(국제적십자사 포함), 소규모 정부간 원조
  - 소규모의 범위는 밀 1만 톤, 분유 400톤, 버터오일 200톤 이하이며, 쌀은 사전협의 면제 품목이 아니나, 일본 정부는 쌀 1,000톤 이하도 소규모의 정부간 원조 범위에 포함, 시행

3. 한국 쌀 수출 관련 고려사항

- 한국은 과거 쌀 수출 또는 무상지원 추진 시 미국 정부가 국제 쌀시장 교란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음.
  - 1990.5월 대필리핀 쌀 20만 톤 장기 현물차관 공여 추진 무산
  - 11월 걸프사태 주변 3국(이집트, 튀르키예, 요르단)에 대한 쌀 3만 톤(1천만 달러) 무상지원 추진 무산(미국은 3개국의 실질 부족분 5천 톤에 한해 지원 의사 표명)
- 12월 민간자선단체인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가 방글라데시(999톤), 필리핀(502톤), 캄보디아(102톤), 인도(17톤) 등 4개국에 해당국 구호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쌀을 전달하였으나, 미국 반대는 없었음.

4. 남북 물자교환용 정부양곡 매출

- 외무부는 1991.4.16.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농림수산부가 남북 직교역의 첫 사업으로 남북경제 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물물교환용으로 정부양곡을 특별공급(매출량: 5,000톤)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다고 전달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및 농림부는 국제 양곡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 제기

92-1062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5차. Rome, 1992.1.21.-23.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6 / 1-122

정부는 1992.1.21.~23. 로마에서 개최된 제15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에 김석규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원광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110여 회원국 및 관계 국제기구 대표

2. 회의 결과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신임 의장에 세네갈 농업개발장관, 부의장에 노르웨이, 쿠웨이트 대표 선출
- 신규 가입 승인
  - 알바니아, 캄보디아

3. 한국대표단 활동(수석대표 발언)

- 성공적인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의한 수출 보조금 등 국제교역 왜곡 현상은 시정되어야 하며, 농업의 특성과 개별국 특수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WHO(세계보건기구) AIDS 관련 국제회의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8 / 1-78

1990~92년 중 WHO(세계보건기구)의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됨.

1. 아시아·태평양지역 에이즈 국제회의(1990.8.5.~8., 캔버라)

- 주최: WHO, 호주 정부 공동 주최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윤성태 보건사회부차관
  - 대표: 조병륜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정상윤 보건사회부 국제협력담당관
- 목적
  - 에이즈에 대한 국가 간 공동대처 방안 협의
  - 에이즈와 관련한 각국의 보건·의료 분야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

2. 제6차 에이즈 운영위원회(1991.4.23.~24., 제네바)

- 정부대표: 김문식 보건사회부 방역과 보건기정
- 목적
  - WHO의 대에이즈 자문기구인 동 운영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WHO의 에이즈 예방사업 검토에 적극 참여

3. 제7차 에이즈 운영위원회(1991.6.16.~21., 피렌체)

- 정부대표: 윤성태 보건사회부 차관
- 목적
  - 에이즈에 대한 국가 간 공동 대처방안 협의
  - 에이즈와 관련한 각국의 보건 및 의료 분야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

4. 제8차 에이즈 운영위원회(1992.6.10.~12., 제네바)

- 정부대표: 조병륜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92-1064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5차. Geneva(스위스), 1992.5.4.-1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19 / 1-239

1992.5.4.~1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5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WHO 기구 운영 및 사업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 WHO 회원국의 의료·보건 분야 최신 정보 및 자료 수집

2. 수석대표 활동 계획

- 총회 기조연설
- 총회 임원 예방: 신임의장 및 WHO 사무총장
- 각국 수석대표 면담 및 동 관심사 논의
- 총회 임원 및 각국 수석대표 주최 리셉션, 만찬 참석
- WHO 사무총장 등 관계인사 초청 오찬 또는 만찬 참석

3. 주요 의제

-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
- 의약품 정책
- 보건 및 환경
- 영양 결핍 및 미량영양소
-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계전략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43차. Hong Kong, 1992.9.7.-1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6 / 20 / 1-59

1992.9.7.~11. 홍콩에서 개최된 제43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에 이성우 국립보건원 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실적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의료정책 결정에 기여

2. 이사국

- 3개국(중국, 필리핀, 일본)

3. 위원회 현황

- 에이즈사업 관리위원회: 12개국
- 인간생식 연구개발 및 조사훈련 특별사업 정책조정위원회: 14개국
- 열대병 연구훈련 특별사업 합동조정위원회: 12개국
- 지역위원국: 솔로몬 제도, 필리핀
- 필수의약품 사업관리 자문위원회: 12개국

4. 주요 의제

-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
- 위원회별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임기 만료 위원국 교체
- 차기 WHO 전체총회 대비 및 임원 선출

5. 정부 훈령

- 보건의료에 관한 실질 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도모 및 한국 정부 정책 및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
- AIDS 의료의 질적 보장 및 환경보전 문제 등에 관한 각국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



6. 한국의 이사국 진출 고려 시 참고사항

- 1989년 제40차 서태평양지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1990~93년 임기의 이사국 한 자리를 놓고 경합, 결국 사무처장의 제의에 따라 중국이 1990년도, 필리핀은 1991년도, 베트남은 1992년도 이사국으로 진출하기로 함.
- 중국과 필리핀은 1990~91년 각각 이사국으로 진출하여 재임 중이나, 1992년 이사국 선출 시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사국으로 진출한 바 있음.
- 따라서 금번 지역총회에서는 베트남이 기득권을 주장하여 이사국 진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한상태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방한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1 / 1-83

1988~92년 중 한상태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방한함.

1. 한상태 박사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임명

- 제39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1988.9.12.~16., 마닐라)에서 실시된 동 지역 사무처장 지명 선거에서 피선
- 선거 결과
  - 한국 후보 지지: 16표
  - 말레이시아 후보 지지: 7표
  - 기권: 1표(중국)
- WHO 이사회(1989.1.6.~20., 제네바)에서 참가 이사국 전원 찬성으로 임명 최종 확정
  - 1989.2.1.부터 임기 개시(5년)

2. 1988.9.28.~10.4. 방한

- 대정부 WHO 업무 협의 및 연세대 WHO 간호개발협력센터 개관식 참석
- 국무총리·보건사회부장관·외무부장관대리 예방

3. 1989.3.24.~28. 방한

- 문태준 보건사회부장관 초청
- 보건사회부장관·외무부장관대리 예방, 서울대 의대 방문

4. 1989.10.9.~27. 방한

- WHO 지원 학술대회 참석
-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국제동서의학 심포지엄 및 나병 관리 세미나 참석

5. 1989.12.6.~9. 방한

- 녹십자 목암연구소의 WHO 협력 사업기관 지정 및 WHO 주관 의학세미나 참석
- 외무부장관 예방, 녹십자 목암연구소 방문, AIDS에 관한 WHO 워크숍 참석, 공중보건학회 강연

6. 1991.2.18.~24. 방한

- WHO 주관 의학세미나 참석
- 외무부장관 예방, 한국 보건 발전에 관한 WHO 세미나 참석, 기독교 의료연구센터 및 병원 방문

7. 1991.11.1.~10. 방한

- 나병 관리에 관한 세미나 및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8. 1992.7.2.~5. 방한

- 백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
- 외무부차관 면담(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재선 입후보 지지 요청)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2 / 1-43

1992년 중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관련 세미나, 워크숍, 훈련과정 참가자 추천에 관한 내용임.

1. 보건서비스 연구 분야 추천

- 기간: 1992.7.15.~8.14.
- 훈련국: 미국
- 성명: 노공균
- 소속: KAIST(한국과학기술원)
- 직위: 교수

2. AIDS 프로그램 매니저 훈련과정 추천

- 성명: 김문식
- 소속: 보건사회부
- 직위: 국립공주결핵병원 원장

92-1068

우주통신에 관한 유엔 워크샵. 서울, 1992.11.24.-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3 / 1-127

우주통신에 관한 유엔 워크숍이 1992.11.24.~27.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유엔은 1992.2.11. 유엔이 우주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연례 연수를 조직하고 있음과 1992년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을 위해 개발을 위한 통신기술 분야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오면서 한국이 동 관련 워크숍을 금년 11월 또는 12월 초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3.13. 체신부에 동 워크숍 주최를 문의한바, 체신부는 개최를 수락함.
  - 대전 전자통신연구소 주최

2. 워크숍 운영협정 체결 추진

- 유엔사무국 측은 주유엔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 워크숍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안
-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와 유엔사무국 간의 서한교환으로 협정 체결에 문제가 없음을 통보
- 동 협정은 주유엔대사와 유엔사무차장(정치담당) 간 서한교환 형식으로 체결

3. 워크숍 운영협정 내용

- 운영경비는 유엔과 체신부 간 합의에 따라 분담
- 한국 정부는 유엔특권면제협약 및 전문기구의 특권면제협약 가입당사국으로서 유엔에 의해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된 참가국 대표,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 직원에게 특권, 면제 부여

4. 워크숍 개요

- 기간: 1992.11.24.~27.
- 참가대상 및 인원: ESCAP 회원국 24개국 40여 명
- 주제: 위성통신기술의 발전과 미래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의 제의정서 비준통보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4 / 1-107

1991~92년 중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의 제의정서 비준통보 관련 내용임.

1. 아르헨티나 등 UPU 10개 회원국 비준 또는 가입

- UPU 국제사무국은 1991.9.12.자 공한을 통해 주스위스대사관에 아르헨티나 등 UPU 10개 회원국이 워싱턴 총회(1989년) 및 함부르크 총회(1984년) 의정서에 비준 또는 가입하였음을 통보

2. 리투아니아 가입 통보문 송부

- UPU 사무국은 주스위스대사관에 리투아니아가 1991.11.18.자로 만국우편연합 및 동 의정서의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UPU 헌장 제21조 4항에 의거 1992.1.10.자로 리투아니아의 만국우편연합헌장 및 동 의정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통보

3.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회원국 비준서 기탁

- UPU 사무국은 주스위스대사관에 1989.12.14. 워싱턴에서 서명된 제20차 UPU 총회 의정서 및 1984.7.27. 함부르크에서 서명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차 추가 의정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회원국의 비준서 기탁 통보

4. 중국 등 5개국 워싱턴협약 비준서 기탁

- UPU 사무국은 주스위스대사관에 중국, 스페인 등 5개국이 워싱턴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문 송부

5. 크로아티아 UPU 가입

- UPU 사무국은 1992.7.20.자 공한을 통해 주스위스대사관에 크로아티아의 UPU 가입 통보문 송부

6.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UPU 가입 통보

- UPU 사무국은 1992.8.27.자 공한을 통해 주스위스대사관에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의 UPU 가입 통보문 송부

7. 아르메니아 UPU 가입 통보

- UPU 사무국은 1992.9.14.자 공한을 통해 주스위스대사관에 아르메니아의 UPU 가입 통보문 송부

92-1070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및 우정최고책임자 특별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5 / 1-161

정부는 1992.5.14.~15.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및 우정최고책임자 특별회1133

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PU 집행이사회(1992.4.27.~5.13.)

- 참석자
  - 224명(39개 이사국 167명, 옵서버 57명)
- 한국대표단
  - 서순조 체신부 우정국장 외 8명
- 주요 토의사항
  - 인력관리, 재정, 통상우편규정, 통상우편요금, 항공운송, 소포우편, 우편금융, 기술협력 등
- 서울총회 준비사항 보고
  - 사무국 조직, 로고 채택, 총회 장소, 총회 일정 채택 등 소개, 로고 및 코엑스 비디오 상영

2. 우정최고책임자 특별회의(1992.5.14.~15.)

- 대표단(수석대표)
  - 송언중 체신부장관(교체수석대표: 이교응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정종기 체신부장관 비서관)
- 파견 목적
  -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UPU 총회 준비를 위한 금번 회의의 의장직 수행 및 토론 주관
- 회의 결과
  - 참가자: 참가국 78개국 224명, 10개 기구 15명, 사무국 직원 49명 및 통역사 44명 등 총 322명
  - 북한공관원 참석: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1등서기관 및 주스위스대사관 참사관 등 3명
  - 토의 내용: 우편의 미래 및 UPU의 미래
  - 리셉션 개최: 1992.5.14. 19:30~21:30, 북한대표단 참석

이스라엘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위반 여부 조사단 참여 문제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6 / 1-49

1. 1990.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신 방해 및 외부세계로부터의 격리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ITU 협약 위반 여부 진상조사단 구성 결의문을 채택함.

2. 1990.8.29. Pekka Tarjanne ITU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ITU 협약 위반 여부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사를 문의함.

3. 1990.9월 외무부는 한·아랍 관계 및 이스라엘과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외교 관계 유지 입장을 감안,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ITU 진상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결정함.

4. 1992.10월 ITU 진상조사단 참여 의사 표명국가가 전무하여, 동 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92-1072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V.1 1990-91)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7 / 1-125

1. 1991.1.15.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및 스페인 정부는 ITU 주관 제45차 세계무선주관청회의(1992.2.3.~3.3., 스페인 말라가) 참가 초청장을 한국 정부에 송부함.

- 회의 목적: 국제전기통신협약 전파 분야의 제반 업무 중 기존 및 신규 주파수 대역 분배
- 주요 의제
  - 스펙트럼의 특정부분에서의 주파수 분배
  - GMDSS(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종사자 승선규정 개정
  -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전파규칙(RR) 개정
- 파견 의의
  - 국내 전파자원 확대 및 전파 분야 국제협력 도모
  - 미국과의 통신협력 증진
  -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공동개발에 의한 핵심기술 도입으로 국내 이동통신 수요충족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1991.11.12. 정부는 제45차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92) 참가를 결정하고 동 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 제안서 및 대표단 명단을 제출함.

- 제안서 주요 내용(21개 의제 중 3개 의제 제안)
  - HF 방송 주파수대 확대
  - 장래공중육상이동통신시스템(FPLMTS)용 주파수 분배
  - 고정 위성업무 주파수대 분배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윤동윤 체신부차관
  - 대표: 이인학 체신부 전파관리국장(교체수석대표), 통신개발연구원, 전자통신연구소, 한국방송공사, 한국통신 직원 및 연구원 등 18명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V.2 1992)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8 / 1-157

정부는 1992.2.3.~3.3. 스페인 말라가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에 이인학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강덕근 체신부 주파수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92년 세계전파주관청회의 참가
- 한·미 통신회담 이후의 한·미 간 통신협력방안 논의

2. 정부 훈령

- 21세기 전파분야 발전 방안 및 국내전파자원의 확대를 위한 한국 입장 최대 반영
- 전파 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 북한의 아마추어 무선 허용 문제에 대해 북한 측에 직접 거론하지 말 것
- IARU(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과 북한 측의 직접 접촉을 권유하며 북한이 아마추어 무선을 허용할 시 무선기자재 제공 긍정 검토 입장을 IARU 측에 전달

3. 주요 토의 내용

- 단파방송 전용주파수 대역 확대
- 장래의 공중 육상이동통신시스템용 주파수 분배
- 고정위성 업무용 주파수 분배
- 음성위성 방송용 주파수 분배
- ATP 회원국 회의(한국, 일본, 호주 등 6개국 대표 참석)

4. 기대 효과

- 국내전파자원의 확대와 전파산업 발전 기반 구축으로 최첨단 통신 분야의 발전 도모
- 미국과 통신 분야 협력 증진
-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공동개발에 의한 핵심기술 도입으로 국내 이동통신 수요 충족 및 국제경쟁력 향상

92-107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제47차. Geneva(스위스), 1992.6.29.-7.1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9 / 1-134

정부는 1992.6.29.~7.1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7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에 임정재 체신부 전파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주요 결과
- 1993년 ITU 예산 및 각국별 분담금 확정
- C지역(동유럽) 관리이사국 및 신설 전기통신개발국장 선출 문제 협의
- 세계무선통신회의, 1993년 조기 개최 합의
- 세계단파방송 주관청회의, 1995년 연기 개최 합의
- 제3지역 주관청회의, ITU 구조개편 이후 연기 개최 합의
- ITU 전문직에 대한 특별직무수당(SPA) 지급 문제 관련, 유엔 공통체계 원칙 준수에는 찬성하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는 알제리 안 채택
  · 미국은 ITU 특별수당 지급이 여타 유엔기구에 미칠 영향을 감안, 특별수당 지급 중지를 제안하고 제47차 유엔총회에서의 재심의 결의안 제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추가전권위원회. Geneva(스위스), 1992.12.6.-2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10 / 1-161

정부는 1992.12.6.~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구조와 기능 개편 문제 확정을 위한 ITU 추가전권위원회 회의에 박영일 체신부 통신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교용 체신부 통신협력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ITU 헌장 및 협약개정 초안 작성 지역별회의 개최

- 미주지역회의: 1992.4.9.~10., 멕시코
- 아프리카지역회의: 1992.5.4.~6., 모로코
- 유럽지역회의: 1992.6.11.~12., 스위스
- 아시아지역회의: 1992.6.18.~20., 인도네시아
  - 이동형 체신부 사무관, 김은주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원 참석

2. ITU 전기통신개발국장 선거

- 개발도상국 전기통신개발 촉진을 위해 BDT(전기통신개발국) 설치 결의
- 포르투갈, 칠레, 튀니지, 에티오피아, 태국, 프랑스, 기니,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입후보
  - 한국은 ITU 내 위상제고,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가능성을 고려, 태국 후보 지지 결정

3. ITU 추가전권위원회

- 주요 의제
  - ITU 구조개편 확정 및 헌장·협약 개정
  - 새로운 ITU 구조의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
  - 전기통신개발국장 선출
  - C지역(동유럽) 관리이사국 결원 보충
- 회의 결과
  - 초대 전기통신개발국장에 인도네시아 후보 당선
  - C지역 관리이사국으로 루마니아 선출
  - ITU 구조개편 확정
- ITU 신구조의 특징 및 평가
  -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변화(국제화 및 표준화 확대, 전파부문 상용화 강화 등)에 대한 ITU 대응력 제고



- ITU 구조를 전파통신, 표준, 개발 등 3개 부문으로 개편
- 전략정책 및 기획 기능의 강화(전권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기능 강화, 각 부문별 자문위원회 설치, 전략정책기획단 및 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 신설 등)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추가전권위원회. Geneva(스위스), 1992.12.6.-23. 전2권 (V.2 각국의 ITU 통신개발국장 선출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11 / 1-141

1991~92년 중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개발국장 선출을 위한 지지 요청 관련 내용임.

1. ITU 통신개발국장 선출 경위

- 1989년 니스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는 개도국의 ITU 통신개발기능 확대 요청에 따라 통신개발국 신설을 결정
- ITU 추가전권위원회 회의(1992.12.6.~23., 제네바)에서 초대 통신개발국장 선출 결정

2. 각국별 입후보 지지 요청

- 초대 ITU 통신개발국장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기니, 인도네시아, 태국, 포르투갈, 튀니지, 카메룬 등 8개국 인사가 입후보
  - 각 입후보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자국인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후보 지지를 요청
- 한국은 ITU를 통한 한국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가능성을 고려, 태국 후보 지지 결정
- 1차 투표(1992.12.11.) 및 2차 투표(12.14.)에서 입후보자 모두 과반수 획득 실패
  - 인도네시아 후보와 카메룬 후보 간 결선 투표(12.16.)에서 인도네시아 후보 당선

92-1077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SPA(특별직무수당) 지급 문제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2-77 / 12 / 1-91

제47차 ITU 관리이사회(1992.6.29.~7.10., 제네바)의 ITU 전문직에 대한 특별직무수당(SPA) 지급 문제 관련 토의 내용임.

1. 경위

- 1992.7.1. ITU 관리이사회 제2위원회는 직원급여 부족분 실질보상을 위해 1991년 이후 사무총장 책임 하에 지급되고 있는 전문직 직원에 대한 특별직무수당에 대한 정당성 여부 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2. ITU 전문직에 대한 특별직무수당 지급에 대한 각국별 입장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유엔 공통체계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ITU 특별수당 지급이 여타 유엔기구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특별수당 지급 중지를 주장
- 알제리 등 개도국: 유엔 공통체계 원칙 준수에는 찬성하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
  - 미국 안과 알제리 안에 대한 비밀투표에서 알제리 안 채택(찬성 29, 반대 10, 기권 3)
- 한국: 향후 한국의 적극적인 대유엔 활동 참가를 위해 유엔의 결의와 규범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ITU 특별수당 지급 중지를 지지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7 / 13 / 1-168

정부는 1992.4.20.~5.11.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위원회)에 유종하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1992.4.6. 정부는 UNDC가 한국의 유엔 가입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치 분야 유엔 산하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하여 군축 및 안보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입장을 개진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2. UNDC 참가 기본지침

-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첫 UNDC 회의임을 감안, 기조연설 및 실질 의제 발언 등을 통해 한국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부각
- 한반도 군축문제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지지 증진
- UNDC 논의 과정에서 남북한 대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북한의 선전 공세에는 적극 대응
- UNDC에의 인력 진출, CD(제네바군축회의) 회원국 진출 등 유엔의 제반 군축 활동에 적극 참여 방안 모색 기회로 활용

3. UNDC 일반토의 연설문 개요(안)(1992.4.20.)

- 군사문제에서의 객관적 정보
  - 객관적 군사정보 수집 확산은 신뢰 구축을 위해 긴요
  - 한국의 국방백서 발간 등 객관적 군사정보의 유엔 보고를 통한 신뢰 구축 노력 부각
- 핵군축
  - 국제적 군축 분야에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기여 평가
  - NPT 이행 보장을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제도 강화 필요성 강조
- 지역군축
  - 냉전체제 와해에 따른 지역군축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증대 언급
  - 아·태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에 비추어 보아 우선 신뢰구축 조치 강화 등 점진적 방식 채택 필요
  -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배경 및 의의 설명
- 과학기술과 군축
  - 과학기술을 무기 개발이 아닌 제반 군축협정 검증, 무기철폐,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 등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

92-1079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V.2 회의결과 I : 4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7 / 14 / 1-171

1992.4.20.~5.11.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위원회)의 1992.4월 말 현재 논의 내용임.

1. UNDC 4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은 아래 군축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방안을 협의함.
   - WG 1: 군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
   - WG 2: 핵 군축
   - WG 3: 지역 군축
   - WG 4: 과학과 기술의 역할

2. 한국 측 발언요지
   - 유종하 주유엔대사는 1992.4.20.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국 측은 과학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 생산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3. 북한 측 발언요지
   -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는 1992.4.21.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한국 내 미군기지에 대한 포괄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존중, 보장할 경우 한반도는 비핵지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4. 주요국 발언요지
   -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대표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을 환영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대표는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은 핵 억지력 보유가 미국의 안보이익상 필요하므로 CTBT는 핵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나 검토할 문제라고 반박함.
   - 미국 대표는 비핵지대화 전제조건으로 모든 지역 국가의 참가, 기존의 다자간 및 쌍무적 안보 조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국제법에 보장된 군사훈련 보장, 공해 및 영해 무해 통과 등을 제시함.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V.3 회의결과 II : 5-12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7 / 15 / 1-135

1992.4.20.~5.11.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위원회) 결과임.

1. 참가국

- 유엔 회원국

2. 대표단(수석대표)

- 유종하 주유엔대사

3. 회의 일정

- 일반토의(4.20.~4.21.). 실무회의(4.22.~5.8.), 보고서 채택(5.11., 본회의)

4. 주요 의제

- 군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 핵 군축 과정, 지역 군축, 과학과 기술의 역할

5. 주요 결과

- 군사 문제의 객관적 정보에 관한 지침 및 권고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으며 유엔에 대한 회원국의 국방비 보고제도 개선, 국제 재래식무기 이전의 유엔 등록 실시 및 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을 강조함.
- 핵 군축과 지역 군축 경우 참가국 간의 입장 차이로 거의 진전 없음.

6. 향후 조치사항

- 군사 문제의 객관적 정보에 관한 지침 및 권고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하여 필요한 준비를 시행하기로 함.
- 핵 군축 관련 주요 현안(비핵국 안보, 비핵지대, 포괄적 핵실험 금지 등)에 대한 정부입장의 정립이 필요함.

92-1081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7 / 16 / 1-234

1992년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CD(제네바군축회의) 결과임.

1. 참가국

- CD 회원국 39개국
- 한국, 북한 등 40개국 비회원국(옵서버 자격)

2. 주요 의제

- 1992년 내 화학무기 금지협약안에 대한 합의 추진
- 비핵국 안보, 방사성 무기, 무기이전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 문제 등

3. 회기 일정

- 1차 회기(1.21.~3.27.), 2차 회기(5.11.~6.26.), 3차 회기(7.20.~9.3.)

4. 주요 결과

- 참가국 대표들은 핵 군축, 신뢰 구축,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기 타결 등에 대해 연설함.
- 한국, 북한, 남아공, 몰타 등 40개국 비회원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CD 회의 참여가 결정됨.
- 1992.9.3. CD 전체회의에서 CW(화학무기금지협약) 문안을 채택하고 이를 유엔총회에 송부하기로 함.

5. 한국대표단 활동

- 1992.3.26.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는 연설을 통해 남북한 대사 공동명의로 한반도 비핵선언문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CD 문서로 제출하였다고 소개하고 호주 측이 제안한 CW의 조기 타결에 기여의사를 표명함.
- 9.30. 박수길 대사는 CD 의장인 Servais 벨기에대사와의 면담에서 CD가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군축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한국 등 현재 가입 신청한 19개국의 일괄 가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Servais 벨기에대사는 회원국의 대폭적 확대는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협상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제한된 범위의 확대 방안으로 다수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고 함.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 Kathmandu(네팔), 1992.1.27.-29.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7 / 17 / 1-167

정부는 1992.1.27.~29.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에 이량 외무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28개 정부 및 학계 인사 41명
  - 북한: 이용호 외교부 군축과장 등 2명

2. 회의명

- 유엔 아태지역 무기 비확산 및 기타 군축 문제에 관한 지역회의

3. 발표 논문

- 아·태지역의 평화 및 안보를 위한 새로운 현실과 개념(J. Goodly 미국 전 스톡홀름 군축협상 대표)
- 아·태지역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전망(M. Hong 주유엔 싱가포르 차석대사)
- 아·태지역을 위한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P. Mason 캐나다 군축대사)
- 동북아에서의 안보, 신뢰 구축 및 군축을 위한 지역적 접근(이서항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 평가

- 한국 측은 금번 회의에서 남북한이 채택한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성과를 설명함.
  - 참가자들은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함.
- 북한 측은 남북합의서 중 불가침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중립화 등 기존입장을 주장함.

92-1083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 히로시마(일본), 1992.6.15.-1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2-77 / 18 / 1-113

정부는 1992.6.15.~18.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유엔 군축국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세미나에 송영완 외무부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22개 정부 및 학계 인사 69명
  - 북한: 김수만 외교부 차장 등 2명

2. 주요 주제

- 아태지역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및 신뢰 구축 문제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 강화

3. 발표 논문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강화(S. R. Hanmer Jr. 미국 군축처장)
- 핵비확산조약의 성과와 향후 과제(R. Imai 일본 세계평화연구소 주임연구원)
- 구소련 내 핵확산 방지 문제(P. Zelikow 미국 하버드대 교수)
- 아·태지역에서의 새로운 안보 구도 및 협력 전망(M. Hong 주유엔 싱가포르 차석대사)
- 남북대화의 전망(윤덕민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반도 군축 및 신뢰 구축(조길홍 북한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 아·태지역에서의 신뢰 구축 조치(Shi Jinkun 중국 베이징 국제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축 및 안전에 관한 유엔회의. 상하이, 1992.8.17.-19.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7 / 19 / 1-105

정부는 1992.8.17.~19.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축 및 안전에 관한 유엔회의에 공로명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석자

- 18개국 정부 및 연구소 대표 47명

2. 회의 결과

- 기조연설 및 전체회의 주제 발표
  -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평화유지를 위해 유엔헌장 준수, 지역 패권주의 포기, 상호 선린관계 증대, 군비증강 배제, 공동번영 및 발전 추구 필요
  - 도노와키 일본 군축대사, 레만 미 군축처장 발표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 공로명 원장 및 이서항 교수는 전체회의 및 지역그룹회의 토의에 적극적 참가
- 공 원장은 지역그룹회의에서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지역 내 대화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아시아도 유럽과 같이 역내 정상회담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우선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힘.

92-1085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92.9.14.-21.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2-78 / 1 / 1-222

정부는 1992.9.14.~2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ENMOD(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평가회의에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0개 회원국, 4개 미비준국, 6개 옵서버국, 유엔 및 6개 국제기구

2. 회의 결과

- ENMOD 협약이 세계적 군축 및 환경변경 기술의 남용 억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에 의견일치
- 대다수 국가가 협약의 규제범위의 모호성, 검증체제 비효율성, 보편성의 미확보라는 점에서 의견일치

3. 특기사항

- 캐나다, 핀란드, 독일 등이 협약의 개선을 강조하였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보수적 입장에 밀려 금번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의 주장이 많이 약화되어 나타남.

4. 평가 및 건의

- 금번 회의 시 한국의 중립적이고 온건한 입장이 최종 선언에 대부분 반영됨.
- 냉전체제 붕괴 후 군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비롯한 각종 군축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엔 인권위원회, 제48차. Geneva, 1992.1.27.-3.6. 전2권 (V.1 1월-2.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2 / 1-242

정부는 1992.1.27.~3.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인권보장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국제적 동향 파악
-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 일부 인권단체의 한국인권 상황 거론 시 이에 대한 적극 대처
- 한국 관련 인권 문제, 특히 정신대 문제 토의내용 파악 및 필요시 발언
- 한국의 인권위원국 입후보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해 회의 참가 정부대표와의 긴밀한 접촉

2. 인권단체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발언에 대한 대처방안

- 상기 단체와 같이 집중적으로 한국 상황을 왜곡 비난한 경우, 인권위원회 회의 및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입장을 적절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
- 이번 경우에는 의제 12항 관련 한국 대표의 일반발언을 통해 한국인권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 단체가 발언한 내용을 반박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적절
- 한국 측 발언에 포함될 내용
  -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된 모든 사건 관련자를 무조건 양심수로 규정하는 일부 NGO의 무책임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정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이러한 노력은 평가되어야 함.

92-1087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Geneva, 1992.8.13.-1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5 / 1-55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가 1992.8.13.~14.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 유고 사태 관련 열린 특별회의에서 미국 대표인 John Bolton 국무부 차관보가 제안한 결의안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컨센서스로 채택됨.
- 특별회의는 1992.8.5. 미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8.10. 35개 인권위원국의 회의 소집 동의하에 개최된 것으로, 특별회의는 위원국 과반수의 동의로 개최될 수 있으며 향후 인권 관련 긴급사태 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회의의 의의가 있음.
- 결의 요지
  - 자의적으로 수용된 모든 사람들의 즉시 석방
  - 국제적십자사의 구유고지역 내 모든 수용소, 형무소에의 접근 허용
  - 모든 분쟁 당사국들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행위 중단
  - 구유고지역 내 인권침해 상황 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및 진상조사
- 금번 인권위원회 특별회의는 긴급사태를 다루기 위한 인권위원회 최초의 특별회의로서 대부분 국가들이 금번 회의를 소집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구유고연방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청소를 강도 높게 비난함.
- 한국은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는바, 앞으로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견지할 계획임.

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속개회의(1992.8.18.)

- 인권위원회 특별회의가 경사리에 권고한 유고사태 관련 결정을 표결 없이 채택함.
- 쿠바와 유고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인권위원회 결의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 결의안 채택 후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대표는 안보리 결의 제14~15항에서 사무총장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공하도록 요청한 것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에 대해 권능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1 1991.1-6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6 / 1-132

1991.1~6월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인권규약(B규약) 보고서 제출 시한

- 최초보고서는 인권규약 가입 후 1년 이내 제출
  - 제2차 보고서 이후는 5년마다 제출함.
  - 인권이사회는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요령

- 보고서 작성
  - Part Ⅰ(일반적 사항):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일반적 법률체계에 대한 설명
  - Part Ⅱ(인권규약 각 조항 관련 사항): 각 조항의 권리와 관련 시행되고 있는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를 기술
  - Annex: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 국내 법령 등 조항이 첨부되어야 함.
  - 분량: 통상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3. 참고 사항

- 법령을 근거로 한 보고서
  - 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서는 타인권 관련 설명자료와는 달리 정치적, 문화적 설명을 배제하고 순전히 법령에 근거한 인권보호장치를 기술해야 함.
- 포괄적 인권보장제도 제시
  - 인권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 노동부, 내무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수적임.
- 관계 법령 영문본 정비
- 보고서 시한 문제
  - 한국의 인권보장 의지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시한을 지키도록 함.

4. 향후 추진대책

- 보고서가 순전히 법률적 고려하에 작성되어야 함을 감안, 법무부가 관련 부처 해당자료를 취합하여 보고서(국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92-108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2 1991.7-12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7 / 1-329

1991.7~12월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보도내용

- 정부는 1991.7.3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최초 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국(제네바 소재)에 제출함.
- 동 인권보고서는 법무부, 내무부, 노동부, 보건사회부 등 11개 관련 부처가 한국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 분야별로 작성(법무부 종합, 외무부 번역)한 것임.
  - 총 312개항, 141페이지로 구성되어 전반부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관한 일반적 법률체계를, 후반부는 B규약상 각 조항(27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법적, 행정적 조치 등을 기술
- 한국은 1990.7월 A규약과 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바, B규약 제40조에 의해 가입 후 1년 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최초 인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보고서 제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한국 최초보고서 심의

- 일시 및 장소: 1992.3.24.~26. 유엔본부(뉴욕)
  - 인권이사회 기간 중 한국, 니제르, 알제리의 최초보고서 및 벨기에, 콜롬비아 등 3~4개국의 정기보고서 심의 예정
- 심의 절차
  - 보고서 심의는 공개 회의로 진행되며 인권이사회 위원 18명(의장: 이탈리아)과 당해국 정부대표단 참가
- 심의 일정
  - 제1일: 수석대표의 제안 설명, 위원별 질의
  - 제2일: 답변 준비를 위해 휴회
  - 제3일: 수석대표 답변, 추가 질의 및 답변, 위원별 견해 표명, 수석대표 최종발언
- 향후 조치사항
  - 대표단 구성: 주유엔 또는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주유엔 및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관 등 5명 내외
- 준비자료 작성, 인권이사회 위원 사전접촉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3 1992.1월-6.17.)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8 / 1-256

1992.1월~6.17.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제44차 인권이사회(1992.3.23.~4.10.) 권고

- 알제리: 민주화 중단 및 여성차별 조치 시정
- 페루: 최근 사태와 관련 추가보고서 제출 요청
- 콜롬비아: 최근의 인권상황 진전을 평가하고 정부의 지속적 노력 강조
- 벨기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사례에 우려 표명
- 유고: 연방군의 인권침해 시정 및 소수민족 인권보장 촉구
- 한국 관련 사항
  - 차기 회의(1992.7.13.~31.)에서 한국, 부룬디, 벨라루스, 몽골, 아프가니스탄 보고서 및 페루 추가보고서 심의 예정
- 관련 대책
  - 한국 보고서 심의 관련, 법무부 고위인사를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
  - 보고서 심의 관련 준비사항을 법무부와 실무 협의

2. KNCC 인권위원회와 민변의 동향(5.11.자 동아일보, 5.12.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보도)

- KNCC 인권위원회와 민변은 한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작성, 1992.5월 초 유엔 인권사무국에 송부
- 반박 보고서와 별도로 비교 인권보고서를 작성, 인권사무국에 제출 예정
  - 한국 보고서 중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보안법, 재소자 인권 등과 관련 축소·왜곡이 있었다고 주장

3. 대응 조치

- 인권사무국의 반박 보고서 접수 여부 및 처리 절차를 파악하도록 1992.5.12.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
  - 인권위원들에게 일반 우편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
- 법무부는 비교 인권보고서 관련 보도에 관해 해당 언론사에 사실 설명과 함께 항의할 예정이며 정부 공식논평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

92-109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4 1992.6.18.-7.9.)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9 / 1-269

1992.6.18.~7.9.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외무부 대표: 문봉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정달호 유엔2과장, 김종훈 유엔2과 서기관, 조현동 서기관
- 법무부 대표: 류국현 인권과장, 정기용 인권과 검사, 최상관 인권과 검사

2. 인권보고서 심의 관련 대비사항

- 준비자료
  -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 예상 질의 답변자료
  - 기본 법령
  -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
- 사전 검토사항
  - 홍보대책
  - 한국에 대한 이사회의 권고사항 대응방안
  - 대표단 출발 전 주요사항 청와대 보고
- 제네바에서의 사전 준비작업
  -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대표단 회의
  - 예상 질의에 대한 최종 점검
  - 답변자료 등 준비

3. 영문화가 필요한 자료

- 안기부의 역할 및 수사 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외국인의 국내법상 지위
- 고문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사회보호법 및 보안관찰법상 규정의 이중처벌 해당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전5권 (V.5 1992.7.10.-10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10 / 1-227

1992.7.10.~10월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인권보고서 심의 결과

- 개요
  - 1992.7.13. 회의에 18명 위원 중 의장 포함 14명 참석
  - 위원 8명의 질문에 이어 7.14. 위원 4명이 추가 질문
  - 한국대표단의 답변은 7.15. 진행
- 주요 질문내용
  - 국가보안법 관련 소급 효과 불인정 문제, 반국가 단체의 개념, 사형규정 유형 등
  - 기타 법관의 지위 및 독립성 보장, 규약의 유보조항 철회 가능성, 노동법 개정의사 여부 등
- 특기 사항
  - KNCC 인권위원장 및 사무국장, 변협 인권위원장, 민변 변호사 3명 등이 방청했으나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음.

2. 인권위원회의 평가

- 한국 정부가 제6공화국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주화 및 인권신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면서 한국 사회가 인권보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 일부 위원들은 위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운용, 규약 규정의 구체적 실천 문제, 일부 유보의 철회 등 분야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기 보고서에는 개선 노력이 반영되기를 희망

3. 한국 수석대표 기조 발언

- 제6공화국 헌법하에서 이루어진 인권신장과 민주화 진전, 특히 헌법소원제도의 활발한 운영과 민간차원의 인권신장 노력 등에 관해 설명하고 보고서 제출 이후 유엔가입,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주요 인권협약 가입, 남북교류협력합의서 체결 등 일련의 진전 사항과 아울러 향후 인권신장을 위해 정부가 취하여야 할 제반계획과 조치들을 제시함.
  - 고문방지협약 가입,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 등 언급

92-1093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당사국 회의, 제14차. New York, 1992.1.15.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11 / 1-154

제14차 CERD(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회의가 1992.1.15. 뉴욕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2. 회의 의제
   - 인종차별철폐위원 선거(총 18명 중 9명 선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예산 확보 문제

3. 회의 결과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선거 결과 네덜란드, 에콰도르. 페루, 인도,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후보 선임
   - 재정 문제 관련, 예산사정으로 협약위원회 개최가 취소될 상황임에 비추어 각국에 미납 분담을 조속히 납부해줄 것 촉구

4. 참고자료
   - 제14차 CERD(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회의 결의문서(1992.1.15.)

각국의 인권보장기구 현황 조사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8 / 12 / 1-131

1992년 중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조사한 각국의 인권보장기구 현황 관련 내용임.

1. 각국의 인권보장기구 현황 조사 지시

- 1992.5.26. 외무부는 인권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자 각국의 인권보장 관련 기구 현황을 조사·보고하도록 주요국 주재 공관에 지시
  - 인권보장기구의 성격, 기능 및 주요 활동
  - 외무부 내 인권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 내용
  - 기타 정부 부처 내 인권 업무 담당부서 업무 내용
  - 주재국 의회 내 설치된 인권 관련 기구의 성격, 주요 활동

2. 재외공관의 주재국 인권보장기구 현황 보고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헝가리,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호주, 일본, 필리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의 인권보장 관련 국내기구 현황 보고자료

3. 각국 인권보장 관련 기구 현황표

- 독립기구, 정부 담당기관, 기타 인권기구, 의회 내 기구

92-1095

인권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1 / 1-105

1992년 중 인권 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관련 자료임.

1. 인권 업무 현황(1992.1월, 국제기구국)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 관계 주요 기구, 인권협약 산하 주요 조직, 유엔체제 내 인권 보장 관련 주요 절차, 국제 민간 인권단체 현황, 인권 관련 주요 현안

2. 인권 업무 추진방안(1992.3월, 국제기구국)
   -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주요 인권회의 현황, 유엔회의에서의 남·북한 인권 문제 제기 현황, 인권 업무 추진계획

3. 인권 업무 추진계획(1992.3월, 국제기구국)
   -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최근 인권 문제 토의 추세, 남·북한 인권 문제 제기 현황, 인권 업무 추진방안

4. 인권 업무 세부 추진사항(1992.5월, 국제기구국)
   - 국제 및 국내 인권 문제 대응: 인권에 대한 정부 기본정책 결정, 주요 인권 관련 의제에 대한 입장 정립, 유엔인권위 회의 및 세계인권회의 적극 참가, 인권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비체제 확립, 국내 민간 인권단체 육성

유엔의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 전2권 (V.1 CERF(중앙긴급운용기금) 설치, 1991-9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2 / 1-55

1991~92년 중 유엔의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 관련 CERF(중앙긴급운용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임.

1. CERF 설치

- 1991.12.19. 유엔총회 본회의 시 유엔의 긴급구호 활동 조정강화 결의안 채택(46/192호)
- 1992.2.14. 유엔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 조정강화 기여금 서약회의 개최
  - 자연재해 및 기타 긴급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CERF(Central Emergency Resolving Fund)에 5천만 달러 조성 결정

2. 한국 측의 기여금 서약

- 유엔은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기금 마련을 위한 서약회의에서 기여금 서약을 요청
  - 1992.9월 제1차 서약회의 시 선진국 50~500만 달러 서약
- 주유엔대사, 최소 5만 달러의 기여금 서약 건의
-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자연재해 및 기타 긴급재난에 대한 유엔의 긴급구호 활동 강화를 위해 CERF에 5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서약회의 또는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 송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서약 지시
- 1992.5.23. 유엔 긴급구호 기여금 서약회의에 최종무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이 참석, 5만 달러 규모의 CERF 기여금 서약

92-1097

유엔의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 전2권 (V.2 기타 긴급구호 활동, 199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3 / 1-218

1992년 중 유엔의 기타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유엔의 지원 요청내용(공한 및 보고서)을 외무부에 보고함.

- 특히, 1992.10.27. 전쟁, 기근 등 요인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국가에 대한 지원 관계 토의가 개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특별지원 현황 통보를 요청

2. 외무부는 1992.10.29. 주유엔대사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 현황을 통보함.

- 무상원조 자금에서 정규 지원되는 일반지원과 한발, 홍수, 지진피해 등에 대한 긴급특별지원,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등으로 구분

유엔 남부아프리카 한발 긴급사태에 관한 기여금 서약회의. Geneva, 1992.6.1.-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4 / 1-179

정부는 1992.6.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남부아프리카 한발 긴급사태에 관한 기여금 서약회의에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인도적 구호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남부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2. 참석자

● 52개국 정부 대표와 37개 유엔 및 국제기구 대표

3. 남부아프리카 한발 피해지원을 위한 기여금 서약

● 남부아프리카 한발 현황
- 100년 만의 최악의 한발로 이 지역 농작물 경작의 50% 감소 초래
- 1억 3천만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약 1천 8백만 명 기근 직면
- 주요 피해국은 남부아프리카의 10개국과 동부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4. 한국대표단 활동

● 이미 양자채널을 통해 한발 피해국들에게 12만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추가 지원금을 공여할 것 등을 밝힘.

5. 모금 성과 및 활용 방안

● 이번 서약회의에서 모금된 기금(목표액: 8억 5천 4백만 달러)은 한발 피해국에 대한 긴급식량원조, 식수 및 의약품 공급, 씨앗과 경작 공구 제공, 가축보호 활동 등에 사용

92-1099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후속위원회, 제2차. San Salvador(엘살바도르), 1992.4.7.-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5 / 1-131

정부는 1992.4.7.~8.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제2차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후속위원회 회의에 원종온 주엘살바도르대사관 2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주최

- 난민 문제 유엔고등판무관실 및 UNDP(유엔개발계획)

2. 회의 주요 일정

- 개회식
  - 후속위원회 의장(니카라과 내무차관)의 난민 문제 유엔고등판무관보 등 연설
- 제1차 전체회의
  - 의사일정 채택, 부의장 선출, 소집국 대표 발언
- 제2차 전체회의
  - 소집국 대표, 미국 대표, EEC(유럽경제공동체) 대표, 캐나다 대표 등 발언
- 실무 그룹회의
- 제3차 전체회의
  - 지원국 및 기구 대표 발언
- 제4차 전체회의
  - 결의문 채택

3. 결의문 주요 내용

- CIREFCA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승인된 중미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계획의 일환임을 상기
  - CIREFCA의 피난민, 이전민 및 송환인을 위한 계획은 미정착 난민들에 대한 문제 해결의 본보기로서,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건 및 화합 과정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여 인정

장애인에 대한 국제협력

생산연도 1989-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6 / 1-196

1. 외무부는 1990.2.2. 유엔사회개발 및 인권센터가 '유엔 장애인 10년대(1983~92년)' 종료 이후의 세계 장애인 문제 대처를 위한 사무총장의 신계획 연구보고서 작성과 관련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해 왔다고 보건사회부에 통보함.

2. 상기 관련, 보건사회부는 1990.2.22. 아래와 같이 보건사회부 의견을 외무부에 전달함.
   -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이후 한국의 장애복지는 선진국보다 단기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다고 말할 수 있음.
     - 다만 국민의 장애인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의 부족, 장애인의 사회노출 기피로 인한 참여 부족, 개발도상국가로서의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외무부는 1991.6.22. 유엔사회개발위원회 결의(32/2)에 의거,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정 정비를 위한 제1차 정부 전문가 working group이 1991.9.2.~6.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참석할 한국 측 전문가를 지명하여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92.7.15. 비엔나 주재 유엔사무소가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정을 위한 제3차 working group 회의가 1992.9.28.~10.2.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참가를 희망하여 왔음을 보고함.

92-110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 제6차. New York, 1992.2.4.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7 / 1-26

정부는 1992.2.4.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에 신기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선거(위원 총 24명중 11명에 대한 선거 실시)
  - 입후보 18개국은 자국 인사에 대한 한국 정부 지지 요청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운용 문제 협의

2. 회의 결과

- 의장단 선거
  - 의장: 주유엔 체코대사
  - 부의장: 주유엔 아르헨티나·시에라리온·필리핀·덴마크대사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선거 결과
  -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핀란드, 튀르키예, 콜롬비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후보 등 11명 선출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 제35차. Vienna, 1992.4.6.-15.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8 / 1-263

정부는 1992.4.6.~15.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99개국(회원국 51개국, 옵서버국 149개국), 41개 국제기구
  - 유엔 마약위원회는 세계 마약류 정책을 통합·조정하며 1992년 현재 위원국은 53개국임. (한국은 1992~95년간 위원국에 피선)

2. 주요 의제

- 마약류 남용 억제를 위한 각국의 활동 검토 및 국제마약통제협약의 이행 상황
- 마약류 규제물질의 추가 지정, 마약위원회 기능 강화
- 지역별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강화 등

3. 정부 훈령

- 한국과 우호관계가 깊은 국가의 대표가 위원에 선출되도록 할 것
- 마약 불법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과 성과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

4. 주요 결과

-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협약상 규정된 12개 규제물질 외 10개 화학물질 추가결의안 등 15개 결의안을 채택함.
- 1993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의 준비사항에 대해 협의함.

5. 평가

- 한국 수석대표의 기조 발표 및 한국의 마약류 전담대사 설치 제안 등 마약류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92-1103

마약 관련 국제회의

생산연도	1988-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9 / 1-71

1. 학교에서의 마약남용에 대한 국제회의(1988.6.24.~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관: 유네스코 말레이시아협회 및 말레이시아 교육협회
- 주제
  - 청소년과 약물남용
  - 학교에서의 약물남용 방지
  - 학교 내외에서의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 전략개발

2. 헤로인 제조물질 통제 관련 정부 전문가회의(1992.2.10.~1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관: 영국 정부
- 회의 목적
  - 헤로인 제조물질을 사용한 불법 마약제조 방지 관련, Chemical Action Task Force(휴스턴 G-7 정상회의에서 설치)가 마련한 화학물질 불법전용 권고안의 국제적 이행방안 논의
  - 화학물질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주요 마약 생산국 및 경유국 정부전문가 간의 협력 모색
  - 헤로인 제조물질의 생산지 및 불법 경유 루트 파악
- 정부대표단(정부대표): 김회선 법무부 고등검찰관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8차. 동경, 1992.2.28.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2-79 / 10 / 1-158

제8차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가 1992.2.28. 도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2.1. 한국 정부는 제8차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를 2월 말 도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5. 일본 정부는 2.28. 개최를 희망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중표 외무부 동북아 1과장
● 일본 측: 무토 마사토시 외무성 북동아 1과장

3. 정부 훈령

● 아·태지역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한·일본 간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할 것

4. 주요 결과

● 한·일본 양측은 자국 내 마약 및 임페타민류(각성제)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고 마약류 범죄 발생의 원천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 등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일본 측은 최근 코카인의 압수량과 검거수가 증가하고 있고 헤로인 남용도 확산되는 등 심각하다고 하고 앞으로 법제 정비와 한국 등과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 한국 측은 1991년 마약류 사범은 1990년도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코카인 등 신종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 사례가 있다고 하고 마약류 범죄 대처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희망함.
● 차기 회의는 1993.2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92-1105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HONLEA), 제17차. Bangkok, 1992.11.23.-27.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11 / 1-221

정부는 1992.11.23.~2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7차 아·태지역 HONLEA(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에 임내현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4개 회원국, 4개 옵서버국, 7개 국제기구 등 115명

2. 주요 의제

- 의장단 선출, 해상 불법거래 및 아·태 국가 간 협력 증진방안

3. 정부 훈령

- 한국 대표가 의장단에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제별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
- 제18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1993년, 서울) 준비를 위해 회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것

4. 주요 결과

- 국제마약 공급조직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및 범죄인 인도가 중요하며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협약(1992.10월 말 현재 67개국 가입) 조기 가입을 촉구함.

5.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 수석대표가 제1부의장에 피선되어 의장으로 전체회의를 주재함.

한국의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위원국 피선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2-79 / 12 / 1-23

1992년 중 한국의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위원국 피선 관련 내용임.

1. 위원국 선거 결과

- 위원국 선거는 1991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창설될 동 위원회 위원국을 최초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총 40개 위원국 중 아주지역에 9개 의석 할당
- 1992.2.6. 유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 회의에서 실시
  - 한국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임기 3년의 위원국으로 피선

2. 피선 의의

- 한국은 유엔가입 이후 최초로 유엔 산하기구 이사국에 진출
- 유엔을 통한 국제범죄의 예방과 형사사법 분야 국제협력에 참여 가능

3. 참고자료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개요

92-1107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1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4.21.-30.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조약과
MF번호	2022-79 / 13 / 1-256

정부는 1992.4.21.~30.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회의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CCPCJ 설치 배경

- 1991년 유엔총회는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를 위한 유엔계획의 원칙과 행동계획 수립 결정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부속기관으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설치

2. 주요 의제

- 의장단 선출
-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창설에 관한 각료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 이행
-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강화
- 제9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 준비

3. 회의 결과

- 효율적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창설에 관한 각료회의 결론과 권고이행에 관한 결의안 채택
- 위원회 우선사업 선정
  - 국내 및 국제범죄, 조직범죄, 자금세탁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의 역할
  - 도시범죄, 청소년 및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 형사사법 운영상의 효율성, 공정성 및 개선 문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1차. Nairobi(케냐), 1990.8.6.-31.

생산연도 1989-1991
생 산 과 경제기구과/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9 / 14 / 1-170

정부는 1990.8.6.~3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에 최석영 주케냐대사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본회의 결정사항 12개)

- NGO 역할과 지원 조치, 사무국 보고서 및 차후 회기 일정, UNCED 회의 일정 권고
- 기술이전, 환경과 개발, 신규 및 재생가능 에너지, 대개도국 지원 등

2. 회의 의의

- 1992년 UNCED 회의 대비, 개발과 환경의 상관관계 및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대응전략(Agenda 21) 추진, 지속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3. 회의 동향

- 제1차 실질 회기로서 차후 회기에서 토의할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
- 정부대표단은 차기 회기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건의

4. UNCED 제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989년 유엔총회 결의로 1992년 브라질에서 UNCED 회의 개최 결정 및 각국의 환경 현황을 동 회의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청
- 1991.7.2. 환경부, 각 부처에 소관 사항별 국가보고서 작성 요청
  - 9.14.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환경부)
- 1992.1.13.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 국가보고서를 UNCED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
  - 동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국가보고서는 1991.12월 국무회의에 보고

92-110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2차. Geneva, 1991.3.18.-4.5.

생산연도	1990-1991
생 산 과	경제기구과/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9 / 15 / 1-210

정부는 1991.3.18.~4.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에 이성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24개국

2. 주요 핵심 주제

- 각종 지구 환경문제 해결방안
- 환경 분야의 대개도국 재정, 기술 지원방안

3. 회의 결과

- 회의 성격
  - 1992년 UNCED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별 리스트 작성
  - 사무국에 각종 관련 사항 조사 및 대책안 보고 요구
- 전체 회의 및 3개의 워킹그룹별로 토의 진행
- 주요 토의 내용
  -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빈곤 문제, 환경보건, 환경교육 및 인식제고, 지구환경보호
- 1992년 UNCED에서 지구헌장 및 Agenda 21(21세기 지구환경보호 행동계획) 채택 예정

4. 한국대표단 활동

- 주요 발언내용
  - 환경청정기술의 이전은 시장원리의 예외로 취급되어야 함.
  - 환경 명목의 선진국의 대개도국 비관세 무역장벽 가능성 우려 표명
- 주요 건의사항
  - 준비회의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참여 필요, 국가보고서 신중 작성 요청 등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3차. Geneva, 1991.8.12.-9.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79 / 16 / 1-188

정부는 1991.8.12.~9.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에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NCED 대책 실무회의(1991.7.4., 외무부)

- 참석자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주재), 경제기획원, 동자부, 상공부 환경처 등 13개 부처
- 회의 결과
  - UNCED 개요 및 각국의 준비현황 설명(외무부)
  - 주요 의제별 소관 부처(17개) 지정
  - 17개 부처로 실무대책반 구성(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 국가보고서 작성절차 합의, UNCED 준비회의 참가 준비 등

2. 제3차 UNCED 준비회의(PREPCOM) 사전준비

- 회의 성격
  - 제1, 2차 회의 토의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준비회의 최종회의에 제출
  - 각 환경 분야별로 Agenda 21 및 지구헌장에 포함할 사항 집중 토의
- 참가 목적
  - 지구헌장, Agenda 21, 기후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교섭에 한국 입장 반영
  - 주요 환경 문제 및 환경 공통 문제 토의에 한국 입장 반영
  - UNCED 회의 준비과정에 적극 참가
- 주요 토의 의제
  - 실무회의: 기후변화,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폐기물, 해양 등 주요 국제환경 분야와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방안 등 21개 의제
  - 본회의: 환경과 무역, 산업, 인구증가, 에너지 등 경제, 사회 분야와의 관계, 혁신적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체제 설치방안, 지구헌장, Agenda 21 등 토의

92-111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3차. Geneva, 1991.8.12.-9.4.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1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80 / 1 / 1-83

1991.8.12.~9.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결과 내용임.

1. 참가국

- 100개국 대표 및 25개 국제기구

2. 회의 진행

- 본회의(1991.8.26.~9.4.): 지구헌장, Agenda 21, 종합적 성격의 과제 토의
- 실무그룹회의(1991.8.12.~9.3.): 지구환경 문제를 3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 토의

3. 주요 회의결과

- Agenda 21은 각 의제별로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합의
  - 각국이 기본 입장을 개진하고 10개 필요 분야를 정함.
- 지구헌장은 각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여 각 원칙별로 집대성
- 기타 분야별 토의(재정자원, 빈곤 문제, 기술이전 등)에서 선진·개도국 간 이견 노정
  - 개도국은 빈곤 해결 및 생활 향상, 기술의 무상이전, 선진국의 재원 부담 주장
  - 선진국은 지구환경보전, 기술 수용 태세의 정립, 현실성 있는 목표 등 주장

4. 한국대표단 활동(기조발언 내용)

- 지구헌장은 인도주의 정신과 높은 철학적 가치를 가져야 함.
- Agenda 21은 가능한 행동계획과 집행 방법을 포함
- 모든 국가별 상황, 특히 개도국의 특별상황을 고려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 재원과 기술이전 수단의 보장
- 환경규제가 결코 국제무역의 비관세장벽이 될 수 없음.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2 / 1-249

정부는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개발회의) 준비회의에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권인혁 환경담당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토의 안건

- 1992.6월 UNCED를 위한 지구헌장과 Agenda 21(27개 분야 구체적 실천계획) 심의
- 3차례 개최된 준비회의 결과를 종합 토의하여, UNCED에 제출할 최종 문건 작성

2. 주요 토의 의제

- 본회의: 재원 및 기술이전체계, 환경과 개발의 통합 고려(경제, 무역, 인구, 보건 등)
- 제1실무그룹: 대기보전(기후변화, 오존 파괴), 산림, 생물다양성 보호, 생명공학 등
- 제2실무그룹: 해양보전(해양오염 및 생물), 담수 보호, 유기 폐기물 등
- 제3실무그룹: 지구헌장, 법 및 제도 관계

3. 제4차 준비회의 대비 대책회의

- 제2차 대책회의(1992.1.10.)
  - 국가보고서 작성, UNCED 의제별 한국 입장 정립, 각 의제별 담당기관 지정 등
- 제3차 대책회의(1992.2.14.)
  - 제4차 Prepcom 회의 참가 대책, 대표단 구성 등 논의
- 대표단 대책회의(1992.3.4.)

92-111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2 의제검토 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3 / 1-248

1.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의제 검토)

- UNCED 제4차 준비회의에서 토의될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1991.1.31. 조약국, 국제기구국에 검토 요청
- 주요 검토의제
  - 제1실무회의: 해양, 해양생물자원
  - 제2실무회의: 법, 국제환경법 관계
  - 제3실무회의: 유엔체제의 개편, 제도적 문제

2. UNCED 의제별 입장(WG I: 기후변화, 대기보전)

- 기상청: 기후변화, 오존파괴, 사막화와 한발, 이동성 대기오염
- 동력자원부: Agenda 21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이용

3. UNCED 의제별 입장(WG I: 산지, 산림)

- 산림청: 산림황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 농림수산부: 토지자원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토지자원, 생명공학, 생물다양성의 보존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3 의제검토 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4 / 1-154

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별 입장(WG II: 해양, 해양생물자원)
   - 과학기술처: 기술이전, 생명공학, 방사선 폐기물
   - 상공부: 오존층 파괴, 폐기물 분야, 환경과 무역
   - 환경처; 오존 파괴, 기후변화

2. UNCED 의제별 입장(WG I: 오존층 파괴, 폐기물)
   - 해운항만청: 해상활동에 의한 해양환경 훼손 방지 감소 및 규제
   - 수산청: 생물다양성 보존, 각종 해양, 연안 해양생물자원 보존, 담수자원 보호 및 관리
   - 해양생물 보존 관련 미국 입장 자료(외무부)
   - 한국해양연구소의 의제별 검토의견

92-111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4 의제검토 I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5 / 1-136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의 의제 검토(기타 검토자료 및 한국 입장) 관련 내용임.

- 건설부: 인간정주 분야
- 특허청: 기술이전(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지재권적 접근방법)
-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기술)의 환경보전적 관리, 생물다양성 검토의견
- 농림수산부: 토지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분야
- 환경처: 담수자원의 공급과 질 보호
- 외무부
  - 기존협정문서 검토 및 후속조치
  - 환경 관련 국제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제안 검토(6개국 제안사항)
  - 제도 문제에 관한 검토의견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5 회의보고 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6 / 1-86

정부는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에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성격

- 1992.6월 개최 UNCED 대비 최종 준비회의

2. 참가국

- 175개국 대표, 300여 개 NGO 대표 참석

3. 회의 주요 결과

- UNCED 회의 기간 연기: 당초 1992.6.1.~12.에서 1992.6.3.~14.로 연기
- 주요 의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협상에 큰 진전 실현
  - 재원: ODA(공적개발원조)와 GEF(지구환경기금)의 증액 합의
  - 기술이전: 공공소유기술 및 공유권 하의 기술이전 촉진에 합의
  - 지구헌장 초안 합의: 리오 선언으로 채택 예정
  - 제도 개편: 유엔에 지속개발위원회 설치 또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3위원회 설치 원칙 합의
  - 산림보호에 관한 원칙 합의
- 기타 30여 개 환경 분야별 실천과제(Agenda 21) 초안 작성

4. 한국대표단 활동 주요 성과

- 기술이전: 공공소유 기술이전 합의는 한국 측 제안 반영
- 해양생물자원: 공해상의 어업규제 일방적 실시 반대

92-111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6 회의보고 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7 / 1-147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보고 내용임.

1. 기술이전 분야 토의

- 협상의 기본문서로 사무국이 제출한 A/CONF.151/PC/100/ADD.9 채택
- 1992.3.27.까지 기술이전 소그룹에서 토의, 이후 본회의에서 토의

2. 주요 회의 결과

- 기술이전을 세분하여, 공유권 하의 기술, 공공기술 및 개인소유기술로 별도 규정
  -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
- IPR(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접근 및 이전 촉진을 위한 사항에 전반적인 합의 도달
- IPR의 보호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개발협력 등을 통한 비상업적 이전
- 개인소유 기술이전의 장벽 감소 노력 등을 규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 측 제안사항인 기술의 세분화에 따른 기술이전 촉진방안이 그대로 반영
  - 특히 공공소유기술 이전 합의는 한국 측 제안 반영
- 강제 실시권에 대한 사항은 선진국의 삭제 주장을 거부하여 미결로 존치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7 회의보고 I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8 / 1-103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토의 관련 보고 내용임.

1. 산지, 산림 분야 토의

- 1992.3.12. 새로운 의제로 채택된 지속적 산지개발에 대한 토의
- 3.17. 77그룹회의에서 산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대한 공동입장 채택
- 3.28. 산림 원칙(전문 10개항 및 17개 조항) 초안에 대해 토의 진행
  - 산림보존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 입장 대립
  - 한국은 최대 목재 수입국인 일본과 같이 중립적이며, 수입국에 불리한 문구 삭제 주장

2. 대기보전 분야 토의

- 1992.3.28. 대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합의 초안 채택(미결 포함)
- 주요 쟁점 분야: 기후협약 가입 촉구, 경제수단 및 에너지 효율 설정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이동성 대기오염 등
- 한국에 대한 영향
  - 화석연료 의존국 특별고려 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기적 파급효과는 최소화 가능

3.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분야 토의

- 1992.3.19.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명공학 연관성에 대한 이견 대치
- 3.19. 유해폐기물 관리, 일반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토의
  - 한국은 폐기물 대책을 대폭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을 예상

92-111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8 회의보고 IV)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9 / 1-183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토의 관련 보고 내용임.

1. 해양문제 토의

- 해양생물자원의 이용, 보존에 관한 미결 문제는 주로 해양법에 관한 문제
  - 캐나다 등 16개국은 공해 어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제안서 제출
- 1992.3.18. EC(구주공동체) 제안이 제출되어 기초안과 함께 토의 진행
  - 3.21. 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재수정안에 대해 조문별 독회 실시
- 3.28. 해양 관계 미결사항을 모두 처리하여 토의 종결
- 4.1.~2. 경계왕래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종 문제에 대한 협의 계속
  - 수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 채택 예상

2. 사막화, 한발 문제 및 기후협약 토의

- 1992.3.10.~11. 사막화 및 한발에 관해 아프리카그룹이 제안한 개정안을 기초로 토의
  - 사막화를 3단계로 구분하여 방지대책 수립 및 집행, 6개 실천사항 논의
- 3.18. 산림의 다중역할 보장, 산림보존 및 조림 증진, 산림이용 증진 등 토의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9 회의보고 V)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10 / 1-286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토의 관련 보고 내용임.

1. WG Ⅲ 지구헌장 토의

- 지구헌장 협상 기본문서 선정 관련 이견으로 제안된 모든 문서 토의 진행
  - 77그룹안, 미국안, EC(구주공동체)안, 북유럽제안
  - 77그룹은 수정안을 완성하여 1992.3.20. 공식 제출, 토의 개시
- 3.23. 각국 입장을 종합한 문서를 중심으로 토의 진행
- 핵심 쟁점
  - 개발과 환경보호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이견
  - 지원 관련 공통의 그러나 다른 책임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입장
  - PPP, EIA, 책임보상 및 예방조치에 있어 개도국의 능력 고려 문제
  - 특수한 사정에 처한 국가 그룹을 개도국에만 한정시키는지 문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으로 합의

2. WG Ⅲ 제도 토의

- 1992.3.23. 제도 문제에 대한 국별 제안을 종합한 Agenda 21초안을 배포하여 3.24.부터 토의
- UNCED 회의 후속사업 관장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속개발위원회 설치 또는 ECOSOC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논의
- 한국은 세계적 차원의 별도기구 설치보다는 기존 유엔체제의 기능 효율화방안 지지
- 유엔에 지속개발위원회 설치 또는 ECOSOC에 제3위원회 설치원칙에 합의

92-112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V.10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2-80 / 11 / 1-156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결과보고 내용임.

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의 EC(구주공동체)의 지위 문제

- 1992.3월 EC 집행위는 EC가 UNCED 회의에 여타 참가국과 동일한 지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
- UNCED 회의에 EC 참석권 부여(표결권 없음)

2. 제4차 UNCED 준비회의 결과보고 문서

- UNCED 제4차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1992.3월)
- UNCED 제4차 준비위원회 WG II 참석 결과보고(수산청)
-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보고(제4차 준비위원회)(에너지경제연구원)
- 제4차 Prepcom에서 채택된 관련 문서 등 자료
  - 리오 선언, 해양 관계, 법제도 및 체제, 국제적 제도장치

3. 환경외교 개선방안 검토(1992.5월, 외무부 조약국)

- 1992.6월 UNCED 회의를 앞두고 4차례 UNCED 준비회의 및 UNCED 참가 준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외교의 기본 입장 및 협상 참여체제 재점검
- 환경외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본입장: 개도국 입장에 집착과 선진국과 대립에서 벗어나 선진·개도국의 중간조정자 입장 견지
  - 대응전략: 과다한 피해의식 노출에서 벗어나 적극적 인식과 능동적인 대응
  - 대외협상 참여체제: 업무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 구성, 회의 참가 준비 철저, 관계부서의 관련 협상 참가 활성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 회의 준비 I : 1991.6-92.3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0 / 12 / 1-163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사전 준비 내용임.

1. UNCED 개요

- 개최 근거: 유엔총회 결의 44/228, 45/211
  - 범세계적 지구환경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원수급 회의 개최 촉구
- 초청 대상자
  - 유엔 회원국 및 전문기구 회원국의 국가원수
  - 유엔사무총장 및 브라질 대통령 명의 각국 원수 앞 초청장 발송
- 배경 및 의의
  - 환경에 안전하고 환경이 지탱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발 범세계적 실현 촉구
  - 제1차 세계환경회의(스톡홀름회의: 1972년) 개최 20주년
  - 향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협력의 기본원칙 채택
- 회의 목표
  - 지구헌장(Earth Charter) 채택
  - 환경 관계 국제협약 채택
  -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체계 검토

2. Collar 브라질 대통령 명의 UNCED 참가 초청 서한

- 초청장 요지
  - 노태우 대통령의 UNCED 참석 초청
  - UNCED는 환경과 개발을 주제로 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회합
  -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을 위한 방안 토의예정
- 초청 성격
  - 유엔사무총장 명의 초장장이 기발송(1991.10월)된바, 브라질 대통령 명의 초청은 주최국 원수로서의 개인자격 초청임.

92-112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 회의 준비 II : 1992.4-6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0 / 13 / 1-256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사전 준비 내용임.

1. 대표단 파견

- 외무부는 1992.4.1. 주유엔대사 및 주브라질대사에게 UNCED에 정원식 국무총리(부부 동반)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이를 주재국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외무부는 4.29. 주브라질대사에게 여타 대표단 명단(환경처장관, 외무부차관 등)을 통보하면서 주재국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2. UNCED 정상회의 일정(1992.5.11., 주제네바대사 보고)

- 6.12.: 각국 정상연설
- 6.13.: 각국 정상연설, 브라질 대통령 주최 오찬, 회의 속개
- 6.14.: 서명식

3. 기조연설 순서

- 한국 대표는 1992.6.13. 오전 14번째 시행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3 대표단)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0 / 14 / 1-216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대표단 구성내용임.

1. 대표단 구성

- 1992.3.16. UNCED 참가 대표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외무부는 4.20. UNCED 참가 정부대표단 임명에 관한 내부 재가를 득함.
  - 회의 기간 및 장소: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본회의(6.3.~12.), 정상원탁회의(6.13.~14.)
- 한국대표단
  - 수석대표: 국무총리 정원식(부부 동반)
  - 대표(14명): 권이혁 환경처장관, 노창희 외무부차관 등
  - 자문관(Adviser: 11명)

2. UNCED 대표단 신임장 및 훈령

- 1992.5.11. 외무부는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 대표에 대한 신임장 발급 관련 대통령 재가를 득하고, 훈령 및 신임장 발급에 관한 내부 재가를 득함.

3. UNCED 참가자료

- 유엔개발환경회의 참가대책

92-112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4 대책 I : 제4차 PREPCOM 회의문서 검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 / 1-98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제4차 사전준비 회의 문서 검토 내용임.

1. 농수산부 자료
   -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Section II, Chapter 6)
   -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Drought(Section II, Chapter 4)
   - Integrated Approach to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Land Resoures(Section II, Chapter 2)

2. 교육부 자료
   - 실무작업단 III 의장이 제안한 원칙과 관련
   - 교육과 공공의식, 교양, 훈련과 관련

3. 기상청 자료
   - 불확실성 조항
   - 성층권 오존층 파괴
   - 월경 대기오염

4. 농촌진흥청 자료
   -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관리
   - 생물다양성 보존

5. 상공부 자료
   - 국제경제 및 환경
   -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및 불법교역 방지
   - 유독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및 불법교역 방지
   - 대기보호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5 대책 II : 관계부처 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2 / 1-197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관계부처 회의내용임.

1. UNCED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2.2.28.)

- 참석자(7개 부처):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외무부 제2차관보, 환경처 기획관리실장, 상공부 제1차관보, 동자부 자원정책실장, 과기처 기획관리실장, 농수산부 제2차관보
- 의제
  - UNCED 및 지구환경 보전 관련 예상되는 국내 파급효과
  - 적정 대응을 위한 국내환경 협조체계
  - 기타 UNCED 참석 준비상황 및 건의사항
- 회의 결과: UNCED 대비 부처 간 업무조정
  - 외무부: UNCED 회의 준비 및 관련 국제동향 파악
  - 상공부, 경기원, 환경처: 국내산업 파급 대비 및 대국민 홍보(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정)

2. UNCED 대비 관계부처 장관회의(1992.5.9.)

- 참석 대상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처장관,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조정실장
- 주요 내용
  - UNCED 등 환경 관련 국제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국가정책 방향 논의
- 회의 결과
  - 범정부적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되, 그 시기 및 주관기관 문제는 UNCED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조정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대책은 UNCED 이후 대처
- 향후계획
  - '리우 선언'과 '의제 21'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

92-112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6 대책 III : 국무회의 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3 / 1-151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국무회의 보고 내용임.

1. 국무회의 보고 관련 관계부처 의견 취합

- 외무부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서명' 제하 안건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위한 관계부처 검토의견 송부를 요청하여 취합

2. 국무회의 보고 안건 송부

- 외무부는 1992.5.19. 총무처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서명' 제하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 조치를 요청
- 주요 내용
  - 새로운 차원의 협력 창출을 통한 공정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합의를 모색해 나감.
  -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대의 관심이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 풍요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함.

3. 국무회의 안건 제안 설명

- 안건 제목: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서명계획
- 한국의 기본협상 방향
  -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 지구환경 보존에의 기여와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 강화
  - 지구환경 규제의 1차적 책임 면제 확보와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충분한 개발권 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고, 구체적 사안별로는 산업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실리적인 외교 전개

4. 환경처 보고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주요 의제와 대응방향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7 대책 IV : 당정회의 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국제연합2과/남미과
MF번호 2022-81 / 4 / 1-134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내용임.

1. 일시 및 장소

- 1992.6.1. 여의도 당사

2. 참석자

- 정부 측(11): 국무총리, 부총리 2(경제기획원, 통일원),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 정무1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행정조정실장, 정무1장관실 차관
- 당 측(11):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2),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총재 비서실장, 대변인,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정무실장(3), 기획실장
- 청와대(1): 정무수석비서관

3. UNCED 관련 의제

- 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대책(외무부장관 발표)
- 환경안전에 관한 국가선언(환경처장관 발표)

92-112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8 대책 V : 기타)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5 / 1-181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기타 대책회의 및 보고서 내용임.

1. 보고서(외무부 국제경제국 작성)

-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요(1992.1월)
-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1992.3월)
-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대책(1992.3.31.)
-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대책(1992.4.20.)
- 한국의 지구환경 외교(1992.4월)

2. 언론보도

- 유엔환경회의 정부대책 미흡(1992.4.23., 조선일보)
- 환경문제는 선진국 가는 마지막 관문(4.23., 국민일보)
- 인구 문제 등 뜨거운 감자(4.27., 한겨레)
- 개도국 환경회의 개막(4.28., 세계일보)
- 환경 문제 대기업 관심유도(4.30., 한겨레)
- 환경파괴 각국 책임 떠넘기기(4.30., 조선일보)

3. UNCED 참가 실무대책회의 개최 추진

- 일시 및 장소: 1992.5.25. 외교안보연구원
- 회의 주재: 권인혁 환경대사
- 토의 주제
  - 회의 일정 및 참가계획
  - 회의 대표단 업무분장
  - 각 의제별 협상 대응방안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9 행사준비 I : 총괄)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6 / 1-168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행사 준비 관련 자료임.

1. 회의 기간

- 본회의(6.1.~10.)
- 정상원탁회의(6.11.~12.)

2. 참석대상

- 유엔회원국 국가원수, 정부 관리 및 NGO 대표 등 약 2만 명

3. 주요 의제

-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기본 행동 강령인 '21세기 지구헌장' 채택
- 선진·개도국 간의 지구환경협력체제 수립
-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4. UNCED 관련 자료

- UNCED 회의 관련 준비사무국 자료, 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부대행사 내용, 환경기술박람회 내용
- 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보고(1992.1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1992 UNCED 회의 관련 행정 준비자료(1992.3.12., 과학환경과)
- UNCED 회의 참가 대비 행정 준비사항(1992.3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대표단 구성, 항공편 관계(출입국 일정), 숙소 관계, 차량 관계, 통신 관계, CP 설치, 회의 참석 및 지원계획, 선발대, 홍보 관계, 예산 조치계획, 세부업무 추진계획
- 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브리핑 자료(1992.3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UNCED 회의 관련 개요, 의전 및 행정 관련, Check List, UNCED 실무대표단 활동계획 및 업무분장
- 1992 UNCED 회의 관련 준비사무국(GTN) 자료

92-113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0 행사준비 II : 총리 일정)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7 / 1-184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한 정원식 국무총리의 회의 참석 일정 관련 교섭내용과 면담자료임.

1. 참석 일정(안)

- 6.11.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환경처장관 주최 만찬
- 6.12. 총리 주재 대책회의, 브라질 부통령 주최 오찬, 주브라질대사 주최 만찬
- 6.13. 총리 주재 조찬 대책회의, 정상회의 참석, 브라질 대통령 주최 오·만찬
- 6.14. 총리 주재 조찬 대책회의, 정상회의(문건 서명식) 및 폐회식, 총리 주최 오찬, 비공식만찬

2. 면담 및 접촉 관련 자료

- 한·브라질 총리회담 자료
- 국무총리 리우 환경회의 참가 대화자료
  - Salinas 멕시코 대통령, Serrano 과테말라 대통령, Hoyte 가이아나 대통령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1 행사준비 I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8 / 1-141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한 권이혁 환경처장관의 회의 참석 일정과 수행기자단 관련 자료임.

1. 환경처장관
- UNCED 행사 관련 환경처장관 일정계획
- 리우 환경회의 참석 중 외국 수석대표와의 면담 주선 교섭내용 및 회담 결과
  - 권이혁 장관의 Kelly 호주 환경장관과의 회담 결과

2. 기자단
- UNCED 참석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조 제공 및 안내자료
  - Tele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Guide, Earth Summit '92, Rio de Janeiro-Brazil
  - Press Release: Earth Summit News, Media & Information Office, Earth Summit '92

92-113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2 행사준비 IV)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9 / 1-148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을 위한 호텔, 통신 및 출입증 관련 사항임.

1. 호텔

- 1992.3.28. 외무부, UNCED 회의에 참가 예정인 한국대표단 숙소로 아래 2개 호텔을 지정, 잠정 숙박 소요량을 통보하고 예약하도록 주브라질대사관에 지시
  - Rio Atlantic Suite Hotel(Five star): 국무총리 및 수행 장·차관 등 고위인사 숙소
  - Savoy Othon Hotel(Four star): 각 부처 대표단 및 기자단 숙소

2. 통신

- 한국대표단 및 기자단 숙소에 설치할 통신장비(전화, Fax 등)와 대표단 및 기자단 활동용 이동무선전화, 워키토키 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제공내용

3. 출입증

- UNCED 정상회의 참석자 출입증 및 대표단 신분증 발급 관련 내용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3 홍보, 해설, 보도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0 / 1-154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홍보, 해설, 보도자료임.

1. 유엔환경과 개발회의 – 회의 개요 및 의제별 쟁점(1992.4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2.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대책(1992.4.8., 국제경제국 과학환경과)

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준비 동향과 향후 전개 전망(1992.4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4. 보도자료 및 보도 해설자료: 정원식 국무총리, 유엔환경개발회의 참석 및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5. 보도자료: UN 환경개발회의의 주요 쟁점과 협상 대응방안

6. UNCED 관련 MBC 토론자료(1992.6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92-113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4 UNCED 한국위원회(NGO))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1 / 1-234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대비하여 구성된 UNCED 한국위원회 및 UNCED 계기 개최된 NGO 관련 회의자료임.

1. UNCED 한국위원회 구성

- 조직: 1992.3.6. 권숙표 연세대 교수(위원장) 외 학계·언론계 및 종교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
- 목적: UNCED 대비, 한국의 민간 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한시적 기구로서 민간차원의 대책 추진
- 활동 계획
  - UNCED 회의에 민간대표단 25명 파견
  - UNCED 및 기타 부대행사 참석
  - 환경의 날(6.5.) 기념 국내 학술·문화행사 총괄 및 개최

2. UNCED 계기 NGO 회의자료

- 2 Global Forum(Issue 2, August 1991)
  - A series of simultaneous events which provide an opportunity for all sectors to express their independent views at the time of the Earth Summit
- International NGO Forum - Rio de Janeiro, Brazil, June 1~14, 1992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5 부의장국 선출)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2 / 1-187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부의장국 선출 관련 내용임.

1. UNCED 의장단 구성

- 의장국(1): 브라질
- 부의장국(39): 아시아(9), 유럽(7), 아프리카(11), 동유럽(4), 중남미(8)

2. 한국의 UNCED 부의장국 피선

- 1992.6.4. 한국은 UNCED 부의장국으로 피선
  - 아시아그룹 9개 의석에 12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한국, 바누아투, 몰디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경합
  - 표결 직전 일본,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입후보를 철회, 한국 포함 9개국이 컨센서스로 피선

3. UNCED 부의장국 피선을 위한 지지 확보 활동

- 1992.5.21. 외무부는 한국이 UNCED 부의장국으로 피선될 수 있도록 각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의 지지 확보 활동 전개를 지시
- 6.8. 각 재외공관에 UNCED 부의장국 선거 결과를 통보하고, 한국에 대해 지지 또는 호의를 표명한 주재국 측에 적절히 사의를 전달하도록 지시

92-113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6 회의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3 / 1-192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일반회의 및 정상회의 결과와 정원식 국무총리의 활동내용임.

1. UNCED 일반회의

- 의장단 선출: 한국은 아시아 그룹 추천 부의장국에 피선되어 새로운 지구환경 질서 논의에 적극적 참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재정지원 방안 타결: 기존 GEF(지구환경기금)의 확대 및 ODA(공적개발원조)의 증액에 합의
-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타협안 마련: 공공기관 소유 기술이전 촉진에 합의
- 환경과 무역 문제: 환경이 차별적인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포함
- 지속개발위원회를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 Agenda 21의 이행사항 점검

2. UNCED 정상회의

- 정상 원탁회의(1992.6.13.)
  - 유엔사무총장, UNCED 사무총장, 브라질 대통령, 5개 지역 그룹 대표(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멕시코, 보츠와나, 파키스탄) 등 8명이 연설을 통해 지구환경 보존은 시급한 인류의 과제이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
-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서명식(6.13.)
  - 약 1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정상회의의 성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협약에 서명하는 상황을 감안, 정원식 국무총리도 서명
- UNCED 정상회의는 1992.6.14.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강령인 '의제 21', '산림보전 원칙' 등을 채택한 후 폐막

3. 정원식 국무총리 활동

- 기조연설: 한국 정부가 '지구의 날'을 기해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선언을 선포했음을 알리고,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를 위한 남북 공동 및 유엔기구와의 협력사업과 동아시아지역의 환경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기구 설치 제안
- 정상 원탁회의,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서명식 참석
- 회의 참석을 전후하여 파라과이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및 캐나다 총리를 각각 별도 면담,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교환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7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4 / 1-197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 관련 자료임.

1. UN 환경개발회의 참석 결과보고서(1992.6.15.,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산관실)

2. UN 환경개발회의 채택 문서집(I)(1992.6월, 농림수산부)
   - Rio 선언, 생물다양성보호협약(영문), 「의제 21」 주요 골자

3. UNCED 참가 보고서(1992.7.6., 동력자원부)

4. Agenda 21 제도 분야 관련 초안

5. Agenda 21 제17장(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제39장(국제법 체제), 제38장(국제 제도장치)

6.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 결과보고(1992.6.23., 국무총리)
   - 회의 경과 및 의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동향, 대표단 활동 및 성과, 평가 및 전망, 대처 방향

7. 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 및 외교적 대응방안(1992.6.23., 외무부)

92-1139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8 자료)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1 / 15 / 1-212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자료임.

1. 연설문

-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 국무총리 연설문(안)(1992.5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환경처장관 연설문(안)(1992.5월, 환경처)
- 유엔환경개발회의 국무총리 기조연설문(국·영문)

2. 기타 자료

- Agenda 78에 관한 한국대표단 발언문(1991.11.18.)
- Korea's position on the 1992 UNCED
- 출장보고서: 국제기구변화협약 제4차 정부간 협상회의(1991.12.9.~20., 제네바), 과학기술 전문가로서의 회의 진행 평가보고(한국과학기술원 최상민)
- 지구환경문제 대응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안)
- 환경문제 고려: 일본 오사카시 계절오염 방지대책 강연회 발표문
- 세계기후변화협약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참석 결과보고(1991.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계량분석연구팀)
- 환경세 설명자료
- 제46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처리된 총회 결의안 목록
- 환경 관련 신문기사
- Earth Summit Bulletin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19 각국 대표단 및 동향 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2 / 1 / 1-253

1992.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각국의 국가위원회 설치 및 미국, 캐나다의 참가 동향임.

1. 국가위원회 설치 동향

- 1991.6.13. 외무부 지시에 의거,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러시아(구 소련)·인도·태국·캐나다 주재 대사관은 주재국의 UNCED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의 조직, 운영 등을 파악, 외무부에 보고

2. 미국

- 1992.2.4. 미 하원 중남미 소위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부시 미국 대통령의 UNCED 참석 촉구
  - 결의안 및 증언문 수록
- 5.12. 부시 대통령, UNCED 총회 참석 공식 발표
- 6.1. 부시 대통령, UNCED 정상회담 시 전 세계적 차원의 환경보호 의지 강화를 위해 4개 항목의 환경협력 구상 발표
  - 산림보존 구상, 기후변화 방지 실천계획, 기술협력 프로그램, 조사·연구사업 지속적 추진
  - 부시 행정부의 산림보호 구상과 환경 분야 업적 관련 보도자료 수록
- 6.9. 부시 대통령,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UNCED 관련 배경 설명
  - 기후변화 방지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산림 및 해양 분야 등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1992년 말까지 유자망 조업 금지를 위한 한국 등과의 협력 현황 언급
- 6.11. 부시 대통령, UNCED 참석차 출발에 앞서 환경보존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UNCED에서의 미국 국익 수호를 강조하는 성명 발표

3. 캐나다

- UNCED 캐나다 대표단: Mulroney 총리(수석대표, 정상회의만 참석), McDougall 외무장관, Charest 환경장관, Corsbie 수산장관(해양 문제 토의에만 참석), Landry 개발장관
- 캐나다 수산장관은 UNCED 회의장 밖에서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한국과 EC(구주공동체)의 원양어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1993년 1/4분기 중 캐나다 New Foundland에서 공해상 어업을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 의사 표명

92-114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0 각국 대표단 및 동향 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2 / 2 / 1-192

1992.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참가 동향임.

1. 아시아

-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호주, 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피지,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미얀마, 대만(구 중화민국), 몽골의 UNCED 참석 대표단 결정 동향
- 뉴질랜드·호주 환경장관회담
  - 1992.6월 브라질 개최 UNCED 대책 등 양국 간 환경 분야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공동성명 발표
  - UNCED 회의에서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동 회의가 구체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유럽지역 국가의 입장 지지
- 호주 정부는 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에 각각 서명하기로 결정
  - 동 협약은 1992.5.25. 및 6.1. 각의 의결

2. 중남미

-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수리남, 자메이카, 페루,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의 UNCED 참석 대표단 결정 동향

3.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예멘, 모리타니, 쿠웨이트,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카타르, 리비아, 튀니지, 수단, 알제리, 오만, 이란의 UNCED 참석 대표단 결정 동향
- 이집트 환경 실행계획 국제회의(1992.5.23.~24., 카이로) 동향

4.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가봉, 우간다, 세네갈, 케냐, 에티오피아,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UNCED 참석 대표단 결정 동향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1 각국 대표단 및 동향 I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2 / 3 / 1-185

1992.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유럽, EC(구 주공동체), 북한 등의 참가 동향임.

1. 유럽

- 영국, 핀란드, 독일,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불가리아, 러시아, 덴마크,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루마니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포르투갈, 교황청, 유고의 UNCED 참석 대표단 결정 동향
- 1992.1.23. Poul Schluter 덴마크 총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환경문제 국제회의에서 UNCED의 성공 조건에 관한 견해 피력
- UNCED(Earth Summit)에 관한 영국 외무부 Backgroud Brief(5월)
- UNCED에 관한 교황청 입장을 밝힌 Memorandum(5.19., 교황청 국무부)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UNCED 정상회의 기조연설 내용, 프랑스 외무부의 UNCED 평가, 언론 반응

2. EC의 정식 참가 문제

- EC는 1992.3.12. UNCED에 옵서버가 아닌 완전한 지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UNCED 의사규칙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 지지 요청
- 한국 측 입장: EC의 제안 취지와 유엔 주관 국제회의에 EC가 완전한 지위로 참가한 선례가 있음을 감안, EC 측 제안에 대한 긍정적 고려는 가능하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 태도 표명은 유보하면서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대처
  - EC에 대한 별도 투표권 부여는 불가하며, EC의 환경문제 대외협상 권한 보유 여부 문제도 있어 중립적 입장 견지
  - EC 회원국 내 의견 불일치, 일부 개도국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

3. 북한

- 북한은 UNCED에 강희원 정무원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김형우 최고인민회의 의원 겸 국제문제연구소 자문관 외 5명의 대표단 파견

4. 기타

- 유네스코 환경 및 개발 관련 협의회 개최(1992.4.10., 파리), 유네스코 사무총장 UNCED 불참

92-1143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2 부대행사 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2 / 4 / 1-135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부대행사 관련 내용임.

1. UNCED 관련 부대행사

- 공식행사
  - 세계도시회의(World Forum of Cities): 1992.5.28.~29., 쿠리치바
  - 국제환경기술박람회(Int'l Exhibi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1992.6.5.~11., 상파울루
  - 국제언론가 대회(Internatioal Journalists Meeting): 1992.5.20.~24., 벨루오리존치
  - 국회의원 대회(Parliamentary Earth Summit): 1992.6.5.~7., 리우데자네이루
  - 기타 NGO 회의, Forest 92(국제 열대식물 환경조사 심포지엄), ECO-URBS 92(국제도시환경 문제 세미나)
- 각종 사회, 문화 행사
  - 전시회, 과학·학술 행사, 문화 행사, 인디오 행사 등

2. 국회의원 범지구 정상회의

- Global Forum 및 브라질 국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회의원 범지구 정상회의(The Global Parliamentary Earth Summit)가 1992.6.5.~7.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 Parliamentary Earth Summit 소개자료 수록
- 한국 국회대표단
  - 박준병 의원(단장, 민자당), 서상목 의원(민자당), 손세일 의원(민주당), 김동길 의원(국민당)

3. 국제언론가 대회

- 회의명: 국제언론가 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Journalists on Environment & Development: Green Press)
- 회의 주최: Int'l Organization of Journalists, 브라질 전국 기자연맹, Minasgerais주 기자협회
- 회의 일자 및 장소: 1992.5.20.~24. 벨루오리존치
- 회의 목적: 환경보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 토의
- 대회 참가 한국기자단
  - 황보영춘 문화일보 기자 외 한겨레신문, 코리아타임즈, 기독교방송 기자 등 4명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92.6.3.-14. 전23권 (V.23 부대행사 II)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연합2과 / 남미과
MF번호 2022-82 / 5 / 1-134

1992.6.3.~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부대행사 관련 내용임.

1. 세계도시대회(1992.5.28.~29., 쿠리치바)

- 회의명: 세계도시회의(World Forum of Cities)
- 주요 의제
  - 도시환경보호를 위한 경험과 대책 토의
  - Curitiba 헌장(Charter of Curitiba) 채택
  - 국제환경기금 조성 논의
- 회의 주최 및 후원: Curitiba시 및 UNDP(유엔개발계획)
- 대표단: 유익현 서울시 환경과장, 한명극 인천시 환경보호과장 외 서울시·인천시 환경 및 조경담당 공무원 2명

2. 기타 부대행사

- 중남미 환경 및 고체형 폐기물 관리 주요 도시 시장회의(1991.11.11.~16., 상파울루)
- 제2차 국제열대식물 환경조사 심포지엄(Forest '92) 및 제1차 국제도시환경 문제 세미나(ECO-URBS '92)(1992.5.24.~29., 리우데자네이루)
- 환경 관련 기자재, 제품, 기술 관계 박람회(ECO-BRAZIL)(1992.6.6.~11., 상파울루)
- 인디오 행사(Indian Agenda): 리우데자네이루에 인디오 촌락 설치, UNCED 참석자 및 일반 공개
- 기타 체육경기: 승마, 마라톤, 골프, 축구, 해상 조정, 요트경기 개최

3. 로마클럽 후쿠오카 회의(1992.5.12.~14., 일본 후쿠오카)

- 지구환경 문제를 토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후쿠오카 선언문' 채택

92-114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현인회의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2-82 / 6 / 1-115

1991~92년 중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현인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최 배경

- UNCED 준비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협상 난항 봉착
- UNCED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 주요 수뇌들과 저명인사들에게 현인회의 개최 요청
- 비공식 회의이나 세계 유력인사 참가로 UNCED 협상에 기여

2. 현인회의(Wiseman's meeting) 개최 개요

-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주재 회의(1991.11.18.~20., 독일)
  - 회의 결과: 환경과 경제정책 간의 조화 문제를 토의하고 성명 채택
  - 참석자: 태국 수상,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환경상, 브라질 과학기술상, UNCED 사무총장 등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제청 세계 NGO 회의(1991.12.17.~20., 파리)
  - 회의 결과(3개 문건 채택): 환경과 개발에 관한 NGO 입장, UNCED 회의에 대한 NGO의 종합 접근 방법, 환경과 개발에 관한 90년대 행동계획
- 다케시타 일본 전 수상 주재 회의(1992.4.15.~17., 도쿄)
  - 재정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경 선언 채택
-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 주재 회의(1992.4월)
  - 회의 목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수정안 채택 및 건의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1992년(Ⅰ)

인 쇄 | 2023년 3월 15일
발 행 | 2023년 4월 1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권기창, 류광철, 박강호, 송금영, 엄기영, 이강국, 이호성, 정인균

감수위원 하태윤

인 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